

허주집

玄洲集

下

2

조찬한 지음
趙續韓

허주집

玄洲集

下

2

조찬한 지음
趙續韓

聖顔色之賜。畜物徒知戀主。猶以寵
廟謨之主。和以致畫工之逞詐。金多少
何心。天咫尺而欺謾孰不可忍。無面目
目列於三千。有天鑑之孔昭。肆不憚其一
意不如也。夫孰曰像惟肖乎。若果名實之

宜去留之失擇。況今安社之計。必在婦人
平胡之功。不借英雄之手。雖百骸歸于土
域中。知一死賢於生。亦不敢負陛下。當承
辭於犬羊。苟利邦家。尚可行於蠻貊。第惟
諒非丐兔之飾辭。若論妍蚩。當世之無
威武比屋之壯士不窮。盡執取捨之兩
義。當時紫極。猶望袞龍之光。今日



9 791196 800604

ISBN 979-11-968006-0-4

비매품
93910

허주집

下

2

조찬한 지음
趙續韓

玄洲集

일러두기

1. 이 책의 번역 대본은 국립중앙도서관장본(도서번호 일산古3648-文72-17)이다.
2. 내용이 간단한 역주는 간주(間註)로, 긴 역주는 각주(脚註)로 처리하였다.
3. 한자는 필요한 경우 이해를 돕기 위하여 넣었으며, 운문(韻文)은 원문을 병기하였다.
4. 맞춤법과 띄어쓰기는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을 따랐다.
5. 이 책에 사용한 부호는 다음과 같다.
 - (): 번역문과 음이 같은 한자를 묶는다.
 - []: 번역문과 뜻이 같으나 음이 다른 한자를 묶는다.
 - “ ”: 대화 등의 인용문을 묶는다.
 - ‘ ’: “ ” 안의 재인용 또는 강조 문구를 묶는다.
 - 「 」: ‘ ’ 안의 재인용을 묶는다.
 - 『 』: 「 」 안의 재인용을 묶는다.
 - 《 》: 책명 및 각주의 전거(典據)를 묶는다.
 - 〈 〉: 책의 편명 및 운문 산문의 제목을 묶는다.
 - : 원문의 결자 빈자리를 비워 둠을 나타낸다.

발간사

(재)한국학호남진흥원은 호남권 한국학 진흥과 민족문화 균형 발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공동 출연한 학술기관입니다. 개원 1년의 성과를 상재합니다.

본원은 그동안 고문서 수집 집성, 근대 문집의 표점 영인, 고문서·일기·선현 문집 국역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상의 과제는 두 범주로 요약됩니다.

하나, 호남한국학 기초자료 발굴
둘, 호남 사상·생활문헌 국역

이상의 연구사업은 서세동점 이후 구학(舊學)·구습(舊習)으로 폄하되었던 전통적 학술사조와 생활세계를 탈근대 차원에서 재구성한다는 목표 아래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지난 위망과 극단의 세월에 덧씌워진 ‘소국 트라우마’ ‘문명콤플렉스’와 같은 문화심리의 질곡을 걷어내고자 합니다. 또한 호혜 공존의 생활지혜 나아가 법고창신(法古創新) 연구혁신(沿舊革新)의 사유 역정이야말로 당당한 새로운 미래 설계의 자양임을 웅변하고 싶습니다.

201년9 8월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원장 이 종 범

목차

현주집 제13권

부賦

삼십육궁도시춘부 三十六宮都是春賦	13
탈검기무부 拔劍起舞賦	30
봉황천인부 鳳凰翔千仞賦	49
사석호부 射石虎賦	66
필간부 筆諫賦	84
수서부 穗書賦	99
하도부 河圖賦	108
예미귀부 曳尾龜賦	116
황룡부주부 黃龍負舟賦	126
염거유절족부 鹽車有絕足賦	135
작소부 鵲巢賦	143
임하탄부 臨河歎賦	150
춘교목우도부 春郊牧牛圖賦	159

수세부 守歲賦	164
적벽부 赤壁賦	170
반적벽부 反赤壁賦	176
초명부 蟪蛄賦	182
삼십육궁도시춘부 三十六宮都是春賦	186
칠석부 七夕賦	192
나지묘부 羅池廟賦	197
거부 車賦	203
완구부 完丘賦	213
채국동리하부 採菊東籬下賦	218
훈자 訓子	223

사辭

발도사 發棹辭	231
애주부윤을 전송하는 노래 送愛州尹辭	233

현주집 제14권

제문祭文

죽은 아내에게 올리는 제문 祭亡室文	239
습정 임환에게 올리는 제문 祭習靜文	248
죽은 벗 백순 김창효에게 올리는 제문 祭亡友金伯順 昌孝	257
우윤 원황에게 올리는 제문 祭元右尹文	261

농암 김주 선생에게 올리는 제문 祭籠巖先生金公文	267
사간 하위지에게 올리는 제문 祭河司諫文	272
영의정 신희 치제에 올리는 제문 卒領議政申欽致祭祭文	275
좌랑 신헌익을 제사지내는 애사 祭愼佐郎哀辭	278
매의 죽음을 애도하는 글 哀鷹文	280
월출산 구정봉 기우문 月出山九井峯祈雨文	284
월출산 천왕봉 기우문 月出山天王峯祈雨文	287
천왕봉에 두 번째로 올리는 기우문 天王峯再祈文	289
주룡도 기우문 駐龍渡祈雨文	293
철탄산에 관원을 보낸 기우문 鐵呑山差員祈雨文	296
식사정 기우문 食沙井祈雨文	298
철탄산 두 번째 기우문 鐵呑山再祈文	301
명銘	
연명 硯銘	303

현주집 제15권 상

서序

신씨 동자들에게 준 서 贈愼童子序	307
호남방백 정춘 윤휘에게 준 송서 贈湖南方伯尹靜春序 暉	310
영남 방백에게 준 송서 贈嶺南方伯序	314

기 막부에게 준 송서 送奇幕府序	316
수안군수로 부임하는 익지 홍서익에게 준 송서 送洪翼之赴遂安郡序	319
단주로 부임하는 백원 박효성에게 준 송서 送朴百源赴端州序	321
연기 수령 최씨에게 준 서 贈崔燕岐序	323
괴산 수령 오숙에게 준 서 贈吳槐山序	325
여주 목사 오숙에게 준 서 贈吳驪州序	327
연경에 가는 자중 김시양에게 준 송서 送金子中赴燕京序	330
연경으로 가는 벗에게 주는 송서 送友人赴燕京序	332
사은사 이흥주를 보내는 시의 서문 送謝恩使詩序	334
회답부사 박공과 이별하면서 준 서 贈別回答副使朴公序	336
회답부사 강홍중 공에게 준 송서 送回答副使姜公序	337
계우책의 서문 溪友冊序	339
백옥봉 집에 소장한 김 사포의 산수도 소병풍의 서문 白玉峯家藏小屏金司圃山水圖序	342
사계정사 시책의 서문 沙溪精舍詩冊序	345
북창과 고옥 시의 서문 北窓古玉詩序	347
만성재 서문 晩省齋序	349
기와 서문 崎窩序	351
성암정사 서문 星巖精舍序	352
만구정 서문 伴鷗亭序	355

금구당 서문 肯構堂序	357

기記

신루 기문 蜃樓記	359
산우정 기문 山雨亭記	362
풍정 기문 楓亭記	364
쌍송당 기문 雙松堂記	366
용졸당 기문 用拙堂記	368
죽수서원 중수기 重修竹樹書院記	370
이산서원 흥폐에 대한 기문 퇴계 선생 서원 伊山書院興廢記 退溪先生書院	374
방씨 서첩 유실에 대한 기문 房氏書貼遺失記	379
월사 상국 시판의 후기 月沙相國詩板後記	383
봉위에 대한 기문 蜂衛記	386
곤륜의 복숭아 씨에 대한 기문 崑崙核記	389
곤륜의 복숭아 씨에 대한 기문 두 번째 崑崙核記	391
검호 유기 遊劍湖記	393
천왕봉 기우 동행기 天王峯祈雨同行記	395
천마산과 성거산 유산기 遊天磨聖居兩山記	398

설說

백이가 명성을 위해 죽었다는 것에 대한 설 伯夷死名說	409
대은은 마음을 숨긴다는 것에 대한 설 大隱隱心說	412
혀로 글을 짜는 것에 대한 설 舌織說	415

돼지 우리에 대한 설 圈豚說	416
관악기가 육성보다 못하다는 것에 대한 설 竹不如肉辨	418
대對	
현부대 玄夫對	421
논論	
사악이 곤을 천거한 것에 대한 논 四岳薦鮀論	427
밖의 경계가 없는 것에 대한 논 無外論	430
전傳	
송생전 宋生傳	433
대부송전 大夫松傳	437
탕파전 湯婆傳	440
해상에서 거북을 낚는 객에 대한 전 海上釣鼈客傳	442
서書	
택풍당 이식에게 답하는 편지 答李澤風書	445
항아가 직녀에서 주는 것으로 상정하여 지은 편지 擬嫦娥與織女書	451
발跋	
석천 권래(權來)의 《유산록》 발문 權石泉遊山錄跋	453
지명誌銘	
습정 임환 군의 묘지명 林君習靜墓誌銘	455

고 좌랑 신군 묘갈명 故佐郎愼君墓碣銘	462
망공 묘갈명 房公墓碣銘	466
기 빙군의 묘표 음기 奇聘君墓表陰記	469

통문通文

회양향교 중수 통문 淮陽鄉校重修通文	471

현주집 제15권 하

기記

함재기 涵齋記	477

서序

연경으로 가는 윤정춘에게 주는 서문 贈尹靜春赴燕京序	479

변辨

덕에 길함과 흉함이 있다는 데 대한 변 德有吉有凶辨	483

서書

장량이 사호를 초청하는 편지 張良請四皓書	487

발跋

《양선생왕복서》에 대한 발문 兩先生往復書跋	493

묘갈명墓碣銘

현주 조공의 묘갈명 玄洲趙公墓碣銘	495
현주집 발문 玄洲集跋	507
현주집 지 玄洲集識	509

현주집

제13권

辭 賦
사 부

부賦

삼십육궁도시춘¹부

三十六宮都是春賦

세상에 지리자²가 있어

世有支離子

어려서 집을 잃어 무리와 떨어져 홀로 지내고

弱喪離索

- 1 삼십육궁도시춘(三十六宮都是春) : 송(宋)나라의 소옹이 <관물음(觀物吟)>에서 “이목이 총명한 남자의 몸으로 태어났으니, 하늘이 부여한 것이 빈약하지 않다. 월궁을 찾아야만 사물을 알게 되고, 천근을 밟지 않으면 사람을 어떻게 알겠는가. 건이 손을 만난 때에 월궁을 보고, 곤이 진을 만난 때에 천근을 보네. 천근과 월궁이 한가히 왕래하는 중에, 삼십육궁이 모두 봄이로구나.[耳目聰明男子身, 洪鈞賦與不爲貧. 須探月窟方知物, 未躡天根豈識人? 乾遇巽時觀月窟, 地逢雷處見天根. 天根月窟閒往來, 三十六宮都是春.]”라고 한 것을 가리킨다. 삼십육궁은 64괘(卦)와 같은 것으로서 64괘 모두가 하나의 봄기운의 연속이라는 뜻이다. 성호(星湖) 이익(李瀾)은 “36궁에 대해 ‘64괘 중에 변역(變易)하는 괘가 8이니, 건괘(乾卦)·곤괘(坤卦)·감괘(坎卦)·이괘(離卦)·이괘(頤卦)·대과괘(大過卦)·중부괘(中孚卦)·소과괘(小過卦)이고, 교역(交易)하는 괘가 56이니, 둔괘(屯卦)·몽괘(蒙卦) 이하가 그것이다. 변역은 8괘가 각각 한 궁이 되고, 교역은 2괘가 합하여 한 궁이 된다.’라고 하였으니, 이 해설이 가장 타당하다 하겠다.”라고 하였다. 《星湖僊說 卷20 經史門 三十六宮》
- 2 지리자(支離子) : 《장자(莊子)》 <인간세(人間世)>에 나오는 꼽추 지리소(支離疏)처럼 세상의 해침을 받지 않고 자신의 덕을 온전하게 보존하며 사는 사람을 말한다.

맹인처럼 더듬더듬 길을 잃고 헤매며	摘埴偂偂
무시공 ³ 과 벗하고	友無是公
무하유지향 ⁴ 에 거하네	處何有鄉
삶의 이치에 통달하지 못했으니	不達生之理
어찌 죽음의 도리를 궁구했겠는가	焉窮死之方
이미 저 천지를 알지 못하는데	既未知夫天地
또한 어찌 음양을 분별하겠는가	又何卞於陰陽
검영씨 ⁵ 그의 집에 찾아가	黔羸氏往而造其廬
마침내 힐난하여 말하기를	遂詰之曰
“저 부여와 풍익 ⁶ 은	夫扶輿憑翼
큰 기가 일으키고	大氣舉之
많고 많은 사물은	物之林林
오직 천리가 만들었으니	惟理之爲
만물 가운데 빼어나 총명한 이로는	挺吹萬以聰明
아! 우리 인간이 최고입니다	懿莫我之爲最

-
- 3 무시공(無是公) : 한(漢)나라 사마상여(司馬相如)의 〈자허부(子虛賦)〉에 나오는 가공의 인물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의미이다. 《史記 卷117 司馬相如列傳》
- 4 무하유지향(無何有之鄉) : 유무(有無)와 시비(是非) 등 모든 대립적 요소가 사라진 이상향(理想鄉) 뜻한다. 《장자(莊子)》〈소요유(逍遙遊)〉에서 “지금 자네가 큰 나무를 가지고 있으면서 쓸모가 없다고 걱정한다면, 어찌하여 아무것도 없는 마을[無何有之鄉]의 광막한 들판에 다 심어 놓으려고 하지 않는가.”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 5 검영씨(黔羸氏) : 하늘 위의 조화(造化)의 신이라고 하고 혹은 수신(水神)이라고도 한다.
- 6 부여(扶輿)와 풍익(憑翼) : 천지가 생기기 이전의 혼돈 상태를 의미한다. 부여는 기가 기운차게 서려 있는 모양이고, 풍익(憑翼)은 풍익(馮翼)과 같은 말로 형체가 없는 모양이다.

그러므로 성인과 달사는	是故聖人達士
하늘과 짝하고 땅을 본받으며	配天則地
현묘하고 지극한 이치를 궁구하여	窮玄察極
천도를 정밀하게 살피고	妙觀天咫
허령한 마음을 들여다보아	鑑方寸之虛靈
냄새도 없고 소리도 없는 천리 ⁷ 를 찾습니다	究無臭而無聲
지금 그대는 먼 변방에서 멍하니 앉아	今吾子塊嘿遐外
마음과 눈 모두 잊어버렸고	兩忘心目
의심하지 않고 스스로를 믿으니	無疑自信
무슨 깨달은 것이 있습니까” 했네	有何見識
지리자 땀을 흘리며 얼굴 붉어져 대답하기를	支離子汗容赧面而對曰
“무지한 이 사람은	賤子倥侗
실로 인간 축에 든다 해도	苟充物類
어리석고 노쇠하여	朱愚白老
짐승처럼 숨 쉬고 새처럼 눈만 뜬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⁸	禽息鳥視
이미 사람의 도리에 어두우니	既昧人則
어찌 천도에 밝겠습니까” 했네	詎明天咫
검영씨가 세 번 사양하고	黔羸氏三讓

7 냄새도…천리(天理) : 《시경》〈대아(大雅) 문왕(文王)〉에 “상천의 일은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다.[上天之載, 無聲無臭.]”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8 짐승처럼…있습니다[禽息鳥視] : 부질없이 살아가면서 세상에 보탬이 없다는 의미이다. 조식(曹植)의 〈구자시표(求自試表)〉에서 “헛되이 사람들의 위자리를 차지하고 막중한 녹봉을 받으면서 짐승처럼 숨을 쉬고 새처럼 눈만 뜬 채 결국 흰 머리로 세상을 마친다면 이것은 한갓 우리에게 갇혀서 길러지는 동물에 불과할 것이니 이것은 신의 마음이 지향하는 바가 아닙니다.[虛荷上位, 而忝重祿, 禽息鳥視, 終於白首, 此徒圜牢之養物, 非臣之所志也.]”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나아와 가르치기를 進而教之曰
 “《역》의 교역하고 번역하는 이치를 모르면 夫不知義卦交易變易之理
 영허소장과 길흉비태⁹의 기미에 어둡고 則泥於盈虛消長吉凶否泰之機
 영허소장과 길흉비태의 기미에 어두우면 泥於盈虛消長吉凶否泰之機
 끝내 초목 토석 금수로 떨어집니다 則終爲草木土石鳥獸之歸矣
 장차 그대를 위해 소옹의 삼십육궁이 모두 봄이라는 설에 대해 자세
 히 말하려 하니 僕將爲吾子觀繆邵子三十六宮都是春之說
 그대는 듣고 싶지 않습니까” 했네 子不欲聞之乎
 이에 지리자 일어나서 물어 말하기를 於是支離子起而問焉曰
 “무엇을 삼십육궁이라고 합니까 何謂其三十六宮也
 그 대체를 듣고자 합니다” 했네 願承其槩
 검영씨가 말하기를 黔羸氏曰
 “알겠습니다. 궁이라는 것은 諾其爲宮也
 홍몽¹⁰에 기초하고 혼돈¹¹에 접하여 基鴻濛接混沌

- 9 영허소장(盈虛消長)과 길흉비태(吉凶否泰) : 영허소장은 사물의 성쇠(盛衰)와 변화를 이르고, 길흉비태는 운명의 좋고 나쁨과 사정의 순탄, 역경을 말한다. 비태(否泰)는 본래 《주역》의 두 괘 이름인데, 비는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이 아래에 있어서 천지가 서로 막히는 상이고, 태는 하늘이 아래에 있고 땅이 위에 있어서 천지가 서로 교섭하는 상으로, 막힌 운수와 트인 운수를 상징한다.
- 10 홍몽(鴻濛) : 우주가 형성되기 이전의 혼돈 상태를 뜻한다. 《장자(莊子)》〈在宥〉에서 “운장이 동쪽으로 놀러 나가 거대한 부요나무의 가지를 지나가다 때마침 홍몽과 만났다.[雲將東遊，過扶搖之枝，而適遭鴻濛.]”라고 하였는데, 성현영(成玄英)의 소(疏)에서 “홍몽은 원기이다.[鴻濛，元氣也.]”라고 하였다.
- 11 혼돈[混沌] : 원문 ‘혼망(混茫)’은 혼망(混茫)으로도 쓰는데, 천지가 아직 분화되기 이전 일체의 구분이 없는 혼돈(混沌) 상태를 가리킨다. 《장자(莊子)》〈선성(繕性)〉에 “옛사람들은 구별이 없는 혼돈 속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답박한 삶을 누리고 있었다.[古之人，

이기를 빚어내고 음양을 주조하니	陶理氣鑄陰陽
무극에서 시작되어	肇于無極
태시 ¹² 에서 형체가 생깁니다	形于太始
영륜 ¹³ 이 책력을 살펴 날을 점치고	伶倫考曆而卜日
복희가 하도를 살펴 ¹⁴ 터를 잡습니다	風犧視圖而相址
진재 ¹⁵ 를 장인으로 삼고	以真宰爲匠
조화를 화로로 삼으며	以造化爲鑪
풍륭 ¹⁶ 이 망치를 힘껏 두들겨 단련하고	豐隆奮椎而鍛冶
회록 ¹⁷ 이 불을 만들어 온기를 불어 넣습니다	回祿束蘊而吹噓
이에 태허를 들보로 삼고	於是太虛爲梁
소박을 주춧돌로 삼으며	素朴爲礎
현빈을 문으로 하고 ¹⁸	玄牝爲門

在混芒之中，與一世而得澹漠焉。”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 12 태시(太始) : 천지가 개벽하고 만물이 처음 형성되는 때를 가리킨다. 《열자(列子)》〈천서(天瑞)〉에서 “태시는 형체의 시초이다.[太始者，形之始也.]”라고 하였다.
- 13 영륜(伶倫) : 황제(黃帝) 때의 악관(樂官)으로서 악률(樂律)을 처음 만든 사람이다.
- 14 복희(伏羲)가 하도(河圖)를 살펴 : 복희는 전설 중에 나오는 고대의 제왕으로 성이 풍(風)씨이다. 복희의 시대에 황하(黃河)에서 등에 1에서부터 10까지의 문양이 그려진 용마(龍馬)가 나왔는데 이것이 하도로, 복희씨가 이것을 보고 《주역(周易)》의 괘(卦)를 그렸다고 한다.
- 15 진재(真宰) : 만물을 만들고 다스리는 조물주이다. 《장자(莊子)》〈제물론(齊物論)〉에 “진재가 있는 듯하지만 단지 그 조짐을 알 수 없다.[若有真宰，而特不得其朕.]”라고 하였다.
- 16 풍륭(豐隆) : 우레를 관장하는 신이다.
- 17 회록(回祿) : 불을 주관하는 신이다.
- 18 현빈(玄牝)을 문으로 하고 : 현빈은 만물을 생성하는 근원인 도(道)를 가리킨다. 《노자(老子)》에서 “곡신은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현빈이라 한다. 현빈의 문을 천지의 근원이라 한다.[谷神不死，是謂玄

자미성 ¹⁹ 을 위저 ²⁰ 에 배치하며	紫微配位
일월성신을 박로 ²¹ 로 하고	日月星辰以爲樛櫨
바람 구름 서리 이슬로 들창과 문을 삼았습니다	風雲霜露以爲牖戶
굳은 흙과 큰 나무로 꾸미지 않고도 우주를 견고하게 만들었고	無垧土大木之飾而鞏此宇宙
다듬고 깎는 수고 없었지만 만고토록 안온합니다	無鉤繩剗剗之勞而帖妥萬古
무형으로 단청하여	以無形爲丹青
색이 바래지 않고	色不漫漶
그치지 않음으로 지도리를 삼아	以不息爲樞機
좀 먹지 않고 부서지지 않습니다	不蠹不爛
점유한 자리에 대해 말해 보면	爾其占位
건이요 곤이요	則曰乾曰坤
그리고 진 감 이로	若震坎离
서로 낳고 서로 길러주어	相生相長
다투어 서로 베풀어져서	爭設互施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되고	爲男爲女
만물을 낳는 부모인 복이 되었다가 구가 되며	爲父母之復而姤
구가 다시 복이 되니	姤又復
천근은 아득하고	天遠根

牝. 玄牝之門, 是謂天地根.]”라고 하였다.

- 19 자미성(紫微星) : 북두성의 북쪽에 있는 별자리로, 천제(天帝)가 거처하는 곳이다.
- 20 위저(位宇) : 위(位)는 궁궐에서 신하들이 조회(朝會)할 때 늘어서는 위치이고, 저(宇)는 임금이 조회받기 위해 서 있는 위치이다.
- 21 박로(樛櫨) : 처마를 받들기 위해 기둥 위에 대는 목조 구조물을 말한다.

월굴은 깊숙합니다 ²²	月遂窟
이에 사계절이 생기고 ²³	爰舒慘
음양이 열리고 닫혀서	庸開闔
따뜻하다가 다시 싸늘해지고	暄且淒
추웠다가 또 뜨거워지니	寒又煥
빙그르 삼십육궁이 돌아갑니다	繚以周三十六
이것으로 음율을 살피면	以之而考其音律
황종과 대려 ²⁴ 가 맞지 않음이 없고	則黃鍾大呂兮無不中

- 22 만물을…깊숙합니다 : 《주역》의 두 괘인 복괘(復卦)와 구괘(姤卦)의 순환을 들어 음양이 순환하는 원리를 말한 것이다. 동지(冬至)에 한 양(陽)이 처음 생긴 것이 복괘(復卦)이고, 하지(夏至)에 한 음(陰)이 처음 생긴 것이 구괘(姤卦)이다. “복이 만물을 낳는 부모”라고 한 것은, 〈복괘 단(彖)〉에 “복에서 천지의 마음을 볼 수 있다.[復其見天地之心乎]”라고 하였는데, 이 대해 정전(程傳)에서 “일양이 아래에서 회복됨은 천지가 만물을 낳는 마음이다.[一陽復於下, 乃天地生物之心也.]”라고 풀이하였다. 천근(天根)은 하늘의 뿌리라는 뜻으로 양이 시작하는 복괘(復卦)를 가리키고, 월굴(月窟)은 달의 굴이라는 뜻으로 음이 시작하는 구괘(姤卦)를 가리킨다. 〈관물음(觀物吟)〉에서 “건이 손을 만난 때에 월굴을 보고, 곤이 진을 만난 때에 천근을 보네. 천근과 월굴이 한가히 왕래하는 중에, 삼십육궁이 모두 봄이로구나.[耳目聰明男子身, 洪鈞賦與不爲貧。須探月窟方知物, 未躡天根豈識人? 乾遇巽時觀月窟, 地逢雷處見天根。天根月窟閒往來, 三十六宮都是春.]”라고 하였는데, 건(☰)이 손(☵)을 만난 것이 바로 구괘(䷫)로 월굴이고, 곤(☷)이 진(☳)을 만난 것이 바로 복괘(䷗)로 천근이다.
- 23 사계절이 생겨고[舒慘] : 원문 ‘서참(舒慘)’은, 장형(張衡)의 〈서경부(西京賦)〉에서 “대저 사람은 봄과 여름의 시기에는 마음이 퍼져 유쾌해지고 가을과 겨울의 시기에는 근심한다.[夫人在陽時則舒, 在陰時則慘.]”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 24 황종(黃鍾)과 대려(大呂) : 12울을 가리킨다. 12울은 고대 악률(樂律)의 표준이 되는 음(音)으로, 양률(陽律)과 음률(陰律)로 나뉘는데, 양은 율(律)이라 하고 음은 여(呂)라 한다. 양률은 황종(黃鍾), 태주(太

이것으로 날의 차서를 변별하면	以之而卞其序次
자축인묘가 번갈아 쓰입니다	則子丑寅卯兮互爲用
오행과 조화하니 금목수토이고	叶于五行兮金木水土
오미와 합하니 신맛 매운맛 짠맛 쓴맛이며	合于五味兮酸辛鹹苦
청제는 동쪽에 거하고 백제는 서쪽에 거하고 ²⁵	靑帝居東兮白帝西
충융과 현명은 남쪽을 담당하고 또 북쪽을 담당합니다 ²⁶	祝融玄冥兮南又北
크고 다채로우며 널찍하고 트였으며	鴻紛博敞
혼돈 상태로 충만하여	混淪磅礴
구불구불 펼쳐지고 아득히 뻗어나가	紆餘垧圯

簇), 고선(姑洗), 유빈(蕤賓), 이칙(夷則), 무역(無射)이고, 음률은 대려(大呂), 협종(夾鍾), 중려(仲呂), 임종(林鍾), 남려(南呂), 응종(應鍾)이다.

- 25 청제(靑帝)는…거하고 : 청제와 백제(白帝)는 중국 고대 신화의 다섯 천제(天帝) 중 두 신이다. 다섯 천제는 오방(五方)의 천제로 봄을 관장하는 동방(東方) 목(木)의 청제, 여름을 관장하는 남방(南方) 화(火)의 적제(赤帝), 중앙 토(土)의 황제(黃帝), 가을을 관장하는 서방(西方) 금(金)의 백제(白帝), 겨울을 관장하는 북방(北方) 수(水)의 흑제(黑帝)이다.
- 26 축융(祝融)과…담당합니다 : 축융과 현명(玄冥)은 오행(五行)을 주관하는 신(神) 가운데 화(火)와 수(水)를 담당하는 신을 말한다. 《춘추좌씨전》 소공(昭公) 29년 조에 “오행을 맡은 장관을 오관이라고 한다. 모두 나란히 성씨를 하사받아 상공의 작위에 봉해지고 제사를 지낼 때에는 귀한 신의 대우를 받았다. 사직의 다섯 사신(祀神)으로 높이고 받들었다. 목(木)을 담당하는 장관을 구망이라 하고, 화(火)를 담당하는 장관을 축융이라 하고, 금(金)을 담당하는 장관을 욱수라 하고, 수(水)를 담당하는 장관을 현명이라 하고, 토(土)를 담당하는 장관을 후토라 하였다. [五行之官 是謂五官 實列受氏姓 封爲上公 祀爲貴神 社稷五祀 是尊是奉 木正曰句芒 火正曰祝融 金正曰蓐收 水正曰玄冥 土正曰后土]”라는 한 데서 온 말이다.

끝이 없고 한이 없습니다	無垠無壅
만물 무성하고 그득하여	芸芸戢戢
촘촘하고 많고 많으니	叢叢藉藉
도는 그칠 때가 없고	道無終竟
천리는 다하는 곳이 없습니다	理何所極
크고도 아름다워 ²⁷ 우뚝하고 날아갈 듯한	輪焉奐焉兮跂如翼如
방들 접해 있고 담장 이어진 육육궁 ²⁸ 이로소이다” 하니	接室連牆兮六六
말을 채 마치기 전에	談未卒
지리자가 응답하기를	支離子應聲答曰
“삼십육궁에 대해서는 상세한 가르침 들었으니	三十六宮則聞之詳矣
모두 봄이라고 한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何爲其都是春也
음양이 있는 이후에	有二儀
오행이 드러나 천하의 일을 이루고 ²⁹	然後五德著而成務

27 크고도 아름다워 : 원문의 ‘윤회(輪奐)’은 규모가 크고 아름답다는 뜻으로, 춘추 시대 진(晉)나라 헌문자(憲文子)가 저택을 신축하여 준공하자 대부들이 가서 축하하였는데, 이때 장로(張老)가 말하기를 “규모가 크고 화려하여 아름답도다. 제사 때에도 여기에서 음악을 연주하고, 상사 때에도 여기에서 곡읍을 하고, 연회 때에도 여기에서 국빈과 종족을 모아 즐기리로다.[美哉輪焉, 美哉奐焉! 歌於斯, 哭於斯, 聚國族於斯.]”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禮記 檀弓下》

28 육육궁(六六宮) : 소옹(邵雍)의 시 〈관물음(觀物吟)〉에 “삼십육궁이 모두 봄이다.[三十六宮都是春.]”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삼십육(三十六)은 육육삼십육(六六三十六)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육육궁은 《주역(周易)》에서 말하는 육십사괘(六十四卦) 전체를 말하는 것으로 곧 천지를 뜻한다. 《擊壤集 卷16》

29 천하의 일을 이루고[成務] : 천하의 일을 이룬다는 것은 개물성무(開物成務)에서 온 말이다. 《주역》〈계사전 상(繫辭傳上)〉에 “《역》은 만물을 열어 천하의 일을 이루어 천하의 도를 포괄하니 이와 같을 뿐

사시가 있는 이후에	有四時
만물이 드러나 생장하고 변화합니다	然後萬物兆而生化
그러므로 봄이 지나 가을이 있는 것이	是故春而有秋
낮이 지나 밤이 있는 것과 같으니	如晝有夜
이미 삶이 있다면	既有其生
어찌 죽음이 없겠습니까	焉能無死
혹 오기만 하고 가는 것이 없고	如或有來無去
같기만 하고 다름이 없어서	同而無異
길이 봄만 있고 가을이 되지 않으며	長春不秋
겨울도 없고 여름도 없다면	無冬無夏
기는 기가 될 수 없고	則氣不可以爲氣
이는 이가 될 수 없으리니	理不可以爲理
삼백육십일이 무슨 소용이며	三百六旬兮何用
오음과 육률 ³⁰ 은 취할 게 없을 것입니다	五音六律兮無取
여름이 지나 가을이 되고	夏而秋
가을이 지나 겨울이 되며	秋而冬
겨울이 지나 또 봄이 되니	冬而又春兮
어찌 모두 봄인 데서 그치겠습니까” 하였네	胡爲乎都是春而止哉
검영씨가 빙그레 웃으면서	黔羸氏听然而笑

이다.[夫易, 開物成務, 冒天下之道. 如斯而已者也.]”라고 하였다. 개물 성무는 본의(本義)에는 “점[卜筮]을 쳐서 길흉을 알아서 사업을 이룬다.”라고 풀이하였고, 공영달(孔穎達)은 “만물의 뜻을 개통(開通)시켜 천하의 일을 성취한다.”라고 풀이하였다.

- 30 오음(五音)과 육률(六律) : 오음은 곧 궁(宮), 상(商), 각(角), 치(徵), 우(羽)를 말하고 육률은 십이율(十二律) 중의 양음(陽音)에 속하는 황종(黃鐘), 태주(太簇), 고선(姑洗), 유빈(蕤賓), 이칙(夷則), 무역(無射)을 말한다.

손사래 쳐서 중지시키며 말하기를	揮手止之曰
그대는 어찌하여 너무 빨리 의심하십니까	何足下疑之太早也
저는 그대를 위해 말을 마저 하겠습니다	吾爲足下畢之
대저 건의 운행은 강건하고	夫乾行健
강건하여 원이 되니	健以元
유행하는 것은 원이고	流行者元
그치지 않는 것도 원이며	不息者元
낳고 낳는 것도 원이고	生生者元
변화하고 변화하는 것도 원입니다 ³¹	化化者元
이러한 까닭에 하늘에 대해서는 원이라고 하고	是以在天曰元
사시에 대해서는 춘이라 하고	在時曰春
형과 이와 정이 다르지만	亨與利貞兮雖殊
그 용을 살펴보면 하나의 원이며	究其用則一元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 다르지만	夏與秋冬兮雖異
그 운행을 살펴보면 하나의 봄입니다	考其行則一春

31 대저…원입니다 : 《주역(周易)》〈건괘(乾卦) 괘사(卦辭)〉에 “건은 원하고 형하고 이하고 정하다.[乾, 元亨利貞.]”라고 하였고, 이에 대한 정이(程頤)의 전(傳)에서 “건은 천이다. 천은 하늘의 형상이고 건은 하늘의 성정이다. 건은 강건함이니, 강건하여 그침이 없는 것을 일러 건이라고 한다.[乾, 天也. 天者, 天之形體; 乾者, 天之性情. 乾, 健也, 健而無息之謂乾.]”라고 하였다. 〈건괘(乾卦) 단(彖)〉에 “위대하도다, 건원이며. 만물이 이에 힘입어 비롯되나니, 이에 하늘의 덕을 통괄했도다.[大哉, 乾元. 萬物資始, 乃統天.]”라고 하였고, 이에 대한 주희의 본의(本義)에서 “원은 큼이요 시작이다. 건원은 천덕의 큰 시작이므로 만물의 생성이 모두 이것에 의뢰하여 시작하며, 또 사덕의 시초가 되어 사덕의 처음과 끝을 관통하므로 하늘을 통괄하였다고 말한 것이다.[元, 大也, 始也. 乾元, 天德之大始, 故萬物之生, 皆資之以爲始也. 又爲四德之首, 而貫乎天德之始終, 故曰統天.]”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가 되게 하고 정이 되게 하는 것은 是以使之爲利爲貞者
곧 하나의 원이고 卽一元也

가을이 되게 하고 겨울이 되게 하는 것은 使之爲秋爲冬者
곧 하나의 봄입니다 卽一春也

이로써 삼십육궁이 비록 자리가 다르지만 是知三十六宮兮雖異位
가고 가고 오고 오는 것은 오직 봄임을 알 수 있습니다

去去來來兮惟是春

저 소자는 도가 모두 원이라고 말하면 부족하다고 여겨

彼邵子者說道都是元不足

이제 모두 봄이라 말한 것이니 而方說都是春云云

누가 알겠습니까, 모두 원이라고 말하는 것이 誰識都是元云云者

곧 모두 봄이라고 말하는 것임을” 하였네 乃是都是春云云也

지리자 무릎걸음으로 다가가 말하기를 支離子膝席踴躍而前曰

“가린 것 걷어내고 막힌 귀 뚫어주어 豁鄙開聾

나의 눈과 귀 시원하게 하니 快我瞻聆

미친 마음 고쳐 성인으로 나아가고 俊狂卽聖

술 깨어 막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하였네 悟酗方醒

검영씨가 말하기를 黔羸氏曰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猶未也

다 말할 것을 청합니다 請盡之

대개 그대는 삼십육궁이 모두 봄이라고만 듣고

蓋吾子徒聞三十六宮之爲都是春

모두 봄이라는 것이 모두 원임을 알지 못하고

而不知都是春之爲都是元

모두 봄이라는 것이 모두 원이라는 것만 듣고 徒聞都是春之爲都是元

모두 원이라는 것이 모두 인임을 알지 못하니 而不知都是元之爲都是仁

물아가 간격이 없고 천인은 일리라는 설에 대해 어찌하여 유독 통달
하지 못하십니까” 하였네 獨不達物我無間而天人一理之說乎
지리자가 “봄과 원에 대해서는 이미 가르침을 들었으니

曰春與元則已有受矣

어찌하여 모두 인이라고 합니까” 하니 何爲其都是仁也

검영씨가 “사람에게 사단이 있는데 曰人有四端

인이 곧 원입니다 仁乃其元

오로지 성인은 하늘을 본받아서 惟聖則天

원을 따르고 인을 체득하니 順元體仁

온량공검³²이 비록 다르지만 恭儉之雖殊

본체를 살피면 하나의 인이고 究其體則一仁

효제충신이 비록 다르지만 孝悌忠信兮雖異

본성을 살피면 하나의 인입니다 考其性則一仁

이로써 무릇 사시의 순환과 是知四時之周環

오행의 상생상극과 五行之生克

만물이 무성해지고 시드는 것이 萬物之榮與悴

모두 하나의 봄이 자연스레 뻗어나가는 양능임을 알 수 있으니

無非一春自然條達之良能

이것이 치지이고 致知也

격물이고 格物也

성의이자 정심입니다 誠意正心也

아내에게 모범이 되는 데서 나라를 다스리는 도에 이르기까지

32 온량공검(溫良恭儉) : 성인의 덕목을 가리키는 말이다. 자공(子貢)이 공자(孔子)에 대해 “선생님은 온화하고 선량하고 공경하고 검소하고 겸손하시다.[夫子溫良恭儉讓]”라고 하였던 데서 온 말이다. 《論語 學而》

暨夫刑妻御邦之道

일단의 인의 이치를 두루 미루어 확충하여 스스로 힘쓰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하였네 亦無非一端仁理周洽旁暢而有以自彊

“그렇다면 천리는 어찌하여 모두 봄이고 然則天理如何都是春
성인은 어찌하여 모두 인입니까” 하니 聖人如何都是仁

“하늘 또한 하나의 성인이고 天亦一聖

성인은 하나의 하늘이며 聖是一天

하늘과 사람은 天兮人兮

하나이면서 둘이니 一而二焉

오제³³는 하나의 인이고 五帝一仁

삼왕³⁴은 하나의 인이며 三王一仁

문왕 무왕 주공은 하나의 인이고 文武周公兮一仁

공자와 같은 성인도 하나의 인입니다 有如孔聖兮一仁

저 하루에 한 번 이르는 자를 어찌 논할 게 있겠습니까

彼日一至焉之何論

혹 삼 개월 동안 어그러지지 않는 이라면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³⁵

33 오제(五帝) : 옛날 중국 상고 시대의 다섯 제왕을 가리키는데, 그 설이 일정하지는 않으나 대개 황제(黃帝), 전옥(顓頊), 제곡(帝嚳), 요(堯), 순(舜)을 가리킨다.

34 삼왕(三王) : 여러 설이 존재하지만 흔히 역사상 성군으로 일컬어지는 하(夏) 우왕(禹王), 상(商) 탕왕(湯王), 주(周) 문왕(文王) 또는 무왕(武王)을 말한다. 다음 구절에서 문왕과 무왕을 언급한 것으로 보아 현주는 다른 설을 지지하고 있었던 듯하다.

35 하루에…것입니다 : 《논어》〈용야(雍也)〉에서 “안회는 그 마음이 3개월 동안 인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하루나 한 달에 한 번 이를 뿐이다.[回也, 其心三月不違仁, 其餘則日月至焉而已矣].”라고 하였고, 이에 대한 주희(朱熹)의 주석에서 “하루나 한 달에 이른다고 한 것은 혹은 하루에 한 번 이르고 혹은 한 달에 한 번 이르러

或不違三月則庶幾
 아! 봄바람이 멀리 있어 불어오기 어려워 噫春風邈爾難煽兮
 초목 시들어 떨어지고 강한이 역류하니 草木黃落兮江漢回
 도도하게 온 천하가 모두 그러한데 滔滔者天下皆是
 또한 어찌 지금 사람을 탓하겠습니까 又何誅夫今之人
 하물며 그대조차 건 손 곧 진이 각기 다른 궁이라 알고
 況足下知乾巽坤震之爲異宮
 유행하여 모든 곳에 두루 이르는 것이 곧 봄임을 알지 못하며
 而不知流暢周達者乃是春
 쇄소응대와 평천하³⁶가 각각 다른 절목이라고 알고 있고
 知洒掃平天下之爲異節
 널리 응하고 어디에나 들어맞는 것³⁷이 곧 인임을 모르지 않습니까 而
 不知泛應曲當者乃是仁
 이는 나귀를 타고 나귀를 찾는 꼴이니³⁸ 是猶騎驢而覓驢

그 경지에 나아갈 수는 있어도 오래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日月至焉者, 或日一至焉, 或月一至焉, 能造其域而不能久.]”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 36 쇄소응대(灑掃應對)와 평천하(平天下) : 쇄소응대는 물 뿌리고 비질 하며 집안을 청소하는 등의 일상적인 예절로, 즉 유가 교육(儒家教育)의 기본이 되는 학습을 말한다. 평천하는 유가 공부의 지향하는 최종적인 목표이다.
- 37 널리…것 : 《논어》〈이인(里仁)〉에서 “나의 도는 하나로 꿰어져 있다.[吾道, 一以貫之.]”라 한 것에 대한 주희의 주석에서 “성인의 마음은 혼연히 하나의 천리라서 널리 응하고 어디에나 들어맞는다.[聖人之心, 渾然一理而泛應曲當.]”라고 하였다.
- 38 이는…꼴이니 : 자신의 마음이 곧 부처의 마음임을 알지 못하고서 밖에서만 찾으려 하는 것을 비유하는 선종(禪宗)의 말이다. 《전등록(傳燈錄)》〈지공화상대승찬(志公和尚大乘贊)〉에 “자기 마음이 바로 부처인 줄을 모르는 것이 참으로 나귀를 타고 나귀를 찾는 것과 같다.[

어찌하여 문으로 나가지 않으며 도를 말미암지 않는단 말입니까³⁹ 하
 였네 何不出戶而由道
 말을 마치려 할 때 語欲訖
 지리자가 몸을 굽히고⁴⁰ 종종 걸음으로 나아와 支離子磬折而趨
 백 번 절하고 사례하여 말하기를 百拜而謝曰
 “지난 날 선생의 고고한 담론과 지극한 변론이 向者先生高談極辯
 하수와 한수처럼 끝이 없어서 河漢無極
 광대무변하고 호한하며 滂渺浩沔
 마음이 어지럽고 혼미하여 顛倒恍惚
 마치 푸른 바다를 마주하였는데 若臨滄洋
 사방에 배와 뗏목이 끊어진 듯했습니다⁴¹ 四絕舟筏
 삼십육궁이 궁이 되는 이유만 알고 只識三十六宮之所以爲宮
 모두 봄이라는 것에서 봄이 되는 이유를 알지 못하였는데
 而不知都是春之所以爲春
 원이 봄이고 逮聞元是春
 봄이 인이며 春是仁
 하늘과 사람이 하나의 이치라는 말씀을 듣고 나서 天與人同一理之論

不解卽心卽佛, 真似騎驢覓驢.]”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 39 어찌하여…말입니까 : 도가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도(道)를 멀리 한다는 의미이다. 《논어》〈옹야(雍也)〉에서 “누군들 밖으로 나갈 때 문을 경유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 어찌하여 이 도를 따르는 이가 없는가?〔誰能出不由戶, 何莫由斯道也?〕”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 40 몸을 굽히고[磬折] : 원문의 ‘경절(磬折)’은 경쇠 모양으로 몸을 굽혀 상대에 대한 공경의 뜻을 드러내는 것을 가리킨다.
- 41 마치…듯했습니다 : 불교에서 깨달음의 길을 뗏목의 항해에 비유하여 보벌(寶筏)이라 한다. 바다에 배와 뗏목이 끊어졌다는 것은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찾지 못하여 헤매었다는 의미이다.

물을 건너간 듯하고	然後如涉得濟
나그네가 집으로 돌아온 듯하여	如客得歸
해매던 마음이 확 트여서	廓開迷胸
지난 사십 구년의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안개 헤치고 빛을 향해 나아	
간 듯하니	剔霧就暉從前牢癡四十九年
오늘 저녁은 어떤 저녁입니까	今夕何夕
직접 말씀을 들은 날입니다	親炙音塵
이미 훌륭한 가르침 받들었으니	既承嘉誨
저녁에 죽은들 무슨 후회가 있겠습니까” 하였네	夕死何悔
【또 한 수가 있으니, 아래의 순육언(純六言) 류에 보인다.】	

발검기무⁴²부

拔劍起舞賦

한나라 태사공이 초나라 사씨와 친분이 있어	漢太史公與楚史氏有舊
초나라 사씨를 찾아가 묻기를	往過楚史而問焉曰
“옛날 우리 황제가 천하를 안정시키에	昔我皇之定天下也
하늘이 진노해 탕으로 하여금 하나라 광인을 쳐서 이기게 하듯이 하	
였었네 ⁴³	天怒湯克夏狂
백이관을 봉쇄하고 ⁴⁴	牴百二
삼장의 법조문을 수립하자 ⁴⁵	建三章

-
- 42 발검기무(拔劍起舞) : 항우(項羽)와 유방(劉邦)이 진나라를 칠 때 유방이 먼저 함양을 함락하고 군사를 보내어 함곡관(函谷關)을 막아 버리자, 항우가 격분한 나머지 40만 대군을 거느리고 신평(新豐) 홍문(鴻門)에 진주(進駐)하여 유방을 공격할 준비를 하였다. 항우의 숙부인 항백(項伯)의 조정으로 유방이 홍문의 진영으로 찾아가 사과하니, 항우가 연회를 베풀어 유방을 접대하였는데, 이때 항우의 사촌 항장(項莊)이 범증(范增)의 명을 받아 칼춤을 추며 유방을 죽일 기회를 엿보았다.
- 43 하늘이…하였네 : 하나라의 광인은 하(夏)나라의 결(桀)임금을 가리킨다. 결 임금이 포악한 정치를 하다가 천명이 옮겨가서 은나라의 탕(湯)임금에게 정벌당하여 망한 것을 가리킨다.
- 44 백이관(百二關)을 봉쇄하고 : 유방이 먼저 관중으로 들어가서 함곡관을 봉쇄한 일을 가리킨다. ‘백이관’은 난공불락의 진나라 요새를 의미한다. 《사기(史記)》〈고조본기(高祖本紀)〉에 “진나라는 형세가 빼어난 나라로 험난한 산하에 둘러싸여 있으며 제후국들과 천 리나 멀리 떨어져 있으니, 제후의 군사가 100만이라면 진은 2만 인으로 100만을 막을 수 있다.[秦, 形勝之國, 帶河山之險, 縣隔千里, 持戟百萬, 秦得百二焉.]”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史記 卷8 高祖本紀》
- 45 삼장(三章)의 법조문을 수립하자 : ‘삼장’은 세 조항의 간단한 법을

모두 창을 진나라 군대 쪽으로 돌렸고	戈盡倒
다투어 호리병에 음료수를 담아 맞이하니 ⁴⁶	壺爭漿
마르고 썩은 나뭇가지를 꺾듯이 쉬웠고	摧枯拉朽
그림자와 메아리처럼 호응하는 것이 빨랐네	捷於影響
그러나 항왕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然而項王何人
도리어 홀로 명하니 알지 못하고	乃獨爲兀
고생스럽게 전쟁하면서	辛勤搶攘
팔 년을 말 위에서 보냈는가	八年馬上
수수에서의 패배	睢水之敗
팽성의 포위 ⁴⁷	彭城之圍
가슴에 화살을 맞은 액운 ⁴⁸	中胸之厄

의미한다. 이 법은 유방이 관중으로 들어가 진왕(秦王) 자영(子嬰)의 항복을 받고, 가혹한 법에 시달린 백성을 위하여 새로 제정한 법이다. 《사기》〈고조본기(高祖本紀)〉에 “부로들과 약속하여 법령을 세 가지 항목으로 하였으니,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하고, 남을 해치거나 도둑질한 자는 죄를 받는다. 나머지 까다로운 진법(秦法)은 모두 제거한다는 것이었다. [與父老約，法三章耳，殺人者死，傷人及盜抵罪。餘悉除去秦法。]”라고 하였다.

- 46 다투어…맞이하니 : 백성이 호리병에 마실 것을 담아서 자신들을 폭정에서 구제해준 한나라 군대를 환영하고 위로했다는 의미이다. 《맹자》〈양혜왕 하(梁惠王下)〉에 “대바구니에 밥을 담고 병에 술, 장, 차를 담아 가지고 왕자(王者)의 군대를 환영한다. [簞食壺漿，以迎王師。]”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 47 수수(睢水)에서의…포위 : 항우(項羽)가 제나라를 치러 간 사이에 유방이 제후병 56만 명을 거느리고 초(楚)나라를 쳐서 팽성에 들어갔다. 항우가 이 소식을 듣고 정예병 3만을 거느리고 돌아와 팽성의 동쪽 수수(睢水) 가에서 한나라 군대를 크게 깨뜨리고 팽성을 포위하였다. 당시 수수에서 죽은 한나라 군사가 20만에 달하여 물조차 흐르지 못할 지경이었다고 한다.
- 48 가슴에…액운 : 유방이 광무(廣武)의 싸움에서 항우가 쏜 화살에 가

도마 위의 고기 신세가 된 위기 ⁴⁹ 등	置俎之危
처음부터 끝까지	自始迄終
흥한 계기와 크게 패한 일들을	興機敗績
채집하여 기록하지 않은 게 없어	靡不採記
환히 역사책에 실려 있네	昭載汗竹
패상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至若軍霸上
홍문에서 연회를 베푼 날	宴鴻門之日
군대의 세가 현격하게 달라서	衆寡之勢懸絕
큰 용기를 굽혀 겁먹은 척했으니	屈大勇而能怯
혼인하기로 한 계책은	約婚之計
유후가 만들어 내었고	留侯籌之
이른 아침에 가서 사과하는 책략은	早謝之策
항백이 도모하였네 ⁵⁰	項伯謀之
이에 날랜 말을 타고 달려가니	是用輕騎馳詣
창졸간에 진영을 나오느라	出於倉卒

숨을 맞아 증상을 입은 일을 말한다. 《史記 卷8 高祖本紀》

- 49 도마…위기 : 홍문의 연회에서 항우의 술사 범증(范增) 등이 유방을 죽이려 한 일을 말한다. 당시 유방의 책사인 번쾌(樊噲)가 유방에게 도망갈 것을 권하면서 “지금 저놈들은 칼과 도마가 되고, 우리들은 그 위에 놓인 물고기와 고깃덩이 된 상황이다. [如今人方爲刀俎, 我爲魚肉.]”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史記 卷7 項羽本紀》

- 50 혼인하기로…도모하였네 : 유후(留侯)은 장량(張良)으로, 자는 자방(子房)이다. 유방(劉邦)의 모신(謀臣)으로 공을 세우고 유후(留侯)에 책봉되었다. 항백(項伯)은 항우의 숙부이다. 항백이 밤에 옛 친구인 장량(張良)을 찾아가 이를 알렸다. 유방은 장량의 계책에 따라 항백에게 사돈을 맺기로 약속을 하면서 항우의 오해를 풀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항백이 다음 날 이른 아침 항우를 찾아와 사죄하면 자신이 일이 잘 해결되도록 돕겠다고 약속하였다.

호위병은 행렬을 이루지 못했고	扈不成行
기마병은 대열을 만들지 못하여	騎不就列
오직 장량 ⁵¹ 과 번쾌 ⁵² 등의 한두 신하만이 동행했으니	唯良噲等一二臣同
비록 훌륭한 사관이 있었다 해도	雖有良史
따라갈 겨를이 없었네	未遑與從
그러므로 칼을 빼들고 일어나 춤을 추었던 일은	故拔劍起舞之一事
국사에는 상세하게 다 실려 있지 않으니	在國史未盡其詳
이제 사씨는 위사람에게 저촉됨을 꺼리지 말고	今史氏勿以觸上爲諱
또 성패를 가지고 영웅을 논하지 말고	又勿以成敗論雄
우선 당시에 본 것으로	姑以當時之見
나를 위해 한번 자세하게 말해주게” 하였네	試爲我覲縷
사씨가 말하기를	史氏曰
“알았네, 삼가 자네를 위해 말해보겠네	謹敬爲子說
처음에 우리 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관중에 들어갔을 때	始我王擁兵而入也
삼장의 법을 약속한 게 인이 됨을 모르지 않았고	非不知約法之爲仁
항복한 진나라 왕을 죽이는 게 의롭지 못한 일 ⁵³ 임을 모르지 않았으며	非

-
- 51 장량(張良) : 자는 자방(子房)이다. 유방(劉邦)의 모신(謀臣)으로 항우(項羽)를 멸하고 천하 통일을 이루는 데 큰 공을 세워 유후(留侯)에 봉해졌다.
- 52 번쾌(樊噲) : 원래 개고기를 파는 미천한 신분이었으나, 유방(劉邦)의 거병 뒤에는 그를 따라 무장으로서 용맹을 떨쳐 공을 세웠다.
- 53 항복한…일 : 유방의 군대가 함양을 무너뜨리고 패상에 도착했을 때 진나라의 왕 자영(子嬰)이 옥새와 부절을 바치며 항복했는데, 당시 여러 장수들이 진나라 왕을 죽이라고 했지만 유방이 “이미 항복했는데 죽이는 것은 상스럽지 못하다.[人已服降, 又殺之, 不祥.]”고 하면서 죽이지 않은 일을 말한다.

不知殺降者之爲非義

여산을 파헤치는 일⁵⁴이 탐학한 짓인 줄 모르지 않았고

非不知掘驪山之爲虐

아방궁을 불태우는 일⁵⁵이 포악한 짓임을 모르지 않았네

非不知焚阿房之爲暴

다만 지위가 상장군이었고⁵⁶

第以位爲上將軍

공은 또 삼군의 으뜸이라서

功又冠三軍

한단에서 백만의 병사를 쳐부수기를

碎邯鄲百萬

겨를 핥고 김을 매는 짓같이 했으니⁵⁷

如舐糠鋤芸

강한 진나라를 자멸하게 한 것은

使強秦自滅

누구의 힘인가

是誰之力也

54 여산(驪山)을 파헤치는 일 : 항우가 진의 수도에 입성하여 진 시황(秦始皇)의 왕릉을 파헤치고 보물을 사사로이 취한 일을 말한다. 여산은 섬서성(陝西省) 임동현(臨潼縣) 동남쪽에 있는 산의 이름으로, 진 시황의 능묘가 있던 곳이다.

55 아방궁을 불태우는 일 : 항우가 진나라의 수도 함양(咸陽)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도륙하고 아방궁(阿房宮)을 불태운 일을 말한다. 아방궁은 진시황(秦始皇)이 그의 수도 함양(咸陽)에 세운 궁궐 이름으로, 그 규모가 동서로 500보(步)가 되고 남북으로 50장(丈)이나 되어 항우가 아방궁을 불태우자 그 불길이 석 달 동안 꺼지지 않았다고 한다.

56 지위가 상장군(上將軍)이었고 : 항우(項羽)가 거록(鉅鹿)에서 진군(秦軍)을 크게 격파하고 12제후의 장(將)을 소견하였는데, 항우는 이로 말미암아 상장군(上將軍)의 지위에 올라 제후들이 모두 그에게 예속되었다. 《史記 卷7 項羽本紀》

57 겨를…했으니 : ‘겨를 핥는다[舐糠]’는 말은 ‘지강급미(舐糠及米)’의 준말로, 쌀겨를 다 핥고 나면 쌀까지 먹으려 든다는 뜻으로, 영토를 잠식하여 그 나라를 멸망시킨다는 말이다. 《史記 卷106 吳王濞列傳》 김을 맨다는 말은 피를 뽑아내듯이 적군을 무찔렀다는 의미인 듯하다.

제후들이 무릎으로 기어들어오게 한 것 ⁵⁸ 은	使諸侯膝行
또 누구의 공적인가	又誰之績也
어찌 지름길로 빨리 내달려 가서	豈不能捷徑以疾馳
천하를 모두 차지할 수 없었겠는가만	以天下爲盡在己
사슴이 장차 어디로 도망가겠는가 ⁵⁹	鹿將焉逃
그래서 천천히 관중으로 들어갔으니 뒤따라야 하거늘	所以徐徐入關則後之
어찌하여 형세와 힘을 헤아리지 않고	奈何不量勢力
미리 스스로 먼저 들어가서	經自先入
함곡관을 점거하여 요충지를 지키면서	據關守要
도리어 멋대로 무모하게 덤뵈는가 ⁶⁰	反肆拒轍
그러므로 여산을 파헤치고 아방궁을 불태운 것은	所以拔驪山焚阿房
진나라에 노한 것이 아니고	非怒秦也
바로 한나라에 노한 것이었네	乃怒漢也

- 58 제후들이…것 : 항우가 거록에서 진(秦)나라 군대를 격파하고 제후들을 불러 진영의 문으로 들어오게 하자 제후들이 무릎으로 기어서 들어오면서 감히 항우를 쳐다보지 못했다고 한다. 《史記 卷7 項羽本紀》
- 59 사슴이…도망가겠는가 : 사슴은 진(秦)나라 황제를 가리킨다. 《사기》〈회음후열전(淮陰侯列傳)〉에서 “진나라가 사슴을 잃으니 천하가 함께 그것을 좇았다. 이리하여 재주가 높고 발이 빠른 자가 먼저 그것을 얻었다.[秦失其鹿，天下共逐之，於是高材疾足者先得焉.]”라고 하였는데, 집해(集解)에서 “사슴으로 제왕의 지위를 비유한 것이다.[以鹿喻帝位也.]”라고 하였다.
- 60 무모하게 덤뵈는가[拒轍] : 원문 ‘거철(拒轍)’은 ‘당랑거철(螳螂拒轍)’의 준말로, 자신의 힘은 요량하지 않고 무모하게 덤벼드는 행동을 비유하는 말이다. 《장자(莊子)》〈인간세(人間世)〉에 제(齊)나라 장공(莊公)이 사냥을 나가는데 벼마재비가 앞발을 들고 수레바퀴를 멈추게 하려 했다는 고사(故事)에서 나왔다.

게다가 행복한 진나라 왕 자영은	矧如降王子嬰者
옥새를 가지고 나와서 맞이하지 않고	不以璽綬出迎
한나라와 더불어 도모하였으니	而乃與漢謀
그 죄는 면하기 어려웠네 ⁶¹	厥罪難追
그렇다면 저들이 행복한 왕 자영을 죽이지 않고 가혹한 법을 없앤 것	然則彼以不殺降除苛法
은	
진나라에 은혜를 베푼 것이고	爲恩於秦
우리가 반대로 한 것은	而此乃反之者
또한 은혜를 베풀기도 하고 위엄을 보이기도 하여 서로 상반되는 술책을	
쓰는 병법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었네	
	亦不外兵法以恩以威相反之術也
이에 병사 사십만을 배치하여	於是陳兵四十萬
홍문에 주둔시켜 적에게 내보였으니	次鴻門而耀敵
아아, 하나의 계란과 하나의 터럭이	嗟一卵與一毛
어찌 큰 화룻불과 태산을 이길 수 있겠는가	柰鴻爐與泰岳
이에 벽력같은 북소리와 하늘을 가린 깃발이 월루를 뒤덮고	
	於是鼓駭天旗掩月壘
구름 같은 병사들이 호랑이처럼 도열하였으니	雲布土虎列
장막이 하늘을 에워싸서 땅이 좁아지려 하고	幄幕籠霄地欲狹
장군이 대장기 꽂으니 하늘이 낮아지네	將軍樹纛天爲低
이날 방황하는 사람 있어	是日也徬徨有人
행동거지가 급박해 보였는데	草草容儀
성벽의 문이 아침에 열리고	壁門朝開

61 게다가...어려웠네 : 자영(子嬰)은 진(秦)나라의 마지막 임금이다. 자영은 다른 제후들보다 먼저 관중으로 들어온 유방(劉邦)에게 옥새와 부절을 바치고 항복하였는데, 얼마 후 항우에게 죽임을 당하였다.

알자 ⁶² 가 말을 전하니	謁者傳辭
곧 패공의 뜻으로	乃以沛公之意
장군의 막부에 명을 전한다는 것이네	致命于將軍幕府
대략 말하기를 ‘죄를 지은 신 유모는	其略曰獲罪臣劉某
휘하에서 죽기를 청합니다	請送死于麾下
이전에 신이 먼저 관중으로 들어간 것은	始臣之先入
감히 스스로를 위한 계책이 아니고	非敢自計
한편으로 왕을 위해 선봉이 되고	一以爲王前驅
한편으로 백성을 위해 해를 제거하려는 것이었습니다	一以爲民除害
그래서 창고의 재물을	是用府庫之財
감히 스스로 독차지하지 않았고	不敢自專
왕궁에 거하는 것도	宮室之居
감히 스스로 편안해 하지 않으며	不敢自安
큰 길 청소하여 우리 임금 기다린 것이	清逵道兮俟我后
지금까지 며칠인지 모릅니다	迄于今幾日
게다가 금구가 한 번 이지러지자 ⁶³	而況金甌一缺
군웅들이 뿔뿔이 모여들어	群雄蝟集
어지럽게 넘보아서	紛紜覬覦
턱을 움푹거리며 다투어 먹으려 하였으니 ⁶⁴	朶順爭嚼

62 알자(謁者) : 말을 전하는 일을 담당하는 신하나 노복을 말한다.

63 금구(金甌)가…이지러지자[金甌一缺] : ‘금구(金甌)’는 국가의 영토를 뜻하는 말로, 남조 양(南朝梁)의 무제(武帝)가 “우리나라는 마치 황금 단지와 같아서 하나도 상하거나 부서진 곳이 없다.[我家國猶若金甌, 無一傷缺.]”고 한 데서 유래한 것이다. 《梁書 卷56 侯景列傳》

64 턱을…하였으니 : 이 부분의 원문은 ‘朶順爭嚼’이나 규장각 본 《현주집》에 ‘順’이 ‘頤’으로 되어 있고, 의미상 이것이 타당하기에 원문을 고쳐서 번역하였다. “타이(朶頤)”는 음식을 보고 먹고 싶은 욕심에

그러므로 함곡관을 닫아 굳게 봉쇄한 것은	是以閉關以儼鎖鑰
다른 도둑을 방지하기 위해서이지	備他盜也
어찌 다른 의도가 있었겠습니까	何意之有
삼가 진 황제의 옥새와 부절을 가지고	謹以秦皇帝璽符
백 번 절하고 좌우에 올립니다' 하였네	百拜獻於左右
당시에	方其時也
왕의 깊은 노여움으로 보면	以王之深怒
어찌 항백의 느긋한 변설 ⁶⁵ 을 허여했겠으며	何與項伯之緩頰
왕의 크나큰 지략으로 보면	以王之方略
어찌 자방의 교묘한 술책을 받아들였겠는가	何容子房之巧術
그러나 왕이 도량이 크고 관후하여	然王之量鉅而仁弘兮
패공을 수중에 놓고 쥐락펴락 했기에	弄沛公於掌握
알자가 성을 나가는 것을 허락하여	領謁者出
앞에 불러 오게 하였네	使招來前
당시 패공은 영문에 엎드려	于時沛公跽伏轅門
목숨을 겨우 부지하고 있다가	死息僅延
위엄을 무릅쓰면서 놀라 달려가느라	冒威驚趨
세 번이나 넘어지고 엎어졌다네	三跌而顛
뜰에서 머리 조아려 절하고	拜叩庭除
왕이 턱으로 지시하는 대로 따랐으니	順王頤指
혹여 노하여 질타하는 말이 있었다면	倘有暗啞之一聲

입맛을 다신다는 의미이다. 《주역(周易)》〈이괘(頤卦) 초구(初九)〉에서 “그대의 신령스러운 거북을 버리고 나를 보고서 턱을 움직이니 흥하다.[舍爾靈龜，觀我，朵頤，凶.]”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 65 변설[緩頰] : 원문의 ‘완협(緩頰)’은 비유 등을 해 가며 천천히 말하여 남을 설득시키는 것을 뜻한다.

거의 스스로 쓰러져 죽어서 일어나지 못했으리	幾自斃而不起
마침내 생명을 연장하여 평정을 되찾으니	遂延生而許平
위대하도다, 크나큰 도량 헤아릴 수 없어	偉大度之巨測
귀신도 그로 인해 수심스레 신음하고	鬼神爲之嚙呻
천지도 그로 인해 두려워 위축되며	天地爲之瑟縮
신료들은 그로 인해 웅크리며 땀을 흘리고	臣僚爲之聳汗
장사들은 그로 인해 움츠리며 탄식했네	將士爲之脅息
이에 성대한 연회를 베풀어 크게 술자리 벌이니	爾乃作高會張大酒
풍악이 높게 울려 퍼졌네	樂動嶠嶠
지는 해 산봉우리에 걸렸을 때	西日在岫
별주를 다 마시고	罰卮飲卒
축수하는 예 마치고는	壽禮行畢
마침내 패공에게 일어나라 명하여	遂乃命沛公起
자리에서 춤을 추게 하였네	獻舞于席
항장에게 함께 추기를 명하였는데	命項莊偕
칼을 들고 춤을 추어	其執劍也
서리 같은 칼날에서 흰 무지개 뿜어 나오고	霜鋌虹直
눈 같은 칼등에서 번개가 번쩍이며	雪鐔電閃
날아다니는 빛이 잔을 스치고	飛光掣杯
흩어지는 광채 장막에 일렁였네	散彩翻幕
덩실덩실 능란하게 춤추고	蹲蹲兮凌亂
오락가락 현란하게 움직여서	傚傚兮悅惚
재빨리 솟구쳐 기러기가 날아오르는 듯했고	揮霍兮鴻翥
종횡으로 움직여 봉황이 뛰는 듯했네	縱橫兮鳳躍
긴 칼 잡고 짧은 칼 집어넣으니	持長兮入短
등에서 번뜩이고 겨드랑이를 비추었고	耀背兮照腋

앞에 보였는데 뒤에 있고	瞻在前兮在後
이내 북쪽 가리키더니 서쪽에서 스치며	羌北指而西拂
가벼운 몸 풀어놓아 빠르게 나아가니	縱輕體以迅赴
그림자가 따르나 채 미치지 못하였네	影追形兮不及
이에 옥결을 세 번 들어 보인	於是舉玦者三
한 명의 범증이 있었으니 ⁶⁶	有一范增
유랑의 한 몸에	劉郎軀幹
초나라의 명운이 달려 있어서	楚家性命
소매 속의 청사를 휘두르면 ⁶⁷	揮袖裏之青蛇
패택의 신룡 ⁶⁸ 이 숨이 다하였으리	窮沛澤之神龍
경각에 달린 목숨을 살려준 것이	豈料夫貸咎刻之餘息
만고 영웅의 일을 이루게 하고	成萬古之英雄
하루살이 같은 잔악한 포로 놓아준 것이	縱一朝之殘俘
팔년 뒤의 강한 원수가 되게 하리라 누가 생각했으랴	爲八載之強讎
아, 실로 마음으로는 반드시 죽이고자 하면서	嗚呼苟內欲其必殺

- 66 이에…있었으니 : 범증(范增)이 차고 있던 옥결(玉玦)을 세 번이나 들어 올려 항우에게 유방을 죽이라고 암시한 일을 말한다. 범증은 항우(項羽)의 모신(謀臣)으로, 항우로부터 아보(亞父)라는 칭호로 존경받았으나 결국 한(漢)과 내통한다는 혐의로 배척당하여 팽성(彭城)에서 죽었다.
- 67 소매…휘두르면 : 청사(青蛇)는 보검의 이름이다. 여동빈(呂洞賓)이 악양루(岳陽樓)에 제(題)한 시에 “아침에 악악을 노닐다가 저녁엔 창오에 있는데, 소매 속 청사는 담기가 드높아라.[朝遊岳陽暮蒼梧, 袖有青蛇膽氣麤.]”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 68 패택(沛澤)의 신룡(神龍) : 유방을 가리킨다. 유방은 패군(沛郡) 풍현(豐縣) 사람이다. 《사기》〈고조본기(高祖本紀)〉에서 유방의 어머니 유온(劉嫗)이 꿈에 신룡과 만나 정을 통한 뒤에 유방을 낳았다고 하였고, 유방은 코가 높고 용의 얼굴이었다.[高祖爲人, 隆準而龍顏.]”고도 하였다.

어찌하여 차분하게 춤을 추었는가	豈其舞之秩秩
형세가 이미 국술 안 물고기보다 위태로웠거늘	勢已蹴於鼎魚
또 어찌하여 베어버리는 것을 꺼렸는가	又何憚夫鉄鑽
삶과	其生也
죽음이	其殺也
다만 숨 한번 쉬는 사이에 달려 있었으니	只在於一呼吸之間
또 하필 발을 구르고 손을 휘둘러 춤을 춘 이후에야 죽일 수 있었던	
말인가	則又何必足之蹈手之舞而後可殺也哉
대개 향장의 춤과 범종의 옥결은	蓋莊之舞范之珎
모두 우연히 낸 계책으로	皆偶然之發也
강력한 위세로 위협하여	爲積威之所約
한 때의 두려움을 증폭하려 한 것일 뿐이네	滋一時之驚惑
만약 검무에 뜻을 두어서	如或有意於劍舞
그것으로 중대한 일을 완수하려 했다면	以遂其機事
몇 리를 물러나게 한 노여움 지냈으면서 ⁶⁹	則以數里辟易之怒
어찌 몸으로 가려 보호하는 데서 막혔겠으며 ⁷⁰	豈被沮於翼蔽
천 명이 절로 기가 꺾여 없어지는 위엄이 있었으면서 ⁷¹	以千人自廢之威

69 몇…지냈으면서 : 《사기》〈항우본기(項羽本紀)〉에서 “적천후가 기병장으로 항왕을 추격하고 있었는데 항왕이 눈을 부릅뜨고 꾸짖으니 적천후와 말이 모두 놀라 몇 리 밖으로 달아나버렸다.[赤泉侯爲騎將, 追項王, 項王瞋目而叱之, 赤泉侯人馬俱驚, 辟易數里.]”라고 하였다.

70 어찌…막혔겠으며 : 《사기》〈항우본기〉에서 “향장이 검을 뽑아들고 일어나서 춤을 추기 시작하자 항백도 검을 뽑아들고 춤을 추면서 항상 자신의 몸으로 패공을 가려서 보호하니 향장이 내리칠 수가 없었다.[項莊拔劍起舞, 項伯亦拔劍起舞, 常以身翼蔽沛公, 莊不得擊.]”라고 하였다.

71 천…있었으면서 : 《사기》〈회음후열전(淮陰侯列傳)〉에서 “항왕이 큰 소리로 호통을 치면 천 사람이 모두 기가 꺾여 없어졌다.[項王喑噀

어찌 눈을 부릅뜨고 바라보는 것에 위축되었겠는가 ⁷²	豈怯縮於裂視
다만 우리 왕의 뜻을 헤아려 보면	第惟我王之意
둘 다 초나라 사람이고	則以爲俱是楚人
형제를 맺기로 약속했으니	約爲兄弟
어찌 천하의 이익을 다투는 것으로	豈以爭天下之利
끝내 일가의 의리를 잊겠는가 하였던 것이네	終至忘一家之義
게다가 남이 이미 그 잘못을 자복하면	且人既服其過
의당 노여움을 품어서는 안 되니	不宜有怒
그리하여 분노를 풀고	是用釋忿
술에 취하고 포식하고서 돌아가게 하여	醉飽而還
위엄을 보이고 인자함을 드러내어	以威以仁
겨울과 봄을 같이 베풀 것처럼 하였던 것이네	若施冬春
갓난아이를 대하듯 자신만만하여	視嬰兒而自如
시답지 않게 여겼는데	曾不滿乎一眼
용과 호랑이가 서로 다투는 형세가 되자	逮夫龍虎相啖
지략과 용기가 모두 궁하게 되었네	智勇俱困
전쟁터에 보낸 십 년 동안	干戈十載
바람으로 머리 빋고 비로 목욕하였으니	風櫛雨沐
슬프다 생령들이여	哀我生靈
얼마나 많은 이들이 도마 위 물고기 신세 되었던가	幾多魚肉

叱咤, 千人皆廢.]”라고 하였다.

- 72 어찌…위축되었겠는가 : 항우가 번패가 노려보는 것에 위축되었다는 의미이다. 《사기》〈항우본기〉에 “번패가 마침내 안으로 들어가 장막을 들추고 서쪽을 향해 서서는 눈을 부릅뜨고 항우를 바라보았다. 이때 머리카락이 위로 치솟고 눈초리가 찢어질 대로 찢어져 있었다. 이에 항왕이 검을 어루만지면서서 무릎을 세워 앉았다.[噲遂入披帷, 西嚮立, 瞋目視項王, 頭髮上指, 目眦盡張. 王按劍而跽.]”라고 하였다.

이에 백 번 싸워 백 번 이긴 용맹함으로	茲乃以百戰百勝之勇
둘 다 온전하고 둘 다 얻는 계책을 내었으니	爲兩全兩得之計
태공과 여후를 돌려보내어	于以返太公呂后
부자와 부부가 만나게 해주고	使父子而夫婦
이후에 홍구를 기준으로 땅을 나누기를 청하여	而後請割鴻溝
한나라는 서쪽을 차지하고 초나라는 동쪽을 차지하자 했네 ⁷³	漢西楚東
이는 지극한 인정이었고	無非至仁
지극한 공도였는데	無非至公
어찌하여 우리 왕의 대의를 잊고	奈之何忘我大義
우리 왕의 대덕을 배반하였는가	背我大德
우리 왕이 경계하지 않은 틈을 타서	乘我不戒
홀연 음모와 속임수를 내었으니	奄逞詭譎
장량과 진평의 간사한 계책을 써서	用良平姦謀
급히 공격하여 놓치지 말라 하였네 ⁷⁴	乃曰急擊勿失
아아, 인의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	嗚呼非仁義不足

73 이에…했네 : 양도(糧道)가 끊겨 식량이 부족했던 항우가 유방의 아버지인 태공(太公)과 유방의 아내인 여후(呂后)를 볼모로 잡고 위협하며, 유방에게 항복을 촉구하였다. 유방이 후공(侯公)을 보내 협상하게 한 결과 천하를 둘로 나눠 홍구 이서(以西) 지역은 한나라 영토로 하고 홍구 이동(以東) 지역은 초나라 영토로 한다는 약조에 합의하였다. 이에 항우는 곧장 유방의 부모와 처자를 돌려보내고 나서 군대를 이끌고 동쪽으로 돌아갔다. 《史記 卷7 項羽本紀》

74 장량과…하였네 : 항우가 동쪽으로 돌아간 뒤 유방은 “지금 초나라 군사들은 지치고 식량도 떨어졌으니 이는 하늘이 초나라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다. 지금 놓아주고 공격하지 않으면 호랑이를 길러 화를 남기는 꼴이다.”라고 하며 끝까지 추격하여 공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장량(張良)과 진평(陳平)의 계책을 따라 추격전을 벌여, 마침내 해하(垓下)에서 항우를 멸망시켰다. 《史記 卷7 項羽本紀》

지혜와 용기가 미치지 못한 게 아니었으니

非智勇不及

혹 이때에 함왕이 자결하지 않고 오강을 건너서

倘此時不自決而渡吳江

한왕이 셋길로 패상으로 달려갔던 거동⁷⁵과 똑같이 하였다면

如漢王間行趨灞上之舉

지금 천하는

則今日之天下

어찌되었을지 알 수 없네

未可知也

그러나 장부가 요행히 죽음을 면하고 구차하게 용납되는 것을

然丈夫幸免而苟容

당일에 몰래 비웃었으니

曾所竊笑於當日

누가 알았겠는가, 여마동에게 말하고 스스로 목을 찔러 죽어서⁷⁶

誰知語馬童而自刎

흥문에서 몰래 달아난 한왕의 얼굴을 일부러 부끄럽게 만들 줄을

- 75 한왕이…거동 : 홍문의 연회에서 유방이 몸을 빼내어 셋길로 패상의 한나라 진영으로 도망간 일을 말한다. 이에 대해 〈항우본기〉에서 “당시에 항우의 군대는 홍문 아래에 있었고 유방의 군대는 패상에 있어 서로 사십 리 정도 떨어져 있었다. 유방은 자신의 거기병을 두고 몸만 빠져나와 홀로 말을 타고 번패, 하후영, 근강, 기신 등 네 사람과 함께 칼과 방패를 잡고 걸어서 여산을 내려와 지양의 셋길을 통해 갔다.[當是時項王軍在鴻門下，沛公軍在霸上，相去四十里。沛公則置車騎，脫身獨騎，與樊噲，夏侯嬰，靳彊，紀信等四人持劍盾步走，從酈山下，道芷陽間行.]”라고 하였다.
- 76 여마동에게…죽어서 : 《사기》〈항우본기〉에서 “항우가 한나라의 기사마(騎司馬) 여마동(呂馬童)을 돌아보며 ‘너는 내 옛 부하가 아닌가.’라고 하였다. 여마동이 왕예(王翳)에게 항우를 가리키며 ‘이 사람이 항왕입니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항우가 ‘내가 듣건대 한나라가 내 머리를 천금과 일만 호의 읍으로 사려 한다고 하니 내 너를 위해 덕을 베풀겠다.’라고 하고는 스스로 목을 찔러 죽었다.”라고 하였다.

故令羞漢王鴻門潛遁之面

지금도 오강의 비바람은	至今烏江之風雨
응당 흥문에서의 연회를 허물하고 있으리라	應悔鴻門之一宴
더욱 한스러운 것은	尤可恨者
항장이 한 번 춤을 춘 것은	莊之一舞
초나라가 한나라에 뜻이 있어서가 아니거늘	非楚之有意於漢
한나라 사관은 진실을 오도하여	漢史之失其真
항장의 춤을 가지고	以項莊之舞
항왕의 마음을 의심하니	疑項王之心
미혹된 것이 아니겠는가” 하였네	非惑耶
이에 태사공이 눈을 치켜뜨고 비웃으면서	於是太史公盱衡而笑
손사래를 쳐서 그치게 하고 말하기를	揮手而止曰
“사씨의 견해는	史氏之見
옳다면 옳네	是則是矣
비록 그렇지만 성패의 운수는	雖然成敗之數
하늘에 달린 것이고 사람의 일이 아니네	在天非人
그러므로 먼저 함곡관으로 들어간 것은	故其入關之先
한나라 스스로 먼저 들어간 게 아니고	非漢自先
하늘이 실로 먼저 들어가게 한 것이며	天實先之
흥문에서 몸으로 가려준 일은	鴻門之翼蔽
항백이 몸으로 가려준 것이 아니고	非項伯翼蔽
하늘이 실로 가려준 것이네	天實蔽焉
하늘이 또 팽성에서 초나라를 속였으니 ⁷⁷	天又誑楚於彭城

77 하늘이…속였으니 : 항우가 팽성에서 한나라 진영을 세 겹으로 포위하여 유방의 목숨이 위태로웠는데, 이때 큰 바람이 서북쪽에서 불어와 나무를 부러뜨리고 지붕을 날려버리고 모래와 돌이 흩날리더니

기신이 속여서 면할 수 있었던 것 ⁷⁸ 이 아니네	非紀信誑而可免
하늘이 또 고릉에서 추격하기를 부추겼으니	天又勸迫於固陵
장량과 진평이 권하여 맞붙어 싸운 것이 아니네 ⁷⁹	非良平勸而迫戰
오강의 정장에게 덕을 베풀고 ⁸⁰ 스스로 목을 찢러 자결할 때에는	至於德亭長而自刎
혹 하늘이 항왕의 손을 빌려 찌르게 한 듯하니	或天假王手而使刎
아아, 하늘이 포악한 이를 끊고 인한 이를 도운 것이	噫天之絕暴而佑仁
명약관화하여 속일 수 없네	若觀火而不誑
그렇다면 범증의 옥결과 항장의 검무는	若然則增之缺莊之舞
끝내 기미를 드러낸 것이	終逞其機

갑자기 대낮이 칙흑처럼 어두워졌다. 초나라 군대가 이로 인해 크게
 동요하게 되자 유방이 이때를 틈타 간신히 탈출하였다. 《史記 卷7 項
 羽本紀》

- 78 기신(紀信)이…것 : 기신은 유방의 장수이다. 유방이 형양(滎陽)에서
 포위당했을 때, 기신이 유방이 타던 왕거(王車)를 타고 한왕(漢王)이
 라 자칭하면서 형양성(滎陽城)의 동문(東門)으로 나가 거짓 항복을
 하는 틈에 유방이 서문(西門)을 통하여 도망쳐서 위기를 모면한 일이
 있다. 《史記 卷8 高祖本紀》
- 79 하늘이…아니네 : 장량과 진평의 계책에 따라 열세에 몰린 항우의
 군대를 추격할 때의 일을 말한다. 《史記 卷7 項羽本紀》
- 80 오강(烏江)의…베풀고 : 항우가 한나라 군대에게 쫓겨 오강에 이르
 자 정장(亭長)이 배를 대주며 강동(江東)에서 왕이 되어 권토중래(捲
 土重來)할 수 있다고 하면서 건너기를 재촉하였다. 이에 항우는 자신
 이 강동의 자제 8천 명을 데리고 강을 건넜다가 이제 하나도 살아 돌
 아가지 못하니 무슨 낯으로 강동의 부형(父兄)들을 만나고, 또 마음
 속에 부끄러움이 없을 수 없다고 하면서 정장에게 오추마(烏騅馬)를
 주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史記 卷7 項羽本紀》

필시 소매가 잘려나간 일⁸¹과 띠의 고리를 맞춘 일⁸²에 불과하니

必止於斬袪與中鉤

제나라와 진나라가 패자가 되는 데 또한 무슨 해가 되었던가⁸³

又何損齊晉之爲霸

하물며 그대는 왕의 잘못을 덮으려 하여

況足下欲掩君過

도리어 자국의 악행을 선양하니

反揚國惡

여산을 파헤치고 항복한 진나라 왕 자영을 죽인 일은

拔驪殺降

비록 한나라에 분노해서 한 일이지만

雖出於怒漢

강중에서의 일⁸⁴은

而江中之事

81 소매가 잘려나간 일 : 진 헌공(晉獻公)이 내시 피(披)를 시켜 포(蒲) 땅으로 망명한 공자 중이(重耳)를 공격하게 하자, 중이가 도망가다 옷소매가 잘려나간 일을 말한다. 《좌전》 희공(僖公) 5년에, “진(晉) 나라 헌공(獻公)이 내시[侍人] 피(披)를 시켜 포(蒲)를 치게 하니, 중이가 담장을 넘어 도망가는데 피가 그 소매를 잡아서 찢어졌다.”라고 하였다.

82 띠의…일 : 관중(管仲)이 제 환공(齊桓公)이 제나라로 귀국하는 것을 막기 위해 활을 쏘아 환공의 허리띠 고리에 맞힌 일을 말한다. 《춘추 좌전(春秋左傳)》 희공(僖公) 5년 조에, “춘추 시대에 제 양공(齊襄公)의 조정이 혼란에 빠지자, 그의 아우 규(糾)는 노(魯)나라로 달아나 관중(管仲), 소홀(召忽)을 스승으로 삼았고, 소백(小白)은 거(莒)로 달아나 포숙(鮑叔)을 스승으로 삼았다. 제 양공이 죽자 규와 소백이 서로 앞을 다투어 제나라로 돌아가 왕이 되려고 하였다. 관중이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 길목을 차단하고 소백의 입국을 저지하면서 활을 쏘아 혁대의 고리를 맞혔다.”라고 하였다.

83 제나라와…되었던가 : 중이는 19년 동안 온갖 고생을 겪고 나서 본국으로 돌아와 제후의 자리에 올랐는데, 이 사람이 진 문공(晉文公)이다. 진 문공은 춘추오패(春秋五霸)의 한 사람이다. 소백은 관중의 저지를 뚫고 제나라에 입국하여 제후가 되었는데, 이 사람이 제 환공(齊桓公)이다. 환공은 즉위한 뒤 옛날의 원한을 잊고 관중을 재상으로 임용하여 결국 패업(霸業)을 이룩하였다.

84 강중(江中)에서의 일 : 항우(項羽)가 초나라 마지막 왕인 초 회왕(楚

또 누구에게 분노한 것인가	又誰怒也
한왕에 대해서는 비록 노할 만했다 해도	漢王雖可怒
강중의 일은 차마 할 수 있는 일이었던가” 하였네	江中是可忍歟
말을 마치기도 전에	談未卒
사씨가 얼굴 붉어져 백배사죄하며	史氏赧汗百拜謝曰
“그대의 필법은	子之筆法
동호 ⁸⁵ 도 미치지 못하리라” 하였네	董狐不如

懷王) 의제(義帝)를 살해한 일을 말한다. 《사기》〈항우본기(項羽本紀)〉에서 이 일에 대해 “사자를 보내 의제를 장사군(長沙郡) 침현(郴縣)으로 옮기게 했다. 의제의 행차를 재촉하니 그 신하들이 차츰 그를 배반했다. 이에 몰래 형산왕과 임강왕을 시켜 의제를 강중에서 격살하게 하였다.[乃陰令衡山臨江王擊殺之江.]”라고 하였다.

- 85 동호(董狐) : 춘추 시대 진(晉)의 사관(史官)이다. 진나라의 조돈(趙盾)이 무도한 영공(晉靈公)을 피해 도망갔다가 조천(趙穿)이 영공을 죽인 뒤에 돌아왔는데, 동호가 “조돈이 그 임금을 죽였다.”고 기록하여 조정에 보였다. 조돈이 자기가 죽이지 않았다고 강변하자, 동호가 “그대는 일국의 정경(正卿)으로 도망을 하여 국경을 넘지 않았고, 돌아와서는 역적을 토벌하지도 않았으니, 그대가 죽인 게 아니고 누구인가.”라고 하였는데, 이 일과 관련하여 공자가 “동호는 옛날의 훌륭한 사관이었다. 그의 서법은 숨기는 일이 없었다.”라고 칭송하였다. 《春秋左氏傳 宣公2年》

봉황천인부

鳳凰翔千仞賦

수리와 작은 비둘기가	鵬與鸞鳩
유나무 방나무 사이에서 웃으면 말하기를	相與笑於楡枋之間曰
“곤이 남쪽으로 갈 때는	鯤之南也
바다가 움직이는 것을 타고 옮겨가고 ⁸⁶	以運而徙
올빼미를 잡으러 동쪽으로 간 것은	鴞之東也
악행 때문에 피한 것이네 ⁸⁷	以惡而避

86 곤(鯤)이… 옮겨가고 : 《장자》〈소요유(逍遙遊)〉에 “북녘 검푸른 바다에 물고기가 있으니 그 이름을 곤이라고 한다. 곤의 크기는 몇 천 리가 되는지 알 수 없다. 어느 날 이 물고기가 변신을 해서 새가 되니 그 이름을 봉이라고 한다. 이 봉새의 등 넓이는 이 또한 몇 천 리가 되는지 알 수 없다. 온몸의 힘을 다해 날면 그 활짝 편 날개는 하늘 한쪽에 가득히 드리운 구름과 같다. 이 새는 바다가 움직이면 남쪽 끝의 검푸른 바다로 날아가려고 한다. 남쪽 바다란 하늘의 못, 천지이다.[北冥有魚，其名爲鯢。鯢之大，不知其幾千里也。化而爲鳥，其名爲鵬。鵬之背，不知其幾千里也。怒而飛，其翼若垂天之雲，是鳥也，海運則將徙於南冥，南冥者，天池也.]”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87 올빼미를… 것이네 : 주공이 주(紂)왕의 아들 무경(武庚)이 관숙(管叔), 채숙(管叔)과 함께 일으킨 반란을 정벌하러 동쪽으로 간 일을 말하는 듯하다. 올빼미는 간악한 사람을 비유하는 말이다. 주공이 성왕을 깨우치기 위해 지은 시인 《시경》〈치효(鴟鵂)〉에서 “올빼미야 올빼미야, 이미 내 새끼를 잡아먹었으니, 내 집마저 헐지 말지어다.[鴟鵂鴟鵂! 既取我子，無毀我室.]”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올빼미는 무경을 가리킨다. 주(周)나라 무왕이 은(殷)나라를 멸망시킨 뒤 무경을 은나라의 옛 수도에 봉하고 동생들인 관숙, 채숙, 괄숙(霍叔)에게 무경을 감시하게 하였다. 성왕(成王)이 즉위하여 주공(周公)이 섭정을 하자 관숙 채숙이 무경과 함께 반란을 일으키면서 국중에 유언을 퍼뜨려

갈까마귀는 떼 지어 다니며 쪼아댈 곳 알고	鸞斯之類頻兮知所唆
앵무새는 폴짝폴짝 뛰어 모여들 곳 아니 ⁸⁸	鳩鵲之跼跼兮知所集
이로 인해 날개가 있으면 반드시 날아오르고	是知有羽必翺
날아오르면 반드시 쉴다는 것을 아네	有翺必息
날개 들쭉날쭉한 제비는	差池海乙
오르락내리락 날아다니고 ⁸⁹	載頎載頎
피꿀피꿀 우는 황조는	綿蠻栗留
언덕에 앉아 있네 ⁹⁰	止於丘隅
혹은 갈대 물고 양을 따르고	或銜蘆而卽陽
홀연 아득히 날아올라 우인을 피하며 ⁹¹	乍冥冥而避虞

서 주공이 장차 성왕의 자리를 빼앗을 것이라고 하였다. 성왕이 주공을 의심하자 주공은 동쪽으로 가서 이들을 토벌하였다. 주공은 반란을 진압한 이후에도 성왕이 자신의 뜻을 알아주지 않자, <치효> 시를 지어 성왕을 깨닫게 하고서야 3년 만에 비로소 돌아올 수 있었다.

- 88 앵무새는…아니 : 구곡(鳩鵲)은 구곡(鸛鵲)과 같은 말로, 앵무새를 가리킨다. 《좌전(左傳)》 소공(昭公) 25년 조에 인용된 동요의 가사에 “앵무새가 뛰어다니면 임금님 간후에 계시면서 의복을 요구하리라.[鸛鵲跼跼, 公在乾侯, 徵褰與襦.]”라고 한 것이 보인다.
- 89 날개…날아다니고 : 원문의 ‘해을(海乙)’은 제비[燕]의 별칭이다. 제비가 남방에서 태어나 바다를 건너온다고 생각했기에 이렇게 부른다. 《시경》 <패풍(邶風) 연연(燕燕)>에서 “제비들이 넓이여 그 날개가 들쭉날쭉하다.[燕燕于飛, 差池其羽.]”라고 하였고 또 “제비들이 넓이여, 오르내리도다.[燕燕于飛, 頎之頎之.]”라고 하였다. “오르락내리락”에 해당하는 원문은 “載順載頎”인데, 규장각 본 《현주집》에는 “順”이 “頎”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타당하기에 원문을 수정하여 번역하였다.
- 90 피꿀피꿀…있네 : 《시경》 <면만(綿蠻)>에 “피꿀피꿀 피꼬리가 산언덕에 앉아 있네[綿蠻黃鳥, 止於丘隅.]”라고 하였다.
- 91 혹은…피하며 : ‘함로(銜蘆)’는 기러기가 일종의 자위본능(自衛本能)으로 입에 갈대를 물고 날아가는 것을 뜻한다. 《회남자(淮南子)》 <수무훈(修務訓)>에 “기러기는 바람을 이용하여 그 기력을 아끼고, 갈대

혹은 납월에 맞춰 갈대를 취하고 ⁹²	或捋茶而趁臘
문득 지지배배 울며 지붕으로 올라가네	旋啗啗而就屋
천지를 굽어보는 것은	覩圓方者
높이 나는 고니이고	鵠之舉也
남북으로 옮겨가기를 도모하는 것은	圖南北者
거대한 봉새라네	鵬之巨也
모두 의당 점차 나아가고 의당 무리지어야 하거늘	舉宜漸而宜萃
누가 함부로 빨리 날고 멋대로 모나게 구는가	疇妄戾而輕植
지금 나는 힘껏 날아오른 것이	今余所以決起
비록 이 정도에 이르러도 족하거늘	雖槍茲而亦足
어찌하여 덕목 ⁹³ 은 이와 반대라서	胡德牧之反是

를 물고 날아가 주살에 맞는 것을 예방한다.[夫鴈順風以愛氣力，銜鰓而翔以備矰弋.]”라는 말이 있다. 양을 따르다는 것은 《서경》〈우공(禹貢)〉의 “팽려에 물이 모여 흐르니, 양조(陽鳥)가 사는 곳이다.[彭蠡既豬 陽鳥攸居]”라고 하였는데, “양조(陽鳥)”에 대해 한(漢)나라 공안국(孔安國)은 전(傳)에서 “양기(陽氣)를 따르는 새로, 큰기러기나 기러기 따위이다.[隨陽之鳥，鴻雁之屬.]”라고 하였고, 공영달(孔穎達)은 소(疏)에서 “이 새는 해를 따라 남북으로 오르내리며 양기(陽氣)를 따르는 새이다. 이 때문에 양조(陽鳥)라고 한다.[此鳥南北與日進退，隨陽之鳥，故稱陽鳥.]”라고 하였다. 우인(虞人)은 고대에 산림과 동산을 관리하던 벼슬이다.

- 92 갈대를 취하고[捋茶] : 새가 등지에 깔 갈대를 취한다는 의미이다. 원문의 ‘날도(捋茶)’는 《시경》〈치효(鴟鵂)〉에서 “내 손을 부지런히 움직여, 내 갈대를 취해오네.[予手拊据，予所捋茶.]”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 93 덕목(德牧) : 봉황의 한 종류이다. 매승(枚乘)의 〈칠발(七發)〉에서 “이 룡과 덕목이 웅웅하게 떼지어 우네[螭龍德牧，崑崙群鳴.]”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서 “봉황 가운데 등에 무늬가 있는 것을 목이라고 하고 배에 무늬가 있는 것을 덕이라고 한다.[鳳背上文曰牧，腹下文曰德.]”라고 하였다. 《六臣註文選 卷34》

부질없이 비상하게 높이 오르는가	謾飛峙之異常
천 인 높이에서 노닌다고 들었는데	聞盤嬉於千仞
저는 또 어디로 가는가” 하였네	彼且適乎奚方
이에 작은 비둘기가 날개 펴고 날아와서	於是鸞鳩翼然翔行而進
다시 수리에게 힐문하기를	更詰于鵬曰
“오직 이 새에 대해	曰惟是蟲
내가 들은 것은 어떠한가	我聞如何
그 털은 어떠한고	其毛如何
성질은 또 어떠한며	性又如何
알을 깨고 나와 자랄 때	啄菹生成
어디에서 서식하는가	棲息如何
어리석어 이전에 들은 게 없으니	蒙未前聞
원컨대 가르침을 듣고자 하네” 하였네	願承一言
수리가 응답하여 말하기를	鵬應曰
“알겠네, 삼가 조목조목 말해보겠네	唯敬條之
오직 저 곤륜산에는	惟彼崑崙
언덕에 단혈산이 있는데 ⁹⁴	有丘丹穴之山
그 산은 높고 거대하며	其山也隆崇崩勞
우뚝하고 험준하며	崛屹崎嶇
가마득하고 아스라하며	岑嶽崑岵
가파르고 깎아지른 듯하네	崕巖嵬崔

94 언덕에 단혈산이 있는데 : 단혈산(丹穴山)은 봉황이 산다는 전설상의 단산(丹山)을 가리킨다. 《산해경(山海經)》 〈남산경(南山經)〉에 “단혈 산은 그 정상에 금옥이 많고, 단수가 흘러나와서 남쪽으로 발해까지 흘러간다. 그곳에 새가 사는데 모양은 닭과 같고 오색 무늬가 있으니 봉황이라고 한다.[丹穴之山, 其上多金玉, 丹水出焉, 而南流注于渤海. 有鳥焉, 其狀如鷄, 五采而文, 名曰鳳皇.]”라고 하였다.

나무는 모두 옥수이고 돌은 모두 옥이며	樹都琪石咸玉
붉은 연하 피어오르고 오색구름 서려 있으며	彤霞釀彩雲織
단 샘물이 깊숙한 곳에서 흘러나오고	玄醴滲其突
신령스러운 오동나무 산봉우리에 우뚝 서 있네	靈梧挺其崿
어느 날짐승도 새끼를 기르지 못하는 곳이자	几毛之所不乳
못 새들도 알을 낳지 못하는 곳인데	衆羽之所不卵
이에 맑게 우는 부리 있고	爰噉有觜
이에 드리워진 날개 있으니	載蕤其翰
한 마리 암컷과 한 마리 수컷으로 봉황이라 하네	一雌一雄曰鳳凰
다만 이 날짐승은	只其禽也
부리 구부러져 있고 주둥이 붉으며	鉤喙丹含
머리는 길고 눈은 별빛 같네	長顙星視
정수리에 자색 장식 있고 목에 비취빛 털 있으며	頂紫勝頸翠鬣
구포 ⁹⁵ 내보이고 오덕 ⁹⁶ 을 드러내네	呈九苞彰五德
깃드는 곳은 오직 오동나무이고	所峙惟桐
먹는 것은 오직 낭간 ⁹⁷ 이네	所食惟玕
깃털은 붉고도 희고	其毛則駢駢皛皛

95 구포(九苞) : 봉황의 아홉 가지 특징을 말한다. 그 아홉 가지는, 입은 함부로 울지 않고 마음은 법도에 맞고 귀는 멀리까지 잘 듣고 혀는 소리를 잘 내고 깃 색깔은 문채가 나고 벼슬은 붉은 색이고 발톱은 날카롭고 소리는 우렁차고 배는 아무것이나 먹지 않는 것이다.

96 오덕(五德) : 봉황의 날개에 있는 오색의 무늬를 가리킨다. 진(晉)나라 관박(郭璞)의 <봉조찬(鳳鳥贊)>에서 “봉황은 신령한 새이니, 실로 날짐승의 으뜸이라네. 그 몸은 여덟 가지 형상을 갖추고 있고 그 무늬는 오덕을 갖추고 있네. [鳳皇靈鳥, 實冠羽群. 八象其體, 五德其文.]”라고 하였다.

97 낭간(琅玕) : 봉황이 쪼아 먹는다는 죽실(竹實) 혹은 경실(瓊實)을 말한다.

찬란하고 선명하며	燦燦班班
오색이 현란하게 섞여 있고	五色炫而雜沓
뭇 색채가 빛을 내어 밟그스레하여	衆彩射而歛施
환하게 무늬가 일렁이고 반짝이니	煥乎文章之旖旎鱗亂兮
아아! 기이하여 눈이 휘둥그레질 만하네	吁可奇乎駭矚
그 소리는 웅웅황황하고	其音則嚙嚙啍啍
항항합합하며	吭吭呬呬
쟁쟁낭낭하고	鏘鏘琅琅
제제알알하네	嘒嘒戛戛
팔음이 조화를 이루어 청량하고	八音和而清亮
오성이 이어져 멀리 퍼져서	五聲屬而播逸
끊이지 않아 여운이 오묘하고 원활하니	纏乎其韻之夭眇完轉兮
아아, 또한 기이하여 귀가 시원해지네	吁亦異乎爽聽
이미 화려한 채색으로 겉모습 아름답다운데	既華彩之外斐
또 선계의 음률이 속에서 울려나오네	又仙律之中響
의당 인간 세상에 상서가 될 만하고	宜作瑞於人間
꿈틀대는 동물 중에서 신령함 드러내네	表靈異於蠢動
하물며 흰 학은 상서로운 동물 아닌데도 헛거를 탔으니 총애를 받았고 ⁹⁸	而況皓鶴非祥軒卽寵
흰 구관조는 귀한 동물 아닌데도 조롱에 넣어 황제에게 바쳐졌으니 또한 영화를 누렸으며 ⁹⁹	白鶴非貴籠又榮

98 흰…받았고 :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민공(閔公) 2년 조(條)에서 “위 나라 의공은 학을 좋아해서 학 중에는 대부의 수레를 타고 다니는 학도 있었다.[衛懿公好鶴, 鶴有乘軒者.]”라고 하였다.

99 흰…누렸으며 : 한유(韓愈)가 어떤 사람이 흰 까마귀와 흰 구관조를 조롱에 넣어서 황제에게 바치려고 서쪽으로 가져가는 것을 보고는[見行有籠白烏白鸛鶴而西者] “지금 이 새는 오로지 깃털이 기이하다

들짐승 가운데 공봉관이 있었고 ¹⁰⁰	獸有供奉之官
날짐승 가운데 설의랑이 있었음에랴 ¹⁰¹	禽有雪衣之郎
저 평범한 조무래기 새들이	彼庸雛與常鷺
모두 꾸민 것 드러내고 기예를 자랑할 때	舉逞飾而銜技
어찌하여 이 새는 아득히 날아가	胡茲羽之遐舉
멀리 세속을 끊고서 높이 오르는가	遑絕世而高厲
펼럭펼럭 날개 치고	觀其翺翺其翼
획획 돌며	翺翺其翔
쌍쌍 솟구치고	翩翩其竦
훨훨 날아오르는 것을 보면	翊翊其颺
머리 쳐들고	昂其首
꼬리 펼치고	展其尾
발톱을 움크리고	拳其爪
부리를 모으네	斂其觜

는 이유로, 도덕과 지략이 있어서 고문을 입고 교화를 돕는 것이 아닌데도, 도리어 발탁되어 바쳐져서 영광을 누리는 것이 이와 같구나 [今是鳥也，惟以羽毛之異，非有道德智謀，承顧問贊教化者，乃反得蒙採擢薦進，光耀如此.]”라고 탄식했던 데서 온 말이다.

100 들짐승…있었고 : 《연감유함(淵鑒類函)》〈수(獸) 선후(獼猴)〉에서 “당(唐)나라 소종이 이리저리 떠돌 때 어가를 따르며 원숭이를 희롱하는 자가 있었다. 원숭이가 잘 길들여져서 관원들을 따라 일어났다 앉았다 하니 소종이 관복을 내리고 손공봉이라고 칭하였다.[唐昭宗播遷，隨駕有弄猴者。猴頗馴，能隨班起居，昭宗賜以緋袍，號孫供奉.]”라고 하였다.

101 날짐승…있었음에랴 : 설의랑(雪衣郎)은 원래 설의랑(雪衣娘)으로, 백앵무(白鸚鵡)를 가리킨다. 《양태진외전(楊太眞外傳)》에서 “당나라 현종 때 광남(廣南)에서 흰 앵무새를 진상하였는데, 매우 영리하여 사람의 말소리를 잘 알아들었으므로 설의녀(雪衣女)라고 불렀다.”라고 하였다.

마침내 회오리바람을 타고 빙글빙글 돌면서	遂乃扶搖羊角
홀쩍 뛰어올라 빠르게 날아가서	逸越漂疾
진세를 벗어나고 세속을 넘어가고	超埃壒而度垠垠
더러운 곳 탈출하고 시끄러운 곳 뛰어넘고	拔洿淖而踔囂聒
맑은 구름 위로 올라가고 흐르는 노을을 넘어가고	騰清霄而軼浮景
꿈틀대는 미물들 지나 광활한 하늘로 올라가서	歷蟻蠓而亢寥廓
하늘을 등에 지고 발로는 뜬 구름을 가르고	背負天輪兮足振浮雲
횡으로 연란산 ¹⁰² 을 스치고 북두성과 북극성을 바람처럼 지나고	橫掠椽欒兮翺斗極
번개처럼 날아서 아득한 곳으로 넘어가서	揮電霍兮跨汗漫
찬 하늘로 올라가버려 자취가 사라졌네	攀薄凌兢兮影滅沒
아아, 온갖 맹금이 사납게 물어뜯고자 하나	嗟百鷲之厲吻兮
모두 방향을 잃고서 간 곳 몰라 하니	舉迷向而失涉
하물며 저 올빼미가 곧장 따라간들	矧一鴞之直上兮
어찌 소리를 쫓고 자취를 찾을 수 있으랴	豈追響而索迹
이에 하늘을 순식간에 넘어가	於是天俄可度
바람이 아래에 있으니	風斯在下
까마귀와 까치는 시끄럽게 짹어댈 수 없고	烏鵲不得噪
올빼미와 부엉이는 꺽 소리칠 수 없으며 ¹⁰³	鴟鵂不得嚇

102 연란산(椽欒山) : 산 이름으로, 감천궁(甘泉宮)의 남쪽에 있는 산이다. 양웅(楊雄)의 <감천부(甘泉賦)>에서 “연란산(椽欒山)에 올라 하늘의 문을 어루만지고, 창합(闔闔)의 관문에 달려가 구천(九天)의 차가운 경계에 들어서는 것 같았습니다.[登椽欒而狃天門兮，馳闔闔而入凌兢.]”라고 하였다.

103 올빼미와...없네 : 《장자(莊子)》 <추수(秋水)>에서 “남쪽에 새가 있는데 그 이름이 원추라고 하네. 자네는 알고 있는가? 이 원추는 멀리 남쪽 바다에서 날아올라 북쪽 바다로 날아가는데, 오동나무가 아니

보라매도 잡을 수 없고	神鷹不得拏
송골매도 낚아챌 수 없네	霜鵑不得攫
곤충과 벌이 없는 벌레들은	昆蚊喘蜚之類
그의 주둥이를 채울 수 없고	不得逞其味
곡식과 과일처럼 싹이 트는 식물은	穀果萌芽之物
그의 쪼임을 받을 수 없네	不得備其啄
우인과 주살 든 이 사방에 그물을 펼치지만	虞者弋者張網四面
저주하는 자 쇠뇌를 시험할 수 없고	而祝者不得售其機括
이운과 역아 고기 잘라 조미하여 요리하지만 ¹⁰⁴	伊也易也割和五味
삶으려는 자 솥과 도마 펼칠 수 없네	而烹者不得施其鼎俎
이에 기린 탄 우인	乃有驂麟羽子
난새를 희롱한 신선	狎鸞仙父

면 머물지 않고, 연실이 아니면 먹지 않고, 예천이 아니면 마시지 않는다네. 그런데 그때 술개가 썩은 쥐 한 마리를 얻었는데, 마침 원주가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다네. 그랬더니 술개가 썩은 쥐를 빼앗길까 두려워 위를 보고 짹! 하고 소리를 질렀다 하더구만. 지금 그대는 그대의 梁나라 재상 자리를 가지고 나에게 짹! 하고 소리를 지르는가? [南方有鳥, 其名爲鵯鵊, 子知之乎? 夫鵯鵊, 發於南海而飛於北海, 非梧桐不止, 非練實不食, 非醴泉不飲. 於是鴟得腐鼠, 鵯鵊過之, 仰而視之曰“嚇”. 今子欲以子之梁國而嚇我邪?]”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 104 이운(伊尹)과…요리하지만 : 이운은 탕(湯) 임금을 보좌하여 하(夏)나라를 멸망시키고, 상(商)나라를 건립하는 데 큰 공을 세웠던 재상이다. 이운은 탕왕을 성군(聖君)으로 만들고 싶어도 방법이 없자 유신씨(有莘氏)의 잉신(媵臣)이 된 뒤에 술과 도마를 지고 찾아가서 음식 요리를 가지고 탕왕을 설득하여 왕도에 이르게 했다 한다. 《史記 卷3 殷本紀》역아(易牙)는 중국 춘추 시대 제(齊)나라 환공(桓公)의 총신으로, 요리를 잘하고 음식의 맛을 잘 알았다고 한다. 《맹자》〈고자상(告子上)〉에서는 “맛에 대해서는 천하 사람들이 모두 역아를 기준으로 하였다.[至於味, 則天下期於易牙.]”라고 하였다.

연하를 헤친 자진 ¹⁰⁵	披霞子眞
구름을 밟은 농옥 ¹⁰⁶ 과	蹋雲弄玉
혹은 한문 ¹⁰⁷ 에서 맞이하고	或相邀乎寒門
혹은 적석 ¹⁰⁸ 에서 서로 따르며	或相馴乎積石
마침내 영원히 떠나가서 돌아오지 않으니	遂長往而不返
아득하여 초일한 발자취를 따를 수 없네” 하였네	杳莫拊其逸躅
말을 마치기 전에	談未卒
작은 비둘기가 말하기를	鸞鳩曰
“아아, 그렇다면 이 새는	噫然則是禽也
들을 수는 있어도 볼 수는 없고	有聞無見
소리는 있어도 형체가 없으니	有聲無形
비록 조류와 동족이기는 하지만	雖同族於羽毛
본래 평범한 새와는 자질이 다르네	固異質於尋常

105 연하를 헤친 자진(子眞) : 한나라 때 은사(隱士)인 정박(鄭樸)을 가리킨다. 양웅(楊雄)의 《법언(法言)》〈문신(問神)〉에 “곡구의 정자진(鄭子眞)은 뜻을 굽히지 않고 암석(巖石) 사이에서 발을 갈며 살았는데 그 이름이 서울을 진동하였다.” 하였다.

106 구름을 밟은 농옥(弄玉) : 농옥은 춘추 시대 진 목공(秦穆公)의 딸이다. 생황을 잘 불었던 농옥은 통소를 잘 부는 소사(蕭史)를 만나 결혼하였다. 소사가 농옥에게 통소를 가르쳐 농옥이 통소로 봉황의 소리를 낼 수 있었는데 봉황이 그들의 집에 와 앉기에 봉대(鳳臺)를 짓고 부부가 함께 거처하다가 봉황을 타고 신선이 되어 날아갔다고 한다.

107 한문(寒門) : 북방의 지극히 한랭(寒冷)한 지역을 말한다. 《회남자(淮南子)》〈지형훈(地形訓)〉에 “북방은 북극의 산이라고 하고, 한문이라고 한다.[北方曰北極之山, 曰寒門.]”라고 하였다.

108 적석(積石) : 청해성(青海省) 동남부에서 감숙성(甘肅省) 남쪽에까지 걸쳐 있는 산 이름이다. 《서경》〈우공(禹公)〉에 “하수를 인도하되 적석으로부터 용문에 이르며 남쪽으로 화음에 이르고 동쪽으로 지주에 이른다.[導河積石, 至于龍門, 南至華陰, 東至砥柱.]”라고 하였다.

저 천인 높이의 푸른 하늘에서 彼千仞之蒼蒼兮
날아가는 것을 누가 보았는가 夫孰視其翱翔
나는 그대가 말한 봉새가 余固知子所云鳳者

장자가 말한 뱀새와 봉새 같은 것임을 본래 아네” 하였네.

歸漆園鷦鷯之寓言

수리가 이에 탄식하며 말하기를	鵬乃嘆然嘆曰
“이른바 봉새라고 하는 것이	謂鳳鳥者
어찌 그러하겠는가	豈其然乎
이미 난세가 물러가고 치세가 드러나면	既亂遁而治見
어찌 한 번 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겠는가	寧一往而不復
이것을 일러 인한 새라고 하니	是謂仁鳥
기다리는 것은 덕이 있는 사람이네	其俟也德
이러한 까닭에 황제가 떠난 세상 ¹⁰⁹ 에서 날아가버렸고	

是故翔乎攀援之世

구름과 새로 관직명을 삼던 나라¹¹⁰에 모여들었으며 集于雲鳥之國
사람과 신이 뒤섞여 살았던 시대¹¹¹에 올라가버렸고

109 황제가 떠난 세상(攀援之世): 원문의 ‘반원(攀援)’은 황제 헌원씨(黃帝軒轅氏)가 승하할 때 하늘에서 용이 수염을 드리우고 내려와 그를 모시고 올라갔는데, 이때 황제를 따라 하늘로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이 용의 수염을 잡고(攀髯) 하늘에 오르려고 하다가 용의 수염이 뽑히면서 땅에 떨어졌다는 고사에서 온 말이다.

110 구름과…나라 : 황제(黃帝)와 그의 아들인 소호(少皞)가 다스리던 시대를 가리킨다. 《춘추좌씨전》 소공(昭公) 17년 조에서 “옛날에 황제씨(黃帝氏)는 구름으로 일을 기록하였다. 그러므로 백관(百官)의 장관을 모두 ‘운(雲)’으로 명명(命名)하였다. …소호(少皞) 지(摯)가 즉위할 때 마침 봉조(鳳鳥)가 날아왔으니, 그러므로 새로써 일을 기록하고 백관의 장관을 모두 ‘조(鳥)’로 명명하였다.”라고 하였다.

111 사람과...시대: 《국어(國語)》 〈초어 하(楚語下)〉에서 “소호씨(少皞氏)

舉乎人神雜糅之代

균천의 광악¹¹²이 올리는 곳에 내려앉았네 下乎鈞天廣樂之域

생고기 먹고 피 마시며 강포하게 굴던 시대¹¹³에는 도망갔고

遁乎茹毛飲血睢睢盱盱之時

요순이 다스리는 화락하고 행복한 시절¹¹⁴에 와서 춤을 추었네

)가 쇠락하게 되자 구려(九黎)가 덕정(德政)을 어지럽혀 백성과 신이 뒤섞여 명물을 구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民神雜糅, 不可方物.] 사람마다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집집마다 무(巫)와 사(史)가 되어 약속과 신의가 없게 되었습니다. 백성은 각자 지내는 제사 때문에 재물이 결핍되었는데도 복이 내려지는지 알지 못하였고 제사를 지내는 데에 법도(法度)가 없어서 백성과 신이 지위가 같게 되었으며, 백성은 함께 약속한 일을 모독하여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졌습니다.”라고 하였다.

112 균천(鈞天)의 광악(廣樂): 천상(天上)의 음악을 말한다. 춘추 시대 진(晉)나라 조간자(趙簡子)가 병이 들어 의식을 잃었다가 이를 반 만에 깨어나서 대부(大夫)에게 이르기를 “내가 상제가 계신 곳에 가 보니 매우 즐거웠다. 온갖 신들과 함께 균천에서 노니는데, 광악 아홉 곡을 연주하고 만인이 춤을 추니, 삼대의 음악과는 같지 않으나 그 소리가 사람의 마음을 동하게 하였다.[我之帝所, 甚樂, 與百神遊於鈞天, 廣樂九奏萬舞, 不類三代之樂, 其聲動人心.]”라고 하였다. 《史記 卷43 趙世家》

113 생고기를…시대: 새나 짐승을 잡아 털도 제대로 안 뽑고 피도 씻지 않고 날것으로 먹던 아득한 원시 시대를 가리킨다.

114 요순이…시절: 《사기》〈태사공자서(太史公自序)〉에 “요순은 땅의 높이가 석 자였고, 흙으로 쌓은 섬돌은 세 계단이었으며, 지붕을 인 띠풀은 가지런히 자르지 않았고, 서까래는 별채한 대로 쓰고 다듬지 않았다.[堂高三尺, 土階三等, 茅茨不翦, 采椽不斲.]”라고 하였다. 희희호호(熙熙皞皞)는 화락(和樂)하고 자득(自得)한 모양을 말한다. 《노자(老子)》 제20장에 “세속 사람들은 희희하여 마치 잔칫상을 받은 듯이, 봄날 누대에 오른 듯하다.[衆人熙熙, 如享太牢, 如登春臺.]”라고 하였고, 《맹자(孟子)》〈진심 상(盡心上)〉에 “성왕의 백성은 화락하다.[王者之民, 皞皞如也.]”라고 하였다.

그 알을 먹어 양식으로 삼으니	食卵爲糧兮
현원씨의 세속 버릴 만했네 ¹¹⁵	宜棄軒轅之俗
문왕의 명성 크고 웅장하니	遙駿厥聲兮
높은 기산에 호응할 만했네 ¹¹⁶	宜答岐山之嶽
그러므로 한 번 오고 한 번 우는 때는	故一來與一鳴
지극한 덕이 있는 이가 다스리는 성대한 시대여야 하네	須至德之昌辰
거의 성인이신 공자 ¹¹⁷ 가 신하가 되었는데도	彼將聖之爲臣兮
오히려 임금다운 이가 없음을 한하였고	猶有憾於無君
기린이 비록 나왔지만 붙잡혔으니 ¹¹⁸	麟雖出兮遇獲

-
- 115 알을…했고 : 현원(軒轅)은 황제(黃帝)의 이름이다. 《포박자(抱朴子)》에서 “옛날 태평한 시대에 봉황이 그 나라에 살면서 새끼를 낳았는데 하후씨 대에 이르러서 알을 먹으니 봉황이 비로소 떠나갔다.[古者太平之世, 鳳凰居其國而生乳, 至夏后氏食卵, 鳳始去之.]”라고 하였다. 《詩傳名物集覽 卷2》
- 116 문왕의…만했네 : 주(周)나라 문왕(文王)이 성덕(盛德)을 베풀자 봉황이 기산(岐山) 아래에 날아와 울었다 한다. 《시경》〈문왕유성(文王有聲)〉에서 “문왕께서 명성을 두심이며 크게 명성을 두셨도다. 천하의 편안함을 구하시어, 성공을 보셨으니, 문왕께서는 임금다우시다.[文王有聲, 遙駿有聲. 遙求厥寧, 遙觀厥成, 文王烝哉.]”라고 하였고, 《국어(國語)》〈주어(周語)〉에서 “주나라가 일어날 무렵에 기산에서 봉황이 울었다.[周之興也, 鸞鸞鳴於岐山.]”라고 하였다.
- 117 거의 성인[將聖]이신 공자 : 원문 ‘장성(將聖)’은 《논어》〈자한(子罕)〉에 공자의 제자 자공(子貢)이 “우리 선생님은 실로 하늘이 내신 거의 성인입니다.[固天縱之將聖.]”라고 한 말에서 유래하였다.
- 118 기린이…붙잡혔으니 : 노 애공(魯哀公) 14년 봄에 서쪽으로 사냥을 나가서 숙손씨(叔孫氏)의 하인 서상(鉅商)이 기린을 잡았는데, 공자가 본디 성왕(聖王)의 상서인 기린이 난세(亂世)에 잘못 나와서 잡혀 죽은 것을 보고는 “나의 도가 궁하였도다.[吾道窮矣]”라고 탄식하였다고 한다.

의당 울고자 해도 울지 못하였네	宜欲鳴而未鳴
성인의 덕이 쇠하였다는 노래 슬프니 ¹¹⁹	聖德衰之歌悲
응당 너 봉황이 상한 것을 슬퍼한 것이네	應爾鳳之惻傷
이로써 살펴보면	由是觀之
오백 년에 한 번 드러나서	則雖五百而一見
또한 드물게 보이는 상서라고는 하지만	亦希瑞而罕祥
천 년 동안 아득히 사라졌던 것은	曠千載寥寥邈邈兮
대개 있었을 터인데	蓋有之
내가 혹 듣지 못했을 뿐이리라	我或未聞
비록 그렇지만 비가 다하여 태가 되는 것이 ¹²⁰	雖然極否而泰
천도가 순환하는 바이고	道所循環
어두웠다가 밝아지는 것이	用晦而明
곧 천리가 드러나는 단서이니	乃理之端
도는 완전히 민멸될 수 없고	道不可以終泯
천리는 완전히 사라질 수 없네	理不可以終熄
하물며 지금 혼란을 제거하고 미치광이 배어버렸고	矧今剔昏焚芟狂惑
간사한 도적 막고 석학이 조정에 벌여 있으며	屏奸賊列鴻碩
소박한 이 등용하고 사치한 이 쫓았고	素朴登奢華黜

119 성인의…슬프니 : 《논어(論語)》〈미자(微子)〉에 초(楚)나라 광인(狂人) 접여(接輿)가 공자의 앞을 지나며 “봉황이여 봉황이여! 어찌 덕이 쇠하였는가. 鳳兮鳳兮! 何德之衰?”라고 노래한 일이 보인다.

120 비가…것이 : 비(否)와 태(泰)는 《주역》의 괘 이름으로, 비는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이 아래에 있어서 천지가 서로 막히는 상이고, 태는 하늘이 아래에 있고 땅이 위에 있어서 천지가 서로 교섭하는 상이다. 여기에서 비가 다하면 태가 된다는 것은 막힌 운수인 비에서 트인 운수인 태로 돌아온다는 뜻이다.

인자한 정치 펼치고 은혜를 베풀고 있음에라	仁滂霈惠霏霏
온갖 초목들 ¹²¹ 무성해지고	軫句芒
날짐승 들짐승 온전하게 되어	完獠獠
봄은 덕을 부끄러워하고	春羞德
바다는 은혜를 사양하니	海讓澤
노인들 노래하고 어린애들 춤을 추고	鮐耄歌兮齔齠舞
만물이 인의 영역으로 들어가네	輸萬物於壽域
봉황이 천인의 산봉우리에서 울리라 생각하여	想鸞鸞於千仞
아름다운 언덕에 곧 모여들 것을 기다리니	佇卽臻乎華岡
장차 한 번 울어 사람들 놀래킬 것이지	將一鳴而驚人
어찌 영원히 사라져 소리 없어지리” 하였네	豈永絕而無聲
마침내 <봉지자> 삼장을 지으니	遂作鳳之觜三章
그 시에 이르기를	其詩曰
“봉새의 부리여	鳳之觜兮
덕의 상서로다	德之瑞兮
아아, 봉새여	吁嗟鳳兮
봉새의 꼬리여	鳳之尾兮
덕의 지극함이로다	德之至兮
아아, 봉새여	吁嗟鳳兮
봉새의 울음이여	鳳之鳴兮
덕의 성대함이로다	德之昌兮

121 온갖 초목들[句芒] : 원문의 ‘구망(句芒)’은 원래 봄과 목(木)을 담당하는 신인데, 여기에서는 초목의 의미로 쓰였다. 《예기(禮記)》〈월령(月令)〉에 “맹춘(孟春)에…그 신은 구망이다.”라고 한 데 대한 소(疏)에서 “구망이란 생목(生木)을 담당한 관(官)으로 나무가 처음 싹이 틀 때 굽으면서 까끄라기가 있기[句屬而有芒角] 때문에 구망(句芒)이라 하였다.”라고 하였다.

아아, 봉새여” 하였네	吁嗟鳳兮
시를 마치자	詩罷
이어 <봉혜> 노래를 읊으니	仍詠鳳兮之歌
노래에 이르기를	歌曰
“성군이 이미 멀어졌고	聖王既逝
대도가 이미 숨었으니	大道既隱
봉새여 봉새여	鳳兮鳳兮
어찌하여 멀리 날아가는가	何翔之遠
성군이 이미 일어났고	聖王既作
대도가 이미 드러났으니	大道既顯
봉새여 봉새여	鳳兮鳳兮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何來之晚
천 인 높이 바라보아도 보이지 않고	仰千仞其無覩
다만 올빼미만 하늘에 가득하도다” 하였네	但鷗梟之漫空
이에 작은 비둘기가 얼굴빛이 하얗게 질리고	於是鸞鳩乃翟翟于色
마음이 불안하여	翟翟于中
망연하게 무엇을 잃은 듯하고	茫然若喪
허전하게 무엇을 놓친 듯하여 말하기를	蹶然若失曰
“지금 나는 우러러 하늘을 보고	今我仰而視
굽혀서 벌레를 쪼고	俛而啄
새매에게서 도망가고	逃於隼
주살을 피하며 살고 있네	匿於弋
작은 뽕나무 꼭대기로 뛰어오르고	跳梁乎女桑之顛
무너진 울타리 틈에서 머뭇거리며	彳 亍乎崩籬之隙
활짝 날개 펴고 날아도	奮然鼓翼
삼층탑도 뛰어넘지 못하고	不越三劫之塔

재빨리 달려 나가고	突爾迅征
작은 뜰도 건너지 못하네	未踰十步之庭
항상 머리를 움츠리고 꼬리를 감추고	恒畏首而畏尾
매와 새매 삶과 성성이를 경계하니	戒鷹鷂與狸狌
황새와 학이 높이 날아가는 것 쳐다보고	瞻鶴鶴之高翅
기러기와 고니의 자유로운 날갯짓 바라보고도	望鴻鵠之逸翮
오히려 부러워서	猶尙竦羨
보잘 것 없는 자신을 부끄러워했네	自慙蹇拙
선생에게서 단구의 봉황이	及聞先生丹岫彩翼
천 인 위로 높이 날아갔다가	高飛千仞之表
덕치가 이루어지면 모여든다는 설을 듣고는	覽德翔集之說
우물 안 개구리가 바다를 본 듯 놀랐고	然後驚猶井蛙之觀海
여름 벌레가 얼음을 본 듯 몸을 떨었으며	慄如夏蟲之見氷
병든 솔개처럼 의기가 꺾이고 ¹²²	場若病鷂
가을 파리처럼 말문이 막혔으며	默若癡蠅
황홀하게 정신이 혼미하여	惛惚然疑
어찌할 바를 모르겠네” 하였네	莫知所爲

122 병든…꺾이고 : 한유(韓愈)의 〈병치(病鷂)〉에서 “집 동쪽 더러운 개울에, 솔개 떨어져 슬프게 우네. 두 날개가 푸른 진흙에 덮여, 푸드덕거리며 빠져나오지 못하네[屋東惡水溝, 有鷂墮鳴悲. 青泥揜兩翅, 拍拍不得離.]”라고 하였다.

사석호¹²³부

射石虎賦

활 만드는 사람의 자식이 화살 만드는 집에 가서 힐문하기를

弓人之子往詰于矢人之家曰

“자네는 결습¹²⁴을 만드는 오묘한 기술을 아는가 若知夫決拾之妙乎

화살이 궁에서 날아가 鏑飛于窮

태양 속 까마귀를 아홉 마리 떨어뜨렸고¹²⁵ 陽鳥九落

화살촉이 기틀에서 발사되어 鏃發於機

매달려 있는 이를 적중하여 찢어버렸으며¹²⁶ 懸蝨中裂

123 사석호(射石虎) : 한(漢)나라의 장수 이광(李廣)이 사냥을 하고 밤늦게 돌아오다가 멀리 호랑이가 있는 것을 보고 온 힘을 다해 활을 당겨 쏘았는데, 가서 보니 호랑이가 아닌 큰 바위에 화살촉이 깊숙이 박혀 있었던 일을 가리킨다. 《史記 卷109 李將軍列傳》

124 결습(決拾) : 활을 쏘 때에 쓰는 제구이다. 결(決)은 짐승 뼈로 만든 것으로써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끼워서 활줄을 당기는 각지이고, 습(拾)은 가죽으로 된 것인데 왼팔에 걸어서 활줄이 옷에 닿는 것을 막는 것이다.

125 화살이…떨어뜨렸고 : 궁(窮)은 하(夏) 나라 시절에 존재했던 유궁국(有窮國)을 가리킨다. 유궁의 제후인 예(羿)는 활을 잘 쏜 것으로 유명하다. 예와 관련하여 양신(楊慎)이 저술한 《단연여록(丹鉛餘錄)》에서 “옛날 전하는 말에 ‘예사일락구오(羿射日落九鳥)’라는 말이 있는데, 까마귀는 가장 쏘아 맞추기 어려운 대상인데 하루에 아홉 마리의 까마귀를 쏘아 맞혔으니, 활소는 것이 민첩했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후세 사람들은 그 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마침내 아홉 개의 해를 쏘아 맞혔다고 여겼다.[古傳言羿射日落九鳥, 鳥最難射, 一日落九鳥, 言射之捷也. 而後世不得其說者, 遂以爲射九日矣.]”라고 하였다. 현주는 아홉 개의 해를 쏘아 맞춘 것으로 이해한 듯하다.

126 화살촉이…찢어버렸으며 : 기창(紀昌)이 비위(飛衛)에게 활쏘기를 배

흑은 표적을 세 번 연달아 관통했고 ¹²⁷	或三連乎其白
흑은 나뭇잎을 백 번 꿰뚫었네 ¹²⁸	或百穿之有葉
기교는 아무리 현묘해도	雖巧造乎玄機
또한 그 기술 배울 수 있는데	亦其術之可學
저 원숭이 팔을 한 늙은 장수 ¹²⁹ 가	獨怪夫猿臂之老將
밤에 화살을 바위에 깊이 박히게 한 일은 이상하니	致飲羽於夜石
기교로 말해보면	以言其巧
약한 대나무는 바위에 부딪히면 반드시 부러지기 때문이고	則脆竹之觸石也必折
힘으로 말해보면	以言其力
화살촉으로 바위를 뚫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네	則矢鋒之貫石也無術

웠는데, 작은 것을 크게 보려고 3년 동안 이를 창에 매달고 날마다 바라보며 매진하였다. 그러자 마침내 이가 수레바퀴처럼 보이게 되어 화살이 이의 심장을 꿰뚫고도 매단 털은 끊어지지 않게 되는 경지에 이르렀다고 한다. 《列子 湯問》

- 127 표적을…관통했고 : 고대에 나라의 자제를 가르치는 법에 다섯 가지 중 세 번째가 오사(五射)인데, 정현(鄭玄)의 주(註)에서 “오사(五射)는 백시(白矢), 삼련(三連), 섬주(剡注), 양척(襄尺), 정의(井儀)이다.” 하였고, 가공언(賈公彥)의 소(疏)에, “‘백시’는 화살이 과녁에 꽂혔는데 과녁을 관통해 나와서 살촉의 흰 부분이 보이는 것이다.…‘삼련’은 먼저 화살 한 발을 쏘고 뒤에 화살 세 개가 잇달아 과녁을 향해 날아가는 것이다.[白矢者, 矢在侯而貫侯過, 見其鏃白.…參連者, 前放一矢, 後三矢連續而去也.]”라 하였다. 《周禮 地官 司徒》
- 128 나뭇잎을…꺾뚫었네 : 춘추 시대 초 공왕(楚共王)의 장군인 양유기(養由基)가 100보 떨어진 거리에서 버들잎을 활로 쏘아 백발백중시켰다는 고사가 전한다. 《史記 卷4 周本紀》
- 129 원숭이…장수 : 이광(李廣)을 가리킨다. ‘원비(猿臂)’는 원숭이처럼 긴 팔이라는 말로, 활의 명인을 지칭할 때 흔히 쓰는 표현인데, 이광이 원숭이처럼 팔이 길어 활을 잘 쏘았다고 한다. 《史記 卷109 李將軍列傳》

사실이라 한다면	以爲眞也
귀신도 미칠 수 없는 경지이고	鬼神之所不及
거짓이라 한다면	以爲僞也
태사가 명백하게 실어 놓은 일이네	太史之所昭載
조물주라 해도 오히려 하기 어려운 일인데	雖造化猶有所憾
사람의 힘이 어찌 여기에 이른단 말인가	夫人力豈至此乎
이광은 어떤 사람이고	廣是何人
행적은 어떠했는가	所爲如何
어리석은 나는 반신반의하여	蒙竊然疑
진실인지 거짓인지 분별할 수 없으니	莫析詳訛
눈멀고 귀먹은 나를 위해	盍爲聾瞽
일의 시말을 대략 말해주지 않겠는가” 하였네	粗敘終始
화살 만드는 사람이 말하기를	矢人曰
“알겠네, 삼가 자네를 위해 말해보겠네	唯敬爲子說
한나라 삼 세 때	惟漢三世
도가 높고 치적이 융성하였는데	道亢治聳
농서와 촉 땅에 간기가 흩어져	散隴蜀之間氣
장군이나 재상을 얻을 종자가 있었네 ¹³⁰	得將相之有種
이에 길한 꿈 꿈을 꾸고 ¹³¹	於是惟熊瑞夢
고현 선인의 성을 타고 나서 ¹³²	苦縣仙姓

130 농서와…있었네 : 이광은 농서군(隴西郡) 사람이다.

131 길한…꾸고 : 사내아이가 태어날 꿈을 꾸었다는 말이다. 《시경》〈소아(小雅) 사건(斯干)〉시에 이르기를, “대인이 점을 치니 꿈 꿈은 사내를 낳을 상서이고, 뱀 꿈은 여아를 낳을 상서이다.[大人占之, 維熊維羆, 男子之祥, 維虺維蛇, 女子之祥.]”라고 하였다.

132 고현…나서 : 노자(老子)와 같은 이(李)씨 성을 타고났다는 의미이다. 《사기(史記)》〈노자한비열전(老子韓非列傳)〉에서 “노자는 초나라 고

백정들 사이에서 결발하였는데 ¹³³	結髮屠中
힘이 솥을 들 만하였네 ¹³⁴	九扛其鼎
그의 얼굴을 살펴보면	爾其頭輪
높다란 눈에서 번개가 일었고	嶷目電睒
등은 구부정하고	宛其脊
갈비뼈는 통뼈였으며 ¹³⁵	駢其脅
배는 사해를 품을 듯하고	胸四海
신장은 십 척이었네	身十尺
글은 하찮은 기예이고 검술은 한 사람만 상대하는 것이니 ¹³⁶	書雕蟲兮劍一人
마음에 원하는 바가 아니니	非余志之所欲

현 여항 곡인리 사람이다. 성은 이씨이고 이름은 이(耳)이고 자는 백양이며 시호는 담이다.[老子者, 楚苦縣厲鄉曲仁里人也. 姓李氏名耳字伯陽諡曰聃.]”라고 하였다.

- 133 백정들 사이에서 결발하였는데 : 이광이 평민 출신인 것을 가리키는 듯하다. <이장군열전(李將軍列傳)>에서 “이광의 가문은 대대로 궁술을 전수하였다. 효문제 14년, 흉노족이 대거 소관을 공격하자 이광은 양가의 자제로서, 종군하여 흉노를 무찔렀다.[廣家世世受射, 孝文帝十四年, 匈奴大入蕭關, 而廣以良家子從軍, 擊胡.]”라고 하였다.
- 134 힘이…만하였네 : 《사기》〈항우본기(項羽本紀)>에서 “항적은 키가 팔척 정도였고 힘은 솥을 들 수 있을 정도였다.[籍長八尺餘, 力能扛鼎.]”라고 하였다.
- 135 갈비뼈는 통뼈였으며 : 갈비뼈가 붙었다는 뜻으로, 진 문공(晉文公)이 이런 몸이었다고 한다. 《춘추좌씨전》 희공(僖公) 23년 조에 “진 공자의 통뼈 갈빗대를 보려 하여 그가 옷 벗고 목욕할 때에 바깥 다가가서 보았다.[晉公子駢脅欲觀, 其裸浴, 薄而觀之.]”라고 하였다.
- 136 글은…것이니 : 항우(項羽)는 “글은 성명을 기록할 줄만 알면 충분하고, 검은 한 사람만을 상대하는 것이니 배울 가치가 없다. 나는 만인을 상대하는 법을 배우고 싶다.[書足以記名姓而已, 劍一人敵, 不足學, 學萬人敵.]”라고 말하고는 병법(兵法)을 배웠다고 한다. 《史記 卷7 項羽本紀》

이에 왼손을 뻗고 오른손을 굽혀 활을 쏘고는 爰支左屈右而彈射
 나는 방몽¹³⁷의 절묘한 기술을 배우겠노라 하였네 云余學乎逢蒙之妙術
 고조 때 미치지 못한 것을 개탄한 慨莫逮乎高帝
 문제의 탄식이 있었고¹³⁸ 有文皇之歎咎
 큰일을 좋아했던 효무제¹³⁹ 시대에 際孝武之好大
 항오 사이에서 발탁하여 대장기 세우게 하였네 拔行間而樹大纛
 서로 북으로 좌충우돌하면서 이오¹⁴⁰에서 활을 당기자
 西衝北突兮弓搭伊吾
 모래밭에 머리가 덩굴고 자갈밭에 골수가 흘러 오랑개 땅에 시체 즐
 비했으며 腦沙髓磧兮羌棘骨暴
 혹은 안장을 풀고 편안하게 자서 오랑개가 용기를 잃게 하고¹⁴¹

-
- 137 방몽(逢蒙) : 하(夏)나라 사람으로, 예(羿)에게 활 쏘는 법을 배웠는데 천하에서 자기보다 활을 잘 쏘는 자는 오직 예라 생각하고 스승인 예를 죽였다.《孟子 離婁 下》
 138 고조(高祖)…있었고 : 문황(文皇)은 한나라 문제(文帝)를 가리킨다. 문제가 탄식했다는 것은 <이장군열전>에서 “이광이 일찍이 황제의 행차를 수행하였는데, 용감하게 싸워 난관을 돌파하고 맹수를 때려죽이는 것을 본 문제가 ‘아깝도다, 그대는 때를 만나지 못하였구나! 만일 고조 때 살았더라면 만호후에 봉해지는 것쯤은 말할 필요도 없었을 것인데.’라고 탄식하였다.〔嘗從行，有所衝陷折關及格猛獸，而文帝曰：惜乎，子不遇時！如令子當高帝時，萬戶侯豈足道哉？〕”라고 한 것을 가리킨다.
 139 큰일을…효무제(孝武帝) : 《통감절요(通鑑節要)》 권18에서 “장제는 자상한 장자로서 본래 무제처럼 큰 일을 좋아하고 공을 좋아하는 군주가 아니었다.〔章帝慈祥長者，本非武帝好大喜功之君。〕”라고 하였고, 나필(羅泌)의 《노사(路史)》에서도 “한 무제는 큰 일을 좋아하고 공을 세우기를 즐겼다.〔漢武帝好大而喜功。〕”라고 하였다.
 140 이오(伊吾) : 서역(西域)의 한 지명(地名)으로, 원래 농사가 잘되는 비옥한 땅이라서 그 북쪽 근처에 있는 비옥한 유중(柳中)과 아울러 한(漢)나라와 흉노가 항상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벌였다.
 141 안장을…하고 : 이광이 100명의 기병으로 흉노를 쫓다가 흉노 진영 근

或解鞍閑眠而奪胡氣

혹은 죽은 체하다 그물에서 말에 뛰어올라 오랑캐의 혼백이 달아나게 하였네¹⁴²

或佯死超絙兮褫胡魄

사막의 남북으로 왕정¹⁴³이 끊어지고

漠南北兮王庭絕

처에서 1000여명의 흉노 기병에게 포위되었을 때의 일이다. 당시 이광은 기병들에게 전진을 명하고 흉노의 진영 앞에서 안장을 풀고 쉬게 하여 자신들이 대군을 이끌고 오고 있는 듯이 보이게 하여 흉노가 포위를 풀고 도망가게 만들었다. <이장군열전>에서 “이광은 기병들에게 전진하라고 명령하였다. 흉노의 진지에서 2리 정도 떨어진 곳에 정지하여 ‘모두 말에서 내려 인장을 풀어라.’라고 명령하면서…‘저 적들은 우리들이 달아날 줄로 알고 있으니, 지금 우리가 모두 안장을 풀고 달아나지 않음을 보여 줌으로써 우리가 대군을 이끌고 왔다는 추측을 굳히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흉노 병사들은 또 한나라의 북병이 부근에 잠복해 있다가 야음을 타서 습격하려 한다고 생각하여 모든 군사들을 이끌고 철수해버렸다. [廣令諸騎曰前。前未到匈奴陳二里所止，令曰：皆下馬解鞍。…廣曰：彼虜以我爲走，今皆解鞍以示不走，用堅其意。…胡兵亦以爲漢有伏軍於旁，欲夜取之，胡皆引兵而去。]”라고 하였다.

- 142 죽은…하였네 : 이광이 부상당한 채 흉노 기병에게 붙잡혀서 말 사이에 설치한 그물에 실려 끌려가다가 곁에 따라가던 흉노 아이의 말에 갑자기 올라타서 흉노 아이를 밀어 떨어뜨리고 말을 달려 무사히 돌아온 일을 말한다. <이장군열전>에서 “흉노 기병이 이광을 붙잡았을 때 이광은 부상을 입어 앓고 있었으므로 두 필의 말 사이에 그물을 설치하여 그 위에 이광을 놓혔다. 이렇게 하고 10여 리를 가는데 이광이 죽은 척하고 누워 있다가 곁눈으로 살펴보니 옆에 한 흉노 소년이 좋은 말은 타고 있었다. 이광이 갑자기 흉노 아이의 말에 뛰어 올라 아이를 밀어 떨어뜨리고 그 활을 탈취하였다. 그리고 말에 채찍질하여 남쪽으로 수십리 달리다가 잔여부대를 만나 그들을 인솔하여 요새로 들어왔다. 胡騎得廣，廣時傷病，置廣兩馬間絡而盛臥。廣行十餘里，廣佯死，睨其旁有一胡兒騎善馬，廣暫騰而上胡兒馬，因推墮兒，取其弓，鞭馬南馳數十里，復得其餘軍，因引而入塞。”라고 하였다.

- 143 왕정(王庭) : 흉노족의 선우(單于)가 거처하는 궁궐을 가리킨다. 《통감요해(通鑑要解)》에서 “선우는 성곽이 없어서 그 집 앞의 땅이 정(庭)과 같기 때문에 이렇게 부른다.” 하였다.

음산한 바람 그치고 살기가 건하니	陰飊息兮殺氣衰
청해만에서 피 묻은 화살을 씻고	血洗箭兮青海灣
옥문관에서 다투어 노래하고 북을 울렸네	歌鼓競兮玉門關
공은 천하제일이라 논할 만한데	功可論兮蓋天下
만호후에 오르지 못한 것은 운이 기구해서네	侯萬戶兮乃數奇
이에 호부를 풀고 어리진을 해산하니 ¹⁴⁴	於是釋虎符解魚麗
가을 연꽃 ¹⁴⁵ 이 갑 속에서 녹이 슬었으며	秋蓮匣綠沈澹
용정 말아 넣으니 수고 소리 사라지고 ¹⁴⁶	龍旌卷兮獸鼓死
갑옷 벗으니 전쟁 나팔 소리 그쳤네	甲鱗謝兮鳴螺息
당시의 백전백승의 용감한 장수가	當時百戰之勇
지금 쑥대 우거진 가난한 집 사람 ¹⁴⁷ 이 되어	今日蓬蒿之人

-
- 144 호부(虎符)를…해산하니 : 병부를 내려놓고 군진을 해산시켰다는 의미이다. 호부는 군사를 발병할 때 사용하던 병부(兵符)이다. 구리로 범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 어리진(魚麗陣)은 고대 진법(陣法)의 하나인데, 마치 물고기 비늘처럼 전차(戰車) 사이의 간격을 보병(步兵)으로 빈틈없이 메워 전진하여, 지극히 견고하고 치밀하여 필승을 기약할 수 있다고 한다.
- 145 가을 연꽃(秋蓮) : 검을 휘두를 때 일어나는 빛인 검화(劍花)를 비유한 말로, 전하여 검을 가리킨다. 이백(李白)의 〈호무인행(胡無人行)〉에 “유성과 같은 백우전(白羽箭)은 허리춤에 꽂고, 가을 연꽃은 칼집에서 나온다.[流星白羽腰間插, 劍花秋蓮光出匣.]” 하였다.
- 146 용정(龍旌)…사라지고 : 용정은 용을 그린 깃발로 대장기를 말한다. 수고(獸鼓)는 짐승 가죽으로 만든 북을 말한다.
- 147 쑥대…사람(蓬蒿之人) : ‘봉호(蓬蒿)’는 후한(後漢)의 은자(隱者)인 장중을(張仲蔚)이 늘 궁핍하게 살아 쑥대가 사람 키가 넘도록 자라나 집을 덮었다고 한 고사에서 온 말이다. 이광이 흉노에게 포로로 잡혔던 일로 문책을 받아 서인(庶人)이 되어 가난하게 살았던 일을 말한다. 이 일에 대해 〈이장군열전〉에서 “한나라로 돌아오자 한나라의 조정에서는 이광을 형리에게 넘겨 심판받게 하였다. 형리는 이광이 많은 부하를 잃고 적에게 생포되었으니 참수형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으나, 속죄금을 내고 평민이 되었다.[至漢, 漢下廣吏, 吏當廣所失

평소 사방을 경영할 뜻 있었지만	平生四方之志
고향에서 문혀 지내고	燕沒桑梓之間
동릉에 가을이 일찍 들어	東陵秋早
때때로 옛 동릉후의 오이를 팔았으니 ¹⁴⁸	時賣故侯之菰
패릉에서 밤에 돌아오다	霸岸宵歸
어찌 취한 패릉위의 꾸짖음을 면할 수 있으랴 ¹⁴⁹	寧免醉尉之訶
아아, 비통하여 울울한 심사 토해내니	嘯紆軫兮吐鬱
천 척 높이에 무지개 가로지르네	屈橫宛虹兮千尺
어찌하여 옛날의 비장군 ¹⁵⁰ 이	何舊日之飛將
지금 다만 이처럼 낙척했는가	今直爲此落莫

亡多，爲虜所生得，當斬，贖爲庶人.]”라고 하였다.

- 148 동릉에…팔았으니 : 이광이 서인이 되어 가난하게 살았다는 의미이다. 동릉은 진(秦)나라 때 동릉후(東陵侯)에 봉해진 소평(召平)을 가리킨다. 소평은 진나라가 멸망한 뒤 스스로 평민의 신분이 되어 장안성(長安城) 동문 밖에 오이를 심어 가꾸며 조용히 은거했는데, 특히 그 오이가 맛이 좋기로 유명하여 당시 사람들이 동릉과(東陵瓜)라고 일컬었다.《史記 卷53 蕭相國世家》
- 149 패릉에서…있으랴 : <이장군열전>에서 “이광은 전 영음후의 손자와 함께 시골에 문혀 살면서 남전현의 남산에서 사냥을 하고 지냈다. 어느 날 밤 기병 한 명을 데리고 나가서 사람들과 들에서 술을 마셨다. 돌아오는 길에 패릉정에 이르렀는데 패릉위가 취하여 꾸짖으며 이광을 제지하였다. 이광을 따르던 기병이 ‘전임 이 장군이십니다.’라고 하니 패릉위가 ‘현임 장군도 오히려 밤에 다닐 수 없는데 하물며 전임 장군이겠는가.’라고 하고는 이광을 제지하여 정 아래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하였다.〔廣家與故潁陰侯孫屏野居，藍田南山中射獵。嘗夜從一騎出，從人田間飲。還至霸陵亭，霸陵尉醉，呵止廣。廣騎曰：故李將軍，尉曰：今將軍尙不得夜行，何乃故也？止廣宿亭下。〕”라고 한 것을 가리킨다.
- 150 비장군(飛將軍) : 흉노가 이광을 부르던 호칭이다. <이장군열전>에서 “이광이 북평위에 부임하자 흉노가 이를 듣고는 한나라의 비장군이라고 부르면서 그를 피하여 몇 년 동안 감히 우북평군에 침입하지 못하였다.〔廣居右北平，匈奴聞之，號曰漢之飛將軍，避之數歲，不敢入右北平。〕”라고 하였다.

흥노가 날뛰어 화급한 경보가 발하자	逮乎跳梁報警
황제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마음 졸였고	宵旰煎惕
황제가 공의 수레를 밀어서 보내자 ¹⁵¹	皇推公轂
북평에 부절이 웅장했네	北平雄節
이에 위엄이 멀리까지 떨쳐서	於是威風遐煽
흥노가 초목처럼 시들어 떨어지니	草樹黃落
봉화가 낮에 걷히고	狼烽晝霽
야경꾼 딱따기 소리 밤에 고요해져서	虎坼宵
영문에서 휴가를 고하고	轅門告暇
병사들 노래 부르고 기병은 의기양양하네	士歌騎騰
서리와 싸락눈이 초목을 꺾어버리는 때였고	時霜霰之刻轡
날씨 추워 얼음이 얼려하는 즈음이었으니	際天侯之陰凝
장군이 이에 군사 훈련 빙자하여 사냥꾼 풀어놓고	將軍於是憑堅利以縱獠
겨울의 싸늘한 기운 따라 사냥을 했네	順玄沍以效殺
이에 왼쪽에 활 ¹⁵² 을 들고 오른쪽에 화살통 ¹⁵³ 끼고	乃左烏號右魚服

151 황제가…보내자[皇推公轂] : 옛날에 제왕이 장수를 파견할 때에 수레 바퀴통을 밀어 주면서 “도성 안은 과인이 제어할 테니 도성 밖은 그 대가 제어하라.[上古王者之遣將也, 跪而推轂, 曰闔以內者, 寡人制之, 闔以外者, 將軍制之.]”라고 하며 전권(全權)을 위임했던 것을 말한다. 《史記 卷102 馮唐列傳》

152 활[烏號] : 원문의 ‘오호(烏號)’는 활 이름이다. 황제(黃帝)가 용(龍)을 타고 승천할 적에, 함께 따라가지 못한 소신(小臣)들이 모두 용의 수염을 잡고 있다가 용의 수염이 빠지는 바람에 모두 떨어졌는데, 이때 황제의 활도 함께 떨어졌다. 백성들은 활을 안고 울부짖었다가 그 활을 오호(烏號)라고 이름 지었다고 한다.

153 화살통[魚服] : 원문의 ‘어복(魚服)’은 물고기 가죽으로 만든 화살통이다. 《시경》〈채미(采薇)〉에 “사모가 익익하니 상이와 어복이로다.[四牡翼翼, 象弭魚服.]”라고 하였는데, 공영달(孔穎達)의 소에 “물고기의 가죽으로 화살통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복이라고 한다.”라고

날이 서릿발 같고 눈처럼 흰 칼을 잡고서 ¹⁵⁴	撚霜鋒擲雪鐔
광대한 평원에서 내달려 짐승을 쫓고	蹕平唐兮逐奔
험준한 산 넘느라 수레를 물리니	越嵌巖兮麟縮
수풀 속에 새 새끼 다 없어지고	竭麕鷀於翳薈
소굴에는 짐승 새끼 사라졌네	罄豸蹤於巢窟
활은 헛되이 쏜 적이 없으니	弦不虛控兮
맞추기에 앞서 쓸 곳을 지명하고	先中命處
배를 꿰뚫어 겨드랑이까지 이르니	洞胸達腋兮
죽은 짐승이 어지럽게 뒤엉켜 있네	他他籍籍
바야흐로 분노를 억제하고 사냥을 마치니	方拗怒而罷獵
말은 여전히 발을 버둥거리며 달리고자 하고	馬猶踠於餘足
사나운 동물 향해 돌진하며 남은 용기를 파느라 ¹⁵⁵	衝猛噬而賈勇
돌아올 때 날이 저물어 칠흑같이 어두웠네	值歸途之昏黑
이때 숲 속에 짐승이 보이니	于時林中有獸
외뿔소인가 곰인가	兕耶羆耶

하였다.

154 날이…잡고서 : 원문의 ‘상봉(霜鋒)’은 서슬이 퍼래서 번쩍번쩍 빛나는 예리한 칼날을 말하고, ‘설악(雪鐔)’은 눈처럼 흰 칼날을 말한다.

155 남은 용기를 파느라[賈勇] : 사나운 짐승을 쫓으며 내달리고자 하는 용기를 스스로 주체할 수 없었다는 의미이다. 《춘추좌씨전》 성공(成公) 2년에 “진(晉)나라 군대가 노(魯)나라와 위(衛)나라를 구원하기 위해 출병하여 제(齊)나라 군대와 교전하였다. 이때 제나라의 고고(高固)가 진나라 군대로 돌진해 들어가서 돌을 던져 진나라 군인을 생포하고 그 군인의 병거(兵車)를 타고 병거에 뽕나무를 뽕아서 매달고 돌아와 제나라 진영을 돌아다니며 ‘용기가 필요한 자는 나의 남은 용기를 구매하라.[欲勇者, 賈余餘勇.]’ 하였다.”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두예(杜預)의 주에서 “고(賈)는 판다는 의미이다. 자기의 용기가 넉넉하여 팔고자 한다는 말이다.”라고 하였다.

풀숲에 엎드려 있는 것이	披草而伏
호랑이 같아 보였네	如虎而疑
멀리서 바라보니	遠而望之
홀쩍 뛰어오르려고 도사린 모습이고	形奮豐而蹲蹠
가까이 가서 눈 찌푸려 살펴보니	近而瞋之
먹이를 움켜잡으려 엎드려 있는 모양이었네	狀拏攫而躩踞
호시탐탐 노려보는 사나운 눈동자 숨어 있고	祕眈眈之獐睜
찬란한 무늬 있는 등이 드러나 있었으며	露陸離之文脊
흰 이마는 울창한 숲에 가리워져 있고	翳白額於幽蔚
날카로운 이빨은 깊숙한 수풀에서 번뜩였네	闐戟牙於奧薄
졸리고 배가 고파 길에 누워있는 듯했고	似眠飢而臥蹊
협준한 길 살피려 골짜기 앞에 있는 듯했으며	若偵巖而當谷
산모퉁이를 등지고 사납게 으르렁거리는 듯했고	猶負嶠而厲吻
짐승에게 다가가며 잇몸을 드러내고 있는 듯했으며	如卽禽而反齧
으르렁거리는 소리 바람에 응답하는 듯했고	疑助嘯而風答
반짝이는 털 무늬 안개에 젖은 듯했네	悅潤斑而霧濕
도산의 화석 ¹⁵⁶ 이 아니고	非塗山之化石
실로 우애가 변해서 된 호랑이었으니 ¹⁵⁷	諒牛哀之成贊
말은 머뭇거리며 나아가지 않았고	馬踟顧而不前

156 도산(塗山)의 화석 : 우(禹) 임금이 도산씨(塗山氏)에게 장가들었는데, 그녀가 돌[石]로 화(化)하여 숭산(崇山) 밑에 있다가 계를 낳았다는 말이 있다. 《淮南子》

157 우애(牛哀)가…호랑이였으니 : 우애는 춘추 시대 노나라 사람인 공우애(公牛哀)를 가리킨다. 그는 병을 앓은 지 7일 만에 범으로 변해 그를 보러 간 형을 잡아먹었다 한다. 《淮南子 俶真訓》 장형(張衡)의 〈사현부(思玄賦)〉에서는 “우애가 병들어 범이 됨이여, 형을 만날지라도 반드시 잡아먹으리. [牛哀病而成虎兮, 雖逢昆其必噬.]” 하였다.

사람들 숨이 막히고 땀이 나 전진하지 못하네	人喘汗而莫進
이는 동굴 뒤져 호랑이 수염을 엮는 상황이라	是探穴而編鬚
아아, 놀라운 광경 두려워할 만했네	吁可畏乎駭矚
이에 장군이 유성검 빼들고 명월궁 당기고	於是將軍抽流星引明月
강한 활 구부려 굳센 화살 매겼네	鉤強弦載勁竹
눈은 이미 심계 ¹⁵⁸ 를 주시하였고	目已注於心繫
손가락을 어찌 소모하여 헛되이 발사하리	指豈破而虛發
섬광 번뜩이더니 두공이 무너지고	閃飛電兮櫓
천둥 치더니 산도깨비 거꾸러지니	霹靂驚兮山魑倒
시위를 떠나 즉각 튕겨나가자 마자	纔離控而應彈
이미 화살촉이 장 속으로 다 들어갔네	已沒鏃於腸竅
어찌하여 모든 짐승을 두려워 떨게 하는 위세 지냈으면서	何百獸震恐之威
화살 하나를 만나 순식간에 쓰러져 죽게 되었는데	逢一箭而奄斃
아아, 죽고 나서는 가죽을 남기니	噫旣死而留皮
의당 그 위에서 잠을 자고 거처할 만하네	宜可寢而可處
마침내 앞으로 나아가 살펴보고	遂乃前而察之
손으로 더듬어보니	手而摩之
무늬 있는 털이 아니라	則非毛之班
바위의 형체였고	乃姿之屹
부드러운 가죽이 아니라	非皮之韃
딱딱한 재질이었네	乃質之確
어찌하여 사나운 표범이 변하여	何猖猛之豹變
산골짜기의 견고한 바위가 되었는데	幻山骨之堅頑

158 심계(心繫) : 심장에 이어진 혈관경락(血管經絡)을 가리킨다.

여우가 빌릴 수 있는 드러난 위엄 없고	無外威之狐假
우뚝이 솟아 있는 구름 뿌리 ¹⁵⁹ 있네	有雲根之巘岼
조금 전 쏘아 맞춘 화살 찾아보니 ¹⁶⁰	求疇昔之所射
산 바위 한 복판에 꽂혀 있었네” 하였네	着巔巖之半腹
말을 채 마치기 전에	談未卒
궁인이 말하기를	弓人曰
“이상해라, 어찌 그럴 수 있겠는가	異哉何爲其然也
호랑이가 맞다고 한다면	謂虎然也
호랑이가 돌로 변하기는 어려운 법이고	虎難化石
돌이 맞다고 한다면	謂石然也
돌은 화살촉이 박히기 어려운 법이네	石難飲鏃
하물며 호랑이는 때려잡을 수는 있어도	況虎可搏兮
친압할 수는 없고	不可狎兮
바위는 굴릴 수는 있어도	石可轉也
화살로 뚫을 수는 없지 않느냐	不可貫也
실제로 뚫을 수 있다 해도	誠猶可通
힘은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	力不可強
귀신인가 사람인가	鬼耶人耶
황홀하구나	惚兮恍兮

159 구름 뿌리[雲根] : 산 위의 바위를 가리킨다. 두보(杜甫)의 시에 “충주 고을은 삼협 안에 있는지라, 마을 인가가 운근 아래 모여 있네.[忠州三峽內，井邑聚雲根.]”라고 하였는데, 그 주(註)에 “오악의 구름이 바위에 부딪혀 일어나기 때문에, 구름 뿌리라고 한 것이다.[五嶽之雲觸石出者，雲之根也.]”라고 하였다. 《杜少陵詩集 卷14 題忠州龍興寺所居院壁》

160 찾아보니[求] : 저본의 원문은 ‘永’이나 규장각 본 《현주집》에는 ‘求’로 되어 있다. 의미상 ‘求’가 맞기에 원문을 수정하여 번역하였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가	孰使然哉
헤아릴 수 없도다	不可憫兮
제다가 나는 듣건대	且吾聞之
활쏘기는 가죽을 뚫는 것을 주장하지 않고	射不主皮
정곡 맞추기를 추구한다고 했고 ¹⁶¹	所求者鵠
맞추면 반드시 눈알을 뚫은 것은	中必決眦
들짐승 아니면 날짐승이었네	非獸則禽
이로써 경영이 화살을 매기지 않고 쏘았는데	是知更羸虛彈
상처 입은 기러기가 먼저 떨어졌고 ¹⁶²	擊雁先落
유기가 활을 쏘기도 전에	由基未發

161 활쏘기는…했고 : 공자가 “활을 쏘는데 가죽 뚫는 것을 주장하지 않은은 힘이 동등하지 않기 때문이니, 이것이 옛날의 도이다.[射不主皮，爲力不同科，古之道也.]”라고 하였고, 이에 대한 주희(朱熹)의 주에서 “피는 가죽이니 후(侯)를 베로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가죽을 붙여서 표적으로 삼은 것이니, 이른바 곡(鵠)이라는 것이다. 과는 등급이다. 옛날에는 활쏘기로써 덕행을 관찰하여 다만 적증시키는 것만을 주장하고 가죽을 뚫는 것을 주장하지 않았으니, 이는 사람의 힘이 강약이 있어 동등하지 않기 때문이다.[皮，革也。布侯而棲革於其中，以爲的，所謂鵠也。科，等也。古者射以觀德，但主於中，而不主於貫革，蓋以人之力有強弱不同等也.]”라고 하였다. 《論語集註 八佾》

162 경영(更羸)이…떨어졌고 : 경영은 전국 시대 활의 명수인데, 경리(更羸), 경영(京羸)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다. 경영이 위왕(魏王)에게 “왕을 위해 화살을 매기지 않고 활시위만 당겨서 새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引弓虛發而下鳥.]”라고 하였는데, 마침 기러기가 동쪽에서 날아오자 경영이 화살은 매기지 않고 활시위만 당겨서 떨어뜨렸다. 왕이 이유를 묻자, 경영이 대답하기를, “이는 상처 입은 새입니다.[此擊也.] 울음소리를 들어보니 이 새는 화살에 맞아 상처를 입고 무리를 놓쳐 상처가 아물지 않았고 놀람도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활소리를 듣자 떨어진 것입니다.” 하였다.《戰國策 楚策4》

검은 원숭이가 먼저 울었음을 아네 ¹⁶³	玄猿豫哭
척안이 죽지 않은 것은	鶚而不死
평공이 힘이 약해서이고	平公之弱也
외뿔소도 오히려 쓰러뜨린 것은	兕而猶殪
당숙의 힘이었으니 ¹⁶⁴	唐叔之力也
저들이 교묘하고 서툰 힘을 쓴 것은	彼用力之巧拙
모두 새와 짐승에 미친 것이네	舉企及於毛血
바위에 적중시킨 한 가지 일만은	惟射石之一事
실로 천억 년 동안 들어보지 못했으니	誠未聞乎千億
그대의 말이 과장이 아니라면	苟子言之不文
아마 믿을 수 없는 사씨의 기록이리라” 하였네	豈史氏之難信
활 만드는 사람이 말하기를	矢人曰
“아아, 어찌 그러하겠는가	吁豈其然乎
자네를 위해 말을 마저 다 해보겠네	爲子盡之
대저 마음을 오로지 쏟으면 성이 전일하게 되고	夫心專則誠一
성이 전일하면 정신이 통하니	誠一則神通
은미해서 드러나지 않는 사물이 없게 되고	物無微而不形
견고해서 뚫지 못하는 형체가 없게 되네	形靡堅而不泐

163 유기(由基)가…아네 : 유기는 양유기(養由基)로 활을 잘 쏘기로 유명한 초(楚)나라 사람이다. 양유기가 원숭이를 쏘려고 활을 당기자, 발 사하기도 전에 원숭이가 울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만호원제(彎弧猿啼)’의 고사가 전한다. 《淮南子 說山訓》

164 척안이…힘이었으니 : 평공(平公)은 춘추(春秋) 때 진(晉)나라의 임금으로, 이름은 표(彪)이다. 당숙(唐叔)은 진(晉)나라 개국 시조 당숙우(唐叔虞)이다. 주 무왕(周武王)의 아들이자 성왕(成王)의 아우이다. 《국어(國語)》 권14 “평공이 척안을 쏘았는데 죽지 않았다. …당숙이 외뿔소를 도림에서 쏜 자 죽어 쓰러졌다.[平公射鶚不死. …唐叔射兕於徒林, 殪.]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밤에 돌아오다 바위를 맞추어 관통시킨 일은

是故彼夜歸射石而能貫

비록 이광이라도

雖廣也

또한 스스로 기필할 수 없지만

亦不自必

응당 의심스러워 마음이 동하고 눈은 놀라 커져서

當持疑心動而目憊

호랑이를 보고

見其虎

바위를 보지 못했으니

未見其石

이는 두려움이 성에 전일하고

此所以懼專於誠

성이 마음에 전일하고

誠專於衷

마음이 손에 전일하고

衷專於手

손이 활에 전일하고

手專於弓

활이 화살에 전일하고

弓專於矢

화살이 호랑이에게 전일했던 때문이네

矢專於虎

화살이 이미 정성에서 나왔다면

矢既由於精誠

바위의 견고함 또한 잊어버리게 되니

石亦忘其堅固

그렇다면 화살이 발한 것이 아니고

然則非矢之發

바로 성이 발한 것이며

乃誠之激

바위가 융합된 것이 아니고

非石之融

바로 성이 투철한 것이며

乃誠之徹

화살이 바위에 적중한 것이 아니고

非矢射石

성이 바위에 적중한 것이며

誠卽射石

화살이 바위를 뚫은 것이 아니고

非矢貫石

성이 바위를 뚫은 것이네

誠卽貫石

저 사람이 성을 조차에도 쓴다면¹⁶⁵

彼用誠於造次

165 저…쓴다면 : 조차(造次)는 다급한 때를 가리킨다. 《논어》〈이인(里仁)〉에, “군자는 밥 먹는 동안이라도 인의 정신을 어겨서는 안 되니, 아

도리어 쇠를 통과하고 바위를 뚫는데	尙通金而貫石
하물며 지극한 성이 그침이 없어서	況至誠之無息
어디를 간들 지극하지 않음이 없음에라	無所往而不極
이를 미루어 살펴보면	推是觀之
호랑이보다 사나운 것을	猛於虎者
동요시키고 뒤흔들 수 있을 것이고	可擾逼也
바위보다 견고한 것을	堅於石者
뚫을 수 있을 것이다	可穿鑿也
천지와	天地也
일월도	日月也
오히려 감격시켜 하나로 뻗 만한데	猶可感而可貫
하물며 곤충과 목석에 가까운 것임에라	則矧近在乎昆蟲木石也哉
아아, 장군의 화살은	嗟乎將軍之矢
자취가 있는 성이요	有迹之誠也
군자의 성은	君子之誠
자취가 없는 화살이니	無迹之矢也
자취 있는 화살이 견고한 바위를 뚫은 일을 기이하다고 여길 줄만 알고	只知有迹之矢貫頑石之爲奇
자취 없는 화살이 대도를 하나로 꿰고 있음을 모른다면	而不知無迹之矢能一貫於大道
어찌 세속의 개탄스러운 일이 되지 않겠는가	則豈不爲流俗慨也
다만 아쉬운 것은, 이광의 촌심의 성은	獨惜乎廣之寸誠
한밤중에 견고한 바위를 뚫을 수 있었지만	能徹半夜之頑石

무리 다급한 때라도 이 인에 의거해야 하고, 넘어져 뒤집히는 때라도 반드시 이 인에 의거해야 한다.[君子，無終食之間違仁，造次必於是，顛沛必於是.]”라는 공자의 말이 있다.

이광의 마음의 간절함은	廣之衷曲
원수의 용막에 전해지지 못한 점이네 ¹⁶⁶	不能達元帥之戎幕
몸이 후왕에 이르지 못하고	身未致於侯王
끝내 칼로 찔러 자살하였으니	竟齒劍而自戮
천 년 동안 영웅들이 경모하면서	千載英雄之景慕
몇 번이나 애를 끓이며 눈물 흘렸던가” 하였네	幾多回腸而淚臆
말을 마치자 활 만드는 사람이 자리에서 벗어나	語訖弓人乃離席
머리 조아리며 사죄하여 말하기를	拜稽謝曰
“지금 나는 활을 만드는 일을 업으로 하고 있어서	今我業工於弓
화살을 교묘하게 만들기를 요구하고	責妙於矢
저 바위에 적중하여 바위가 쪼개지는 일은	彼射石而石開
배워서 이같이 할 수 없다고 생각했네	謂可學而能是
그대가 성의 전일함에 대해 가르쳐준 말을 듣고	及聞君子誠一之喻
얼음 녹듯이 의혹이 환히 풀렸고	渙然水釋
병이 나은 듯 마음이 시원해졌으니	廓然病愈
나는 비록 불민하지만	蒙雖不敏
이 말을 행할 것을 청하네” 하였네	請事斯語

166 이광의…점이네 : B.C.119년 한나라가 군대가 대규모로 출격하여 흉노와 싸울 때 이광이 대장군 위청(衛靑)에게 선봉이 되어 흉노와 맞서 싸우기를 청했는데 대장군이 이광이 나이가 많고, 흉노와의 전투에서 운이 없었다는 이유로 이를 허락하지 않은 일을 말한다. 이광은 이 마지막 출전에서 행군 중에 길을 잃었다가 대장군 위청의 질책과 심문을 받게 되자 자결하였다. 《史記 李將軍列傳》

필간부

筆諫賦

자묵객경이 한림주인에게 묻기를 ¹⁶⁷	子墨客卿問於翰林主人曰
“그대는 임금에게 간하는 도를 압니까	若知夫諫君之道乎
하늘은 높아서 비록 헤아리기 어렵지만	天蓋高縱難測兮
정성이 있으면 믿음이 굳어질 수 있고	有寸誠可以固矣
용은 길들이고 친압할 수 있지만	龍爲蟲可擾狎兮
역린을 건드리면 반드시 죽음에 이릅니다 ¹⁶⁸	批尺鱗必至死
그러므로 간하는 도를 얻은 경우는	是以得其道者
임금이 바르게 되어 나라가 번창하고	則君格而國以昌
간하는 도를 잃은 경우는	失其道者
몸이 베어지고 나라가 따라서 망합니다	則身誅而國隨亡

167 자묵객경(子墨客卿)이…묻기를 : 자묵객경은 먹을 의인화(擬人化)한 말이고, 한림주인(翰林主人)은 붓을 의인화한 말이다. 한(漢)나라 양웅(楊雄)의 <장양부(長楊賦)> 서문(序文)에서 “붓과 먹으로 문장을 이루기 때문에, 붓으로 주인을 삼고, 먹으로 객경을 삼아서 풍자하였다.[聊因筆墨之成文章, 故藉翰林以爲主人, 子墨爲客卿以風.]”라는 말이 나온다.

168 용은…이릅니다 : 역린은 용의 목덜미 아래에 있는 거꾸로 난 비늘이다. 《한비자(韓非子)》 <세난(說難)>에 “용이라는 동물은 순하여 친압하고 길들일 수 있다. 그러나 턱 밑에 몇 척 길이의 역린이 있는데 만약 그것을 건드리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그를 죽인다. 인주 또한 역린이 있으니 유세하는 자가 인주의 역린을 건드리지 않을 수 있다면 거의 이룰 수 있다.[夫龍之爲虫也, 柔可狎而騎也. 然其喉下有逆鱗徑尺, 若人有嬰之者, 則必殺人. 人主亦有逆鱗, 說者能無嬰人主之逆鱗, 則幾矣.]”라고 하였다.

이것이 한비가 <세난>을 지어서 ¹⁶⁹	此所以韓非作說難
유세하는 선비들에게 극언을 경계시키고	戒盡言於游士
소공이 <간론>을 지어서 ¹⁷⁰	蘇公著諫論
충심으로 고하기를 지혜로써 하라고 권면한 이유입니다	勉忠告之以智
아아, 간언을 하지 않아서도 안 되지만	噫不可無是諫
간언을 선불리 해서도 안 됩니다” 하였네	亦不可遽是諫
주인이 말하기를	主人曰
“맞습니다, 《사기》에서는 곳곳한 직언을 취하였고 ¹⁷¹	然史取諤諤
《주역》에서는 그침 없이 직간하는 것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¹⁷²	易貴謇謇
본래 바른 말은 꺼리지 않는 데 달려 있으니	固正言在不諱兮
용납되기를 바라고 이리저리 헤아려볼 겨를이 있겠습니까” 하였네	奚暇含容而俯仰

-
- 169 한비(韓非)가…지어서 : 한비는 전국 말기 한(韓)나라 공자로, 법가 학파를 대표하는 사상가이다. 한비는 《한비자(韓非子)》를 지었는데, <세난(說難)>은 《한비자》의 편명이다.
- 170 소공이…지어서 : 소공(蘇公)은 소순(蘇洵, 1009~1066)을 가리킨다. 소순은 자가 명윤(明允)이다. 당송팔대가의 한 사람으로 소식(蘇軾)과 소철(蘇轍) 형제의 아버지이다. <간론(諫論)>은 소순의 문집인 《가우집(嘉祐集)》 권9에 수록되어 있다.
- 171 사기에서…취하였고 : ‘악악(諤諤)’은 위사람에게 직언(直言)으로 간쟁하는 모습을 형용하는 말이다. 《사기(史記)》〈상군열전(商君列傳)〉에서 “천 마리 양의 가죽이 한 마리 여우 겨드랑이 가죽만 못하고, 천 인의 순종하는 대답이 한 선비의 곳곳한 직언만 못하다.[千羊之皮, 不如一狐之腋, 千人之諾諾, 不如一士之諤諤.]”라고 한 것을 가리킨다.
- 172 주역에서는…여겼습니다 : 건건(謇謇)은 건건(蹇蹇)과 통한다. 《주역》〈건괘(蹇卦)〉 육이(六二) 효사(爻辭)에 “왕의 신하가 끊임없이 간언하는 것은 자신 때문이 아니다.[王臣蹇蹇, 匪躬之故.]”라고 하였다. 고형(高亨)의 주에서 “건건(謇謇)은 끊임없이 직간(直諫)하는 모양이다.”라고 하였다.

객경이 말하기를	客卿曰
“그렇지 않습니다, 매백은 짓갈이 되었으니 ¹⁷³	否梅伯爲醢兮
포악한 군주가 천명을 바꾸는 것 어찌할 수 없었고	無奈暴君之革命
비간은 심장을 도려내는 일 당했으니 ¹⁷⁴	比干受剖兮
음란한 군주가 나라를 망칠 때 무슨 보탬이 되었습니까	何益淫主之亡國
그러므로 은근하게 하고 풍자하는 방법이 있으니	故以幾以諷之有道兮
간하는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하였네	其爲諫也不一
주인이 말하기를	主人曰
“그렇다면 어찌하여야	然則何如
은근하게 하고 풍자하는 도를 얻었다고 이를 수 있겠습니까” 하였네	斯可謂得幾諷之道乎
객경이 말하기를	客卿曰
“당나라에 유자가 있었는데	唐有柳子
헌종의 신하였습니다	憲后攸臣
그가 간한 것은 필법인데	其諫也筆
헌종이 바르게 되었습니다	憲所格焉
도리로서 깨우친 것이 아니라 필법으로써 깨우쳤으니	不喻道而喻筆
이 훌륭한 간언을 본받을 만합니다 ¹⁷⁵ ” 하였네	偉茲諫之可法

-
- 173 매백(梅伯)은 짓갈이 되었으니 : 매백은 상(商)의 마지막 임금 주(紂)의 신하였다. 바르고 곧아 자주 주의 잘못을 간하자 주가 노하여 그를 죽여 짓갈을 담았다고 한다. 《韓非子 難言》
- 174 비간(比干)은…당했으니 : 비간은 상나라 주왕의 숙부로, 주왕의 학정에 대해 간하였는데, 주왕이 노하여 “성인의 심장에는 일곱 개의 구멍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보겠다.”라고 하면서 비간을 죽여 그 심장을 도려내었다고 한다. 《史記 殷本紀》
- 175 당나라에…만합니다 : 유자(柳子)는 유공권(柳公權, 778~865)으로, 자는 성현(誠懸)이다. 중국 당나라의 정치가이자 서예가로, 안진경(顏真卿)의 뒤를 이어 당의 해서(楷書)를 집대성하였다. 《구당서(舊唐

주인이 말하기를	主人曰
“그 대강을 듣고자 합니다” 하니	願承其槩
객이 말하기를 “알겠습니다	曰唯唯
유공의 글씨는	柳公之筆
세상에 드문 필적이니	希代之迹
현묘한 법도에 오묘하게 합치되어	巧合玄關
온 하늘에 곡식비가 내리는 듯하였고 ¹⁷⁶	一天雨粟
신묘한 천기에 절묘하게 부합되어	妙符神機
종이 가득 바람 불고 우레가 치는 듯했습니다	滿紙風雷
금줄이자 철획이니 ¹⁷⁷	金繩鐵畫

書》 권165 〈유공권열전(柳公權列傳)〉에서 “목종의 정치는 정도에서 벗어나 있었는데 일찍이 목종이 공권에게 ‘글씨는 어떻게 해야 가장 잘 쓸 수 있는가?’라고 묻자 공권이 대답하기를 ‘붓을 운용하는 것은 마음에 달려 있으니 마음이 바르면 글씨는 바르게 됩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목종이 용모를 바로 하고 그것이 필간인줄 알았다.[穆宗政僻，嘗問公權筆何盡善？對曰：用筆在心，心正則筆正。上改容，知其筆諫也.]”라고 하였다. 유공권이 헌종(憲宗)에게 간했다고 한 것은 현주의 착오이다.

- 176 온…듯하였고 : 유공권의 필적이 세상에 존재하기 어려운 아주 뛰어난 글씨라는 의미이다. 왕충(王充)의 《논형(論衡)》〈감허(感虛)〉에 “연태자 단이 진나라에 조회갔다가 떠나지 못하게 되자 진왕에게 돌아가게 해줄 것을 청하였다. 진왕은 그를 붙잡아두면서 맹세하기를, ‘해가 두 번 중천에 뜨게 하고 하늘에서 곡식비가 내리게 하고 까마귀가 머리가 희게 하고 말에 불이 나게 하고 부엌의 나무 조각상에 살이 붙게 되어야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燕太子丹朝於秦，不得去，從秦王求歸。秦王執留之，與之誓曰：使日再中，天雨粟，令烏白頭，馬生角，廚門木象生肉足，乃得歸.]”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 177 금줄이자 철획이니[金繩鐵畫] : 모두 뛰어난 글씨를 비유하는 말이다. 한유(韓愈)의 〈석고가(石鼓歌)〉에서 석고문의 글씨에 대해 “금줄 쇠사슬 엮어맨 듯 웅장하고, 옛 술에서 끓는 물인 듯 용으로 변해 날아간 북인 듯하네[金繩鐵索鎖紐壯，古鼎躍水龍騰梭.]”라고 하였

뱀이 달아나는 듯 용이 되돌아오는 듯하고	蛇走龍回
옥으로 된 끈이자 은으로 된 갈고리니 ¹⁷⁸	玉索銀鉤
귀신이 흐느끼고 신이 놀랐습니다	鬼泣神驚
장지의 초서 이사의 팔분 ¹⁷⁹ 은 비할 바가 아니고	張草李八不足比兮
왕희지의 붓 중요의 먹 ¹⁸⁰ 은 다룰 수 없었으니	王毫鍾墨兮莫與京
세상의 법도가 되기에 마땅하여	宜爲世法
이에 황제가 보고 놀랐습니다	乃動帝目
그러므로 애주의 서기로 있다가 ¹⁸¹	故其副愛州

다.《韓昌黎集 卷5》 구양순(歐陽詢)의 〈용필론(用筆論)〉에서 “배회하고 오르내림에 넉넉하고 풍류가 있으며 군세기는 무쇠로 된 획이고 부드러움은 은으로 된 갈고리 같다.[徘徊俯仰，容與風流，剛則鐵畫，媚若銀鉤.]”라고 하였다.

- 178 옥으로…갈고리니[玉索銀鉤] : 금승철획(金繩鐵畫)과 마찬가지로 뛰어난 글씨를 비유하는 말이다.
- 179 장지(張芝)의…팔분 : 장지는 동한(東漢)의 서예가로 특히 초서(草書)에 능하여 초성(草聖)이라 일컬어졌다. 이사(李斯, ?~B.C.208)는 진시황(秦始皇) 때 승상을 지낸 정치가이다. 서예에 능하였는데 특히 소전(小篆)체를 잘 써서 진시황을 도와 천하를 통일한 뒤에 천하의 문자를 전서체(篆書體)로 통일시키기도 하였다. 이사는 팔분(八分)이라는 서체에도 뛰어났는데, 팔분은 예서(隸書)와 전서(篆書)를 절충하여 만든 서체이다.
- 180 왕희지의…먹 : 왕희지(王羲之, 307~365)는 동진(東晉)의 서예가로서는 일소(逸少)이다. 우군장군(右軍將軍)의 관직을 지냈으므로 왕우군(王右軍)이라 부르기도 한다. 후대에 서성(書聖)으로 불렸다. 중요(鍾繇, 151~230)는 자가 원상(元常)으로, 조조(曹操)를 섬겨 위(魏)나라의 상국(相國)을 지냈다. 팔분(八分), 해서(楷書), 행서(行書)에 두루 능해 왕희지 등 후대 서예가들의 흠모를 받았다.
- 181 애주의 서기로 있다가 : 《구당서(舊唐書)》 권165 〈유공권열전(柳公權列傳)〉에서 “원화 초에 진사에 급제하여 관직에 나가 비서성 교서랑이 되었다. 이청이 하주자사로 있으면서 그를 불러서 서기를 담당하게 하였다.[元和初，進士擢第，釋褐祕書省校書郎。李聽鎮夏州，辟爲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급히 불러 올라갔고	未瓜而催召
공이 자리 비워두었던 근신이 된 뒤로	自公虛座近密
한림학사에 제수하였고	寵以翰林
옥당에 배속시켰으며	盛以玉堂
글을 한 번 올릴 때마다	每一進書
포상과 칭찬 그치지 않았습시다	褒美未央
중서성에서는 간한 초고를 태웠지만 ¹⁸²	鳳閣焚草
몇 폭의 짧은 소장을	數幅短章
황제가 미소를 지으며 읽으니	龍顏含笑
사람들 모두 찬탄하였습니다 ¹⁸³	一唱三歎
어느 날 갑자기	忽一日
천자가 조정에 불러 면대하고 칭송하기를	天子乃廷召面褒曰
‘경의 필법을 보니	看卿筆法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것이네	見聞所罕
행마다 골력 ¹⁸⁴ 이 느껴지고	行行骨力
글자마다 정신이 깃들어 있으니	字字精神
곡진하게 법도를 얻었고	曲得規度
교묘하게 진원으로 나아갔네	工造眞元

掌書記.]”라고 하였다. 애주(愛州)라고 한 것은 미상이다.

182 간한 초고를 태웠지만 : 유송(劉宋) 때의 문신 사홍미(謝弘微)과 당(唐)나라 때의 문신 고사렴(高士廉) 등이 임금에게 올린 소장의 초고를 즉시 불태워 없애서 남이 알지 못하게 했던 데서 온 말이다.

183 사람들 모두 찬탄하였습니다[一唱三歎] : 원문의 일창삼탄(一唱三歎)은 한 사람이 노래를 선창하면 세 사람이 화답한다는 뜻으로, 사람들이 감탄을 금치 못할 만큼 시문이 매우 뛰어날 때 쓰는 표현이다.

184 골력(骨力) : 서화나 시문의 드러나는 강건한 미감을 지칭하는 말이다.

고심참담하게 구상하여	意匠慘愴兮
조화의 굴을 교묘하게 파헤치고	巧刮造化之窟
황홀하게 정신을 내달려	神馬悅惚兮
미묘하게 현묘한 경지에 들어갔네	細入秋毫之末
대개 귀신이 혹 도운 듯하니	蓋鬼神之或助
어찌 사람의 힘이 미칠 수 있는 경지이겠는가	豈人力之所及
어떻게 여기에 이르렀는가	何由而至於此乎
이제 짐을 위해 그 방법을 대략 말해보라' 하였습니다	始爲朕略陳其術

이에 유자가 머리 조아려 절하고 앞으로 나아가 말하기를
 於是柳子乃拜手稽首進曰
 '신은 폐하를 위해 붓을 운용하는 방법을 삼가 말씀드리겠습니다
 臣請爲陛下敬喻用筆之道

대저 마음은	夫心者
임금이니	君也
몸의 천군이고	一身之天君
손은	手者
신하이니	臣也
몸의 양신이며	一身之良臣
붓은	筆毫者
머리 뾰족한 노비 ¹⁸⁵ 이고	尖奴

185 머리 뾰족한 노비[尖奴] : 북위(北魏)의 고필(古弼)이 충명하여 태종(太宗)에게 사랑을 받아 필(筆)이라는 이름을 하사받았는데, 그의 머리끝이 뾰족하였으므로 세조(世祖)가 항상 필두(筆頭)라고 불렀다. 어느 날 조서를 내려서 살진 말을 기인(騎人)에게 주라고 하였는데, 고필이 약한 말을 주었다. 그러자 세조가 크게 노하여 “첨두노(尖頭奴)가 감히 나의 뜻을 멋대로 재량하였으니, 짐이 돌아가면 먼저 이

자획은	字畫者
정사입니다	政事
이로써 명령을 내리는 이는	是知出令者
임금이고	君也
임금의 명령을 행하여	行君令
머리 뿔족한 노비를 불러오는 것은	致尖奴者
신하임을 알 수 있습니다	臣耳
군주가 명령을 내지 않으면	君不出令
비록 신하가 있어도	則雖有臣
스스로 전횡할 수 없고	不得自專
신하가 명령을 전하지 않으면	臣不致令
비록 노비가 있어도	則雖有奴
스스로 먼저 할 수 없으니	不得自先
정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政何由成
국가가 국가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國不能國
그렇다면 마음과 손이 도모하고	然則心與手謀
손과 붓이 합심하여	手與筆合
종횡으로 획을 긋고 점을 찍어서	畫縱點橫
글자를 배열하고 행을 바르게 하니	字排行直
이는 어찌 말로써 마음을 다하고	豈非言以盡心
글로써 말을 다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文以盡言
말은 본래 마음이고	言固是心
글은 본래 말입니다	文固是言
그래서 어지러운 만 가지 일이	所以有紛萬事

놈을 참수하겠다.” 하였다. 이 고사로 인해 붓을 ‘침노(尖奴)’라고 하게 되었다. 《魏書 卷28 古弼列傳》

하나의 마음에서 근원하니	一心之原
마음이 바르면 손이 바르게 되고	心正則手正
손이 바르면 붓이 바르게 됩니다	手正則筆正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손이 바르지 않고	心不正則手不正
손이 바르지 않으면 붓도 바르지 않게 되니	手不正則筆不正
행은 행을 이루지 못하고	行不成行
글자는 글자를 이루지 못합니다	字不成字
털끝만 한 차이가 천리의 간격으로 멀어지는 것이	毫釐千里
한 번 마음을 잡았다 놓았다 하는 사이에 달려 있습니다	一操舍際
이런 까닭에 붓을 잡는 것은	是故其操筆也
붓을 잡는 게 아니고	非操筆也
바로 마음을 잡는 것이며	乃操心也
붓을 붙드는 것은	其秉筆也
붓을 붙드는 게 아니고	非秉筆也
바로 마음을 붙드는 것입니다	乃秉心也
이에 먹을 묻히고 붓을 휘두름에 법도에 맞지 않는 게 없고	于以染之揮之兮無不中規
이에 베끼고 씬에 각기 그 올바른을 얻을 수 있습니다	于以摸之寫之兮各得其宜
이에 한 마음이 바르면 한 획이 바르게 되고	於是一心正一畫正
한 획이 바르면 한 글자가 바르게 되고	一畫正一字正
한 자 두 자에서 천 자 만 자까지도	一字二字千萬字兮
모두 바름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 없고	無不一出於正
한 행 두 행에서 천 행 만 행까지도	一行二行千萬行兮
역시 모두 바름에 합치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亦無不一合乎正
그렇다면 우군이 도덕경을 베낄 때	然則右軍之寫道經也

마음이 흰 거위를 얻는 데 있었다면 ¹⁸⁶	心在博白鵝
글자가 바르지 못했을 것이고	則其字不正
안석이 인□을 베낄 때	安石之寫隣□也
마음이 높은 값을 받는 데 있었다면 ¹⁸⁷	心在於索高價
글자가 바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則其字不正
그러므로 옛날에 붓을 잡은 이들은	故古之持是筆者
마음에 돌이켜 바름을 구하지 않는 이가 없었습니다	莫不反心而求正
마음을 표 ¹⁸⁸ 로 삼고 붓은 그림자로 삼아	心爲表筆爲影兮
표가 바르면 형이 바르지 않음이 없고	表端而形無不直
마음은 소리로 삼고 붓은 메아리로 삼아	心爲響筆爲應兮
소리가 빠르면 메아리도 빠를지 않음이 없습니다	響速則應無不急
이에 성인의 글씨가 곧 성인의 마음이고	
	乃知聖人之書兮聖人之心也
소인의 글씨가 소인의 마음이라는 것을 압니다	

186 우군(吳郡)이…있었다면 : 왕희지는 본래 거위를 매우 좋아했는데, 산음현(山陰縣)의 한 도사(道士)가 거위를 많이 기르고 있었다. 왕희지가 가서 구경을 하고는 매우 좋아하여 거위를 사려고 하자, 도사가 “《도덕경(道德經)》을 써주면 거위를 많이 주겠다.” 하니, 왕희지가 흔연히 써주고 그 거위를 가져 왔다고 한다. 《晉書 卷80 王羲之列傳》

187 안석(安石)이…있었다면 : 안석은 사안(謝安, 320~385)의 자이다. 오랫동안 회계(會稽)에서 은둔생활을 하면서 왕희지(王羲之)·지둔(支遁) 등과 교유하였다. 40이 넘는 중년에 비로소 중앙정계에 투신하여 명재상으로 칭송받았다. 사안은 행서에 능하였다고 하는데, 사안이 인□(隣□)을 베끼는 일은 미상이다.

188 표(表) : 고대에 천문을 관측하던 기구인 규표(圭表)를 구성하는 한 부분을 가리킨다. 장대를 곧게 세워서 그것으로 해 그림자의 길이를 측량하였다.

글씨로 마음을 영원히 전하니	以書永心
마음을 어찌 숨길 수 있겠으며	心焉廋哉
마음으로 사람됨을 살피니	以心求人
사람됨을 어찌 숨길 수 있겠습니까	人焉廋哉
그러므로 저 팔괘와 구주에 온갖 이치가 갖추어져 있으니	

이는 하늘을 본받아 만물을 내는 복희와 우임금의 마음이고¹⁸⁹

이미 죽은 뒤에 간신을 주벌하고 誅奸諛於旣死
 문혀 있는 덕의 그윽한 광채를 드러낸 것은 發潛德之幽光者
 바로 공자의 선을 좇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마음입니다.¹⁹⁰

성인은 생각을 다잡으니	惟聖克念
조심해서 붓을 잡고	小心援筆
광인은 생각하지 않으니	惟狂罔念
마음대로 붓을 놀립니다 ¹⁹¹	肆意放筆
생각이 여기에 있는 것은 ¹⁹²	念茲在茲

190 이미...마음입니다 : 공자가 《춘추(春秋)》를 저술한 일을 말한다.

192 생각이…것은: 《서경》〈대우모(大禹謨)〉에서 “이를 생각함도 여기에 있으며 이를 버림도 여기에 있다.[念茲在茲, 釋茲在茲.]”라고 한 데

붓이 아니고 오직 마음이고	非筆惟心
태만하지 않고 소홀히 하지 않는 것도	毋怠毋忽
붓이 아니고 오직 마음입니다	非筆惟心
아아, 작게 말하면 집에서는 가장이 마음이 되고	噫小而言家則家長爲心
크게 말하면 나라에서는 국군이 마음이 됩니다	大而言國則國君爲心
그러므로 가장이 이미 바르면	故家長旣正
한 집안이 곧 바르게 되고	一家卽正
국군이 이미 바르면	國君旣正
한 국가가 곧 바르게 됩니다	一國卽正
동자는 말하기를	董子曰
마음이 조화로우면 기가 조화롭고	心和則氣和
기가 조화로우면 몸이 조화로워서	氣和則形和
천하 사방이 하나도 조화롭지 않은 것이 없으니	而天下四方無不一以和
대저 이와 같다면 어찌 유독 조화롭지 않은 한 사물을 책할 수 있겠느냐고 하였습니다 ¹⁹³	夫如是則豈獨責一物之不和

서 온 말이다.

- 193 동자는…하였습니다 : 동자(董子)는 동중서(董仲舒)로, 전한(前漢)의 유학자이다. 무제(武帝)에게 유학을 국가의 통치이념으로 삼도록 권유하였으며, 춘추공양학(春秋公羊學)을 공부하여 하늘과 사람의 밀접한 관계를 강조하고, 《춘추번로(春秋繁露)》를 남겼다. 《漢書 卷56 董仲舒傳》 현주가 동중서의 말로 인용한 것은 공손홍(公孫弘)의 말로 보인다. 《전한서(前漢書)》권58 〈공손홍전(公孫弘傳)〉에 “마음이 조화로우면 기가 조화롭고 기가 조화로우면 형이 조화롭고 형이 조화로우면 소리가 조화롭고 소리가 조화로우면 천지가 조화로써 응할 것이다.[故心和則氣和, 氣和則形和, 形和則聲和, 聲和則天地之和應矣.]”

신 또한 마음이 바르면 기가 바르고	臣亦云心正則氣正
기가 바르면 몸이 바르게 되어	氣正則形正
천하 만물 가운데 하나도 바르지 않은 게 없으니	而天下萬物無不一以正
대저 이와 같다면 어찌 유독 바르지 않은 한 붓질을 책할 수 있겠느냐	夫如是則豈獨責一筆之不正
고 하겠습니까' 하였습니다	言未卒
말을 마치기 전에	
천자가 얼굴빛 고치고 옷깃 여미고는	天子乃改容斂衽
그 훌륭한 말을 가상하게 여기고	嘉乃碩言
마음의 샷된 싹을 물리치고	黜爾邪萌
바른 근원으로 나아갔습니다	就爾正源
아아, 이 때에	吁當此時也
양성이 연령을 비판한 것은	陽城之詆延齡
충직하다 할 수 있었는데	雖曰直矣
충주로 좌천됨을 면치 못했 ¹⁹⁴	而未免忠州之貶謫
한유가 불골을 논한 것은	韓公之論佛骨
충성스럽다 할 수 있었는데	雖曰忠矣
조주로 멀리 보내지는 것 면치 못했으니 ¹⁹⁵	而未免潮陽之遠落

라고 한 것이 보인다.

- 194 양성(陽城)이…못했고 : 양성은 당 나라 덕종(德宗) 때의 명신으로 간쟁을 잘하기로 유명하였다. 양성은 간의대부(諫議大夫)로 7년 동안 재임하였는데, 덕종이 육지(陸贄)를 파면하고 간신인 배연령(裴延齡)을 재상으로 임명하자, 이에 반대하여 마지막에 쓴 황제의 조칙을 찢으려 하다가 덕종의 노여움을 사 좌천되었다.
- 195 한유(韓愈)가…못했으니 : 한유는 당(唐)나라의 문장으로 자는 퇴지(退之)이고 시호는 문공(文公)이다. 한유는 형부 시랑(形部侍郎)으로 있을 때에 헌종(憲宗)이 불골(佛骨 사리(舍利))을 모시는 것을 간하다가 조주 자사(潮州刺史)로 좌천되었다.

해와 달의 빛을 되돌리지 못하고	未廻日月之光
도리어 우레와 천둥 같은 노여움 만났습니다	返遭雷霆之怒
충성스러운 이가 벌을 받고 충직한 이가 내쫓기는 일은	忠見尤兮直黜
온 세상이 그러해서 계속 이어졌으니	世滔滔而接武
이 사람이 필법으로 간언한 것만 한 게 있었습니까	孰若斯人以筆以諫
그러므로 잘 간언하는 이는	故善諫者
말로써 간언하지 않고	不以言爲諫
사물로써 간언하니	而以物爲諫
나는 양성과 한유가 상소문에 정성을 다한 것이	吾固知陽韓勤懇於章奏
도리어 붓으로 비유하여 간언한 것만 못했음을 실로 압니다	反不如喻筆之一諫
아아, 배도와 무원형 ¹⁹⁶ 을 등용한 때에는	嗚呼用裴度用元衡之時
마음이 이미 바르고 붓 또한 발라서	則心既正筆亦正
글자가 바르지 않음이 없었고	字無不正
정이와 황보박을 등용한 때 ¹⁹⁷ 에는	用程異用皇甫鎛之時
마음이 바르지 않고 붓이 바르지 않아서	則心不正筆不正

196 배도(裴度)와 무원형(武元衡) : 배도는, 자가 중립(中立),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당나라 헌종(憲宗) 때 무원형을 이어 재상이 된 이이다. 무원형은 자가 백창(伯蒼), 시호는 충민(忠溍)이다. 당나라 헌종 때의 어진 재상이었다. 헌종 때에 번진(藩鎭) 오원제(吳元濟)가 채주(蔡州)에서 반란을 일으키자, 승상(丞相) 무원형(武元衡)과 중승(中丞) 배도(裴度)가 이를 토벌하라고 청하였다. 번진에서 배도와 무원형을 암살하려고 자객을 보냈는데 배도는 죽지 않았고 무원형은 칼을 맞아 죽었다.

197 정이(程異)와 황보박(皇甫鎛) : 정이는 당나라 헌종 때 염철사(鹽鐵使)를 지낸 인물이고, 황보박은 헌종 때 탁지사(度支使)를 지낸 인물이다. 당 헌종이 회서(淮西)가 평정된 뒤 자신에게 뇌물을 바친 황보박(皇甫鎛)과 정이(程異)를 총애하여 관직을 높여 주자, 배도 등이 이를 간하다가 도리어 배척당하였다.

글자가 모두 바르지 않았으니	字皆不正
현종의 십오 년 동안의 필적을 헤아려보면	推憲宗十五載之筆迹
현종이 십오 년 동안 마음을 잡고 놓쳤던 일을 징험할 수 있습니다	驗憲宗十五載之操捨
속이기 어려운 것이	難罔者
마음이고	心也
속이기 어려운 것이	難欺者
붓이니	筆也
아아, 이 사람이 필법으로 간한 것은	懿斯人之筆諫
실로 만고에 대서특필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하였네	誠萬古之特筆
주인이 공손히 응답하여 말하기를	主人謹應之曰
“누군들 붓이 없겠습니까만	人孰無筆
나는 당신의 직필을 취하겠습니다	吾取爾之直筆
누군들 간언이 없겠습니까만	人孰無諫
나는 당신의 풍간을 취하겠습니다” 하였네	吾取爾之諷諫
말을 채 마치기 전에	語未訖
모영이 머리털이 빠졌다는 이유로 물러가면서	穎以禿辭
서쪽에서 사냥하다가 기린을 잡았다고 썼네 ¹⁹⁸	西狩獲麟
객경은 하직 인사를 하였고	客卿告退
주인은 묵묵히 말이 없네	主人默然

198 모영이…썼네 : 모영(毛穎)은 붓을 의미하는데, 털로 만들고 끝이 뾰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한 것이다. 한유(韓愈)는 붓을 의인화하여 〈모영전(毛穎傳)〉을 지었다. “서쪽에서 사냥하면서 기린을 잡았다고 썼다.”는 것은 글쓰기를 마쳤다는 의미이다. 공자가 《춘추》 애공(哀公) 14년 경문(經文)인 “서쪽에 사냥을 나가 기린을 잡았다.[西狩獲麟.]”라는 대목에서 절필(絶筆)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수서¹⁹⁹부

穗書賦

자묵객경이 한림주인에게 묻기를	子墨客卿問於翰林主人曰
“학서는 학의 발톱이 찍힌 것을 본뜬 것이고	鶴以爪印
충서는 동물의 발굽 흔적을 본뜬 것이며 ²⁰⁰	蟲以蹄畫
긴 뱀은 발이 없고	脩蛇無足
짧은 지렁이는 자취가 있었습니다 ²⁰¹	短蚓有迹
여러 서체가 구름처럼 어지럽게 변화하니	紛變化之如雲
혹 하늘이 감격하고 귀신이 이르렀습니다	或天感而鬼格
저 신농씨가 문자를 만들 때	獨怪夫神農之起畫
상서로운 이삭을 잡고서 본을 취한 것만은 이상하니	手瑞穗而取則

199 수서(穗書) : 신농씨(神農氏)가 가화(嘉禾)에 여덟 이삭이 나온 것을 보고 그것을 본떠서 만든 문자이다. 이에 대해 당(唐)나라 위숙(韋續)이 지은 《묵수(墨藪)》에서 “염제 신농씨가 상당 양두산에 가화가 피어 여덟 이삭이 패인 것을 보고는 수서를 만들었다.”라고 하였다. 신농씨는 중국 고대의 전설상의 임금인 삼황(三皇) 중 한 사람이다. 처음으로 쟁기와 보습을 만들고 백성들에게 농사를 가르쳤기에 이름을 신농씨라고 하였다고 한다.

200 학서(鶴書)는…것이며 : 학서는 새의 발자국 모양을 본떠서 만든 서체(書體)이고, 충서는 동물의 발자국 모양을 본떠서 만든 서체를 지칭한다.

201 긴…있었습니다 : 긴 뱀, 짧은 지렁이는 졸렬한 서체를 비유하는 말이다. 《진서(晉書)》〈왕희지전(王羲之傳)〉에 “소자운은 겨우 글씨를 쓸 줄은 아나, 장부의 기개가 없어서 줄마다 마치 봄 지렁이를 감아 놓은 것 같고, 글자마다 마치 가을 뱀을 묶어 놓은 것 같다[蕭子雲僅得成書，無丈夫之氣，行行若縈春蚓，字字如綰秋蛇].”라고 한 것이 보인다.

백성들은 곡식과 직물로써 살아가는데	民以粒而以織
어찌 이것을 가지고 문자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하였네	豈此書之有賴
주인이 말하기를	主人曰
“삼가 우리 객경을 위해	敬爲吾客
대략 현묘한 시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粗敘玄始
아아, 하늘이 위로 오르고 땅이 아래에서 굳어지니	粵自圓升方結
음양이 하나의 근원에서 생겨났습니다	二大生朴
유소씨와 수인씨의 백성들 강포하였고 ²⁰²	巢盱燧眡
오행이 상극하여 질박함 어두워졌으니	五克晦質
모두 짐승처럼 숨 쉬고 새처럼 눈만 뜬 채 살고	舉息禽而視鳥
다투어 금수로 돌아가 생고기를 먹었습니다	競歸獸以茹血
그러나 천리는 매우 밝게 빛났으니	然厥理之孔昭
어찌 사람 ²⁰³ 에게서 완전히 사라졌겠습니까	豈終泯於橫目
황제가 몸을 움츠리고 말없이 얼굴을 찡그리다가	帝瑟縮而默顰

202 유소씨와…강포하였고 : 유소씨는 집 짓는 법을 처음 가르친 상고 시대의 왕이다. 수인씨는 불을 처음 만들어 백성들에게 화식(火食)을 가르쳤다고 하는 상고 시대의 왕이다. 《사략(史略)》 권1 <태고(太古)>에 보인다. “인황씨 이후에 유소씨가 나타나서 나무 위에 집을 꾸미고 나무열매를 먹었다. 수인씨에 이르러 처음으로 나무를 비벼 불을 일궈 사람들에게 불로 익혀 먹는 법을 가르쳤다.[人皇氏以後，有曰有巢氏，構木爲巢，食木實。至燧人氏，始鑽燧，教人火食.]”라고 하였다.

203 사람[橫目] : 원문의 횡목(橫目)은 만물 중에서 오직 사람만이 눈이 가로로 찢어져 있다고 하여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장자》 <천지(天地)>에 “선생님은 횡목의 백성에게 뜻이 없습니까? 성인의 정치를 듣고자 합니다.[夫子無意於橫目之民乎，願聞聖治?]” 하였는데, 이에 대한 성현영(成玄英)의 주에서 “오행의 부류 가운데 오직 사람만이 눈이 가로로 찢어져 있다.[五行之內，唯民橫目.]”라고 하였다.

소머리 형상의 신농씨²⁰⁴ 돌아보시어 제왕의 자리에 올렸습니다

眷牛元而御極

이에 하도를 계승하고 용사를 이어서²⁰⁵

於是纘圖紹龍師

풀을 맛보아 요절하는 이들 구제하고

嘗草濟夭

나무를 채찍질하여 때에 알맞게 하였으며²⁰⁶

鞭木若時

있고 없는 것을 교역하기 위해 시장을 만들어

有無爲市

해가 기울면 비우게 하였으며²⁰⁷

日昃而虛

나무를 깎고 휘어지게 하여 농기구를 만들어

揉斲爲農

들에서 김매고 집에서 살게 하였습니²⁰⁸

野鋤宮居

204 소머리 형상의 신농씨 : 《사기(史記)》〈보사기(補史記) 오제본기(三皇本紀)〉에서 “염제 신농씨는 사람의 몸에 소의 머리를 하고 있었다.[炎帝神農氏, …人身牛首.]”라고 하였다.

205 하도를…이어서 : 복희씨의 정사를 잘 계승하였다는 의미이다. 복희씨 시대에 용마(龍馬)가 하도(河圖)를 지고 나온 상서가 있어서 백관(百官)의 우두머리 명칭에 ‘용’ 자를 써서 ‘용사(龍師)’라고 했다고 한다.《左傳 昭公十七年》

206 풀을…하였으며 : 신농씨(神農氏)가 자편(赭鞭)이라는 채찍을 가지고 다니면서 초목을 채찍질하고 온갖 풀을 맛보아 약초와 식용 초목을 구분하게 되었다고 한다. 《사기(史記)》〈보사기(補史記) 오제본기(三皇本紀)〉에서 “신농씨가 자편으로써 초목에 채찍질을 하고 처음으로 온갖 풀을 맛보아서 비로소 의약이 있게 되었다.[神農氏…以赭鞭鞭草木, 始嘗百草, 始有醫藥.]”라고 하였다.

207 있고…하였으며 : 《주역(周易)》〈계사 하(繫辭下)〉에서 신농씨(神農氏)의 시대를 말하면서 “한낮에 시장을 만들어 천하의 백성들을 오게 하고 천하의 재화를 모아서 교역하고 물러가서 각각 제 살 곳을 얻게 하였다.[日中爲市, 致天下之民, 聚天下之貨, 交易而退, 各得其所.]”라고 하였다.

208 나무를…하였습니^다 : 《주역(周易)》〈계사 하(繫辭下)〉에서 “신농씨가 나와 나무를 깎아 쟁기를 만들고 나무를 휘어 쟁기자루를 만들어서 쟁기와 호미의 이로움으로 천하를 가르쳤다.[神農氏作, 斲木爲耜, 揉木爲耒, 耒耨之利, 以教天下.]”라고 하였다. 이 부분의 원문은 저

이에 추우면 털옷 입고 더우면 갈옷을 입고	爰裘褐於寒暑
목마르면 물마시고 배고프면 밥을 먹었으며	乃渴飲而飢食
양지를 순일의 상태로 되돌려	反良知於恫憫
성대하게 하늘과 사람이 합일하였습니다	藹天人之沕合
이로써 대도는 완전히 사라질 수 없으며	是知大道不可以終晦
사문은 완전히 민멸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斯文不可以遂滅
실로 하늘이 우리 백성을 통해 보니 ²⁰⁹	諒天視之自我
참으로 상서를 내어 덕에 부합하게 할 만하였기에	允產祥而符德
이에 물에 명하여 성인에게 고하고	茲命物而詔聖
양머리처럼 생긴 상서로운 곡식을 내니	茁羊頭之嘉穀
어지럽게 밭에서 자라나고 들에서 솟아나	紛撐畦而柱原
여덟 이삭이 패어 아름다웠습니다	敷八穗以郁郁
아아, 성대하여라	猗歟盛哉
풍성하고도 실하며	既豐既實
아아, 아름다워라	休歟美哉
무성하고도 컸습니다	既茂既碩
이에 노인들 노래 부르며	於是耄艾歌詠
기뻐서 내달리고	載欣載奔
베어내고 베어내어	以芟以刈
신농씨의 궐문에 나아가 올렸습니다	獻帝之門
신농씨가 말하기를	帝曰

본에 “糴斲爲農”이라고 되어 있지만, “糴”는 “揉”의 오기가 분명하므로 고쳐서 번역하였다.

- 209 하늘이…보니 : 《서경(書經)》〈태서 중(泰誓中)〉에 “하늘은 우리 백성의 눈을 통해 보시고, 하늘은 우리 백성의 귀를 통해 들으신다.[天視自我民視, 天聽自我民聽.]”는 말이 나온다.

‘공경스럽다, 아아 우리 백성들이여	欽哉嗟我元元
하늘이 나를 보살피시니	天其眷予
내가 감히 받들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고	予敢不承
마침내 그 무성히 자라난 줄기를 관찰하고	遂乃觀其條暢
패인 이삭을 살피니	察其敷榮
즐기는 길게 굽어져 있어	則一莖冤延
금줄과 철삭 ²¹⁰ 의 모양이었고	狀金繩而鐵索
여덟 이삭은 구불구불하여	八岐紆餘
완전히 뱀이 파리 틀고 교룡이 서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宛蛇蟠而蛟結
이에 연석과 도모하여 중심에 물을 붓고	于時謀石瀉心
모영에게 요구하여 관을 벗게 하여 ²¹¹	詰穎免冠
손 가는 대로 종횡으로 긋고	信手縱橫
마음 가는 대로 휘둘렀습니다	隨意揮旋
행과 행을 성글고 촘촘하게 배열하여	行行疏密
많고 많은 것을 모사하고	摸穰穰也
글자와 글자를 구불구불하게 써서	字字盤屈
무성하고 무성한 것을 모방하였습니다	體秧秧也
풍성한 이삭이 우거진 것을 본뜨고	效豐穗之蘩蘩
상서로운 벼의 윤택한 모습을 묘사하여	做嘉禾之濯濯
교묘하게 조화의 굴을 파헤치고	巧刮造化之窟

210 금줄[金繩]과 철삭(鐵索) : 모두 뛰어난 글씨를 비유하는 말이다.

211 모영에게…하여 : 붓의 뚜껑을 벗겼다는 의미이다. 모영은 붓을 가리킨다. 한유(韓愈)의 〈모영전(毛穎傳)〉에서 “상이 장차 일을 맡기려고 하여 먼지를 털고 닦아내자, 인하여 관을 벗고 사례하였다. 상이 보니 그의 머리가 다 벗어지고 또 그려내는 것도 상의 뜻에 맞지 않았다.[上將有任使, 拂拭之, 因免冠謝, 上見其髮禿, 又所摹畫, 不能稱上意.]”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미묘하게 현묘한 경지로 들어가니
 한 바탕 우레와 번개가 치듯이 붓을 휘둘러
 반공에 비바람이 지나 듯이 단번에 썼습니다
 마침내 백성들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지금 이 이삭이 생겨난 것은
 하늘이 실로 나를 보우하시는 것이니
 이것을 써서 문자를 만들어
 너희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치리니
 글을 쓰고 명령을 내림에
 글자가 마땅하고 획도 마땅하네
 너희에게 농사일을 밝혀서
 너희가 농사일에 힘쓰게 하리니
 게다가 사내가 힘써 밭을 갈지 않으면
 너희는 무엇을 먹겠으며
 아낙이 길이 길쌈하지 않으면
 너희는 무엇을 입겠느냐
 힘쓸지어다, 백성들이여
 부지런히 농사짓고 뽕나무를 기르라’ 하였네
 이에 갈지 않은 밭이 없어
 구름 같이 곡식이 익었습니다
 백성들은 나에게 털옷이 있으니
 황제가 어찌 나를 따듯하게 하는 것이며
 나에게 곡식 창고가 있으니
 황제가 어찌 나를 풍족하게 하는 것이겠는가
 즐겁고 자득하게 살아가니
 이것이 어찌 황제의 힘이겠는가 하며

細入秋毫之末
 掃一場之雷電
 驚半空之風雨
 遂下令于民曰
 今此有穗
 天實予佑
 用此以書
 開爾昏惑
 以書以令
 宜字宜畫
 惟明爾農
 力爾之穡
 而況夫壯不田
 爾口何食
 婦長無織
 爾體何裳
 勸哉蚩蚩
 務爾農桑
 於是無田不甬
 有稼如雲
 我有衣裘
 帝何我溫
 我有困廩
 帝何我足
 熙如皞如
 何帝之力

소박하고 질박하게 지내며	素哉朴哉
이에 서로 즐거워하였습니다	于胥樂兮
이것이 바로 신농씨가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	此乃神農之敎其民
수서를 만든 이유입니다	而穗書之所以作也
아득하고 아득하여	逖哉邈乎
이보다 더 오래된 일은 없습니다” 하였네	不可尙已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談未卒
묵경은 발을 모으고 입을 딱 벌리고	墨卿乃屐足呀口
놀라 벌떡 일어났네	蹶然而起
주인이 이르기를	主人曰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未既也
객을 위해 다 말하고자 합니다	願爲客畢之
주문과 전서 ²¹²	惟籀與篆
과두문과 예서 ²¹³ 로 변해간 것은	斗與隸也
구름처럼 무너지는 형상이었고	崩雲之狀
이슬처럼 떨어지는 형세였으며	垂露之態

212 주문(籀文)과 전서(篆書) : 주문은 주(周) 선왕(宣王) 때의 태사(太史) 주(籀)가 창작한 한자의 자체이다. 소전(小篆)의 전신(前身)으로 대전(大篆)이라고도 한다. 전서는 이 글에서는 대전과 구분되는 소전(小篆)을 가리킨다. 소전은 대전을 단순화한 서체로 진 시황(秦始皇) 때 나타났다.

213 과두문(蝌蚪文)과 예서(隸書) : 과두문은 올챙이 모습을 닮은 서체를 말한다. 고대에 필묵(筆墨)이 아직 쓰이지 않았을 때 죽간(竹簡)에 옷을 문혀서 글을 썼는데, 대나무는 딱딱하고 옷은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글자의 획이 머리는 굵고 끝은 가늘게 되어 마치 올챙이 모양으로 보였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다. 예서는 전서의 획을 간략하게 만든 서체(書體)로, 진시황(秦始皇) 때 정막(程邈)이 창조했다고 한다.

팔분을 비롯한 십체 ²¹⁴ 는	八分十體
어둑하고 희미하였습니다	黝黝茫昧
비록 다투어 쓰이고 번갈아 베풀어져도	雖爭設而互施
다만 눈을 현란하게 하고 놀라게 할 뿐이라	只眩目而駭視
이미 생활에 보탬이 없으니	既無益於生息
또한 어찌 교화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又何補於教化
다만 정신을 피로하게 하고 낭비하게 하여	徒勞精而費神
멋대로 오류를 인습할 뿐이었습니다	謾襲訛而承謬
그러므로 사농공상의 백성들이	故斯民之分四
모두 농부를 버리고 선비가 되었으니	儘去農而歸士
이미 신농씨의 시대와 멀리 떨어져 있었어도	既神農之世遠
곡식비가 내리고 귀신이 곡하기에 마땅했습니다 ²¹⁵	宜雨粟而鬼泣

214 팔분(八分)을 비롯한 십체(十體) : 팔분은 179번 주 참조. 십체는 10종의 서체를 말하는데 당(唐)나라 장회관(張懷瓘)이 나눈 것에 따르면 고문(古文), 대전(大篆), 주문(籀文), 소전(小篆), 팔분(八分), 예서(隸書), 장초(章草), 행서(行書), 비백(飛白), 초서(草書)이다. 당나라 당원도(唐元度)가 나눈 것에 따르면 고문(古文), 대전(大篆), 소전(小篆), 팔분(八分), 비백(飛白), 해엽(薤葉), 수침(垂針), 수로(垂露), 조서(鳥書), 연주(連珠)이다.

215 곡식비가…마땅했습니다 : 《회남자(淮南子)》〈본경훈(本經訓)〉에 “옛날에 창힐(蒼頡)이 글자를 만들자 하늘에서 곡식이 내리고 귀신이 밤에 곡하였다.[昔者蒼頡作書，而天雨粟，鬼夜哭。]”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동한(東漢)의 허신(許慎)은 “창힐이 처음 새의 발자국을 보고 문자를 만드니 속임수와 거짓이 싹트고 근본을 버리고 말단으로 달려가서 농사짓는 일을 버리고 송곳만한 이익을 다투는 데 힘쓰게 되었다. 이에 하늘이 백성들이 장차 굶주리게 될 것을 알아서 곡식비를 내렸고, 귀신이 문서로 비판받을 것을 알아서 밤에 곡하였다.[蒼頡始視鳥迹之文，造書契，則詐僞萌生，去本趨末，棄耕作之業，務錐刀之利。天知其將饑，故爲雨粟，鬼恐爲文書所劾，故夜哭也。]”라고 하였다.

염제 ²¹⁶ 가 문자를 만든 일은 너무도 훌륭하여	偉炎代之有書
실로 만고에 백성들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誠萬古之民則
그렇다면 이 문자는	然則是書也
이삭으로써 문자를 삼은 것이고	以穗爲書
문자로써 이삭을 삼은 것이니	以書爲穗
문자가 아니면서도 문자이고	非書而書
이삭이 아니면서도 이삭입니다	非穗而穗
선비인데도 농부가 되니	士而爲農
농부가 선비이고	其農也士
농부인데도 선비가 되니	農而爲士
선비가 농부입니다 ²¹⁷	其士也農
아아, 미칠 수 없는	嗚呼莫逮
아득한 복희씨 신농씨 시대여” 하였다	遠矣羲農
마침내 그를 위해 찬을 쓰기를	遂爲之贊曰
“하늘은 덕이 있는 이를 돕고	天與其德
이삭은 성군을 도우니	穗與其聖
이삭으로 문자를 만들어서	穗以爲書
온 백성을 권면하네	勸斯萬姓
이삭이여 문자여	穗哉書哉
성군의 경사로다	聖帝之慶
성군에게 경사가 있어서	聖帝有慶
모든 백성이 이에 의지하니	兆民賴之
복희씨가 아니고 신농씨가 아니면	非羲非農

216 염제(炎帝) : 신농씨(神農氏)를 지칭한다.

217 선비가 농부입니다 : 저본의 원문은 “其士也穗”이지만, 문맥 상 “穗”는 “農”의 오류가 분명하기에 고쳐서 번역하였다.

내가 누구에게 귀의하랴” 하였네
이에 주인이 말을 마치자
묵경이 물리갔고
방안의 책들은
천 년 만에 탄식을 발하였네

我安適歸
於是主人談訖
墨卿告退
一堂圖書
千載興喟

하도²¹⁸부

河圖賦

검은 것은 위로 오르고 누런 것은 아래로 가라앉아	玄褰黃墊
모난 땅과 둥근 하늘과 짝하고	方與圓匹
음양이 서로 뒤섞여서	剛柔相盪
만물이 생겨나고 자라났네	以生以息
모두 무지몽매해서 절로 어둑하여	儘恣恣而自暮
다투어 금수 같은 짓을 하면서 깨닫지 못하니	競歸獸而罔覺
황제가 두려워 몸을 움츠리고 묵묵히 조서를 내리자	帝瑟縮而默詔
소머리 형상을 한 신 ²¹⁹ 이 부복하였네	有牛元之神伏
용이 뛰어오르는 황하의 상서 나와서	宜或躍之瑞河
성스런 임금의 신령한 덕 드리낼 만하였네	表聖后之靈德
성군께서 공손하게 왕위를 주고받으니	聖欽若而授受
용이 하늘의 명을 따라 하도를 지고 내려 왔네	龍聽天而圖降
하도를 어찌하여 성군에게 내린 것일까	圖何爲乎寵聖
성군은 이에 굽어보고 머리 들어 사색했네	聖於是乎俯仰
음양에 뿌리를 두고 천지를 본뜬 것을 보니	爾其根陰陽體霄壤
황제의 마음 오묘하게 신령과 제합하였네	則帝衷幻神契
매우 미세하면서도 분명하여	甚芒而的

218 하도(河圖) : 복희씨(伏羲氏) 때 황하(黃河)에서 나온 용마(龍馬)의 등에 새겨진 무늬인데, 1에서 10까지의 숫자가 배열되어 있었다고 한다. 복희씨는 이를 보고 《주역(周易)》의 팔괘(八卦)를 그렸다고 한다.

219 소머리…신 : 복희씨를 가리킨다. 송나라 나필(羅泌)의 《노사(路史)》〈후기(後紀)〉에서 “태호 복희씨는…용머리에 소의 머리를 하고 있었다. [太昊伏羲氏…龍身牛首.]”라고 하였다.

어둠 속에서 밝은 이치 드러내었으니	示昭於昧
그 그림은	其爲圖也
흰 비단에 그린 것 아니고	非縑素
붉은 진사로 채색한 것 아니네	非丹雘
산천을 그린 것도 아니고	非山川
땅에 나는 사물을 그린 것도 아니네	非土物
효도 획도 없고	無爻無畫
점과 점을 이은 선만 있으니	有點有綴
왼쪽엔 기수 오른쪽엔 우수	左奇右偶
노양은 9 소양은 7로 하고	老九少七
사면을 세워 체를 삼고	立四爲體
5를 가운데 품고 있네 ²²⁰	孕五於腹
몇 개의 점으로 천지를 포괄하였고	包兩儀於數點
짧은 조목에 만 가지 이치 갖추었네	備萬理於寸目
놓아두면 육합을 채울 만한데	放彌六合
말아서 은밀한 곳에 감추니	卷藏於密符
그 수를 다 합하면 35이네 ²²¹	摠厥數有三五
이에 황도와 적도 ²²² 가 나누어져	於是途分黃赤

220 효도…있네 : 하도는 점 55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1과 6은 북쪽에, 2와 7은 남쪽에, 3과 8은 동쪽에, 4와 9는 서쪽에 있으며, 5와 10은 중궁(中宮)의 수로 중앙에 있다. 기수(奇數) 1, 3, 5, 7, 9가 천(天)의 수이고, 우수(偶數) 2, 4, 6, 8, 10이 지(地)의 수이다. 《周易 河圖之圖》현주의 설명은 미상이다.

221 그…35이네 : 원래 <하도>의 수를 합하면 55인데, 현주가 35라고 한 것은 미상이다. 혹 원문의 “三五”가 “五五”의 오키일 수 있다.

222 황도(黃道)와 적도(赤道) : 황도는 지구에서 보이는 하늘에서 해가 한 해 동안 지나는 길이다. 적도는 천체를 네모진 지구를 덮고 있는 구체로 상정했을 때 지구 표면의 거리가 남북으로 서로 같아지는 지점

양인 해와 음인 달을 분별하고²²³

辨雄烏與雌兔

남극과 북극을 살펴서

極察南北

물 뜨는 두성과 곡식 까부는 기성을 식별하네²²⁴

識挹斗與揚箕

땅 끝에서 매곡과 양곡을 징험해서²²⁵

驗昧陽於坤倪

땅의 도를 모두 법도에 맞게 하였고

地道竝規

백성들의 본성에서 길흉을 점쳐서

占休咎於民彝

인간의 도리를 모두 세웠네

人理竝舉

그것으로써 하늘의 도를 다하고

以之窮天

그것으로써 땅의 도를 다하며

以之盡地

그것으로서 한 시대를 깨우치고

以之醒一世

의 원주선(圓周線)을 가리킨다. 《서경》〈홍범(洪範)〉의 “해와 달의 운행에는 겨울이 있고 여름이 있다.[日月之行, 則有冬有夏]”라고 하였고 이에 대한 채침(蔡沈)의 주에서 “해는 중도가 있고 달은 아홉 가지 길이 있다. 중도는 곧 황도이다. …아홉 길은 흑도 둘, 적도 둘, 백도 둘, 청도 둘에 황도까지 합하여 아홉이다.”라고 하였다.

223 분별하고 : 이 부분의 원문은 “辨”이나 문맥 상 “辨”의 오기로 보인다.

224 물…식별하네 : 기성(箕星)과 두성(斗星)는 모두 별 이름이다. 《시경》〈소아(小雅) 대동(大東)〉에서 “남쪽엔 기라는 별이 있으나, 까불어 날릴 수 없고, 북쪽엔 두라는 별이 있으나, 술과 물을 뜰 수가 없도다.[維南有箕, 不可以簸揚, 維北有斗, 不可以挹酒漿.]”라고 하였다.

225 땅…징험해서 : 해의 운행을 잘 관측하여 농사일이 일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였다는 의미이다. 매곡(昧谷)은 해가 지는 곳이고, 양곡(陽谷)은 해가 뜨는 곳이다. 《書經 堯典》《서경(書經)》〈요전(堯典)〉에 “요임금이 화중에게 명하여 우이에 머물게 하셨다. 이곳이 양곡(陽谷)이니, 떠오르는 해를 공경히 맞이하여 봄농사를 고르게 하였다. …또 화중에게 명하여 서쪽에 머물게 하셨다. 이곳이 매곡(昧谷)이니, 들어가는 해를 공경히 전송하여 가을 수확을 고르게 하였다.[分命羲仲, 宅嵎夷, 日暘谷, 寅賓出日, 平秩東作. …分命和仲, 宅西, 日昧谷, 寅饒納日, 平秩西成.]”라고 하였다.

그것으로서 만세를 소생시켰네	以之蘇萬祀
그런 연후에 사람이 사람다워지고	然後人爲人
만물이 만물다워지고	物爲物
일가가 능히 일가다워지고	家能家
나라가 능히 나라다워지고	國能國
임금이 임금답고 신하가 신하답고 부자가 부자답고 부부가 부부다워 져서	君君臣臣父子夫婦
중화에 미치고 이적에 미치고	以華以夷
지금에 미치고 옛날에 미치네	以今以古
이로써 하늘의 상을 살펴서 역을 만드는 일이	是知觀天象而創易
이것을 얻어서 도모되었고	得此而權
새 발자국을 살펴서 글자를 만든 일이	尋鳥迹而做字
이것에 의지하여 있게 되었음을 아네	賴此之存
한 쌍의 사슴 가죽을 결혼 예물로 삼은 것은 ²²⁶	儷皮結姻者
음양이 합할 때 법도가 있음을 취한 것이고	取陰陽之有度
희생을 길러 부엌을 채운 것은 ²²⁷	犧牲充庖者
연향과 제사에 예의가 있음을 보인 것이네	示饗祀之有義

226 한…것은 : 여피(儷皮)는 암컷과 수컷 한 쌍의 사슴 가죽을 말한다. 고대에 혼례(昏禮)의 예물로 사용하였다. 《십팔사략(十八史略)》〈태호복희씨(太昊伏羲氏)〉에서 “태호 복희씨는 성이 풍씨로, 수인씨를 이어서 제왕이 되었는데, 뱀의 몸에 사람의 머리를 하고 있었다. 처음으로 팔괘를 그었고 서계를 만들어서 결승문자로 정사를 내던 일을 대신하였다. 결혼 제도를 제정하여 여피로써 예물을 삼았다.[太昊伏羲氏風姓，代鱗人氏而王，蛇身人首。始畫八卦，造書契，以代結繩之政，制嫁娶，以儷皮爲禮.]”라고 하였다.

227 희생을…것은 : 《십팔사략(十八史略)》〈태호복희씨(太昊伏羲氏)〉에서 “희생을 길러서 부엌에서 제물을 마련하였기에 포희라고 한다.[養犧牲，以庖廚，故曰庖犧.]”라고 하였다.

이때에 잡박한 것이 변하여 순정하게 되었고	于時變厖爲淳
결승을 대신하여 먹으로 글자를 쓰게 되었으니	代繩而墨
근심하던 이들이 화락해졌고	顛顛者以皞皞
어리석었던 이들이 성대해졌네	昧昧者而郁郁
이런 까닭에 이제 ²²⁸ 가 그것을 얻어서	是故二帝得之
이제가 될 수 있었고	得爲二帝
삼후 ²²⁹ 가 그것을 얻어서	三后得之
삼후가 될 수 있었네	得爲三后
갈아도 닳지 않고 물들여도 검어지지 않으니 ²³⁰	磨不磷兮涅不緇
무궁에서 나와서 무극으로 들어가네	出無窮兮入無極
이는 조물주가 베푼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²³¹	是造物之無盡藏兮
무시로 살피고 끝없이 쓰네	視無端兮用不竭
이미 영험하고도 또 신령하니, 홀륭하고	偉既靈而且神
낙수의 거북이가 조짐을 드러낸 것보다 앞섰네	先洛龜而兆朕

228 이제(二帝) : 요(堯)임금과 순(舜)임금을 말한다.

229 삼후(三后) : 하 우왕(夏禹王), 은 탕왕(殷湯王), 주 문왕(周文王) 또는 무왕(武王)을 말한다.

230 갈아도…않으니 : 《논어》〈양화(陽貨)〉의 “단단하다 하지 않겠는가? 갈아도 닳지 않는다. 희다 하지 않겠는가? 물들여도 검어지지 않는다.”[不曰堅乎, 磨而不磷. 不曰白乎, 涅而不緇.]라는 말에서 유래하였다. 이 부분의 원문은 “磨不磷兮涅不緇”나 “緇”는 “緇”의 오류가 분명하기에, 원문을 수정하고 이에 의거하여 번역하였다.

231 조물주가…보물이니 : 소식(蘇軾)의 〈적벽부(赤壁賦)〉의 “오직 강 위의 맑은 바람과 산간의 맑은 달은 귀로 들으면 소리가 되고 눈으로 보면 빛을 이루는데, 이를 취하여도 막는 사람이 없고, 아무리 써도 없어지지 않으니, 이것이 바로 조물주의 다함이 없는 보물이다.”[惟江上之清風, 與山間之明月, 耳得之而爲聲, 目寓之而成色, 取之無禁, 用之不竭, 是造物者之無盡藏也.]라는 구절에서 가져온 말이다.

이는 하늘이 바른 마음을 갖도록 유도하여 ²³²	此所以天誘其衷
덕이 있는 이를 돌아보고	惟德是眷
땅이 보물을 아끼지 않아서 ²³³	地不愛寶
상서를 낸 이유이네	惟祥是產
십 년 동안 아홉 번 홍수가 났지만	雖十年而九水
범도를 매몰시킬 수 없었고	不能溺其軌躅
팔 년 동안 일곱 번 가뭄이 들었지만	雖八載而七旱
지극한 은택을 고갈시키지 못했네 ²³⁴	不能涸其至澤
천하를 훔칠 수는 있어도	天下可竊
이 하도는 훔치기 어려우며	此圖難竊
구정 ²³⁵ 을 훼손할 수는 있어도	九鼎可毀

232 하늘이…유도하여[天誘其衷] :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희공(僖公) 28년에, “하늘이 우리들이 중정한 마음을 갖도록 유도하여 모두 마음을 겸허하게 가지고 서로 따르도록 하셨다.[天誘其衷, 使皆降心以相從也.]”라고 한 것이 보인다.

233 땅이…않아서[地不愛寶] : 《예기》〈예운(禮運)〉에서 “하늘은 그 도를 아끼지 않고 땅은 그 보배를 아끼지 않으며 사람은 그 정을 아끼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늘은 기름진 이슬을 내리고, 땅은 단술의 샘물을 내보내며, 산에서는 보기(寶器)와 산거(山車)를 산출하고, 하수에서는 용마(龍馬)와 하도(河圖)를 산출하며, 봉황과 기린이 들 숲에 있고, 거북과 용이 궁중의 못에 있다.[天不愛其道, 地不愛其寶, 人不愛其情. 故天降膏露, 地出醴泉, 山出器車, 河出馬圖, 鳳凰麒麟皆在郊椰, 龜龍在宮沼.]”라고 하였다.

234 십…못했네 : 《장자(莊子)》〈추수(秋水)〉에서 “하의 우임금 때에는 10년 동안에 아홉 번이나 홍수가 났지만 그래도 바닷물이 더 불어나지는 않았지. 또 은의 탕임금 때에는 8년 동안에 일곱 번이나 가뭄이 들었지만 그래도 바다의 수위가 더 내려가는 일은 없었다네.[禹之時, 十年九潦, 而水弗爲加益; 湯之時, 八年七旱, 而崖不爲加損.]”라고 하였다.

235 구정(九鼎) : 하(夏)나라 우왕(禹王)이 구주(九州)의 죄를 거두어들여

이 하도는 훼손하기 어렵네	此圖難毀
천지보다 앞서 생겨 천지보다 늦게 사라지고	先天地兮後天地
모든 성인에 부합하여 의심스럽지 않으며	符萬聖而不惑
삼정 ²³⁶ 이 마멸되어 다 사라져도	雖三精磨滅而漸盡兮
또한 이 이치는 꺼지기 어렵네	亦此理之難熄
아아, 이미 이 성인을 낳으시고	嗚呼既生是聖
또 이 하도를 내었으니	又出是圖
하도는 성인으로 인해 드러났고	圖以聖著
성인은 하도로써 백성을 이끄네	聖以圖師
성인이 아니고 하도가 아니면	非聖非圖
내가 무엇을 법도로 취하겠는가	吾何取則
비록 그렇지만 하도는	雖然圖之爲物
성인으로 인해 나온 것이니	爲聖人出者也
성인이 출현하면 하도가 나오는 것이	聖出圖出
마치 메아리가 소리에 응하는 것과 같은데	如響之答
어찌하여 성인은 번갈아 나타났는데	胡聖有迭作
하도는 나올 때도 나오지 않을 때도 있었는가	而圖有出不出
주나라의 국운 ²³⁷ 이 쇠퇴해가는 시기에	際蒼籙之欲季
거의 성인이신 분 ²³⁸ 이 크게 일어나셨으니	有將聖之大作

서 만들었다고 하는 무쇠술이다. 하·은·주 삼대가 이것을 국가 권력의 상징으로 받들었기 때문에 제왕의 권력을 비유하는 말로 쓰인다.

236 삼정(三精): 해와 달과 별을 가리킨다.

237 주나라의 국운[蒼籙]: 원문 '창록(蒼籙)'은 창력(蒼曆)과 같은 말이다. 창력은 목덕(木德)으로 천명(天命)을 받고 제왕이 된 주나라의 역수(曆數)라는 뜻으로, 주나라의 역사 또는 국운을 말한다.

238 거의 성인이신 분[將聖]: 공자(孔子)를 가리킨다. 《논어》〈자한(子罕)〉

아름다운 상서가 때에 응해 나와서	宜嘉祥之協應
사문의 성대함 드러낼 만하였는데	表斯文之彬郁
하늘이 천하를 평화롭게 다스리고 싶지 않았으니 ²³⁹	天不欲乎平治兮
그러므로 하도가 나오지 않는다는 탄식 발하였네 ²⁴⁰	故發嘆於不出
그러나 어찌 황하에 하도가 없었겠는가만	然豈河之無圖
서쪽 사냥터에서 기린이 잡혔으니 어찌라	奈西狩之有獲
지금까지 천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迄于今蓋千載兮
황하의 물은 넘실넘실 흐르기만 하였으니	但河水之瀾瀾
옛 책에 남겨진 하도를 어루만지다	撫遺圖於陳編
일어나서 슬픈 노래 부르고 길이 그리워하면서	起悲歌而永思
다음과 같이 노래한다	歌曰
“하도가 나오자 도가 드러났고	圖之出兮道之顯
하도가 숨자 도가 숨었네	圖之伏兮道之隱
이미 드러났다가 숨었다면	既顯而隱
어찌하여 숨은 것 다시 드러나지 않는가	胡隱不顯
성인이 떠나가고 신마도 떠나갔으니	聖徂神逝
우리들은 귀의할 곳이 없네	我無適歸

)에 공자의 제자 자공(子貢)이 “우리 선생님은 실로 하늘이 내신 거의 성인입니다.[固天縱之將聖.]”라고 한 말에서 유래하였다.

- 239 하늘이…않았으니 : 《맹자》〈공손추 하(公孫丑下)〉에 “저 하늘이 아직 천하를 평화롭게 다스리고자 하지 않은 것이지, 만약에 천하를 평화롭게 다스리고자 한다면 지금의 세상에 당면하여 나를 버리고 그 누구를 쓰겠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지 않겠는가.[夫天未欲平治天下也, 如欲平治天下, 當今之世, 舍我其誰也? 吾何爲不豫哉?]”라고 하였다.
- 240 하도가…발하였네 : 《논어(論語)》〈자한(子罕)〉에 “봉황이 오지 않고, 황하에서 하도(河圖)가 나오지 않으니, 나도 끝이로구나.[鳳鳥不至, 河不出圖, 吾已矣夫.]”라고 공자가 탄식한 말이 보인다.

하도여, 하도여
나는 이제 끝인가 보다” 하였네

圖乎圖乎
吾已矣夫

예미귀²⁴¹부

曳尾龜賦

구불구불한 신훈이 아니네	莫神蜿蜿
하늘에 오르고 연못에 잠기는	躍天潛淵
맑게 우는 서봉이 아니네	莫瑞噦噦
오동에 살고 구름 속을 날아다니는	息梧翔雲
이 두 동물은	之二蟲也
머물 곳을 아는데	知所止焉
현의 입은 장부 ²⁴² 는	有夫兮玄衣

241 예미귀(曳尾龜) : 《장자(莊子)》〈추수(秋水)〉에 “장자가 복수에서 낚시를 하고 있을 때 초왕이 두 사람의 대부로 하여금 가서 먼저 말하게 하기를 ‘초나라의 경내의 정치를 맡아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장자가 낚싯대를 쥔 채 돌아보지도 않고 말하기를 ‘나는 듣건대 초나라에 신령스러운 거북이 있어 죽은 지 이미 삼천 년이 지났는데 왕께서 상자에 싸서 묘당에 보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거북은 죽어서 뼈를 남겨 소중하게 받들어지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살아서 진흙 속에서 꼬리를 끌며 다니기를 원할까요?’라고 하였다. 두 사람의 대부가 ‘차라리 살아서 진흙 속에서 꼬리를 끌며 다니기를 원할 테지요.’라고 하자, 장자가 ‘어서 돌아가시오. 나도 진흙 속에서 꼬리를 끌며 살려고 하오.’라고 했다.[莊子釣於濮水, 楚王使大夫二人, 往先焉曰: 願以境內累矣. 莊子持竿不顧曰: 吾聞楚有神龜死已三千歲矣, 王巾笥而藏之廟堂之上, 此龜者寧其死爲留骨而貴乎? 寧其生而曳尾於塗中乎? 二大夫曰: 寧生而曳尾塗中. 莊子曰: 往矣. 吾將曳尾於塗中.]”라고 한 내용이 보인다.

242 현의 입은 장부 : 거북을 가리킨다. 《사기(史記)》〈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 “송나라 원왕(元王) 2년에 청강(淸江)에서 신비한 거북으로 하(河)에 사신을 보냈는데, 천양(泉陽)에 이르니 어부 예저(豫且)란 자가 그물을 가지고 잡았다. 밤에 거북이 원왕에게 현몽하니 왕

어찌하여 진흙 속에서	胡爲乎泥中
꼬리 끌고 사지와 머리 움직여 ²⁴³	曳六一而運五
온통 푸른 진흙 묻힌 채 동서로 오가는가	渾青泥而西東
곤궁함이 갑자보다 더 심하니 ²⁴⁴	困有甚於甲子
누가 너를 크게 신령스럽다 이르겠는가	誰云爾之太靈
《시경》《서경》에서 신령함을 드러내고	爾其著神詩書
《역경》에서 영험함 실어놓은 것 살펴보면	載靈義經
덕은 만물의 으뜸이고	德尙乎物
지위는 갑각류의 장이며	位長乎甲
기름진 도를 먹고	吸道之腴
기를 움직여 숨쉬네 ²⁴⁵	運氣而息
태음을 맡아서 추위에 떨고 ²⁴⁶	司太陰而爲寒

이 위평(衛平)을 불러 묻기를, ‘내 꿈에 한 장부(丈夫)를 보았는데 목을 빼고 있고 머리는 길고 검은 옷을 입고 검은 수레를 타고 있었다.[今寡人夢見一丈夫, 延頸而長頭, 衣玄繡之衣而乘輜.] 이것이 무슨 물건이나.’ 하니, 위평이 ‘그 이름이 거북입니다.[其名爲龜.]’라고 대답하였다.”라고 한 것에서 온 말이다.

- 243 꼬리[六一]…움직여 : 원문의 ‘육일(六一)’에서 ‘육(六)’은 거북의 사지(四肢)와 머리, 꼬리를 가리키는 말로 보인다. 《장자》에서 “예미(曳尾)”라 하였기에 ‘예육일(曳六一)’은 거북의 사지와 머리, 꼬리 가운데 하나[一]인 ‘꼬리를 끄다’는 의미이고, ‘운오(運五)’는 꼬리를 제외한 사지와 머리를 움직인다는 의미임을 알 수 있다.
- 244 곤궁함이…심하니 : 옛날 갑자(甲子)에서 ‘갑(甲)’을 ‘알봉(闕逢)’이라고 하고 ‘자(子)’를 ‘곤돈(困敦)’이라고 했기에 이렇게 말한 듯하나, 명확한 의미는 미상이다.
- 245 기를 움직여 숨쉬네 : 옛 사람들은 거북이 기를 흡입하여 음식을 먹지 않고도 장생한다고 믿었다.
- 246 태음(太陰)을…떨고 : 태음은 북방을 가리킨다. 5방위를 지키는 여섯 신 가운데 현무(玄武)가 북방(北方)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현무는 북방을 맡은 신으로 거북의 형상을 하고 있다고 한

큰 바다에 사는 것은 궁이라 이름하네 ²⁴⁷	處溟渤者名穹
신령함은 징험되어 환히 드러나지 않음이 없고	神無徵而不炳
지혜는 현묘하여 통하지 않음이 없네	智何玄而莫通
깊은 못에 처하여	宜乎處乎深潭
용백국 거인의 낚시 바늘 피하고 ²⁴⁸	避龍伯之釣餌
맑은 낙수에서 나와서	出乎清洛
성왕의 문사 드러내기에 ²⁴⁹ 마땅하니	表聖王之文思
하물며 큰 바다 동쪽 가에	而況大海東邊
오래도록 크게 낚시질하는 나그네 ²⁵⁰ 끊겼고	久絕巨緝之客

다.

247 큰…이름하네 : ‘궁’은 궁구(穹龜)로 큰 거북을 가리킨다. 한유(韓愈)의 <남해신묘비(南海神廟碑)>에 남해를 묘사하면서 “큰 거북과 거대한 물고기가 전후에서 뛰어오른다.[穹龜長魚, 踴躍後先.]”라고 하였다.

248 용백국…피하고 : 《열자(列子)》 <탕문(湯問)>에서 발해의 동쪽 바다에 큰 자라 15마리가 천제(天帝)의 명에 따라 오산(五山)을 머리에 이고 있었다. “용백국에 어떤 거인이 있어 발을 들어 몇 발자국 가기도 전에 벌써 오산에 이르렀는데, 그는 낚시하여 한 번에 여섯 마리의 자라를 잡아서 들쳐 메고 자기 나라로 돌아와 자라의 뼈를 구워서 점을 쳤다.[龍伯之國有大人, 舉足不盈數步而暨五山之所. 一釣而連六鼈, 合負而趣歸其國, 灼其骨以數.]”라고 하였다.

249 맑은…드러내기에 : 우(禹) 임금이 홍수를 다스릴 때 낙수(洛水)에서 신령스러운 거북이 나왔는데 그 등에 무늬가 배열되어 있었다. 거북이 등에 지고 나온 무늬를 낙서(洛書)라고 한다. 문사(文思)는 문채가 드러나고 생각이 심원한 것을 말한다. 《서경》 <우서(虞書) 요전(堯典)>에 “옛 요임금을 상고해보건대 공이 크시니, 공경스럽고 밝고 문채가 있고 생각이 심원하시며 편안하고 편안하시다.[曰若稽古帝堯, 曰放勳, 欽明文思安安.]”라고 하였다.

250 큰…나그네 : 강태공(姜太公)을 가리킨다. 《맹자》 <진심 상(盡心上)>에서 “태공은 주를 피하여 동해 가에 살았다.[太公辟紂, 居東海之濱.]”라고 하였다.

태화산 꼭대기에	太華峯頭
배만한 연잎이 없지 앓음에랴 ²⁵¹	非乏如船之葉
지금 이 질척거리는 진흙에서	今茲泥之淖淖
어찌하여 이같이 괴롭게 살아가는가	何自苦其如此
저 기린이 숲에 있으면	惟彼麟之在藪
사냥하는 사람이 기뻐하고	虞者之喜
용이 육지에 있으면	龍而處陸
개미가 타넘고 다니며 모욕하네 ²⁵²	蟻軼而侮
네가 꼬리 끌고 다니는 게 즐겁다 해도	爾曳雖樂
너의 꼬리 더럽혀지니	爾尾之汚
거북이여, 거북이여	龜乎龜乎
너의 삶이 실로 고달프도다	爾生良苦
거북이 이 말 듣고는 크게 탄식하고	於是龜聞太息
자신의 생각으로 대답하기를	請對以臆曰
“나의 현묘한 발자취는 산택을 도성으로 삼고	我玄蹤國於山澤

251 태화산…앓음에랴 : 한유(韓愈)의 <고의(古意)>에 “태화산 봉우리 위 옥정의 연꽃은, 꽃이 피면 너비가 열 길이요 뿌리는 배만큼 크다네.[太華峯頭玉井蓮, 開花十丈藕如船.]”라고 하였다. 《사기(史記)》<귀척 열전(龜策列傳)>에서 “거북은 천년을 살아야 연잎 위에서 노닌다.[龜千歲乃遊蓮葉之上.]”라고 하였다.

252 용이…모욕하네 : 《장자(莊子)》<경상초(庚桑楚)>에 “무릇 수레를 삼켜버릴 정도로 큰 짐승이라도 홀로 산을 떠나게 되면 그물에 걸리는 재앙을 피할 수 없게 되고 배를 삼킬 만한 큰 물고기라도 튕겨나가 물을 잃어버리게 되면 땅강아지나 개미 따위가 괴롭힐 수 있게 된다. 그 때문에 새나 짐승은 높은 것을 싫어하지 않으며 물고기나 자라가 깊은 것을 싫어하지 않는다.[夫函車之獸, 介而離山, 則不免於罔罟之患, 吞舟之魚, 踰而失水, 則蟻能苦之. 故鳥獸不厭高, 魚鼈不厭深.]”라고 하였다.

엄매이지 않음을 본성으로 하여	性是不羈
이 한적함을 사랑하니	愛此閑寂
깊은 곳에 무늬 감출 줄 모르는 게 아니고	非不知藏文於深奧
인간 세상에 상서 드러낼 줄 모르는 게 아니네	非不知呈瑞於人寰
북해가 비록 멀지만	北海雖遠
후거에 실어 돌아갈까 걱정이고 ²⁵³	懼後車之載還
남산이 비록 멀지만	南山雖遠
요해지로 가는 첩경이니 어찌랴 ²⁵⁴	柰捷徑於要津
게다가 한 번 어부의 손에 잡히면	況一落於漁人
장차 여름 자라와 함께 요리 되어 먹히리니 ²⁵⁵	將夏鼈而共簞
나와서 별을 쏘일 계획 없음을 돌아보고	顧出矚之無計
상자 속에서 훼손되는 일 다투어 경계하네 ²⁵⁶	爭毀積之相戒

253 북해가…걱정이고 : 《맹자》〈진심 상(盡心上)〉에서 “백이는 주를 피하여 북해 가에 살았다.[伯夷辟紂, 居北海之濱.]”라고 하였고, 《사기(史記)》〈제태공세가(齊太公世家)〉에서 주(周)나라 문왕(文王)이 사냥을 나갔다가, 위수(渭水) 가의 반계(磻溪)에서 낚시하고 있는 80세의 강태공을 만나 그를 수레에 싣고 돌아와 재상으로 삼았다고 했다.

254 남산이…어찌랴 : 남산은 장안(長安)의 앞산인 종남산을 가리킨다. 당(唐)나라의 노장용(盧藏用)이 진사(進士)에 급제한 뒤 등용되지 않자, 군주가 그의 명성을 듣고 불러주기를 바라는 도성에서 가까운 종남산에 은둔하였다. 그 후 노장용은 과연 은사(隱士)라는 명성으로 등용되었다. 사마승정(司馬承禎)이 천태산(天台山)으로 들어가니, 노장용이 종남산을 가리키면서 “여기에도 아름다운 운치가 있는데 굳이 천태산을 찾을 것이 있는가?” 하였다. 이에 사마승정이 웃으며 “내가 보기에 종남산은 벼슬의 첩경일 뿐일세.[以僕視之, 仕宦之捷徑耳.]” 하니, 노장용이 부끄러워하였다. 《新唐書 卷196 司馬承禎傳》

255 장차…먹히리니 : 노동(盧仝)의 〈월식(月蝕)〉에서 “겨울 거북과 여름 자라는 똑같이 맛있는 음식이네[寒龜夏鼈一種味.]”라고 한 것이 보인다.

256 상자…경계하네 : 노나라의 집정대신 계씨(季氏)가 노나라의 속국인

살아서 침상 다리 받치는 것 면치 못하니 ²⁵⁷	生不免於支牀
죽어서 묘당에 들인들 무슨 보탬이 되겠는가	死何補於納廟
신태가 비록 왕성해져도 살 수 없고 ²⁵⁸	神雖王而罔活
지혜 비록 이루어도 도리어 갇힌다네 ²⁵⁹	智雖成而反囚
이 때에	于斯時也

전유(顛輿)를 치려함에 염유(冉有) 등이 이를 저지하지 못하면서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하자, 공자가 이를 꾸짖어 “범과 들소가 우리에서 뛰어나오고, 거북과 옥이 함 속에서 훼손됨은 누구의 잘못인가? [虎兕出於柙, 龜玉毀於櫝中, 是誰之過與?]”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論語 季氏》

- 257 살아서…못하니 : 《사기(史記)》〈귀책열전(龜策列傳)〉에 “남방의 노인이 거북으로 침상 다리를 받쳐두었는데, 그로부터 20년 뒤에 노인이 죽어서 침상을 옮기게 되었을 때, 거북은 그때까지도 죽지 않고 살아 있었다. 이는 거북이 숨을 제대로 토하고 삼키는 등 도인하는 양생법을 행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南方老人用龜支牀足, 行二十餘歲, 老人死, 移牀, 龜尚生不死, 龜能行氣導引.]”라고 한 것이 보인다.
- 258 신태가…없고 : 《장자》〈양생주(養生主)〉에 “못 가의 핏은 열 걸음 만에 한 입 쏘아 먹으며, 백 걸음 만에 한 모금 마시지만, 새장 속에서 길러지기를 바라지 않는다. 신태(神態)는 비록 왕성해지겠지만, 새의 본성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澤雉十步一啄, 百步一飲, 不蘄畜乎樊中, 神雖王, 不善也.]”라고 하였다.
- 259 지혜…갇힌다네 : 황정견(黃庭堅)의 〈고의증정언능팔음가(高意贈鄭彥能八音歌)〉에 “실을 완성하여 누에가 스스로를 속박하고, 지혜 이루어서 거북이 스스로 갇히네 [絲成蠶自縛, 智成龜自囚.]”라고 하였다. “지혜 이루어서 거북이 스스로를 갇힌다.”는 것에 대한 주에서 “장자가 이르기를 ‘초나라에 신령스런 거북이 있어 죽은 지 이미 3천 년이 지났는데 왕이 천에 싸서 상자에 담아 보관하고 있다. 이 거북은 죽어서 뼈를 남겨 귀해지기를 바라겠는가? 아니면 살아서 진흙 속에서 꼬리를 끌며 다니고자 하겠는가?’라고 하였다. [莊子曰: 楚有神龜, 死已三千年, 王巾笥而藏之. 此龜者寧其死爲留骨而貴乎? 寧其生而曳尾於塗中乎?]”라고 하였다. 《山谷外集詩注 卷15》

수놓은 비단옷 입고 ²⁶⁰	衣之以文繡
천구 ²⁶¹ 와 함께	共之以天球
화려한 궁궐 안	華屋九鑰
비단으로 열 번 싸맨 상자 속에 보관되어도	錦櫝十襲
군대를 동원할 시기 장차 도래하고	至若師期將啓
나라에 결정할 수 없는 의심스러운 일이 있으면	國疑罔決
제사를 마치자마자	盼饗纔畢
신과 합치되어	神與之協
길함과 흉함을	其吉與凶
점복을 통해 고해야 하네	兆告爾卜
실패하고 성공하는 것을	以敗以成
신령이 예측할 수 없는데	靈雖莫測
구멍을 뚫고 불태우니	以鑽以灼
슬프다, 나의 등껍질이어	哀我軀殼
종묘사직에 보관되기 보다는	與其藏於廟社
차라리 강호에서 자유롭게 사는 것이 낫고	孰若逸於江湖
죽어서 구멍 뚫리고 불태워지기 보다는	與其死而鑽灼

260 수놓은…입고 : 《장자(莊子)》〈열어구(列御寇)〉에서 “어떤 왕후(楚王)가 장자를 재상으로 초빙하였더니 장자는 그 사자에게 대꾸하여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태묘의 제사 때 희생으로 바쳐지는 소를 보았겠지. 수놓은 비단을 입히고, 꿀과 콩을 먹이다가 막상 제사 때 끌려가 태묘에 들어갈 때 미쳐서는 비록 어미 잃고 잘 못 먹는 송아지가 되고자 한들 그것이 가능하겠소?’라고 하였다.[或聘於莊子, 莊子應其使曰: 子見夫犧牛乎? 衣以文繡, 食以芻菽, 及其牽而入於太廟, 雖欲爲孤犢, 其可得乎?]

261 천구(天球) : 종묘(宗廟)의 보기(寶器)를 뜻한다. 《서경》〈고명(顧命)〉에 “대옥과 이옥, 천구와 하도가 동서에 있다.[大玉夷玉, 天球河圖, 在東序.]”라고 하였다.

살아서 진흙 바른 채 지내는 것이 낫네	孰若生而泥塗
게다가 진흙의 더러움은	何況泥之溷濁
나와 무슨 관련이 있으며	何與於我
몸에 바른 것 혼탁해도	塗之濁濁
나와 무슨 상관이 있던 말인가	何有於我
저것은 외면의 더러움이고	彼以外汚
나는 내면의 깨끗함을 지키니	吾以內潔
안이 깨끗하기 때문에 물들지 않고	內潔故不染
밖이 더럽기 때문에 쉽게 씻을 수 있네	外汚故易滌
꽃꽂한 나의 머리는	吾首之矯矯兮
더러움 만나도 굽히지 않고	觸溷濁而無屈
흔들거리는 나의 꼬리는	吾尾之曳曳兮
흔탁한 길 따라도 해가 되지 않네	遵濁濁而無傷
그렇다면 꼬리의 더러움은 씻어낼 수 있지만	然則尾之汚兮浴可滌
등껍질 뚫리면 어찌 살 수 있으리	殼之鑽兮安可活
진흙에 더럽혀져도 더러움 싫어하지 않으니	泥之汚兮汚不惡
꼬리를 끌고 다니며 끝없이 즐거워하네	尾之曳兮樂無極
저 묘당에 두고 아름다운 옷 입히고 깨끗한 음식 준다 해도	彼處廟服鮮而御潔兮
이 진흙 속에서 지내는 즐거움과 어찌 바꾸리	寧易此泥塗之樂哉
게다가 그대는 유독 듣지 못했는가	且子獨不聞乎
높이 올라가면 넘어지기 쉽고	高步易躓
맛이 진한 음식은 큰 독이 들어 있으며 ²⁶²	厚味腊毒

262 높이…있으며 : 《국어(國語)》〈주어 하(周語下)〉에 “높은 곳에 있으면 실로 빨리 넘어지고, 맛 좋은 음식은 실로 큰 독이 들어 있다.[高位寔疾顛, 厚味寔腊毒.]”라고 하였다.

신은 크게 명성이 난 사람을 미워하고 神憎名大
귀신은 화려한 집을 엿본다는 것을 鬼瞰室赫
신하로서 최고의 지위에 있다가 오형²⁶³이 갖추어진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位極人臣兮俱五刑
산동의 부모들처럼 오래 살아서 거친 밥 먹는 것²⁶⁴만 하라 何似山東父老生糲食
만종의 녹을 먹다가 오정에 삶겨져 죽는 것²⁶⁵이 祿食萬鍾而烹死五鼎
살아서 집에 거적문 드리우고 쌀겨나마 실컷 먹는 것만 하라 何似生垂席門鑿糠粃
그러므로 안씨는 도에 거의 가까웠으니 故顔氏之庶幾
가난한 골목에 살면서도 또한 즐거워했다네²⁶⁶ 하였네

	處陋巷而亦樂
말을 마치자	言訖
꼬리를 마구 흔들며 발을 옮겨 떠나가버렸네	奮尾擧足而逝
아아, 광간한 젊은이들이여 ²⁶⁷	噫小子之狂簡兮
이 거북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누구를 본받겠는가	微斯龜與誰爲則
《남화경》 ²⁶⁸ 에 있는 우언을 읊조리면서	誦寓言於南華
오늘날 세상에 나아갈지 숨을지를 짐치네	卜行藏於今日

거의 가까웠고, 양식이 자주 떨어졌다.[回其庶乎, 屢空.]”라고 하였다.

- 267 광간(狂簡)한 젊은이들이여 : 광간(狂簡)의 광은 뜻만 크고 행실이 뜻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간은 소략함을 말한다. 공자가 일찍이 진(陳)에 있을 때 이르기를 “돌아가려다, 돌아가려다. 우리 마을의 젊은이들이 뜻은 크나 일에는 소략하여 찬란하게 문장을 이루었지만, 그것을 재단할 줄을 모르는도다.[歸與! 歸與! 吾黨之小子狂簡, 斐然成章, 不知所以裁之.]”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論語 公冶長》
- 268 남화경(南華經) : 이 부분의 원문은 ‘남취(南萃)’이나 의미가 통하지 않는다. ‘취(萃)’는 ‘화(華)’의 오기인 듯하여, 고쳐서 번역하였다.

황룡부주²⁶⁹부

黃龍負舟賦

하늘의 건과 □□	天乾□□
바람을 타고 가는 일엽편주	飽風一葉
강신이 돛에 바람을 보내어	江神送颿
성군이 유유히 강을 건너가네	聖后攸涉
홀연 은빛 지붕 ²⁷⁰ 물결 속에서 생겨나더니	忽銀屋之中沸兮
경악스럽게도 황룡이 등에 배를 지고 있네	愕黃鱗之負鰐
뜨거운 천 개의 번개 바다를 불사르고	烘千電兮焚海
격렬한 만 개의 우레 산악을 허무네	激萬雷兮崩岳
순식간에 배가 침몰되려 하니	付顛沈於須臾
배에 탄 사람들 혼백을 빼앗기네	奪舟中之魂魄
성인은 얼굴색 변하지 않고 도마뱀처럼 보니	聖不變而蠅視

269 황룡부주(黃龍負舟) : 한나라 왕충의 《논형(論衡)》〈이허편(異虛篇)〉에서 “우 임금님이 남쪽으로 배를 타고 황하를 건너는데 황룡이 배를 등에 젖서 뒤집으려 하였다. 배에 탄 사람들이 두려워하거늘 우 임금님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나는 하늘로터 천명을 받아 힘을 다해 만민을 위로하고 있으니, 삶은 잠시 세상에 기탁하는 것이고 죽음은 저승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죽음은 돌아가는 것이니, 어찌 내 마음을 어지럽힐 수 있겠는가?’라고 하고 황룡 보기를 도마뱀처럼 하니, 황룡이 물러났다.[禹南濟於江, 有黃龍負舟. 舟中之人五色無主, 禹乃嘻笑而稱曰: 我受命於天, 竭力以勞萬民, 生, 寄也, 死, 歸也. 死, 歸也, 何足以滑和? 視龍猶蠅蜺也, 龍去而亡.]”라고 하였다.

270 은빛 지붕(殷屋) : 높은 파도를 형용한 말이다. 이백(李白)의 〈사마장군가(司馬將軍歌)〉에 “군대 도열하여 전쟁 연습하느라 호랑이 기 펼치고, 강중의 하얀 파도는 은빛 지붕 같네.[揚兵習戰張虎旗, 江中白浪如銀屋.]”라고 하였다.

용이 이에 감격하여 도망갔네	龍乃格而遁匿
팔 년 동안 발이 부르토록 돌아다니며	方其胼胝八載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업적을 쌓고	續父不續
세 번이나 잣난 아들 우는 집을 그냥 지나치며	三呱三過
나라를 위하느라 집안을 돌보지 않았네 ²⁷¹	不家於國
높고 낮은 산들 갈라놓아 큰물이 줄어들게 하고	開峯嶠而殺洑
굽이치는 산들 터서 홍수가 갈라져 흐르게 하였으며	疏嶠而分洪
험한 산들 뚫어서 급류가 아래로 흐르게 하고	鑿巖壁而下瀨
가파른 산들 깎아내어 격류가 쏟아져 내리게 하였네	刊嵬巖以走瀧
응룡을 얻어 산들을 갈랐고 ²⁷²	得應龍以劈峻
무지기를 진압하여 재앙을 막았으며 ²⁷³	鎮巫祈以杜孽

271 팔…않았네 : 순이 우임금을 등용하니 우임금이 가정과 일신을 돌아보지 않고 치수에 부지런했던 것을 말한다. 《맹자》〈등문공 상(滕文公上)〉에 “우가 구하를 소통하고 제수와 탐수를 소통하여 바다로 주입하였으며, 여수와 한수를 트고 회수와 사수를 배수하여 강으로 주입하니, 그런 뒤에 중국이 곡식을 먹을 수가 있었다. 이 때를 당하여 우가 8년 동안 밖에 있으면서 세 번이나 집의 문 앞을 지나면서도 들어가지 못하였다.[禹疏九河，濬濟漯而注諸海，決汝漢，排淮泗而注之江，然後中國可得而食也。當是時也，禹八年於外，三過其門，而不入。]”라고 하였고, 《사기》권87〈이사열전(李斯列傳)〉에 “우 임금이 용문을 뚫고 구하(九河)를 소통시킬 때 손발이 부르토고 얼굴이 누렇게 초췌하였다.[禹鑿龍門 疏九河，手足胼胝，面目黧黑。]”라고 하였다. 또 《서경》〈익직(益稷)〉에서 우 임금이 말하기를, “저는 도산씨에게 장가들어 겨우 신·임·계·갑의 4일만 지냈고, 아들 계(啓)가 고고히 울었으나 자식으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娶于塗山，辛壬癸甲，啓呱呱而泣，予不子。]”라고 하였다.

272 응룡(應龍)을…갈랐고 : 응룡은 날개가 있는 용을 가리킨다. 우가 홍수를 다스릴 때 응룡이 꼬리로 땅을 갈라서 강하를 만들어 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가게 하였다고 한다.

273 무지기(巫支祁)를…막았으며 : 무지기는 회수(淮水)의 물귀신으로,

모래 바람 부는 아득한 곳까지 교화가 미쳐서 ²⁷⁴	竟風沙之茫然
백성들 나무에서 내려와 오곡을 먹게 되었네	民下巢而火粒
운택에서 이미 흙이 나오고 몽택에서 밭을 갈 수 있었고 ²⁷⁵	雲既土而夢又
사방에 바다가 생기고 구주가 이루어져서	乃海四而州九
이에 강물이 쏟아져 내려 아래로 흘러가서	爰騰傾而赴勢
구불구불 만리까지 미치네	亘萬里之回互
밭두둑 만들고 ²⁷⁶ 평지 다스렸고	既略既夷

지기(支祁) 또는 지기(支奇), 무지기(無支奇)라고도 한다. 옛날 우(禹)) 임금이 홍수를 다스릴 때에 동백산(桐柏山)에서 회수(淮水)를 빙빙 돌게 하는 무지기를 잡아 회양(淮陽)의 귀산(龜山) 밑에다 가두어 두 었더니, 회수가 그제야 순탄하게 흘렀다 한다.《太平御覽 882 神鬼部2》

- 274 모래…미쳐서 : 모래 바람이 부는 곳은 사막으로 중국의 서역 지방을 가리킨다. 《서경(書經)》〈우공(禹貢)〉 말미에 “동쪽으로는 바다에 까지 다다랐고, 서쪽으로는 사막에까지 이르렀으며, 북쪽과 남쪽에도 모두 그 힘이 미쳐, 우(禹)의 명성과 교화가 온 세상에 퍼지게 되었다.[東漸于海, 西被于流沙, 朔南暨, 聲教訖于四海.]”라는 말이 나온다.
- 275 운택에서…있었고 : 《서경》〈우공(禹貢)〉에서 “강수와 한수가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구강이 매우 바르게 흐른다. 타와 잠이 이미 물길을 따르니 운택에서 흙이 나오고 몽택이 다스려졌네.[江漢朝宗于海, 九江孔殷. 沱潛既道, 雲土夢作乂.]”라고 하였다. 이에 대한 주에서 “운(雲)과 몽(夢)은 못의 이름이다.…《좌전(左傳)》에 ‘초자(楚子)가 강(江)을 건너 운택(雲澤) 가운데로 들어갔다.’ 하였고, 또 ‘초자(楚子)가 정백(鄭伯)을 데리고 강남(江南)의 몽택(夢澤)에서 사냥했다.’ 하였으니, 합하여 말하면 하나이고 나누어 말하면 두 못인 것이다. 운토(雲土)는 운택 지역은 흙만 보일 뿐이고 몽작예(夢作乂)는 몽택 지역은 이미 밭을 갈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이다.”라고 하였다.
- 276 밭두둑 만들고[既略] : 《서경》〈우공(禹貢)〉에서 “우이가 이미 경략되었다.[岬夷既略.]”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서 “략은 경략하여 두둑을 만들었다는 의미이다.[略, 經略, 爲之封畛也.]”라고 하였다.

공물은 땅에서 나는 것을 광주에 담아 바쳤으니	貢匪以土
땅은 희고 검고 붉고	壤白黑赤
밭은 상 중 하로 나뉘었네 ²⁷⁷	田上中下
이에 배가 팔방의 극지까지 항해하고	於是舟航八極
수레가 사방의 들에 내달려서	輪蠡四野
길이 있으면 곧 이르니	有行卽屆
어딘들 통하지 않는 곳이 있으랴	何往不通
마침내 맑은 날을 점치고 장풍을 살피서	遂乃卜晴晝候長風
긴 노 다스려 큰 강을 가로지르니	理高楫橫大江
파도 모두 가라앉아 물결 일지 않고	波盡伏濤不揚
벃사공이 노래하니 해동 ²⁷⁸ 이 숨네	榜人唱海童藏
양후와 하백 ²⁷⁹ 무리 달려와 어지럽게 뱃전에 부딪치고	陽侯河伯之屬奔走以軋輻兮
천지를 뒤덮었던 흙비 말끔히 개었으니	乾端坤倪兮霾暘晴
바야흐로 사방을 순행하기에 이로워	方利行乎四方
구름 같은 돛 높이 걸고 빠르게 나아가네	快雲帆之高張
갑자기 폭풍 거세게 일어나	倏戕風之暴起
거대한 파도 솟구쳐 오르니	致駭浪之蕩潏
강 중간에 이르러 건너지 못하고	迨中江而未濟

-
- 277 공물은…나뉘었네 : 《서경》〈우공(禹貢)〉에 자세한 내용이 보인다.
- 278 해동(海童) : 바다 속에 산다는 꼬마 신선을 가리킨다. 목화(木華)의 〈해부(海賦)〉에 “해동이 길을 차단하고 마함은 길을 막아섰네.[海童邀路, 馬銜當蹊.]”라고 하였다.
- 279 양후(陽侯)와 하백(河伯) : 양후는 수신(水神)의 이름으로 파도를 가리킨다. 원래 바다에 인접한 능양국(陵陽國)의 제후였는데, 물에 빠져 죽은 뒤에 큰 파도를 일으키는 수신이 되었다고 한다. 《楚辭 九章 涉江》 하백 또한 수신(水神)이다.

파도 기세 돛대 꺾고 노를 잃게 만드네	勢摧檣而墜楫
어찌하여 습지로 내몰고 남은 동물 ²⁸⁰ 이	夫何放菹之餘蟲
여기에서 멧대로 해독을 끼치는가	乃於焉而肆毒
몸은 누렇고 눈은 붉으며	黃其身兮赤其目
이빨 드러나 있고 뿔은 천 척이나 되네	露牙角之千尺
높은 파도를 가르며 꿈틀거리고	劈層瀾以躩踞
외로운 배 등에 지고 출몰하니	背孤舟而出沒
구만리 하늘에 바람과 구름 가득하고	風雲九萬
하늘 한 구멍에서 벽력이 치네	霹靂一穴
배 안에 성인이 있고	舟中聖人
파도 밑에 괴룡 ²⁸¹ 이 있으니	波底乖龍
저 누런 모자 쓰고 검은 머리한 사람들 ²⁸²	彼帽黃而戴黔
모두 마음 흔들리고 다리를 떨지만	盡膽掉而股慄

280 습지로…동물 : 용을 가리킨다. 《맹자》〈등문공 하(滕文公下)〉에서 “우로 하여금 홍수를 다스리게 하니, 우가 땅을 파서 물을 바다로 주 입시키시고 뱀과 용을 몰아내어 수초가 우거진 곳으로 추방하자, 물이 지중을 따라 행하게 되었으니, 강(江)·회(淮)·하(河)·한(漢)이 이것이다.[使禹治之, 禹掘地而注之海, 驅蛇龍而放之菹, 水由地中行, 江淮河漢, 是也.]”라고 하였다.

281 괴룡(乖龍) : 전설에 나오는 나쁜 용으로, 비를 내려주기를 싫어해서 온갖 방법으로 숨지만 결국 뇌신에게 붙잡히고 만다고 한다. 《古今事文類聚 前集 卷4 天道部 雷》

282 저…사람들 : 뱃사람들을 지칭한다. 노란 모자를 쓴 사람은 본디 한대(漢代)에 선박(船舶)을 관장하여 부리던 관리를 말한 것으로, 전하여 뱃사공을 가리킨다. 《사기(史記)》권125 〈영행열전(佞幸列傳)〉에 “등통이 배 부리는 일로 황두랑이 되었다.[鄧通以權船爲黃頭郎.]”라고 하였는데, 그 주석에 “흙이 물을 이기고 그 빛깔이 누렇기 때문에 배 젓는 낭관들이 모두 황모를 씌우므로 인하여 그들을 황두랑이라 호칭한다.[土勝水, 其色黃, 故刺船之郎皆着黃帽, 因號曰黃頭郎也.]”라고 하였다.

위대한 성인은 근심하는 게 없어서	然大聖之莫惻
발이 없는 벌레 보듯 하고 얼굴빛 변치 않네	視喘蜚而不色
하물며 삶은 잠시 깃드는 것이고 죽음은 돌아가는 것이니	況生寄而死歸
너 같은 동물을 무서워하라	肯爾蟲之惴怯
용이 말을 듣고 얼굴빛 살피고	龍聞言而觀色
위대한 우임금이 여기에 있음을 알고는	識大禹之在是
이에 덕 앞에 부끄럽고 위엄이 두려워서	爰赧德而怛威
머리 숙이고 꼬리 늘어뜨리고	乃俛首而低尾
홀연 사라져버렸으니	因忽不見
신인가, 귀신인가	神耶鬼耶
무엇 때문에 왔다가	何所爲而來
무엇을 보고 떠나갔는가	何所見而逝耶
홀연 왔다가 갑자기 가버리니	忽來倏往
신령하고 기괴하도다	靈怪矣哉
아아, 우임금은 하늘같고 용은 신같아	嗚呼禹如天龍如神
하늘이 신을 부리고 신은 하늘의 명을 따르니	天使神神聽天
우임금은 용을 부릴 수 있지만	禹可使龍
용이 어찌 우임을 업신여길 수 있으랴	龍豈禹侮
우임금은 용을 두렵게 만들 수 있지만	禹可懼龍
용이 어찌 우임금을 두렵게 만들 수 있으랴	龍豈禹懼
그렇다면 용은 우임금의 신성함에 복종하고 우임금의 덕에 감화되었 고	然則是龍也伏禹神薰禹德
우임금의 신령함을 두려워하고 우임금의 은택에 빠졌으며	聳禹靈淪禹澤
우임금의 변화막측함을 경외하고	畏禹變化

우임금의 헤아릴 수 없는 경지를 두려워한 것이네	忱禹不測
그러므로 내달려 나아가 경필하고 ²⁸³	故奔走以警蹕
뱃길을 보호하여 빙빙 주위를 돌면서	護木道以翱翔
망상을 꾸짖고 마함을 꾸중하고 ²⁸⁴	呵罔象兮喝馬衡
능어과 곤 ²⁸⁵ 을 질책하고 봉새와 고래를 내몰았네	叱鰐鯢兮逐鵬鯨
기꺼이 등에 배를 싣고서 복역하여	甘背負以服役
못 요물들 막아서 출현하지 못하게 하고	遏群妖而莫呈
장차 배를 몰아 나는 듯이 나아가서	將駕越而奮迅
노 젓는 뱃사공을 대신했네	替篙師之鴉戛
그러나 뱃사람들이 너를 두려워하여	然舟人之汝懼
성인이 사람들 때문에 즐거워하지 않으니	聖爲人而不悅
용이 우임금의 마음 알아차려 즉시 가버려서	龍體禹而卽逝
실로 나아가고 물러남을 오직 명에 따르네	諒進退之唯命
아아, 이 동물 지극히 신령하지만	噫乎茲蟲之至靈
이 사람의 지극한 성스러움만 하라	孰若斯人之至聖

이로써 용이 할 수 있는 것은 비를 내리고 적셔주는 일이고

283 경필(警蹕)하고 : 황제가 행차할 때에 통행을 금하여 길을 치우는 것을 말한다.

284 망상(罔象)을…꾸중하고 : 망상은 물속에 사는 괴물을 가리킨다. 대부분 《장자》〈달생(達生)〉에 “물속에는 망상(罔象)이라는 물귀신이 있다.”라고 하였다. 마함(馬衡)은 해신(海神)의 이름이다. 목화(木華)의 〈해부(海賦)〉에 “해동이 길을 차단하고 마함은 길을 막아섰네.[海童邀路, 馬衡當蹊.]”라고 하였는데, 이선(李善)의 주에 “마함은 말 머리처럼 생겼는데 뿔 하나 있어 용의 형상을 하고 있다.[馬衡, 其狀馬首, 一角而龍形.]”라고 하였다. 《文選》卷12》

285 능어(鰐魚)와 곤(鯢) : 능어는 바다에 사는 괴물이다. 사람의 얼굴에 몸은 물고기의 형상을 하고 있는데, 능어가 나타나면 폭풍이 일어난다고 한다. 곤(鯢)은 《장자(莊子)》에 나오는 거대한 물고기이다.

是知龍之所能者雨也澤也

할 수 없는 것은 물길을 트고 인도하는 일이며 而所不能者疏導
용이 잘하는 것은 우레 올리고 번개 치는 일이고 龍之所善者雷也電也
잘하지 못하는 것은 백성 건져주고 구제하는 일임을 알겠네

而所不善者拯濟

용이 없으면 한 시대가 가뭄이 들지만 無龍則旱一世
우임금이 없으면 만고토록 물에 빠져 지냈으리 無禹則溺萬古
용이 없으면 우사와 뇌공²⁸⁶이 오히려 음양을 다스릴 수 있지만

無龍則雨師雷公兮猶可理陰陽

우임금이 없으면 하늘이 하늘이 되지 못하고 땅이 땅이 되지 못하며
無禹則天不天地不地

사람이 사람이 되지 못하고 용이 용이 되지 못했으리

人不人而龍不龍

이것이 우임금이 용을 두렵게 만들 수 있었던 이유이고

此禹之所以爲龍懼

용이 우임금의 안색을 질리게 할 수 없고 우임금의 마음을 동요시킬
수 없었던 이유이네 而龍不能懼禹色而動禹中也

위대하도다, 강을 건너며 얼굴빛 변치 않은 일이며 偉濟江之不變
큰 산기슭에서 길을 잃지 않았던 일²⁸⁷과 나란하도다 與大麓之不迷
진실로 중을 잡을 수 있으리라는 가르침 서로 전하였으니²⁸⁸

286 우사(雨師)와 뇌공(雷公) : 우사는 비를 맡은 신이고, 뇌공은 우레를 맡은 신이다.

287 큰…일 : 《서경》〈순전(舜典)〉에서 “요(堯) 임금이 신하인 순(舜)에게 국정을 맡기기 전에 그를 시험하기 위해 큰 산기슭에 들여보냈는데 거센 바람과 우레를 동반한 비에도 정신이 혼미해지지 않았다.[納于大麓, 烈風雷雨弗迷.]”라고 하였다.

288 진실로…전하였으니 : 순(舜)이 우(禹)에게 제위(帝位)를 넘겨주면서

전성과 후성은 도가 하나라네 ²⁸⁹	允執厥而相傳 先後聖之一規
송축하기를	頌曰
“꿈틀거리는 황룡이여	蜿蜿黃龍
갈기가 하늘을 찌르도다	髻刺天兮
높고 높은 현성 ²⁹⁰ 이여	巍巍玄聖
덕이 하늘과 나란하도다	德齊天兮
용이 온 것도 성인이 그렇게 시킨 것이고	龍之來兮聖使然
용이 간 것도 성인이 그렇게 시킨 것이니	龍之逝兮聖使然
신이 아니면서 신과 같고	不神而神
하늘이 아니면서 하늘과 같네	非天而天
의론할 것이 없도다	無以議爲
우임금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물고기가 되었으리” 하였네	微禹吾魚

“인심은 위태롭고 도심은 은미하니 정밀하게 하고 한결같이 해야 진 실로 그 중을 잡을 것이다.[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 允執厥中.]”라는 가르침을 전한 것을 가리킨다. 《書經 大禹謨》

- 289 전성과…하나라네 : 땡자가, 순임금과 문왕(文王)을 논하면서 “살던 지역이 서로 천여 리나 떨어져 있고 살던 시대가 천여 년이나 차이가 나도 뜻을 얻어 중국에 시행한 것이 마치 부절(符節)을 합한 듯하다. 앞의 성인(聖人)과 뒤의 성인이 헤아려 봄에 그 도(道)가 똑같다.[地之相去也, 千有餘里, 世之相後也, 千有餘歲, 得志行乎中國, 若合符節. 先聖後聖, 其揆一也.]”라고 하였다. 《孟子 離婁下》
- 290 현성(玄聖) : 하늘[玄天]과 같은 덕을 지닌 우임금을 지칭하는 말이다.

염거유절족²⁹¹부

鹽車有絶足賦

하늘에 걸린 험한 산길에 돌들이 줄지어 있으니 鳥途懸霄兮石齒齒
원숭이는 기어오르지 못하고 사람은 오르길 겁내네

猿狖莫攀兮人上慄

검은 곰과 붉은 표범도 玄熊赤豹兮

발이 부르트고 숨을 헐떡이고 足繭而喉喘兮

지나가는 비와 구름도 산 중턱에서 근심하네 過雨行雲兮愁半腹

저 수레를 끄는 것 누구인가 수레에 소금을 실었으니

彼誰驅車兮車載鹽

채찍질해도 나아가지 않고 수레가 얹어지려 하네 鞭不前兮車欲覆

아, 너 천리마는 어찌하여 왔는가 嗟爾馬胡爲來哉

검은 털 누래졌으나 발은 빼어나네 玄雖黃兮足則絶

291 염거유절족 : 황정견(黃庭堅)의 〈송조자방복건노운판검간운사장증모(送曹子方福建路運判兼簡運使張仲謀)〉에 “소금 수레 아래에 천리마가 있네[鹽車之下有絶足]” 라는 시구가 있다. 이는 재주 있는 사람이 시대를 만나지 못함을 비유한 말로, 《전국책(戰國策)》〈초책(楚策)〉에 “늙은 천리마가 소금 수레를 끌고 태항산(太行山)을 오르는데, 발굽은 갈라지고 무릎은 꺾이고 꼬리는 해지고 가죽은 문드러져서 온몸에 땀을 쏟으며 산길에서 온 힘을 다하지만 올라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말을 잘 감정하는 백락(伯樂)이 이 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천리마를 어루만지며 통곡하고 옷을 벗어 걸쳐 주었습니다. 천리마가 이에 머리를 들고 슬프게 부르짖으니, 울음소리가 하늘을 찌르는데 마치 쇳소리와 같은 것은 어째서이겠습니까? 이는 백락이 자기를 알아주었기 때문입니다.” 라는 초(楚)나라 한명(汗明)의 말이 실려 있다.

세상에선 모두 살찐 것을 귀히 여기고 수척한 것 천시하니

世皆貴肥而賤瘦兮

누가 너의 비범함을 취하리오

嚙取爾之權奇

악와²⁹²에서 방성의 정기 잉태했으니²⁹³

孕房精於渥洼兮

일찍이 아버지는 용이었고 어머니는 교룡이었네

曾父龍而母螭

네 다리는 벽옥과 같고 두 귀는 비스듬히 자른 대나무 같으며²⁹⁴

四碧玉兮雙批竹

눈동자는 네모지고²⁹⁵ 새로 간 거울처럼 맑네

瞳生稜兮鏡新磨

기뻐할 적엔 까치가 날아오르는 듯하고 노여워할 적엔 사람이 서있는
듯하며²⁹⁶

喜鵲厲兮怒人立

292 악와 : 악와(渥洼)는 감숙성(甘肅省)에 있는 하천 이름인데, 한 무제(漢武帝) 때에 악와에서 신마(神馬)가 나왔다고 한다. 《史記 卷24 樂書》

293 방성의 정기 잉태했으니 : 명마가 태어났음을 뜻한다. 방성(房星)은 이십사숙(二十四宿)의 하나로 천마(天馬)를 상징하는데, 말이 방성의 정기를 받고 태어나면 명마가 된다고 한다. 《宋史 卷50 天文志三》

294 네…같으며 : 두보(杜甫)의 시에 호마(胡馬)를 형용하여 “머리 위 뾰족한 귀는 가을 대나무를 비스듬히 잘라 놓은 듯하고, 다리 아래 높은 굽은 견고한 옥돌을 깎아 놓은 듯하다.〔頭上銳耳批秋竹，腳下高蹄削寒玉。〕”라고 하였다. 《杜少陵詩集 卷6 李鄠縣丈人胡馬行》

295 눈동자는 네모지고 : 네모난 눈동자는 옛날에 장수할 관상이라고 여겨졌다. 왕가(王嘉)의 《拾遺記》 권3 〈주영왕(周靈王)〉에 “노담이 주나라 말기에 반경일실 산에서 세상과 격리된 채 지냈다. 황발의 노인 다섯 사람이 있었는데…눈동자가 모두 네모나고 얼굴빛은 옥처럼 깨끗했다.〔老聃在周之末，居反景日室之山，與世隔絕，有黃髮老叟五人…瞳子皆方，面色玉潔。〕” 하였다.

296 기뻐할…듯하며 : 유종원(柳宗元) 〈진문(晉問)〉에 “진나라에 말이 많으니…살펴보건대, 사방으로 흩어져 미친 듯 날뛰고 나뉘어졌다 합쳐졌다 온갖 형상을 연출하는데, 말이 즐거울 때 달리는 모습은 까치가 나래를 펴고 나는 듯하고, 성이 나 날뛰는 모습은 사람이 서로 발로 차면서 싸우는 듯합니다.〔晉國多馬…觀其四散恟忪，開合萬狀，

나나니의 꼬리에 기린의 몸통을 하였고 오색 빛 찬란하네

螺尾麟身兮斑五花

노년에 이르자²⁹⁷ 기북의 평야를 떠나서²⁹⁸

暨齒至兮辭冀野

높은 언덕을 황금대²⁹⁹라 여겼네

謂崇丘其黃金

어찌하여 천한³⁰⁰에 오르지 않고

胡不登乎天閑兮

도리어 장사꾼에게 찾아갔는가

反賈豎焉相尋

장사꾼이 이에 너를 끌고가 참마로 삼으니

賈乃牽爾而爲驂兮

끄는 수레는 거름 수레³⁰¹가 아니면 소금 수레라네

其車也不糞則鹽

장사꾼이 이미 너를 경시하고 이익을 중시하니

賈既輕爾而重利兮

동쪽으로 북쪽으로 갔다가 갑자기 또 서쪽으로 남쪽으로 가네

之東北忽又西南

짐을 실을 적에 몇 말이나 쌓고

其載也積至斗

수레를 몰 적에 채찍질하고 또 매질하네

其驅也鞭又策

喜者鵠厲, 怒者人搏, 決然坌躍, 千里相角.]” 하였다.

297 노년에 이르자 : 원문은 ‘暨齒至’인데, 삼간본에 근거하여 ‘暨’를 ‘暨’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이 구절은 《전국책》〈초책(楚策)〉의 “대저 늙은 준마가 소금 수레를 끌고 태항산을 올라간다.[夫驥之齒至矣, 服鹽車而上太行]”는 구절을 원용하였다.

298 기북의 평야를 떠나서 : ‘기북(冀北)’은 준마(駿馬)가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다. 한유(韓愈)의 〈송온처사부하양군서(送溫處士赴河陽軍序)〉에 “백락이 기북의 들판을 한번 지나가자, 말떼가 마침내 텅 비게 되었다.[伯樂一過冀北之野, 而馬群遂空.]” 하였다.

299 황금대 : 연 소왕(燕昭王)이 대(臺)를 지어서 그 위에 천금(千金)을 쌓아 놓고 천하의 어진 선비를 초빙하였다는 곳이다. 《戰國策 卷29 燕策1》

300 천한 : 황제(皇帝)가 타는 말을 기르는 곳을 가리킨다.

301 거름수레 : 장형(張衡)의 〈동경부(東京賦)〉에 “준마를 멈추게 하여 거름 수레를 끌게 하니, 요노와 비토가 얼마나 안타까운가.[卻走馬以糞車, 何惜騾襄與飛兔.]” 하였다. 요노와 비토는 모두 매우 빨리 달리는 준마이다.

피부는 마르고 털은 어둡고 까마귀가 상처를 쪼며 ³⁰²	皮乾毛暗兮烏啄瘡
삼산골 ³⁰³ 이 다 드러나고 네 발굽은 해졌네	三山露骨兮四蹄落
지친 두 귀는 소처럼 늘어지고	憊兩耳兮牛垂
몰아쉬는 숨은 물고기가 토해내는 물거품 같네	脅一息兮魚沫
오나라의 소금에 촉나라의 길이니 ³⁰⁴	吳之鹽兮蜀之途
갈 때도 몹시 더디고 올 때도 빠르지 않네	去苦遲兮來不速
배불리 먹지도 못하고 힘도 부족하니 ³⁰⁵	食不飽兮力不贍
한 걸음 옮기고서 서너 걸음 넘어지네	移一步兮三四蹶
귀신을 놀래키듯 소리치고 천둥치듯 채찍질을 해도	叱驚鬼兮鞭劈雷
움츠리고 나아가지 못하고서 땀만 뻘뻘 흘리네	跼不前兮汗滴滴
어찌하여 예전의 용의 후손이	何昔日之龍孫
도리어 다리를 저는 나귀보다도 못하게 되었는가	反蹇驢之不若
슬프도다, 때와 운명이 서로 맞지 않아	哀時命不相謀兮
네모진 눈동자에 눈물 맺혀 우는 듯하구나	涕方瞳兮如泣
내가 수레를 만류하고 길을 막고서	余乃攀轅而遮道兮
준마를 위해 한 번 곡을 하네	爲駿骨而一哭

302 까마귀가 상처를 쪼며 : 두보(杜甫)의 〈수마행(瘦馬行)〉에 “추운 날씨에 멀리 내쳐져 기러기와 짝이 되고, 해 저물어도 거두지 않아 까마귀가 상처를 쪼네.[天寒遠放雁爲伴, 日暮不收烏啄瘡.]”하였다.

303 삼산골 : 말(馬)의 허구리쪽 넓적다리가 시작되는 부분에 있는 뼈를 가리킨다.

304 오나라의…길이니 : 수레에 실은 소금이 매우 많고 가는 길이 험난하다는 뜻이다. 오(吳)나라 땅에서 생산되는 소금이 가장 희고 깨끗하였으므로 최상품의 소금을 오염(吳鹽)이라고 일컬었다. 촉나라 길은 한중(漢中)에서 촉(蜀) 지방으로 통하는 험준한 잔도(棧道)로, 이 백(李白)의 〈촉도난(蜀道難)〉시로 유명하다.

305 부족하니 : 원문은 ‘不贍’인데, 삼간본에 근거하여 ‘贍’을 ‘瞻’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너 말이 어찌하여 와서	爾馬也胡爲來哉
아, 이처럼 극한 상황에 이르렀는가	吁嗟乎至於此極
슬픈 것도 명ियो 슬프지 않은 것도 명ियो	哀之命不哀亦命兮
만나는 것은 때이니 시운(時運)은 기필할 수 없도다	遇也時時不可必
아,	嗚呼
만난 것으로 말하자면	自其遇者而言之
죽은 말의 뼈를 살 적에 오히려 오백금을 주었네 ³⁰⁶	則買死骨金且五百
만나지 못한 것으로 말하자면	自其不遇者而言之
천리마를 물리치고 날마다 백리를 갔네 ³⁰⁷	則却千里日行百里
때를 얻은 것으로서 말하자면	自其時者而言
노둔한 말도 오히려 비단을 입고	則駑駘尙蒙錦繡
때를 얻지 못한 것으로서 말하자면	自其不時者而言
기린도 교외에서 잡히네 ³⁰⁸	則麒麟亦獲於郊藪

306 죽은…주었네 : 연 소왕(燕昭王)이 곽외(郭隗)에게 어진 이를 천거할 것을 청하자, 곽외가 “옛날 어떤 왕이 천금(千金)을 가지고 천리마를 사려고 하였으나 구하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환관을 시켜 천리마를 구하긴 했으나 말은 이미 죽은 뒤였습니다. 환관이 죽은 말의 뼈를 오백금(五百金)을 주고 사왔더니 이 소문을 듣고 1년이 못 되어 천리마가 세 마리나 이르렀다 합니다. 만일 왕께서 진정 어진 사람을 구하신다면 저부터 먼저 쓰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저보다 훌륭한 사람이 곧 올 것입니다.”하였다. 소왕이 이에 수긍하여, 황금대를 지어 곽외를 스승으로 섬기고 악의(樂毅) 등 명장을 중용했다. 《戰國策 卷 29 燕策1》

307 천리마를…갔네 : 송옥(宋玉)의 〈구변(九辯)〉에 “천리마를 물리치고 타지 아니하고, 둔마를 채찍질하며 길을 나섰네.〔却騏驎而不乘兮，策駑駘而取路。〕” 하였다. 이는 어진 인재를 버리고 용렬한 이를 가까이 함을 비유한 말이다.

308 기린도 교외에서 잡히네 : 노 애공(魯哀公) 14년 봄에 사냥에서 기린이 잡히자, 공자가 성왕(聖王)도 없는 세상에 상서로운 기린이 나오니 주(周)나라 도가 일어나지 못하고 아름다운 상서도 응험이 없음

대개 옛부터 그러했으니	蓋自古而猶然
진실로 때를 만나는 것은 우연이 아니네	固遇時之非偶
이에 노나라에서 분양을 분별하지 못했다면	是知魯殯未辦兮
초상집 개처럼 여겨졌을 것이고 ³⁰⁹	等看喪家狗
주나라에서 곰에 대한 점을 치지 않았다면	周熊未卜兮
단지 한 명의 소백정이었을 것 ³¹⁰ 임을 알겠네	只一屠牛坦
당세에 매가 날고 봉황이 노래한 뒤에야 ³¹¹	逮鷹揚鳳歌於當世

을 한탄하여 ‘서수획린(西狩獲麟)’이라는 구절로 《춘추》를 종결하였다.

- 309 노나라에서…것이고 : 공자가 분양(殯羊)를 분별한 고사와 춘추 시대 정(鄭)나라 사람이 뜻을 얻지 못하고 방황하는 공자를 초상집 개에 비유한 고사를 인용한 것이다. 노나라 계환자가 우물을 파다가 질장군 같은 것을 얻었는데, 그 속에 양이 있었다. 이것에 대해 공자에게 물어보게 하면서 “내가 우물을 파다가 개를 얻었으니, 이게 무엇입니까?〔吾穿井而獲狗，何也〕”라고 하자, 공자가 답하기를 “내가 들어본 바로는 양입니다. 내가 들으니…땅속의 괴물을 분양이라고 합니다.〔以丘之所聞，羊也。丘聞之…土之怪曰殯羊。〕” 하였다. 《國語 卷5 魯語下》또, 공자가 정(鄭)나라에 갔을 적에 제자들과 떨어져 동문(東門)에 홀로 서있자, 정나라 사람이 공자의 모습이 얻어먹지 못한 초상집 개와 같다고 하였다. 《史記 卷17 孔子世家》
- 310 주나라에서…것 : 강태공은 젊은 시절에 가난하여 음료를 팔기도 하고 소를 잡아 고기를 팔아 생계를 꾸렸다고 한다. 《古今事文類聚 別集 卷29 賣漿天涼》 훗날 주(周)나라 문왕(文王) 사냥을 떠나려고 점을 치자, 그 복사(卜辭)에 “용도 아니고, 이무기도 아니며, 곰도 아니고, 말곰도 아니고, 범도 아니고, 비휴도 아니다. 얻을 것은 패왕의 보좌로다.〔非龍非虺，非熊非羆，非虎非貔，所獲霸王之輔。〕”라고 나왔는데, 그날 사냥을 나가서 과연 위수(渭水) 북쪽에서 낚시질을 하고 있던 강태공을 얻어 재상으로 삼았다. 《史記 卷32 齊太公世家》
- 311 매가…뒤에야 : 태평성대가 도래하여 훌륭한 인재가 쓰임을 뜻한다. 매가 난다는 것은 강태공의 고사에서 온 말로 《시경》〈대아(大雅) 대명(大明)〉에 “이때 태사(太師) 상보(尙父)가 마치 매가 날 듯하여, 저 무왕 도와서 상나라를 정벌하니, 회전(會戰)한 그날 아침 청명했도

추풍과 멸영 ³¹² 이 절름발이 나귀나 이마가 병든 망아지 ³¹³ 와 현격이 다	
르다는 것을 아네	而後方識追風滅影之與跛驢病類而懸遠
아, 무지한 소금 장수여	噫蚩蚩之鹽豎
어찌 네가 준마임을 알겠는가	豈知爾之爲駿
짧은 노래를 부르기를	小歌曰
“세상에 백락이 있으면	世有伯樂兮
준마가 하늘의 큰길에 오르고	駿昇天衢
세상에 백락이 없으면	世無伯樂兮
준마가 소금 수레에서 곤욕을 겪으니	駿困鹽車
이러한 말이 없는 것이 아니라	不是無是馬
단지 이러한 사람이 없는 것이네	只是無是人
참으로 이런 말이 없는 것인가	其眞無是馬耶
참으로 이런 사람이 없는 것인가	其眞無是人耶
사람이여, 말이여	人兮馬兮
천명을 어찌하겠는가” 하였네	奈何乎天

다.〔維師尙父，時維鷹揚，涼彼武王，肆伐大商，會朝清明.〕” 하였다. 상보는 바로 강태공을 가리킨다. 봉황이 노래한다는 것은 《시경》〈권아(卷阿)〉에 “봉황이 우니, 저 높은 뒀에서 울도다.〔鳳凰鳴矣，于彼高岡.〕”라고 한 데서 온 말로, 태평성세를 의미한다.

- 312 추풍과 멸영 : 추풍(追風)은 진 시황(秦始皇)의 일곱 명마(名馬) 가운데 하나이다. 멸영(滅影)은 주(周)나라 목왕(穆王)이 천하를 주유하면 초영(超永)
- 313 이마가 병든 망아지 : 유종원이 우계(愚溪)를 거닐고 있을 때 그 지방의 늙은이와 젊은이가 앞으로 와서 “우리 고을에 폐기되었다가 일어난 예가 둘 있으니 힘내라.”는 요지의 말을 하며 위로하였다. 유종원이 누구냐고 묻자 그들이 “동사의 벽부도와 마구간의 이마가 병든 말〔東祠壁浮圖，中廡病類之駒.〕”이라고 대답하였다. 《柳河東集 卷15 起廢答》

노래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歌未竟
갑자기 바람 불고 구름이 일며 또 벼락이 치니	忽風雲兮又霹靂
용마가 하늘로 갔네	馬龍逝乎玄間
내가 비로소 준마가 변화하여	余始知神駿之變化兮
끝내 소금 수레를 쓰는 말이 되지 않음을 알았네	終不爲鹽車中物
저 성현을 질투하는 세상 사람들은	彼媚聖嫉賢之世人兮
또 어찌 소금 장수가 아연실색한 것과 다르겠는가	又何異鹽夫之失色

작소부

鵲巢賦

숲이 무성하여 나뭇가지가 아래로 늘어지고	有樹蓊鬱兮枝杻樛
누런 취과 여라가 열기설기 얽혀있네	黃葛女蘿兮縷絡之
위로는 기회를 넘보는 매가 없고 ³¹⁴	上乏鷹鷂之覬覦兮
아래로는 턱을 벌리고 욕심내는 뱀이 없네 ³¹⁵	下絕蛇虺之朵頤
높은 나뭇가지 우거진 곳을 골라 사니	擇高枝之扶疏
까치가 둥지를 튼 것 괴이하도다	怪維鵲之有巢
장인도 오히려 집 짓는 데 서툰데	人匠尙拙於經營
너 새는 어떻게 집을 만들었는가	爾禽也何以家爲
예전에 네가 와서 집터를 잡을 적에 ³¹⁶	昔爾之聿來胥宇
애쓰고 부지런히 일하느라 얼마나 수고로웠던가	幾勞殷斯而勤斯
수컷이 말하기를, “아, 암컷이여	雄曰嗟爾雌兮

314 위로는…없고 : 매는 흉악한 사람을 비유한다. 유향(劉向)의 《설원(說苑)》〈경신(敬慎)〉에서 성회(成回)가 “저는 들으니 길을 가는 사람은 새와 같아서, 위로는 사나운 솔개와 새매가 두렵고, 아래로는 그물이 두렵습니다.[臣聞之, 行者比於鳥, 上畏鷹鷂, 下畏網羅.]”라고 하였다.

315 아래로는…없네 : 원문의 ‘사궤(蛇虺)’는 흉악한 사람을 비유하는 말이다. 턱을 벌린다는 것은 《주역》〈이괘(頤卦)〉 초구(初九) 효사에 “그대의 신령스러운 거북을 버리고 나를 보고서 턱을 벌리니 흉하다.[舍爾靈龜, 觀我, 朵頤, 凶.]”라고 한 데서 온 말로, 욕심을 내는 것을 뜻한다.

316 네가…적에 : 《시경》〈대아(大雅) 면(綿)〉에 “고공단보가 아침에 말을 달려와서 서쪽 물가를 따라 기산 아래에 이르니, 이에 강씨 부인과 함께 와서 집터를 보아 잡았도다.[古公亶父, 來朝走馬, 率西水滸, 至于岐下, 爰及姜女, 聿來胥宇.]” 하였다.

나는 보금자리를 구하는 데 급하니	我是急於求棲
이미 짹짹 울며 언덕에 앉고 ³¹⁷	既綿蠻而止隅
또 들쭉날쭉 날개짓하며 진흙을 물었네	又差池而含泥
지렁이는 독에 살면서 정신이 왕성하고	蚓處埵而神王
토끼는 굴을 파서 기미를 환히 아네 ³¹⁸	免營窟而炳幾
내가 아직 집이 없으니	曰余未有室家
홀로 나무를 세 바퀴나 돌았으나 의지할 곳 없네 ³¹⁹ 하니	獨繞樹三匝兮無依

암컷이 말하기를 “아, 수컷이여	雌曰嗟爾雄兮
어찌 보금자리를 구하여 귀의하지 않는가	盍求棲而依歸
저 꿈틀대는 미미한 새들도	彼蠢蠢之微禽
모두 둥지가 있어 알을 낳아 기르니	學有巢而卵育
어찌 뼈꾸기 암컷에게서 졸렬함을 본받아	寧效拙於鳩婦
한데에서 먹고 자도록 내버려 두리오? ³²⁰ 하였네	任風飧而露宿

-
- 317 짹짹…앉고 : 《시경》〈소아(小雅) 면만(綿蠻)〉에 “피꿀피꿀 우는 피꼬리여, 저 언덕에 앉아 있네.[綿蠻黃鳥, 止于丘隅.]”하였다.
- 318 토끼는…아네 : 교토삼굴(狡兔三窟)의 고사를 말한다. 토끼는 뜻밖의 환난을 피하기 위하여 항상 세 개의 탈출구를 미리 파 놓는다고 하는 데, 《전국책(戰國策)》〈제책(齊策)〉에 “피많은 토끼는 세 개의 굴을 파 놓고서 죽음을 면할 방법을 강구한다.[狡兔有三窟, 僅得免其死耳.]”라고 하였다.
- 319 나무를…없네 : 의탁할 곳이 없음을 비유한 말이다. 조조(曹操)의 〈단가행(短歌行)〉에 “달이 밝아 별이 드문데, 까막까지 남으로 날아 간다. 나무를 세 바퀴나 돌았지만, 어느 가지에 의지하겠나.[月明星稀, 烏鵲南飛, 繞樹三匝, 何枝可依.]” 하였다. 《藝文類聚 卷42 樂部》
- 320 어찌…겠는가 : 비둘기는 성질이 졸(拙)하여 둥지를 잘 만들지 못하고 간혹 까치가 만든 둥지에 산다고 한다. 《시경》〈소남(召南) 작소(鵲巢)〉에 “까치가 지은 집에 비둘기가 들어가서 사네.[維鵲有巢, 維鳩居之.]”라고 하였다.

수컷이 선창하자 암컷이 화답하여	雄爰唱兮雌和
이 나무에 집터를 잡고 터를 닦았네	卜茲樹而開基
마침내 수컷이 날아오자 암컷이 모이고	遂乃雄飛雌集
수컷이 날아가자 암컷이 따라가네	雌去雄隨
부리로 쪼고 발로 밟으며	既啄既踏
부리로 머금고 발로 끌고 오네	喙含足提
왔다가 또 가서	來而又去
하나 둘 가지를 물어오고	一枝二枝
아침이 되었다 또 저녁이 되어	朝而又暮
하루 이틀 지나갔네	一日二日
수컷이 말하기를, “어디로 가는가?	雄曰何之
남산에 가지가 늘어진 나무가 있도다.”하니 ³²¹	南有樛木
암컷이 말하기를, “어디로 가는가?	雌曰何之
저 북쪽 숲 울창하도다.” 하였네 ³²²	鬱彼北林
어찌하여 갈대를 취하지 않으리오 ³²³	何荼不掇
가지가 있으면 모두 물어왔네	有枝皆含
언덕과 습지에서 빙빙 돌며 날고	踟躕兮原隰
무성한 수풀에서 가다 서다 하네	行于兮叢薄

321 수컷이…하니 : 《시경(詩經)》〈주남(周南) 구목(樛木)〉에 “남산에 가지가 늘어진 나무가 있어 침딩굴이 감겨 있네. 마음씨 좋은 군자여 복록으로 편안히 하네.[南有樛木, 葛藟荒之. 樂只君子, 福履綏之.]”라고 하였다.

322 암컷이…하였네 : 《시경(詩經)》〈진풍(秦風) 신평(晨風)〉에 “획획 나는 저 신평이여, 울창한 북쪽 숲에 있도다.[馭彼晨風, 鬱彼北林.]” 하였다.

323 어찌하여…않으리오 : 《시경(詩經)》〈빈풍(邠風) 치효(鴟鵂)〉에 “내 두 손을 바삐 놀려, 내 갈대 가져오고, 내 쌓아 놓았노라.[予手拮据, 予所掇荼, 予所蕃租.]” 하였는데, 주희의 주석에서 “도는 환초이니, 둥지에 갈 수 있는 것이다.[荼, 萑苕, 可藉巢者也.]” 하였다.

손에 굳은살 박히고 입이 헐도록	手胝兮口瘡
위에서 틀을 잡고 아래서 연결하네	上構兮下結
해가 뜨면 짹짹 울며	日出嗷嗷
비바람에 나부껴 흔들릴까 걱정하고 ³²⁴	念風雨之飄撓
해가 지면 서로 짝지어 날면서 ³²⁵	日入彊彊
뽕나무 뿌리가 넉넉하지 못할까 근심하네 ³²⁶	悶桑杜之未饒
대들보 위에 떡을 던지자 ³²⁷ 이미 등지 견고하고	拋梁上兮既鞏
창문을 열자 남쪽으로 통하네	開戶牖兮南通
하늘에 구름이 끼기 전에	迨皇天之未陰
문을 칭칭감자 공사가 끝났네	乃綢繆而訖功
훌륭하도다, 공경하는 듯한 모양새 화살이 나는 듯한 모서리 ³²⁸ 여	

-
- 324 비바람에…걱정하고 : 《시경》〈빈풍 치효〉에 “비바람이 뒤흔드는지라 내 울부짖는 소리를 급히 하노라.[風雨所漂搖, 予維音嘒嘒..]” 하였다.
- 325 서로 짝지어 날면서 : 원문의 ‘彊彊’은 짝지어 서로 따르는 모양이다. 《시경》〈용풍(鄘風) 순분(鶉奔)〉에 “메추리는 서로 짝을 지어 다정하게 날고 까치도 서로 짝을 지어 다정하게 나는구나.[鶉之奔奔, 鵲之彊彊.]” 하였다.
- 326 뽕나무…근심하네 : 뽕나무 뿌리를 얹어서 비상시에 대처하기 못할까 근심한다는 말이다. 《시경》〈빈풍 치효〉에 “하늘에 구름이 끼어 비가 내리기 전에 저 뽕나무 뿌리를 주어다가 문을 칭칭 감는다면, 이제 너희 땅에 사는 인간들이 혹시라도 감히 나를 업신여기랴.[迨天之未陰雨, 徹彼桑土, 綢繆爽戶, 今女下民, 或敢侮予?]” 하였다.
- 327 대들보…던지자 : 집을 지을 때 반드시 길일(吉日)을 택하여 상량식을 하는데, 이때 친지들이 떡이나 기타 잡물(雜物)을 싸 가지고 와서 축하하면서 이것을 장인(匠人)들에게 먹인다. 그러면 장인의 우두머리가 떡을 대들보에 던지면서 상량문을 읽고 축복을 한다. 《文體明辯附錄 卷13 上梁文》
- 328 공경하는…모서리 : 건축물의 장엄함을 묘사하는 말이다. 《시경》〈소아(小雅) 사간(斯干)〉에 “건물 지음새는 사람이 몸을 곧추세워 공경하듯, 모

	偉斯翼而斯棘
참으로 비바람을 제거하고 새와 쥐를 제거했네 ³²⁹	信攸除而攸去
이에 수컷이 말하기를, “암컷이여,	於是雄曰雌乎
이 집에 들어와 거처할지어다.”하니	入此室處
암컷이 말하기를, “수컷이여,	雌曰雄乎
그대와 함께 꿈을 꾸리라.”하였네	與子同夢
이에 편안히 거처하는 것은	爰居爰處
이 들보와 마룻대에 의지하고	賴此梁棟
이윽고 날개를 다듬고 세우는 것은	乃刷乃翹
이 처마 ³³⁰ 와 기둥에 의지하네	依此簷楹
알을 낳자 새끼가 꺾질을 깨고 나오고	卵而啄菹
먹어서 기르자 새끼가 빙빙 날며 노래하네	乳哺翔鳴
마침내 서로 축하하며 말하기를	遂相與賀曰
“낮은 가지에 집 지으니	卑枝成屋
적을 피한 두공부와 다르고	異工部之避賊
나무를 엮어 둥지를 만드니	構木爲巢
유소씨의 낙토 ³³¹ 인 듯하네	如有巢之樂國

서리는 화살이 곧게 날아가듯, 추녀는 새가 놀라 기색이 변하듯, 처마는
 꿩이 날아가는 듯하네. [如跂斯翼, 如矢斯棘. 如鳥斯革, 如翬斯飛.] 하였
 다.

329 비바람을…제거했네 : 새집을 지은 기쁨을 노래한 것이다. 《시경》
 〈소아 사간〉에 “비바람을 제거하며 새와 쥐를 제거하였으니 군자가
 존대히 계실 곳으로다. [風雨攸除, 鳥鼠攸去, 君子攸芋.]” 하였다.

330 처마 : 원문은 ‘簷’인데, 문맥에 근거하여 ‘簷’을 ‘簷’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331 유소씨의 낙토 : 유소씨(有巢氏)는 집 짓는 법을 처음 가르친 상고 시
 대 사람이다. 《한비자(韓非子)》〈오두(五蠹)〉에 “상고 시대에는 사람
 들이 적고 금수는 많아서, 사람들이 금수와 충사의 피해를 감당하지

낮으나 머리가 부딪히지 않으니	低不打頭
이에 좋은 거처로 삼기에 충분하고	於斯焉足以令居
넓이는 무릎을 들여놓을 만하니	廣可容膝
나에게 또한 깊고 넓도다	於我乎亦云渠渠
하루도 안 되어 완성되었으니	不日成之
누가 나에게 집이 없다 하겠는가	誰謂予無家
날개깃 이미 자랐으니	羽翼已成
누가 네게 자식이 없다고 하겠는가”하였네	誰謂爾無子
마침내 축하가 끝나자 새끼에게 경계하며 말하기를	遂賀畢而戒其子曰
“지금 둥지를 지으니	今此作巢
내가 창시한 것이로다	余所創始
둥지를 엮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構之非難
창시하는 것이 어렵고	創之惟難
창시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創之非難
지키는 것이 어렵네	守之惟難
힘써 아버지의 사업을 계승하여 ³³²	勛哉肯構

못했다. 이에 성인이 나와 나무를 엮어 둥지를 만들어서 피해를 면하게 하니, 사람들이 기뻐하며 그를 천하에 왕이 되게 하고는 유소씨라고 불렀다.[上古之世 人民少而禽獸衆 人民不勝禽獸蟲蛇 有聖人作 構木爲巢以避群害 而民悅之 使王天下 號曰有巢氏]”라는 말이 나온다.

- 332 힘써…계승하여 : 원문의 ‘肯構’는 ‘肯堂肯構’의 준말로, 아버지의 사업을 아들이 잘 계승함을 비유하는 말이다. 《서경(書經)》〈주서(周書) 대고(大誥)〉에 “아버지가 집을 짓기 위하여 집 짓는 법까지 마련해 두었는데, 그 자식이 당의 터도 만들려 하지 않으니 하물며 집을 지어 올리려 하겠는가.[若考作室, 既底法, 厥子乃弗肯堂, 矧肯構.]” 하였다.

너를 낳아준 부모를 욕되게 하지 말라 ³³³	無忝爾生
눈과 비를 피하는 곳이니	雨雪攸避
내가 경영한 것을 생각하고	念我經營
자식 낳아 기르기에 편만한 곳이니	卵育所安
내 노고를 생각하라	念我勞苦
네가 지키기를 삼가지 않으면	不慎爾守
올빼미가 이곳에 살 것이고 ³³⁴	鴟鵂是保
네가 지키기를 주밀하게 하지 않으면	不密爾守
비둘기가 이곳을 빼앗을 것이로다 ³³⁵	維鳩是奪
근심하고 근심할지어다	念哉念哉
안일에 빠져 몸을 망치는 것을 ³³⁶ 하였네	宴安鴆毒
내가 듣고서 감동하여	余乃聞而感之
잠을 지어 허리띠에 적노라 ³³⁷	作箴而書諸紳

- 333 너를…말라 : 《시경》〈소아(小雅) 소완(小宛)〉에 “일찍 자리에서 일어나고 밤늦게 잠자리에 들며 노력하여 너를 낳아 준 부모를 욕되게 하지 말라.[夙興寐寐, 毋忝爾所生.]” 하였다.
- 334 올빼미가…것이고 : 올빼미가 다른 새의 새끼를 잡아먹고 동지를 빼앗아 자기 새끼를 기른다고 한다. 《시경》〈빈풍 치효〉에 “올빼미야, 올빼미야, 이미 내 자식 잡아먹었거니, 내 집까지 헐지 말지어다.[鴟鵂鴟鵂, 既取我子, 無毀我室.]” 하였다.
- 335 비둘기가…것이로다 : 비둘기는 성질이 졸(拙)하여 동지를 잘 만들지 못하고 간혹 까치가 만든 둥지에 산다고 한다. 《시경》〈소남 작소〉에 “까치가 지은 집에 비둘기가 들어가서 사네.[維鵲有巢, 維鳩居之.]”라고 하였다.
- 336 안일에…것을 : 《춘추좌씨전》에 “안일에 빠지는 것은 짐독과 같은 것이니, 생각해서는 안 된다.[宴安鴆毒, 不可懷也.]”라는 관경중(管敬仲)의 말이 보인다. 《春秋左氏傳 閔公元年》
- 337 허리띠에 적노라 : 말을 깊이 새겨서 잊지 않는다는 뜻이다. 《논어》〈위령공(衛靈公)〉에 “자장(子張)이 공자의 말을 띠에 썼다.[子張書諸紳]”라는 구절이 있다.

잠에 이르기를	其箴曰
“사람의 경우에는 임금ियो	人則君
새의 경우에는 까치라	鳥則鵲
작은 것으로 말하면 둥지요	小則巢
큰 것으로 말하면 나라로다.”하였네	大則國

임하탄³³⁸부

臨河歎賦

나를 알아주는 이 없으니	莫我知
나를 알아주는 것은 하늘이로다 ³³⁹	知我者天兮
어찌하여 할 수 없는데도 하려는가 ³⁴⁰	夫豈不可爲而爲之

338 임하탄 : 공자가 조간자를 만나러 갈 적에 진(晉)나라의 현신(賢臣) 두명독과 순화가 살해되었음을 듣고 강을 건너지 않고 탄식한 일이 있다. 《사기(史記)》 권47 〈공자세가(孔子世家)〉에 “공자가 이미 위나라에서 등용되지 못하고 장차 서쪽으로 가서 조간자를 만나려 했다. 하수에 이르러 두명독과 순화가 죽었음을 듣고 하수에 임하여 탄식하며 말하기를, ‘아름답도다, 넘실대는 물결이여. 내가 건너지 않으니 이는 명이로다.’ 하였다.〔孔子既不得用於衛，將西見趙簡子。至於河而聞竇鳴犢舜華之死也。臨河而嘆曰，‘美哉，水洋洋乎。丘之不濟，此命矣夫。’〕”라는 내용이 있다.

339 나를…하늘이로다 : 《논어》〈헌문(憲問)〉에 “자공이 말하였다. ‘어찌하여 선생님을 알아주는 이가 없는 것입니까?’ 하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원망하지 않으며 남을 탓하지 않고, 아래로는 배우면서 위로는 통달하나니, 나를 알아주는 것은 하늘일 것이다.〔子貢曰，‘何爲其莫知子也？’子曰，‘不怨天，不尤人，下學而上達，知我者，其天乎。’〕”라고 하였다.

340 어찌하여…하려는가 : 《논어》〈헌문〉에 “자로가 석문에서 유숙했었는데, 신문이 묻기를 ‘어디에서 왔는가?’ 하자, 자로가 ‘공씨에게서 왔소.’라고 대답하니, 그는 ‘바로 불가능한 줄을 알면서도 하는 자 말

옛날에 내가 남쪽 북쪽 동쪽으로 불안하게 떠돌다가	舊余棲棲兮南北東
또 내 수레를 서쪽으로 몰고 가네	又余車兮西馳
강의 물 빛이 깊고 그윽한데	河之水兮色幽幽
어찌 탄식만 하고 건너지 않는가	胡發嘆乎未濟
깊은 곳에서 배 타고 건너지 않고 얕은 곳에서 걸어서 건너지 않으니	深莫乘兮淺莫涉
내가 만일 건넌다면 후회해서는 안 되네	我如濟兮不可悔
나는 열 다섯에 배움에 뜻을 두었는데 ³⁴¹	曰余十有五而志學兮
문왕·무왕이 이미 멀어졌음을 개탄하네	慨文武之已逝
그러나 하늘이 사문을 없애려 하지 않으셨으니 ³⁴²	然天之未喪斯文兮
어찌 한 곳에 매달린 채 먹이지 못하겠는가 ³⁴³	焉能繫而不食

인가?” 하였다. [子路宿於石門，晨門曰，‘奚自?’ 子路曰，‘自孔氏.’ 曰，‘是知其不可而爲之者與?']”는 내용이 있다.

- 341 내가…두었는데 : 《논어》〈위정(爲政)〉에 “나는 15세에 배움에 뜻을 두었고, 30세에 뜻이 섰다.[吾十有五而志于學，三十而立.]”라고 하였다.
- 342 그러나…않으셨으니 : 공자가 광(匡) 땅을 지날 적에 이르기를 “문왕이 이미 별세하셨으니, 문이 이 몸에 있지 않겠는가. 하늘이 장차 이 문을 없애려 하셨다면 뒤에 죽는 사람이 이 문에 참여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하늘이 이 문을 없애려 하지 않으셨으니, 광 땅 사람들이 나를 어찌하겠는가?[文王既沒，文不在茲乎? 天之將喪斯文也，後死者，不得與於斯文也。天之未喪斯文也，匡人其如予何?]
- 《論語 子罕》
- 343 한…못하겠는가 : 진(晉)나라 조씨(趙氏)의 중모재(中牟宰)인 필힐(佛飭)이 배반을 하고는 공자를 불렀을 때 공자가 가려고 하니, 자로(子路)가 필힐은 불선(不善)한 사람이므로 가서는 안 된다고 하자, 공자가 “내가 어찌 뒤옹박과 같겠는가? 어찌 한 곳에 매달린 채 먹이지 못하겠는가?[吾豈匏瓜也哉，焉能繫而不食?]
- 《論語 陽貨》

그러므로 나의 자리는 따뜻해질 틈이 없었으나³⁴⁴ 故吾之席未暇暖兮
 채나라로 가고 초나라로 가고 제나라로 가도 뜻을 얻지 못했네³⁴⁵

之蔡之楚之齊兮不可

분양³⁴⁶과 석노³⁴⁷는 羴羊石罍兮

오직 괴이하게 여겨 내 의견을 듣고자 하였으니 惟怪之欲聞

아, 세상의 임금 중 큰 일을 할만한 자 없구나 噫世主無足爲者

344 나의…없었으나 : 한유(韓愈)의 <쟁신론(爭臣論)>에 “공자는 앞은 자리가 따뜻할 겨를이 없었다.[孔席不暇暖.]”라고 하였는데, 이는 공자가 자주 돌아다녀 자리가 따뜻해질 틈이 없었음을 뜻한다.

345 채나라로…못했네 : 한유(韓愈)의 <상재상제삼서(上宰相第三書)>에 “옛날 선비들은 석달 동안 벼슬하지 못하면 서로 위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국경을 나갈 때에는 반드시 폐백을 신고 갔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벼슬에 나아감을 신중히 한 까닭은 주나라에서 불가하면 떠나서 노나라로 가고, 노나라에서 불가하면 떠나서 제나라로 가고, 제나라에서 불가하면 떠나서 송나라로 가고, 정나라로 가고, 진나라로 가고, 초나라로 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古之士，三月不仕則相弔，故出疆必載質。然所以重於自進者，以其於周不可，則去之魯，於魯不可，則去之齊，於齊不可，則去之宋，之鄭，之秦，之楚也。]” 하였다.

346 분양 : 분양은 땅속의 괴물을 가리킨다. 계환자(季桓子)가 우물을 파다가 질장군 같은 것을 얻어, 이것이 무엇인지 공자에게 물었다. 그러자 공자가 대답하기를 “나는 들으니, 목석(木石)의 괴물은 기(夔)이고, 물의 괴물은 용과 망상이고, 흙의 괴물은 분양(羴羊)이라고 합니다.” 하였다. 《國語 魯語下》

347 석노 : 돌로 만든 화살촉으로, 숙신(肅慎)이 주(周)나라에 바치던 공물이다. 공자가 진(陳)나라에 있을 때, 궁정(宮庭)에 떨어져 죽은 송골매의 몸에 돌화살촉의 호시(槊矢)가 박혀 있었는데, 진 혜공(陳惠公)이 공자에게 사람을 보내 그 연유를 묻게 하자, 공자가 “이 송골매는 먼 곳에서 왔다. 이것은 숙신씨의 화살이다. 옛날 무왕이 상나라를 정복한 뒤에 사방 이민족과 교통하며 각기 토산물로 공물을 바치게 하면서 직분을 잊지 않게 하였다. 이에 숙신씨가 호시와 석노를 바치게 되었다.”라고 했다고 한다. 《國語 魯語下》

광에서 두려워하고³⁴⁸ 송나라에서 포위되었으나³⁴⁹ 匡之畏兮宋之圍
 그들이 나에게 어찌하겠는가 其於予何
 진나라에서 굶주리고³⁵⁰ 위나라에서 곤액을 당했으나³⁵¹ 飢於陳兮困於衛
 도에 흠이 되지 않네 道不爲瑕
 그러나 천하를 도가 없다고 단정하여 버려서는 안 되니³⁵²
 然不可必天下而棄之兮
 비록 공산불요와 중모재라도 나아가고자 하였네³⁵³ 雖公山中牟兮欲往

- 348 광에서 두려워하고 : 양호(陽虎)가 일찍이 광(匡) 땅에서 포악한 짓을 했었는데, 공자의 모습이 양호와 유사했으므로 광 땅 사람들이 공자를 양호로 오인하여 포위한 적이 있었다. 《史記 卷47 孔子世家》《論語 子罕》
- 349 송에서 포위되었으나 : 공자가 노(魯)나라 사구를 하다가 위(衛)나라로 갔고, 다시 위나라를 떠나 송(宋)나라로 갔다. 이때 송나라 대부인 사마상퇴(司馬向魋)가 길목을 지키고 공자를 죽이려 했으므로, 공자가 화를 피하려고 미복 차림으로 송나라를 떠나, 진나라에 이르러 사성정자(司城貞子)를 주인으로 삼았다. 《孟子 萬章上》
- 350 진나라에서 굶주리고 : 공자(孔子)가 진(陳)나라와 채(蔡)나라의 국경지대에서 양식이 끊겨 7일 동안 굶주린 일이 있다. 《史記 卷47 孔子世家》
- 351 위나라에서 곤액을 당했으나 : 공자가 일찍이 위(衛)나라에 가서 자로(子路)의 처형인 안탁추(顔濁鄒)의 집에 머물 때, 어떤 이가 위령공(衛靈公)에게 공자를 참소하자, 위령공이 공손여가(公孫余假)를 시켜 병장(兵仗)을 갖추어 공자를 감시하게 하였다. 이에 공자가 죄를 얻을까 두려워 머문 지 10개월 만에 위나라를 떠났다. 《史記 卷47 孔子世家》
- 352 그러나…되니 : 《논어》〈미자(微子)〉6장에 공자가 장저(長沮)·갈닉(桀溺)을 만난 일이 수록되어 있는데, 장하주에 실린 장자(張子)의 말에 “성인의 인은 도가 없다고 천하를 단정하여 버리지 않는다.”〔聖人之仁，不以無道必天下而棄之也。〕”라고 하였다.
- 353 비록…하였네 : 공산불요(公山弗擾)가 비읍(費邑)을 가지고 반란을 일으키고서 공자를 불렀을 때, 그리고 조씨(趙氏)의 중모재(中牟宰)인 필힐(佛矸)이 중모 땅을 가지고 반란을 일으키고서 공자를 불렀

이윅고 훨훨 날아 조간자에게 향하고자 하였으니	愛翩翩兮將指趙
생각건대 서쪽으로 가는 길 멀도다 ³⁵⁴	念西路之羌永
하수에 도착하자 마자 나루터를 물었는데	纔到河而問津兮
아, 건너려 하다가 건너지 않았네	謬將涉兮未涉
과도한 살육이 현인에게 미쳤음을 듣고	聞淫戮之及賢
조간자의 실덕을 홍보았네	短趙孟之爽德
마침내 하수에 임하여 놀라며 돌아서서	遂臨河而愕旋
크게 탄식하고 머뭇거렸네	浩余歎兮躑躅
탄식하며 말하기를	嘆曰
“봉황은 천 길 높은 데서 올라가	鳳高嘯於千仞兮
빛나는 덕행을 보면 내려오네 ³⁵⁵	覽德輝而下之
기러기가 또 아득히 먼 하늘로 날아가면	鴻又飛兮冥冥
주살 든 사람이 잡을 수 있는 것 아니라네 ³⁵⁶	非弋人之所纂

을 때에, 공자는 그들의 부름에 응하여 나아가려고 하였다. 《論語 陽貨》

- 354 서쪽으로…멀도다 : 노나라 애공(哀公) 2년 공자의 나이 59세에 위 나라에서 등용되지 못하고 서쪽으로 진나라로 가서 조간자를 만나 보려고 한 것을 가리킨다. 《史記 卷47 孔子世家》
- 355 봉황은…내려오네 : 《문선(文選)》 권60 〈조굴원문(弔屈原文)〉의 “봉황은 천 길 높은 곳에서 빙빙 돌다가 빛나는 덕행을 보면 내려왔고, 부덕한 행실의 위험한 징조를 보면 멀리서 거둑 날갯짓하여 날아가 버린다.〔鳳皇翔於千仞兮，覽德輝而下之，見細德之險微兮，遙增擊而去之.〕”를 원용한 말이다.
- 356 기러기가…아니라네 : 난세(亂世)에 화를 피해 은거한다는 뜻이다. 양웅(楊雄)의 《법언(法言)》 〈문명(問明)〉에 “치세에는 나타나고 난세에는 숨어야 할 것이니, 기러기가 아득히 먼 하늘로 높이 날아가면 주살 든 사람이 어떻게 잡을 수 있겠는가.〔曰治則見，亂則隱，鴻飛冥冥，弋人何纂焉.〕” 하였다.

어찌하여 황급히 어디를 가려고 하는가 ³⁵⁷	胡爲乎遑遑欲何之
아, 제자들 광간하도다. ³⁵⁸ 하였네	嗟小子之狂簡
다시 공자를 위해 탄식하며 말하기를	重爲之歎曰
“얕은 곳에서 걸어서 건너려 하였는데	將涉淺兮
물속에 솟은 돌 창처럼 뾰족하고	石齒如戟
깊은 곳에서 배 타고 건너려 하였는데	將乘深兮
용의 비늘같은 우레가 흔드네	龍髻雷拂
돌과 싸울 수 있겠는가	石可鬪乎
내 발을 상하게 하리라	傷我足
용과 같은 우레를 공격할 수 있겠는가	龍可批乎
내 노를 망가뜨릴 것이네	隳我楫
돌과 용이 모두 두려워할 만하니	石與龍皆可懼兮
그대들은 어찌하여 돌아가지 않는가	二三子盍歸乎來
아,	嗚呼
하도가 나오지 않는 것은	河不出圖
때가 오지 않은 것이요	時不來歟
사냥하여 기린을 잡은 것은	狩而獲麟

357 어찌하여…하는가 : 도잠(陶潛)의 〈귀거래사(歸去來辭)〉의 “어찌서 가고 머뭇을 마음대로 하지 않고, 어찌하여 황급히 어디를 가려고 하는가. 부귀는 내가 바라는 바 아니요, 제향도 기약할 수 없는 일인 것이로다.[曷不委心任去留, 胡爲乎遑遑欲何之? 富貴非吾願, 帝鄉不可期.]”라는 구절을 원용하였다.

358 제자들 광간하도다 : 광간은 뜻은 크나 행실은 소략함을 뜻한다. 공자(孔子)가 진(陳)에 있을 때 “돌아가자, 돌아가자. 우리 고을의 제자들은 뜻만 크고 일에는 소략하여 찬란하게 문채만 이루었을 뿐이요 스스로 재단할 줄을 모르도다.[歸歟歸歟, 吾黨之小子狂簡 斐然成章, 不知所以裁之.]” 라고 탄식하였다. 《論語 公治長》

명이 쇠한 것이로다 ³⁵⁹	命之衰歟
장차 도가 행해지는 것도 명이요	將行也命
장차 도가 폐해지는 것도 명이며 ³⁶⁰	將廢也亦命
건너고자 한 것도 명이요	欲濟者命
건너지 않은 것도 명이로다	不濟者亦命
이미 하늘이 내신 성인이신데 ³⁶¹	天既縱乎將聖
또 어찌서 명운이 막 막혔는가	又何命之堙陋
그렇지만	雖然
과화존신 ³⁶² 의 덕으로도	以過化存神之德
평화롭게 다스리고자 하지 않은 때를 만났으니 ³⁶³	值未欲平治之日

359 사냥하여…것이로다 : 노 애공(魯哀公) 14년 봄에 사냥에서 기린이 잡히자, 공자가 성왕(聖王)도 없는 세상에 상서로운 기린이 나오니 주(周)나라 도가 일어나지 못하고 아름다운 상서도 응험이 없음을 한탄하여 ‘서수획린(西狩獲麟)’이라는 구절로 《춘추》를 종결하였다.

360 장차…명이며 : 공자가 공백요(公伯寮)가 계손씨(季孫氏)에게 자로를 참소한 일을 듣고 말하기를 “도가 장차 행해지는 것도 명이며, 도가 장차 폐해지는 것도 명이니, 공백료 그 자가 명을 어떻게 하겠는가.〔道之將行也與, 命也, 道之將廢也與, 命也, 公伯寮其如命何.〕” 하였다. 《論語 憲問》

361 하늘이 내신 성인이신데 : 제자 자공(子貢)이 공자를 두고 “선생님은 진실로 하늘이 풀어 놓으신 성인이실 것이요, 또 능한 것이 많으시다.〔固天縱之將聖, 又多能也.〕”라 하였다. 《論語 子罕》

362 과화존신 : 과화(過化)는 성인이 지나는 곳이면 모든 사람이 감화되는 것이고, 존신(存神)은 성인이 머무는 곳이면 모든 백성이 신묘하게 감화되는 것이다. 《맹자》〈진심 상(盡心上)〉에 “지나가는 곳마다 교화가 되고, 머물러 있는 곳마다 신령스럽게 변화된다.〔所過者化 所存者神〕”라고 하였다.

363 평화롭게…만났으니 : 《맹자》〈공손추 하(公孫丑下)〉에 “저 하늘이 아직 천하를 평화롭게 다스리고자 하지 않은 것이지, 만약에 천하를 평화롭게 다스리고자 한다면 지금의 세상에 당면하여 나를 버리고 그 누구를 쓰겠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지 않겠는가.〔夫天未

정공이 여악으로서 정사를 어지럽힌 것은 定公之女樂以亂政

계환자가 받아서가 아니요³⁶⁵ 則非季桓受之
 하늘이 실로 받게 한 것이로다 而天實使受之
 유언을 쓰지 않은 강자³⁶⁶와 逮不用遺言之康子
 서사의 땅을 봉하는 일을 막은 자서³⁶⁷에 이르러서는 暨止封書社之子西
 모두 하늘이 유도한 것이지 咸皆天誘
 그들 스스로 막은 것이 아니네 非所自沮
 그렇다면 조간자가 두명독과 순화를 죽인 것이 然則簡子之殺鳴犢·舜華者
 하늘이 죽이게 하여서 죽인 것인지 어찌 알겠는가 庸詎知天使殺而殺之也
 아, 噫噫
 공자가 하수를 건너지 않음이어 夫子之不濟河兮
 유독 공자를 위해 애석해하지 않고 獨不爲夫子惜
 다시 조간자를 위해 깊이 애석해 하노라.”하였네 而重爲趙簡深惜也

365 정공이…아니요 : 공자가 노(魯)나라의 사구(司寇)로서 정공(定公)을 보필하고 있었는데, 노 정공 14년에 제(齊)나라에서 여악(女樂)을 보내왔다. 계환자가 그것을 받고서 3일씩이나 즐기는 등 정사를 게을리하자 공자가 희망을 버리고 떠났다. 《論語 微子》

366 유언을…강자 : 〈논어집주서설(論語集註序說)〉에 “계환자가 죽을 적에 유언을 남겨 강자에게 이르기를 반드시 공자를 불러 등용하라고 하였다. 그런데 신하들이 저지하자 강자는 마침내 염구를 불러 등용하였다.〔季桓子卒，遺言謂康子，必召孔子。其臣止之，康子乃召冉求。〕”하였다.

367 서사의…자서 : 〈논어집주서설〉에 “초나라 소왕은 장차 서사의 땅을 가지고 공자를 봉해주려고 하였는데, 영윤인 자서가 불가하다 하니, 마침내 중지하였다.〔楚昭王，將以書社地，封孔子，令尹子西不可，乃止。〕” 하였다.

춘교목우도부

春郊牧牛圖賦

들은 손바닥처럼 평평하고 풀은 자리처럼 무성하며	郊如掌草似茵
하나의 시내가 가운데 있고 좌우로 산이 있네	中一川左右山
질은 아침노을이 흠어 얇게 깔려 있고	濃霞破兮浮未高
아침 해가 산봉우리 위에 뜨자 꾀꼬리가 우네 ³⁶⁸	嗽上岑兮鶉鷓鳴
저기 누런 머리카락에 청색 옷을 입은 이 누구인가	彼誰子髮黃而衣青兮
소 등을 타고 줄면서 다리를 지나가네	睡牛背兮過橋行
소를 몰고 가서 소가 풀 뜯고 다시 물을 마시니	驅且行兮齧復飲
온 들의 춘색을 독차지하네	管一郊之春色
집이 어디에 있는가, 물어도 말하지 않는데	家何在兮問不言
아득히 촌락이 깊은 계곡에 있도다	杳墟里兮深谷
백발로 정수리 드러내고	皤皤露頂兮
남녘 밭에서 지팡이 짚고 있는 자는	植杖南畝者
그 집안의 아버지라	是渠家之乃翁
아, 네 소가 이미 크고 자랐으니	嗟爾牛既朴而既茁兮
평생 고락을 함께 했네	一生苦樂兮
아, 너 목동이 크게 소리치자	唯爾童牟然吼
소가 뿔을 수그리고 귀는 윤택하네 ³⁶⁹	角戢而耳濕

368 아침…우네 : 《시경》〈빈풍(邠風) 칠월(七月)〉에 “《시경》에 이르기를 “봄날이 따스해지면, 꾀꼬리가 우네.[春日載陽, 有鳴鶉鷓.]” 하였다.

369 소가…윤택하네 : 소가 평화롭고 편안하게 지낸다는 의미이다. 《시경》〈소아(小雅) 무양(無羊)〉에 “너의 양이 오니, 그 뿔이 화하고 화하도다, 너의 소가 오니, 그 귀가 윤택하도다.[爾羊來思, 其角濺濺, 爾牛來思, 其耳濕濕.]”라고 한 것을 인용하였다. 뿔이 화하다는 것은 양

목에 가득 달린 방울이 어지러이 울리고	紛滿脰之黃鍾
아침에 끌고 나갔다가 저녁에 몰고 들어오네	朝牽出兮暮驅入
몇 번이나 산 남쪽으로 갔다가 강 북쪽으로 가며	幾山南又水北
수고롭게도 네가 날마다 소를 치고 또 치니	勞爾之日牧而又牧兮
들판과 습지로 갔다가 갑자기 또 밭두둑으로 가네	之原隰忽又阡陌
어느 곳인들 유독 향기로운 풀이 없겠는가마는	何所獨無芳草
다시 어찌하여 서쪽 들로 왔는가	更胡爲兮西郊
언덕에 먹구름이 가득하니	方其隴雲潑墨
쟁기질에 알맞도록 밤비가 흠뻑 내렸네	夜雨深兮一犁
아침해가 더운 기운 토해 내자	朝光吐燬
안개가 5리, 10리까지 자욱하네	霧五里而十里
왕손은 유람하러 나갔다 돌아오지 않건만	王孫遊兮去無來
춘색은 절로 향기로운 물가에 가득하네 ³⁷⁰	自春色兮滿芳沚
네가 이윽고 독에 올라 소리치고 채찍질하며 안개 속으로 들어가	爾乃叱上提鞭入煙
계곡을 따라가며 노래하고 언덕에서 잠이 드네	沿澗吟度隴眠
날이 개면 옷통을 벗고 비가오면 삿갓과 도롱이를 쓰며	晴褊袒雨笠蓑
황혼에 피리 불고 석양에 갈잎피리를 부네	黃昏笛夕陽笳
때때로 소떼를 몰아 계곡 너머에서 부르고	時逐隊兮隔溪呼
또 비껴 부는 바람에 몇 마디 노래를 부르네	又斜風兮三兩歌
그렇다면 이 목동은	然則是童也

이 서로 들이받지 않고 화합함을 의미하고, 귀가 윤택하다는 것은 소가 편안함을 의미한다.

- 370 왕손은…가득하네 : 《초사(楚辭)》 권12 〈초은사(招隱士)〉에 “왕손은 유람하러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건만 봄풀만 돌아나 무성하구나.[王孫遊兮不歸, 春草生兮萋萋.]” 하였다.

사람이 와서 술집을 물었을 적에	人來問酒家
멀리 행화촌을 가리킨 자인가 ³⁷¹	遙指杏花村者耶
깊은 밤 소뿔을 두드리고 노래하며	夜深叩角歌
갈홍천에 다시 온 자인가 ³⁷²	重到葛洪川者耶
날이 저물어 양과 함께 내려왔던 목동인가 ³⁷³	共羊來日之夕耶
객을 보고 절하자 비바람이 사나웠던 때의 목동인가 ³⁷⁴	見客拜風雨惡耶
소를 끌고 당 아래를 지나간 것 ³⁷⁵ 을 싫어하는 자인가	厭過堂下者耶
도림의 들에 소를 풀어놓은 것 ³⁷⁶ 을 기뻐하는 자인가	喜放桃野者耶

371 사람이…자인가 : 두목(杜牧)의 시 <청명(清明)>에 “묻노니 술집이 어디에 있는고. 목동이 멀리 살구꽃 핀 마을을 가리키네.〔借問酒家何處有? 牧童遙指杏花村.〕” 하였다.

372 깊은…자인가 : 당(唐)나라 때 이원(李源)이 승려 원택(圓澤)과 뱃놀이할 하다가 지나가는 임산부를 보았는데, 원택이 말하기를 자신은 그녀의 아들이 될 것이니 12년 뒤 중추일 밤에 갈홍천에서 만나자고 하였다. 그날밤 과연 원택이 죽었고, 임산부는 아이를 낳았다. 이원이 이로부터 12년 뒤에 갈홍천(葛洪川)가로 찾아가자 한 목동이 소뿔을 두드리며 노래하기를 “친한 벗이 멀리 찾아 주매 진정 부끄럽지만, 이 몸은 달라졌으나 본성은 그대로 있다오.〔慚愧情人遠相訪, 此身雖異性長存.〕”라고 하였다. 《瑯琊代醉篇》

373 날이…목동인가 : 《시경》<군자우역(君子于役)>에 “닭은 해에 깃들며 날이 저물어 양과 소가 내려오네. 군자의 부역 감이여 어찌 그리워하지 않을 수 있으리오.〔雞棲于埘, 日之夕矣, 羊牛下來. 君子于役, 如之何勿思.〕”

374 객을…목동인가 : 유가(劉駕)의 <목동(牧童)>에 “목동이 객을 보고 절하자 산에서 탄 과일 품속에서 떨어지네. 대낮에 소를 몰고 돌아가는데, 앞 개울엔 비바람이 사납네.〔牧童見客拜, 山果懷中落. 晝日驅牛歸, 前溪風雨惡.〕”

375 소를…것 : 제 선왕(齊宣王)이 혼종(饗鍾)하기 위한 소를 끌고 당 아래를 지나가는 것을 보고, 소를 측은히 여겨 양으로 바꾸라고 한 고사가 있다. 《孟子 梁惠王上》

376 도림의…것 : 《서경》<주서(周書) 무성(武成)>에 “왕이 상나라로부터

앞산엔 비가 오고 뒷산은 개었는데	前山雨後山晴
도롱이를 벗지 않고	不脫蓑衣
밝은 달 아래 누워 있는 자인가 ³⁷⁷	臥月明者耶
이에 목동은 불러도 답하지 않는데 소는 가짜가 아니니	於是童呼不應兮牛不訛
예전에 푸른 들에서 본 것이 아니네	非疇昔所見於青蕪
내가 이에 가까이 가서 어루만져 보니	余乃近而摩挲兮
곧 용면 ³⁷⁸ 이 모사한 것임을 알겠네	乃知龍眠之所摸
나 또한 소가 있어	余亦有牛兮
밭을 갈고 수레를 끄는데	服田而服箱兮
목말라도 마실 물이 없고 굶주려도 꼴을 먹지 못하여	渴無水飲兮飢不芻
발굽이 뚫리고 목덜미도 노쇠하며 뼈가 드러날 정도로 수척하니	蹄穿頰蒼兮瘦到骨

와서 풍에 이르러 무를 쉬고 문을 닫아 군마를 화산의 남쪽에 돌려 보내고 소를 도림의 들에 풀어놓아 천하에 무력을 쓰지 않을 뜻을 보였다.[王來自商, 至于豐, 乃偃武修文, 歸馬于華山之陽, 放牛于桃林之野, 示天下弗服.]” 하였다.

- 377 도롱이를…자인가 : 한 방사가 종약옹(鍾弱翁)을 만날 적에, 목동이 누런 송아지를 끌고 와 서 있자, 종약옹이 기이하게 여기며 방사에 게 시를 청했다. 방사가 목동이 시를 잘 짓는다고 하자, 목동이 붓을 들어 “풀 무성한 넓은 들 6, 7리 되고, 피리 소리 저녁 바람을 타고 두세 곡조 들리네. 목동이 돌아가 배불리 먹고 황혼이 진 뒤에 도롱이도 벗지 않고 밝은 달 아래 누워 있네.[草鋪橫野六七裏, 笛弄晚風三四聲. 歸來飽飯黃昏後, 不脫蓑衣臥月明.]”라는 시를 쓰고 떠났고, 방사도 나중에 고을을 나가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이 방사는 당(唐)라 팔선 중 한 명인 여동빈(呂洞賓)이었다고 한다. 《詩人玉屑 卷20 禪林》
- 378 용면 : 송(宋)나라의 유명한 화가인 이공린(李公麟, 1049~1106)으로, 자는 백시(伯時), 호는 용면거사(龍眠居士)이다. 시와 그림에 능했는데, 특히 산수(山水)와 불상(佛像)을 잘 그렸다고 한다.

아침에 채찍질하고 저녁에 끌고오며 소리치고 또 소리치네

朝鞭暮笏兮呵又叱

어찌 이 그림 속으로 끌고 들어가

安得牽之入此圖兮

풀이 무성한 곳에 가서 너와 함께 소를 기를 수 있겠는가

向豐草兮共爾牧

목동이여 목동이여

牧童兮牧童兮

나로 하여금 손으로 어루만지며 공연히 탄식하게 하네

使我手撫兮空歎息

수세부

守歲賦

갑진년	甲辰之歲
선달 그믐에	臘月告晦
객들이 밖에서 와서	客自外至
둘 셋이 모이니	二與三會
마침내 나에게 등을 밝히라 재촉하고	遂促我以燈
나를 당에 앉히며	坐我以堂
나를 아로새긴 책상 앞에 앉히고	列我以雕机
나에게 향기로운 술잔을 기울였네	倒我以芳觴
이윽고	少焉
이야기가 싫증나고 마음이 시들해져	談倦意怠
즐겁지 않아서	如有不樂
안석에 기대어 쓰러져 자며	隱几頽睡
삼가 객에게 작별인사를 했네	謹謝客
객 중에 자리에서 나온자가 있어	客有出位者
잔을 잡고 올리며 말하기를	執酌進曰
“한 해가 저물어	歲律云暮
세월이 지나가네 ³⁷⁹	日月其除
날이 저물었으니	日之夕矣

379 한…지나가네 : 《시경》〈당풍(唐風) 실슬(蟋蟀)〉에 “귀뚜라미가 마루에 있으니, 이 해도 드디어 저물었도다. 지금 우리가 즐기지 아니하면, 세월이 지나가 버릴 것이네.[蟋蟀在堂, 歲聿其莫. 今我不樂, 日月其除.]” 하였다.

밤이 얼마쯤 되었는가	夜如何其
오늘 저녁은 어떤 저녁인가	今夕何夕
섣달 그믐날의 저녁이니	除夕之夕
이 술과 이 날을	此酒此日
맛볼 만하고 애석해 할 만하네	可嘗可惜
오늘 즐기지 않으면 내일을 어찌하겠는가	今者不樂奈明何
내일 아침에 거울을 보면 늙음을 어찌하겠는가	明朝看鏡奈老何
늙고 늙음이며, 늙어서 장차 죽으리라	老哉老哉老且死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 못하니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 슬프도다	死不復生哀此世
이것이 공자가 시냇가에서 한 번 가버리고 머물지 않음을 탄식하고 ³⁸⁰	此所以將聖在川嘆一逝而莫留
영웅과 나라잃은 임금의 세월이 유수와 같음을 슬퍼했던 까닭이네	英雄寄公悲歲月之如流
하물며 나와 그대는	況吾與子
모두 어려서 고향을 잃어 ³⁸¹	俱是弱喪

380 공자가…탄식하고 : 원문의 ‘將聖’은 《논어》〈자한(子罕)〉에서 자공(子貢)이 “우리 선생님은 실로 하늘이 내신 거의 성인이시고[固天縱之將聖.]”라고 한 데서 온 말로, 공자를 가리킨다. 〈자한〉에 “공자가 시냇가에서 말하기를 ‘가는 것이 이와 같구나. 밤이고 낮이고 멈추는 법이 없도다.’”라고 하였다.[子在川上曰, 逝者如斯夫, 不舍晝夜.]”라는 내용이 보인다.

381 어려서 고향을 잃어 : 원문의 ‘약상(弱喪)’ 난리를 만나 어려서 고향을 떠나 타향으로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말한다.《장자(莊子)》〈제물론(齊物論)〉에 이르기를, “죽음을 싫어하는 것 역시 어려서 집을 떠나 돌아갈 줄 모르는 것이 아님을 어찌 알 수 있겠는가?[予惡乎知惡死之非弱喪而不知歸者邪.]”라 하였다.

가슴에서 띠풀을 제거하기 어렵고 ³⁸²	胸難去茅
얼굴은 여전히 담장을 마주하고 있는 듯하네 ³⁸³	面猶有墻
일찍이 세월이 얼마나 지났는가	曾日月之幾何
갑자기 눈은 침침해지고 머리카락은 희끗해졌네	奄視茫而髮蒼
살아서 이룬 것이 없으니 무슨 일을 하였는가	生無成兮何事業
젊은 시절의 기개 ³⁸⁴ 를 저버렸네	負頭上之崢嶸
이 때문에 술을 가득 담고 안주를 실어	是用崇酒載肴
그대의 집에 찾아오니	躋子之門
매우 짧은 시간이라도 아껴야 하는데 ³⁸⁵	雖分陰而當惜
더구나 한 해가 저물어 가는 때에 있어서라	況歲華之將殘
오늘밤의 양 귀밑머리를 보건대	看今霄之雙鬢
또 내일 아침에 한 살이 늘겠구나	又明朝之一年
하물며 늙음과 젊음	矧一老與一少

- 382 가슴에서…어렵고 : 의리(義理)의 마음이 막혀 버렸음을 뜻한다.《맹자》〈진심 하(盡心下)〉에서 맹자가 고자(高子)에게 이르기를 “산중의 오솔길이 사용하는 순간에는 길을 이루었다가, 잠시 사용하지 않으면 띠 풀이 꼭 차 버리나니, 지금 자네의 마음속에도 띠 풀이 꼭 찼도다.[山徑之蹊間, 介然用之而成路, 爲間不用, 則茅塞之矣, 今茅塞子之心矣.]” 하였다.
- 383 얼굴은…듯하네 : 담장을 마주하고 선 것처럼 견문이 좁음을 뜻한다. 공자가 아들 백어(伯魚)에게 “너는 《시경》의 〈주남(周南)〉과 〈소남(召南)〉을 배웠느냐? 사람으로서 〈주남〉과 〈소남〉을 배우지 않으면 바로 담장을 마주하고 선 것과 같다.”라고 한 데에서 유래하였다.《論語 陽貨》
- 384 젊은 시절의 기개 : 원문의 ‘頭上之崢嶸’은 젊은 시절의 기개나 범상치 않은 재주를 의미한다.《韓昌黎文集 卷32 柳子厚墓志銘》
- 385 매우…하는데 : 진(晉)나라 도간(陶侃)이 항상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대우는 성인인데도 촌음을 아꼈으니, 보통 사람들의 경우에는 응당 분음을 아껴야 할 것이다.[大禹聖者, 乃惜寸陰, 至於衆人, 當惜分陰.]”라고 하였다.《晉書 卷66 陶侃列傳》

어제 오늘의 낮과 밤 사이에서 갈리니	判曉夜於今昔
만일 한바탕 단잠을 자면	倘一場之甘眠
이미 빨리가는 시간을 따라잡기 어려울 것이라	已擲梭之難及
어찌 잠깐 졸아서	寧渴睡於半餉
어제는 젊고 오늘은 늙음을 깨닫지 못하는가	昧昨少而今暮
지금 내가 자지 않은 까닭은	今余所以無寐
나의 수세(守歲)가 굳건하지 못할까 두려워해서라네	懼余守之未固
이에 오늘밤이 다 가지 않으면 올해요	是知今宵未盡是今年
내일 아침이 이르면 곧 내년임을 알겠네	明朝旋至卽明年
겨울이 밤을 따라 옛날이 되고	冬隨宵舊
봄이 아침을 따라 새로 오며	春逐朝新
갑이 밤을 따라 끝나고	甲從宵窮
을이 아침과 더불어 시작되니	乙與朝始
어찌하여 졸아서	胡爲□睡
이 빨리 지나는 시간을 등지는가?”하니	負此隙駟
말이 끝나기 전에	談未卒
내가 곧 옷깃을 여미고 대답하기를	余卽斂衽謝曰
“음양이 변화하여 ³⁸⁶	夫陰陽舒慘
사계절이 번갈아 맞이하니	四序迭迎
이와 기가 서로 순환하여[回薄] ³⁸⁷	理氣回薄

386 음양이 변화하여 : 원문의 ‘서참(舒慘)’은 사계절이 변화함을 가리킨다. 장형(張衡)의 <서경부(西京賦)>에서 “대저 사람은 봄과 여름의 시기에는 마음이 퍼져 유쾌해지고 가을과 겨울의 시기에는 근심한다.[夫人在陽時則舒, 在陰時則慘.]”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387 서로 순환하여[回薄] : 멈추지 않고 돌아와[廻] 닥쳐오는 것[薄]으로 서로 순환하여 변화가 무상함을 말한다. 가의(賈誼)의 <북조부(鵬鳥賦)>에 “만물의 변화가 무상하여 진탕되고 서로 변화한다.[萬物迴薄]

만물이 변영했다 쇠퇴하네	萬物枯榮
본원을 돌이켜 궁구해 보면	推原反本
같은 하늘에서 고르게 부여받았으니	均賦同天
진실로 피아의 구분의 없는데	固無彼而無我
어찌 망령되게 사사로이하고 독자치한단 말인가	胡妄私而妄專
우연히 사람이 된 것이	偶然爲人
어찌 기뻐할 만하겠으며	何足以喜
갑자기 귀신이 되더라도	忽然爲鬼
어찌 두려워할 만 하겠는가	何足以懼
갑자기 갔다가 문득 오니	歟往忽來
어찌 다함이 있겠는가	寧有窮已
그렇다면 태어나 늙는 것은 형의 변화요	然則生老者形化
병들어 죽는 것은 기의 변화이니	病死者氣化
변화하는 것으로 말하자면	以其化者而言
하루 안에	則一日之內
천백 번 변하고도 남음이 있고	千百化而有餘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말하자면	以其不化者而言
천만년이 하루 아침이어서	則千萬世爲一朝
천지가 나와 더불어 시작과 끝을 함께 한다네	而天地與我終始
아, 조화옹이 삶을 주어 나를 수고롭게 하였으니 ³⁸⁸	噫造化勞我以生兮
이미 기쁨이 없는데 또 어찌 슬퍼하겠는가	既無喜又何悲

兮, 振盪相轉.]”라고 하였다.

- 388 조화옹이…하였으니 : 《장자(莊子)》〈대종사(大宗師)〉에 “대자연은 형체를 주어 나를 이 세상에 살게 하며, 삶을 주어 나를 수고롭게 하며, 늙음으로 나를 편안하게 하며, 죽음으로 나를 쉬게 한다.[夫大塊，載我以形，勞我以生，佚我以老，息我以死.]”

또 객은 단지 한 해의 마지막을 지킬 줄만 알고	且客徒知守其歲
명을 지킬 줄은 모르며	不知守其命
단지 잠을 깰 줄만 알고	徒知寤其寐
본성을 깨달을 줄 모르니	不知寤其性
어째서 그러한가	何爲其然也
진실로 수세만 하고 깨닫지 않는 자는	苟守而不寤者
비록 날마다 수세하더라도 명을 지키기에 부족하고	則雖日守而不足
진실로 잠에서 깨어 있어 쇠하지 않는 것은	苟寤而不衰者
비록 날마다 깨어 있더라도 할 수 없네	則雖日寤而不給
저 고고히 흘러가는 세월과	彼高高之流光
아득하게 멀리 흘러가는 시간은	與堂堂之飛晷
그대가 지켜서 머물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非汝守而可留
그대가 깨어 있어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니니	非汝寤而可駐
객이 지키는 것과 깨어 있는 것은	則庸知客之守與寤者
끝내 지키지도 깨어 있지도 못하는 것임을 어찌 알겠으며	終不能守而寤
내가 지키지 않는 것과 깨어 있지 않는 것이	庸知吾之不守與不寤者
곧 굳게 지키고 깊이 깨어 있는 것임을 어찌 알겠는가?”하였네	乃固守而深寤也哉
객이 이에 입을 벌리고 혀를 내민 채	客於是呿口吐舌
인사도 하지 않고 가버렸네	不辭而往
내가 우레처럼 코를 고는데	我鼾如雷
해가 하늘에 세 길 높이 떠 있네	日高三丈

적벽부

赤壁賦

해는 경신년이요 때는 구월 중양절 뒤 망일 앞이라

歲庚申時九月後重陽先望日

선생이 객과 더불어

先生與客

석벽 아래에서 뱃놀이를 하는데

舟游石壁

이때에 소나기가 내리다가 곧 그치고

于時驟雨旋止

거센 바람이 갑자기 멈췄네

狂飆忽息

물이 하늘처럼 맑아

水清若空

가는 솜을 처음 뻗 듯하니

纖續初濯

거울같은 수면에 배를 저어 멀리 거슬러 올라가

刺鏡面而遐遡

구부러지고 곧게 뻗은 형세를 구경하네

覽形勢之紆直

술잔을 잡아 서로 주고 받고

執卮酒以相酬

좌우로 흘러가며 두루 바라보니

流左右而遊目

비단과 수놓은 천이 어지러이 쌓여 있는 듯하고

紛錦累而繡堆

노을과 안개가 아득히 이어졌네

杳霞連而霧屬

멀리 바라보니

遠而望之兮

용비늘이 번쩍거리는 듯한 광경에 두려워하고

懼龍鱗之照爛

가까이 살펴보니

近而察之兮

범과 표범이 숨어서 웅크리고 있는 듯한 광경에 놀라네

驚虎豹之藏蹲

바위산을 깎아서 우뚝 세워 놓고

雕山骨之戍削兮

벼랑을 쪼아서 겹겹이 쌓아 놓았으니

琢雲根以頽疊

황홀하게도 여와가 달군 돌이

悅如女媧之所鍊兮

하늘의 구멍을 막고도 본래의 재료가 남아 있는 듯하고³⁸⁹

塞天竇而餘素質

또 대우가 뚫은 것이

又如大禹之所鑿兮

용문산을 터주어 물길이 통한 것 같네³⁹⁰

決龍門而河道闢

만약 귀신이 운반해 나른 것이 아니라면

若非鬼運而神輸兮

누가 언덕을 쌓고 벼랑을 쌓을 수 있었겠는가

疇克岸委而崖積

푸른 빛은 죽은 큰 고래의 지느러미 같고

翠疑長鯨之曝髻兮

흰 빛은 죽은 방풍씨의 뼈 같네³⁹¹

白訝防風之朽骨

어째서 조화옹의 신묘한 권한은

夫何造化之神權兮

지극히 기이하게 만들어 놓고도 자취가 없는가

幻至奇以無迹

이에 선생이 술잔을 잡고 주위를 둘러보며

於是先生執酌流眄

큰소리로 길게 탄식하며 말하기를,

嘆然長歎曰

“처음에 펼쳐질 적에

厥初開張

누가 이것을 주재했는가

孰主張是

시초가 아득하니

其始芒芒

389 여와가…듯하고 : 여와는 상고 시대 여제(女帝)인 여와씨(女媧氏)를 가리킨다. 공공씨(共工氏)가 축융(祝融)과 싸우다 천주(天柱)를 부러뜨리자, “여와씨가 오색의 돌을 달구어 터진 하늘을 메우고 자라의 발을 잘라 사방을 지탱할 기둥으로 세웠다.[女媧氏, 鍊五色石, 以補蒼天, 斷鯀足, 以立四極.]”라고 한다. 《淮南子 卷6 賢冥訓》

390 대우가…갈네 : 우 임금이 9년 동안 홍수를 다스릴 때 신부(神斧)를 사용하여 용문산(龍門山)을 끊어 물길을 소통시켰다고 한다. 《史記 卷87 李斯列傳》《淮南子 脩務訓》

391 흰…갈네 : 우(禹)임금이 일찍이 회계(會稽)의 도산(塗山)에서 천하의 제후들에게 조회 받을 적에 방풍씨(防風氏)가 맨 뒤에 도착했다. 우 임금은 천자의 명을 어긴 죄로 방풍씨를 베어 죽였는데, 방풍씨의 신장이 커서 그의 뼈마디 하나만으로도 수레 하나가 가득 찼다고 한다. 《史記 卷2 夏本紀》

나는 이 이치를 모르겠네	我昧斯理
만약 이 석벽을 만든 것이	若以設此者
나라를 굳게 지키는 데 뜻이 있었다면	爲有意於固國
효산·함곡관과 한수·방성산으로	嶠函漢方兮
진나라와 초나라의 패망을 어찌하지 못했는가 ³⁹²	無柰秦楚之亡
만약 이 석벽을 만든 것이	若以設此者
나라를 굳게 지키는 데 뜻이 없었다면	爲無意於固國
어찌하여 둘러싼 형세가	胡然周遭兮
장성과 거방 ³⁹³ 처럼 우뚝한가	屹若長城與巨防
하물며 기자·단군에서 백제·고구려에 이르기까지	況箕檀至於濟麗兮
여기에 의지하여 적을 위협한 이 누가 있었던가	孰有恃此以威敵
생각건대 선왕대에 오랑캐 가득하여	緬先朝蜚子之充斥兮
참혹하게도 국가의 군대가 바람에 쓰러지듯 도륙되었네	慘王師望風而魚肉
지금에 이르러 강물결이 오열하여	至今江波之嗚咽兮

392 효산…못했는가 : 효산(嶠山)과 함곡관(函谷關)은 진(秦)나라 수도인 함양(咸陽)을 지키는 요충지인데, 험준하기로 이름난 곳이다. 한수(漢水)와 방성산(方城山)은 초(楚)나라의 요새로, 초나라 장수 굴완(屈完)이 제 환공(齊桓公)에 말하기를, “그대가 도로써 한다면 괜찮겠지 만, 그렇지 않다면 초나라는 방성산으로 성을 삼고 장강·한수로 해자를 삼으니, 당신이 어떻게 전진할 수 있겠는가?”〔君以道則可，若不則楚方城以爲城，江漢以爲溝，君安能進乎?〕라고 한 일이 있다. 《史記卷32 齊太公世家》

393 장성과 거방 : 장성과 거방은 춘추시대 제(齊)나라 땅에 있던 요새이다. 《사기》권69 〈소진열전(蘇秦列傳)〉에 “연왕이 말하기를, ‘내가 듣건대, 제나라에는 맑은 제수와 탁한 하수가 있어 견고 할 수 있고, 장성과 거방이 있어 요새로 삼기에 충분하다고 하는데 진실로 그런 것이 있습니까?’ 하였다.〔吾聞之，齊有清濟·濁河，可以爲固，有長城·鉅防足以爲塞，誠有之乎?〕”라는 내용이 보인다.

혼이 슬퍼하고 귀신이 우는 것 같으니	想魂悲而鬼泣
하늘이 이 석벽을 만든 것은 또 무슨 뜻인가?” 하였다	天之設此抑何意歟
객 중에 자리에서 나온 자가 있어	客有出位者
소리내어 답하기를	應聲答曰
“내가 헤아린 바로는	以余所料
우연이 아닌 듯합니다	似非偶耳
지금 어스름한 새벽에	今者昧朝
뱃길로 떠나려 하는데 ³⁹⁴	木道將啓
하늘이 어두침침하고 큰 비가 내려	天乃晦冥大雨
바람에 산과 바다가 뒤집히니	以風倒海翻山
어둑하고 흐릿하여	混混濛濛
강의 상인이 정박하고	江商下碇
육지의 나그네도 수레를 멈췄습니다	陸旅止輶
이곳에서 배로 가는 것은	船于此地
신도 점치기 어려운 것인데	神所難卜
선생께서는 오히려 편안히 계시며	然而先生猶且怡然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不以爲惑
회오리 바람이 비를 그치게 하는 것 ³⁹⁵ 이	回風止雨
마치 늙은 종을 꾸짖는 것 같아서	如叱老僕
곧 날씨가 맑아	爰開爰霽

394 뱃길로 떠나려 하는데 : 원문의 ‘木道’는 《주역》〈익괘(益卦) 단사(象辭)〉에 “큰 시내를 건넌이 이로웁은 목도가 이에 행해진 것이다.[利涉大川, 木道乃行.]”라고 한 데서 온 말로, 뱃길로 가는 것을 말한다.

395 비를…것 : 원문은 ‘止雨’인데, 삼간본(三刊本)에 근거하여 ‘雨’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잠깐의 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曾不瞬息
이미 맑은 경치가 펼쳐지고	既申之以晴景
또 밝은 달이 거듭 비추니	又重之以明月
가을 강물이 누인 명주실처럼 깨끗하고	秋江淨兮如練
석벽의 색이 눈앞에 있는 듯이 드러났습니다	壁色露兮無隔
배사공이 기뻐하여 뱃노래 부르고	榜人喜兮棹謳發
향기로운 술 마시고 맛있는 채소 섞어 먹으니	芳酒御兮嘉蔬錯
강비 ³⁹⁶ 가 나오고 수신이 즐기며	江妃出兮水神嬉
동지의 송골매가 일어나고 숨은 교룡이 뛰어오릅니다	巢鵲起兮潛蛟躍
이 어찌 신명이 묵묵히 도와서	豈非神明之默佑
선생이 실컷 완상하게 해주어	快先生之清賞
선생으로 하여금 붓을 휘둘러 문재를 펴서	俾揮毫而摘藻
아름다운 지역의 경치를 모사하게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摸勝區之景象
천고에 조화옹에게 답하여	答造化於千古
오늘날의 고아한 자취가 있게 되었습니다	有今日之高躅
이에 소식의 앞에 몇 천년 동안	是知先乎蘇子幾千年兮
적벽에서 이러한 작품이 없었고	無是作於赤壁
소식의 뒤에도 몇 천년 동안	後乎蘇子幾千年兮
또한 적벽에서 이러한 작품이 없음을 알겠습니다	亦無作於赤壁
그렇다면 하늘이 적벽을 만든 것은	然則天之創赤壁
오나라와 촉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非爲吳蜀也
소식을 위한 것이니	爲蘇子也

396 강비 : 강비(江妃)는 전설 속의 신녀이다. 옛날 정교보(鄭交甫)라는 사람이 강한(江漢) 사이에 놀러 나갔다가 화려한 복장의 강비 두 여인을 만나 그녀들의 패옥을 받았다는 고사가 전한다. 《列仙傳 江妃二女》

지금 석벽이 있는 것이	安知今之有石壁
역대로 나라를 굳게 지켜 적을 위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非爲歷代固國而威敵
단지 선생의 한 마디 말을 위해 만든 것인지 어찌 알겠습니까?”하니只	爲先生一言而設也
말이 끝나기도 전에	言未既
선생이 손을 흔들며 그만두게 하고	先生乃揮手止之
미소지으며 답하지 않고서	微笑不答
구부정 붓을 놓으니	俛然放筆
부끄러운 기색이 있는 듯하였네	如有慙色

반적벽부

反赤壁賦

임술년 가을에	壬戌之秋
내가 상읍에서	余在商邑
기쁘지 않은 기색이 있어	如有不豫
마을 평상에 누워 읊조렸네	臥吟村榻
밖에서 온 객이	客有自外者
나에게 낙수에서 술을 가지고 배를 띄우길 권하며 말하기를	勸余持酒浮舟于洛曰
“지금의 해와 때는	今茲歲紀
임술년 가을 기망에 속하고	屬于壬戌秋之旣望
또 이 달을 만났으니	又值此月
이는 소선이 적벽에서 노닐던 저녁이 아닙니까 ³⁹⁷	此非蘇仙游赤壁之夕歟
이때문에 소인묵객 중 호사자들이	是用騷林墨壇好事之徒
술병을 가지고 나가서	莫不提壺挈榼
다투어 강호에 배를 띄우지 않는 자가 없으니	爭泛江湖者
이 달과 이 날은	蓋以是月與日
해마다 항상 있지만	歲常有焉
이 해는 만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難遇者年
백년이 순식간에 지나가	百歲忽然
아름다운 시기가 어느덧 돌아왔으니	佳期易還

397 지금의…아닙니까 : 소식(蘇軾)의 〈전적벽부(前赤壁賦)〉에 “임술년 가을 7월 16일에 소자가 객과 함께 배를 띄워 적벽강 아래에서 노닐 었다.[壬戌之秋, 七月旣望, 蘇子與客泛舟遊於赤壁之下.]” 하였다.

이때를 놓쳐서는 안됩니다	時不可失
어찌 나를 따라 낙수에서 노닐어	盍從我而游洛
선현의 빼어난 자취를 계승하지 않습니까?”하니	踵前脩之奇蹟
내가 이에 빙그레 치아를 드러내고	余乃听然露矧
응답하여 웃으며 말하기를	應聲而笑曰
“예전에 소식이 노닌 것은	嚮者蘇子之遊
애초에 이 해로 연도를 택한 것이 아니요	初非擇年於今歲
또 오늘 날짜로 밤을 정한 것이 아니며	又非卜夜乎今日
또 적벽으로 승경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又非選勝於赤壁
또 이날 저녁에 흥이 배가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又非倍興於此夕
우연히 전후로 부를 지어	偶然作賦於前後
곧 억만년토록 이름난 고적이 되었으니	便成勝迹於千億
진실로 소식의 훌륭한 명성이 있고	苟有蘇子之名之大
또 소식의 빼어난 재주가 있다면	又有蘇子之才之逸
이 해가 아니더라도	雖非今歲之歲
이 달의 이 날짜가 아니더라도	雖非今月之日
적벽에서 노닐지 않더라도	雖非赤壁之游
노닌 곳마다 이름난 고적이 될 것입니다	隨所遊之勝迹
지금 이미 소식같은 훌륭한 명성이 없고	今者既無蘇子之大名
또 소식같은 빼어난 재주도 없는데	又無蘇子之逸才
단지 그 연·월·일을 애써 인습하여	徒務襲其年月
아름다운 자취를 계승하여 옛일을 회상하고자 하는군요	欲踵美而追懷
비록 술 백 동이를 싣고	雖使載酒百瓮
악대가 열 줄로 늘어서며	鼓吹十行
만 곡을 실을 만한 배를 띄우고	浮萬斛之舟

천 자 되는 돛대를 세워	建千尺之檣
하늘에 가득한 바람을 타고서	乘滿空之風
바다를 덮을 만한 돛을 펼치고	張蔽海之席
창오산 ³⁹⁸ 을 나와 맹저 ³⁹⁹ 에서 떠다니고	出蒼梧而浮孟渚
발해를 스쳐지나 갈석 ⁴⁰⁰ 에서 표류하며	掠渤海而漂碣石
부상과 약목 ⁴⁰¹ 을 지나 봉래와 영주 ⁴⁰² 를 찾아가서	歷桑若兮尋蓬瀛
맑은 바람에 춤추고 밝은 달을 노래하더라도	舞清飈兮歌素月
진실로 소식이 지은 부가 없다면	苟無蘇子之所賦
스스로 과시하는 우물 안 개구리와 같으니	等井蛙之自多
행적이 빼어나고 기이하더라도	迹雖勝而且奇
누가 듣고서 알아주겠습니까	人孰聞而知耶
지금 객은 그 근본을 돌이키지 않고	今客不反其本

-
- 398 창오산 : 중국 호남성(湖南省)에 있는 산으로, 옛날에 순(舜) 임금의 남쪽 지방을 순행하다가 죽어 이곳 기슭에 묻혔다고 전해진다. 《史記 卷1 五帝本紀》
- 399 맹저 : 송나라의 큰 못의 이름으로, ‘孟諸’·‘孟豬’·‘孟潞’라고도 한다. 사마상여(司馬相如)의 〈자허부(子虛賦)〉에 “발해를 떠다니고, 맹제에서 노니네.[浮渤海, 游孟諸.]”라는 구절이 있다.
- 400 갈석 : 옛날 황하가 발해로 들어가는 곳의 북쪽 어귀에 있던 석산(石山)의 이름이다. 우 임금이 이곳의 산하를 정비했다. 또, 진 시황(秦始皇)이 순수(巡狩)하다가 갈석에 이르러 바위에다 공을 새긴 고사가 있다. 《書經 禹貢》《史記 卷6 秦始皇本紀》
- 401 부상과 약목 : 부상은 동녘의 태양이 떠오르는 곳에 있다는 전설상의 나무이다. 약목은 서쪽의 곤륜산 끝 해가 지는 곳에 있는 나무이다. 굴원의 〈이소경(離騷經)〉에 “내 말을 부상에 고삐 매어 두고 약목을 쥘어 해가 지지 못하게 하노라.[總余轡乎扶桑, 折若木以拂日兮.]” 하였다.
- 402 봉래와 영주 : 봉래산(蓬萊山)과 영주산(瀛洲山)으로 방장산(方丈山)과 함께 해중(海中)에 있다는 삼신산(三神山)이다. 모두 신선이 사는 곳이다.

단지 말엽적인 것만 쫓고자 하니	徒欲逐末
객이 겉치레를 좋아하는 것이	客之好名
미혹됨에 가깝지 않습니까	不幾惑歟
하물며 적벽에서 노닌 일로	而況以赤壁之游
소식의 자취를 헤아리건대	揣蘇子之迹
승경을 기록함으로써	欲以記勝
단지 자신의 곤역을 드러내고자 했을 뿐이니	只露其陋
이미 소식에게서 취할 점이 없는데	既無取乎蘇子
또 어찌하여 적벽을 흠모합니까	又何慕乎赤壁
일찍이 생각건대, 중류에서 경치를 완상한 것 ⁴⁰³ 은	嘗念中流翫景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요	出於自然
옛일을 추모하며 감회가 인 것 ⁴⁰⁴ 도	弔古興懷
또한 필연적인 것이었습니다	亦所必然
어찌 인생의 짧음을 스스로 슬퍼하며	何自哀其短生
덧없이 강물을 부러워한단 말입니까 ⁴⁰⁵	漫託羨於江水
이에 한 번 슬퍼했다가 한 번 풀어지는 것은	爰一哀而一寬
부인과 여자에 가깝습니다	近婦人而女子
하물며 맑은 바람은 바람대로	況乎清風自風
밝은 달은 달대로	明月自月

403 중류에서…것 : 소식의 〈후적벽부(後赤壁賦)〉에 “돌아와 배에 올라 중류에 배를 놓아두고 배가 그치는 대로 가서 쉬었다.[反而登舟, 放乎中流, 聽其所止而休焉.]” 하였다.

404 옛일을…것 : 소식의 〈전적벽부〉에서, 객이 적벽에서 조조(曹操)와 주유(周瑜)가 싸운 일을 떠올리며 인생의 덧없음에 슬퍼하였다.

405 어찌…말입니까 : 소식의 〈전적벽부〉에서 객이 “우리 인생이 너무 짧음을 슬퍼하고, 장강의 무궁함을 부러워합니다.[哀吾生之須臾, 羨長江之無窮.]” 하였다.

강은 강대로 산은 산대로	江自江兮山自山
소식은 소식대로 객은 객대로 각자 있는데	蘇自蘇兮客自客
또 어찌 굳이 그것을 취하여 써서	又何必取之而用之兮
자신의 완물로 만든단 말입니까	爲自家之翫物
이에 생사의 갈림길에 구구히 얽매이고	是知區區於死生之際
출처(出處) 사이에 연연함을 알겠으니	屑屑於取舍之間
이것이 내가 소식의 곤액이	此余所以哀蘇子之陋

적벽과 더불어 함께 곤액이 된 것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而竝與赤壁而爲陋者焉耳

나는 이제 대기로 배를 삼고	余方以大氣爲舟
지리로 노를 삼으며	以至理爲楫
검영 ⁴⁰⁶ 으로 뱃사공을 삼고	以黔羸爲蒿工
조화옹으로 빈객을 삼아	以造化爲賓客
크고 넓은 바다의 입구에서 배를 저어	刺乎漭沆之口
혼돈[混茫] ⁴⁰⁷ 의 바다를 건너서	涉乎混茫之洋
적막한 물가에 유유히 종횡으로 내달리고	漑漑橫鶩乎寂寞之濱
무하유지향 ⁴⁰⁸ 에서 두둥실 증류를 떠다녀	汎汎中流乎無何有之鄉

406 검영 : 하늘에 사는 조화(造化)의 신의 이름이다. 혹은 수신(水神)이라고도 한다.

407 혼돈[混茫] : ‘混茫’은 ‘混芒’으로도 쓰는데, 천지가 아직 분화되기 이전 일체의 구분이 없는 혼돈(混沌) 상태를 가리킨다. 《장자(莊子)》〈선성(繕性)〉에 “옛사람들은 구별이 없는 혼돈 속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담박한 삶을 누리고 있었다.[古之人，在混茫之中，與一世而得澹漠焉.]”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408 무하유지향(無何有之鄉) : 유무(有無)와 시비(是非) 등 모든 대립적 요소가 사라진 이상향(理想鄉) 뜻한다. 《장자(莊子)》〈소요유(逍遙遊)〉에서 “지금 자네가 큰 나무를 가지고 있으면서 쓸모가 없다고 걱정한다면, 어찌하여 아무것도 없는 마을[無何有之鄉]의 광막한 들판에

장차 대도의 굴에 돛을 내리고	將落帆於大道之窟
또 현빈의 문 ⁴⁰⁹ 에 닻을 내릴 것이니	且下碇於玄牝之門
어찌 객과 더불어 낙수 가에서 노닐 겨를이 있겠습니까	奚暇與客游洛之濱
더구나 바람이 빨라서 정박할 수 없습니다.”하고	況風利不得泊也
삼가 객에게 작별인사를 하니	謹謝客
객이 이에 민망해하며 낯빛이 변하여	客於是慙然失色
궁벽진 곳으로 물러나서	逡巡避處
이윽고 숨었으니	乃逸而遁
묘연하여 간 곳을 알 수 없었네	杳不知所

다 심어 놓으려고 하지 않는가.”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 409 현빈의 문 : 현빈은 만물을 생성하는 근원인 도(道)를 가리킨다. 노자의 《도덕경(道德經)》 제6장 〈성상(成象)〉에 “곡신은 영원히 죽지 않나니 이것을 현빈이라 하고, 현빈의 문을 천지의 근원이라 한다.[谷神不死, 是謂玄牝. 玄牝之門, 是謂天地根.]” 하였다.

초명⁴¹⁰부

螻蛄賦

작아서 안이 없는 것이	小而無內
작음의 지극함이요	小之至也
안과 밖이 없는 것을	無內與外
무라고 이르네	無之謂也
누가 무 가운데에서 지극히 살펴서	疇至察於無中
억지로 ‘초명’이라 이름하였는가	強名之曰螻蛄
칠원 ⁴¹¹ 에게서 그 족속을 상고해 보건대	考厥族於漆園
조화옹이 애써 정밀하게 한 것이 괴이하도다	怪造化之勞精
하늘의 밝은 명을 받아	受天明命
숲속에 살고 있으니	寓於林叢
유 안에 없고	無於有內
무 가운데 있도다	有於無中
유와 무 사이에 처해 있으니	處於有無之間
명과 실의 밖으로 초월하여	逸於名實之外
지극한 미세함으로써 몸을 삼고	以至微爲一身
지극한 현묘함으로써 세상을 삼네	以至玄爲一世
모기의 눈에 나라를 만들고	國於蚊之眼

410 초명 : 초명은 전설상의 매우 작은 벌레이다.

411 칠원 : 장자(莊子)를 말한다. 장자가 일찍이 몽(蒙)이란 곳에서 칠원(漆園)의 관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부른다. 《史記 卷63 老子韓非列傳 莊子》

모기의 속눈썹에 집을 지어 ⁴¹²	宅於蚊之睫
모기의 눈자위를 사독 ⁴¹³ 으로 삼고	以蚊之眶爲四瀆
모기의 눈썹을 천지사방으로 삼네	以蚊之眉爲六合
떼지어 번식하여	𪔐𪔐戢戢
날마다 새끼 99마리를 낳으나	日生九十九子兮
광대하여 집은 여유가 있고	恢恢乎宅有餘兮
나라는 끝이 없네	國無垓
속눈썹에 초명이 있음을 일찍이 알지 못했으니 ⁴¹⁴	睫曾不知其有物
모기가 어찌 눈으로 볼 수 있겠는가	蚊焉得以眇目
이에 사광의 청력 ⁴¹⁵ 을 다해도 소리가 있음을 분별하지 못하고	是知盡師曠之聰而不能辨其有聲

412 모기의…지어 : 초명은 모기의 눈썹에 깃들어 산다고 한다. 갈홍(葛洪)의 《포박자(抱朴子)》〈자교(刺驕)〉에 “초명이라는 벌레가 모기 속 눈썹에 깃들어 살면서 하늘 가득 날개를 펼치고 나는 대붕을 비웃는다. [蟪蛄屯蚊眉之中，而笑彌天之大鵬。]” 하였고, 《안자춘추(晏子春秋)》〈외편하(外篇下)〉에 안자가 말하기를 “동해에 어떤 곤충이 있는데, 모기 속눈썹에 등지를 틀고 삽니다. 새끼를 기르고 날아다니는데도 모기는 놀라지 않습니다. 신은 그 이름을 몰랐는데, 동해의 어부는 그것을 초명이라고 한답니다. [有東海有蟲，巢於蚊睫，再乳再飛，而蚊不爲驚。臣嬰不知其名，而東海漁者命曰，焦冥。]” 하였다.

413 사독 : 사독은 네 개의 큰 물로 양자강(揚子江)·황하(黃河)·회수(淮水)·제수(濟水)를 이른다.

414 속눈썹에…못했으니 : 《열자(列子)》〈탕문(湯問)〉에 “강가 사이에 작은 벌레가 사니, 그 이름은 초명이다. 무리지어 날아서 모기 눈썹에 모여 살며 서로 저촉하지 않고, 깃들어 살면서 왕래하는데 모기는 깨닫지 못한다. [江浦之間生麼蟲，其名曰焦螟。群飛而集於蚊睫，弗相觸也，栖宿去來，蚊弗覺也。]” 하였다.

415 사광의 청력 : 춘추 시대 진(晉)나라 악사(樂師)였던 사광(師曠)은 귀가 대단히 밝아 음률(音律)을 잘 분별하였다. 《孟子 離婁上》

이루의 시력⁴¹⁶을 다해도 형체가 있음을 살피지 못할 것임을 알겠네 極

離委之目而不能察其有形

또 곡식 한 톨로 대지를 삼고 方且以一粟爲大塊

티끌 하나로 대천세계를 삼으며 以一塵爲大千

모기 속눈썹의 눈물 한 방울로 큰 바다를 삼고 以蚊睫之一涕爲大洋

모기 속눈썹의 털 한 가닥으로 태산을 삼아서 以蚊睫之一毛爲太山

도서의 바깥에서 아득히 떴지어 떠다니고 茫洋衆浮乎島嶼之外

언덕과 구렁 사이에서 소요하며 무리지어 노니네 逍遙群遊乎丘塗之間

그 본성을 다하기에 충분하고 足以盡其性

그 천명을 즐거워 하기에 충분하니 足以樂其天

어찌 인간 세상을 알겠으며 是惡知夫人世

또 어찌 인간 세상에 만물이 있음을 알겠는가

又惡知夫人世之有萬物也哉

아, 嗚呼

큰 것으로 말하자면 自其大者而言之

대붕의 큼으로도 부족하고 則大鵬之大亦不足

작은 것으로 말하자면 自其小者而言之

초명의 작음으로도 여유가 있으니 則螻螟之小亦有餘

또 어찌 대붕 외에 又安知大鵬之外

대붕보다 천만배 더 큰 것이 있으며 又有大於大鵬千萬層兮

초명의 속눈썹에 螻螟之睫

또 초명보다 천만배 더 작은 것이 있을지 알겠는가 又有小於螻螟千萬層

그러나 오늘날의 모기눈썹에 초명이 있음을 각각 깨닫지 못하니

416 이루의 시력 : 원문은 '離委'로 되어있는데, 삼간본(三刊本)에 의거하여 '委'를 '婁'로 바로잡아 번역했다. 이루(離婁)는 시력이 아주 좋았다고 전해지는 고대 전설 속의 인물이다. 《孟子 離婁上》

而各不覺其有蟪蛄如今日之蚊睫

장주가 분변해도⁴¹⁷

而莊周之辨

그 대소를 다 알 수 없었는가

不能盡其大小也哉

417 장주가 분변해도 : 원문은 ‘莊周之辨’인데, 문맥에 근거하여 ‘辨’을 ‘辨’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삼십육궁도시춘부

三十六宮都是春賦

고요히 이슬방울로 주묵을 갈아	靜研朱以滴露兮
《주역》에서 우뚝이 현묘한 이치를 탐색하고 ⁴¹⁸	兀蹟玄於義畫
서로 마찰하고 서로 섞이는 것으로부터	由相摩而相盪
양과 음이 교역함을 헤아리네 ⁴¹⁹	揣剛柔之交易
아, 육십사괘가 서로 미루어 가는 것은	懿六六之互推
하나의 원이 뻗어감에 근원을 두네 ⁴²⁰	原一元之條達

-
- 418 고요히…탐색하고 : 당(唐)나라 고변(高駢)의 〈보허사(步虛詞)〉에 “청계산 도사를 사람들은 알지 못하니, 하늘을 오르내리는 학 한 마리 뿐이네. 동문이 깊이 잠겨 푸른 창이 추운데, 이슬방울로 주묵 갈아 주역에 권점 찍네.[靑溪道士人不識, 上天下天鶴一隻. 洞門深鎖碧窓寒, 滴露研朱點周易.]”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古文眞寶前集 卷4》
- 419 서로…헤아리네 : 《주역》〈계사전 상〉에 “강과 유가 서로 마찰하거 팔괘가 서로 섞여서[剛柔相摩, 八卦相盪.]”고 하였다. 이에 대해 《주역본의》에서는 “이는 역괘(易卦)의 변화를 말한 것이다. 육십사괘(六十四卦)의 시초(始初)는 강(剛)과 유(柔) 두 획일 뿐이니, 둘이 서로 갈려 사(四)가 되고, 사(四)가 서로 갈려 팔(八)이 되고, 팔(八)이 서로 섞여서 육십사괘(六十四卦)가 되었다.”라고 하였다.
- 420 육십사괘가…두네 : 소옹(邵雍) 〈관물음(觀物吟)〉의 “천근과 월궁이 한가이 왕래하는 중에 삼십육궁이 모두 봄이로구나.[天根月窟間往來, 三十六宮都是春.]”라는 구절을 풀이한 것이다. 삼십육궁은 64괘(卦)와 같은 것으로서 64괘 모두가 하나의 봄기운의 연속이라는 뜻이다. 여기서 ‘원’은 곧 봄과 같은 뜻으로, 《현주집(玄洲集)》권13 첫머리에 수록된 〈삼십육궁도시춘부〉에서 “까닭에 하늘에 대해서는 원이라고 하고 사시에 대해서는 춘이라 하고, 형과 이 정이 다르지만 그 용을 살펴보면 하나의 원이며, 여름과 가을 겨울이 다르지만 그 운행을 살펴보면 하나의 봄입니다.[是以在天曰元, 在時曰春, 亨與利貞兮

생기의 활발함을 궁구해 보진대	究生意之活潑
모두 조화로운 춘풍이라네	摠春風之融洽
생각건대 일곱 구멍을 비로소 뚫어 ⁴²¹	緬七竅之肇鑿
천지가 제 자리를 잡았네	位兩儀之清濁
상제가 포희에게 복을 내려	帝降衷乎庖犧
용마가 그림을 등에 지고 황하에서 나왔네 ⁴²²	龍負圖而河出
포희가 공경히 받아 묵묵히 깨달았으니	犧欽受而默符
이에 괘를 이룬 것이 여덟이 있네 ⁴²³	是扌卦焉有八
그은 괘의 교역과 변역을 미루어 알고	推厥畫之交變
삼라만상을 포괄하는 대업 ⁴²⁴ 을 궁구하네	窮富有之大業

雖殊, 究其用則一元, 夏與秋冬兮雖異, 考其行則一春.]” 하였다.

- 421 생각건대…뚫어 : 중앙의 제(帝)인 혼돈이 남해(南海)의 제인 숙(儻)과 북해(北海)의 제인 흘(忽)을 융숭히 대접하자, 숙과 흘이 이에 보답하기 위하여 “사람들은 모두 일곱 구멍이 있어 보고 듣고 음식을 먹고 숨을 쉬는데 이 혼돈은 그것이 없으니, 뚫어 주어야겠다.” 하고, 하루에 구멍 하나씩 뚫으니 7일 만에 혼돈이 죽었다 한다. 《莊子 應帝王》
- 422 상제가…나왔네 : 포희는 전설 중에 나오는 고대의 제왕으로 복희(伏羲)라고도 한다. 복희의 시대에 황하(黃河)에서 등에 1에서부터 10까지의 문양이 그려진 용마(龍馬)가 나왔는데 이것을 하도(河圖)라고 한다. 《周易 繫辭傳上 11章》
- 423 이에…있네 : 복희씨가 하도를 보고 선천팔괘(先天八卦)를 만들었음을 의미한다. 원문의 ‘扌’은 본래 시초점을 치는 방법으로, 《주역(周易)》〈계사전 상(繫辭傳上)〉에 “대연의 수(數)가 50이니, 그 씬은 49이다. 이를 나누어 둘로 만들어 양의(兩儀)를 상징하고, 하나를 걸어서 삼재(三才)를 상징하고, 넷으로 세어 사시(四時)를 상징하고, 남는 것을 늑(扌)에 돌려 윤달을 상징하니, 5년에 윤달이 두 번이므로 두 번 늑한 뒤에 거는 것이다.” 하였다. 여기서의 괘가 이루어진다는 의미로 사용된 듯하다.
- 424 삼라만상을 포괄하는 대업 : 《주역》〈계사전 상(繫辭傳上)〉의 “풍부하게 소유하는 것을 대업이라고 이르고,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성덕

바람이 하늘 아래에 있고 우리가 땅 속에 있으며 ⁴²⁵	風天下兮雷地中
서로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네	互爲父而爲母
이미 어미로써 아들을 잉태하니	既以母而孕男
7일만에 회복하여 후회가 없고 ⁴²⁶	反七日兮無悔
또 아버지로써 딸을 낳으니	又以父而生女兮
유가 강을 만남에 무슨 허물이 있으리오 ⁴²⁷	柔遇剛兮何咎
구괘와 복괘가 서로 생겨남 위대하니	偉姤復之相生兮
월굴과 천근의 뜻 심오하도다	遂月窟與天根
가고 또 돌아와 순환하니	往又返兮環轉
삼십육궁이 서로 얹혀 화합하도다 ⁴²⁸	三十六兮氤氲

이라고 이른다.[富有之謂大業, 日新之謂盛德.]”라고 하였다.

- 425 바람이…있으며 : 구괘(姤卦)와 복괘(復卦)를 가리킨다. 구괘의 괘상(卦象)은 천상풍하(天上風下 ䷫)로 일음(一陰)이 생겨하는 형상이며, 복괘의 괘상(卦象)은 지상뢰하(地上雷下 ䷗)로 일양(一陽)이 생겨나는 형상이다. 주희가 소옹의 〈관물음〉을 풀이하면서 “천근과 월굴은 복괘와 후괘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天根月窟, 指復姤二卦而言.]”라고 하였기 때문에, 조찬한이 이렇게 말한 것이다. 《朱子語類 卷115 訓門人3》
- 426 이미…없고 : 어미는 음을, 아들은 양을 가리키는 것으로, 오음(五陰)의 아래에서 일양(一陽)이 생겨나는 복괘를 뜻한다. 《주역》〈복괘〉의 괘사(卦辭)에 “그 도를 반복하여 7일 만에 와서 회복하니, 가는 바를 둠이 이롭다.[反復其道, 七日來復, 利有攸往.]” 하였다.
- 427 또…있으리오 : 원문의 ‘柔遇剛’은 문맥에 근거하여 ‘遇’를 ‘遇’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여기서 아버지는 양을, 딸은 음을 가리키는 것을, 오양(五陽)의 아래에서 일음(一陰)이 생겨나는 구괘를 뜻한다. 《주역》〈구괘〉의 〈단전(彖傳)〉에 “구는 만남이니, 유가 강을 만난 것이다.[姤遇也, 柔遇剛也.]”하였으며, 상구(上九) 효사(爻辭)에 “만남에 그 뿐이니 부끄러우나 허물이 없으리라.[上九, 姤其角, 吝, 无咎.]”하였다.
- 428 삼십육궁이…화합하도다 : 삼십육궁은《주역》의 육십사괘(六十四卦) 전체를 말하는 것으로 곧 천지를 뜻한다. 이 구절은 천지의 기운

그러나 저것이 가고 이것이 오에	然彼往兮此返
누가 주재하여 그렇게 되도록 하는가	孰主張而使然
아, 유행하는 충만한 원기이니	噫流行之磅礴
하나의 이치의 양능임을 깨닫네 ⁴²⁹	悟一理之良能
저 태양신이 원기를 도와	彼東君之贊元兮
온화한 기운을 부채질하여 따뜻하게 하니	煽和氣以薰蒸
따사로운 동풍을 일으켜	發條風之習習兮
만물에 붙어서 고동시키네	着萬類而鼓動
잠자던 개구리를 깨워 꾸물꾸물 일어나게 하고	開凝蟄而蠢揚
새싹을 틔워 무럭무럭 자라게 하니 ⁴³⁰	暢句茁而敷聳
수천 가지에 붉은 꽃 흰 꽃 피고	花千枝以紅白
온갖 풀에 잎이 질푸르네	葉百卉之青蔥
형체가 있는 것에 닿아 사물을 이루고	觸有形而成物

이 서로 화합하여 만물을 생성함을 의미한다. 《주역》〈계사전 하〉에 “천지의 기운이 얹히고 설킴에 만물이 화(化)하여 엉킨다.[天地綱緼, 萬物化醇.]” 하였다.

- 429 하나의…깨닫네 : 만물의 생성 변화가 봄의 양능에서 비롯된다는 뜻이다. 《현주집》권13 첫머리에 수록된 〈삼십육궁도시춘부〉에 “오행의 상생상극과 만물의 무성함과 시들이 모두 하나의 봄이 자연스레 뻗어나가는 양능임을 안다면, 이것이 치지이고 격물이고 성의이자 정심입니다.[是知四時之周環, 五行之生克, 萬物之榮與悴, 無非一春自然條達之良能, 致知也, 格物也, 誠意正心也.]” 하였다.
- 430 새싹을…하니 : 원문의 ‘句茁’은 ‘句芒’과 같은 의미로 나무를 관장하는 신이다. 여기서는 처음 트는 나무의 싹을 의미한다. 《춘추좌씨전》소공(昭公) 29년에 “나무를 장관하는 신을 구망이라 한다.[木正曰句芒.]” 하였는데, 두예(杜預)의 주에서 “나무가 처음 싹이 나올 때 갈고리처럼 구부정하고 뾰족한 잎이 있음을 취한 것이니, 봄에 중에게 제사지낸다.[取木生句曲而有芒角也. 其祀重焉.]” 하였다. 중(重)은 구망의 다른 이름이다.

생장하는 이치를 드러내어 두루 통하게 하네	著生理而融通
비록 가을과 겨울에 천지가 싸늘해지더라도	縱秋冬之凝閉
또한 일원이 진퇴하는 것이로다	亦一元之進退
일월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⁴³¹	由兩曜之舒慘
온갖 사물의 성쇠를 변화시키니	幻群物之成毀
위대하도다, 성대히 발육함이어	偉洋洋之發育
사시가 모두 하나의 체로다	均四時而一體
그러므로 사계절이 비록 다르지만	故四序之雖殊
하나의 봄을 강으로 삼아 나머지 계절은 목이 되네 ⁴³²	綱一春而爲目
이에 구괘를 미루어 복괘에 이르러 ⁴³³	爰推姤以至復
진원의 순환을 보네	觀眞元之回薄
그 효의 변역을 헤아려	數厥爻之變易
잉어 ⁴³⁴ 의 비늘처럼 질서정연하게 머무르네	止琴高之鱗次

431 일월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 원문의 ‘舒慘’은 장형(張衡)의 〈서경부(西京賦)〉에 “사람이 봄과 여름에는 쾌활하고 즐거우며, 가을과 겨울에는 근심에 젖고 슬퍼한다.[夫人在陽時則舒, 在陰時則慘.]”라고 한 데에서 온 말로, 사계절의 변화를 가리킨다.

432 사계절이…되네 : 《현주집》권13 첫머리에 수록된 〈삼십육궁도시춘부〉에서도 “여름과 가을 겨울이 다르지만 그 운행을 살펴보면 하나의 봄입니다[夏與秋冬兮雖異, 考其行則一春.]” 하였다.

433 구괘를…이르러 :《주역》의 두 괄인 복괘와 구괘의 순환을 들어 음양이 순환하는 원리를 말한 것이다. 동지(冬至)에 한 양(陽)이 처음 생긴 것이 복괘이고, 하지(夏至)에 한 음(陰)이 처음 생긴 것이 구괘이다.

434 잉어 : 원문은 ‘금고(琴高)’로, 잉어를 타고 등선했다는 신선의 이름이다. 그는 금을 잘 타는 이였는데 어느 날 제자들에게 약조하기를 인근 강에 들어가 용의 자식을 타고 모월 모일에 돌아오겠다고 하였다. 약속한 날이 되자 과연 잉어를 타고 나타났으며 달포간 제자들과 머물다 다시 잉어를 타고 물로 돌아갔다고 한다.《列仙傳 琴高》

모두 묵묵히 변화하여 서로 이어지니	儘默化而相承
온갖가지 다른 것이 모두 하나의 이치임을 깨닫겠네	悟萬殊之一理
춘·원과 이·기를 살펴보건대	諒春元與理氣
용은 같으나 체가 다르네	用則同而體異
아, 이 도는 스스로 힘써서	嗟是道之自強
막힘없이 통하여 그치지 않는 데에 있으니 ⁴³⁵	在流暢之不已
만일 털끝만이라도 끊어짐이 있다면	倘毫銖之間斷
어찌 하늘이 덮어주고 땅이 실어 줄 수있겠는가	詎能覆而能載
하늘은 하늘이 되지 못하고	天不可以爲天
《역》은 《역》이 되지 못하리라	易不可以爲易
이에 소옹이 정밀하게 살펴	肆邵翁之妙觀
봄별이 은택을 내리는 것에 비유했네	比春晷之流澤
내가 저것을 미루어 이것을 깨달아	余推彼而悟此
봄이라 하지 않고 인이라 하였네 ⁴³⁶	不曰春而曰仁
아아,	噫噫
요·순·우왕·탕왕·문왕·무왕·공자·맹자의 사업이여	

435 이…있으니 : 《주역》〈상전(象傳) 건괘(乾卦)〉에 “하늘의 운행이 굳세니, 군자가 보고서 스스로 힘쓰고 쉬지 않는다.[天行健, 君子以, 自彊不息.]”라고 보인다.

436 봄이라…하였네 : 《현주집》권13 첫머리에 수록된 〈삼십육궁도시춘부〉에서 김영씨가 말하기를 “대개 그대는 삼십육궁이 모두 봄이라는 것만 듣고 모두 봄이라는 것이 모두 원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모두 봄이라는 것이 모두 원이라는 것만 듣고 모두 원이라는 것이 모두 인이라는 것임을 알지 못하니, 물아가 간격이 없고 천인이 하나의 이치라는 설에 대해 어찌하여 유독 통달하지 못하십니까[蓋吾子徒聞三十六宮之爲都是春, 而不知都是春之爲都是元, 徒聞都是春之爲都是元, 而不知都是元之爲都是仁, 獨不達物我無間而天人一理之說乎?]”하였다.

堯舜禹湯文武孔孟之事業兮

한 사람 한 사람의 황제, 왕, 스승이 한 것이 모두 인이네

一帝一王一師兮都是仁

칠석부

七夕賦

붉은 용에 멩에를 메어 흰 무지개를 헤치고	駕紅龍兮披白霓
노을 수레를 내달려 구름 기를 쫓고 가네 ⁴³⁷	驚霞轂兮載雲旂
은하수 넓어 건널 수 없으니	河之廣兮不可越
내가 그리워하는 이 완전히 중간에 있도다 ⁴³⁸	宛中央兮我所思
어찌 만날 수는 있는데 따라갈 수 없는가	羌可遇兮不可從
어렵게 만나 쉽게 이별하는 것 괴로워하네	苦難會兮易別
아, 오늘 저녁은 어느 저녁인가	噫今夕兮何夕
칠월 칠석이로다	是七月之七日
내 운명 곤궁하니 ⁴³⁹	曰余生之陁陁
얼굴 아름답건만 어째서 운명이 불행한가	紅顏好兮奈命薄
여러 여인들은 나의 미모 질투하고	衆女嫉余之蛾眉兮
또 나의 훌륭한 배필을 시기했네	又妬余之良匹

437 붉은…가네 : 《초사》〈구가 동군(東君)〉의 “용 수레를 모니 우레 같은 소리가 나고 펄럭이는 구름 깃발 쫓고 가네.[駕龍輶兮乘雷, 載雲旂兮委蛇.]”라는 구절을 원용하였다.

438 은하수…있도다 : 만나고 싶으나 만날 수 없어 그리워하는 마음을 나타낸 것이다. 《시경》〈진풍(秦風) 겸가(兼葭)〉의 “이른바 저분, 이 물가 한편에 있도다. 물결을 거슬러 올라 따르려 해도, 길이 막히고 또 멀며, 물결을 따라 내려가 따르려 해도, 완전히 물의 중앙에 있도다.[所謂伊人, 在水一方。溯洄從之, 道阻且長, 溯游從之, 宛在水中央.]”라는 구절을 원용하였다.

439 내 운명 곤궁하니 : 한유의〈감이조부(感二鳥賦)〉에 “내 운명 곤궁하니 이적이 두 새만도 못했네.[余生命之溘陁, 曾二鳥之不如.]” 하였다.

천제께서 나의 진심을 헤아리지 않고 ⁴⁴⁰	皇不揆余之中情
생황같은 교묘한 말을 믿었네 ⁴⁴¹	信如篁之巧說
천제께서 격노하여 벌을 내리시어	皇齎怒而降譴兮
이에 남편은 남쪽에 아내는 북쪽에 갈라 놓으시고	乃夫南而婦北
음란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며	曰無淫而無怠兮
남편은 소를 몰고 아내는 베를 짜라 하셨네	夫可牛而婦織
은혜롭게도 서로 바라보게는 허락하셨으니	恩尙許兮相望
사이에 놓인 은하수 찰랑거리네 ⁴⁴²	隔一水兮盈盈
아, 그대가 모는 소가 우니	嗟爾牽之牟然兮
어느 때나 분연히 수레를 끌고 올까 ⁴⁴³	紛幾時乎服箱
오매불망 님을 그리워하며 남몰래 슬퍼하고 ⁴⁴⁴	耿思君兮陴側
근심스레 베를 짜며 일곱 번 자리를 옮기네 ⁴⁴⁵	愁擲杼兮七襄

440 천제께서…않고 : 《초사》〈이소〉에 “임금께서 나의 진심 살피지 않고 도리어 참소를 믿고서 격노하시네. [荃不察余之中情兮, 反信讒而齎怒.]” 하였다.

441 생황같은…믿었네 : 《시경》〈소아(小雅) 교언(巧言)〉에 “생황과 같은 공교로운 말은 얼굴이 두껍기 때문이니라. [巧言如篁, 顏之厚矣.]” 하였다.

442 사이에…찰랑거리네 : 견우와 직녀를 읊은 고시(古詩) 중에 “찰랑찰랑 은하수 물 사이에 두고, 애뜻하게 바라볼 뿐 말 한마디 못 건네네. [盈盈一水間, 脈脈不得語.]”라는 구절이 있다. 《文選 古詩十九首》

443 어느…올까 : 《시경》〈소아 대동(大東)〉에 “반짝이는 저 견우성, 수레를 끌지 못하다. [睆彼牽牛, 不以服箱.]” 하였다.

444 오매불망…슬퍼하고 : 《초사》〈구가 상군(湘君)〉에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고 숨어서 그대를 그리워하며 남몰래 슬퍼하네. [橫流涕兮潺湲, 隱思君兮陴側.]”하였다.

445 베를…옮기네 : 직녀가 하루 낮 동안에 일곱 번 베를 옮겨서 베를 지다고 한다. 《시경》〈소아 대동〉에 “삼각형의 저 직녀성이, 종일토록 일곱 자리를 옮겨가네. [跂彼織女, 終日七襄. 雖則七襄, 不成報章.]”하였다.

화려하게 빛나는 구름 비단 만드니	成雲錦兮陸離
베틀로 짠 비단 무늬가 찬란하네	爛一機之文章
넘은 옥처럼 아름답고 강은 은처럼 희니	人如玉兮河如銀
끝없이 바라보며 부질없이 애간장만 끊어지네	望不極兮空斷腸
천제께서 나의 그리워하는 마음에 감동하시어	皇格余之相思兮
일년에 한 번 만나도록 허락해 주셨네	許一歲兮一迎
어찌하여 아득한 칠석은	胡悠悠之七夕兮
해마다 단지 하루 뿐인가	只年年兮一日
여름의 낮은 1년처럼 길어	夏之日兮長如年
내 귀밑털 눈처럼 허영게 섰네	曜余鬢兮霜雪
지난 밤에 가을 바람 불어	生金飆於昨夜
인간 세상에 낙엽 하나 떨어졌네 ⁴⁴⁶	落人間之一葉
마침내 별을 보고 일찍 명에를 하여 ⁴⁴⁷	遂星言兮夙駕
길한 날 좋은 때에 나아가네	趁吉日兮辰良
사마가 꿈틀꿈틀 움직이고 육마가 날뛰니	駟躩踞兮六沛艾
구름수레 내달리며 흰 치맛자락 끌고 가네	飄雲轡兮曳皓裳
아, 내가 은하수 다리를 건너자	蹻余涉兮河之橋
까마귀와 까치가 날아 남북으로 늘어서네	烏鵲飛兮北南
또한 은하수 가운데 섬에서 이미 만났으니	亦既邁兮水中沚

446 인간…떨어졌네 : 장뢰(張耒)가 칠석(七夕)을 노래한 시에 “인간 세상에 오동잎 하나 나부끼며 떨어지니, 옥수(蓐收)가 가을을 운행하여 북두칠성 자루를 되돌리네.[人間一葉梧桐飄, 蓐收行秋回斗杓.]” 하였다. 《柯山集 卷3 七夕歌》

447 별을…하여 : 《시경》〈용풍(鄘風) 정지방중(定之方中)〉에 “단비가 이미 내렸거늘, 수레 모는 사람에게 명하여, 별을 보고 일찍 명에하여 상전에 나아가서 멈추었다.〔靈雨既零, 命彼倌人, 星言夙駕, 說于桑田.〕” 하였다.

근심을 그치고 웃으며 이야기 나누네	罷愁思兮笑談
내 결옥을 은하수 북쪽에 던지고	捐余玦兮水北
내 패옥을 은하수 북쪽에 풀어 놓네 ⁴⁴⁸	遺余佩兮水陽
그대와 손을 마주잡고 눈을 바라보니	子交手兮凝睇
금슬을 타는 것처럼 즐거움 그지없네	鼓瑟琴兮樂未央
어찌하여 오래 머물 수 없는가	羌不可乎久留
즐거움 다하지 않았는데 근심이 끝이 없네	樂未央兮愁未極
근심이 끝이 없건만 어찌 할 수 있겠는가	愁未極兮可如何
이 날은 소중히 여길 만하네	足可惜兮此日
아득한 훗날의 기약 어느 날인가	邈後期兮何日
또 내년의 이날이라네	又明年兮此日
아, 일월의 운행엔 법칙이 있으니	噫日月之有度兮
아녀자의 깊은 정에 괴로워하네	苦兒女之多情
그러나 영원히 과부인 항아 ⁴⁴⁹ 는	然姮娥之永寡兮
백년에 하루라도 있기를 선망하네	羨一日於百齡
비록 1년에 한 번 만나더라도	縱一歲而一逢
또한 만난 날 천지처럼 무궁하도다	亦天地之無窮
갑자기 별이 흩어지고 비가 흩어지듯 헤어져 ⁴⁵⁰	忽星離而雨散兮

448 내 결옥을…놓네 : 굴원이 쫓겨난 뒤에 임금이 자신을 다시 불러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예물로 패옥(佩玉)을 물가에 풀어 놓은 데서 온 말로, 상대방이 자신을 다시 불러주기를 바란다는 의미이다. 《초사 구가》〈상군〉에 “내 결옥을 강중에 버리고, 내 패옥을 풍포에 풀어 놓으리.[捐余玦兮江中, 遺余佩兮澧浦.]”라고 하였다.

449 영원히 과부인 항아 : 두보의 〈월(月)〉에서 달빛을 두고 “항아의 과부가 된 심정을 짐작하노니, 추우 날 깊은 가을을 어이할거나.[斟酌姮娥寡, 天寒奈九秋.]” 하였다.

450 갑자기…헤어져 : 만났다가 금방 헤어짐을 비유한 것이다. 이백(李白)의 〈억구유기초군원참군(憶舊遊寄譙郡元參軍)〉에 “잔치 자리 우리

옛 베틀이 있는 쓸쓸한 궁전으로 돌아갔네	訪舊機兮寒宮
눈물이 쏟아져 가슴에 스며드니	涕流離兮交臆
인간 세상은 이 때문에 비바람이 치네	人寰爲之風雨
은하수 뗏목에 기대어 이야기를 듣고 ⁴⁵¹	憑漢槎而聞說兮
칠석을 읊조려 부를 짓노라	詠七夕以爲賦

의기 하늘을 찌렀는데, 별이 흩어지고 비가 흩어지듯 아침도 못 가서 헤어졌네.[當筵意氣凌九霄，星離雨散不終朝]” 하였다.

- 451 은하수…듣고 : 한(漢)나라 장건(張騫)의 고사를 가리킨다. 한 무제(漢武帝)가 장건으로 하여금 대하(大夏)에 사신으로 가서 황하(黃河)의 근원을 찾게 하였는데, 장건이 뗏목을 타고 가 은하수에 도착하여 견우(牽牛)와 직녀(織女)를 만났다고 한다. 《荊楚歲時記》

나지묘⁴⁵²부

羅池廟賦

담장이 무너지고 층계가 마멸되었으며 등나무가 휘감고 있으니

牆崩級夷兮藤絡之

사당 모습 어둑하여 근심이 운집하도다

廟貌暝兮愁雲集

청설모가 뛰어다니며 옛 기와에 숨고

蒼鼠跳梁兮竄古瓦

날다람쥐가 또 들보 북쪽에서 휘파람을 부네

鼯又嘯乎梁北

나무하고 돌아오는 이를 만나 물어보니

得樵歸而就詰兮

유후의 사당이라 대답하네

仰柳侯之攸宇

유후를 어찌서 여기에 제사지내는가

侯胡爲乎此妥

하동의 이름난 집안의 자손이거늘

系河東之名譜

두각을 우뚝히 드러냈던 시절부터

自頭角之巉然

유씨 집안에 훌륭한 아들이 있다고 일컬어졌으니

稱柳氏之有子

공업을 단번에 성취할 수 있다 여겼고

謂功業之立取

아버지가 생존할 때 선대의 훌륭한 덕업을 계승했네⁴⁵³

逮父時而趾美

452 나지묘 : 나지묘는 유종원(柳宗元)의 사당이다. 유종원이 유주자사(柳州刺史)를 지낸 적이 있기 때문에, 유주 지역의 나지(羅池)라는 연못 옆에 유종원의 사당을 지었다.

453 두각을…계승했네 : 한유(韓愈)의 <유자후묘지명(柳子厚墓志銘)>에 “아버지가 계실 때에 비록 소년이었으나 이미 스스로 성인이 되어서 진사에 급제하여 우뚝히 두각을 드러내니, 사람들은 유씨 집안에 훌륭한 아들을 두었다고 말하였다.[逮其父時，雖少年已自成人，能取進士第，巉然見頭角.]”라고 한 것과 “자후는 예전 소년 시절에 남을 위하는 일에 용감하여 자신을 귀중히 여기거나 돌보지 않았으며, 공업을 단번에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子厚前時少年，勇於爲人，不自貴重顧藉，謂功業可立就.]”라고 한 것을 원용한 것이다.

아, 나이는 어렸으나 뜻은 날카로웠니	嗟齒少而志銳
마침내 고고히 행동하여 형벌을 받았네	竟高步而致躓
이에 유주로 좌천되었으니 ⁴⁵⁴	爰禦魑兮柳之州
그 고을은 천만 리 길 떨어진 곳이었네	路千萬兮其里
유주 백성을 하찮게 여기지 않고 예법으로 다스려	不鄙夷而禮法兮
고을이 평안하고 번성하게 되었네 ⁴⁵⁵	致康和而殷富
유후가 명을 내리면 백성들이 권면하여 따랐으니 ⁴⁵⁶	苟有令焉勸趨
백성들이 공은 우리의 아버지라 하였네	民謂公兮吾父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어찌 끝이 있었겠는가마는	懷故國兮曷已
도성문 지날 기약이 없었네	路脩門兮無日
묵여있는 근심 풀지 못하고	思結輜而不洩兮

454 이에…좌천되었으니 : 원문의 ‘어매(禦魑)’는 어리매(禦螭魑)의 준말로, 유종원이 왕비(王伉)·왕숙문(王叔文)의 당에 연좌되어 유주 자사(柳州刺史)에 좌천된 것을 가리킨다. 유순(舜)이 요(堯) 임금의 신하가 된 뒤에 “네 홍족인 혼돈과 궁기와 도올과 도철을 귀양 보내 사방 변방으로 내쳐 도깨비의 재앙을 막게 하였다.〔流四凶族，渾敦窮奇檮杌饕餮，投諸四裔，以禦螭魑。〕”라는 말이 있다. 《春秋左氏傳 文公18年》

455 유주…되었네 : 한유의 〈유주나지묘비(柳州羅池廟碑)〉에 “유후는 고을을 다스릴 적에 그 백성들을 하찮게 여기지 않고 모든 것을 예법(禮法)으로 하니, 3년만에 백성들은 각자 공지를 갖고 분발하여 말하기를 ‘이 땅은 비록 경사(京師)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나 우리들은 또한 하늘의 백성이다. 이제 하늘이 다행히 어진 자사(刺史)를 내려주셨으니, 만일 교화되어 복종하지 않으면 우리들은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여, 이에 노소(老少)들이 서로 가르쳐주고 말하여 유후의 명령을 어기는 이가 없었다.” 하였다.

456 유후가…따랐으니 : 한유의 〈유주나지묘비〉에 “무릇 명령의 시기를 백성들이 권면하여 따라서 뒤늦거나 먼저 함이 없어 반드시 제때에 하였다.” 하였다.

뜻을 품고도 ⁴⁵⁷ 낙척해 있는 것을 개탄했네	慨齋志而淪沒
아, 혼령이 어둡지 않아	噫精爽之不昧兮
위충과 구양익에게 자신은 장차 죽을 것이라 말하였는데	語歐魏以將死
과연 죽은 뒤에 신이 되어	果其死而爲神兮
또 구양익의 꿈에 나타나 자신을 제사지내라 하였네 ⁴⁵⁸	又夢翼以祀我
사당이 나지에 완성되자	廟遂成兮羅池
배에 두 깃발을 꽂고서 유후가 왔도다	船兩旗兮侯來
유후가 망아지를 타고 사당에 들어오니	來乘駒兮以入廟
파초와 여지는 향기롭고 혼령이 배회하도다 ⁴⁵⁹	蕉荔香兮靈徘徊
아름다운 자리를 깔고 옥 누름돌로 누르고서 ⁴⁶⁰	陳瑤席兮玉璫

457 뜻을 품고도 : 원문은 ‘慨齋志’인데, 문맥에 근거하여 ‘齋’를 ‘齋’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458 혼령이…하였네 : 한유의 〈유주나지묘비〉에 “유종원이 부장(部將)인 위충(魏忠)·사녕(謝寧)·구양익(歐陽翼)과 술을 마시면서 이르기를 ‘나는 세상에서 버려져 이곳에 붙여 있어서 너희들과 좋게 지내고 있는데, 내년에 나는 장차 죽을 것이다. 내가 죽으면 신(神)이 될 것이니, 3년 후에 사당을 지어 나를 제사하라.’하였는데, 과연 그 시기가 되자 유종원은 세상을 떠났다 죽었다. 죽은 지 3년 뒤에 유종원의 혼령이 구양익의 꿈에 나타나, ‘나를 나지(羅池)에 모셔라.’ 하였다.”는 내용이 있다.

459 사당이…배회하도다 : 한유의 〈유주나지묘비〉에 “여지는 붉고 파초는 누르니, 여러 안주와 채소를 섞어 유후의 당에 올리노라. 유후의 배에 두 깃발이 꽂혀 있으니 증류를 건넌에 바람 때문에 정박해 있도다. 유후를 기다려도 오지 않으시니, 우리 슬픔을 모르시도다. 유후가 망아지를 타고 사당으로 들어오시니, 우리 백성들을 위로하여 찌푸리지 않고 웃게 하도다.” 하였다.

460 아름다운 자리…누르고서 : 〈초사〉〈구가(九歌) 동황태일(東皇太一)〉에 “아름다운 자리에 옥 누름돌로 눌러 났으니, 어찌 향기로운 풀을 가져오지 않으리오[瑤席兮玉璫, 盍將把兮瓊芳]” 하였다.

느긋이 북채를 들고 편안하게 노래 부르네 ⁴⁶¹	徐揚枹兮且安歌
무녀가 가벼운 몸짓으로 덧옷을 걷어 올리니	舞體輕兮褰褰績
혼령이 우아하게 춤추며 운거를 따라가네 ⁴⁶²	靈偃蹇兮從雲車
날이 이미 길하고 때도 좋으니	日既吉兮辰良
술과 희생을 올리자 향기롭네 ⁴⁶³	登酒牲兮芳菲
혼령이 바람이 되고 또 비가 되며	靈爲風兮又爲雨
원숭이와 함께 읊조리고 학과 함께 날도다 ⁴⁶⁴	猿與吟兮鶴飛
우리 혼령을 감히 모욕하는 이 누구인가	孰我靈之敢侮
취해서 거만한 짓을 하다 죽은 과객이라 ⁴⁶⁵	有醉死之過客
영험하고도 신령스러운 위대하도다	偉既靈而且神兮

461 느긋이…부르네 : 《초사》〈구가 동황태일〉에 “북채 들어 북을 치고 느긋한 리듬에 맞추어 편안하게 노래부르네.[揚枹兮拊鼓, 疏緩節兮安歌.]” 하였다.

462 혼령이…따라가네 : 《초사》〈구가 동황태일〉에 “아리따운 옷을 입은 무당이 우아하게 춤추네.[靈偃蹇兮姣服.]”라는 구절이 있다. 왕일의 주에서는 ‘靈’은 신령이 몸에 강림한 무당을 가리키는 것이라 하였는데, 여기서는 유종원의 혼령으로 보았다. 한편, 운거(雲車)는 신선이 타고 다닌다고 하는 수레이다.

463 술과…향기롭네 : 《초사》〈구가 동황태일〉의 “길한 날 좋은 시절에 삼가 상제를 즐겁게 해드리려 하네.[吉日兮辰良, 穆將愉兮上皇.]”라는 구절과 “혜초로 제사 고기를 싸고 난초를 바닥에 깔며, 계수나무로 술과 산초 술을 올리네.[蕙肴蒸兮蘭藉, 奠桂酒兮椒漿.]”라는 구절을 원용한 것이다.

464 혼령이…날도다 : 한유의 〈유주나지묘비〉에 “유후가 아침에 나가 놀다가 저녁에 돌아오시니, 봄에는 원숭이와 함께 읊고 가을에는 학과 함께 날도다.[侯朝出遊兮暮來歸, 春與猿吟兮秋鶴與飛.]” 하였다.

465 우리…과객이라 : 한유의 〈유주나지묘비〉에 “그 달 병진일에 사당이 이루어졌으니, 크게 제사를 지냈다. 이때 과객 이의가 술에 취하여 당상에서 엽신여기고 거만한 짓을 하다가 병을 얻고는 부축하여 사당 문을 나와 즉사하였다.[其月景辰廟成, 大祭. 過客李儀醉酒, 慢侮堂上, 得疾, 扶出廟門卽死.]” 하였다.

사당안을 바라보니 현묘하고 엄숙하네	瞻棟宇兮玄肅
내가 천년 뒤에 아득히 생각건대	余千載兮遐想
오직 공을 위해 영원히 안타까워하네	獨爲公而永惜
이처럼 현명한 재주로	以如此之賢才
당시의 조정에 섰을 때	立當日之朝廷
어찌 저 간신에게 들러붙어	胡炙手於彼儉兮
쫓아야 할 상도(常道)에 어두웠는가 ⁴⁶⁶	昧趨向之常程
만일 대성에 있을 때 삼가고 경계하기를	倘在省而謹飭
이미 자사로 있을 때처럼 할 수 있었다면 ⁴⁶⁷	已能如乎刺史
나지에서 제삿밥을 먹지 않더라도	雖不食乎羅池
어찌 유후의 신이 영원히 굶주리겠는가	豈俟神之永餒
한창려와 나란히 높이 날아올라	參昌黎而翱翔兮
성현의 사당에 배향될 수 있었으리라	庶配饗乎聖祀
하물며 백성들을 놀라 움직이게 하고 화와 복을 주었다는 것 ⁴⁶⁸ 은	
	矧驚動而禍福兮

-
- 466 이처럼…어두웠는가 : 간신은 당 순종(唐順宗) 때 간신(奸臣)이었던 왕비(王伾)와 왕숙문(王叔文)을 가리킨다. 당시 유종원(柳宗元)과 유우석(劉禹錫)이 왕비와 왕숙문에게 붙었던 것을 말하는데, 뒤에 헌종(憲宗)이 즉위하여 왕숙문의 도당을 미워하여 유종원을 귀양 보냈다.
- 467 만일…있었다면 : 한유의 <유자후묘지명>에 “가령 자후가 대성에 있을 때에 스스로 몸가짐을 이미 사마와 자사로 있을 때처럼 하였다면 또한 절로 배척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使子厚在臺省時，自持其身，已能如司馬刺史時，亦自不斥.]” 하였다.
- 468 백성들을…것 : 한유의 <유주나지묘비>에 “나는 생각건대, 유후는 살아서는 그 백성들에게 은택을 내리고, 죽어서는 백성들을 경동시키고 화와 복을 주어 그 땅에서 제사를 받아먹고 있으니 신령스럽다고 이를 만하다.[余謂柳侯，生能澤其民，死能驚動禍福之，以食其土，可謂靈也已.]” 하였다.

일찍이 군자에게서는 들은 적이 없음에라	曾未聞乎君子
맹자의 고향과 공자의 고향과	鄒之郊兮魯之原
염락과 관민 ⁴⁶⁹ 에서는	暨濂洛與關閩
이미 성현이 살아계실 적엔 영광스러워하고 돌아가시자 애도했으니 ⁴⁷⁰	既生榮而死哀兮
어찌 무당에게 기대어 백성을 미혹시키리오	寧假巫而惑民
군자는 종묘사직에 배향되어 영원히 세워져서	配宗社以永建兮
일월과 함께 밝게 강림하는데	與日月而昭格
유종원은 어찌 황폐한 사당에 스스로 의탁하여	肯自托於荒祠兮
도리어 무덤가의 덩불 나무와 함께 돌아갔는가	反同歸於叢櫟
그러나 시대가 내려와 풍속이 쇠퇴하여	然世降而俗末兮
벗을 사귀는 도가 회복되지 않음을 애통해하여	痛交道之不復
유주를 파주와 바꾸기를 원했다는 한 구절 ⁴⁷¹ 로	願以柳易播之一節
쇠미한 말세의 탄복을 일으켰노라	起衰季之歎服

469 염락과 관민 : 염(濂)은 염계(濂溪)에 거주하던 송학(宋學)의 비조(鼻祖) 주돈이(周敦頤)를, 낙(洛)은 낙양(洛陽)에 거주하던 정호(程顥)·정이(程頤)를, 관(關)은 관중(關中)에 거주하던 장재(張載)를, 민(閩)은 민중(閩中)에 거주하던 주희(朱熹)를 지칭하는 말로, 곧 정주학(程朱學)을 의미한다.

470 성현이…애도했으니 : 《논어》〈자장(子張)〉에 “살아 계시면 영광스럽게 여기고, 돌아가시면 슬퍼한다.〔其生也榮, 其死也哀.〕”고 하였다.

471 유주를…구절 : 한유의 〈유주나지묘비〉에 “유주를 파주와 바꾸기를 원했다.〔願以柳易播〕”는 구절이 있다. 유종원이 경사로 불러왔다가 다시 유주 자사가 되었을 때 벗인 유우석(劉禹錫)이 파주 자사가 되었다. 그러자 유종원은 모친을 모시고 있는 유우석이 척박한 파주에 부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자신이 유우석 대신 파주 자사로 가겠으니 유우석은 유주 자사로 부임하게 해달라고 울며 청한 일이 있다.

거부

車賦

험난할 큰 길을 따라가며	遵達道之遘邊
오고가는 말과 소를 살펴보건대	閱去馬與來牛
모두 노역에 복무하여 멀리까지 가니 ⁴⁷²	咸服役而致遠兮
땅에 쓰이는 공효는 짝할 것 없네 ⁴⁷³	功地用之莫儔
너 수레를 모는 공효가 어찌 다르겠는가	胡爾御之殊科
수레의 두 바퀴가 달리는 소리 덜컹덜컹	騁雙轂之麟麟
바람이 부는 듯 우레가 움직이는 듯 신속한 모습 돌아보니	眷風行眷風行而雷運
마치 귀신이 보호하고 채찍질하는 듯하네	若鬼護而神鞭
문노니, 이 제도를 처음 만든 이 누구인가	問誰創乎此制
생각건대 현원씨가 만든 것이라	緬軒后之攸作
육지의 수송에 편하게 쓸 것을 생각하여	思便用於陸輸
비로소 산에 나아가 가장 큰 나무를 가져왔네	肇就山而冠木
이에 그것을 도끼질하여 끌고 와서	爰斧彼以鉅彼
먹줄을 대고서 조각을 하고	按繩墨而削剗
긴 것과 짧은 것 굽은 것과 곧은 것을 마름질하여	裁長短而曲直

472 모두…가니 : 《주역》〈계사전 하(繫辭傳下)〉에 “소를 부리고 말을 타고서 무거운 것을 지고 먼곳까지 이르러 천하를 이롭게 한다.〔服牛乘馬，引重致遠，以利天下。〕”라는 내용이 있다.

473 땅에…없네 : 《사기(史記)》 권30 〈평준서(平準書)〉에 “하늘에 쓰이는 것은 용만 한 것이 없고, 땅에 쓰이는 것은 말만 한 것이 없으며, 사람에게 쓰이는 것은 거북만 한 것이 없다.〔天用莫如龍 地用莫如馬 人用莫如龜〕” 하였다.

이리저리 짜맞추었네	以縱橫而離合
바퀴 겉모양을 둥글게 하여 하늘을 본뜨고	輪外員而體天
찾간은 네모지게 하여 땅을 본받았으니	箱內方而則地
각 부분을 가로대·수레 앞턱 나무·바퀴살·바퀴와	曰杠柂與輻員
끝채 끝 썩기·멍에·끝채·바퀴굴대라 이름하였네	暨輓輓與輓軌
섞어서 옆에 세우고 서로 설치하여	紛旁豎而互設
각각 서로 붙잡고 기능을 발휘하네	各持持而職職
못에선 바퀴를 얹게 하고 산에선 바퀴 위아래를 갈게 하며 ⁴⁷⁴	澤用抒而山倅
내려갈 적엔 현으로 하고 올라갈 적엔 지로 하노라 ⁴⁷⁵	下乃輶而上輶
굴대는 항상 가운데에 있어 구르는 것을 관장하고	軸恒中而司轉
소 ⁴⁷⁶ 는 안을 지켜 견고하게 붙잡네	蚤衛內而攝固
이미 기름을 발라 윤이 나게 하고	既脂膏以塗澤
또 가슴걸이로 끌면서 호송하네	又鞅鞅以牽護
이에 무거운 짐을 싣고서 멀리 가니	爰載重而涉遠

474 못에선…하며 : 《주례(周禮)》〈고공기(考工記)·윤인(輪人)〉에 “무릇 바퀴를 만들 적에 못을 다니는 것은 깎아서 얹게 하고자 하고 산을 다니는 것은 앞뒤를 똑같이 하고자 한다.[凡爲輪, 行澤者欲抒, 行山者欲倅.]” 하였다.

475 내려갈…하노라 : 현(輶)은 앞이 높고 뒤가 낮은 수레를 가리키고, 지(輶)는 앞이 낮고 뒤가 높은 수레를 가리킨다. 《시경(詩經)》〈소아(小雅) 유월(六月)〉에 “용거가 이미 편안하니 지와 같고 현과 같다.[戎車既安, 如輶如輶.]”라는 구절이 있다.

476 소 : 소(蚤)는 바퀴살의 장부(나무 끝을 구멍에 맞추어 박기 위하여 깎아 가늘게 만든 부분)가 바퀴통에 들어가는 부분을 가리킨다. 《주례》〈고공기·윤인〉에 “바퀴를 만들 적에 경을 보는 것은 소를 바르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爲輪, 視其輻, 欲其蚤之正也.]”라 하였는데, 정현의 주에서, “소는 조가 되어야 하니, 바퀴살 끝이 바퀴통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이른다.[蚤當爲爪, 謂輻入牙中者也.]” 하였다.

말로써 몰기도 하고 혹 소로 몰기도 하네 ⁴⁷⁷	御以鬣兮或角
이는 사해에 걸쳐 똑같은 것이니	亘四海而攸同
만세토록 바뀌지 않네	垂萬祀而不易
상거는 왼쪽을 비워서 혼령을 편안하게 하고 ⁴⁷⁸	祥曠左以妥神
용거를 또 만들어 소거와 혁로가 있네 ⁴⁷⁹	戎又造兮巢革
다만 여교(輦輶)와 연로(輦輅)는	惟輦輶與輦輅
모두 이것을 미루어 부연해 보탠 것이네	舉推此而演益
지남거를 몰아 치우를 없앤 일 ⁴⁸⁰ 흠모하고	慕南指而蚩亡
동쪽으로 천도하여 주나라가 쇠한 일 탄식하네	嘆東轍而姬衰
수레에 내려 죄인을 보고 울었던 일 ⁴⁸¹ 몇 번이나 생각했던가	

477 이에…하네 : 《주역》 〈계사전 하(繫辭傳下)〉에 “소를 부리고 말을 타고서 무거운 것을 지고 먼곳까지 이르러 천하를 이롭게 한다.[服牛乘馬, 引重致遠, 以利天下.]”라는 내용이 있다.

478 상거는…하고 : 상거(祥車)는 죽은 이가 생전에 타던 수레로, 장례 때 혼거(魂車)로 쓴다. 《예기(禮記)》 〈곡례 상(曲禮上)〉에 “상거는 왼쪽을 비우니, 군주가 타는 수레를 탈 적에는 감히 왼쪽을 비워 두지 않으며 왼쪽에 있으면 반드시 식을 한다.[祥車曠左, 乘君之乘車, 不敢曠左, 左必式.]”고 하였다.

479 용거를…있네 : 소거(巢車)는 수레 위에 망루를 설치하여 적군을 정찰할 수 있게 만든 수레이다. 혁로(革路)는 왕의 다섯가지 수레[五路] 가운데 하나로, 일종의 병거(兵車)이다. 《春秋左氏傳 成公 18年》《周禮 春官 巾車》

480 지남거를…일 : 지남거(指南車)는 수레 위에 신선의 목상(木像)을 얹어 그 손가락이 늘 남쪽을 가리키게 만든 수레이다. 황제(黃帝)가 탁록(涿鹿)에서 치우(蚩尤)와 싸울 때, 지남거를 만들어 싸워서 티우를 사로잡아 죽였다는 기록이 《사기(史記)》 권1 〈오제본기(五帝本紀)〉에 전한다.

481 수레에…일 : 《설원(說苑)》 〈군도(君道)〉에 “우왕(禹王)이 외출하여 죄인을 보자 수레에서 내려 물어보고는 눈물을 흘렸다.[禹出見罪人, 下車問而泣之.]”라는 내용이 보인다.

후거에 스승을 태웠던 일⁴⁸²을 일찍이 흠모했었네 後曾仰乎載師
 위문후가 현자의 마을에서 공경을 표한 것은 마땅하나⁴⁸³ 魏直敬乎賢閭
 월왕은 어찌하여 성난 개구리에게 경례하였는가⁴⁸⁴ 越胡禮於蛙鬪
 도산에서 방풍씨의 뼈가 수레에 가득찼던 일 비웃고⁴⁸⁵ 晒塗山之骨專
 사구에서 비린 생선을 수레에 실었던 일에 침을 뱉네⁴⁸⁶ 唾沙丘之魚臭

- 482 후거에…일 : 문왕(文王)이 점을 쳐 길조(吉兆)를 얻고 사냥을 나갔다가, 위수(渭水) 가의 반계(磻溪)에서 낚시하고 있는 당시 80세인 강태공을 만나고서 그를 후거(後車)에 싣고 돌아와 재상으로 삼은 일을 가리킨다. 《史記 卷32 齊太公世家》
- 483 위문후가…마땅하나 : 위 문후(魏文侯)는 어진 자들을 사우(師友)로 삼았는데, 단간목(段干木)의 마을을 지날 때 수레의 횡목을 잡고 몸을 굽혀 예를 표한[軾閭] 고사가 유명하다. 《呂氏春秋 期賢》
- 484 월왕은…경례하였는가 : 월왕(越王)이 구천(句踐) 오(吳)나라를 치고자 하여 사람들에게 죽음을 가볍게 여기게 하려고, 노한 두꺼비를 꺼내어 경례[軾]를 하고, 그 노기만 것을 칭찬하였다는 고사가 전한다. 《한비자》〈내저설 상(內儲說上)〉에 “월왕 구천이 오나라를 공격할 계획을 할 때에 사졸들의 용기를 북돋울 방법을 생각하여, 성을 낸 개구리를 보고 식(軾)을 하여 경의를 표하였다. 종자(從者)가, ‘개구리에게 어찌하여 경의를 표합니까?’ 하니, 구천이, ‘용기가 있기에 때문이다.’ 하였다.”는 내용이 보인다.
- 485 도산에서…비웃고 : 우(禹)임금이 일찍이 회계(會稽)의 도산(塗山)에서 천하의 제후들에게 조회 받을 적에 방풍씨(防風氏)가 맨 뒤에 도착했다. 우 임금은 천자의 명을 어긴 죄로 방풍씨를 베어 죽였는데, 방풍씨의 신장이 커서 그의 뼈마디 하나만으로도 수레 하나가 가득 찼다고 한다. 《史記 卷2 夏本紀》
- 486 사구에서…뱉네 : 진 시황이 동순(東巡) 하다가 중도에 사구(沙丘)의 평대(平臺)에서 죽었는데, 따라갔던 그의 작은 아들 호해(胡亥)가 음모를 꾸미느라 수도에 갈 때까지 진 시황의 죽음을 비밀에 붙였다. 시체에서 썩는 냄새가 나므로 수레에 냄새가 많이 나는 포어(鮑魚)를 실어서 시체 냄새를 감추었다. 《史記 卷6 秦始皇本紀》

수레의 끌채를 옆에 낀 일에서 송의 힘을 보았고 ⁴⁸⁷	見宋力於挾輶
수레에 뛰어올라 탄 일에서 공손초의 용맹을 알았네 ⁴⁸⁸	識楚勇於超乘
수레의 비녀장을 던져 손님을 머무르게 하기도 하고 ⁴⁸⁹	或投笄而客留
우물을 엿보아 수명이 늘어나기도 하였네 ⁴⁹⁰	或窺井而壽增
경적에 섞여 나오는 내용을 살펴보건대	考雜出於經籍
쓰임이 넓고 공효가 빛나는 것 훌륭하도다	偉用廣而功彰
진실로 수레의 제도에 합당하면	苟合制而中度

- 487 수레의…보았고 : 원문의 ‘송(宋)’이 누구를 가리키는 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수레의 끌채를 옆에 낀다[挾輶]는 것은 무용(勇武)이 뛰어난 것을 비유한 것으로, 영고숙(穎考叔)의 고사가 유명하다. 춘추 시대에 정백(鄭伯)이 허(許)나라를 치려고 군사들에게 병기를 나누어 주는데, 공손알(公孫闕)과 영고숙이 전차(戰車)를 가지고 서로 다투다가 영고숙이 수레의 끌채를 옆에 끼고 달아나자, 공손알이 창을 빼 들고 그를 쫓아갔으나 따라잡지 못했다. 《春秋左氏傳 隱公11年》
- 488 수레에…알았네 : 공손초(公孫楚)가 정(鄭)나라 서오범(徐吾犯)의 누이에게 장가들기 위해 이미 빙문(聘問)하였는데, 공손 흑(公孫黑)이 강제로 납채(納采)를 하였다. 서오범이 겁이 나서 이 사실을 정자산(鄭子產)에게 고하자, 정자산은 서오범의 누이로 하여금 공손초와 공손흑을 초청하여 행동거지를 살핀 뒤에 신랑을 직접 선택하게 하라고 하였다. 서오범의 누이가 공손초와 공손흑을 초청했는데, 공손초가 군복을 입고 들어와서 좌우를 향해 화살 두 대를 쏘고는 뛰어올라 수레를 타고서 나가자, 서오범의 누이는 공손초의 용맹함에 탄복하여 그를 신랑으로 간택했다. 《春秋左氏傳 魯昭公 元年》
- 489 수레의…하고 : 한(漢)나라 진준(陳遵)은 술을 좋아하여 매번 성대한 술잔치를 열고, 빈객이 집에 가득 차면 대문을 잠그고 빈객들의 수레 빗장을 뽑아 우물에 빠뜨림으로써 돌아가지 못하게 했다고 한다. 《漢書 卷92 游俠傳 陳遵》
- 490 우물을…하였네 : 팽조가 매사에 삼가고 조심하여 장수했다는 말이다. 소식(蘇軾)의 글에 “팽조가 우물을 들여다볼 때에는 큰 나무에 자기 몸을 묶고 수레바퀴로 우물을 덮은 다음에야 감히 내려다보았다. [彭祖觀井, 自係大木之上, 以車輪覆井, 而後敢觀.]”라는 내용이 실려 있다. 《東坡全集 卷66 代滕甫論西夏書》

마땅히 사방에 이로움이 행해지리	宜利行乎四方
그러나 수레를 모는 데 도가 있으니	然御驅之有道
괴롭게도 엎어지는 데에는 일정함이 없네	苦顛仆之無常
옛날의 현명한 임금의 이를 두려워하여	古明王之是懼
수레에 오르 내리기를 삼가서 절도대로 하였네	慎登降焉以節
숫말이 매우 훌륭하고 살졌으니	牡孔良而孔阜
사마를 길들이고 또 여섯 고삐를 쥐었네 ⁴⁹¹	馴以四而又六
앞 수레에서는 손양이 몰게 하고 ⁴⁹²	前孫陽以爲御
뒷 수레에서는 왕량이 채찍을 잡게 하네 ⁴⁹³	後王良使執策
난령이 쟁그랑 울리면 화령이 호응하고 ⁴⁹⁴	鑾鈴鏘兮和應

491 숫말이…쥐었네 : 《시경》〈진풍(秦風) 사철(駟驥)〉에 “검붉은 네 필의 말 통통하게 살졌나니, 여섯 개의 고삐를 손 안에 쥐었도다.〔駟驥孔阜，六轡在手。〕” 하였다. 말 네 필의 여덟 개의 고삐 중에서 양편 참마(驂馬)의 두 고삐는 식(軾)의 고리[軾] 속에 넣고 손에는 여섯 개의 고삐만 쥐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492 앞…하고 : 손양(孫陽)은 춘추 시대 진 목공(秦穆公) 때에 준마를 잘 감별하는 것으로 유명했던 사람으로, 일명 백락(伯樂)이라 한다. 손양이 일찍이 우판(虞板)을 지나갈 적에 천리마(騏驎)가 소금 수레 밑에 엎드려 있다가 손양을 보고 올라, 손양이 수레에서 내려 눈물을 흘렸는데, 이에 천리마가 머리를 숙여 하소연하고 다시 하늘 밖까지 소리가 들리도록 울었다는 고사가 있다.《戰國策 楚策4》

493 뒷…하네 : 왕량(王良)은 중국 춘추 시대 진(晉)나라 사람으로, 어마(御馬)의 명인이다. 조간자(趙簡子)가 왕량에게 총애하는 신하인 해(奚)를 태우고 사냥을 하게 했는데, 법도대로 수레를 몰자 한 마리도 못 잡다가, 법도를 지키지 않고 몰아 주자 해가 하루아침에 짐승을 열 마리나 잡았다. 그러자 왕량은 소인과는 한 수레를 탈 수 없다고 조간자에게 말한 일이 있다.《孟子 滕文公下》

494 난령이…호응하고 : 《설원(說苑)》 권16 〈설총(說叢)〉에 “난령(鸞鈴)은 말의 재갈에 달고 화령(和鈴)은 수레 앞의 가로막대에 단다. 말이 움직이면 난령이 울리고, 난령이 울리면 화령이 호응하는 것이 말과 수레가 가는 절도이다.〔鸞設於鑣，和設於軾，馬動而鸞鳴，鸞鳴而和應，

고삐를 잡은 것이 실끈같기도 하고 거문고 같기도 하네 ⁴⁹⁵	執如組而如琴
군주가 이에 수레에 올라 양수를 잡고 ⁴⁹⁶	王爰陟兮按綏
맑은 대낮에 수레를 몰자 우레 소리가 나네	輶晴晝之雷音
깎아지른 벼랑의 험난한 비탈길 버리고서	捨巖巖之絕陁
평탄한 쉬운 길에 나아가고 ⁴⁹⁷	就平坦之易路
오직 뜻에 맞는대로 하여	惟其意之所適
한가로이 노닐도록 내버려 두네 ⁴⁹⁸	任翱翔而容與
어찌 방탕하고 음란한 자는 이와 반대로 하여	胡淫辟之反是
태만하게 유람과 사냥을 일삼는가 ⁴⁹⁹	謾遊畋焉是事

行之節也.]” 하였다.

- 495 고삐를…하네 : 《시경》〈패풍(邶風) 간혜(簡兮)〉에 “힘이 범과 같으며 고삐를 잡기를 실끈처럼 하도다.[有力如虎, 執轡如組.]” 하였는데, 주희의 주에서 “마부가 말을 잘 부리면 고삐의 부드러움이 실끈처럼 자유자재로 한다.”고 하였다. 또 〈소아(小雅) 거할(車輦)〉에 “사모(四牡)가 건장하고 건장하니, 여섯 고삐가 거문고와 같도다.[四牡駉駉, 六轡如琴.]” 하였는데, 주희의 주에서 “거문고가 같다는 것은 여섯 고삐가 조화하여 금슬(琴瑟)과 같음을 이른다.” 하였다.
- 496 군주가…잡고 : 양수(良綏)는 정수(正綏)라고도 하는데, 옛날에 임금 이 수레에 오를 때 잡고 오르는 줄이다. 《예기주소》 공영달의 소에 “수레를 5보(步) 정도 가게한 다음 그 자리에 서서 군주를 기다리는 데, 군주가 나와서 수레에 오르게 되면 양수(良綏)를 건네서 군주를 오르게 한다.[步, 猶行也. 既升車, 執策分轡, 而後行車也. 行車五步而立待君, 君出上, 則授良綏而升君也.]” 하였다. 《禮記注疏》卷35 少儀》
- 497 깎아지른…나아가고 : 한(漢)나라 왕양(王陽)이 익주 사사(益州刺史)에 제수되어 이곳을 넘다가 혹시 몸을 상해 아버지에게 근심을 끼칠까 염려하여 그냥 돌아왔다는 고사가 있다. 《漢書》卷76 王尊傳》
- 498 한가로이…두네 : 사마상여(司馬相如)의 〈자허부(子虛賦)〉 “이에 초왕이 수레를 멈추고 배회하며 한가로이 노니네.[於是楚王乃弭節徘徊, 翱翔容與.]” 하였다.
- 499 태만하게…일삼는가 : 《서경(書經)》〈이훈(伊訓)〉에 “감히 재화와 여색에 빠지고 유람과 사냥을 항상함이 있으면 이것을 음풍이라 이른

북국의 형편없는 자가 몰게 하고 ⁵⁰⁰	御國卜之末之
절름발이 나귀에게 멩에를 하여 사마로 삼네	駕跛驢以爲駟
오직 험준한 길을 달려	惟峻途焉是騁
밤낮없이 덜컹덜컹 달리니	罔晝夜以轟轆
말이 내달려 그치지 않음 ⁵⁰¹ 을 슬퍼하고	哀馬逸而莫止
수레바퀴 아래 ⁵⁰² 에 오랑캐 가득함을 알지 못하네	昧轂下之胡越
갑자기 끌채가 꺾이고 바퀴살 찢어지니	俄輶摧而輻裂
마침내 바퀴가 빠지고 굴대가 꺾이네	竟輪壞而軸折
앞 수레가 전복되자마자 뒤 수레가 잇따라 전복되니	前纔覆而後繼
백왕의 일이 하나의 궤적으로 귀결되네 ⁵⁰³	歸百王於一轍

다.[敢有殉于貨色，恒于遊畋，時謂淫風.]” 하였다.

500 북국의…하고 : 《예기》〈단궁 상(檀弓上)〉에 “노 장공이 송나라 사람과 노나라 땅 승구에서 싸울 적에 현분보(縣賁父)가 말을 몰고 북국(卜國)이 거우(車右)가 되었다. 그런데 말이 놀라는 바람에 수레가 전복되어 노 장공이 수레에서 떨어지자, 좌거가 수레에 오를 때 잡는 끈을 주었다. 노 장공이 ‘형편없구나, 북국이여!’라 하였다.〔魯莊公及宋人戰于乘丘，縣賁父御，卜國爲右。馬驚，敗績，公墜，佐車授綬。公曰，‘末之，卜也!’〕”하였다.

501 말이…않음 : 전쟁 중 군사의 맹렬한 기세를 형용한 것이다. 미계(靡笄)의 전쟁에서 극헌자(郤獻子)가 다쳐 아프다고 하자, 극헌자를 모시고 있던 장후(張侯)가 말을 몰면서 말하기를, 아픔을 참고 말하지 말아서 군사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극헌자가 말고삐를 잡고 북을 두드리자 ‘말이 내달려 멈출 추 없었으니〔馬逸不能止〕’ 마침내 제(齊)나라 군대를 격파했다. 《國語 晉語 五》

502 수레바퀴 아래 : 원문의 ‘곡하(轂下)’는 ‘연곡하(輦轂下)’의 준말로 임금의 있는 도성을 가리킨다.

503 앞…귀결되네 : 역사의 전철(前轍)을 거울삼아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가의(賈誼)가 한 문제(漢文帝)를 경계하기를 “앞 수레가 뒤집히면 뒤 수레가 조심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진나라가 빨리 망하게 된 원인은 그 바퀴 자국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를 피하지 않는다면 뒤 수레가 또 장차 뒤집히

탄 수레가 좋지 않은 것이 아니었으나	非爾乘之不良
수레를 모는 것이 법도에 어긋났네	乃爾御之乖法
나는 어려서 진루 ⁵⁰⁴ 를 스승으로 삼아	余少師乎秦樓
채찍을 잡고 고삐를 당길 줄 알았으니	解操鞭而援轡
만일 우리 왕 휘하에서 수레를 몰았다면	倘爲御於我王
혹여 하찮은 재주를 펼칠 수 있었으리라	庶或展此薄伎
지혜로 바퀴를 만들어 사람들이 의지하고	智爲輪兮人倚
믿음으로 굴대를 만들어 백성들이 모이며	信爲輻兮民輳
질박함으로 가로대를 만들어 이미 견고하고	質爲杠兮既堅
예로 채찍을 만들어 또 절도가 있네	禮爲策兮且節
평탄한 바른 길에서 수레에 장막을 달고	巾正路之坦夷
흰하게 트인 편안한 집에서 수레를 멈추며 ⁵⁰⁵	稅安宅之敞赫
삼대의 창성함을 따라 가고	軼三代之隆昌
당우의 무위지치 ⁵⁰⁶ 로 달려가도다	駕虞唐之無爲

고 말 것입니다.[鄙諺曰, 前車覆後車戒, 秦氏所以亟絕者, 其轍跡可見, 然而不避, 是後車又將覆也.]” 하였다. 《漢書 卷48 賈誼傳》 또, 《대대례기》〈보부(保傅)〉에도 “앞의 수레가 엎어진 것을 뒤의 수레가 경계로 삼아야 한다.[前車覆 後車戒]”라는 구절이 있다.

504 진루 : 미상이다.

505 평탄한…멈추며 : 바른 길과 편안한 집은 각각 인과 의를 가리킨다. 맹자가 “인은 사람의 편안한 집이고, 의는 사람의 바른 길이다. 편안한 집을 비워 두고 거처하지 않으며, 바른 길을 버려두고 가지 않으니, 슬프다![仁人之安宅也 義人之正路也 曠安宅而弗居 舍正路而不由 哀哉]” 하였다. 《孟子 離婁上》

506 당우의 무위지치 : 원문은 ‘吳唐’인데 문맥에 근거하여 ‘吳’를 ‘虞’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당우의 무위지치는 당요(唐堯)와 우순(虞舜)이다스리던 시대를 가리킨다. 《주역》〈계사전 하(繫辭傳下)〉에 “황제와 요·순은 의상을 드린 채 편안히 앉아 있었으나 천하가 지극히 잘 다스려졌다.[黃帝, 堯, 舜, 垂衣裳而天下治.]” 하였다.

아, 현명한 군주 이미 아득해졌으니	噫哲王之已逝
누가 재주를 알아주리오	孰爾才之見知
저 거름을 실은 것 ⁵⁰⁷ 과 소금 수레를 끄는 것 ⁵⁰⁸ 이	彼載糞與服鹽
모두 녹이와 백희 ⁵⁰⁹ 로다	儘駢駟與白羲
수레는 있으나 말이 없는 것 개탄하니	慨有車而無馬
아, 누가 수레를 몰아 달리겠는가	羌孰御而載馳
단지 수레를 읊어 나라에 빗대니	徒賦車而比國
세로를 살펴보자 슬픔이 일어나네	曠世路而興悲

507 거름을 실은 것 : 장형(張衡)의 <동경부(東京賦)>에 “준마를 멈추게 하여 거름 수레를 끌게 하니, 요노와 비토가 얼마나 안타까운가.〔卻走馬以糞車，何惜驪裏與飛兔.〕” 하였다. 요노와 비토는 모두 매우 빨리 달리는 준마이다.

508 소금…것 : 늙은 천리마가 소금 수레를 끌고 태항산(太行山)을 오르며 고생하고 있었는데, 말을 잘 감정하는 백락(伯樂)이 이 모습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천리마를 어루만지며 통곡하고 옷을 벗어 걸쳐 주자, 천리마가 하늘이 떠나도록 울었다는 고사가 있다. 《戰國策 楚策 4》

509 녹이와 백희 : 백희(白羲)는 곧 백의(白義)이다. 녹이와 백의는 모두 주나라 목왕(穆王)이 타고 다녔다고 하는 팔준마(八駿馬)에 속한다. 《穆天子傳 卷1》

완구⁵¹⁰부

完丘賦

멀리 남쪽으로 가서 하늘을 살피게 하고 ⁵¹¹	邇南征兮司天
아득히 구정을 주조하여 간악한 귀신을 살펴보게 하였네 ⁵¹²	曠鑄鼎兮窺奸
괴이한 우보 ⁵¹³ 로 분란하게 가서	紛禹步之幻怪
다투어 향초를 서로 전해 신을 맞이하도다 ⁵¹⁴	競傳芭兮迎神

510 완구 : 완구(宛丘)는 진(陳)의 수도이다. 진나라 풍속은 무력을 숭상하여 방탕하고 혼란하였는데, 《시경》〈진풍(陳風) 완구(宛丘)〉는 이러한 진나라 풍속을 풍자한 시이다.

511 남쪽으로…하고 : 《국어(國語)》〈초어 하(楚語下)〉에 “소호씨(少皞氏)가 쇠하자 구려(九黎)가 덕을 어지럽히니, 백성과 신(神)이 혼잡하여 집집마다 무당을 위하고 백성들이 번독(煩瀆)하게 서로 맹약하여 재앙이 거듭 이르렀는데, 전욱(顓)이 이를 받아서 마침내 남정(南正)인 중(重)에게 하늘에 관한 일을 주관하도록 명하여 신에게 올리는 제사를 맡겼다”라는 내용이 있다.

512 구정을…하였네 : 《춘추좌씨전》 선공(宣公) 3년 조에 “옛날 하나의 덕이 한창 융성한 때에는 먼 나라들로 하여금 각기 그 나라의 괴이한 물건의 형상을 그려 올리게 하고, 구주의 장관에게는 구리를 바치게 하여 큰 솥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형상의 물건을 새겨 넣어 모든 물건의 형상이 다 그 솥에 갖추어지게 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간악한 귀신을 알아보게 하였다.[昔夏之方有德也, 遠方圖物, 貢金九牧, 鑄鼎象物, 百物而爲之備, 使民知神姦.]”라고 하였다.

513 우보 : 우보(禹步)는 도사(道士)가 법술(法術)을 베풀 때 걷는 걸음법이다. 이름의 유래와 방법에 대해서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에 “우(禹)는 짐승 이름인데 너풀너풀 걸으며 귀신을 잡아먹기 때문에 귀신들이 두려워한다고도 하고, 일설에는 하우씨(夏禹氏)가 홍수를 다스릴 때에 걸음을 절룩거리니 귀신들이 두려워하여 복종했기 때문에 우보라 하게 되었다 한다.”라고 하였다.

514 다투어…맞이하도다 : 향초를 서로 전한다는 것은, 신에게 제사를

떠들썩하게 북채를 잡고 등등 북을 치니 ⁵¹⁵	聒揚枹兮坎坎
완구에 닿아 널리 퍼지네	觸完丘之壇曼
그대는 마음껏 즐겨 ⁵¹⁶ 편안히 돌아가길 잊고	子之蕩兮憺忘歸
이에 그 사이에서 한가로이 노닐도다	乃婆娑乎其間
엄숙히 벽옥을 바치고 무늬옥을 두고	肅薦碧兮眞璵
파초는 누렇지 않으나 여지는 붉네 ⁵¹⁷	蕉匪黃兮荔丹
화려한 자리를 펴자 이미 한아(閑雅)하고	瑤席展兮既閑
거문고와 피리를 섞어 함께 연주하네	雜箏瑟兮俱陳
난초탕에 목욕하고 향초물로 머리감고 ⁵¹⁸	浴蘭湯兮沐芳
화려한 옷 입으니 매끈하고 아리답네 ⁵¹⁹	襲姸服兮嫵媚

지낼 때 무당이 향초를 손에 쥐고 춤을 추다가 다른 사람에게 향초를 전해 주어 교대로 춤을 추는 의식을 말한다. 《초사(楚辭)》〈예혼(禮魂)〉에 “예를 이룸이여 음악을 연주하고, 파를 전함이여 대신 춤추게 하도다.[成禮兮會鼓, 傳芭兮代舞.]”라고 하였다.

- 515 북채를…치니 : 《초사》〈구가(九歌) 동황태일(東皇太一)〉에 “북채를 들어 북을 치고 느린 가락에 편안히 노래하네.[揚枹兮拊鼓, 疏緩節兮安歌.]”라고 하였다.
- 516 그대는 마음껏 즐겨 : 《시경(詩經)》〈진풍(陳風)·완구(宛丘)〉에 “그대가 가무하며 즐기니 완구의 위로다.[子之蕩兮, 宛丘之上.]”라고 하였다.
- 517 파초는…붉네 : 여지와 파초는 제사에 올리는 음식을 이른다. 한유(韓愈)의 〈유주나지묘비(柳州羅池廟碑)〉에 “여지는 붉고 파초는 누르니, 안주와 채소들 분분히 후의 당에 올리노라.[荔子丹兮蕉黃, 雜肴蔬兮進侯堂.]”라는 내용이 보인다.
- 518 난초탕에…머리감고 : 《초사》〈구가(九歌) 운중군(雲中君)〉에 “난초 꿀인 물로 몸을 씻고 향초 물로 머리 감는다.[浴蘭湯兮沐芳]”라고 하였다.
- 519 화려한…아리답네 : 《초사》〈구가 동황태일〉에 “신령이 높이 솟음이여 화려한 옷 입으니 향기가 무성하여 당에 가득하네.[靈偃蹇兮姸服, 芳菲菲兮滿堂.]”라고 하였다.

새하얀 손을 들고 편안히 노래하니 ⁵²⁰	抗皓手兮安歌
향기가 가득하여 이미 짙도다	芳菲菲兮旣繁
용모를 가다듬어 춤추고 소리높여 노래 부르니	舞脩容兮浩唱
신령이 구름처럼 길게 감도네 ⁵²¹	靈蜺兮如雲
신령이 갑자기 멀리 달아났다가 점점 가까워지니 ⁵²²	飄遠擧兮漸近
빛이 환하여 다함이 없네	爛昭昭兮未闌
어쩌면 그리도 하늘과 같은지, 아리따운 모습 좋도다 ⁵²³	胡然天兮善窈窕
신령이 안락하고 기뻐하네 ⁵²⁴	君樂康兮欣欣
자른 종이를 무성히 놓아 신령을 부르고 ⁵²⁵	格翦紙之繽紛

- 520 새하얀…노래하니 : 조식(曹植)의〈칠계(七啓)〉에 “길은 향기 남기며 고요히 걷고, 새하얀 손을 들고 맑은 소리로 노래하네.〔遺芳烈而靖步, 抗皓手而清歌.〕”라고 하였다.
- 521 신령이…감도네 :《초사》〈구가 운중군〉에 “신령이 길게 감돌며 이미 머무르니, 빛이 환하여 다함이 없네.〔靈連蜺兮旣留, 爛昭昭兮未央.〕”
- 522 신령이…가까워지니 :《초사》〈구가 운중군〉에 “신령이 찬란하게 내려왔다가 홀연 구름 속으로 멀리 달아나네.〔靈皇皇兮旣降, 森遠擧兮雲中.〕”라고 하였다.
- 523 어쩌면…좋도다 : 신령의 모습을 형용한 것으로, 《시경》〈용풍(鄘風) 군자해로(君子偕老)〉의 “어쩌면 그리도 하늘과 같으며, 어쩌면 그리도 상제와 같은가.〔胡然而天也, 胡然而帝也.〕”라는 구절과 《초사》〈구가(九歌) 산귀(山鬼)〉의 “정을 듬뿍 담고서 나를 보고 웃음이며, 산귀 그대도 요조한 나를 좋아하나 봐.〔旣含睇兮又宜笑, 子慕予兮善窈窕.〕”라는 구절을 원용하였다.
- 524 신령이 안락하고 기뻐하네 :《초사》〈구가 동황태일〉에 “오음이 성대하게 번갈아 울리니, 신령이 기뻐하며 안락하도다.〔五音紛兮繁會, 君欣欣兮樂康.〕”
- 525 자른…부르고 : 옛 풍속에 종이를 잘라 깃발을 만들어서 죽은 자의 혼령을 불렀다. 두보의 〈팽아행(彭衙行)〉에 “물을 덥혀 내 발을 씻기고, 종이를 잘라 내 혼을 부르네.〔暖湯濯我足, 翦紙招我魂.〕”라고 하였다.

백로 깃을 나부끼며 신령을 내려오게 하네 ⁵²⁶	降鸞羽之翩翾
이미 이 언덕에서 음악 소리 계속 이어지고	既斯丘之案衍
또 이곳에서 빙빙돌며 춤을 추니	又斯舞之蹁躑
저 용이 끄는 수레를 타고 상제의 옷을 입은 신령이	彼龍駕兮帝服
응당 바람처럼 돌고 구름처럼 돌리라 ⁵²⁷	合風廻兮雲旋
우리에게 수명과 복을 내려준 것 좋아하고 ⁵²⁸	喜壽我兮福我
오곡이 무성히 엉겨있는 것 송축하네	頌黍稷兮虵蟠
그러나 겨울도 없고 여름도 없이 신령을 부르니	然無冬兮無夏
장차 백성을 황탄하게 할 수 있으리 ⁵²⁹	將或荒乎斯民
아, 태호의 옛터이니	噫太皞之遺墟
바로 옛 성인이 교화한 곳이거늘 ⁵³⁰	乃聖神之陶甄
어찌 그 후예가 덕을 잃어	胡後裔之喪德
새벽에 암탉이 우는 곳으로 되어 버렸는가 ⁵³¹	屬牝鷄之司晨

526 백로…하네 : 《시경》〈진풍 완구〉에 “백로 깃을 꽃고 있도다〔值其鸞羽〕”라고 하였다. 백로 깃은 춤추는 자가 잡고서 지휘하는 것이다.

527 응당…돌리라 : 《초사》〈구가 운중군〉에 “용이 끄는 수레를 타고 상제의 옷을 입고서 이리저리 노닐며 두루 다니시네.〔龍駕兮帝服，聊翱遊兮周章.〕”라고 하였다. 왕일의 주에서 이 구절에 대해, 천제(天帝)가 운신(雲神)을 높여 용을 타게 한 것이라 하였다.

528 우리에게…좋아하고 : 한유가 유종원을 추모하며 지은 〈유주라지묘비(柳州羅池廟碑)〉에 “공이 우리에게 복과 수명을 내려 주며, 악귀들도 산 저쪽으로 쫓아내 주시리라.〔福我兮壽我，驅厲鬼兮山之左.〕”라고 하였다.

529 겨울도…있으리 : 《시경》〈진풍 완구〉에 “둥둥 북을 치며 완구의 아래에서 하도다. 겨울도 없고 여름도 없이 백로 깃을 꽃고 있도다.〔坎其擊鼓，宛丘之下，無冬無夏，值其鸞羽.〕”라고 하였다. 때마다 놀러 나와 완구에서 북치고 춤춘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530 태호의…곳이거늘 : 《시경집전》에 “진(陳)은 국명이니, 태호(太皞) 복희씨(伏羲氏)의 옛 터이다.”라고 하였다.

531 어찌…버렸는가 : 《시경집전》에 “태희부인(太姬婦人)은 존귀(尊貴)하

요사스런 무당에게 현혹되어 음탕함에 빠져서	惑妖巫兮荒樂
음란과 사치를 숭상하고도 뉘우치지 않으니	尚淫侈兮莫悛
온 나라 사람들을 한 언덕에 몰아	驅國人兮一丘
남녀노소가 언덕을 가득 메우게 내버려 두었네	任髻髮之盈填
앞다투어 종사하는 일을 버리고 직분을 폐기하여	爭棄隸而廢職
온 세상이 음란하고 혼미한 데로 귀결되었으니	歸一世於淫昏
혼잡함이 몹시 심함을 애통해 하고	痛雜糅之孔極
이승과 저승이 어지럽게 뒤섞임을 한탄하네	嘆幽明之混紛
저 놀래키거나 소동을 일으키고 화와 복을 주는 것이 ⁵³²	彼驚動而禍福
어찌 왕도정치에 관계된 것이겠는가	豈王政之所關
그러므로 산삭하지 않고 <진풍>의 첫머리에 두어	故不刪而編首
진나라 풍속이 그릇되고 우매함을 풍자했네	刺陳風之訛罷
귀머거리와 장님에게 강한 깨우침을 주는 시 ⁵³³ 를 지어	作聾瞽之瞑眩
만고의 눈과 귀를 열어주었네	開萬古之視聞
아, 귀신을 공경하면서도 멀리하라는 말이	噫敬之而遠之

여 무격(巫覡)과 가무(歌舞)의 일을 좋아하니, 백성들이 이에 동화되었다.”라고 하였다. 진나라의 태희부인에 의해 진나라 풍속이 방탕해졌음을 말한 것이다.

532 저…것이 : 한유의 <유주나지묘비>에 “나는 생각컨대, 유후는 살아서는 그 백성들에게 은택을 내리고, 죽어서는 백성들을 경동시키고 화와 복을 주어 그 땅에서 제사를 받아먹고 있으니, 신령스럽다고 이를 만하다. [余謂柳侯 生能澤其民하고 死能驚動禍福之하여 以食其土하니 可謂靈也已]”라고 하였다.

533 강한…시 : 원문의 ‘명현(瞑眩)’은 아찔하게 현기증을 일으킬 정도로 강렬한 효과를 내서 곧장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는 극약(劇藥)을 말한다. 《서경》 열명 상(說命上)에 “만약 약이 눈을 감감하게 하고 정신을 어지럽게 만들지 않으면, 그 병은 낫지 않을 것이다. [若藥弗瞑眩, 厥疾弗瘳.]”라는 말이 나온다.

534 귀신을…격언이로다 : 《논어》〈응야(雍也)〉에, 번지(樊遲)가 지(知)에 관해 묻자, 공자가 “사람의 도리에 힘쓰고, 귀신을 공경하면서도 멀리한다면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다.[務民之義, 敬鬼神而遠之, 可謂知矣.]”라고 하였다.

채국동리하⁵³⁵부

採菊東籬下賦

수레의 휘장을 걷고 배의 노를 놓고서	車休巾兮舟罷棹
게을리 깊은 계곡을 찾아가고 언덕을 지나네 ⁵³⁶	倦尋堅與經丘
이미 가지가 늘 그대로의 모습임을 보았으니 ⁵³⁷	既昞柯之尋常
어찌 소나무를 어루만지며 근심을 없애겠는가 ⁵³⁸	寧撫松而銷憂
처음에 북쪽 창 ⁵³⁹ 아래 무심하게 있었는데	初無心於北窓
갑자기 동쪽 울타리에 일이 생겼네	俄有事乎東籬
동쪽 울타리에 무엇이 있는가	東籬兮何有
아름다운 국화가 가득히 있도다	佳菊兮籬籬

- 535 채국동리하 : 도잠(陶潛)의 <음주(飲酒)> 시에 “동쪽 울타리 아래에서 국화꽃을 따다가, 아득히 남산을 바라보노라.[採菊東籬下 悠然見南山]”라는 구절이 있다.
- 536 게을리…지나네 : 도잠의 <귀거래사(歸去來辭)>에 “어떤 때는 휘장 친 수레를 타고 또 어떤 때는 거룻배를 저으면서, 깊숙한 골짜기를 찾아도 가고 또한 울퉁불퉁 험한 길로 언덕을 지나기도 하네.[或命巾車 或棹孤舟 既窈窕以尋壑 亦崎嶇而經丘]”라는 구절이 있다.
- 537 이미…보았으니 : 도잠의 <귀거래사>의 “술병과 술잔을 들고 혼자 부어 마시노니, 뜰의 나뭇가지를 바라보고 얼굴에 기쁜 빛이 감도네.[引壺觴以自酌 昞庭柯以怡顏.]”라는 구절을 원용한 것이다.
- 538 어찌…없애겠는가 : 도잠의 <귀거래사>의 “햇별이 뉘엿뉘엿 장차 지려 하는데, 외로운 소나무를 어루만지며 서성대도다.[景翳翳以將入, 撫孤松而盤桓.]”라는 구절을 원용한 것이다.
- 539 북쪽 창: 벼슬을 버리고 전원 생활에 돌아와 한가로이 즐기는 은일(隱逸)의 정취를 말한다. 도잠의 <여자엄등소(與子儼等疏)>에 “여름철 한가로이 북창가에 잠들어 누웠다가 삼삼한 바람이 불어와 잠을 깨고 나면 문득 태곳적의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곤 한다.[夏月虛閑, 高臥北窓之下, 清風颯至, 自謂羲皇上人.]” 《晉書》 卷94 隱逸列傳 陶潛》

바쁘게 꽃을 따고 따서 ⁵⁴⁰	薄言兮采采
미인에게 주려고 하니	將以遺兮美人
미인은 어느 곳에 있는가	美人兮何許
아득한 서방의 구름 끝이로다 ⁵⁴¹	杳西方兮雲端
어찌 떨어진 국화꽃을 저녁으로 먹을 수 있겠는가 ⁵⁴²	豈落英可供乎夕餐
나는 너의 열렬함을 취하노라	吾取爾之酷烈
예전에 내가 너 국화를 심은 것은	昔余之種爾菊兮
봄장마가 잠깐 그친 때였으니	趁春霖之乍歇
이 땅이 비옥한 것을 살펴보고	相茲土之膏沃
몇 떨기가 왕성히 뻗어감을 기뻐했네	喜數叢之條達
내 호미를 메고서 잡초를 뽑자 ⁵⁴³	荷余鋤兮理荒
날마다 가지와 잎이 무성해졌네	日峻茂其枝葉
절로 향기를 풍기는 것은 난초와 혜초에서 본받고	效自聞於蘭蕙
뒤늦게 시드는 것은 소나무와 잣나무에서 본받았도다 ⁵⁴⁴	法後凋於松柏

540 바쁘게…따서 : 《시경》〈주남(周南)·부이(采芣苢)〉에 “캐고 캐는 부이를 바삐 뜯노라.[采采芣苢, 薄言采之.]”라는 구절이 있다.

541 미인은…끝이로다 : 《시경》〈패풍(邶風) 간혜(簡兮)〉에 “산에는 개암나무, 진펄에는 감초로다. 누구를 그리 생각하시는가, 서방의 미인이로다. 저 미인은, 서방의 사람이시로다.[山有榛 隰有苓 云誰之思 西方美人 彼美人兮 西方之人兮]”라는 구절이 있다.

542 어찌…있겠는가 : 굴원(屈原)의 《초사(楚辭)》〈이소(離騷)〉에 “아침에는 목란의 떨어진 이슬을 마십이여, 저녁에는 가을 국화의 떨어진 꽃잎을 먹는도다.[朝飲木蘭之墜露兮 夕餐秋菊之落英]”라고 하였다.

543 내…뽑자 : 도잠의 〈귀전원거(歸田園居)〉시에 “남산 아래 콩을 심었더니, 잡초가 무성해 콩 짝이 드물구나. 새벽에 일어나 우거진 잡초를 뽑고, 달빛 아래 호미 메고 돌아오네.[種豆南山下, 草盛豆苗稀. 晨興理荒穢, 帶月荷鋤歸.]”라고 하였다.

544 뒤늦게…본받았도다 : 《논어》〈자한(子罕)〉에 “날씨가 추워진 뒤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늦게 시듦을 안다.[歲寒然後 知松柏之後凋也]”라

어찌 복사꽃 핀 길에 뿌리를 의탁하리오	肯托根於桃蹊
살구꽃 핀 길에서 화려함 다투는 것 부끄러워하네	愧鬪艷乎李逕
세밑에도 변치 않기도 은밀한 기약을 맺고	結幽期於歲晚
향기로운 자태로 서로 비추기를 기다렸네	待芳姿之交映
가을철 세찬 바람이 가지를 흔들며	迨金飈之振柯
이슬이 밤에 맺히고 서리가 떨어지니	露宵結而霜落
멀리 산에 오르고 물을 굽어봄에	迺登山而臨水
단지 낙엽이 끝없이 떨어져 있네 ⁵⁴⁵	但無邊之落木
이때에 빼어난 꽃이 찬란히 피어	時天葩之燦爛
동쪽 울타리가 온통 춘색이네	一籬東之春色
아름다운 향기를 뿜도록 놔두니	任吐芬之鮮鮮
절로 노랗기도 하고 절로 하얗기도 하네	羌自黃而自白
해가 봉우리에 올라 아침노을 빛 보내니	瞰上岑兮送靄
이슬 머금은 꽃이 짙은 향기를 풍기네	含露華而淑郁
내 머리에 갈건을 젖혀 쓰고 ⁵⁴⁶	岸余頂之葛巾
동쪽 언덕에서 휘파람을 연이어 불도다 ⁵⁴⁷	綴余嘯於東阜
못가에서 홀로 빼어났던 것을 생각하며 ⁵⁴⁸	想孤艷於澤畔

고 하였다.

- 545 단지…있네 : 두보의 <등고(登高)>에 “끊없이 지는 나뭇잎 우수수 떨어지고 그치지 않는 긴 강은 넘실넘실 흘러오네.〔無邊落木蕭蕭下，不盡長江滾滾來。〕”라고 하였다.
- 546 내…쓰고 : 두건을 젖혀 쓴다〔岸巾〕는 것은 소탈한 태도나 격식을 차리지 않는 옷차림을 뜻한다.
- 547 동쪽…불도다 : 도잠의 <귀거래사>에 “동쪽 언덕에 올라 조용히 풍월을 즐기고, 맑은 물 앞에서 시를 짓는다.〔登東阜以舒嘯 臨清流而賦詩〕”라고 하였다.
- 548 못가에서…생각하며 : 못가에서 노닐면서도 국화를 먹으며 고결한 절개를 지켰던 굴원의 고사를 의미한다. <어부사(漁父辭)>의 “굴원이

산꼭대기에 향기를 남긴 것 기억하네 ⁵⁴⁹	記遺芳於山椒
꽃을 주워 손에 가득 쥐니	掇其英兮盈把
소매 가득히 향기가 배어드네	襲滿袖之菲菲
꽃을 따고 다시 따며 머뭇거리니	采復采兮夷猶
흥은 열어지고 근심은 깊어짐이 느껴지네	覺興淺而愁深
만 꽃을 광주리에 담고 슬퍼하며 돌아가길 잊으니	擷在筐兮悵忘歸
해가 이미 저물었음을 탄식하네	嘆規毀之已沈
아, 봄을 다투는 여러 꽃들은	噫雜花之爭春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바가 아니니	非余心之所樂
아,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저서	謫朝榮而暮替
바람이 부는 대로 경박하게 나부끼네	任隨風兮輕薄
누가 가을에 홀로 빼어나	孰天秋而獨秀
찬서리에도 굽히지 않는 고상한 절조를 지키는가	抗傲霜之高節
하나씩 꺾어 하나씩 향기를 맡아도	聊一采而一嗅
여전히 향기가 사랑스럽네	猶可愛乎馥馥
난사에 이르노라	亂曰
서산에서 고사리를 캐니 ⁵⁵⁰	采薇西山兮

쫓겨난 뒤에 강담에서 노닐며택반에서 읊조리고 다녔다.[屈原既放, 游於江潭, 行吟澤畔.]”라는 구절과 <이소(離騷)>의 “아침에는 목란에서 떨어지는 이슬을 마시고, 저녁에는 가을 국화의 지는 꽃잎을 먹는다.[朝飲木蘭之墜露兮, 夕餐秋菊之落英]”라는 구절을 원용한 것이다.

- 549 산꼭대기에…기억하네 : 남조(南朝) 송(宋)나라 사장(謝莊)의 <월부(月賦)>에 “국화는 산꼭대기에 향기를 흘리고, 기러기는 강여울에 울음을 흘리네.[菊散芳於山椒, 鴈流哀於江瀨.]”라는 구절이 있다.
- 550 서산에서…캐니 : 백이(伯夷)·숙제(叔齊)가 지었다고 하는 <채미가(采薇歌)>에 “저 서산에 올라 고사리를 캐노라. 사나움으로 사나움을 바꾸면서 그름을 알지 못하는구나.[登彼西山兮, 采其薇矣. 以暴易暴

어찌 만종의 녹봉과 바꾸리오

寧易萬鍾之祿

동쪽 담장에서 국화를 꺾으니

采菊東籬兮

다섯 말의 곡식에 비해 어떠리오⁵⁵¹

何如五斗之粟

앞에는 서산이 있고 뒤에는 동리가 있으니

前西山兮後東籬

만고토록 천지 사방에 맑은 바람 불리라

風萬古之六合

兮, 不知其非矣.]”라고 하였다.

551 다섯…어떠리오 : 도잠의 <귀거래사>에 “다섯 말 쌀 때문에 허리를 꺾어 향리의 어린아이에게 굶질거릴 수는 없다.[吾不能爲五斗米折腰, 拳拳事鄉里小人邪.]”라고 하였다.

훈자

訓子

내가 생각건대, 부자 사이의 큰 윤리는	余惟父子之大倫兮
삼강오륜 중 하나에 해당하니	乃居一於三五
진실로 아버지가 의방으로 가르치지 않는 것은	苟父之不詔以義方兮
아버지를 거스르는 데로 자식을 빠뜨리는 것이라네	是陷子於違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힘쓸 바를 간곡하게 가르치니	肆余諄諄其懋汝兮
내가 항상된 법칙을 어길까 두렵고	懼汝悖乎恒則
내가 한가로이 있거나 혼자 있을 때	懼汝居閑而處獨兮
조심하고 두려워하는 내 뜻을 모를까 두려우며	昧余志之竦惕
내가 일에 임하거나 외물을 접할 때	懼汝臨事而應物兮
대뜸 경거망동할까 두렵고	遽輕動而妄作
내가 겸손하게 스스로를 억누르지 않아	懼汝不謙而自抑兮
대뜸 말을 함부로 하고 덕을 거스를까 두렵도다	遽肆言而悖德
무릇 마음의 은밀한 곳을 삼가고 혼자 있을 때 삼가는 것은	夫慎微而謹獨兮
성현의 밝은 가르침이니 ⁵⁵²	乃聖賢之明飭
만일 이것을 마음에 새겨 몸을 닦고 반성한다면	苟服膺以脩省兮
군자와 더불어 같은 경지에 있게 되리라	與君子而同域

552 무릇...가르침이니 : 《중용장구》 제33장에 《시경》〈정월〉의 “잠긴 것이 비록 엎드려 있으나 또한 심히 밝다.[潛雖伏矣, 亦孔之昭.]”는 구절 인용하였는데, 주희의 주에 “위 글을 이어 숨은 것보다 드러남이 없고, 은미한 것보다 나타남이 없음을 말씀하였다. ...이것은 군자(君子)가 근독(謹獨)하는 일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지극히 우매한 부부라도	故夫婦之至愚兮
또한 남편이 아내에게 모범이 되며 ⁵⁵³ 분별이 있고	亦有刑而有別
형제지간에 처해서는 우애로워야 하니	處兄弟而友悌兮
진실로 몸은 둘이지만 기는 하나로다	諒體二而氣一
저 분노해 다투어 서로 화목하지 못하는 것은	彼忿爭而參商兮
잠깐 사이에도 경계해야 하니	宜戒之於造次
하물며 벼슬에 나가 임금을 섬김에	況出身而事君兮
충이 반드시 지극한 효에서 말미암음에라	忠必由乎孝至
속이지 말고 간쟁함 ⁵⁵⁴ 에 있어서는	在勿欺而好犯兮
자신의 마음을 다해 목숨을 바쳐야 하네	宜盡己而效死
하물며 나이 많고 지위 높은 자를 능멸하고 방해하면	矧長貴之凌妨兮
재앙과 화난이 미치지 않는 경우가 드물에 있어서라	鮮災禍之不逮
그러므로 향촌에서도 말에서 내려	故下馬於鄉間兮
몸을 굽혀 경의를 표해야 하도다	宜鞠躬而敬止
그러나 먼 곳의 벗이 와서 학문으로써 모임에	然遠朋之會文兮
어찌 진실하지 않고서 설 수 있겠는가	豈非信而可立
어찌 얼굴만 알고 ⁵⁵⁵ 금석지교를 맺지 않으리오	寧以面而不石兮

553 남편이…되며 : 《시경》〈사제(思齊)〉에서 문왕(文王)이 성군이 된 까닭에 대해 읊으면서 “아내에게 모범이 되어, 형제에까지 그 덕이 미쳐서, 집과 나라를 잘 다스렸다.[刑于寡妻，至于兄弟，以御于家邦.]”라고 하였다.

554 속이지 말고 간쟁함 : 《논어(論語)》〈헌문(憲問)〉에서 자로(子路)가 임금을 섬기는 도리에 대해 묻자 공자가 말하기를, “속이지 말고 얼굴을 마주 대해 간쟁해야 한다.[勿欺也，而犯之.]”라고 하였다.

555 얼굴만 알고 : 양웅(楊雄)의 《법언(法言)》〈학행(學行)〉에 “벗으로서 마음을 나누지 못하면 얼굴만 아는 벗이요, 친구로서 마음을 나누지 못하면 얼굴만 아는 친구이다.[朋而不心，面朋也，友而不心，面友也.]”라고 하였다.

유익한 벼를 취하여 ⁵⁵⁶ 의로써 모여야 하도다	宜取益而義合
저 말을 모는 미천한 자도	彼僕御之賤微兮
또한 하늘이 낸 자식이니	亦天生之人子
항상 굶주림과 추위 속에 있는 것을 불쌍히 여겨	恤常存乎飢寒兮
두텁게 사랑하고 가볍게 처벌해야 하도다	宜厚愛而薄罪
형벌을 줄 때에는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고	凡臨刑而畏殺兮
살리기를 좋아하는 상천의 덕을 본받으라	體上天之好生
저 위세에 기대어 교만하게 구는 자는	彼恃挾而生驕兮
신명이 반드시 다스리리라	有必剋之神明
진실로 아버지를 섬김과 임금을 섬김과	苟事父與事君兮
하늘을 섬김에 허물이 없으면	暨事天而不愆
이는 성과 명 ⁵⁵⁷ 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니	是不外乎誠明兮
내가 선현과 차이가 없으리라	余無間於往賢
진실로 힘써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니	寔所勉之匪他兮
효보다 큰 것이 없도다	孝無大於此者
만일 이익에 의거하고 목숨을 버려 명예를 구한다면	如放利而殉名兮
어려서도 늙어서도 바랄 것이 없으리라	所無望於稚艾
저 혼정신성만 부지런히 하는 것은	彼徒勤其定省兮

556 유익한 벼를 취하여 : 《논어》〈계씨(季氏)〉에 “유익한 세 가지 유형의 벼가 있고 해로운 세 가지 유형의 벼가 있는데, 정직한 벼를 사귀고 진실한 벼를 사귀고 식견이 많은 벼를 사귀면 유익할 것이다.[益者三友, 損者三友, 友直, 友諒, 友多聞, 益矣.]” 하였다.

557 성과 명 : 《중용장구》에서 인성을 수양하는 기본 명제이다. 성은 진실하여 거짓이 없는 본성을 말하고, 명은 사물의 이치를 궁리하여 무엇이 선인지 아는 것이다. 21장에서 “성으로 말미암아 밝아짐을 성이라 이르고, 명으로 말미암아 성해짐을 교라 한다. 성해지면 밝아지고 밝아지면 성해진다.[自誠明謂之性, 自明誠謂之教, 誠則明矣, 明則誠矣.]”라고 하였다.

대수롭지 않은 지엽적인 일ियो

乃區區之末節

온화한 낮빛으로 봉양하지 않고 맛좋은 음식만 올리면⁵⁵⁸

不以色而甘旨兮

뜻을 봉양하지 않는 것이니⁵⁵⁹ 얼마나 자질구레한가

養非志而何屑

날마다 세 가지 희생으로 봉양하더라도⁵⁶⁰

雖日養其三牲兮

아, 공경하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구별하리오⁵⁶¹

噫不敬則何別

진실로 뜻을 봉양하는 것이 지극한 효이니

信養志爲至孝兮

너의 입신양명에서 무슨 취할 것이 있겠는가

奚取爾之立揚

나는 어려서 아버이를 여의어

余幼失其怙恃兮

558 온화한…올리면 : 《논어》〈위정(爲政)〉에서, 자하(子夏)가 효를 묻자 공자가 말하기를 “부모를 섬김에 얼굴빛을 온화하게 하는 것이 어려우니, 일이 있으면 제자가 그 수고로움을 대신하고 술과 밥이 있으면 선생에게 드시게 하는 것을 일찍이 효라고 할 수 있겠는가.[色難, 有事弟子服其勞, 有酒食先生饌, 曾是以爲孝乎.]”라고 하였다.

559 뜻을…것이니 : 《맹자》〈이루 상(離婁上)〉에 “증자와 같이 하면 뜻을 봉양한다고 이를 만하다. 아버이 섬김을 증자와 같이 해야 한다.[若曾子則可謂養志也 事親若曾子者 可也]”라고 하였다. 뜻을 봉양한다는 것은 부모를 봉양함에 그 뜻에 순종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효를 행한다는 말이다.

560 날마다…봉양하더라도 : 《효경(孝經)》〈기효행(紀孝行)〉에 “윗자리에 있으면서 교만하면 망하고 아랫자리에 있으면서 난리를 치면 형벌을 당하며 동료와 다투면 해를 입을 것이니, 이 세 가지를 없애지 않으면 아무리 날마다 세 종류의 희생을 드리며 부모를 봉양하더라도 오히려 불효가 된다.[居上而驕則亡, 爲下而亂則刑, 在醜而爭則兵, 三者不除, 雖日用三牲之養, 猶爲不孝也.]”라고 하였다.

561 공경하지…구별하리오 : 《논어》〈위정(爲政)〉에서, 자유(子游)가 효(孝)에 대해 묻자 공자가 말기를 “지금의 효라는 것은 잘 봉양하는 것을 이른다. 하지만 개나 말에 대해서도 모두 잘 먹여 주고 있으니, 만약 공경하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구별하겠는가.[今之孝者, 是謂能養. 至於犬馬, 皆能有養, 不敬, 何以別乎.]”라고 하였다.

어버이에게서 밝은 가르침을 받지 못했으니 ⁵⁶²	違炯戒於趨庭
<육아>장 ⁵⁶³ 을 읊고 슬픔의 눈물을 흘리며	詠蓼莪而悲淚兮
낳고 길러주신 지극한 은혜를 사모하네	慕生育之至恩
생각건대 슬프고도 슬픈 부모님이여	念哀哀之父母兮
죽게 하고 살게 하는 이 누구인가	誰使亡而生存
지금 은혜를 갚고자 한들 어찌 미칠 수 있으리오	今欲報其可追兮
끝없는 하늘을 바라보네	瞻昊天之罔極
돌아가신 뒤에 미칠 수 없음을 애통해 하고 ⁵⁶⁴	痛風樹之莫逮兮
삼부의 녹봉으로 봉양하지 못함에 눈물 흘리네 ⁵⁶⁵	泣三釜之靡及
이 때문에 날이 새도록 잠들지 못하고	肆明發而不寐兮

562 어버이에게서…못했으니 : 원문의 ‘추정(趨庭)’은 아들이 어버이에게 가르침을 받는 것을 말한다. 《논어》〈계씨(季氏)〉에 “공자가 혼자서 있는데 아들 리가 뜰을 지나자 공자가 ‘시를 읽었느냐?’ 하니 이가 ‘아직 읽지 못했습니다.’ 하므로, 공자는 ‘시를 배우지 않으면 말을 할 수 없는 것이다.’ 했다.[子嘗獨立, 鯉趨而過庭, 曰, ‘學詩乎?’ 對曰, ‘未也.’ ‘不學詩, 無以言.’]”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563 육아장 : 《시경》〈소아(小雅)〉의 편명으로 부모님의 은덕을 노래하였다. <육아>에 “슬프고 슬프다 부모님이여, 나를 낳아 기르시느라 몹시 수고하셨도다.[哀哀父母, 生我劬勞.]”라는 구절이 나온다.

564 돌아가신…하고 : 풍수지탄의 고사를 인용한 것이다. 《한시외전(韓詩外傳)》에 “나무는 고요히 있으려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이 봉양하려고 하나 부모가 기다려 주지 않는다.[樹欲靜而風不止, 子欲養而親不待也.]”라고 하였다.

565 삼부의…흘리네 : 삼부의 녹봉은 박한 녹봉을 뜻하는 말로, 부모가 돌아가셔서 봉양할 길이 없음을 슬퍼한 말이다. 증자(曾子)가 이르기를 “내가 어버이 계실 적에 베풀할 때는 삼부의 녹봉으로도 마음이 즐거웠는데, 어버이 돌아가신 뒤에 베풀할 때는 삼천 종의 녹봉을 받았으나, 어버이를 봉양할 수 없으므로 내 마음이 슬펐다.[吾及親仕, 三釜而心樂, 後仕, 三千鍾而不泊親, 吾心悲.]”라고 하였다.《莊子 寓言》

부모님 두 분을 생각하며 슬퍼하도다 ⁵⁶⁶	哀有懷其二人
서리와 이슬이 때에 맞게 내림을 돌아보건대	睽霜露之時降兮
사람이 한 번 세상을 떠나면 돌아오지 않네 ⁵⁶⁷	人一去而無還
엄한 부모의 가르침 받들고자 하더라도	縱欲承其嚴戒兮
단지 꿈과 같을 뿐이니	徒仿像其夢寐
지금 내가 너에게 경계하는 것은	今余所以警汝兮
바로 나의 선고께서 뜻하신 바로다	乃吾考之所志
내가 삼가지 않으면 선고의 뜻을 어기는 것이요	余不惕則違親兮
네가 힘쓰지 않으면 내 뜻을 어기는 것이로다	汝不勉則違我
진실로 자식으로서 아버지 뜻을 어긴다면	苟以子而有違兮
불효라는 큰 죄를 범하는 것이로다	蹈不孝之大過
이미 스스로를 경계하고 너를 경계하니	既自警而警汝兮
집안의 명성을 무너뜨리지 말도록 힘쓰라	勉勿頽其家聲
순 임금은 창고에서 공경하여 '대효'라 일컬어졌고 ⁵⁶⁸	舜恭廩而稱大兮

566 부모님…슬퍼하도다 : 《시경》〈소완(小宛)〉에 “날이 밝도록 잠을 못 이루고, 나의 부모님 두 분을 생각하노라.[明發不寐, 思我二人.]”라고

567 서리와…않네 : 《예기(禮記)》〈제의(祭義)〉에서 “가을에 서리와 이슬이 내리거든 군자가 그것을 밝아 보고 반드시 슬픈 마음이 생기나니, 이는 날이 추워져서 그런 것이 아니다. 또 봄에 비와 이슬이 내려 땅이 축축해지거든 군자가 그것을 밝아 보고 반드시 섬뜩하게 두려운 마음이 생겨 마치 죽은 부모를 곧 만날 것 같은 생각이 들게 된다.[霜露既降, 君子履之, 必有悽愴之心, 非其寒之謂也. 春雨露既濡, 君子履之, 必有怵惕之心, 如將見之.]”라고 하였다.

568 순…일컬어졌고 : 고수가 순 임금을 아무리 괴롭혀도 순 임금은 효성을 다했으므로, ‘대효’라 일컬어졌다. 《맹자》〈만장(萬章)〉에 “순의 부모가 순으로 하여금 곳집을 손질하게 하고서 사다리를 치운 다음, 고수가 창고에 불을 질렀으며, 순에게 우물을 파게하고는 순이 나오려 하자 따라서 흙을 덮었다.[父母使舜, 完廩捐階, 瞽瞍焚廩, 使浚井,

범문자는 비녀가 부러진 뒤에 창성함에 이르렀도다⁵⁶⁹ 范折筭而臻昌
 육적은 덕으로 일컬어졌으되 위태로운 일까지도 하였고⁵⁷⁰ 陸稱德而蹈危兮
 유검루는 받들이 순후했으되 법도에 어긋나는 일까지도 하였네⁵⁷¹ 庾
 承淳而乖方
 무릇 내가 타일러 경계하는 것은 凡吾所以勸戒兮
 진실로 이치와 법도에서 벗어나지 않으니 豈不外乎理軌
 이미 인륜의 떳떳한 도리로써 말하였고 既申之以倫彝兮
 또 사례로써 거듭 말하노라 又重之以物事
 항상 술마실 때에는 취할 것을 두려워하고 恒臨酒而畏醉

出，從而揜之。』”라는 내용이 있다.

- 569 범문자는…이르렀도다 : 범무자(范武子)가 아들 범문자(范文子)를 훈계한 일을 가리킨다. 범문자가 조정에서 대부들이 답하지 못한 은어(隱語)에 대해 세 번이나 나서서 답하자자, 범무자가 성내면서 말하기를 “대부들이 능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원로에게 양보한 것이다. 너는 어린 사람인데 세 번이나 다른 사람을 조정에서 차단하였으니, 내가 진(晉)나라에 있지 않으면 오래지 않아 망하겠구나!”라 하고, ‘지팡이로 쳐서 위도관의 비녀를 부러뜨려 버렸다.〔擊之以杖，折委筭。〕’《國語 晉語》
- 570 육적은…하였고 : 삼국(三國) 시대 오(吳)나라의 효자(孝子) 육적(陸績)이 6세에 원술(袁術)을 알현했을 때, 육적은 원술이 대접해준 굴 세 개를 몰래 품속에 숨겼다. 육적이 떠나려고 절을 할 때에 그 굴이 땅에 떨어지자, 원술은 몰래 굴을 숨긴 까닭을 물었다. 육적이 무릎을 꿇고 대답하기를 “돌아가서 어머니께 드리려고 하였습니니다.〔欲歸遺母〕”라고 하니, 원술이 그를 대단히 기특하게 여겼다. 《三國志 卷57 陸績傳》《小學 嘉言》
- 571 유검루는…하였네 : 남제(南齊) 유검루의 아버지가 병에 걸렸는데, 의원이 “병의 차도를 알려면 변을 맛보아야 하는데, 변이 달면 병세가 더하고 쓰면 형세가 호전된다.”고 하였다. 그러자 유검루는 직접 아버지 변의 맛을 보았는데, 그 맛이 달므로 더욱 근심했다. 이에 자신이 대신 죽게 해달라고 매일 북극성에 빌었는데, 하늘이 감동하여 아버지의 수명을 연장해 주었다. 《南史 卷50 黔婁列傳》《小學 善行》

매양 어진 이를 좋아하되 여색을 좋아하는 마음과 바꾸라⁵⁷²

每好賢以易色

입은 병의 입구처럼 지켜 좋은 말만 하고

口守瓶而出好兮

억누르지 않고 내뱉는 것을 경계하라

戒奔馳之罔抑

내면의 성에서 말미암아 밖으로 경을 행하면

由內誠而外敬兮

하늘이 도와 상서를 내리리라

天乃祐而慶福

순응하여 가르침을 받들고자 힘쓰고

勸和順而奉承兮

간곡하게 잘 타이른 것을 마음에 새기라

服提耳之善誘

장차 이것을 항상 생각하고 잊지 말아서

且念茲而在茲兮

실추하지 말고 무너뜨리지 말지어다

宜勿墜而勿壞

572 어진…바꾸라 :《논어》〈학이〉에 자하(子夏)가 말하기를 “어진 이를 어질게 여기되 여색을 좋아하는 마음과 바꾸며…벗과 사귀되 말함에 성실함이 있으면 비록 배우지 않았다고 말하더라도 나는 반드시 그를 배웠다고 이를 것이다.[賢賢易色…與朋友交 言而有信 雖曰未學 吾必謂之學矣]”라고 하였다.

사辭

발도사 사군에서 노닐 때 짓다

發棹辭 遊四郡時作

난초로 배를 만들고 계수나무로 노를 만들어	蘭爲舟兮桂爲櫂
맑은 물결 거슬러 올라가 삼도에 기대도다 ⁵⁷³	泝空明兮倚三島
아름다운 약속을 품고 잊지 못하여	懷芳約兮不能忘
아름다운 이 바라보니 연기 낀 포구 너머에 있네	望佳人兮隔煙浦
통소와 북 소리 들리며 기가 구름을 가리고	蕭鼓吟兮旗掩雲
깃대와 창을 세우자 날이 저물려 하네	旄戟豎兮天欲暮
그대는 편안하고 즐겁게 나를 맞이하여	君憺佚兮迎我
금슬을 타고 향기로운 술을 주네	鼓瑟琴兮芳酒
미인 가득한 배를 띄우고	御滿船兮美人
갑자기 유독 시녀와 뜻을 통하도다 ⁵⁷⁴	忽獨目成乎下女

573 난초로…기대도다 : 소식(蘇軾)의 〈전적벽부(前赤壁賦)〉에 “계수나무 노와 목란 상앗대로 맑은 물결을 치며 달빛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오르도다.[桂棹兮蘭槳 擊空明兮泝流光]”라고 하였다.

574 미인…통하도다 : 〈초사 구가〉〈소사명(少司命)〉의 “당에 가득한 미인 들이여, 갑자기 유독 나와 뜻을 통하도다.[滿堂兮美人, 忽獨與余兮目成.]”라는 구절과 〈상군(湘君)〉의 “향기로운 모래톱에서 두약을 캐다가, 장차 저 시녀에게 주련다.[采芳洲兮杜若, 將以遺兮下女.]”라는 구절을 원용한 것이다. 〈상군〉의 이 구절에 대해 왕일과 홍흥조의 주에

그대와 손을 잡고 편안히 돌아가길 잊고서
 강가에 옥패를 풀어 놓도다⁵⁷⁵
 향기로운 노를 저어 여울을 내려가니
 봉황이 너울너울 춤을 추며 머물도다
 갑자기 구름이 걷히고 비가 그치니
 슬프게 홀로 감에 이별의 근심만 있도다

子交手兮憺忘歸
 遺玉佩兮江之滸
 理芳楫兮下灘
 鳳蹠蹠兮棲所
 忽雲回兮雨收
 悵獨往兮徒離憂

서는 “두약을 채취해 곧고 바른 이에게 주어, 더불어 뜻을 함께 하여 끝내 변치 않기를 생각한 것이다.[採取杜若, 以與真正之人, 思與同志, 終不變更也.]” 하였다. 여기서는 뱃놀이를 하는 뱃과 뜻을 함께함을 의미하는 듯하다.

- 575 강가에…놓도다 : 상대방이 자신을 다시 불러주기를 바란다는 의미이다. 굴원이 쫓겨난 뒤에 임금이 자신을 다시 불러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예물로 패옥(佩玉)을 물가에 풀어 놓은 데서 온 말이다. 《초사 구가》〈상군〉에 “내 결옥을 강중에 버리고, 내 패옥을 풍포에 풀어 놓으리.[捐余玦兮江中, 遺余佩兮澧浦.]”라고 하였다.

애주⁵⁷⁶부윤을 전송하는 노래

送愛州尹辭

저 사람이여, 눈매가 또렷하고 헌걸차며	若有人兮盼而頎
옥빛 얼굴에 아름다운 치아 빛나네	玉色顏兮耀奇牙
난초를 허리에 차고 혜초로 삼은 신을 신었고 ⁵⁷⁷	蘭爲佩兮履蕙蓀
지초로 끈을 찢어 주니 ⁵⁷⁸ 푸른 인끈 ⁵⁷⁹ 을 단 듯하네	芝裂綬兮若爲綰
이미 그윽히 바라보고 빙그레 웃으니 정숙한 자태 지냈고 ⁵⁸⁰	既睇嗚兮善窈窕
또 향기 가득하여 봄꽃 같도다	又菲菲兮如春花

-
- 576 애주 : 애주는 의주(義州)를 가리킨다. 중국인들이 ‘의주’를 ‘애주’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았다. 《陽坡遺稿 卷14 飲水錄》
- 577 난초를…신었고 : 굴원의 《초사(楚辭)·이소(離騷)》에 “강리와 벽지를 몸에 걸쳐 입고, 가을 난초를 꿰어서 허리에 찬다.[扈江離與辟芷，紉秋蘭以爲佩.]”라고 한 데서 온 말로, 인품이 고결함을 뜻한다.
- 578 끈을 찢어 주니 : 끈을 찢어 준다는 것은 관직에 제수함을 의미한다. 양강엄(梁江淹)의 《후양태부양주목표(後讓太傅揚州牧表)》에 “능력을 헤아려 상을 주고 지혜로운 자를 가려 지위를 주는데, 깊은 곳이어야 인끈을 찢어 주고 멀기 때문에 옥규를 나누어 주었으니, 예전 사람들이 이를 으뜸으로 여기고 옛날 현인들이 이를 찬미해 영탄했습니다.[量能而受賞 撰智而錫位 深乃裂組 遠故分珪 前人以爲稱首 昔賢以爲美詠]”라고 하였다.
- 579 푸른 인끈 : 푸른 인끈(靑綰)은 한나라 때 지방관으로 나가는 사람이 차던 것으로, 전하여 지방 고을의 수령이 되어 나가는 것을 뜻한다.
- 580 이미…지냈고 : 굴원의 《초사(楚辭)·구가(九歌)》〈산귀(山鬼)〉에 “정을 담아 그윽히 바라보고 빙그레 웃음이며, 산귀 그대도 나의 정숙한 자태를 흠모하는가.[既含睇兮又宜笑 子慕予兮善窈窕]”라고 하였다.

고개 돌려 서쪽 땅을 돌아보시고 은총을 더해주셨네⁵⁸⁶

- 240 현주집[玄洲集] 卷之十

곧음과 성실함을 품고서 우줄함을 보존하고 ⁵⁸⁷	眷西顧兮寵有加 懷貞懃兮保慢愚
처음과 끝을 삼가서 어긋남을 경계하네	愼終始兮戒參差
여자가 7일이 지나 용으로 변화하니 ⁵⁸⁸	女七日兮化爲龍
아직 노쇠하지 않아 모두 그대를 영화롭게 해주리라 ⁵⁸⁹	歲未晏兮皆汝華
변방의 바람이 일어나 성 위가 추우니	邊風起兮城上寒
내가 그대를 전송함에 슬픔을 어찌하리	我送君兮悲奈何

이루고자 하시면 국경의 규모를 증대시키시는지라. 이에 고개를 돌려 서쪽 땅을 돌아보이 이곳을 주시어 거처하게 하셨다.[上帝眷之 愼其式廓 乃眷西顧 此維與宅]"라고 하였다. '애주[의주]'가 서쪽 변방에 위치하므로, 이 구절을 인용한 것이다.

- 587 곧음과…보존하고 : 사마상여(司馬相如)의〈장문부(長門賦)〉에 “내 뜻의 우줄함이며, 곧고 성실함으로 낭군의 환심을 얻으려는 마음 품었네.[伊予志之慢愚兮 懷貞懃之懃心]"라고 하였다.
- 588 여자가…변화하니 : 음(陰)이 사라지고 양강(陽剛)이 자라나 도가 회복된다는 뜻이다. 《주역(周易)》〈복괘(復卦)〉 괘사(卦辭)에 이르기를, “그 도를 반복하여 7일 만에 와서 회복하니, 가는 바를 둠이 이롭다.[反復其道，七日來復，利有攸往。]"라고 하였는데, 그 단전(彖傳)에 이르기를, “‘그 도를 반복하여 7일 만에 와서 회복함’은 하늘의 운행이요, ‘가는 바를 둠이 이로움’은 양강(陽剛)이 자라나기 때문이니, 복괘에서 천지의 마음을 볼 수 있다.[反復其道七日來復，天行也，利有攸往，剛長也，復，其見天地之心乎。]"라고 하였다.
- 589 아직…해주리라 : 굴원의 《초사(楚辭)·구가(九歌)》〈산귀(山鬼)〉에 “임금을 머무르게 하여 편안히 돌아가길 잊게 하고 싶지만, 이미 노쇠한 나를 누가 영화롭게 해 주리오.[留靈脩兮憺忘歸 歲既晏兮孰華予]"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현주집

제14권

祭文
제문
銘
명

제문祭文

죽은 아내에게 올리는 제문

祭亡室文

영령께서는 밝고 맑은 기를 받아	惟靈受氣爽淑
천부적으로 곧고 순하였네	貞順天得
일찍 부모를 여의고	弱失怙恃
큰 오라버니를 의지하였는데	長甥是托
곡하고 올 때면	哭泣之哀
이웃 마을에서 귀를 기울였네	隣里側耳
6년 동안 상을 치르면서	香火六載
효성으로 이웃의 이목을 집중시켰네	孝聞目邇
나와 혼사를 논할 때	與我論婚
실로 큰 오라버니의 의견을 따랐네	長甥實倚
계사년(1593) ¹ 봄에	癸巳之春
비로소 혼례를 올려 대추와 밤을 시부모에게 올렸네 ²	始執棗栗

1 계사년(1593) : 원문은 ‘祭巳’인데, 국립중앙도서관본에 근거하여 ‘祭’를 ‘癸’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2 비로소...올렸네 : 고대에 혼례를 올리는 예식에서 신부가 대추와 밤을 가지고 시부모를 찾아뵙는 절차를 가리킨다. 시부모가 계시면, 부부가 음식을 나눠 먹는 동뢰(同牢) 의식을 마친 다음날에 신부가

안으로는 건실하고 밖으로는 온화하니	內坦外夷
덕스런 말은 나를 기쁘게 하였네	德音吾悅
나의 경박스러움은	以我浮靡
그대에게 나아가 다듬었고	就君鋤削
털끝만 한 실수도	毫釐有失
엄하게 책망하니 본보기로 삼을만하였네	峻責可法
바르고 성실한 태도는	貞亮之容
낮빛에 밝게 드러났네	炳著于色
생사를 함께 하자고	死生之偕
그대와 약속하였네	與之成說
살림의 유무를 따져 부지런히 힘쓰며	黽勉有亡
가난한 살림을 힘써 꾸렸네	箕帚糟糠
아내의 도리를 지켜	秉婦之道
주부의 임무를 잘 수행하였네	主饋端明
벗이 간혹 멀리서 오면	朋或自遠
술과 음식을 장만하였고	議厥酒食
소반 닦고 밥상 올리니 ³	拭盤舉案
손님 벗이 탄복하였네	賓友嘉服
아아, 슬프도다	嗚呼哀哉
혼인 후 1년도 되지 않아	曾未周年
나는 어머니 상을 당하였네	我遭母憂

대추와 밤과 고기포를 잡고 시부모를 찾아뵈다.[若舅姑存者 於當夕同牢之後 明日 婦執棗栗脰脩 見於舅姑] 《禮記集說 曾子問》

- 3 밥상 올리니 : ‘거안(舉案)’은 거안제미(舉案齊眉)의 준말로 후한(後漢) 양홍(梁鴻)의 아내 맹광(孟光)이 밥상을 바칠 때 눈높이까지 들었다가 바쳤다는 고사를 말한다.

상을 마치고 돌아와	畢喪而還
집에서 가을 한 철 보냈는데	家食一秋
외적의 병란이 갑자기 닥쳐	賊燹猝逼
바다와 육지에 길이 막혔네	海陸無路
육로가 아니라 배로 가자는 건	不陸而船
실로 숙모의 의견을 따른 것이네	實從叔母
온 집안이 작은 배 타니	全家一葉
해로에서 비바람이 몰아쳤네	海門風雨
숙모가 배에서 병이 나니	叔母病船
삼향 ⁴ 에 정박하여 내렸네	泊下三鄉
외적이 더디오리라 여겨	謂賊必遲
머물러 시간을 보냈네	淹度日星
아아, 슬프도다	嗚呼哀哉
외적을 피하자는 계책은	避賊之謀
내 실로 좋지 않았네	吾實不臧
9월 17일	九月十七
해가 아직 중천에 오기 전에	日未中央
흉악한 대포가 문득 쏘아대더니	凶礮忽動
외적의 배가 날 듯이 쫓아왔네	賊舸飛入
비명 지르며 달아나는데	嗷嘈奔竄
초택에 시체가 널브러져 있네	僵屍草澤
순식간에 서로 헤어져	造次相失
부자와 부부가 흩어졌는데	父子夫婦
노인 엿고 허둥대다가	奉老蒼黃

4 삼향(三鄉) : 지금의 무안군 삼향면 일대를 가리킨다.

조금 가다 쓰러졌네
 그대가 곁에 없으니
 하늘은 어찌 끝없는 고통을 주는가
 갓난애는 젖을 먹지 못하다가
 다음날 숨이 끊어졌네
 도망가다 길가에 묻었는데
 흰 칼날이 춤을 추었었지
 산을 부르짖고 바다를 울부짖으며
 낮에는 숨고 밤에 걸었네
 자식을 잃고 아내 행방 모르니
 인정으로 어찌 견디랴
 나는 머리가 아직 붙어 있어
 이때도 여전히 살아 있었네
 몽탄⁵으로 길을 나오는데
 남북을 구별할 수 없었네
 문득 한 사람을 만나니
 나에게 누구인지 묻네
 내가 성명을 말해주자
 그가 듣자마자 놀라더니
 “그대의 안사람이
 저 길가에 있네요
 그대 행방 몰라서
 하늘에 통곡하며 죽기를 바라더이다
 세 번 물로 뛰어드니

咫尺顛仆
 君不在傍
 天胡罔極
 呱失厥乳
 翌日命絕
 走瘞道周
 白刃交橫
 呼山叫海
 晝伏宵征
 喪子失妻
 胡忍人情
 吾戴吾頭
 此時猶生
 路出蒙灘
 眼迷南北
 忽遇一人
 問我何客
 吾告姓名
 他聞卽愕
 云子內君
 惟彼道側
 失君之故
 呼天乞死
 三赴于水

5 몽탄(蒙灘) : 전라남도 무안군에 있는 여울 이름이다.

세 번 여종이 막았소	三被婢止
절의는 드높은데	節義則高
생명은 가련하더이다” 하였네	性命可憐
내가 놀라 급히 가보니	吾驚急往
그의 말이 사실이었네	他語果然
손을 맞잡고 목메어 우는데	握手噎泣
호랑이가 들을까 두려워하였네	聲畏虎聞
아마도 하늘이 인도한 것이리라 여기니	謂必天誘
이렇게 상봉할 줄 생각지도 못하였네	此會末期
이제부터 서로 붙어 있으리니	自今相携
죽더라도 어찌 후회하거나 슬퍼하리오	死何悔悲
부인도 눈물을 닦으며	主嫗揮涕
우리가 살아 만남을 놀라워했네	嘆我生逢
그대는 곧바로 가락지를 팔아	君卽賣環
음식을 장만하여 올렸네	備食以供
음식이 어찌 목구멍에 내려가리	食何下咽
숙모가 계시지 않으니	叔母不在
함께 돌아가 찾아보려 했지만	欲共還尋
외적이 이미 포위하고 있었네	賊已環蔽
그대는 당시 발이 부르터서	君時繭足
얼마 걷지 못하였네	行不進程
달아난들 장차 어디로 가랴	走將何歸
사방에서 창소리 울리네	四面鳴槍
숲속에서 한번 계획을 세웠지만	一畫于林
서로 바라보며 어찌할 줄 몰랐네	相視蒼茫
아아, 슬프도다	嗚呼哀哉

이날 밤 갈팡질팡하며	是夜偃偃
들판 입구에서 배회하였네	周章野口
앞에는 창이요 뒤에는 칼이라	前戈後刃
왼쪽도 오른쪽도 나아갈 수 없었네	靡左靡右
곤란하여 풀숲에 숨어 있는데	困伏叢蔓
밤이 새고 해가 솟았네	夜盡日出
해가 한낮에 오를 때	日將亭午
아직 외적이 닥쳐오지 않았는데	猶免賊逼
한낮 지나 미시에 이르러	午而至未
마침내 외적과 맞닥뜨렸네	竟與賊遇
아아, 슬프도다	嗚呼哀哉
그대는 이 당시	君於此時
나에게 도망가라 권하면서	勸我走避
“나 때문에	勿以我故
가만히 있다가 저들이 이르게 하지 마시오.”라 하였는데	坐致彼至
갑자기 외적이 들이닥치자	俄然賊至
그대는 나보고 도망가라 재촉하였네	君促我出
내가 숲에서 나와 적에게 돌진하니	我出突賊
헐벗은 몸에 다만 버선만 신었네	裸體徒襪
한 여종이 나를 따라오니	一奴隨我
산으로 내달려 포위를 벗어났네	走山得脫
외적은 곧바로 산을 내려가니	賊去卽下
날은 이미 어두컴컴했네	日已昏黑
다만 서숙과 단 둘이서	獨與擘叔
그대가 숨었던 곳을 찾아갔네	訪君所伏
슬프고 슬프도다 이미 죽어	哀哀已死

시체의 피가 풀숲을 물들였도다
 반드시 해를 당했으리라 여겼지만
 시신을 어루만지며 발을 구르며 슬퍼했네
 아아, 슬프도다
 칼날이 목에 박혀있으니
 내가 차던 단도였네
 그대가 당시 품고 다녔는데
 나는 그 까닭을 알지 못하였네
 어찌 이날 저녁에
 끝내 자결에 이를 줄 알았으랴
 시신이 숲속에 있으니
 나 홀로 어찌하리오
 굶주린 채 용진으로 달아나
 만 번 죽을 뻔하다 겨우 살았네
 퇴각하는 외적을 따라
 옛집으로 돌아오니
 이때 그대의 시신은
 이미 고향으로 돌아왔네
 시월에 널을 갖춰
 임시로 급히 장사를 지냈네
 그다음 해 늦봄에
 한양에서 벼슬살이하였네
 1년이 지나고 그다음 달에
 그대를 위해 남쪽으로 내려왔네
 관을 사서 개장하니
 지금 이미 4년이 지났네

屍血塗草
 謂必遇害
 撫屍踴悼
 嗚呼哀哉
 有刃在頸
 吾所佩刀
 君時自帶
 我昧其由
 豈意茲夕
 竟至自剄
 屍在林中
 吾獨奈何
 飢竄遁珍
 萬死苟活
 跟賊退勢
 反尋舊宅
 此時君骸
 已返故山
 十月具槨
 葬急以權
 明年暮春
 就食于洛
 過暮翌月
 爲君南國
 買棺改葬
 今已四齡

아아, 슬프도다	嗚呼哀哉
그대는 나를 위하다가 죽었는데	君爲我死
나는 그대의 목숨을 저버렸네	我負君生
그대가 맡긴 거울은	君所寄鏡
지금도 여전히 밝네 ⁶	至今猶明
지금 임금 은혜 받아	今以新恩
그대의 무덤 찾아 인사하네	來掃君塋
지금에야 제문을 고하니	今猶告文
무슨 면목으로 저승에서 만나리오	何面幽冥
아아, 슬프도다	嗚呼哀哉
물에 뛰어들고 목을 매는 것은	赴水雉頸
평범한 아낙도 간혹 하지만	凡婦猶或
시퍼런 칼날로 자결하는 것은	自刃自刎
열사도 꼭 그렇게 하기 어렵네	烈士難必
용감하도다, 그대여	勇矣哉君

- 6 그대가…밝네 : 진(陳)나라 때 태자사인(太子舍人) 서덕언(徐德言)이 진 후주(陳後主)의 누이인 낙창공주(樂昌公主)와 결혼하였는데, 시국이 불안하여 장차 헤어지게 될 것을 예감하고는, 동경(銅鏡)을 절반으로 쪼개어 한 조각을 공주에게 주면서 정월 보름날에 도시(都市)에 내다 팔도록 하였다. 그 뒤 과연 부부가 서로 헤어졌는데 서덕언이 도시에서 그 거울을 찾아서 맞춰 보고는 “거울과 사람이 함께 떠났는데, 거울만 돌아오고 사람은 안 돌아오는구나. 향아의 그림자는 다시 볼 수가 없고, 공연히 밝은 달만 휘영청 빛나네. [鏡與人俱去 鏡歸人不歸 無復姮娥影 空留明月輝]”라고 거울에 시를 써서 보냈다. 그 때 공주는 월국공(越國公) 양소(楊素)의 집에서 총애를 받고 있었는데, 이 시를 본 뒤로는 음식도 들지 않고 울기만 하자, 양소가 그 내막을 알고는 마침내 서덕언에게 공주를 돌려주어 부부가 해로(偕老)하게 되었다는 일화가 전한다. 《本事詩 情感》 여기서는 고사처럼 부부가 만나지 못하고, 그 거울만 남아 있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굳센 절개로다, 그대여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용감하고 절개 지키니
 그 절의 어떠하며
 살고 죽는 것 도에 합치되니
 그 곧음 어떠한가
 무덤에 정려를 세우는 것
 그 책임 나에게 있고
 비석을 깎아 덕을 기록함
 그 책임 나에게 있다네
 내가 하지 못하고
 이런 글을 지었네
 오늘 저녁 제사 지내며
 경건히 고하니 슬픔이 깊도다
 영혼이여, 혹시 온다면
 여기 내려와 살피주시라
 아아, 슬프도다
 흠향하소서

夫何能此
 烈矣哉君
 夫何至此
 勇矣烈矣
 如其節義
 生死合道
 如其貞矣
 旌閭掩幽
 責在於我
 勒碑記德
 責在於我
 余所不者
 有如此辭
 今夕之薦
 虔告深悲
 魂其倘來
 降鑑于茲
 嗚呼哀哉
 尙饗

습정 임환⁷에게 올리는 제문

祭習靜文 林權

영령께서는 그 기국이 대단히 크며	惟靈磊磊其器
위위가 우뚝하였네	嶷嶷其儀
빼어난 얼굴에 뺨이 풍성하였으며	魁顏豐頰
이가 고르고 눈썹이 넓었네	駢齒廣眉
밝은 별처럼 빛나는 눈은	明星炯炯
안광이 사람을 쏘아보았네	眼光照人
풍채가 당당하며	符彩昂昂
정신은 속세에서 벗어났네	風神出塵
팔척의 큰 키로	八尺之長
수많은 장부보다 훌륭했네	萬夫之右
이미 문장에 능하고 활을 잘 쏘며	旣文又射
게다가 술도 잘 마셨네	又善飲酒
충효는 하늘에서 타고났고	忠孝天得
우애도 깊었네	友愛能事
이익을 원수처럼 피하고	避利如讎
의리를 여색처럼 좋아했네.	嗜義於色

7 습정 임환(林懷, 1561~1608) : 본관은 나주(羅州). 자는 자중(子中), 호는 습정(習靜)이다. 정유재란이 일어나 이순신(李舜臣)이 보화도(寶化島)에서 군량이 떨어졌을 때 자기 집의 곡식 수백 석을 지출하였으며, 전라도에서 의병을 모아 대장이 되어 8도에 격서(檄書)를 보내 백성의 궂기를 호소하였다. 이 소식이 조정에 전하여 공조좌랑에 보직되었으며 수천의 적병과 대치하면서 고두성(孤頭城)을 지켰다.

만일 의리를 실행하는 경우라면	苟蹈者義
만 번 죽어도 즐겨 하였네	萬死且樂
빼앗기 어려운 의지로	難奪之志
변하지 않는 정성 지녔네	不渝者誠
하늘이 무너지고 황하가 범람해도	崩天潰河
막아내고 떠받칠 수 있었네	可障而擎
아아, 나라가 처음 위기를 당하자	嗚呼值國初湮
대장 ⁸ 을 따라 의병을 이끌었네	從戎倡幕
움직이고 멈춤을 지휘함은	倡動與靜
공이 실로 수립한 것이며	公實坐作
위력과 기세를 떨침도	倡聲與勢
공이 실로 계획한 것이네	公實籌畫
이끌던 오랜 동지는 공을 보기를	倡故視公
아우나 형처럼 여겼으며	如弟如兄
발이나 손처럼 여겨	如足如手
생사를 같이하였네	爲死爲生
역질을 만나 들것 실려 돌아와	遭厲舁還
함께 축석루 지키지 못하였으니, ⁹	未共守臺
의병의 혼백을 외롭게 하고	使倡魂孤
홀로 산 것이 부끄러웠네	獨生所慙
아아,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嗚呼逮丁再獮

8 대장 : 창의사(倡義使) 김천일(金千鎰, 1537~1593) 장군을 가리킨다.

9 역질을...못하였으니 : 임환은 김천일을 따라 남하하는 적을 쫓아 상주로 갔으나 병이 나서 들것에 실려 고향으로 돌아왔다. 이후 김천일은 진주성 싸움에서 전사하였다. 권15 〈林君習靜墓誌銘〉 참조.

호서와 호남이 도탄에 빠졌네	兩湖魚爛
목을 길게 빼고 칼날을 받으니	延頸受刃
고을은 멸망하고 성은 텅 비었네	邑夷城散
공이 이에 의병을 계승하니	公乃踵義
남쪽의 선비들이 호응하였네	南士響答
맨손으로 성내고 부르짖으며	徒手悲呼
외적의 포위를 벗어났네	賊圍解匝
피 흘리고 싸우며 군진을 따르다가	血搏順陣
단신으로 견고한 적을 치켜보니	以單仰堅
적의 주저하며 두려워하는데	賊沮所怵
그들의 선봉을 꺾어버렸네	挫銳摧先
관군도 숨을 죽이고	官軍伏氣
명의 장수 감탄하였네. ¹⁰	天將之歎
급히 우리 왕에게 고하니	颺告我王
왕이 관직으로 은혜 베풀었네	王寵以官
아아, 무주를 너그러움으로 다스리다가	嗚呼理茂以寬
즐겁지 않아 마침내 돌아왔네	不樂竟歸
문화현령과 직산현감이 되었으나	爲文爲稷
마음에 기약한 바가 아니었네	非志所期
불초한 이들에게 비난을 당하니	逢咀不肖
간사한 이를 시켜 충신을 해치려 하였네	俾奸謀忠
이에 훌훌 털어버리고	于時忽忽
공명에 뜻을 끊어버렸네	絕意名功
성의 남쪽에서 병이 들자	病憊城南

10 명의 장수 감탄하였네 : 명의 장수 오종도(吳宗道)를 가리킨다. 권15
〈林君習靜墓誌銘〉 참조.

약물과 궤장에 의지하였네	藥物几杖
속세에서 술동이 옆에 끼고	塵棲酒瓮
시서(詩書)에 몰두하였네	蟲蠹詩鞅
남쪽으로 가족을 데리고 가	提挈于南
형제들을 돌보았네	眷彼鵠原
집을 짓고 뜰을 쓸며	築室掃庭
일찍이 세월 가는 줄 몰랐네	曾未判年
아아, 현재 사람과 사귀고 옛날을 본받지 않으니	嗚呼交今不古
뒤돌아 비웃으며 ¹¹ 벼를 파네	背笑賣友
도도하게 이익을 좇으니	滔滔射利
누구를 공경한들 오래 가라	孰敬其久
공은 홀로 믿음을 지켜	公獨守信
본래 타고난 마음을 회복하였네	挽回古初
오종도 장군이 의리에 감동하여	吳將感義
그의 처자식을 맡겼네 ¹²	托其妻兒
통역을 통해 속마음 비추니	傳譯照肝
타국 사람과 서로 한마음이었네	異域一心
풍도(風度) 우러러 정성 다하니	仰風輸誠
돌을 뚫고 쇠를 자르네 ¹³	貫石斷金

11 뒤돌아 비웃으며 : 보는 앞에서는 따르는 척하다가 뒤에서는 헐뜯고 욕하는 것이 인간 사회의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말이다. 참고로 두보의 시에 “늘그막에 젊은 친구와 사귀어 보려 하였더니, 얼굴 앞에선 마음을 주다가도 얼굴 돌리면 비웃는구나. [晚將未契託年少 當面輸心背面笑]”라는 구절이 나온다. 《杜少陵詩集 卷14 莫相疑行》

12 오종도…맡겼네 : 권15 〈林君習靜墓誌銘〉 참조.

13 돌을…자르네 : ‘관석(貫石)’은 한(漢)나라의 장수 이광(李廣)의 고사를 말한다. 이광이 사냥을 하다가 호랑이를 보고 위험을 느껴 온 힘

귀하거나 천하거나	無貴無賤
서로 아는 사람은	凡所相識
누가 진심을 다하여	疇不愜悃
생사를 의탁하지 않으리	死生相托
아아, 초곡의 나를 찾아온 건	嗚呼訪我草谷
계사년(1593)부터 시작이었네	初自癸巳
한번 손을 맞잡고 서로 기약하기를	一握相期
죽을 때까지 변치말자 하였네	在沒終始
공을 나의 형이라 부르고	謂公吾兄
공은 아우로 여겼네	公以弟視
공이 의병을 일으킬 때	逮公舉義
공은 실로 나를 의지하였네	公實我倚
다급한 사정이 생겨서	情有所迫
끝내 일을 함께하지 못하였네	未克究竟
서리 맞으며 작별하니	濕霜告別
눈가에 눈물이 서로 맺혔네	淚睫相映
평소 병으로 아팠기에	疚痛生平
나의 진정을 다 드러내지 못하였네	莫暴我貞

을 다해 활을 당겨 쏘고 가서 보니, 호랑이가 아닌 큰 바위에 화살촉이 깊숙이 박혀 있었다. 이광이 크게 놀라 살을 빼어 다시 두어 번 쏘아 보았지만 끝내 박히지 않았다고 한다. 《史記 卷109 李將軍列傳》 여기에서는 정성을 다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단금(斷金)’은 《주역(周易)》 계사전 상(繫辭傳上)의 “두 사람이 마음을 같이하면 쇠도 자를 수 있고 그들의 말은 난초 향기와 같다.[二人同心 其利斷金 同心之言 其臭如蘭]”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다. 두 사람의 우의를 가리킨다.

아아, 임인년(1602)¹⁴ 가을에
 나의 병이 위독해지니
 형제들도 구제하지 못하고
 집안 식구와도 멀리 떨어졌네
 공이 당시 달려와 간호하니
 친동기보다 가까웠네
 배를 끌고 나를 태워
 나를 남쪽에 머물게 하였네
 때에 맞춰 음식을 준비하고
 좋은 약을 장만하며
 의원을 맞이하여 진맥을 보고
 침석을 모두 써서 치료하였네
 이를 힘입어 병이 나아
 죽음은 면하게 되었네
 장차 끊어지려는 목숨을 이었으니
 누구의 힘인가
 아아, 슬프도다
 공이 성의 남쪽에 있을 때
 위독한 고질병에 시꺼멓게 야위었네
 내가 놀라 붙잡고 물으매
 “어찌하여 이렇게 심하게 되었소” 하니
 공이 “이렇게 된 것을
 나도 잘 모르겠네
 분명히 술 때문이라

嗚呼黑虎之秋
 吾病告革
 兄弟莫救
 家室遠隔
 公時赴護
 劇於同腹
 舟來載我
 館我南郭
 節時飲食
 藥餌之良
 迎醫視脈
 鍼石俱張
 賴此以愈
 得免死亡
 續命將斷
 云誰之力
 嗚呼哀哉
 公在城南
 癯瘠羸黑
 吾驚摻詰
 胡至此極
 公云致此
 吾所未悉
 端由麴蘖

14 임인년 : 임인년이 흑호의 해이다.

그래서 끊었다네”라 하였네
 날로 노래지고 초췌해져
 뼈만 앙상하게 남았네
 마침내 남쪽으로 데리고 오니
 끝내 북으로 돌아가지 못하였네
 5월 10일 전에
 내 꿈에 다정스레 나타났네
 풍채가 당당하니
 흡사 예전과 같았네
 “나는 매우 건강하니
 다시 나를 걱정하지 마시게” 하였네
 이에 공이 분명히 나았다 여겼는데
 이미 죽었다고 누가 생각이나 했으랴
 꿈을 꾸 뒤 얼마 안 되어
 마침내 부음을 받게 되었네
 아아, 슬프도다
 이분을 위해 애통하지 않으면
 과연 누구를 위해 애통하리오
 공을 위해 애통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해 애통한 것이요
 공을 위해 슬퍼한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 슬퍼한 것이라
 처음에 하늘이 공을 낳을 때
 혹 기대할 만하다고 여겼겠지
 그러므로 공에게 재주와
 아울러 충, 신, 의도 주었네

所以斷絕
 日黃日悴
 瘦到于骨
 遂挈以南
 竟不能北
 五月末旬
 夢我殷勤
 風儀仡仡
 恰若疇昔
 言我已健
 勿復念及
 謂公必愈
 孰意已逝
 夢後不日
 竟承凶計
 嗚呼哀哉
 微斯爲痛
 果誰爲痛
 非爲公痛
 爲斯世痛
 非爲公悲
 爲國家悲
 始天生公
 謂或可期
 故授公材
 與忠信義

어찌 그릇이 그리 큰데도
 운명은 기박했는가
 문장이 뛰어난데 급제하지 못하니
 운수에 비방을 돌리고
 재주는 장상이 되지 못하니
 나도 그 이치를 모르겠네
 아아, 슬프도다
 공의 기개와
 공의 정신은
 마땅히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혹 올라가 상천에 있어
 바람을 타고 구름 위에 떠서
 정기를 수레로 삼고
 관우와 장비를 따라
 우레를 잡고 번개처럼 내달려
 어찌면 별이 되어
 하늘에 밝게 펼쳐지리
 그렇지 않으면 땅에 들어가
 산악이 되거나
 강하가 되어
 성난 파도가 물거품을 날리며
 사람들의 눈과 마음에 밝게 빛나리니
 아름다운 위의를 어찌 잊으랴
 아아, 슬프도다
 공이 타계한 지 얼마 안 되어
 형수 또한 곧이어 돌아가셨네

胡器之宏
 而命之蹇
 文而不第
 歸譏於數
 才不將相
 吾昧其理
 嗚呼哀哉
 公之氣槩
 與公精爽
 宜永不泯
 或昇而上
 騎風泛雲
 正氣爲輶
 從關與張
 秉雷驅霆
 或爲星辰
 昭布蒼冥
 不然入地
 爲山爲岳
 爲江爲河
 怒濤揚沫
 炳炳心目
 婉婉可忘
 嗚呼哀哉
 公逝未期
 嫂又繼亡

첩에게 두 딸이 있고
 유복자로 외아들 있는데
 독자로 부친의 사랑 받지 못하여
 다만 어머니에게 의지하네
 자녀를 기르고 시부모에 효도하니
 모두 과부만 믿었네
 아아, 슬프도다
 거리가 아득히 멀어
 타계할 때 곡하지 못하였네
 한 해가 지나 바야흐로 찾아오니
 정은 어그러지고 예는 어긋났네
 풀이 묵도록 곡하지 못하다가
 제문으로 비록 말을 남기지만
 눈물은 절로 왈칵 쏟아지고
 나도 모르게 목이 메이네
 영령이여 혹 아는가
 내가 이곳에 와서 곡하는 줄
 영령이여 혹 아는가
 내가 이곳에서 제사하는 줄
 영령이여 아는가 모르는가
 어찌 말이 없는가
 아아, 슬프도다

妾有二女
 遺腹一子
 獨無父憐
 惟母之倚
 養嗣克孝
 惟寡之恃
 嗚呼哀哉
 道里悠邈
 哭不以時
 經歲方臨
 情壤禮虧
 宿草不哭
 記雖垂說
 涕自無從
 聲未覺失
 靈其知耶
 我來哭此
 靈其知耶
 我奠于是
 靈知否乎
 胡不語只
 嗚呼哀哉

죽은 벗 백순 김창효¹⁵에게 올리는 제문

祭亡友金伯順 昌孝

영령은 그 자질이 순박하고 굳세어	惟靈淳毅其質
충심과 성실을 행하였네	忠懇之行
단정하게 행동을 유지하였으며	舉舉以持
오만함을 버리고 공경함을 지녔네	祛傲存敬
뜻을 가다듬고 학문을 연마하였지만	礪志礪學
여러 번 과거에 합격하지 못하였네	屢貢未中
의지는 그리도 광명정대했건만	意何坦夷
운명은 어찌 그리 막혔는가	命何阻壅
낮은 벼슬도 나아가지 못하고	一命未就
쉰 살에 갑자기 타계하였네	五旬斯忽
아아, 슬프도다	嗚呼哀哉
해가 정유년(1597)이 되어	歲丁丁酉
호남, 영남이 난리에 휩쓸려	二湖盪潏
흉한 칼날에 맞아	兇鋒所劘
굳은 시체가 산처럼 쌓였네	僵屍山積
창졸간에 서로 헤어져	造次相失
사랑하는 이를 지킬 수 없었네	恩愛莫保
형의 효성과 자애로움으로도	以兄孝慈
아들은 포로가 되고 어머니는 여의었네	俘子喪母

15 김창효(金昌孝) :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은 여타 문적에서 찾기 어렵다. 다만 권1 〈欲哭〉의 세 번째 수에 그에 대한 내용이 잠시 나오는데, 현주가 피난 다닐 때 은혜를 베푼 인물이다.

피난 길 온통 내달려 숨었으니	舉道飄竄
깊숙한 숲에서 목숨을 부지하였네	偷喘林奧
아아, 슬프도다	嗚呼哀哉
내가 당시에 왜적을 만나	我時遘賊
온 집안 식구를 잃었네	喪滅全家
홀로 나만 목숨 유지하여	獨戴我頭
혈벗은 몸으로 멀리 달아났네	赤軀蹈遐
상처 난 피부와 부르튼 발로	瘡膚繭足
깊숙한 틈에서 살아남았네	命餘喉隙
굶주림에 용산에서 넘어지고 ¹⁶	飢仆涌岫
바위 굴에서 숨을 이어갔네	延息巖窟
왼쪽에는 칼, 오른쪽에는 총	左劍右銃
둥지와 굴에도 짐승이 사라졌네	獸罄巢穴
사방에 달아날 길 없고	四無脫路
입에는 낱알도 끊어졌네	口絕糜粒
기운은 숨결에 겨우 남아	氣存呼吸
짧은 시간도 머무르기 어려울 듯하였네	難淹晷刻
아아, 슬프도다	嗚呼哀哉
형은 당시에 틈을 엿보아	兄時伺隙
죽을 쑤어 나를 먹였네	糊我以食
곧바로 병든 나를 부축하여	卽扶我疾
노복과 교대로 등에 업었네	背負替僕
나를 재워주고 먹여주며	館我飽我

16 용수(涌岫) : 용진산(聳珍山)으로 광주시(光州市) 광산구(光山區)에 있는 산 이름이다. 뒤에 보이는 용산도 이 산을 가리킨다. 권1의 <欲哭>에서 같은 내용을 읊으면서 용진산(聳珍山)이라 하였다.

방을 함께 썼네	不隔戶室
동기간처럼 여겨서	視如同氣
같은 방에 모여 식사하였네 ¹⁷	聚食共堂
매우 급하고 위태로워도	倉卒顛沛
달아나면서 나를 데리고 갔네	以走以將
두어 달 동안	數月之間
난리를 함께 겪었네	患難與同
수도 없이 죽을 뻔했는데	萬萬必死
그대 덕분에 살아났네	得君以生
위험에 빠진 타인을 급히 구하는 건	急人於厄
친구라도 오히려 가끔 있는데	親舊猶或
더구나 나와 형은	況吾與兄
일찍이 일면식도 없었지만	曾不一識
이름만 듣고 죽음을 구하였으니	聞名救死
옛날에도 없었던 일이라네	古未聞知
아아, 슬프도다	嗚呼哀哉
한 끼 식사의 은혜를	一飯之惠
장부는 오히려 간직하는데 ¹⁸	丈夫猶懷

17 같은…식사하였네 : 집안 식구로 여겨서 다른 집안 식구들과 함께 모여 식사를 했다는 의미이다.

18 한 끼…간직하는데 : 한신(韓信)이 일찍이 포의(布衣)의 신분으로 빈 궁해서 끼니를 잊지 못하고 소외당한 채 성 아래[城下]에서 낚시를 하고 있을 적에, 빨래를 하던 아낙네[漂母] 중의 한 사람이 굶주린 한신의 기색을 보고서 불쌍하게 여긴 나머지 수십 일 동안 밥을 먹여 주었는데, 이에 한신이 감격해서 언젠가 반드시 크게 보답하겠다고 하자, 그 아낙네가 “대장부가 끼니도 해결하지 못하기에, 내가 왕손을 불쌍히 여겨서 밥을 주었을 뿐이니, 어찌 보답을 바라겠는가.[大丈夫不能自食, 吾哀王孫而進食, 豈望報乎!]”라고 하였는데, 한신이

한 달을 구하여 살려주니	浹月救活
의리와 정성이 어떠한가	義誠何如
감동한 마음 골수에 새겨	感鏤心髓
죽음도 회피하지 않으리	死無所辭
북쪽과 남쪽은 아득히 멀어	北南懸邈
뒤늦은 때에 부고를 받았네	承計不時
남쪽 지방 부신을 찬 지가	逮佩南符
지금 이미 해를 넘겼네	今已踰年
공적, 사적으로 얹매여	公私所牽
곡하는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였네	帶曠哭筵
지금 비로소 제사에 지내니	今始歷奠
나의 마음은 타는 듯 괴롭네	我思如焚
아아, 슬프도다	嗚呼哀哉
용산의 봉우리	涌山之峯
용강 ¹⁹ 의 물.	龍江之水
하늘이 황폐해지고 땅이 늙어 ²⁰	天荒地老
간혹 다하는 날이 있더라도	或有窮已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은	我感我思
어찌 다함이 있으리오	曷有其屆
아아, 슬프도다	嗚呼哀哉
흠향하소서	尙饗

나중에 초왕(楚王)이 되고 나서 그 여인을 찾아 천금(千金)으로 보답한 고사가 전한다. 《史記 卷92 淮陰侯列傳》

- 19 용강(龍江) : 광주 광산구를 흐르는 황룡강을 가리킨다.
 20 하늘이…늙어 : 이하(李賀)의 〈치주행(致酒行)〉에서 “내 들으니 마주(馬周)가 옛날 신평의 객이 되었는데, 세월이 오래 지나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吾聞馬周昔作新豐客 天荒地老無人識.]”이라 하였다.

우윤 원황²¹에게 올리는 제문

祭元右尹文 - 覬 -

영령은 안으로 정성스럽고	惟靈惟中之懇
밖으로 험결찮네	惟外之嶮
자질은 견고하였고	惟質之堅
기운은 굳건하였네	惟氣之確
잡은 것은 단단하였고	惟執之固
지킨 것은 간략하였네	惟守之約
여묘살이에 공부를 멈추었으니	墨毀廬墓
돌을 짊어지고 무덤을 쌓았네	負石塋築
누이들과 재물을 나눌 때	分貳娣妹
스스로 늙고 파리한 것을 택하였네 ²²	自擇老瘠
효도와 우애의 천성은	孝友之天
신명에게 따져볼 수 있으며	可質神明
행실을 닦고 학업을 이루	行脩業成
몸은 출세하고 이름은 드날렸네	身立名揚
개결함으로 몸 가짐하니	介潔自持
빼어난 그릇은 하늘이 만들었네	偉器天成

21 원황(元覬) : 본관은 원주(原州). 자는 경명(警鳴), 호는 구정(龜汀)이다. 선조 때 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를 거쳐 우윤(右尹)에 이르렀다.

22 누이들과...택하였네 : 설포(薛包)의 고사를 인용하였다. 설포는 동한(東漢) 여남(汝南) 사람으로 자는 맹상(孟嘗)이다. 부모가 돌아가신 뒤에는 재산을 분할하면서 자기는 나쁜 것을 갖고 좋은 것은 모두 동생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小學 善行》

아아, 슬프도다	嗚呼哀哉
내가 비록 이름을 흠모하였지만 ²³	吾雖欽名
일찍이 서로 알지는 못하였네	曾未相識
내가 영남의 고을을 다스릴 때 ²⁴	吾忝嶺郡
공은 호남의 고을에 수령이었소	公宰湖邑
내가 호남을 지나갈 때	逮吾過湖
공은 먼저 길에서 기다리다가	公先侯路
하룻밤을 방루(房樓)에서	一夜房樓
본래 아는 듯 반갑게 대해 주었네 ²⁵	傾蓋如素
곧바로 혼사를 논의하니	卽與論婚
공의 딸과 나의 아들이라네 ²⁶	公女我子
금석 같이 사귀어 견고하고	金石互堅
오이, 참같이 서로 의지했네 ²⁷	瓜葛之倚
공을 딸을 매우 사랑하여	公鍾女愛

-
- 23 흠모하였지만 : 원문은 ‘欽名’인데, 국립중앙도서관 본에 근거하여 ‘飲’을 ‘欽’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 24 내가…다스릴 때 : 조찬한이 영천(榮川) 군수로 있을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때 그의 나이 43세였다.
- 25 본래…주었네 : 경개여고(傾蓋如故)를 의미한다. 《사기(史記)》 권83 〈추양열전(鄒陽列傳)〉에 “흰머리가 되도록 오래 사귀었어도 처음 본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수레 덮개를 기울이고 잠깐 이야기했지만 오랜 벗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있다.〔白頭如新 傾蓋如故〕”라는 말이 나온다.
- 26 곧바로…아들이라네 : 조찬한의 장남 조휴(趙休)가 윤항의 딸과 혼인하였다.
- 27 오이…의지했네 : 덩굴이 뻗어서 서로 얹힌 오이와 참으로, 집안의 혼인으로 맺어진 관계를 뜻한다. 한(漢)나라 채옹(蔡邕)의 〈독단(獨斷)〉이란 글에 “무릇 선제(先帝) 및 선후(先后)와 과갈(瓜葛)의 관계가 있는 이들은 모두 모였다.” 한 데서 온 말이다.

차마 나에게 보내지 않았네
 나의 아들이 데릴사위로
 십오 년을 보냈네
 공은 나보다 조금 위라
 나는 형처럼 여겼네
 아아, 슬프도다
 내가 일찍이 병이 많아
 귀도 멀고 종기가 끓었네
 공은 조금도 병이 없어
 여름, 겨울을 겁내지 않았네
 나는 공이 재목이라고 여겼으니
 실제로 조정의 신료에 부합되네
 나는 공이 장수하리라 여겼으니
 7~80은 누리리라 기필하였네
 아아, 슬프도다
 나를 주재하는 건 비록 나지만
 내가 아니라 바로 하늘이라
 어찌 국가를 다스릴 그릇으로
 운명은 그렇게 막혔는가
 잠깐 대성에서 잘못하여
 곧바로 호남으로 귀양갔네
 제용판관에서 승진하여
 경기도 관찰사가 되었네
 즐겁게 여기지 않아 곧바로 물러나
 조정 반열에서 맴돌았네

不忍寄我
 吾兒贅托
 十五餘載
 公差長我
 我猶兄視
 嗚呼哀我
 吾嘗多疾
 聾聵臃腫
 公無片恙
 不怯夏冬
 吾謂公材
 實合廊廟
 吾謂公壽
 必耄與耄
 嗚呼哀哉
 由我雖吾
 不我是天
 何器之國
 而命之屯
 乍騫臺省
 仍謫湖縣
 用判而陞
 刺史畿甸
 不樂乃解
 盤桓朝列

임금 ²⁸ 을 호종하여	逮扈于公
병조참의 ²⁹ 가 되었네.	貳副西銓
공이 횡금(橫金)의 녹질 ³⁰ 에 올라	功登金秩
이에 상 ³¹ 의 목민관이 되었다가	乃牧商民
이윽고 순찰사의 부신을 잡으니	俄秉巡節
영남이 잘 다스려졌다고 칭송되었네	嶺海稱理
조정에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還朝不日
모문룡의 진영에 접빈사가 되었다가	賓接毛壘
들끓는 오랑캐를 만나게 되니	值虜充斥
온 서도(西道)가 살상을 당하였네 ³²	悉西鑿糟
공은 돌아와서 즉시 되돌아가	公返卽還
창과 칼을 무릅썼네	昧冒槍刀
해변에 머물면서	棲托海滙
굶주리고 목마르며 습기로 장독(瘴毒)이 올라	飢渴濕瘴
측은하고 불쌍하게 고통을 받으며	惻悶顛連
굴로 숨어 살 수 있었네.	濟活流穴
오랫동안 영양 섭취를 못해	久損榮衛
겨우 목숨을 회복하였네	僅乃復命

28 임금 : 제후국의 왕을 공으로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29 병조참의 : 서전(西銓)은 병조, 이부(貳副)는 부이(副貳)란 말로 참의를 가리킨다.

30 횡금의 녹질 : 어부(魚符) 없이 금어선화대(金御仙花帶)만 차는 것으로, 직학사(直學士)·정시랑(正侍郎)·급사중(給事中) 등이 패용하였다.

31 상(商) : 상주지역 이름으로 보이는데 미상이다.

32 들끓는…당하였네 : 모문룡이 가도(假島)에 웅거하면서 평안도와 황해도 지방을 약탈한 사실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오조(鑿糟)는 《한서(漢書)》〈곽거병전(霍去病傳)〉주에 보이는 바, “세속이 사람을 다 살상한 것을 들어 오조(鑿糟)라 한다.”라 하였다.

소장과 대책을 올려
 마침내 정승의 뜻을 거슬렀네
 어렵고 곤란한지
 모두 얼마나 되었나
 서울에서 직무를 맡으며
 어전에 올라 생각을 아뢰었지만
 높은 하늘은 더욱 멀어져
 충정을 고할 수 없었네
 아아, 슬프도다
 병으로 명의 사신 되지 못하니
 실은 충심으로 고한 때문이네
 흩어져 살다가 성묘를 고향고
 선영으로부터 돌아왔네
 가을부터 겨울까지
 말을 타고 출입하였는데
 아이가 서울에서 와서
 나에게 건강하시다고 알려 주었네
 그런데 열흘도 못 되어
 부고가 갑자기 도착하였네
 꿈인가 싶는데 꿈은 아니오
 사실이려니 여기니 어찌 사실이리오
 놀라 부르짖으며 당혹하고
 통곡하면서 일어섰네
 아아, 슬프도다
 나는 병들어도 살았는데
 공은 건강하였는데도 죽었구나

抗章獻策
 遂忤台伯
 偪側蹇產
 凡幾日月
 舉職京兆
 登對吐臆
 天高愈邈
 丹悃莫白
 嗚呼哀哉
 病違朝天
 實由忠告
 散居告省
 返自先塋
 徂秋迄冬
 乘馬出入
 兒自京來
 報我康億
 曾未一旬
 凶計忽及
 謂夢非夢
 謂真豈真
 驚呼惶惑
 慟哭起立
 嗚呼哀哉
 我病而存
 公康而沒

병든 자와 건강한 자
 누가 살고 죽었는가
 하늘이 한 짓인가, 귀신이 한 짓인가
 이치를 헤아릴 수 없네
 세 아들 줄지어 모시니
 공은 항상 기뻐하였는데
 공은 어찌하여 그들 버리고 떠나는가
 차마 영영 이별한단 말인가
 어린 손자 올 적에
 공은 항상 무릎 위에서 달랬는데
 공은 어찌 버리고 가는가
 차마 손을 놓는단 말인가
 산 자가 어찌 아는 것이 있으며
 죽은 자가 어찌 알지 못하랴
 산 이는 알고 죽은 이는 모르니
 아는 것이 모르는 것만 못하네
 몸이 관직에 매어
 곡하고 절할 방법이 없기에
 감히 조출한 제수를 보내
 멀리서 슬픈 마음을 올리네
 아이가 대신 곡하고 제사 드리며
 슬프고 간절한 마음 호소하네
 출발에 글을 지어 허둥대니
 제문이 조리를 잃었네
 영령이여 바라건대 양찰하여
 강림하소서

病者康者
 誰其存沒
 天耶鬼耶
 理不可測
 三秀列侍
 公常怡悅
 公胡棄去
 其忍永訣
 孫稚呱呱
 公常膝之
 公胡捨去
 其忍手釋
 生何有知
 死何昧識
 生知死昧
 知不如昧
 身縻官守
 無緣哭拜
 敢送微薄
 遠薦哀悵
 代兒哭奠
 訴此悲懇
 臨文荒悞
 辭失條節
 靈庶恕察
 以降以格

농암 김주³³ 선생에게 올리는 제문

祭籠巖先生金公文 -金澍-

영령은 커다란 재주를 받았지만	惟靈受材之宏
어려운 때를 만났네	逢時之屯
도를 지키며 힘썼지만	秉道而邁
부당함을 당하여 이지러졌네	當否而騫
밝음을 간직하여 빛을 드날렸는데	抱明揚耀
하늘은 어두워 더욱 캄캄해졌네	天昏彌黝
열기를 불어내고 온기를 퍼트렸지만	嘘炎撥溫
오랜 겨울은 더욱 차갑기만 했네	廣冬愈沍
장례원의 전의가 되어	掌禮典儀
무너져가는 예법을 일으켰네	崩缺斯舉
명을 받들어 하절사가 되어	銜命奏賀
엄숙히 천자의 궁궐로 내달렸네	肅駟天宸
그 일을 잘 마무리 짓고	克竣乃事
대열을 돌이켜 ³⁴ 돌아왔네	班馬旋轅

33 김주(金澍) : 고려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선산(善山), 호는 농암(籠巖)이다. 공양왕을 섬겨 벼슬이 예의판서에 이르렀다. 1392년(공양왕 4)에 하절사로 명나라에 갔다가 일을 마치고 압록강에 이르러 고려가 망하고 조선조가 개국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동으로 향하여 통곡하며 부인 유씨에게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 하였으니 내가 강을 건너가면 몸 둘 곳이 없다.”라는 편지를 썼다. 또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양수(揚綏)라 할 것과 조복(朝服)과 신을 부치면서 부인이 죽은 뒤에 합장할 것을 당부하였다. 그리고 중국에서 돌아오지 않았다.

34 대열을 돌이켜 : 《좌전(左傳)·양공18년》에 “형백(邢伯)은 중항백(中

요동을 지나고 계북을 통과하니	歷遼穿薊
강을 건너면 고국 산하라네	隔水鄉園
바야흐로 수레에 기름칠 재촉하여 ³⁵	方催膏轄
궁궐 문을 바라보았네	瞻望君門
누가 알았으랴, 동쪽 하늘에	孰意東天
상서로운 해가 어두운 밤을 이을지 ³⁶	瑞日承夜
천명이 크게 개혁되니	天命丕革
큰 성인이 용처럼 날아올랐네	大聖龍翥
돌아왔지만, 장차 어디로 돌아갈까	歸將曷歸
나라는 이전 나라가 아니네	國非故國
받들어 행한 것은 명령이나	所承者命
명령을 어디에 복명하라	命安所復
성인으로 광인을 바꾸었으나	以聖易狂
죽으려 하여 곤액을 취하였네	欲死近陌
몸을 임금에게 바쳤으니	以身許君
돌아가고픈들 누구 신하인가	欲歸誰臣
이에 도포와 신을 벗고	爰脫袍靴

行伯)에게 아뢰기를, “돌아가는[班] 말의 울음소리가 들리니 제나라 군대가 달아난 듯합니다.”라고 하였는데, 두예(杜預)의 주에서 “반(班)은 떠나다[別]는 뜻이다. 밤에 달아나느라 말들이 서로 보지 못해서 온 것이다.”라 하였다.

- 35 수레에 기름칠 재촉하여 : 《시경》 〈패풍(邶風) 천수(泉水)〉에서 “간 땅에 나가서 잠을 자고 언 땅에서 전별하였네. 수레에 기름 치고 굴대 꽃아 수레 돌려 달려가면 금방 위나라에 이르러만 도리에 해롭지 않을까.[出宿于干 飲餞于言 載脂載輦 還車言邁 遄臻于衛 不瑕有害]”라 하였다.
- 36 상서로운…이을지 : 조선이 고려의 뒤를 이어 나라를 세웠다는 의미이다.

노복에게 당부하기를	戒僕有言
“부인이 죽게 되면	夫人之沒
장사지낼 때 이것도 묻어라	葬是偕藏
묘는 세우되 표석은 하지 말고	墓而不表
자취와 이름을 숨겨라”라 하였네	泯跡與名
간곡히 종에게 부탁하며	丁寧付僕
후손에게 경계의 말 내렸네	垂飭來昆
끝내 중국 땅으로 되돌아가	遂返華疆
하인들과 무리 지어 살았네	輿廝混群
삶을 슬퍼하고 죽기를 바라다가	悲生樂死
흔적 감추고 사라져 버렸네	韜晦滅絕
아아, 슬프도다	嗚呼哀哉
산에 올라 고사리를 캐니 ³⁷	登山採薇
죽은 뒤 이름 남기려는 게 아니네	非是死名
유허 지나며 〈맥수가〉 부르니 ³⁸	過墟歌麥
또한 지극한 마음에서 나왔네	亦出至情
그러나 오히려 우뚝 서서	然猶特立

37 산에…캐니 : 백이와 숙제가 주나라의 곡식을 먹지 않겠다며 서산(西山), 즉 수양산에서 고사리를 캐 먹다가 굶어 죽은 일을 말한다.

38 유허…부르니 : 〈맥수가〉는 기자(箕子)가 은(殷)나라의 폐허를 보고 불렀다고 하는 노래로, 《사기》 권38 〈송미자세가(宋微子世家)〉에 이르기까지 “기자가 주나라로 조빙하러 가는 길에 은나라의 옛 도읍 터를 지나다가 궁실이 모두 무너지고 그 자리에 벼와 기장이 자라는 것을 보았다. 기자가 몹시 상심하였으나, 목 놓아 울자니 울지 않고, 눈물을 흘리자니 아낙네와 같을 것 같았다. 이에 〈맥수(麥秀)〉 시를 짓고는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에 ‘보리 자라 무성하고, 벼와 기장 기름졌구나. 교활한 저 아이는, 나를 좋아하지 않는구나.[麥秀漸漸兮 禾黍油油 彼狡童兮 不與我好兮]’라고 하였다.” 하였다.

이름이 드러나고 자취 열거되었네	名顯跡列
아아, 슬프도다	嗚呼哀哉
형만의 단발과 문신에서	荊蠻斷文
자취 숨기려는 뜻이었는데	志在沈滅
공자가 지극한 덕이라 칭찬하니	聖稱至德
중옹과 태백과 어떠한가 ³⁹	何如仲伯
강가에서 신을 벗으니	江頭脫靴
이에 빠져 죽으려 하였네	是乃湮沒
다만 의를 위해 죽으려니	唯其殉義
지극한 덕은 같은 경지라네	至德同域
일은 다르지만 자취는 같으며	事異跡同
길은 다르지만 자국은 같다네	殊塗等轍
아아, 슬프도다	嗚呼哀哉
그 마음은 곧으며	其心貞矣
그 뜻은 견고하도다	其志確矣
그 자취는 희미하지만	其蹤微矣
그 절개는 우뚝하도다	其節卓矣
그 뜻은 슬프지만	其志悲矣
그 덕은 지극하도다	其德至矣
우리 동방 천고의 역사에	吾東千古

39 형만의...어떠한가 : 주(周)나라 태왕(太王)이 막내아들인 계력(季歷)과 계력의 아들인 창(昌) 즉 문왕(文王)에게 자리를 차례로 물려주려고 하자, 태왕의 장자인 태백이 동생 중옹(仲雍)과 함께 남쪽 형만 땅으로 도망쳐서 부친의 뜻을 따랐던 고사를 말한다. 《史記 卷31 吳太伯世家》 공자는 “태백은 지극한 덕이라고 이를 만하니, 세 번 천하를 사양했는데도 백성들이 알지 못하였다.[泰伯其可謂至德也已矣 三以天下讓 民無得而稱焉]”라고 칭찬한 바 있다. 《論語 泰伯》

한 사람일 따름이다
외람되이 음재가 되어
우리러보며 감격하네
감히 조출한 제수를 올리오니
한 번 흠향하기를 바라네
아아, 슬프도다

一人而已
猥忝邑宰
景仰聳感
敢薦微薄
冀一歆鑑
嗚呼哀哉

사간 하위지⁴⁰에게 올리는 제문

祭河司諫文 -緯地-

아아, 태산처럼 드높은 산은	嗚呼泰山喬岳
깎아내리고 파낼 수 있지만	可剷可掘
선생의 의지는	先生之志
굽힐 수 없도다	不可屈也
커다란 바다의 지주는	穹溟砥柱
올라타거나 뺏을 수 있지만	可馮可拔
선생의 절조는	先生之操
빼앗을 수 없도다	不可奪也
아아, 긴 옷자락에 찬 옥은	嗚呼玉佩長裾
내가 영광으로 여기지 않고	非我所光
화려한 벼슬의 금선(金蟬)과 자초(紫貂) ⁴¹ 는	金貂華秩
내가 추구한 것도 아니오	非我所營
나의 아름다움에 이것이 없으니	予美無此
누구를 위해 곱게 꾸밀까 ⁴²	誰適爲容

40 하위지(河緯地, 1412~1456) : 본관은 진주(晉州), 자는 천장(天章)\$중장(仲章), 호는 단계(丹溪)\$적촌(赤村)이다. 단종을 위해 사절(死節)한 사육신 중 한 명이다. 고향이 선산이다.

41 금선(金蟬)과 자초(紫貂) : 자초는 담비의 일종으로 검정색에 부드럽고 가벼워 귀한 모피이고 금선은 한(漢)나라 때 시중(侍中)과 상시(常侍)의 관을 꾸민 장식으로 금(金)은 군셈을 드러내고 선(蟬)은 고결(高潔)함을 취한 것이다. 둘다 조정의 높은 관직인 시종신(侍從臣)을 비유한다.

42 누구를...꾸밀까 : 《시경》〈위풍(衛風) 백혜(伯兮)〉에 “낭군이 동쪽으로 출정한 뒤로부터, 나의 머리칼은 바람에 날리는 쭉대와 같아라. 머

먹는 것은 곡식이 아니며	食焉不粟
입는 것은 옷이 아니네 ⁴³	服焉非衷
목숨을 돌보지 않고 의리에 순절하니	昧命殉義
상황에 처하여 이에 격분하였네	遇觸乃激
아아, 바람 같은 번개가 붉게 치니	嗚呼風電赭赭
온 천하가 달아나 피하고,	寰宇辟易
천둥이 두려워	震霆兢兢
백성들은 몸을 오그렸네	生類瑟縮
해와 달도 하늘에서 참담하여	日月上慘
빛을 거두고 어두웠네	收視晦魄
귀신도 곁에서 떨며	鬼神旁慄
짖그리고 울며 머뭇거렸네	嘖呷躑躅
아아, 칼과 톱, 부월도	嗚呼刀鉅斧鉞
털끝 하나 동요시킬 수 없었고	不能動髮
타오르는 산과 끓어오르는 바다도	火山湯海
겁박하여 꺾지 못하였네	不能威懾
차분하게 얼굴빛도 변하지 않고	從容不色
충렬을 돈독하게 행하였네	蹈烈是篤
목숨을 새털보다 더욱 가볍게 여기고	鴻毛益輕
의지는 금석보다 더욱 견고하였네	金石愈確
올바른 말과 높다란 의리에	辭正義屹

리에 바르는 기름이 어찌 없으리오마는, 내가 누구를 위하여 곱게 화장을 하겠는가.[自伯之東 首如飛蓬 豈無膏沐 誰適爲容]"라는 말이 나온다.

- 43 먹는…아니네 : 세조가 내린 곡식을 먹지 않으며 의복은 입지 않고 창고에 쌓아 두었다는 말이다.

임금의 노함도 꺾이게 되었네
 신체는 훼손되도 절조는 지켰으니
 다섯 명과 더불어 사육신 되었네
 아아, 굶실대며 흘러가는 한강도
 때가 되면 마르고
 높다란 태양도
 때가 되면 골짜기로 지는데
 다만 그의 열렬한
 기개가 어찌 멈추랴
 외람되이 천박하고 졸렬한 내가
 지방의 읍재가 되어⁴⁴
 감히 미천한 정성을 드러내어
 조출한 제수를 올리니
 삼가 바라건대, 명령이여
 부디 강림하소서

聖怒攸撻
 虧躬完節
 與五爲六
 嗚呼維洛汭汭
 有時而涸
 維烏矗矗
 有時而谷
 維其烈烈
 氣也何息
 猥以譴劣
 叨宰邦域
 敢揭賤虔
 薦此微薄
 伏願英靈
 庶賜臨格

44 외람되이...되어 : 조찬한은 1629년 58세에 선산 부사로 나왔다. 이 작품은 이 시기에 지어진 것으로 보인다.

영의정 신흙⁴⁵ 치제⁴⁶에 올리는 제문

卒領議政申欽致祭祭文

영령은 종소리처럼 ⁴⁷ 일찍 맑게 울렸고	惟靈金聲夙亮
옥 같은 몸가짐 더욱 온화하였네	玉操彌溫
재주는 그릇에 알맞았고	才隨器稱
지식과 행동이 일치했네	知與行臻
탁함 물리치고 맑음 드러냄에 마음 두고	心存激揚
하늘과 사람이 하나임을 공부하였네	學究天人
청요직에 내달려	騫清翥要
두루 역임하면서도 더욱 조심하였네	歷數愈夤
반열과 직급이 높아질수록	班巍秩聳
문장은 더욱 드러났네	文雅益著
자부심 지니고 때를 기다리며	矜持待時
유유자적하며 세상 따랐네	泛浮隨世
잠깐 병조를 거쳤는데	乍履西銓
오히려 재주 펼치지 못하였네	猶不以施
사직의 신하로	以休戚臣

45 신흙(申欽, 1566~1628) : 본관은 평산(平山), 자는 경숙(敬叔), 호는 현헌(玄軒)\$상촌(象村)\$현옹(玄翁)\$방옹(放翁)이다.

46 치제(致祭) : 임금이 공신이 죽었을 때 제물과 제문을 보내어 제사를 지내게 하는 것을 이른다.

47 종소리처럼 : 《맹자》〈만장 하(萬章下)〉에 “공자는 집대성한 분이시다. 집대성이란 종(鍾)과 같은 금의 소리가 먼저 퍼지게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경쇠와 같은 옥의 소리로 거둬들이는 것을 말한다.[孔子之謂集大成 集大成也者 金聲而玉振之也]”라는 말이 나온다.

지주석 짙어진 모습이었네	負柱石姿
선조가 공을 의지하여	宣祖寔倚
비통한 유언을 남겼네 ⁴⁸	末命之悲
혼군의 시대에 이르러	逮際昏惑
모함꾼이 재앙을 얻었네	讒慝構殃
죄를 받아 내쫓기니 두려워하며	罪擯惶惕
몇 년을 보냈네	積有星霜
내가 처음 즉위할 때	肆予初載
맨 먼저 발탁하여 높은 자리에 올렸네	首擢登崇
인재를 발탁하는 일은	揀選陶甄
모두 충성스런 공에서 나왔네	一出忠公
선비들은 이로써 많아졌다 칭송되고	士以稱多
나라는 이로써 번창했네	國以之華
정승 자리 비워두고	爰虛鼎席
보좌하길 기다렸고	側佇和羹
영의정에 올려보니	延陞首揆
백성의 기대에 부합했네	望洽蒼生
3, 4년 간을	數四年間
다급한 일이 매우 많았지	事多蒼黃
위험하고 어려운 일	險阻艱難
나와 함께 실컷 맛보았네	共予備嘗
내가 덕이 적고 어두워	以予寡昧
대단히 어려운 때를 만났네	遭時極屯

48 선조가…남겼네 : 선조가 승하할 때 어린 영창대군을 잘 보살피라는 유명을 일곱 신하, 즉 유영경, 한응인, 서성, 신희, 박동량, 허성, 한준겸 등에게 내렸다.

망망대해 건너는 듯	若涉溟洋
드넓어 끝이 없었네	浩無涯限
배와 노라고 기약하며	方期舟楫
백성들을 널리 구제하리라 여겼는데	洪濟元元
하늘은 어찌하여 남겨두지 않고 ⁴⁹	天胡不憖
이처럼 빨리 앗아가는가	奪之斯速
물고기가 물을 잃은 듯	如魚失泳
기러기가 날개가 없는 듯	若鴻靡翼
국내의 역적은 비록 평정하였지만	內逆雖夷
국외의 오랑캐는 곧 닥칠 터인데	外獫將迫
막을 만한 병사도 없으니	兵無可捍
백성은 대단히 고통스럽네	民已大棘
나는 장차 누구를 의지하랴	予將疇依
누구와 더불어 나라를 다스리랴	疇與爲國
아득한 저 하늘이여	邈彼蒼天
어찌 이리도 가혹한가	胡寧忍酷
뼈에 스며드는 애통함에	痛悼入骨
눈물이 줄줄 흐르네	涕淚交漱
이에 가까운 신하 보내어	茲遣近臣
조출한 제수를 삼가 올리네	虔薦微薄
아아, 애통한지고	嗚呼慟哉
영령은 흠향하시라	靈庶歆格

49 하늘은…않고 : 하늘이 국가를 위해서 원로를 이 세상에 남겨두지 않는다고 한탄하는 것을 말한다. 《시경》〈소아(小雅) 시월지교(十月之交)〉에 “원로 한 분을 아껴 남겨 두어서 우리 임금을 지키게 하지 않는구나.〔不憖遺一老 俾守我王〕”라는 말이 나온다.

좌랑 신해익⁵⁰을 제사지내는 애사

祭愼佐郎哀辭 海翊

아아, 그가 참으로 죽었는가. 그가 참으로 죽어서 다시 살아날 수 없는가. 아아, 애통한지고. 오히려 차마 글을 지어 그대의 영전에 제사를 지내야 하는가. 그대의 형제는 11살부터 나를 따르며, 어린 봉황, 새끼 난새처럼 날기를 익히면서 다투어 울어댔지. 나는 가르치기를 잘 하지 못하였으나, 형은 빼어나고 아우는 뛰어나 날마다 공부를 배웠네. 나의 문하에서 8, 9년을 노닐었는데, 이미 파도치는 강물처럼 아득하게 발전했네. 형제가 번갈아 젊은 나이에 재주를 드날렸고, 더구나 과거의 갑과에 합격하였네. 동안은 활짝 핀 꽃처럼 붉으니, 이름이 하루아침에 나라 사방에 알려졌네. 앞길이 탄탄대로가 될 것이며, 또한 나라 위해 희망이 되리라 여겼네. 어찌 금의환향하여 며칠 되지 않았는데, 문득 사특한 기운 엄습하여 병에 걸렸는가. 파리한 몸을 억지로 이끌고 서울에 온 것은, 한 고을 얻어 부모 편안히 봉양하려는 뜻이었네. 아! 예조에서 겨울을 보내면서, 벼슬에 마음을 접었으나 병은 낫지 않았네. 지난번 편지 한 통을 나에게 보내, 객귀(客鬼)를 면하지 못할까 두렵다 하였지. 질병에 시달려 우연히 한 말인가 여겨, 깊이 고민할 것이 안 된다고 생각했지. 세월이 얼마나 지났을까, 갑자기 저보(邸報)에서 부고를 접했네. 참말이 아니고 아마 와전됐으리라 여겼으니, 통곡을 참고 다시 살펴보았네. 조카 식

50 신해익(愼海翊, 1592~1616) : 본관은 거창(居昌)이며 자는 중거(仲舉), 호는 병은(病隱)이다. 신천익(愼天翊)의 쌍둥이 동생으로 함께 조찬한에게 학문을 배웠다. 권15 〈故佐郎愼君墓碣銘〉 참조.

의 편지가 전해지니, 또한 그대 부고⁵¹를 알렸네. 아아, 부고는 참말
이며 와전된 것이 아니니, 그 죽음이 거짓이 아님을 믿게 되었네.

슬프도다! 자애로운 까마귀⁵²는 슬피 우니, 남쪽으로 날아간 뒤
평생을 보내도다. 은혜와 사랑이 간절하여 하늘처럼 다함이 없으
며, 애절한 원숭이 울어대니 간장이 끊어졌네.⁵³ 어린 고아와 젊
은 과부 남았는데, 누구를 우러러보며 누구에게 의탁하랴. 안자
는 서른에 죽었는데, 오히려 요절이라 하면서 길이 아쉬워하네.
안자에게 5년이 미치지 못하는데, 하늘은 어찌 차마 이처럼 가혹
한가. 항상 착한 이에게 재앙을 주고 악한 이를 도와주니, 하늘은
어찌하여 도리를 이처럼 거스르는가. 아아, 그대는 나를 스승으
로 여겼는데, 나는 제자처럼 대하지 못하였네. 관직에 매어 있고
길은 머니, 슬픔을 떨치지 못하네. 살아서 영결하지 못하고, 죽어
서 널도 어루만지지 못하네. 혈혈단신인 내 아들 걱정에, 그대들
에게 훗날을 바랐도다. 나는 늙어 병들어오 오�히려 살았는데, 그
대는 어찌하여 어린데도 훌쩍 떠났는가.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은
누구를 형이라 할까, 나는 비틀거리며 의지할 데 없구나. 어찌 나
의 슬픔이 끝이 있으랴, 영혼은 바라건대 와서 흠향하시라. 아아,
슬프도다.

51 부고 : 원문은 ‘訃’인데, 국립중앙도서관본에 근거하여 ‘訃’를 ‘訃’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52 자애로운 까마귀 : 신헌익의 어머니를 가리킨다.

53 애절한...끊어졌네 : 진(晉)나라 환온(桓溫)이 군사를 거느리고 장강
(長江)을 거슬러 올라가 촉(蜀)의 이세(李勢)를 공격할 당시, 삼협(三
峽)에 이르렀을 때 어떤 군사가 원숭이 새끼 한 마리를 잡았다. 그 어
미가 슬피 울며 강기슭으로 백여 리를 따라오다가 배 위로 뛰어 올
라와서는 그만 죽고 말았는데, 배를 갈라 보니 창자가 마디마디 끊
어져 있었다고 한다. 《世說新語 黜免》 여기서는 자식을 잃은 어머니
의 슬픈 마음을 가리킨다.

매의 죽음을 애도하는 글

哀鷹文

임인년(1602년) 겨울에 한 마리 매를 길렀으니 바로 큰 형님이⁵⁴ 보내 준 것이다. 크기가 한 자에 두 촌이 모자라는데, 눈동자는 금색이며 발톱은 옥과 같았다. 칼같이 날카로운 부리에 갈고리 같은 발가락을 지녔으며 머리가 삐죽 솟았고 꼬리의 깃털이 반듯하며 날카로웠다. 크기는 작으나 용맹하고⁵⁵ 날카로운 기상을 지니고 항상 난간의 기둥 사이를 빠르게 날아다녔다. 내가 매우 사랑하여 며칠을 길들인 뒤에 사냥에 나갔다. 처음 풀어 놓으면 꿩의 수십 장(丈) 뒤에서 날았는데, 나는 것이 그다지 빠르지 않았다. 사냥하는 자가 잡지 못할까 의심하는 동안 망을 보는 자가 “매가 이미 꿩의 앞길을 막아섰습니다.”라 하였다. 드디어 망을 보는 자와 함께 바라보면 꿩이 땅에 닿기 전에 매의 발톱이 이미 그 뒷머리를 잡아채고 있다. 나와 사냥꾼들이 만족하지 않을 때가 없었다. 풀어 놓으면 또한 마찬가지로이니, 서너 번 풀어 놓아도 또한 같았다. 어떤 경우에는 공중 한가운데서 잡아채니 나는 재주가 뛰어난 놈이라 여겼다. 날마다 사냥을 나가면 날마다 그러하니, 풀어 놓은 횟수만큼 사냥감을 잡아 들였다.

54 큰 형님 : 조계한(趙繼韓)이다.

55 크기는 작으나 용맹하고 : ‘단소정한(短小精悍)’은 《사기(史記)》〈유협열전(游俠列傳)〉에 “곽해(郭解)의 사람됨이 작으나 용맹하였다.”고 하였으며, 두보의 〈팔애시(王思禮)〉에서 “작고 용맹한 자태로 우뚝서서 강한 적을 상대하였네.[短小精悍姿 屹然強寇敵]”라는 표현이 있다.

그러던 어느 날 앞 고개에서 사냥을 하는데, 풀어 놓는 자가 그 시기를 놓쳐 꿩이 이미 수풀에 들어갔는데 매가 꿩을 따라갔다. 매가 따라가자 개가 쫓아갔는데, 그 수풀이 무성하고 깊었다. 녀꿩과 가시들이 얹어 있었는데 매가 꿩을 잡고 나오려고 하자 상하 사방이 막혀 나올 수가 없었다. 입을 벌린 개가 이미 그 뒤에 있었는데, 매는 도망할 수가 없게 되었다. 마침내 개가 물어뜯게 되었는데, 사냥꾼들이 도착한 것은 그 뒤였다. 아아, 매가 죽은 것은 운명일진저.

내가 방의 창으로부터 바라보다가 사냥꾼을 재촉하여 팔뚝에 엮고 돌아오게 하니, 팔뚝에 우뚝 앉은 매는 여전히 기세가 넘쳐 상처에도 조금도 기가 꺾인 모습이 없었다. 눈을 옆으로 돌리며 부리를 다듬는데 노기가 더욱 등등하였다.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하고 좌석 옆에 가까이 놓고 살펴보니 창자가 반 척이나 쏘아져 나와 있었다. 그 상처를 어루만지는데 가슴은 웅하니 박이나 오이를 구멍 낸 것처럼 웅하니 뚫려 있었다. 비록 조금이나마 목숨을 부지하려 하나 그럴 수 있겠는가. 잠시 뒤 과연 머리를 떨어뜨리고 날개를 옆구리에 붙인 채 죽었다. 나는 슬픔과 화가 그치지 않아 그 시체를 서쪽 동산의 숲에 묻어주고 개를 죽여 그 원수를 갚아주었다. 이에 문장을 지어 슬퍼하노니, 그 글은 아래와 같다.

만 길의 푸른 절벽이 바다 가운데에 우뚝 솟아 蒼崖萬丈峙海中兮
구름이 등지 틀고 안개가 구멍에 자리 잡아 하늘까지 솟아올랐네

雲巢霧穴狉天公兮

용맹한 짐승에 짝할만한 군센 숫매를 품었더니 嬖豪配猛卵驍雄兮
비로소 칼끝의 날카로움 펼쳐 하늘 높이 올라갔네

始展鋒稜背摩穹兮
 비둘기를 쫓다가 그물에 걸렸다가 鳩鳥爲媒罹網籠兮
 나의 깍지를 붙잡은 것은⁵⁶ 한 겨울이었네 來掣我講當嚴冬兮
 팔뚝을 박차고 해가 지는 언덕에 날아오르니 臂出登崖西日舂兮
 많은 산에 눈이 퍼부어 들, 날 짐승 곤궁하네 千峯雪虐飛走窮兮
 차가운 하늘을 곁눈으로 매섭게 쳐다보고 산봉우리처럼 솟구쳐
 側瞋寒霄聳如峯兮
 몸을 뒤집어 갑자기 속도를 내니 번개가 바람과 다투는 듯
 翻身倏霍電鬬風兮
 외로운 암펄 숨으려고 덤불에 내려앉으니 孤雌所伏落榛叢兮
 으르렁거리는 사냥개, 같이 사냥하네 信然曰獫獫所同兮
 사냥하는 아이들보다 앞서 냄새 맡고 빠르게 쫓아가니
 嗅逐之疾先獫童兮
 눈같이 희고 날카로운 어금니를 벌리니 혀와 이빨은 붉은 피네
 張牙雪皓舌齧紅兮
 사방으로 나가려고 하나 길이 없어 동서를 분간하지 못하는데
 四出無路罔西東兮
 아아, 그릇된 이빨이 부드러운 가슴을 으갸네 哀哀謬齧碎錦胸兮
 옛날에 관우가 여몽에게 죽었는데⁵⁷ 終古雲長死呂蒙兮

56 나의… 짓은 : 여기서 깍지는 사냥 매가 걸터앉는 팔에 대는 것을 말한다. 나의 사냥 매가 되었다는 의미이다.

57 옛날에…죽었는데 : 관우가 형주를 지킬 때, 손권은 관우의 딸을 자신의 아들의 배필로 삼자고 청하게 된다. 그러나 관우는 ‘범의 딸을 개의 아들에게 줄 수 없다.’고 하여 손권을 격노하게 한다. 그 후 형주를 두고 오와 촉이 싸우게 되는데, 여몽은 관우가 군대를 움직이지 않자 꾀를 내어 그때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육손에게 군대를 맡긴다. 이에 관우는 육손을 알보고 주력 부대를 위나라 쪽으로 옮기

그 원수를 고기로 만들기 위해 그 개를 찢어 죽였네

爲肉其讎磔厥豕兮

사람의 정이 어찌 동물이라 멀리하겠나, 눈물이 쏟아지니

情何間物涕翻瞳兮

아아, 밝은 영혼이여, 이 마음 알아주게나

嗚呼英爽庶感通兮

개 되는데, 여몽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형주를 점령하고 관우를 사로잡는다. 이 행은 뛰어난 매가 개에게 죽는 것을 비유한 것이다.

월출산 구정봉 기우문

月出山九井峯祈雨文

땅에 거주하는 백성은
곡식을 먹고 삽니다
곡식이 무성하지 않으면
대중의 목숨이 죽어가게 되니
나라가 어찌 편안하며
신이 어찌 안녕하리오
지금 가뭄이 들어
그 끝이 없습니다
더위가 대단히 심하니
밭이나 습지나 모두 빨갱습니다
어찌 싹이 마르지 않으며
어찌 벼 이삭이 오그라 붙지 않겠습니까
드넓은 들판이 입을 벌림거리며
드높은 하늘을 바라만 봅니다
더위 먹어 물을 찾는 듯
아이가 목에 젖을 찾는 듯합니다
뭉게뭉게 구름 일어 비가 내릴 것 같더니
해만 찡찡 내리쬡니다
장난치는 듯, 화를 내는 듯
생각할 수도 따져볼 수도 없습니다
참으로 비천한 제가
이 고을을 맡아서

元元居土
腹穀以生
穀之不茂
衆命攸傾
國何以妥
神何由寧
今茲旱竭
罔有紀極
敲赫蘊隆
畷濕俱赤
何苗不乾
何穰不縮
闔野嗷喁
望望穹蒼
若渴呼飲
若呱乳吮
屏屏如雨
杲杲日日
如戲如怒
莫究而詰
端由卑賤
職忝司郡

백성을 보살피고 위로하는 정성이 부족하고
 정사에 허물과 원망이 많아서 일 것입니다
 모든 재앙과 벌은
 마땅히 이 몸에 내려주십시오
 슬프도다, 말할 수 없는 지경이여
 하소연할 곳 없는 것은 백성이 아닙니까
 하늘에 무슨 죄를 지었으며
 귀신에 무엇을 저버렸습니까
 백성에게 모질고 사납게 대하기를
 이렇게 심하게 한단 말입니까
 이에 두려워하며 목욕재계하고
 삼가 지극한 정성을 받들어
 우리의 큰 돼지⁵⁸를 잡고
 우리의 곡식을 올리니
 신은 내려와 흠향하시고
 못의 용에게 명령하여
 혹은 소나기나 혹은 우박이나
 단비로 장맛비로
 우리 타오르는 대지를 적시고
 우리 노랑게 타는 잎을 푸르게 하여
 우리 강토를 윤택하게 하시고
 우리 한 지방을 살려주시오
 진정을 토로하며 하소연하니
 엄숙히 응답을 기다립니다

誠微撫勞
 政夥疵怨
 凡有殃罰
 宜加此身
 哀哉不言
 無告非民
 何辜于天
 何負于神
 毒虐厥命
 乃至斯殷
 肆惕齋沐
 虔奉誠明
 刳我剛鬣
 薦我粢盛
 神其降嘏
 詔龍于潭
 或驟或凍
 以澍以霖
 澤我焦焚
 青我枯黃
 潤我疆場
 活我一方
 吐胸訴臆
 肅埃冥應

58 큰 돼지 : 《곡례(曲禮)》에서 “시(豕)를 강립(剛鬣)이라 부르고 돈(豚)을 돌비(豚肥)라 부른다.”라 하였다.

바위에 만일 신령이 있다면
응당 기꺼이 들어주지 않으리오

巖如有靈
應其不肯

월출산 천왕봉 기우문

月出山天王峯祈雨文

높고 험준한 월출산은
이 한 고을의 진산입니다
남쪽 제사 받는 산 중 이름났으며
못 봉우리 가운데 으뜸입니다
험하고도 드높아 우리가 공경하니
영암의 영령입니다
백성들의 모든 하소연은
들어주지 않음이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가물어
날로 달로 끝나지 않고 있으니
불사르는 듯 활활 타는 듯
식물들은 시들어 떨어집니다
싹은 밭에서 노랗게 버티고 있고
벼이삭은 논에서 말라 서 있습니다
샘은 흙바닥이 되고 우물은 말랐으며
도랑물은 빠져서 흔적만 남았습니다
물고기와 자라는 물에서 폐사하고
지렁이도 나와 말라비틀어졌습니다
어떤 동물이 파리하지 않으며
어떤 식물이 붉게 타지 않겠습니까
죽는 날이 가까우니
슬프도다! 전야의 백성이여

維岳嶄巖
鎮茲一郡
名于南祀
甲於群巘
巢峨我祇
靈于靈土
民凡有訴
罔不以報
今此旱乾
不日不月
如焚如惔
生類萎絕
苗黃撐畝
穗乾柱畦
泉土井渴
溝落渠彫
魚鼈陸斃
蚯蚓出枯
何物不悴
何草不赭
大命近止
哀哉田野

외람되이 못난 내가
 이 고을에 와서 다스립니다
 차마 좌시할 수 없어서
 재계하고 여러 날 기도드렸더니
 삼일 낮이 되자
 잠시 북쪽 땅에 비가 내렸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응답한 것이니
 두려운 마음 더해집니다
 지금 다시 엄숙하게 제사 지내
 이 조출한 제수를 올립니다
 더위 먹어 혈떡이며 시달리느라
 몸소 거행하지 못하여
 감히 제사 지내는 관리를 보내
 피같은 충심을 대신 고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산령이시여
 정성을 흠향하시어
 뭉게뭉게 구름 일고 비가 쏟아지길
 가랑비가 폭우가 되게 하소서
 불탄 듯한 대지를 적셔주어
 이 한 지역을 살려주소서
 이에 향그런 제수 올리니
 대신 지내는 더러움을 꺼려하지 마십시오
 산신령이여 만일 영험이 있다면
 밝게 흠향함을 증험해 주소서

猥以不才
 來理茲邑
 不忍坐視
 潔祈有日
 逮于三晝
 暫濡北陸
 是豈冥答
 增所慄惕
 今欲再肅
 奠此微薄
 喘喝所惱
 不獲躬執
 敢遣祀官
 替告忠血
 伏願山靈
 歆嗅精誠
 油然霈然
 霖霖滂滂
 以沃燒焚
 以活一方
 肆薦馨香
 不憚煩黷
 靈如有靈
 驗此昭格

천왕봉에 두 번째로 올리는 기우문

天王峯再祈文

하늘은 어찌하여	天之何爲
이처럼 심하게 가물게 하십니까	旱如此極
날로 달로 끝나지 않아	不日不月
지금 두 달이 지났습니다	今垂二朔
대지는 그을리고 산은 불에 탄 듯	土焦山灼
생물을 불살라 태워버리려 합니다	生類焚爍
밭은 빨강게 되지 않음이 없으며	田無不赭
온갖 이삭은 시들어 떨어졌습니다	百稼殂落
김매는 자는 호미를 거두고	耘者輟鋤
말없이 찡그리며 눈물 흘립니다	默嚔語泣
저는 목민관이 되어	身爲子牧
백성들의 법이 되지 못해 부끄럽습니다	愧非民則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슬퍼하며	目覩心愍
눈가에 줄줄 눈물만 구릅니다	渙然涕睫
차마 마른 이삭을 보겠습니까	忍看枯穗
밭에는 노란 싹과 논에는 말라비틀어진 벼이삭만 있습니다	撐畦柱陌
차라리 오히려 살고 싶지 않으니	寧尙無生
스스로 비쩍 말라 죽고 싶습니다	自就槁涸
차마 보겠는가, 백성들이 ⁵⁹	忍看橫目

59 사람들[橫目] : 원문의 횡목(橫目)은 만물 중에서 오직 사람만이 눈이 가로로 찢어져 있다고 하여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장자〉〈천지(天地)〉에 “선생님은 횡목의 백성에게 뜻이 없습니까? 성인의

도랑에 죽어 자빠져 있는 것
 차라리 오히려 낱알도 맺히지 않아
 스스로 굶주려 절명하고 싶습니다
 정사에 허물이 있으니
 백성을 죄 줄 수 없습니다
 책임은 돌아갈 곳이 있으니
 혹독한 꾸짖음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하늘의 이치는 대단히 밝은데
 어찌 이처럼 모른 척하십니까
 처음 구정에서 기도할 때
 다음날 구름이 일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모여들었을 뿐
 산허리도 넘지 못했습니다
 다시 기도드리기 위해 관리를 보내
 경건히 이 산에 호소합니다
 비록 소나기 내리긴 하였지만
 끝내 짧은 시간도 못 됩니다
 이에 근심을 머금으니
 스스로 불에 타 없어질 듯합니다
 병을 무릅쓰고 기어서⁶⁰
 정성을 다해 엄숙히 재제하였습니다

顛仆溝壑
 寧尙不粒
 自飢以絕
 政之有疵
 民非可罰
 責有所歸
 譴不辭酷
 厥理孔昭
 胡此冥漠
 初祈九井
 翊日有作
 然猶乍集
 不踰山腹
 再祈遣官
 敬籲茲岳
 雖蒙驟下
 終不頃刻
 茲焉含憾
 若自燒滅
 力疾扶服
 竭衷齋肅

정치를 듣고자 합니다.[夫子無意於橫目之民乎，願聞聖治?]” 하였는데, 이에 대한 성현영(成玄英)의 주에서 “오행의 부류 가운데 오직 사람만이 눈이 가로로 찢어져 있다.[五行之內，唯民橫目.]”라고 하였다.

- 60 기어서 : 부복(扶服)은 《예기(禮記)》〈단궁 하(檀弓下)〉에 “상사(喪事)가 나면 부복(扶服)해서 도와주어야 한다.”는 말에서 나왔다. 부복은 엎어지고 자빠지면서도 급히 가야함을 이른다.

신령을 친히 공경하여 제사하니
 비록 직무를 못한다고 버림을 받더라도
 옆 고을의 선비들이
 나와 함께 경건히 목욕하였으니
 그들의 정성에 감동하여
 대신 축문 올리는 것을 꺼려하지 마십시오
 제수가 비록 조촐하지만
 오히려 흠향할 만합니다
 월출산은 이 고을에
 신령함으로 누르고 있습니다
 온 세상 가뭄은
 실로 하늘이 만든 것이니
 참으로 이 산이 한 게 아님을
 더불어 헤아리고 있습니다
 한 고을의 복과 재앙은
 신령께서 실로 맡으신 바입니다
 맑게 개고 비를 내림은
 다만 닫고 여는 것에 달렸습니다
 지금 기우제를 지낸 뒤에
 공경히 단비를 기다릴 것이오니
 우리 사방 지역을 운택하게 하시려면
 비를 흠뻑 내린다면 충분합니다
 오늘 그러하지 않는다면
 내일까지 기다릴 것이요
 내일 또 그다음 날
 삼일을 기다리겠습니다

靈惟親敬
 雖捨不職
 旁州英髦
 共我虔潔
 精誠所激
 不憚代祝
 奠雖微薄
 此猶可格
 山於此邑
 以靈而壓
 一世災旱
 寔天所作
 固非茲山
 所可與測
 一郡休咎
 靈實攸職
 晴之雨之
 惟所闔闢
 今祭之後
 祗俟甘澤
 膏我四境
 霈然而足
 今日不然
 至于明日
 明日又明
 終始三日

만일 끝내 비를 내리시지 않는다면
이것은 응답할 능력이 없는 것이니
정성과 제수가
천하고 박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산의 신령은
복을 내릴 수 없는 것이니
신령함과 신령하지 않음을
이에서 증험하여 알 수 있습니다.
비록 향기로운 제수가 있더라도
청컨대 다시 번거롭게 하지 않겠습니다.

如終不然
是不能答
非誠與物
淺且薄也
是山之靈
不能福也
靈與不靈
此可驗識
雖有馨香
請勿更瀆

주룡도⁶¹ 기우문

駐龍渡祈雨文

온갖 비늘 동물의 어른이요	百鱗之長
네 신령스런 동물 중 하나입니다	四靈之一
기를 불면 구름이 되고	嘘氣成雲
비를 내려 만물을 자라나게 합니다	興雨孳物
이 만물이 자라는 때를 당하여	屬此長養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久屯膏澤
뭉게뭉게 비가 올 듯하더니	靈靈如雨
쨍쨍 ⁶² 햇빛이 내려쬰니다	杲杲之日
대지는 사람을 낳았는데	土生人口
밭두둑은 거북등처럼 갈라졌습니다	田疇龜拆
농부는 목이 메어 울고	穡夫噎泣
말라버린 벼이삭은 노랑게 비틀어졌습니다	枯穗黃縮
활활 타는 듯 불사르는 듯	如燄如焚
죽음이 가까워졌습니다	大命近止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제가	由我不職
외람되이 백 리 고을의 수령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忝守百里

61 주룡도(駐龍渡) : 영산강을 사이에 두고 영암군의 학산면 매월리의 미교 마을과 무안군 일로읍 사이에 위치했던 나루터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무안)에 “주룡진(駐龍津)은 무안 치소에서 남쪽으로 50리 부근에 있으며, 영암 경계와 통한다.”라 하였다. 권5 〈天王峯祈雨同行記〉 참조.

62 쨍쨍 : 원문은 ‘果果’인데, 국립중앙도서관본에 근거하여 ‘果’를 ‘杲’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가련토다 우리 백성들이여
 나를 아버지처럼 우리러봅니다
 농사는 백성들의 근본인데
 근본이 없으니 어찌 살리오
 백성이 참으로 살지 못한다면
 신도 편안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비가 내리지 않은 지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경건하게 월출산에 기도드렸지만
 신령은 이르지 않았습시다
 그러므로 더욱 두려워하며
 자고 먹을 겨를도 없었습니다
 전해 들으니, 이 나루는
 용신의 굴이라 합니다
 기도를 드리면 곧바로 응답하니
 신령함이 부절을 합한 것 같다 합니다
 이에 좋은 날을 골라
 더욱 엄숙히 재계하였습니다
 병이 들어 몸소 하소연하지 못하고
 관리를 보내 대신 고합니다
 제수가 미약하고 조출하나
 정성은 깊은 마음에서 나왔습시다
 신령이여 내려와 감응하여
 뭉게뭉게 싸아 비를 내려주십시오
 우박으로 소나기로
 장마비로 단비로 내려주십시오

哀我蒼生
 仰我父視
 農爲民本
 無本何生
 民苟無生
 神罔攸寧
 今之不雨
 已逾一月
 虔禱月出
 靈亦不格
 故增悚惕
 莫遑寢食
 側聞茲渡
 龍神攸窟
 有祈卽應
 靈若符合
 茲卜良吉
 益加齋肅
 病闕躬訴
 遣官替告
 物微而薄
 誠出悃府
 靈其降感
 油沛卽雨
 以凍以驟
 以霖以澍

우리의 사방 들판을 적셔 주시고	潤我四野
우리의 온갖 농사가 열매 맺게 해 주십시오	實我百稼
우리 백성들을 살려주시고	生我元元
우리 고을을 살게 해 주십시오	活我郡疆
태수가 비록 졸렬하지만	太守雖劣
또한 한 고을의 수장입니다	亦長一邑
용이여 만일 신령하시다면	龍如有靈
참으로 답을 꼭 해 주십시오	誠無不答

철탄산⁶³에 관원을 보낸 기우문

鐵呑山差員祈雨文

높다란 철탄산이여	隆嵩維岳
이 고을의 진산입니다	鎮茲郡域
신령한 기운 잉태하여 만물에 은택을 주며	孕靈澤物
밝게 임하여 어긋남이 없습니다	昭假不忒
지금 이렇게 가문데	今茲亢旱
날이나 달로 끝날 기약이 없습니다	不日不月
오곡의 종자는 뿌릴 수 없고	五種不入
온갖 곡식은 말라비틀어졌습니다	百稼枯絕
사람이 장차 낱알이 없다면	人將靡粒
신도 의탁할 곳이 없게 됩니다	神罔攸托
정사에 허물이 있으니	政之有疵
죄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함에 있습니다	罪在不職
어리석은 먼 시골의 백성이	貿貿遐氓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何戾之獲
무슨 죄를 짓고 무엇을 저버렸기에	何辜何負
장차 시체로 산골짜기를 메우려 합니까	俾將填壑
차라리 제가 불타 사라져	寧自焚滅
백성들 대신 가뭄을 호소하려 합니다	替民訴赤
혹시 가혹하게 다스리며	其或苛厲
멋대로 거둬들이고 착취하여서입니까	橫斂推剝

63 철탄산(鐵呑山) : 경북 영주에 있는 산으로, 영천(榮川) 군수로 있을 때 지은 것으로 보인다.

혹시 의도적으로 고관을 찾아가서	其或干謁
정사와 법을 갇아 먹어서입니까	蝕蔑政法
혹시 간특함을 저질러	其或縱慝
농번기를 빼앗고 선달에 부역을 시켜서인가요	奪時役臘
혹시 이익을 추구하여	其或務利
공변됨을 무시하고 욕심만 부려서인가요	轢公逞慾
네 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잘못하면	四有一失
마땅히 벌을 밝게 내려주십시오	合昭罰剋
정사의 조목을 범하였다면	政條有犯
백성들이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無豫黎億
송사를 잘못 처리하거나	至於奸訟
옥사를 그릇 다스렸다면	至於枉獄
비록 현저한 견책을 보이더라도	雖示顯譴
공경하여 몸소 복종하겠습니다	敬以身服
어찌 백성에게 화를 내어	何怒于民
농사에 재앙을 내립니까	而厄于穡
제가 병이 들어 희생의 제사를 받들지 못하니	病未當犧
관원을 대신하여 속마음을 호소합니다	代員籲臆
산신이어! 만일 명령함이 있다면	神如有靈
이 정성과 두려움을 헤아려주십시오	格此虔惕
단비를 주룩주룩 내려	霈以甘霖
신령스런 은택으로 우리를 적셔 주십시오	澍我靈澤
우리 곡식을 크게 자라게 하여	以碩我穀
우리 지역을 살려 주십시오 ⁶⁴	活我疆場

64 살려 주십시오 : 원문은 ‘活’인데, 국립중앙도서관본에 근거하여 ‘活’
를 ‘活’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식사정⁶⁵ 기우문

食沙井祈雨文

사람이 우리러보는 것은	人之所仰
하늘과 신령입니다	天與神耳
어찌 사람에게 화를 내시어	何怒於人
이렇게 심하게 가물게 합니까	旱至于此
대지는 타들어 가지 않은 곳이 없고	無土不焦
샘물도 모두 말라버렸습니다	有泉皆涸
어떤 싹인들 마르지 않으며	何苗不枯
어떤 이삭인들 오그라들지 않겠습니까	何穗不縮
곡식은 장차 수확할 수 없으니	穀將不秋
사람이 어찌 낱알을 얻으리오	人曷以粒
낱알을 먹지 못하면 쓰러지리니	不粒則仆
어쩌면 아침이나 아니면 저녁이겠지요	或朝將夕
그 원인을 따져본다면	究厥所召
백성은 벌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民非可罰
참으로 목민관에게 이유가 있으니	良由民牧
정사에 허물과 간특함이 많아서입니다	政夥疵慝
정사에 허물이 있다면	政之有疵
책임은 임무를 수행하지 못함에 있으니	責在不職
차라리 스스로 불에 타 버려서	寧自焚灼

65 식사정(食沙井) : 영주 부석사(浮石寺) 동쪽에 선묘정(善妙井)이 있고 서쪽에 식사정(食沙井)이 있는데, 가물 때 기도하면 감응이 있었다고 한다.

두터운 책망을 덮고 싶습니다
 하늘과 신령에게 호소하오나
 하늘과 신령은 답이 없습니다
 전해 듣기에, 이 우물은
 신룡이 서려 있다고 합니다
 용이 이미 집으로 삼았으니
 이 고을에서 먹고 쉴 것입니다
 태수가 비록 졸렬하지만
 이 땅의 주인입니다
 호소하는 모든 일에
 마땅히 응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번 병이 심할 때
 관원을 보내 진정을 호소하였으나
 용이 응답하지 않았기에
 가뭄이 이렇게 극심하게 되었습니다
 감히 누워 쉬지 못하고
 도탄에 빠진 백성을 살피며
 병든 몸에 지팡이를 끌고
 어리석음을 무릅쓰고 몸소 제를 올립니다
 용이여! 만일 신령함이 있다면
 끝내 어찌 이르지 않습니까
 만일 온 세상에 은혜를 내린다면
 하늘의 명을 듣고 일어나십시오
 참으로 신룡이
 능히 복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바는 아니지만
 백 리에 비를 내려서

以塞厚責
 訴天與神
 天神冥漠
 側聞茲井
 神龍所蟠
 龍既是宅
 食息郡土
 太守雖劣
 乃土之主
 凡所籲呼
 宜無不答
 頃在病篤
 差員訴臆
 由龍不應
 旱至此極
 不敢偃息
 視民塗炭
 扶曳力疾
 昧冒躬奠
 龍如有靈
 終豈無格
 如澤一世
 聽天而作
 固非神龍
 所能擅福
 苟水百里

한 고을을 살리는 것은
 한 용이면 충분하니
 용이여 어찌 사양하겠습니까
 희생과 폐백으로 정성껏 올리고
 병들어 피를 토하는 제문을 고합니다
 바라옵건대, 단비를 평평 내려
 우리 농작물을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루 이틀
 삼일을 기다리겠습니다
 만약 끝내 비가 오지 않는다면
 진실로 이러한 정성에 보답해야 하는데
 이 용의 신령함이
 끝내 신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맹세코 다시 번거롭게 하여
 향기로운 제수를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以活一邑
 一龍而足
 龍豈可辭
 牲幣薦虔
 病告血辭
 冀沛甘澍
 勃興我穡
 一日二日
 埃及三日
 若終不雨
 寔報明誠
 是龍之靈
 終不靈也
 誓勿更瀆
 以費馨香

철탄산 두 번째 기우문

鐵呑山再祈文

맹렬한 가뭄이 이미 극심하여	暴旱既極
상하가 붉게 타들어 갑니다	上敲下赫
이미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났는데	既春既夏
퇴약별만 있고 비는 없습니다	有曝無澤
온갖 싹이 말라 떨어지니	百苗枯落
수확할 희망이 없습니다	無望其穡
백성들은 죄가 없으며	氓之無辜
허물은 목민관에게 있습니다	咎在司牧
정사에 있는 모든 ⁶⁶ 허물은	凡有疵癘
밝은 건책을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不避昭責
어찌 한번 이르는 것에 인색하여	豈慳一格
끝내 이 고을을 주리게 합니까	終餒是邦
슬프도다! 말할 수 없는 지경이여	哀哉不言
백성들은 물고기처럼 입만 뻐끔거리고 있습니다	口魚胥喁
지난번 병든 몸을 이끌고	頃者力疾
부석사에서 경건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敬禱浮石
비록 잠시 구름이 모여 들긴 했지만	雖蒙乍集
곧바로 해가 나와 말라버렸습니다	旋即嘆涸
바라고 바라며 또 바랐지만	望望之望

66 모든 : 원문은 ‘凡’인데, 국립중앙도서관본에 근거하여 ‘凡’을 ‘凡’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해만 뜨고 또 뜨고 해만 나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다시 기도를 드리는 것은
 진정한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병이 들어 몸소 하소연하지 못하고
 지극한 정성을 대신 바칩니다
 높다란 저 산이여
 이 고을에 자리 잡았습니다
 영기를 내뿜어 정성에 답함은
 실로 짧은 순간이면 됩니다
 구름이 피어올라 비가 쏟아 주어
 단비를 실컷 퍼부어 주십시오
 한 고을을 비옥하게 하여
 우리 억조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가슴을 치며 정성을 바치니
 두려운 마음으로 신의 도움을 기다리겠습니다

日又日日
 今茲再祈
 出於悃愾
 病未躬籲
 代薦衷懇
 惟岳巖巖
 郡所由宅
 嘯靈答虔
 實在頃刻
 以油以沛
 快注甘液
 俾沃一方
 活我兆億
 叩心供誠
 惕竢冥驚

연명

硯銘

그 면은 평평하니	平其面
침으로 닦지 않네	唾不拭
그 가운데는 비었으니	虛其中
물이 마르지 않네	水不涸
갈아도 닳지 않으니 ⁶⁷	磨不磷
도가 확고하며	道之確
덕을 외롭지 않아	德不孤
유익한 벗이 셋이로다 ⁶⁸	益者三

67 갈아도 닳지 않으니 : 《논어》〈양화(陽貨)〉에 “단단하다 하지 않겠는가, 갈아도 닳지 않느니라. 희다고 하지 않겠는가, 물들여도 검어지지 않느니라.[不曰堅乎, 磨而不磷. 不曰白乎, 涅而不緇.]”라는 말을 인용하였다. 여기서의 다만 벼루에 먹을 갈아도 벼루가 단단하여 갈려 나가지 않음을 말한다.

68 덕은…셋이로다 : 《논어》〈이인(里仁)〉에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 반드시 이웃이 있다.[德不孤 必有隣]”라는 말과 《논어》〈계씨(季氏)〉에 “유익한 세 가지 유형의 벗이 있고 해로운 세 가지 유형의 벗이 있는데, 정직한 벗을 사귀고 진실한 벗을 사귀고 식견이 많은 벗을 사귀면 유익할 것이다.

버리면 재주 감춰 숨는데
고요하여 편안하네
먹으로 갈면
선비 마음과 통하도다

捨則藏
靜以恬
以墨者
通儒心

현주집

제15권상

序서

記기

說설

辯변

對대

論논

傳전

書서

跋발

誌銘지명

通文통문

서序

신씨 동자들에게 준 서 천익과 해익 - 두 사람이 남쪽으로 내려갈 때 주었다.

贈愼童子序 天翊海翊 兩人下南時贈之

스승의 도는 세 가지가 있고, 스승을 섬기는 도에도 세 가지가 있다. 무엇인가. 구두를 가르치는 스승이 있으며 문장을 가르치는 스승이 있으며 도의를 가르치는 스승이 있다. 구두를 가르치는 스승은 한 권 한 편을 통달한 사람이 이에 해당하고, 문장을 가르치는 스승은 학문이 깊고 넓은 사람이 이에 해당하며, 도의를 가르치는 스승은 재주가 온전하고 덕이 갖추진 사람이 이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구두의 스승을 섬기는 것은 배운 것을 익히며 공경하며 삼가는 것에 그친다. 도의의 스승을 섬기는 것은 임금을 섬기거나 아버지를 섬기는 것과 같이해야 하니, 정성을 들여 지극하지 않음이 없어야 한다. 《국어》에 이른바 ‘섬기기를 한결같이 한다.’¹는 말이 이것이다.

1 섬기기를 한결같이 한다 : 아버지, 스승, 임금을 한가지로 섬기는 의리를 말한다. 《국어(國語)》〈진어(晉語)〉에 “백성은 세 분의 은혜로 살아가니 섬기기를 한가지로 해야 한다.[民生於三 事之如一]”라고 한 데서 비롯한다. 조찬한이 원문에 《예기》라고 한 것은 오류로 보인다.

만약 문장의 스승을 섬기는 도리 같으면 비록 도의의 스승을 섬기는 도리와 차이가 있더라도 몽매한 나를 밝혀주고 어리석은 나를 지혜롭게 만들어 주었으며 재주 없는 나를 재주있게 만들어 주었으니, 이와 같다면 그에게 즐거운 마음으로 복종하는 것에 그 극진함을 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까닭으로 생도(生徒)가 정성을 다 바쳐서 학문에 나아가게 만드는 것은 스승이요, 스승이 그 정성을 다하여 학업을 진보시키게 만드는 것은 생도이다. 스승과 생도의 정성이 반드시 서로 미쁘고 감응한 이후에 스승과 생도의 도를 얻을 수 있다. 그렇다면 스승 되기 어렵고 생도 되기 쉽지 않은 것이 이처럼 속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나처럼 보잘 것없는 자가 스승이란 자리를 더럽히고 스승이란 명예를 욕되게 하여 남의 스승 되기를 좋아한다²는 비난을 범할 수 있겠는가.

신씨의 아들 형제는 열한 살 때 부친을 여의고 어머니의 명령으로 나에게 와서 학문을 배웠다. 내가 이미 부친을 여의고 또한 몽매함을 불쌍히 여긴 데다가 그 모친의 간곡한 훈계에 감동하여 처음에는 구두를 정성을 다해 가르쳤다. 생도가 또 그 정성을 다해 받아들였기에 3~4년간 열심히 왕래하니 어리석음이 깨쳐지고 학문이 조금 진보하였다. 내가 또 그의 깨침과 진보를 가상히 여겨 구두로부터 나아가 문장으로 격려한 지 두어 해가 지나게 되자, 그 문장이 약간 넓어진 것 같았으며 학문이 조금 깊어진 것 같았다.

참으로 이처럼 하여 멈추지 않는다면 문장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멀지 않을 것이니, 신생(愼生)은 힘쓸 것이다. 그러나 나처럼 보잘것없는 자가 스승이란 이름을 무릅쓰고 스승을 섬기는 도를

2 남의…좋아한다 : 《맹자》〈이루 상(離婁上)〉에 “사람들의 병통은 남의 스승이 되기를 좋아함에 있다.[人之患, 在好爲人師.]”라고 하였다.

책임 지을 수 있겠는가. 돌이켜 생각하면 우리 두 동자가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아 천 리 떨어진 곳에서 나를 따라 배운지 지금 벌써 6년이 되었다. 나는 감히 스승의 지위로 자처하지 않았지만 다만 이끌어주고 가르쳐 준 정성은 어린 자식을 보호하는 자부(慈父)처럼 하였으니, 너희 동자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쳐주기 위함만은 아니었다. 이는 다만 어머니의 가르침이 지극한 정성에서 나온 것을 중히 여겨 오늘에 이르렀으니, 지금부터 성취하고 수렵하는 것은 모두 너희들이 정성을 다해 쉬지 않는 때에 달렸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스승과 생도의 도리에 거의 그 성공을 바랄 수 있을 것이다. 참으로 정성을 다하고 또 정성을 다하며 힘을 기울이고 더욱 힘써서 하루 이틀 지나게 된다면 문득 마음에 절로 깨달아 얻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구두의 스승으로 나를 섬기는 것도 마땅하며 문장의 스승으로 나를 섬기는 것도 마땅하며 도의의 스승으로 나를 섬기는 것도 마땅하다. 또한 훗날 깨우치고 더욱 깨우치면, 도의의 스승이 아니라 해도 마땅하며 문장의 스승이 아니라고 해도 마땅하며 구두의 스승이 아니라고 해도 마땅하다. 또한 도의와 문장의 스승이 아니라고 하고 구두의 스승이라 해도 또한 마땅하니, 그대들이 택하기에 달렸다. 지금 심한 추위에 모친을 뵈러 멀리 떠나는데, 이별하는 자리에 말이 없을 수 없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였으니 신생들은 힘쓸지어다.

호남방백 정춘 윤휘³에게 준 송서

贈湖南方伯尹靜春序 暉

우리 동방은 부강함과 문물이 변화하다고 중국에 이름이 났으며 외국 오랑캐에도 알려진 지 오래되었으니, 이는 팔도의 수송 체계가 원활하기 때문인데 그 가운데 호남의 원활함이 반을 차지한다. 대저 호남이란 도는 면적이 사방으로 거의 천 리에 이르는데, 크고 작은 군읍(郡邑)이 바둑판처럼 펼쳐지거나 수를 놓은 것 같은 것이 5, 60여 지역이다. 나주와 광주, 전주부, 담양부, 남쪽 순천의 고을은 인물이 뛰어나고 지역이 크며 성은 높고 들판은 넓으며 말쑥한 선비와 고운 여인들이 많이 모인 곳으로 노래와 음악, 생황과 피리, 관악기와 현악기가 함께 무르녹은 곳이다. 또한 남쪽은 가로지른 바다가 경계가 되니, 그러므로 나라의 조운이 이곳으로 지나가며, 좋은 말이 이곳에서 길러지니 이 때문에 군대가 씩씩하다. 그리고 치혁(齒革)·피폐(皮幣)·죽전(竹箭) 등의 재료가 생산되니 이로써 종묘와 사직에 바쳐지며, 마름·굴과 유자·포모(包茅)⁴·메벼 등을 진상하므로 우리나라에 호남이 있는 것은 중국에 강남이 있는 것 이상이다.

이에 힘입어 문물이 변화한지 이백여 년이 되었는데, 처음에 임진, 정유년의 난리에 물산이 사라지고 다시 계사(1593), 갑오

3 윤휘(尹暉) : 본관은 해평(海坪)이고, 자는 정춘(靜春)이며, 호는 장주(長洲)·천상(川上)이다. 영의정 윤두수(尹斗壽)의 아들이다. 1594년 별시문과에 문과로 급제하여 사관(史官)이 되었다가 1596년 병조좌랑을 거쳐 이듬해 병조정랑이 되었다. 이어 사서·장령·필선·사간 등을 거쳐, 전라도와 경상도 관찰사로 나가 치적(治績)을 올렸다.

4 포모(包茅) : 제사 때에 띠를 묶어 그릇에 담아 놓고 술을 따라 바치는 것이다.

년(1594)의 기근에 물산이 문드러졌다. 여기에 수령의 각박한 정사에 거듭 곤궁해지고 피폐해졌다가 끝내는 초췌하여 대단히 어지러워짐에 이르렀으니, 다만 전쟁과 흉년, 그리고 각박한 세금이 서로 기인한 것일 뿐만이 아니다. 아마도 풍속을 살피는 관찰사를 내쫓거나 올려주는 책임을 맡은 자가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어서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이 아닐까.

이에 우리 전하께서 부례(祔禮)⁵를 겨우 마치자마자 모든 정치를 새롭게 하여 쇠잔한 백성을 살리고 고도(古道)를 회복하는 방법을 생각하였으니, 이에 조정의 일치된 대답⁶을 채택하여 우리 공을 얻었다. 공이 이에 명령을 받아 부절을 잡고 수레에 올라 남쪽으로 달리려 하니, 화려한 수레를 타고 장식한 말을 탄 선비들이 남문 밖에 모여들어 이별에 목이 메인 자들이 몇천 명인 줄 알 수가 없다. 나는 우리 공과 어린아이 때부터 외람되이 친교를 맺었으니, 이별의 기로에서 한 마디 글을 써서 주지 않을 수 있겠는가.

아! 공의 학문으로 학교를 세워 인륜을 밝힌다면 향리는 다스려질 것이니, 어지러움이 변하여 순후함으로 돌아가는 도리가 여기에 있지 않겠는가. 공의 무예로 갑병을 수선하고 성과 해자를 수리한다면 사졸은 정예화되며 용맹해질 것이니,⁷ 적과 흉도(凶徒)를 꺾는 방책이 이에 있지 않겠는가. 충과 효로 풍속을 돈독하게 하면 풍속은 맑아지지 않음이 없을 것이며, 신과 의로 적에게

5 부례(祔禮) : 삼년상을 마치고 신주를 사당으로 옮겨 모시는 부모(祔廟)의 예를 말한다.

6 조정의 일치된 대답 : 《서경》〈우서(虞書) 요전(堯典)〉에, 요(帝) 임금 이 이르기를 “현달한 자를 밝히며 미천한 자를 천거하라.” 하자 여럿이 요 임금에게 말씀드리기를〔師錫帝〕“홀아버가 아래에 있으니 우순(虞舜)이라 합니다.”라는 말에서 나왔다.

7 정예화되며 용맹해질 것이니 : 원문은 ‘士銃而卒勇’인데, 국립중앙도서관본에 근거하여 ‘銃’과 ‘勇’를 ‘銳’와 ‘勇’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위세를 떨치면 적은 복종하지 않을 수 없다. 《사기》〈역생육가열전〉에서 “문과 무를 함께 쓰는 것은 장구한 계책이다.”라 하였으며, 또한 “충과 효, 신과 의는 나라의 근간이다.”⁸라 하였다. 이처럼 하고도 나라가 부강해지지 않으며 다스려서 문물이 변화하게 되지 않는다면 하늘이 우리 공을 내어 이 임무를 맡긴 것이 장차 무엇을 하고자 함인가. 그러나 훗날 삼공의 지위에 올라 태평의 기반을 열어젖힐 이도 우리 공이 아닐 수 없으니, 어찌 우리 공을 남쪽 지역에 오랫동안 머물게 하여 한갓 부강과 문물의 변화함만 책임 지우고 말겠는가. 드디어 시를 지어 덧붙인다.

드넓은 호남 지역	額額湖界
강토가 천 리가 넘네	疆逾千里
섬 왜구 갑자기 쳐들어와	島寇猝獠
백성들에게 큰 상처 입혔네	餘黎瘡剗
사나운 오랑캐 이어서 쳐들어와	暴夷踵恆
피난민 해쳐 죽음을 불렀네	毒逋徵斃
많은 주현(州縣)에서	多州多縣
날마다 여위고 고달파하였네	日就凋憊
참으로 지역의 도백이	良由疆伯
포상과 배척에 밝지 않아서네	不明褒斥
이에 우리 공을 발탁하여	茲擢我公

8 충과…근간이다 : 《오대사(五代史)》〈풍도전(馮道傳)〉의 논(論)에서 “예(禮)와 의(義)와 염(廉)과 치(恥)는 나라의 네 근간이다. 네 근간이 펼쳐지지 않으면 나라는 이에 멸망한다.[國之四維，四維不張，國乃滅亡.]”라 하였다. 초찬한은 이 문장에 변화를 주어 충, 효, 신, 의를 사유(四維)라고 본 듯하다.

지방관 ⁹ 을 내려주었네	岳牧攸錫
남쪽 백성 피해하여 입만 베풀	南口罷囁
어머니 우러러 젖을 달라는 형상이네	仰乳于母
눈물 거두고 찡그린 얼굴 펴며	收涕息輦
집집마다 웃으며 환호하네	笑謔欄戶
간사한 이 달아나고 좀 먹는 일 사라지며	奸遁蠹祛
탐관 개혁하여 청결함을 사모하네	革養慕潔
공은 부임을 더디지 말라	公去勿遲
기갈에 괴로워하고 있으니	苦飢苦渴
먹이고 젖을 주어	以哺以乳
우리 백성 ¹⁰ 살려주시라	活我橫目
공은 돌아옴을 더디지 말라	公來勿遲
이판과 정승의 자리 있으니	有銓有樞
전형(銓衡)을 잡고 권형(權衡)을 잡아	以提以握
우리 임금의 커다란 제책 도우시게	贊我洪猷
공이 돌아오고 공이 떠남에	公來公去
기쁨과 슬픔이 있지만	是休是戚
떠나고 돌아옴을	去兮來兮
더디지 말고 속히 하시게	勿遲而速

- 9 지방관 : 요순 시대에 악목(岳牧)을 두었는데, 악목은 사악(四岳)과 십이목(十二牧)의 합칭으로 후대에는 지방관을 뜻하는 말로 쓰였다.
- 10 백성 : 원문의 횡목(橫目)은 만물 중에서 오직 사람만이 눈이 가로로 찢어져 있다고 하여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장자》〈천지(天地)〉에 “선생님은 횡목의 백성에게 뜻이 없습니까? 성인의 정치를 듣고자 합니다.[夫子無意於橫目之民乎，願聞聖治?]
- ” 하였는데, 이에 대한 성현영(成玄英)의 주에서 “오행의 부류 가운데 오직 사람만이 눈이 가로로 찢어져 있다.[五行之內，唯民橫目.]”라고 하였다.

영남 방백에게 준 송서

贈嶺南方伯序

호남과 영남은 우리나라의 근간이 되는데 영남은 호남보다 배나 크니, 다만 토지가 뛰어나며 밝고 시원하게 트여있을 뿐 아니라 백성과 산물이 대단히 많다. 큰 바다가 왼쪽으로 흐르고 높은 산이 사방으로 둘러싸고 있으며, 죽전(竹箭)·굴과 유자·가죽·금과 주석 등이 생산된다. 이름난 도시와 커다란 고을이 그 안에 수를 놓은 듯 또는 바둑판처럼 펼쳐져 있는데, 민간의 풍속은 순후하고 진실되니 신라 혁거세의 유풍이 남아 있다. 서원과 향교는 지역마다 여기저기에 있으니, 학교에 들어가 학업을 연마하고¹¹ 도를 닦는 선비들이 이따금 배출되어 전현과 선철이 남긴 교화가 유지되고 있다. 이것이 국가의 근간이 되어 국가가 제대로 국가다울 수 있는 까닭이다. 그러나 반드시 임금의 명령을 받아 수행하는 관찰사를 제대로 된 사람을 기용한 연후에 그 교화를 순후하고 아름답게 만들며 그 근간을 공고히 할 수 있다.

내가 신임 안찰사의 행차에 세 가지 조목으로 권면하노라. 즉 “충성과 효도를 높이고 사문(斯文)을 우대한다면 이것이 그 무너진 추세를 진작시키는 것이 아닌가. 무역소의 헛된 낭비를 줄이고 간악한 무리가 요해처를 파괴하려는지를 살핀다면 이것이 변

11 학교에…연마하고 : 본문의 장수(莊修)는 장수(藏修)의 오키로 보인다. 《예기(禮記)》〈학기편(學記篇)〉에 “군자는 학문에 대해서 학교에 들어가서는 학업을 닦고 학교에서 물러나 쉴 때는 기예를 즐긴다.[君子之於學也 藏焉 修焉 息焉 游焉]”라고 되어 있다. 대개 莊과 藏은 통용한다.

방을 튼튼히 지키는 것이 아닌가. 창고를 열어 굶주린 백성을 진
휼하는 것을 성화(星火)보다 급하게 하면 떠돌거나 굴에 사는 백
성을 구원하는 것이 아닌가. 이로 인해 장리(賊吏)를 내쫓고 청렴
한 이를 숭상하면 풍화(風化)가 순후해지고 아름답게 될 것이며
근간이 공고하게 될 것이니, 임금의 명령을 받아 수행하는 관찰
사의 책임을 다하는 것은 이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안
찰사를 권면하는 나의 책무도 또한 그 권면하는 책임을 다하겠다
고 하겠다. 아아, 그대는 힘쓸진저.”

기 막부¹²에게 준 송서

送奇幕府序

우리 전하께서 교화를 펼친 지 사십 년이 되었는데, 북쪽과 서쪽 두 지역의 노호(老胡)¹³들과 분쟁하는 일로 장계가 연이어 날아들어 보고되고 있다. 백성들이 크게 동요하여 노인들은 놀라 눈살을 찌푸리고 젊은이들은 달려 나아가 소란스러우며 부인과 어린아이들은 허를 빼고 침묵하며 서로를 숨기고 있으니 마치 서로 이고 지며 도망갈 차비를 하였다.

이에 조정에서 논의하여 여러 계책을 아뢰기를 “저번 나라가 오랑캐에게 침략당할 때 창졸간에 미친 개처럼 돌격을 당하여 7로(路)¹⁴가 칼에 맞은 대처럼 쪼개지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상처 입은 백성¹⁵들이 탄환에 놀라 얼이 나가 지금까지도 두려워 겁을 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개 이 외적은 홀소(忽巢)에서 구름처럼 날아와 다만 동류를 병탄하여 영토를 넓히려 하니, 적보다 먼저 미리 도모함은 현재 우리에게 달려있습니다. 어찌 재주와 지략이 지위에 걸맞는 자를 일찍 가려 도체찰사의

12 기 막부 : 선조 말기에 부수찬을 지냈던 기협(奇協)으로 추측된다.

13 노호(老胡) : 남만주 여진족 곧 건주위(建州衛) 여진족을 일컫는 호칭인데, 《광해군일기》 3년 8월 12일 조의 주석에 따르면, 원래 ‘노호(老胡)’라고 칭하던 것을 중국 조정이 ‘노호(奴胡)’로 개칭하였다 하고, 또 4년 2월 6일 조의 주석에는 “노호(老胡)는 바로 건주이(建州夷)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항상 그 추장을 노을가적(老乙加赤)이라 했으므로 노호(老胡)라고 불렀고, 중국에서는 그 추장을 노아합적(奴兒哈赤)이라 했기 때문에 이제 노호(奴胡)라고 칭한다.” 하였다.

14 7로 : 경상도를 제외한 칠도를 가리킨다.

15 백성 : 앞의 10번 주 참조.

직임을 주어 중요한 일에 힘쓰고 실정을 살피 아직 움직이지 않는 적들의 중추¹⁶를 무너트리는 것만 같은 것이 있겠습니까.”라 하였다. 드디어 좌의정 허공(許公)¹⁷의 발탁을 윤희하니, 이에 노인들은 찌푸렸던 눈살을 펴고 기뻐하며 젊은이들은 소란을 멈추고 뿔 듯이 좋아하며 부인과 어린아이들은 입을 벌리며 뛰어나와 하례하며 말하기를 “허공이 원수(元帥)라니 우리는 달아날 필요가 없다.”라 하였다. 드디어 서로 자기의 문으로 들어가 마치 안도하며 거처하였다.

이에 허공은 장계를 올려 종사관 세 사람을 요청하여 경략(經略)을 돕게 하였는데, 수찬 기공(奇公)도 선발한 가운데 들었다. 장차 모월에 원수보다 먼저 출발하여 해서(海西) 지역을 살펴보기로 하였으니, 이는 전하의 명을 받들고 원수의 명령을 알리기 위한 것이니 그 거동이 또한 성대하지 않겠는가. 이에 노인과 젊은이, 부인과 어린아이들이 또 의심하기를 “우리 수찬 기공은 경전에 밝고 학문이 깊어 우리 임금의 모시고 논사(論思)¹⁸하는 자리에 처하고 있어서 우리 임금의 덕을 공이 실로 밝히고 우리 임금의 학문을 공이 실로 넓히고 있는데, 지금 그가 나간다면 임금은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라 하였다. 얼마 뒤에 또 이어서 기뻐하며 말하기를 “아! 우리 종사관 기공은 명석함으로 우리 재상을 돕고 과단함으로 우리 재상을 보좌하리니, 문과 무로 돕고 용맹과 지혜로 보좌하여 서쪽 오랑캐를 채찍질하는데 한번 휘두르면

16 중추: 기아(機牙)는 쇠뇌의 살을 놓는 곳과 시위를 걸어 제동하는 장치로 요해처 또는 관건(關鍵)을 비유하는 말이다.

17 허공: 선조 말기 좌의정이었던 허옥(許頊)을 가리킨다.

18 논사(論思): 논사(論思)는 임금이 학사(學士)나 중신(重臣)들과 학문을 토론하는 일을 말한다.

될 것입니다. 변방에 나가서는 정벌하고 내직에 들어와서는 보필
 하니 임금의 정책이 더욱 튼튼하리니, 그렇다면 이번 행차가 기
 쁘지 않겠는가.”라 하였다. 나도 기뻐하는 자들 가운데 들었으니
 마침내 노래를 지어 노래 부른다.

궁궐 휘장 안에 처할 땐	處幄之內
왕의 덕을 높이더니	王德之益
궁문을 나와 외직으로 나감에	從闥而外
왕의 분노하는 적을 상대하네	王愾之敵
능수능란하게 계책을 올리니	納猷蛇蛇
왕의 □□	王沃□□
번개처럼 빨리 격문 지으니	檄毫電霍
오랑캐들 혼이 무너져내렸네	虜魂破頹
잠시 나갔다가 들어오면	乍出而入
피리 불고 북치며 뒤따르리	笳以鼓隨
그대 내 말을 믿지 못하는가	汝不吾信
장차 기린각 초상화를 볼 것이라 ¹⁹	將視麟圖

19 기린각…것이라 : 한 선제(漢宣帝)가 일찍이 곽광(霍光), 장안세(張安世), 소무(蘇武) 등 공신 11인의 초상을 그려서 걸게 했던 전각으로, 기린각에 걸렸다는 것은 곧 국가에 큰 공훈을 세워 공신에 책록된 것을 말한다.

수안군수로 부임하는 익지 홍서익²⁰에게 준 송서

送洪翼之赴遂安郡序 -瑞翼-

나의 벗 익지는 책을 읽고 글을 지으며 부지런히 과업에 힘써 온 지 거의 40년이 된다. 여러 차례 과거에 응시했으나 누차 합격하지 못하자, 사람들이 모두 곤궁한 선비로 지목하였다. 내가 홀로 익지가 과거에 힘쓴 것은 명리를 취하는 것을 일삼는 것이 아니라 다만 대부인을 영화롭게²¹ 모시기로 마음먹어서 게으르지 않고 급하게 여겼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익지의 충성과 효도, 화평하고 단아함은 세상에 알려진 지 거의 40년이 되었으니, 하늘이 착한 사람에게 보답을 베푸는 이치가 없다면 그만이지만, 만일 있다면 어찌 익지로 하여금 끝까지 곤궁하게 하겠는가.

이 말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익지는 과연 갑과에 합격하여 특별히 선대의 공으로²² 통정의 반열에 올랐다. 얼마 뒤에 또다시 수안군수의 수령이 되었으니, 그 고을은 산과 바다에 끼어 있다. 부드럽고 달며 살지고 연한 물산이 이곳에서 생산되니 대부인을 영화롭게 모시는 데 어떠한 것이며, 하늘이 보답을 베푸는 이치가 과연 있다고 하겠는가? 없다고 하겠는가?

내가 익지와 평소 우의가 있었다. 나는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20 홍서익(洪瑞翼) : 1572~1623. 본관은 남양, 자는 익지(翼之), 호는 화옹(禾翁)이다. 1609년(광해군 1) 증광문과에 갑과로 급제하고 훈음(勳蔭)으로 통정대부(通政大夫)의 품계에 올랐으며, 1610년에 수안군수가 되었다.

21 영화롭게 : 원문은 ‘榮’인데, 국립중앙도서관본에 근거하여 ‘榮’을 ‘榮’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22 선대의 공으로 : 부친은 이조판서를 지낸 홍성민(洪聖民)이다.

장성하여 더욱 곤란하였으며 늘그막에 낮은 품계에 머물러 있었으니 익지의 처지와는 현격히 달라 높은 하늘과 낮은 땅 그 이상이었다. 그렇다면 내가 충성과 효도, 화평하고 단아함의 실상이 없음을 이에서 알 수 있으며, 하늘이 선한 이와 불선한 이에게 보답을 베풀거나 그렇지 않은 이치가 더욱 분명하다. 그러나 익지는 바야흐로 아직 나이가 젊으니 참으로 충성과 효도, 화평하고 단아함의 실상을 미루어 부족한 부분을 더욱 힘쓴다면 하늘이 익지에게 보답함이 어찌 다만 한 고을에 그치겠는가. 그가 길을 나섬에 나에게 매우 급하게 글을 요구하니, 드디어 송서를 지어서 그를 면려한다. 아! 충성과 효도, 화평하고 단아함은 백성을 다스리는 근본일 것이다.

단주로 부임하는 백원 박효성²³에게 준 송서

送朴百源赴端州序 -孝誠-

단주는 우리 동방에서 가장 이름난 고을이니, 백금·구슬·푸른
임민(琳珉)이 생산되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백금·구슬·푸른 옥돌
을 구하는 자는 모두 단주로 달려가므로, 우리 동방에서 지극한
보물을 일컬을 때면 반드시 모두 ‘단주산(端州產)’을 말한다. 단
주의 아전은 이를 빌미로 가렴주구하므로 단주의 백성은 이 때문
에 곤궁하다. 금과 구슬을 더욱 거둬들일수록 백성들은 더욱 흘
어지니, 장차 한 시대의 금과 구슬 때문에 온 고을이 빌 지경이
다. 단주를 다스리는 자는 어찌 그 백성을 흠어지게 하면서까지
금과 구슬을 모아서야 되겠는가. 차라리 금과 구슬을 흠어지게
하고서 백성을 모아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 조정에서 특별히 공을 단주의 수령으로 삼은 의도를 나
는 알고 있다. 그 충성으로 백성을 권면하고 그 효도로 백성을 먼
려하며 염결과 화평하고 단아함[愷悌]으로 보호하고 사랑하라는
것이니, 그렇다면 백성은 장차 “우리 원님이 보물로 여기는 것은
금과 구슬이 아니오, 바로 충성과 효도이다. 우리 원님이 보물로
여기는 것은 옥돌이 아니오, 바로 염결과 화평하고 단아함이다.”
라 할 것이다. 마침내 서로 산에 금을 돌려보내고 연못에 구슬을
던져서, 충성과 효도, 염결과 화평하고 단아함으로 서로 이끌지

23 박효성(朴孝誠) : 1568~1617. 본관은 고령(高靈), 자는 백원(百源), 호는 진천(眞川)이다. 1590년(선조 23) 진사가 되고 1593년 별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벼슬에 나아갔다. 1612년(광해군 4)에 단천군수가 되어서도 포상을 받고 선정비가 세워졌다.

앎이 없을 것이니, 옛날에 흠어졌던 백성들이 이에 다시 모여
 들고 옛날에 거둬들였던 보물들이 이에 흠어질 것이다. 다만 단
 주의 백성을 그러할 뿐이 아니라 장차 이웃과 온 세상이 그것을
 본받아 필적하게 되리니, 충성과 효도를 보물로 삼고 금과 구슬
 을 진흙으로 여기는 것이 지금부터 시작될 것이다. 우리 동방의
 충성과 효도, 염결과 화평하고 단아함을 일컫는 자는 반드시 모
 두 ‘단주여, 단주여.’ 할 것이니, 그렇다면 단주가 우리 동방에 이
 름이 나는 것은 금과 구슬 때문이 아니라 충성과 효도 때문일 것
 이다. 금과 구슬을 충성과 효도로 바꾸는 것은 오늘에 달려 있지
 않으랴. 또한 충성과 효도, 염결과 화평하고 단아함은 우리 벗이
 일삼는 것이 아닌가. 아! 힘쓸지어다. 바야흐로 슬픈 일이 있어
 시를 짓지 않고 송서만 쓴다.²⁴

24 슬픈…쓴다 : 애사가 있을 경우에는 시를 짓지 않는 풍조가 있다.

연기 수령 최씨²⁵에게 준 서

贈崔燕岐序

나는 공의 선대부가 지은 시에 대해 감동하였다. 그 운은 맑고 고상하며 그 격률은 온화하고 엄정하며 그 말은 담담하면서도 화려하니, 시를 읽으면 사람을 흥기시켜 선을 감발하고 악을 징창(懲創)하는 실마리가 성대하였다. 천성에서 얻어서 신묘함에 부합하지 않는 자라면 그럴 수 있겠는가. 참으로 당나라 이후의 세상에 드문 시이기에 일찍이 무릎을 치면서 감탄하기를 “맑고 고아한 것은 아(雅)이며, 온화하고 엄정한 것은 전(典)이며, 담담하면서도 화려한 것은 바탕과 수식이 어울린 것이다. 정사에 종사하는 자가 참으로 고죽공(최경창)이 시에서 터득한 것으로 정사에 시행한다면 또한 아마도 거의 잘 다스려질 것이다.”라 하였다.

얼마 뒤에 어떤 사람이 우리 공이 읊에서 시행한 정사로 나에게 고하기를 “사납게 대하지 않아도 백성들이 절로 화목하니 아(雅)가 아닌가. 규찰하지 않아도 백성들이 절로 복종하니 전(典)이 아닌가. 자리에 임하여 직무를 힘쓰며, 이윽고 떠난 뒤에도 백성들이 그리워하는 것은 바탕과 수식이 어울린 것이 아닌가.”라 하였다.

이윽고 또 공이 호조에서 시행한 것으로 나에게 고하기를 “간략함을 힘쓰지 않아도 번거롭지 않은 것은 아(雅)에서 얻은 것이다. 아랫사람에서 거뒀들이지 않고도 넉넉하게 되었으니 전(典)

25 최씨 : 최경창의 외아들은 최집(崔湑)이다.

에서 얻은 것이다. 관료와 아전들이 공에게 복종하면서 공의 능력을 칭송하는 것은 바탕과 수식이 어울려 어그러지지 않음에서 얻은 것이다. 아! 고을에서 시행한 것이 이미 저와 같고 낭관을 역임하면서 또 이와 같으니, 이는 선부군이 시에서 터득한 것으로 정사에 시행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버지가 짓고 자식이 이어받았다는 말은 최씨 부자를 이룬 것이다.”라 하였다.

말을 마치기 전에 공은 또 이 고을에 부임하게 되었다. 그가 출발할 때 나에게 매우 간절히 글을 요청하기에, 나는 삼가 다음처럼 대답한다. “공이 이 지역을 다스리는데 다른 것을 구할 필요가 있는가. 공이 고을에서 시행했던 것으로 시행한다면 충분하며, 공이 낭관으로 시행했던 것으로 시행한다면 충분하다. 지금의 정사는 이와 같을 따름이다. 그러나 선부군이 시로 이름을 날린 것이 이처럼 크니, 어찌 한 고을의 수령이나 한 낭좌(郎佐)의 정사로써 그 만분의 일이라도 이어받았다고 할 수 있으랴. 커다란 도회지와 고을에서 시행하고, 관찰사와 곤수(閫帥)에서 시행하고, 삼공의 지위에서 시행하여 나라의 정사를 도운 연후에 바야흐로 화답하고 수창했다고 할 수 있다. 아! 최자(崔子)는 또한 힘쓸지어다.”

괴산 수령 오숙²⁶에게 준 서

贈吳槐山序 -翻-

마음속에서 발하여 밖으로 드러난 것은 정사보다 빠른 것이 없다.²⁷ 그 마음이 바르면 그 정사는 바르지 않음이 없으며, 그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그 정사는 바르게 될 수 없다. 그러하다면 나는 그대의 정사에 대해 비난할 것이 없다. 왜 그런가. 마음이 바른 데다가 배운 것이 올바름을 살펴볼 수 있으니, 그에서 발현한 것은 바르지 않음이 없어서 정사도 저절로 베풀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이른바 정사라는 것은 이와는 반대이다. 발현한 것이 바르지 않으니 이 때문에 부세와 노역에 대한 감독이 대단히 가혹하며 또 이어서 형벌이 사나우니, 어떻게 백성들이 흠어지지 않으며 고을이 텅 비지 않으랴.

지금 괴산 지역은 향교가 있고 사직단이 있고 백성이 있으니,²⁸ 이 또한 충분히 정사를 펼칠 수 있다. 평소에 가슴속에 담아둔 포부를 발현하고 베풀어 정사를 하는 것이 이번 거동에 달려 있지

26 오숙(吳翹) : 1592~1634. 본관은 해주(海州), 자는 숙우(肅羽), 호는 천파(天坡)이다. 1612년 증광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벼슬길에 나와 1620년 괴산군수가 되었다.

27 마음속에서…없다 : 사람의 심리는 정치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땅의 생리는 나무에 민감하게 반영된다.[文武之政布在方策 其人存則其政舉 其人亡則其政息 人道敏政 地道敏樹]”는 내용이 《증용장구》 제20장에 나온다.

28 향교가…있으니 : 《논어》〈선진(先進)〉에서 자로가 “백성이 있고 사직이 있으니, 하필 글을 읽은 뒤에야 학문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子路曰, 有民人焉, 有社稷焉, 何必讀書, 然後爲學.]”라 한 말을 인용하였다. 여기서는 원래의 내용을 반의적으로 사용하였다.

않겠는가. 그러나 아랫사람에게 거둬들여 윗사람에 보태는 정사는 그대 본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것이 있을 것이니, 그렇다면 비록 그대의 바름에서 발현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에 위태롭게 될 것이다. 끝내 배움에서 터득한 것으로 바르게 한다면 비록 정사를 하지 않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돌아온다면 이 또한 정사가 될 것이다. 어찌 반드시 정사를 한 연후에 정사를 하였다고 이를 수 있으랴.²⁹

29 어찌… 있으랴 : 《논어》〈위정(爲政)〉에서 어찌하여 정사를 하지 않는냐고 질문하는 사람에게 공자가 “《서경》에서 효에 대해 말하면서 ‘아버이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여 그것을 정치하는 데에 미루어 행한다.’라고 하였으니, 이것도 정치를 하는 것이다. 어찌 꼭 벼슬을 해야만 정치를 하는 것이겠는가.[書云孝乎 惟孝 友于兄弟 施於有政 是亦爲政 奚其爲爲政]”라고 답한 것을 인용한 것이다.

여주 목사 오숙에게 준 서

贈吳驪州序 -翻-

대저 도목수는 큰 집을 짓는데 자신의 재주가 쓰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찮은 쟁기나 다듬이를 만드는 재주를 비루하게 여기지 않고 처해 진 상황에 따라 자신의 능력을 다한다. 뱃사공은 큰 바다에서 항해하지 않는다고 해서 작은 거룻배나 뗏목을 저어가는 기술을 천박하게 여기지 않고 닻친 상황에 따라 그 기술을 다한다. 그러다가 높은 궁궐을 짓고 큰 전함을 띄우게 된 뒤에야 도끼와 먹줄, 그리고 조각칼의 사용이 각각 그 오묘함을 다하며, 돛대와 의여(衣櫚),³⁰ 그리고 닻과 노를 갖춰 각각 그 공력을 바친다. 이에 도목수와 뱃사공이 훌륭한 도목수와 뱃사공임을 알게 된다.

지금 우리 그대가 대부(臺府)³¹에서 재주를 펼치고 군읍(郡邑)에서 재주를 펼치고 지방 주목(州牧)의 임무를 맡아 재주를 펼쳤으니, 잣달만한 쟁기와 다듬이, 거룻배와 뗏목과 무엇이 다르랴. 훗날 추극(樞極)³²에 오르거나 정승의 자리에 올라 경륜의 솜씨를 크게 펼친 연후에 비로소 ‘큰 재주’에 걸맞을 것이다. ‘큰 재주’가 바야흐로 작은 나무를 다듬거나 강어귀에서 노닌다면 어찌 도목수의 재주와 뱃사공의 솜씨를 알겠는가.

30 의여(衣櫚) : 《주역》 기제괘(既濟卦) 육사(六四)에 “물이 젖으매 현 옷을 장만해 두고 종일토록 경계한다.[繻 有衣櫚 終日戒]” 하였는데, 정전(程傳)에 “배에 틈이 있어 물이 새면 현 옷으로 막아야 한다.”라 하였다. 배를 띄우는데 필요한 온갖 것에 능력을 발휘한다는 의미이다.

31 대부(臺府) : 사헌부와 사간원을 가리킨다.

32 추극(樞極) : 국가의 중추가 되는 중요한 사무를 말한다.

내가 평소 그대 이웃에 살았다. 그대가 어릴 때부터 나를 따라 노닐었으니 그대의 평생을 나보다 가장 잘 아는 자가 없는데, 문장과 재주의 기림은 다만 문표(文豹)의 한 점 무늬일 뿐이다.³³ 어찌 감히 사람과 어울리지 않는 것을 끌어다가 허풍을 떨며 아침 하겠는가. 지금 그대가 어머니를 위해 편하게 모시려는데 다급하여 임금을 가까이 모시는 자리를 사양하고 외직인 경기의 여주목사로 나가니 아마도 다만 기미를 보고 떠나는 것³⁴은 아닐 것이다.

옛말에 이르기를 “교룡이 굴을 떠남은 살 만한 곳을 집으로 삼아 편안하게 여기기 때문이다.”라 하였다. 판여(板輿)를 받들고³⁵ 여러 아우를 거느려서, 우러러 효도하고 아래로 우애하여 즐거움이 그 안에 있다면 이것은 살 만한 곳을 집으로 삼아 편안한 것이 아니겠는가. 쟁기나 나룻배를 하찮고 잣달만하다고 여겨 능력을

33 문표(文豹)의…것이다 : 문표(文豹)는 화려한 무늬가 있는 표범 가죽이다. 표범은 안개가 낀 날에는 결코 밖에 나가지 않는다. 털이 안개에 젖어 상할까를 염려해서이기도 하나, 햇살이 없는 날에는 그 모색(毛色)의 형형함이 빛나지 않기 때문이다. 문표의 한 점 무늬라는 말은 아주 뛰어난 것의 하찮은 일부분이라는 의미이다.

34 기미를…것 : 《논어》〈향당(鄉黨)〉의 “새가 사람의 기색이 좋지 않은 것을 보면 날아올라 빙빙 돌며 살펴보고 나서 내려앉는다.[色斯舉矣 翔而後集]”라는 말을 인용하였다.

35 판여(板輿)를 받들고 : 노인용 가마를 뜻하는데, 주로 지방관으로 나가 늙은 부모를 모시는 것을 비유한다. 진(晉)나라 반악(潘岳)이 장안령(長安令)으로 옮겼다가 박사(博士)로 제수되자 아버이를 모시기 위하여 벼슬을 버리고 돌아와 《예기(禮記)》의 편명인 〈중니한거(仲尼閑居)〉의 뜻을 취하여 〈한거부(閑居賦)〉를 지었는데, “태부인(太夫人)을 판여에 모시고 가벼운 수레에 오르시게 한 뒤 멀리 궁성을 유람하고 가까이 집안 프락을 소요하게 해 드린다.[太夫人乃御板輿, 升輕軒適覽王畿, 近周家園.]”라는 구절이 있다. 《晉書》卷55 潘岳列傳

폐하지 않는 것이 금일에 있지 않겠는가. 아! 그대가 본래 가지고 있던 것을 알겠기에 도목수와 뱃사공의 책무를 권면한다. 아니 잘 알지 못하겠지만, 때라는 것은 빠르고 늦음이 있으니 하늘이 과연 세상을 평화롭게 다스리려 하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내가 그때가 되면 바야흐로 큰 집을 짓고 큰 강을 건너는 것을 볼 것이니, 지금 그대가 떠남을 애석하게 여기며 이렇게 말한다.

연경에 가는 자중 김시양³⁶에게 준 송서

送金子中赴燕京序 -時讓-

나는 현재에 태어나고 옛날에 태어나지 못해서 당(唐)과 우(虞)의 삼대 문치의 융성함을 보지 못한 것이 슬프며, 동이(東夷)에서 태어나고 중국에서 태어나지 못해 예악과 문물, 그리고 위의를 성대함을 보지 못한 것이 슬프다. 대개 현재의 시점에서 옛날은 이미 바래서 미칠 바가 아닌데, 동이는 중국에 대해 비록 국경은 있지만 저 길은 막히지 않았으니 남아가 세상에 태어나 어찌 두루 유람할 길이 없겠는가. 이것은 내가 평소 가슴에 담아 쌓아 둔 것으로, 노력하여 과거에 급제한 것은 다만 공명과 사업의 기반으로 삼기 위함만은 아니었으며, 다만 명을 받들어 사신이 됨을 영광으로 여겨 그 뜻을 이루려고 하였다.

이번에 벗인 김자중이 나이가 젊고 재주가 뛰어나고 기개가 굳세니, 선비 가운데 발탁되어 임금의 명을 받들었다. 특별히 부사(副使)로서 동지에 하례하러 중국 조정에 당당하게 대열을 따라가게 되었으니, 저 조정에 모인 수많은 나라의 패옥을 찬 많은 관리들이 나이가 젊고 재주가 뛰어나고 기개가 굳센 자중을 보고 눈을 크게 뜨고 서로 놀라지 않겠는가. 나이가 젊고 재주가 뛰어나고 기개가 굳센 자중이 굽거나 곧은 산천과 드넓은 도읍(都邑)과 겹겹이 늘어선 성시(城市)의 드높은 문과 종묘와 조정의 예악과 문물, 그리고 위의를 성대하고 화락함을 두루 경험한다면, 창연(暢然)히 마음

36 김시양(金時讓) : 1581~1643. 본관은 안동, 초명은 시언, 자는 자중, 호는 하담이다. 1605년(선조 38) 정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승문원정자로 벼슬길에 나아갔다. 1610년 동지사 서장관으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에 절로 깨우친바 있어 더욱 그 굳센 기개를 넓히지 않겠는가.

옛날에 계찰이 주나라를 보고 나서 학문이 더욱 넓어졌으며,³⁷ 자장(子張)은 천하를 유람하고 문장이 더욱 기이해졌다.³⁸ 지금 자중이 학문이 넓어지고 문장이 기(奇)를 이룬다면, 어찌 앞의 두 사람보다 밑에 있겠는가. 아! 자중이 이 나라를 떠나면 곧바로 연주(燕州)를 지나 북경에 도착할 것이다. 자중이 지나가는 곳은 옛날 연나라 지역으로 소왕의 묘소에 조문하면서 “천년 뒤에 다시 살아나 황금대를 짓는다면, 지금의 천하 사해에 어찌 악의(樂毅) 같은 인재가 적겠습니까.”³⁹ 저를 기용하시면 천하 사해가 매우 다행스러울 것입니다.”라 하리라.

자중과 이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자중의 뒤를 이어 연경에 가는 자는 바로 나의 친형이다. 바야흐로 형제⁴⁰가 멀리 이별하는 정회가 있기에 이에 더 이상 말할 겨를이 없다.

37 계찰이…넓어졌으며 : 춘추 시대 오(吳)나라의 어진 공자(公子) 계찰(季札)이 일찍이 사신으로 상국(上國)을 두루 유람하면서 당세의 어진 사대부들과 사귀고, 특히 노(魯)나라에 사신으로 가서는 옛 주(周)나라의 음악들을 차례로 관찰하고 탄복하여 마지않았다는 고사를 인용하였다. 《史記 卷31 吳太伯世家》

38 자장은…기이해졌다 : 자장(子張)은 사마천의 자이다. 사마천은 일찍이 온 천하를 두루 유람하여 산천의 웅혼한 기(氣)를 깨우쳐 문장에 그 기를 승화시켰다고 한다.

39 연나라…적겠습니까 : 전국 시대 연(燕)나라 소왕(昭王)에게 곽외(郭隗)가 “죽은 말 한 마리의 뼈를 500금(金)에 사들였더니, 1년도 채 안 되어서 살아 있는 천리마 세 마리가 찾아왔다.”는 고사를 인용하면서, 자기부터 우선 대우를 잘해 주면 천하의 현사들이 저절로 모여들 것이라고 말하자, 소왕이 연경(燕京)에 황금대를 세우고 인재를 초빙하니, 악의(樂毅)와 극신(劇辛) 등의 명사가 대거 찾아왔다는 고사가 전한다. 《戰國策 燕策》

40 형제 : 영원(鵠原)은 《시경》〈소아(小雅) 상채(常棣)〉의 “저 할미새 들 판에서 호들갑 떨 듯, 급할 때는 형제들이 서로 돕는 법이랴오. 항상 좋은 벗이 있다고 해도, 그저 길게 탄식만을 늘어놓을 뿐이랴오.〔鵠在原 兄弟急難 每有良朋 況也永歎〕”라는 말에서 유래한 것이다.

연경으로 가는 벗에게 주는 송서

送友人赴燕京序

종묘와 조정 예악의 화락하고 찬란한 성대함, 시전(市廛) 저자의 재화의 다양함, 도시와 성채와 봉화대와 척후소의 웅장함, 산천과 들과 습지와 전야의 굽음과 곧음, 장성과 사막에 구불구불 이어진 성문과 성곽을 힘들이지 않고 살펴보는 것을, 말을 타면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사이에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비록 심부름꾼이나 하인이 맞닥뜨리더라도 평소보다 열 배 이상 가슴이 후련하고 드넓어진다. 더구나 총명하고 영특하며 외교의 재주가 동료나 평범한 자보다 대단히 뛰어난 우리 그대는 말할 필요도 없다. 총명하고 영특하며 외교의 재주가 동료나 평범한 자보다 대단히 뛰어난 우리 그대가 성문과 성곽을 지나며 굽거나 곧은 길을 지나면서 웅장함과 다양함을 살펴보고 나아가 화락하고 찬란한 성대함을 거두어 취한다면 어찌 다만 총명하고 영특하며 외교의 재주가 동료나 평범한 자보다 대단히 뛰어난 것에 그치겠는가. 제찰이 박아(博雅)하게 되고 자장이 기장(奇壯)하게 된 것이 이번 거동에 달려 있지 않은가.

그러나 외교를 전적으로 처리하는 것에서 곽혀 부사(副使)가 된 것은 다만 직무에 등급이 있어서이다. 만약 시서(詩書)로서 응대한다면 직무가 갑과 을이라고 하여 잘하는 이를 뒤에 세울 수 없는 것은 분명하다. 그 ‘사신’이라는 호칭에서 보면 어찌 정사와 부사를 구별할 필요가 있으랴. 그러나 이것은 권면하지 않아도 잘하는 것이니, 내가 그대에게 권면할 바가 아니다. 다만 잠자리와 음식을 조심하며 오랑캐의 침입을 경계하는 것이 참으로 오

늘 친애하는 그대에게 바라는 것이다. 나는 바야흐로 형제로 인한 슬픔을 품고 있으니, 떠나는 그대에게 시를 읊어줄 겨를이 없다. 그러나 끝내 침묵할 수 없는 것은 거듭 요구하니 빈손으로 보낼 수 없어서이다. 이에 송서를 쓴다.

사은사 이홍주⁴¹를 보내는 시의 서문

送謝恩使詩序 -李弘胄-

예리한 담로(湛盧)나 거궤(巨闕)⁴²을 지닌 자라도 무소나 코끼리의 가죽을 제쳐두고 썩은 나무를 대하면 그 날카로움을 펼칠 수 없다. 잘 달리는 요노(驪婁)와 기기(騏驎)⁴³를 과시하는 자라도 광대한 들판을 멀리하고 저자거리를 달리게 한다면 그 재주를 드러낼 수 없다. 지금 공은 왕도나 패도를 경륜할 뜻을 품고서 발톱을 오므리고 주먹을 쥐 채 거의 수십여 년을 보냈는데, 경향(京鄕)에서 여러 차례 재주를 펼친 것은 다만 썩은 나무와 저자거리였다.

그런데 지금 명을 받들어 진주사가 되었으니 사람을 응대하고 일을 주선하며 중요한 일[事機]을 처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또한 흉악한 오랑캐가 요동에서 불시에 날뛰었다면 다만 길을 떠난 자만 근심할 뿐 아니라 아울러 보내는 자의 근심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공(李公)을 보내면서도 유독 공을 위해 근심하지 않으니, 다만 나만 공을 전송하면서 공을 위해 근심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공도 편안하게 마음먹으면서 이번 행차를 근심하지 않는데, 응대와 주선을 쉽게 여기는 것도 아니요, 또

41 이홍주(李弘胄) : 1562~1638.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백운(伯胤), 호는 이천(梨川)이다. 1619년 사은사로 명나라에 다녀왔으며, 다시 진주사(陳奏使)가 되었으나 병으로 사직하였다.

42 담로(湛盧)나 거궤(巨闕) : 춘추 시대의 유명한 검 제작자인 구야자(歐冶子)가 월왕(越王)을 위해 만든 칼이다.

43 요노(驪婁)와 기기(騏驎) : 요노는 주둥이는 금빛이 나고 몸둥이는 붉으며 하루에 1만 8천 리를 간다는 말이고 기기는 천리마의 일종이다. 둘 다 뛰어난 준마를 가리킨다.

한 흉악한 오랑캐가 요동에서 날뛰는 것을 근심하지 않아서도 아니다. 대개 중요한 일[事機]을 처리하거나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날 때 앞에서 말한 의미를 생각한다면 이번 진주사의 거동 또한 썩은 나무를 베거나 저자거리를 달리는 것처럼 쉽고도 쉬운 일이니, 어찌 그 날카로움과 재주를 다 펼칠 필요가 있겠는가. 만약 제때를 만나면 왕도와 패도를 경륜할 책략을 펼쳐 보일 것인데, 그러면 무소와 코끼리의 가죽을 자르고 광대한 들판을 내달린 연 후에 바야흐로 그 날카로움과 재주를 다 펼칠 수 있는 것과 같을 것이며, 담로와 기기가 날카롭고 잘 달린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때문에 공이 이번 행차에 근심하지 않은 것이며 나 또한 공 때문에 근심하지 않는 것이다.

회답부사 박공과 이별하면서 준 서

贈別回答副使朴公序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사신의 임무를 받드는 어려움은 외국보다 심한 것이 없으며, 외국의 위험함을 예측하기 어려움은 또한 일본보다 심한 경우는 없다. 전대(前代)부터 일본에 사신으로 간 자는 그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데, 지금까지도 일본에서 칭송되며 대마도에 명성을 날린 자로는 고려 시대의 포은 선생과 우리 조정의 참찬 권공(權公)이 있다.

지금 부사로 떠나는 박공(朴公)은 다만 포은의 후예일뿐 아니라 실로 참찬의 후예이기도 하다. 그는 각고의 노력으로 절개를 세워 외부의 사나움에 꺾이지 않으니 이는 평소 쌓아 축적한 것인데, 하루아침에 명을 받아 사신으로 가니 참찬의 경우와는 같지 않겠는가, 출처(出處)가 절도에 맞은 것은 포은의 뒤를 따른 것이로다. 선현의 아름다움을 뒤쫓아 자신 조상의 유풍을 드날릴 것이니, 두 사람의 뒤를 이어 세 번째 사람이 될 수 있음이 오늘에 달려 있지 않은가.

아! 두 나라 조정의 세 사신이 모두 한 집에서 나와 앞뒤로 성대하여 조상과 자손이 서로 이어지니, 명성은 멀리 퍼질 것이며 기맥은 서로 전해질 것이다. 어찌 다만 강물만 장구하고 불만 유구할 것인가. 아! 힘쓸지어다. 두 조상을 이어 세 번째 사람이 되어 한 집안에 나란히 삼절(三節)이 되는 것이 오늘에 달려 있지 않은가. 오늘에 달려 있지 않은가.

회답부사 강홍중⁴⁴ 공에게 준 송서

送回答副使姜公序 -弘重-

우리 벗 강임보 군이 회답부사로 일본에 가게 되었다. 그의 친구들이 모두 위험하다고 여겼는데, 다만 친구들만 위험하다고 여겼을 뿐 아니라 강군의 안색도 또한 퍼지지 않았으니, 일본은 아득한 동해 바다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나는 홀로 그의 행차가 위험하지 않다고 여기면서 기뻐하고 위로하며 말하였다.

“일본이란 나라는 비록 아득한 동해 바다 가운데 있지만 장풍(長風)을 기다려 큰 돛을 올리면 하루에 천 리를 내달리니, 열흘도 지나지 않아 이미 그 경계에 다다를 것이다. 일을 마치고 서쪽으로 돌아올 때까지 다만 두어 달 사이면 되는데 오히려 위험하다고 여기니, 지금 우리 사람들이 함께 노닐면서 돌아가기를 잊는 곳도 끝이 없는 대해(大海)가 아닌가.

그 바다가 매우 깊지 않을 때는 지나가기가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 그러나 거센 바람이 때로 일어나면 놀란 파도와 물결이 산까지 이어지고 하늘까지 솟구치니, 비록 물에 익숙한 뱃사공이나 어부라도 놀라서 얼굴빛이 변함을 면할 수 없는데 더구나 행상이나 뱃짐장수는 말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데도 오히려 키를 잡고 노를 저어 정박할 줄 모르면서 백년 동안을 이리저리 떠다니고 있으니, 그대가 아득한 동해 바다에서 편안하게 가며 무사히 건너가서 두어 달이 되기 전에 돌아오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현

44 강홍중(姜弘重) : 1577~1642. 본관은 진주, 자는 임보(任甫), 호는 도촌(道村)이다. 1624년(인조 2) 회답겸쇄환사 부사로 일본에 건너가 임진왜란 때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을 데리고 돌아왔다

격한 차이가 있지 않은가. 끝까지 자신은 파도가 넘실거리는 가운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오히려 동해 부근의 바다를 두어 달 사이에 오가는 것으로 위험하다고 하니, 어찌 편안함과 위험함, 평탄함과 험준함을 구분할 줄 알겠는가. 이 때문에 내가 위험하다 여기지 않고 기뻐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우리 그대는 잘 다녀오라.”

계우책의 서문

溪友冊序

신축년 6월 2일에 백운정에 모여 술을 마셨으니, 덕회(德晦)의 초대에 달려간 것이다. 술이 장차 떨어지려 하자 나는 자온(子溫)의 자리[席]에서 술잔을 잡고 있다가 드디어 자온에게 말하였다.

“세상은 갈수록 교유가 없고 도는 갈수록 옛스럽지 않다. 달콤한 말과 웃음 속에 칼이 감추어져 있고 눈길을 돌리고서 돌을 던지는 것⁴⁵이 모두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벼슬의 바다에서 허덕대며 명리(名利)를 다투지 않는다면 이처럼 심한 지경에 이르지 않는다. 다만 마주 보고는 마음을 주다가 뒤돌아서면 비웃으며 서로 화합했다가 헐뜯고 말 뿐이다. 만약 초야(草野)의 산림이나 시냇가의 구름 덮인 바위 사이에 거처한다면 참으로 깨끗하고 고요하고 한가롭고 드넓으며 더불어 친하게 지내는 것은 새와 물고기, 벌레와 짐승일 따름이요, 더불어 가까이 지내는 것은 초목과 꽃과 대나무일 뿐이다. 그러므로 영대(靈臺, 마음)가 맑아져 환경에 따라 날로 넓어지고 몸도 넓어진 마음에 따라 살이 오른다. 기교의 자취는 자연히 사라지리니 옛날의 갈매기와 친하거나⁴⁶ 사

45 눈길을…것 : 작은 이해에 관련되면 위험에 빠진 사람에게 도리어 위해(危害)를 가한다는 것을 말한다. 한유(韓愈)가 지은 <유자후묘지명(柳子厚墓志銘)>에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털끝만큼이라도 작은 이해에 관련이 되면, 언제 보았느냐는 듯 눈길을 돌리고는 함정에 빠졌어도 손을 한 번 내밀어서 구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뒤로 밀치면서 돌맹이를 던지기까지 한다.[一旦臨小利害, 僅如毛髮比, 反眼若不相識, 落陷穽, 不一引手救, 反擠之, 又下石焉.]”

46 기교의…친하거나 : 바닷가에서 아무런 기심도 없이 날마다 갈매기

숨을 길들인 자가 이에 해당한다. 경강(敬姜)이 ‘척박한 토지에서 지내면 착한 마음이 생겨난다.’라 한 말⁴⁷이 어찌 나를 속이겠는가. 지금 내가 그대와 함께 시내를 베개 삼고 거처하는데 친하게 지내는 것이 새와 물고기, 벌레와 짐승이 아닌가, 가깝게 지내는 것이 초목과 꽃과 대나무가 아닌가. 저 명예와 이욕과 작록(爵祿)을 어지러이 추구하는 자들은 해나무 베는 것처럼 가까이할 만한 것이 아니니,⁴⁸ 그렇다면 나와 그대의 영대는 환경에 따라 드넓어지지 않겠는가. 만약 그렇다면 나와 그대가 무엇을 다투랴, 명예를 다투랴, 이욕을 다투랴. 아니 다툴 것은 자리(席)와 모통이가 아닌가.

이와 같으니 어정어정 서로 찾아가고 성큼성큼 서로 찾아오면 서 나의 생을 마치도록 노닐게 된다면 우리 사림의 도는 옛사람

와 벗하며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 부친의 부탁을 받고 갈매기를 잡으려는 마음을 갖게 되자 갈매기들이 벌써 알아채고는 그 사람 가까이 날아오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列子 黃帝》

- 47 경강이…말 : 국어(國語)》〈노어 하(魯語下)〉에서 노(魯)나라의 재상 공보 문백(公文文伯)의 어머니인 경강(敬姜)이 말하기를, “백성들은 수고로우면 생각을 하게 되고 생각을 하면 선한 마음이 생긴다. 안 일하면 음란해지고 음란해지면 선을 잊고 선을 잊으면 악한 마음이 생긴다. 옥토(沃土)에 거주하는 백성이 재주가 없는 것은 음란해서이고, 척토에 거주하는 백성이 의롭게 되는 것은 수고롭기 때문이다.[夫民勞則思 思則善心生 逸則淫 淫則忘善 忘善則惡心生 沃土之民不材 淫也 瘠土之民莫不向義 勞也]”라 하였다.

- 48 해나무…아니니 : 해나무의 남쪽 가지 아래에서 꿈을 꾸 남가일몽(南柯一夢)의 고사를 말한다. 즉 덧없는 인생을 비유하는 말로, 당(唐)나라 때 순우분(淳于棼)이 대낮에 괴목나무 아래에 누워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괴안국(槐安國)에 들러 공주에게 장가들어 남가 태수(南柯太守)를 지내는 등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잠에서 깨어나 보니 꿈속의 괴안국이 바로 나무 밑동의 개미굴이었다는 고사에서 유래하였다. 여기서는 덧없는 꿈처럼 가까이 할 수 없는 대상으로 쓰였다.

을 기억하지 않아도 절로 옛사람처럼 될 것이니, 주씨와 진씨,⁴⁹ 하황공과 기리게⁵⁰의 교유는 칭찬할 것이 못 되리라.

또한 질병에 걸리거나 환난을 당하였을 때 서로 구원해주고 혼인과 상사(喪事)·수재와 화재에 서로 도와준다면, 그것은 참으로 원래 도모하지 않은 것 가운데 파생되는 일이니 또한 서로 권면하고 장려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한 달에 두 번씩 만나서 술을 마시며 즐기거나, 혹은 봄가을에 한바탕 자리를 만들어 삼대의 향음주(鄉飲酒)의 예처럼 투호와 활쏘기를 하거나, 혹은 쌀을 모아 백성에게 주어 자식의 양육을 돕게 하고 죽을 지경인데도 하소연할 데가 없는 이를 살려주는 것도 또한 군자가 마음을 써야 할 한 가지 의리이다. 더구나 도가 같다면 백 대가 지나도 공감하고, 뜻이 합치된다면 천 리 먼길에도 말 타고 찾아갈 것인데, 우리 그대와 제현(諸賢)들은 시내를 따라 5리나 10리에 살고 있으니, 혹 소를 타고 나귀를 몰아 찾아오고 혹은 지팡이를 짚고 걸어와 난정(蘭亭)의 고사처럼 계(褰)를 닦고 있다. 이에 계우(溪友)라고 명명(命名)하니, 그 의미에 옳은가, 옳지 않은가.”

자온이 이에 술잔을 놓고 손은 붙잡으며 앞으로 나와 입을 벌리고 감탄하면서 “내가 우리 그대의 말에 이의가 없네.”라 하였으며, 좌우의 사람들도 일제히 응하여 “옳다.”라 하였다. 드디어 계책(褰冊)을 만들고 이에 서문을 쓴다.

49 주씨와 진씨 : 당(唐)나라 서주(徐州) 고평현(古豐縣)의 같은 마을에 살던 주씨와 진씨를 가리킨다. 이 두 성(姓)이 서로 혼인하면서 화목하게 살았다. 백거이(白居易)의 <주진촌(朱陳村)>이라는 시로 더욱 유명해졌다. 《白樂天詩集 卷10 感傷》

50 하황공과 기리게 : ‘황기(黃綺)’는 상산사호(尙山四皓) 가운데 하황공(夏黃公)과 기리게(綺里季)를 병칭한 말로, 속세를 떠나 산속에 숨어 사는 은자를 가리킨다.

백옥봉 집에 소장한 김 사포⁵¹의 산수도 소병풍의 서문

白玉峯家藏小屏金司圖山水圖序

김 사포는 그림의 성인으로, 허유(許由)와 백이(伯夷)가 청개(淸介)함의 성인이며 관중(管仲)과 안영(晏嬰)이 패도의 성인이며 손무(孫武)와 오기(吳起)가 병법의 성인이며 혁추(奕秋)와 방몽(逢蒙)이 바둑과 활쏘기의 성인인 것 그 이상이다. 생각하건대, 저 인물화에 뛰어난 모연수(毛延壽), 산수화에 뛰어난 고개지, 용을 잘 그린 섭,⁵² 말을 잘 그린 한간(韓幹), 대나무를 잘 그린 소동파, 비 내리는 경치를 잘 그린 이성(李成) 등은 모두 한 가지 그림에만 뛰어난데, 사포의 그림은 이런 것을 겸하면서도 뛰어나지 않음이 없으며 두루 갖춰서 집대성하였다. 그의 필력이 미친 바로는 인물화, 산수화, 말과 소·새와 물고기가 움직이는 것, 초목과 화훼의 식물 등이 있는데 중국에까지 넘쳐나고 오랑캐까지 두루 전해져서 천하의 집집마다 보물로 삼은 작품의 숫자를 헤아릴 수 없다.

그는 한 점 한 획까지 정묘함을 세밀하게 다하지 않음이 없는 데, 백옥봉의 작은 병풍에 더욱 그 정신을 쏟아 천기(天機)에 교

51 김사포(金司圖) : 사포는 김시(金禕, 1524~1593)를 가리킨다. 그의 자는 계수(季綏), 호는 양송당(養松堂), 양송헌(養松軒), 또는 취면(就眠)이며, 본관은 연안(延安)이다. 벼슬은 사포별제(司圖別提)를 지냈을 뿐 일체의 과거(科擧)에 응하지 않고 서화에만 전심했다. 그림은 인물, 산수, 우마(牛馬), 영모(翎毛), 초충(草蟲)에 이르기까지 모두 정묘(精妙)한 경지를 보였다고 전한다.

52 용을 잘 그린 섭 : 미상이다.

묘히 합치한다. 그 병풍 비단은 한 자가 되지 않는데 사람·안개·산수(山水)·배 등의 형상이 상쾌하며 시원하고 날아 생동하니 한 폭 한 치도 대단히 정밀하여 붓끝으로 천 리를 그려냈으니, 사포의 평생 정력을 이에 다 쏟았다. 그가 옥봉의 동료로서 그 정성을 다 쏟았으니, 당대에 사포와 옥봉처럼 사포와 교유한 자들이 적지 않았을 것인데 어찌하여 유독 그 정력을 쏟았으며, 어찌하여 이런 경지에 이르렀는가.

아마도 그는 생각하기를 ‘시를 짓고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린 것은 모두 같은 기예이지만 이 이치가 다른 것이다. 사포가 지닌 성(聖)은 그림에 대한 성(聖)이오, 옥봉의 성은 시와 글씨에 대한 성이다. 그 기예를 셋으로 나눈다면 두 가지를 지닌 자가 옥봉이니, 어찌 하나를 지닌 내가 둘을 지닌 저에게 잘났다고 하겠는가. 반드시 그 공력을 다하여 정묘함을 지극히 한 뒤에 바야흐로 둘을 지닌 저와 합하여 삼절(三絶)이 될 것이다.’라 하였을 것이다. 이에 그 정성을 다 쏟으면서도 더욱 두터이 마음을 썼을 것이다.

그런데 옥봉의 병풍은 그림만 있고 시와 글씨는 없으니, 세 가지 기예를 아우르지 못하여 그 이름을 나란히 할 수 없으니, 무슨 의미인가. 대개 요임음 허유에게 천하를 양보할 때 자신을 굽혀서 허유의 높음을 드러내었으며, 공자가 노자에게 예를 물을 때 자신의 성(聖)을 겸손하게 감추고 노자의 덕을 드러내었다. 그렇다면 옥봉이 그림에 대해 시와 글씨를 병풍에 담지 않은 것은 자신의 기예를 굽혀서 사포의 높음을 드러낸 것이며, 자신의 성을 겸손하게 숨겨서 그 덕을 드러낸 것이다. 그렇다면 사포가 그림의 성(聖)이 아니라면 옥봉이 시와 글씨의 성임을 알지 못하며, 옥봉이 시와 글씨의 성이 아니라면 사포의 그림이 이런 경지에 오른 성임을 알지 못한다. 비록 그렇지만 사포가 그림의 성임과

옥봉이 시와 글씨의 성임을 알아서 그 정묘함을 말하는 자는 또한 사포와 옥봉의 성이 같은 수준이라는 것을 인정한 뒤에 바야흐로 말을 제대로 아는 성이라고 이를 수 있다.⁵³ 말을 제대로 할 줄 모르면서 말을 그치지 않으면 말을 제대로 아는 성이 되지 못하며 끝내는 망언으로 귀결될 것이 분명하다. 어찌 그림과 시와 글씨의 성(聖)과 불성(不聖)이 어떤 것인지 알겠는가.

53 말을…있다 : 지언(知言)은 천하의 말의 이치를 알아 천하의 일에 의심스러운 바가 없음을 뜻한다. 맹자가 자신의 부동심(不動心)을 말하면서 “나는 말을 알며 나는 나의 호연지기를 잘 기른다.[我知言 我善養吾浩然之氣]” 하였다. 《孟子 公孫丑上》

사계정사⁵⁴ 시책의 서문

沙溪精舍詩冊序

시내를 사(沙)라고 이름 짓고 집을 계(溪)라고 호칭하니, 시내가 사(沙)라고 이름 붙인다고 정치(精致)해지지 않으며 집이 계(溪)를 빌려 호칭하였다고 경치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그대 조부가 지은 집으로, 집에 걸린 편액은 명현(名賢)들의 두어 작품의 시인데, 그대가 지극한 정성으로 한 시대의 명시를 구하여서 집의 명성을 드날렸다. 이에 시내는 더욱더 맑아진 것 같고 집은 더욱더 경치가 좋아진 것 같다. 참으로 대를 이어 집을 지키는 공⁵⁵은 조상의 뜻을 이어받는 효⁵⁶에 매우 미치지 못하는구나.

- 54 사계정사(沙溪精舍) : 전라북도 남원시 주생면(周生面) 영천리(嶺川里)에 있는 조선시대의 정자. 사계(沙溪) 방응현(房應賢:1524~1589)이 벼슬을 마다하고 숨어 지냈던 건물로, 조선 중기에 처음 세웠다고 전한다. 정자 옆으로 모래내, 즉 사계(沙溪)라고 하는 냇물이 흐르고 있는데, 정자의 이름은 이 냇물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한다.
- 55 대를…공 : ‘궁당(肯堂)’은 궁당궁구(肯堂肯構)의 준말이다. 《서경》〈대고(大誥)〉의 “아버지가 집을 지으려 하여 이미 설계까지 끝냈다 하더라도, 그 자손이 집터도 닦으려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집이 완성되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若考作室 既底法 厥子乃不肯堂 矧肯構]”라는 말에서 비롯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가업을 계승한 의미로 사용되는데, 여기서는 대를 이어 집을 지킨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 56 조상의…효 : 술지(述志)는 계지술사(繼志述事)의 준말이다. 계지는 아버지의 뜻을 잘 계승하는 것을 말하며, 술사는 아버지의 일을 잘 따라서 하는 것을 말한다. 공자가 말하기를, “문왕(文王)과 주공(周公)은 세상 사람들이 모두 칭찬하는 효자일 것이다. 효라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잘 계승하며, 아버지의 일을 잘 따라 행하는 것일 뿐이다.” 하였다. 《中庸章句 第 19 章》

이미 시를 받아 정사가 드높여져 이처럼 동남 지역에 명성이
으뜸인데, 또다시 나의 서문을 받아 더욱 명성을 높이려고 하니,
도리어 이전 동남 지역에 명성이 으뜸이던 것이 나의 서문을 받
아 깎일까 두렵다. 그러나 간혹 지극히 공교로운데 이름이 깎이
거나 지극히 졸렬한데 세상이 이름이 나는 경우가 있으니, 나의
서문을 받아 더욱 이름이 나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전해질지
어찌 알 수 있겠는가.

북창⁵⁷과 고옥⁵⁸ 시의 서문

北窓古玉詩序

어떤 이가 말하기를 “세상에서 북창을 논하는 자들은 대체로 그의 기이한 행적을 거론하면서 ‘무엇은 이러하고 무엇은 이러하니 아마도 신선 속의 사람일 것이다.’라 한다. 고옥을 논하는 자들은 대체로 그의 높은 풍치(風致)를 들면서 ‘무엇은 이러하고 무엇은 이러하니 아마도 도가의 부류일 것이다.’라 한다. 이로 말미암아 말한다면 신선인 큰 형과 도가인 둘째는 대단히 비슷할 것이다.”라 하였다. 내가 이 말에 답하기를 “큰 형과 둘째는 모두 신선으로 그저 단순한 신선이나 도가가 아니니, 비록 큰 형과 둘째이지만 대단히 비슷한 것은 아니다.”라 하였다. 논하는 자가 “무엇을 근거로 아는가.”라 하자, 나는 말하기를,

“그들의 시를 통해 안다. 큰 형의 시는 담아(淡雅)하니 답습하지 않아 격조가 절로 높으며, 둘째의 시는 청화(淸和)하여 막힌 것이 없어서 성률이 절로 높다. 대개 둘 다 성당시(盛唐詩)에 들어가는데 소리는 같지만 운치(韻致)가 다르다. 무슨 말인가 하면, 맑기 때문에 담담하고 조화롭기 때문에 고아하다. 격조란 것은 시의 체(體)이며 성률이란 것은 시의 용(用)이다. 체와 용이 모두 높으니 비난할 것이 없다. 어찌 성률이 다르다고 하여 신선과 도가가 차이가 있다고 의심하는가. 내가 어려서 벼의 집에서 고옥에게 절을 올릴 때 이미 그는 늙었었다. 비록 주점에서 노닐면서

57 북창(北窓) : 정렴(鄭濂)의 호이다. 자(字)는 사결(士潔)이다.

58 고옥(古玉) : 정작(鄭碣)의 호이다. 자는 군경(君敬). 호는 고옥(古玉)이다. 북창이 형이고 고옥이 아우이다.

희희낙락하며 해학을 좋아하고 시와 술에 의탁하여 자신을 감춘 자이지만, 한번 보고는 이미 그의 신선 풍모에 감화를 받았다.”라 하였다.

지금 고을을 맡고 있는 그의 외손인 채형후(蔡亨後)⁵⁹가 두 분의 시 약간의 작품을 수집하여 바야흐로 인쇄하여 오래도록 전하려고 한다. 그의 조카인 사문 정두경이 간곡하게 계속해서 서문을 요청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세상에 전해지는 큰 형과 둘째 두 선생의 시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다만 얼룩무늬 표범의 반점 하나일 뿐이다.”⁶⁰ 이와 같은 풍표(風標)를 지닌 분들이 비록 한 시대에 뒤섞여 살았지만 두 분은 저술에 뜻을 두지 않았으니 어찌 이 책으로 그들이 공력을 넘겨볼 수 있겠는가. 그러나 두 선생의 풍표를 알고자 한다면 이 시에 나아가 살펴본다면 아마도 얻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작품이 적더라도 많다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 하였다. 정 사문이 그렇다고 끄덕이니 이에 이처럼 서문을 쓴다.

59 채형후 : 원문은 ‘蔡亨後’인데, 국립중앙도서관본에 근거하여 ‘蔡’을 ‘蔡’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60 얼룩무늬…뿐이다 : 문표(文豹)는 화려한 무늬가 있는 표범 가죽이다. 표범은 안개가 낀 날에는 결코 밖에 나가지 않는다. 털이 안개에 젖어 상할까를 염려해서이기도 하나, 햇살이 없는 날에는 그 모색(毛色)의 형형함이 빛나지 않기 때문이다. 문표의 한 점 무늬라는 말은 아주 뛰어난 것의 하찮은 일부분이라는 의미이다.

만성재 서문

晩省齋序

자증자는 공자 문인 가운데 노둔한 자인데, 날마다 세 가지로 자신을 돌이켜 본⁶¹ 이후에 마침내 도를 전하였으며 무궁한 후대에 학업을 수립하였다. 더구나 그보다 후대에 태어나 공자 문하의 생도가 아니며 또한 증자보다 백 배나 노둔한 자는 말해 무엇하랴. 나의 종질(宗姪)인 조전(趙僊)은 스승과 벗의 도움도 없으며 노둔하고 게으르게 지낸 지 사십여 년이 되어 가니 떨쳐 일어나 깨우친 것이 없음을 두려워하였다. 지난해 가을에 집 한 채를 짓고 나에게 편액을 요청하면서 “제가 이 건물을 지은 것은 뜻이 있어서입니다.”라 하니, 내가 곧 만성(晩省)으로 당호를 지어 주고 뒤이어 권면하기를 “지금 그대의 나이는 거백옥이 잘못 살아 온 것을 깨우친 나이보다 5살이 적다.⁶² 내가 ‘만(晩)’이란 글자를 편액에 적었지만, 매우 빠른 것이 아니라고 어찌 따질 수 있으랴. 지금 내가 ‘성(省)’으로 권면하는 것이 또한 스승과 벗의 도움이 아니라고 어찌 따질 수 있으랴. 아! 그대는 자신을 돌이켜 볼진

61 날마다…본 : 증자가 “나는 하루에 세 가지로 자신을 반성하노니, ‘남을 위해 도모함에 충성스럽지 않았던가? 벗과 사귀에 신의가 있지 않았던가? 전수받은 것을 복습하지 않았던가?’이다.[吾日三省吾身 爲人謀而不忠乎 與朋友交而不信乎 傳不習乎]”라고 한 것을 가리킨다. 《論語 學而》

62 거백옥이…적다 : 춘추 시대 위(衛)나라의 어진 대부로 자는 백옥(伯玉)이다. 《논어》〈헌문(憲問)〉의 집주(集注)에 “거백옥은 나이 오십이 되어서 사십구 년 동안의 잘못을 알았다.[蘧伯玉行年五十而知四十九年之非.]”라고 한 데서 근거한 것이다. 여기서는 조가 전이 거백옥보다 5세가 적은 45세라는 말이다.

저. 만약 자신을 돌이켜보고 또 돌이켜보아 타인이 한 번만에 잘 하면 자신은 백 번이라도 노력하여 잘하고 타인이 세 번만에 잘 하면 자신은 수백 번이라도 노력하여 잘하게 되어, 날로 달로 노력하고 달로 해로 노력하여 여러 해가 지나 늙어 죽을 때가 되면 마침내 자신이 얻는 것이 어떠하랴. 도를 전하여 무궁한 후대에 학업을 세우지 않겠는가. 아! 그대는 자신을 돌이켜 볼진저. 증자는 어떠한 사람이며,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마침내 ‘성(省)’ 한 글자로 돌이켜 살펴보게 하면서, 나 자신도 돌이켜 반성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라 하였다.

기와 서문

畸窩序

‘기(畸)’자로 집[窩]을 편역한 것은 우리 그대의 궁박한 도를 사람들이 용납하지 않는데 집은 그대를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집은 평소에 변함이 없는데 그대의 도가 일정하지 않으니, 현재의 궁박하여 어그러진 것은 변하여 현달하여 재주를 펼칠 수 있으며, 현달하여 재주를 펼쳐 백성들이 다스려지고 나라가 태평해지면, 이 집의 편역이 반드시 일정하지 않고 바뀌 달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기(畸)’라고 하지 않고 ‘현(顯)’이라고 해도 괜찮으며 ‘달(達)’·‘제(濟)’·‘평치(平治)’라고 해도 또한 괜찮을 것이다. 어찌 그 편역을 일정하게 만들어 반드시 ‘현(顯)’·‘제(濟)’·‘평치(平治)’라고 한 뒤에 괜찮겠는가.

그러나 기(畸)란 의미는 기이함이다. 다만 집의 들보와 서까래가 구불구불 기이한 것만 아니라 바위와 골짜기, 이내와 노을, 물과 돌도 충분히 기이함에 미치기 때문에 그대의 도는 비록 기(畸)에서 변하더라도 집은 그 기(畸)를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도리어⁶³ 현(顯)’·‘제(濟)’·‘평치(平治)’라고 편역을 내걸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기(畸)’를 지켜도 괜찮을 것이다. 다만 그 편역을 바꾸거나 바꾸지 않는 것은 우리 그대가 스스로 선택함에 달려있을 따름이다.

63 도리어 : 원문은 ‘及’인데, 중앙도서관본에 근거하여 ‘及’을 ‘反’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성암정사 서문

星巖精舍序

뛰어난 대(臺)를 아는 이도 있고 뛰어난 인물을 아는 이도 있다. 뛰어난 대를 아는 것이란 지세가 높은 것을 이룬 것이 아니며, 뛰어난 인물을 아는 것이란 세대가 뛰어난 것을 이룬 것도 아니다.

세상에서 이 고을을 일컬을 때면 반드시 모두 ‘구대, 구대’를 들먹이니, 구대가 세상에 알려진 것은 오래되었다. 내가 일찍이 소문을 듣고 서(序)를 써 주었는데, 이 고을에 부임한 이후로 스스로 이 구대를 감상하게 될 것을 다행으로 여겼다. 이윽고 며칠이 지나 구대에서 합하(閣下)를 찾아가 보았는데, 구대의 경치가 뛰어난 것은 과연 소문대로였으나 오히려 뛰어난 합하에게는 어울리지 않았으니 세상 사람들이 대를 알기는 하지만 사람을 제대로 알지는 못한다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며칠이 지나 또 성암(星巖)에서 합하에게 인사를 올리고 난 뒤에 구대 이외에 더한층 뛰어난 바위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세상에서 구대만 알고 성암을 모르는 자들은 또한 지금처럼 대(臺)만 알고 사람을 모르는 것과 같다.

사람은 참으로 알기 어려운데, 대를 아는 것도 또한 이처럼 쉽지 않구나. 무슨 말인가. 사람의 발자취가 미치지 않는 깊숙한⁶⁴ 숲과 골짜기에 승경이 남겨져 있다고 해서 영이(靈異)한 것은 아

64 깊숙한 : 원문은 ‘邃’인데, 중앙도서관본에 근거하여 ‘邃’를 ‘邃’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니다. 성암은 고을의 성곽에 가깝고 마을 길에 접하고 있으니, 수레 탄 이와 걷는 이, 말 탄 이들이 아침으로 지나가고 저녁으로 바라본 것들이 단군 때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이 될 것이다. 그러나 성암의 승경을 제대로 알아본 이가 한 사람이라도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는데 합하는 한 번 지나가면서 곧바로 알아챘으니, 하늘이 혹시나 수천 년 동안 조용하고 비밀스럽게 숨겨두었다가 합하가 지나가기를 기다려 드러낸 것인가. 이는 자갈밭에서 보옥을 잃고 모래밭에서 구슬을 잃은 격이다.

성인도 보통 사람에 비하면 별다른 것이 있지 않다. 지위를 얻고 자신의 도를 행한 뒤에야 바야흐로 그가 성인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고을의 성곽에 가깝고 마을 길에 접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매일 지나가면서도 알아채 지 못하고 보고도 평범한 경치라 여겨진 것들은, 보통보다 대단히 다른데도 사람과 자연이 만나는 지 만나지 못하는지 운수에 달렸음을 어찌 알겠는가.

‘암(巖)’으로 정사에 이름을 붙인 것은 그 정사가 바위에 우뚝하기 때문이며, ‘성(星)’으로 바위를 명칭한 것은 그 바위에 칠성(七星)이 있기 때문이다. 정사는 산을 등지고 강을 마주하며 난간은 연못에 반쯤 걸려 있다. 연못은 바위 도랑을 따르고 도랑물은 돌 틈에서 솟아난다. 가물어도 마르지 않고 홍수가 나도 넘치지 않으니 그 또한 기이하구나.

평평하게 펼쳐진 백사장과 엇갈려 서 있는 푸른 바위, 긴 다리와 높은 나무가 원근에 어릿하게 펼쳐진 광경에다가 근래⁶⁵ 정사를 지어 단청과 들보와 서까래의 아름다움, 화훼와 소나무와 바위의 기이함이 갖춰지지 않음이 없다. 흐리고 맑은 기후 속의 아

65 근래 : 비여(比如)는 비기(比起)라는 의미이다.

침저녁의 경치와 덥고 서늘한 사철에서의 양태(樣態)를 말로 다할 수 없으니, 언어와 문자로 그 만분의 일도 형용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는 충분히 구대와 비교하여 더한층 뛰어나며, 뛰어난 합하와 결맞으니, 또한 나 같은 자도 또한 대(臺)를 알 수 있다고 이를만하며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서를 짓는다.

반구정 서문

伴鷗亭序

갈매기는 사람을 잘 살펴볼 줄 안다.⁶⁶ 갈매기에게 살펴졌었던 사람은 갈매기가 사람을 살펴보듯이 갈매기를 살펴야 한다. 밖의 모습만 살피는 것은 사람인데, 기심(機心)이 없음을 살피는 것이 갈매기와 구별이 되지 않을 경지에 오른 연후에 갈매기와 비로소 친해질 수 있다. 열자가 한음의 노인을 일컬은 것은 바로 이를 가리킨다.⁶⁷

지금 우리 그대가 정자를 ‘반구(伴鷗)’라고 편액하였으니, 그대가 기심이 없음이 이에 드러났다. 세상의 영욕을 마음에 두지 않고 강호에 거처하며 이 정자에서 노닐면서 날마다 친하게 지내는 것은 바로 갈매기이다. 갈매기가 날마다 짝하여 무리를 이루는 자가 그대일 뿐이니, 그대가 갈매기의 무리가 아닌가, 갈매기가 그대의 짝이 아닌가. 바야흐로 서로 친하게 지내면서도 서로의 존재를 망각하였다. 그대가 갈매기 보기를 갈매기로 여기지 않고

66 갈매기는…안다 : 바닷가에서 아무런 기심도 없이 날마다 갈매기와 벗하며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 부친의 부탁을 받고 갈매기를 잡으려는 마음을 갖게 되자 갈매기들이 벌써 알아채고는 그 사람 가까이 날아오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列子 黃帝》

67 열자가…가리킨다 : 《장자》〈천지(天地)〉에 자공(子貢)이 두레박의 사용을 권하자 두레박을 이용하면 쉬운 줄을 알면서도 굳이 우물 속으로 들어가 어렵게 항아리에 물을 퍼 담아 밭에 물을 주면서, “기계가 있으면 기교를 부리는 일이 있게 마련이고, 그런 일이 있으면 기교 부리는 마음이 생기게 마련이다. [有機械者必有機事 有機事者必有機心]”라고 한 한음장인(漢陰丈人)의 이야기가 나온다. 조찬한은 《열자》의 기심을 살피는 갈매기와 출전을 헛갈린 것으로 보인다.

바로 사람으로 여기며, 갈매기가 그대 보기를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바로 갈매기로 여긴다.

옛날 장주가 꿈속에서 나비가 되었는데, 깨어나서 자신이 꿈을 꿔는지 나비가 꿈을 꿔는지 알지 못하였다. 지금 그대는 갈매기의 짝이 되었으니 또한 갈매기가 그대가 되었는지 아니면 그대가 갈매기가 되었는지, 또는 갈매기가 그대의 짝인지 아니면 그대가 갈매기의 짝인지 알지 못하는가. 옛날에 이른바 ‘갈매기 무리에 들어가 혼란을 일으키지 않는다.’⁶⁸는 말은 그대를 두고 한 말일 것이다. 그러나 기심이 없는 우리 그대의 마음이 간혹 때로 변한다면 날마다 찾아오던 갈매기가 끝내 어느 날 떠나 찾아오지 않을 것이니, 그대가 비록 갈매기와 짝하려고 하여도 갈매기는 그대의 짝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갈매기가 그대를 멀리할 뿐만 아니라, 나 또한 이에 그대와의 교유를 끊을 것이다. 우리 그대는 후회할 일을 만들지 마시라.

68 갈매기…않는다 : 《장자》〈산목(山木)〉에서 기심이 없는 경지에 대해 “짐승들 속에 들어가면 짐승들 무리가 놀라 어지러워지지 않고 새들 속에 들어가면 새들 행렬이 놀라 어지러워지지 않는다. 새와 짐승도 싫어하지 않는데 하물며 사람이야 말할 나위 있겠는가.[入獸不亂群 入鳥不亂行 鳥獸不惡 而況人乎]”라 하였다. 포용(鮑溶)의 시에 “새 무리에 들어가 줄을 어지럽히지 않네.(入鳥不亂行)”란 구절이 있다.

금구당⁶⁹ 서문

肯構堂序

당(堂)에 올라 그 편액을 보면 그 사람이 뜻한 바를 충분히 알 수 있다. 혹은 그가 바라보는 것으로, 혹은 그가 듣는 것으로, 혹은 그가 마음속에 품은 것으로 편액을 내걸기에 편액을 짓는 것이 똑같지 않게 된다. 지금 이 당(堂)의 편액을 만들 때, 눈으로 보는 것이나 귀로 듣는 것으로 만들지 않고 다만 마음속에 품은 것으로, 선조의 뜻을 잇고 선조의 일을 계승하려는 의도이다.

대개 사방을 둘러보고 이 지역을 살펴서 이 당을 지은 사람은 공(公)의 선공(先公)이다. 이 당에 앉아 이 경치를 바라보면서 산수와 풍월의 주인이 된 사람도 또한 공의 선공인데, 선공은 이미 돌아가셨다. 고을은 난리에 부서지고 당(堂)도 전쟁통의 화재에 손상되어 이 당이 쭉대와 가시나무의 황무지가 된 지가 몇 해가 되었는데, 공이 선공을 존모함은 시간이 오래 지날수록 더욱 깊어졌다. 이에 다시 당의 옛터에 이 당을 지으니 들보와 서까래, 동우(棟宇)의 높고 낮음과 창틀과 뜰과 섬돌의 넓고 좁음이 이전 양식과 같다.

공이 이 당에 앉아 좌우를 바라보면 산봉우리의 이내와 연기,

69 금구당 : ‘금구당(肯構堂)’은 금당금구(肯堂肯構)의 준말이다. 《서경》〈대고(大誥)〉의 “아버지가 집을 지으려 하여 이미 설계까지 끝냈다 하더라도, 그 자손이 집터도 닦으려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집이 완성되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若考作室 既底法 厥子乃不肯堂 矧肯構]”라는 말에서 비롯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가업을 계승한 의미로 사용되는데, 여기서는 대를 이어 집을 지킨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노을과 구름과 안개의 모습, 사시의 추울 때와 더울 때, 흐린 날과 맑은 날의 풍월의 경치가 모두 선공이 항상 바라보다가 흥을 일으킨 것이리니, 다만 이 당에서 사람들이 공을 바라볼 때 선공을 보던 것과 같을 뿐만 아니다. 공이 이 당에 거처하면서 이러한 경치를 바라볼 때 시간이 오래 지나도 쇠하지 않던 선공을 존모하는 공의 마음은 어떠하겠는가.

아버지가 짓고 아들이 계승한다는 긍구궁당(肯構肯堂)이란 것은 바로 공을 지칭하는 것이니, 이에 이 당을 긍구(肯構)라고 편액하였다. 만일 공이 선공의 뜻을 이어 이 당을 지은 의도를 아는 자가 본다면 비록 이 편액을 보지 않아도 이미 이 당의 편액이 긍구라는 것을 알아챘을 것이다. 그 실상이 있고 이름이 뒤따른 것은 이것을 가리킨 것일진저. 이것을 가리킨 것일진저.

신루⁷⁰ 기문

蜃樓記

용흥 원년 여름 4월 갑자일에 광리왕(廣利王)⁷¹이 남해의 법궁(法宮)에 행차하자, 양후(陽侯)⁷²·하백(河伯)·해야(海若)·마함(馬衡) 등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참군 원(黿), 주부 별(鼈), 고래·곤어·상어·참치 등과 방어·잉어·미꾸라지·메기 등의 무리들이 급히 내달려 왕에게 찾아오지 않음이 없었다. 왕이 이윽고 못 신하의 조회를 받은 뒤에 좌우를 둘러보며 말하기를, “내가 소유한 바다가 이처럼 광대한 데 거처하는 곳이 낮고 협소하니 요망한 기운을 바라보고 다스릴

70 신루 : 신루(蜃樓)는 바다 위나 사막에서 기운의 이상한 분포 때문에 광선이 굴곡하여 먼 데 물체가 거꾸로 보이는 현상인데, 옛사람들은 큰 조개가 뿜어내는 기운으로 생각하였다. 《사기(史記)》 권27 〈천관서(天官書)〉에 “바닷가에서 보면 신기가 누대의 모양을 만들고, 광야 역시 그 기운이 궁궐의 형상을 이뤄낸다.”라고 하였다.

71 광리왕(廣利王) : 한유(韓愈)의 〈남해신묘비(南海神廟碑)〉에 의하면, 광리왕(廣利王)은 중국 남해(南海)의 신의 봉호(封號)라 하였다.

72 양후(陽侯) : 수신(水神)의 이름이다.

수 없다.⁷³ 누가 나의 채택을 받아서⁷⁴ 이곳에 누대를 지을 수 있겠는가.”라 하였다. 이에 사독(四瀆)⁷⁵을 맡은 신하들이 모두 추천하기를 “신(蜃)이 저 아래에 있는데, 공사를 주관할만 합니다.”라 하였다. 광리왕이 “그렇다. 너 신아! 오직 그대만이 일을 잘할 수 있다.”라 하였다. 신이 이에 절을 올리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네, 잘 알겠습니다.”라 하고 물러 나왔다.

얼마 뒤에 공사를 다 마쳤는데, 대들보는 무지개로 만들고 기와는 달무리로 엮였으며 허공에 붉은 기둥을 배열하고 물결에 화려한 주춧돌을 점점이 끼워놓았다. 허공에 나는 것은 개천이며, 구름 위로 솟은 것은 낙숫물이다. 노을 같은 것이 두공이고, 안개 같은 것이 문설주이다. 벽에 그린 것은 화려한 단청과 금색과 벽옥색이며, 뜰에 줄지어 서 있는 것은 푸른 산호와 옥수(玉樹)이다. 주렴을 걷어 올리면 서산의 비가 내리치고, 옥 난간에 기대면 동봉의 달빛이 가까이 비친다. 가는 비단 날리며 긴 머리 드리운 것은 늘씬한 미녀⁷⁶의 요염함이요, 금을 수레에 담고 구슬을 메고 다니는 것은 거상(巨商)이 물건을 파는 것이다. 말을 탄 자와 소를 끄는 자, 남자는 지고 여자는 이고, 길을 가는 자와 쉬는 자,

73 요망한…없다 : 《시경》〈대아·영대〉장에 대해 모씨(毛氏)는 “나라에 대(臺)를 두는 것은 해미[氛祲]를 바라보고 재상(災祥)을 살피기 때문이다.[國之有臺, 所以望氛祲察災祥.]”라 하였다.

74 누가…받아서 : 원문의 ‘疇若予采’는 《서경》의 ‘疇若予工’을 모방하여 변형하였다.

75 사독(四瀆) : 장강(長江) · 황하(黃河) · 회수(淮水) · 제수(濟水)를 가리킨다.

76 늘씬한 미녀 : 한유(韓愈)가 오얏꽃 나무를 미인에 비유하여 노래한 〈이화(梨花)〉시에 “늘씬한 미인들 향기 풍기며 네 줄로 늘어서서, 흰 치마에 흰 수건을 고르게 모두 둘렀네.[長姬香御四羅列 縞裙練幌無等差]”라는 말이 나온다. 《韓昌黎集 卷5》

다리를 건너는 자와 문에 기댄 자, 노래하고 춤추는 자와 웃고 이야기하는 자, 기뻐하는 자와 성내는 자, 왁자하게 지껄이는 자와 침묵 하는 자, 모였다가 흩어지는 자와 갔다가 돌아오는 자, 그림인 듯 그림이 아닌 듯 사실인 듯 사실이 아닌 듯한 것들이 천태만상으로, 하루 사이에 그 종류를 다 알 수 없다.

왕이 이에 바라보고 의아하게 여기며 누대에 올라 기이하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흙 계단은 지나치게 검소하고”⁷⁷ 구슬 궁전은 지나치게 화려하니,⁷⁸ 사치와 검소는 내 자신에게 달렸다. 영대는 짧은 시간에 지어졌고⁷⁹ 아방궁은 여러 해를 넘겼으나, 더듬과 빠름은 모두 백성을 부림에 귀결된다. 어떤 것이 우리 신루처럼 흙도 나무도 아닌 것으로 짓고 많은 백성을 동원하여 부역시킨 것도 아닌데 숨 한 번 쉬고 눈 깜박일 사이에 공중의 누대를 빨리 지으면서도 이처럼 미려(美麗)한 것과 같겠는가. 소하가 미양궁을 짓고 자건(子建)이 동작대를 지었으나⁸⁰ 지금은 거론할 대상도 못되니, 어찌 글을 지어 나의 덕과 신의 업적을 기록하지 않겠는

77 흙…검소하고 : 《사기(史記)》 권130 <태사공자서(太史公自序)>에 “요순(堯舜) 시대에는 궁궐의 높이가 세 자였고, 흙으로 세 계단의 섬돌을 만들었으며, 지붕을 따로 이고서 끝을 가지런히 자르지 않았다. [堂高三尺 土階三等 茅茨不翦]”라고 하였다.

78 구슬…화려하니 : ‘경궁요대(瓊宮瑤臺)’이다. ‘경궁은 상(商)나라 주왕(紂王)이 지었다는 화려한 궁실이다.

79 영대는…지어졌고 : 《시경(詩經)》 대아(大雅) 영대(靈臺)에 “영대를 세우려고 경영하시니, 백성들이 달려들어 하루도 못 되어 완성했네. [經始靈臺 經之營之 庶民攻之 不日成之]”라고 하였다.

80 자건이…지었으나 : ‘동작대(銅雀臺)’는 후한(後漢) 헌제(獻帝) 15년(210) 겨울에 조조에 의해 완공되었다. 동작대(銅爵臺)라고도 쓴다. 큰 공작을 주조하여 누대 꼭대기에 설치하였는데, 날개를 펴고 금방이라도 날아오를 듯 하다고 하여 동작대라는 이름이 붙었다. 조조의 아들인 조식이 <동작대부>를 지어 조조의 칭찬을 받았다.

가.”라 하였다. 이에 수부낭중 금고(琴高)⁸¹가 삼가 무릎 꿇고 절하면서 기록한다.

산우정 기문

山雨亭記

‘우(雨)’로서 정자를 명명한 것은 옛날부터 그러하였다. 그런데 비는 산에 있는 것도 아닌데 어찌하여 ‘산(山)’자를 썼는가. 대저 비라는 사물은 음양의 기가 오르내려 대지를 윤택하게 한다. 간혹 소나기로 혹은 폭우로, 단비가 되기도 하고 장맛비가 되기도 하는데, 그것은 용이 행하는 바이다. 대개 바람을 벗으로 구름을 모체(母體)로 삼아 허공에 떠다니다가 비로 내리니, 산이 비에 간여하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공이 이 정자를 지은 것은 다만 풍경을 조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앞에 널따란 들판을 마주하니 항상 권면하는 것은 농사이니, 농사에 바라는 것은 비이다. 비가 말미암은 것은 구름이고 구름은 산에서부터 나오니, 이 비를⁸² 기도하는 곳은 산이 아니고 어디인가. 굴원이 말한 ‘산이 험준하게 높아 비가 많이 내린다.’⁸³라는 것은 지금의 산우(山雨)가

81 금고(琴高) : 물고기를 타고 다녔다는 선인(仙人)의 이름이다. 제자들과 약속한 날에 “실제로 잉어를 타고 물속에서 나왔다가 한 달을 머무른 뒤에 다시 물속으로 사라졌다.”라는 이야기가 한(漢)나라 유향(劉向)의 《열선전(列仙傳)》〈금고(琴高)〉에 전한다.

82 이 비를 : 원문은 ‘茲雨’인데, 국립중앙도서관본에 근거하여 ‘兩’을 ‘雨’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83 산이…내린다 : 굴원의 《초사》〈구장〉에 “산의 험준하고 높아 해를 가리니, 아래로 그늘이 져서 비가 많이 내리네.[山峻高以蔽日兮, 下幽晦以多雨.]”라 하였다.

아닌가. 이에 강바람이 누대에 가득 불어오면 저물녘에 바야흐로 주렴을 걷고, 봄과 여름 발두둑에 우리 곡식이 구름처럼 일렁이면 손과 더불어 술을 조금 마시다가 밤에 지는 꽃을 바라본다면 정자가 산우(山雨)라 이름 얻은 것을 어찌 그만둘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옛날에 기뻐하던 것은 주(州)의 자사가 되어 백성을 위해 기뻐한 것으로,⁸⁴ 명칭은 비슷하고 의미는 드러났다. 지금 정자를 명명하면서 ‘희(喜)’라 하지 않고 ‘산(山)’이라 한 것은 말은 심원하면서 의미는 내포하고 있으나, 다만 기쁘다는 뜻은 같다. 만일 소동파가 이 정자에 올라 이 산에서 이 풍경을 바라보고 이 빗소리를 듣는다면 ‘희(喜)’라 하지 않고 ‘산(山)’이라 하였을 것은 지금처럼 의심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정자를 그렇게 명명한 것이다. 이에 기를 짓는다.

84 주(州)의…것으로 : 구양수의 〈희우정기(喜雨亭記)〉를 가리킨다.

풍정 기문

楓亭記

이 정자의 승경은 단풍 때문이며, 시내는 바위 때문에 시원하다. 시냇물은 산허리에서 솟아나 멀리까지 흘러가지만 물은 얇다. 흙이 없고 바위만 있는데, 바위는 모두 푸른색을 띠며 혹은 우묵하게 파이고 혹은 깨지고 혹은 매끄럽고 혹은 들쭉날쭉하여 5~6리를 낮거나 높게 빙 둘러 있다. 정자 앞에 이르러 바위는 더욱 기이하니, 검 같고 치아 같으며 칼로 자른 것 같으며 도끼로 쪼갠 것 같으며 구부정하거나 우뚝한데 바위 모양을 따라 폭포를 이룬다. 폭포의 높이는 반 길 정도로 돌부리에서 쏟아져 내려 매우 격렬하게 쿵쿵쿵쿵 소리를 내다가 물살이 멈춰 작은 담(潭)을 이룬다. 담 바닥은 모두 돌로 모래 한 알도 없으며, 넓이는 6척 길이는 10척 깊이는 반 척 정도로 정자를 끼고서 떨어지는데 물은 허공처럼 맑다. 담을 따라 언덕을 이루는데 좌우는 모두 바위로 불쑥 솟아 높은 것, 낮게 평평한 것, 우뚝 선 것과 굽어보는 것. 기울어졌지만 치우치지 않은 것, 앉을 수 있을 것 발을 쭉 펼 수 있는 것, 베고 누울 수 있는 것과 기댈 수 있는 것 등 모든 것이 다 괜찮다. 담을 따라 아래로 떨어져 폭포를 이룬 것이 네 개다. 담의 동쪽을 따라 오르면 두 개의 작은 못(池)이 있는데 모두 한 마지기가 되지 않으나, 지세는 높고 물은 깊으며 연꽃이 있다. 못(池) 밖은 바로 마을이다. 지세를 따라 다시 담(潭)을 이루는데, 작은 소나무와 성긴 대나무가 줄을 지어 그늘을 이룬다. 담의 물가에는 석정(石井)이 있으며, 석정은 왜소한 소나무가 덮고 있다. 담 곁의 흘러진 그림자는 작은 오죽 두어 그루로, 파리하며 기다

량지 않다. 담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계곡의 수면에 붙어 서 있
 는 것은 작은 단풍나무 한 그루로 한 척이 되지 않는데 오히려 대단
 히 붉다. 또 더 위로 올라가면 앞의 단풍과 같은 작은 단풍이 있
 으며 철쭉 한 떨기가 폭포 아래에 있다. 담을 따라 서쪽으로 가면
 바로 석대(石臺)가 있는데, 대가 넓고 평평하여 수십 명의 사람이
 앉을 수 있다. 단풍의 가지는 일산을 펼치거나 눕힌 것처럼 구불
 구불 서려 있어서 뻥뻥한 잎 때문에 해를 볼 수 없다. 석대에는
 춘백(春栢) 두 그루, 납매(臘梅) 두 그루, 벽오동 한 그루가 있다.
 석대 옆에는 세 층의 돌계단이 있는데, 돌계단은 굽은 담 밖에 있
 다. 담장 안은 곧 풍정(楓亭)의 당(堂)이다. 돌계단을 마주하여 빼
 어난 것은 동백과 춘백 네다섯 그루, 목련 두 그루, 매화 한 그루,
 가지가 사시사철 푸른 나무와 석류 각각 한 그루, 목련 한 그루,
 구기자 두어 떨기, 복숭아 한 그루 등과 모두 오죽(烏竹)인 대나
 무 십여 그루는 성글게 심어 높이 솟구쳐 있다. 돌계단을 따라 동
 쪽으로 국화 한 떨기가 있고, 국화 뒤는 바로 오동나무이며 오동
 나무 뒤에도 오동나무이다. 오동나무는 모두 두 그루로 푸른색이
 다. 오동나무 곁에는 커다란 단풍나무 두 그루가 있는데, 서로 가
 지가 얹어져 무성하다. 풍정(楓亭) 곁채의 단풍나무는 청홍색이
 며, 단풍나무 아래는 곧 골짜기이다. 골짜기에는 높이가 백 척이
 나 되는 큰 소나무가 있으니, 이상이 정자의 대강 풍경이다. 실로
 옥봉이 터를 정하였고 그의 아들 선명(善鳴)이 부친의 뜻을 이어
 당을 지었는데, 이 당의 주인은 선명의 사위인 상사 이복길(李復
 吉)이다. 노년 뒤에 기록한 이는 태수 조찬한이다. 그 해와 달과
 날은 계축년 늦가을 6일 저녁이니 이에 기를 짓는다.

쌍송당 기문

雙松堂記

시내가 움푹한 곳으로 흘러 못을 이루며, 못의 사방과 바닥은 모두 바위인데 마치 깎아 놓은 것 같다. 소나무 두 그루가 못을 덮고 있는데, 뿌리를 붙인 곳은 모두 바위이며 바위는 각각 사람이 서 있는 것 같다. 못은 바위 때문에 승경이 되고, 바위는 소나무 때문에 기이하다. 그러므로 소나무는 이 못에 대해 기이한 존재라 할 수 있다.

공이 당을 지은 것은 이 연못 때문인데, 당에 ‘지(池)’자를 넣어 편액을 내걸려고 하다가 그 편액을 곤란하다고 여겨 억지로 ‘우련(友蓮)’이라 이름을 지었으니, 그 연못의 연꽃이 벗할 만 했기 때문이다. 편액을 비록 완성하였지만 오히려 마음에 들지 않았다. 문득 어느 날 연못의 신령이 공의 꿈에 나타나 “그대는 그대의 당의 편액을 곤란하게 여기는가. 어찌 ‘쌍송(雙送)’으로 편액을 하지 않는가.”라 하고는 곧바로 사라져 버렸다. 정신을 차려 보니 꿈이었다. 곧바로 신령이 알려준 편액으로 편액을 만들어 나에게 기를 써달라고 요청하였다.

내가 그 꿈 이야기를 듣고 해석하기를 “연꽃이 비록 사랑스럽지만 꽃이 필 때와 시들 때가 있으며, 더구나 절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심어서 길러야 하다니. 여기에 있는 이 두 소나무는 사람이 힘들여 기른 것도 아니며 더구나 소나무의 지극한 끝음으로 바위의 지극히 견고함을 얻어 우뚝 서 있음에랴. 내가 살펴보니 두 소나무가 이 당을 지키고 있는 것은 다만 공의 지조일 뿐 아니라, 후일 공의 두 아들의 학문이 성취하여 수립한 바가 이

소나무가 이 바위에 서 있는 것과 같으며, 부절을 잡고 높은 수레를 타서 현달하여도 절조를 변하지 않음이 이 소나무가 이 바위를 얻은 것과 같다면 신령이 쌍송이란 이름을 준 것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신령이 공의 꿈에 나타나 편액을 내 걸게 한 것은 아마도 이런 까닭일 것이다. 이런 까닭일 것이다.”라 하였다. 이에 기를 짓는다.

용졸당⁸⁵ 기문

用拙堂記

대개 잘하는 것을 공(工)이라 이르고 못하는 것을 졸(拙)이라 이른다. 잘하는 자를 쓰고 못하는 자를 물리치니 졸렬한 자는 참으로 공교로운 자의 종이다. 그러나 공교로운 자는 항상 수고롭고 졸렬한 자는 항상 편안하니, 수고로운 도리는 소인 같고 편안한 도리는 군자 같다. 소인이 군자에게 부림을 받는 것은 참으로 당연하지만, 공교로운 자가 졸렬한 자의 노예가 되고 졸렬한 자가 공교로운 자의 주군이 되는 것을 어찌 아니라 하겠는가.

무슨 말인가. 공교로우면서 수고로운 자로 석수장이나 도공, 그리고 대장장이보다 더한 이가 없는데 재상에게 부림을 받으며, 공교로우면서 수고로운 것으로 만물을 낳고 낳는 음양(陰陽)보다 더한 것이 없는데 조물주(造化)에게 명령을 듣는다. 그렇다면 마음은 수고로우면서 몸이 편안한 자는 재상이요, 용(用)이 수고로우면서 체(體)가 편안한 것은 조물주이니, 지극히 졸렬한 것이 대단히 공교로운 것[大工]이 되며 지극히 수고로운 것을 대단히 편안한 것[大逸]이라 칭하는 것을 어찌 아니라 하겠는가. 그렇다면 공(公)이 말한 졸렬함이란 대단히 공교로운 것이 아니겠는가.

이미 선공(先公)이 졸렬함을 길렀으며⁸⁶ 그러한 뒤에 바야흐로

85 용졸당(用拙堂) : 조선 중기의 문신 민성휘(閔聖徽, 1582~1647)의 호가 용졸당이다. 부여 남쪽 남당강가에 용졸당을 지었다.

86 이미…길렀으며 : 민성휘의 부친 민유부(閔有孚, 1559~1594)의 호는 양졸당(養拙堂)이다.

그대가 졸렬함을 쓰니, 사인암과 검상암⁸⁷이 있는 것은 당의 졸렬함으로써 재상의 편안함을 삼은 것이 아니겠으며, 혹은 하늘이 그 당호를 먼저 정하여 그 자취를 드러낸 것이 아닐까. 이러한 점을 공은 알 것이다. 비록 그렇지만 벼슬에 나아가 재상이 되어서 물러나 당에 처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한갓 그 졸렬함만 쓰고 졸렬함에 처하지 못한 것이며, 용졸(用拙)이란 당호의 용(用)을 다만 세상에만 쓰고 강호에 쓰지 못한 것이며, 물고기와 새, 화훼와 풍월의 즐거움도 졸렬함에 이바지할 수 없게 되었다. 이른바 졸렬하면서 편안하다는 것은 바로 대단히 공교로우면서 마음을 수고로이 쓰는 것이 분명하다. 용졸(用拙)로 당호를 지은 의미는 공교로움을 표방한 것인가, 졸렬함을 표방한 것인가 알 수가 없구나. 그렇다면 지극히 졸렬한 것이 지극히 공교로움이 되며, 지극히 공교로움이 지극히 졸렬함이 되는 것을 그 누가 알랴. 이와 같다면 비록 용졸(用拙)이라 이르더라도 괜찮으며 비록 용공(用工)이라 이르더라도 또한 괜찮다. 내가 공교로움과 졸렬함에 대해 어찌 구분하랴. 이에 기를 짓는다.

87 사인암과 검상암 : 부여 장암면에 성흥산(聖興山)이 있고, 그 동쪽으로 용연사(龍淵寺)와 사인암(舍人巖)이 있다. 김상헌의 <용졸당기> 참조. 사인암에 대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죽수서원⁸⁸ 중수기 -능주 정암선생 서원-

重修竹樹書院記

우리 동방은 오랫동안 치우치고 거칠었는데, 기자를 얻은 뒤로 사람이 비로소 사람답게 되었다. 그러나 기자가 죽은 지 이천여 년이 지나니 남긴 교화가 거의 사라지게 되었으며 사문(斯文)도 거의 끊어지게 되었다. 하늘이 이에 두려워하여 우리나라를 돌아 보고 드디어 선생을 탄생시켜 사문을 진작시켰다. 선생은 태어나 도를 위해 목숨을 바칠 것을 자임하여 바야흐로 중종이 정치에 애쓰던 시기에 아침저녁으로 계도하여 우리 임금과 백성을 요순 같은 임금과 요순시대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을 자신의 책임으로 삼았다. 그러나 간흉들이 옆에서 틈을 엿보다가 더할 나위 없이 치밀한 흉계를 만들어 해기(駭機)⁸⁹가 한번 발동하자 재앙의 그물이 하늘까지 덮였으니, 선생은 마침내 이 고을에 귀양 와서 두어 달이 지나지 않아 사사(賜死)되었다. 아아, 선생이 재앙을 당한 것은 선생의 불행인 것인가, 한 나라 한 시대의 불행인 것인가. 선생의 불행이 아니라 바로 한 나라 한 시대의 불행이요, 한 나라 한 시대의 불행이 아니라 바로 우리 동방 천만 대의 무궁한 불행이다.

처음에 하늘이 선생을 탄생시킬 때 우리 동방에 뜻을 둔 것 같았는데, 끝내 하늘이 선생에게 재앙을 내린 것도 또한 우리 동방

88 죽수서원(竹樹書院) : 전라남도 화순군 한천면 모산리에 있는 서원으로, 조광조를 주벽으로 양팽손을 배향한다.

89 해기(駭機) : 피할 수 있는 틈을 주지 않고 갑자기 쇄뇌를 쏘아 사람을 놀라게 하는 것으로, 곧 불의에 사람을 공격함을 뜻한다.

에 뜻을 두어서이다. 태어나게 한 것은 무슨 뜻이며 재앙을 내린 것은 무슨 뜻인가. 푸르르고 어두컴컴하여 물어도 대답을 들을 수 없는 것은 하늘이 아닌가. 만약 하늘이 우리 동방을 도와주려 하여 그의 재주를 펼치게 하고 제 수명을 누리게 하였다면, 점차로 교화를 이룬 것이 더욱 심원하였을 것이다. 그 치화(治化)가 비록 당우(唐虞)에는 미치지 못하였겠지만 반드시 오늘 같은 현실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건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런데 다만 재주를 펼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끝내 제 수명도 누리지 못하게 하였으며, 다만 제 수명도 누리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끝내 제 대로 죽지도 못하게 하였으니, 우리 동방 수천 리 온 강토에서 존모하며 비통하게 여기는 자를 어찌 한량(限量)하랴. 마침내 이 지역에 귀양와서 끝내 이 지역에서 죽었으니, 이 지역 사람들의 비통과 존모는 또한 한 나라의 비통과 존모에 비할 바가 아니다. 이미 비통하고 존모하여 이 서원을 지어 제사를 지내니 이 서원의 설립은 다른 주군(州郡)에서 서원을 설립한 것과 비교할 수 없으며, 향선생(鄉先生)⁹⁰이 죽어서 제사 지낼 만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 다만 문선왕(文宣王) 공자의 제사와 더불어 만 대를 지나도 함께 혈식(血食, 제사)을 받을 것이다.

인종이 선왕의 뜻을 잘 받들었고⁹¹ 선조에 이르러 그 원통함을 깨끗하게 씻어버렸으니,⁹² 이 서원이 건립된 것도 이미 여러 해

90 향선생(鄉先生) : 어떤 지역에서 명망이 높은 선비를 가리키는 말이다.

91 인종이…받들었고 : 조광조의 죽은 이후 그가 시행했던 개혁안들은 모두 원상회복되었고, 이후 중종의 아들 인종에 이르러 조광조의 관직과 명예가 회복되었다.

92 선조에…씻어버렸으니 : 1568년(선조 1)에 조광조는 영의정으로 추증되었고 이듬해 문정(文正)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이와 함께 조정에

가 되었다. 그러다가 정유재란에 불에 타버려서 행랑, 동서무, 재각, 숙소 등을 임시로 대강 건립하였기에 십오여 년을 엄숙히 제사 지내 영혼을 모시지 못하고 잡풀에 덮인 대로 놔두어 진작시키지 못하였다. 우리 목사 윤수(尹燾) 공이 백성을 다스리던 초기에 개탄하며 학문을 우대하는 것을 중시하여 증건을 생각하였으나 완수하지 못하였다. 나의 형님 남평 현감 조유한(趙維韓)이 윤목사를 만나서 “정암 선생의 서원이 이처럼 누추해졌으니 나와 그대의 수치가 아닙니까. 그대가 수령이 되고 내가 이웃 고을에 있는데 아직도 현양하여 화려하게 만들지 못한다면 사람들이 공(公)은 무엇 하는 사람이며 나는 무엇 하는 사람이나고 할 것입니다.”라 하였다. 곧바로 도내(道內)에 통문을 띄워 건물을 짓고 수리하였는데, 실로 남평현감이 주관하였다.

이에 이웃의 여러 고을에서 소식을 듣고 재물을 내어주어 그 일을 진행하였는데, 내가 영암의 군수가 된 것은 그 후의 일이라 당시에는 미처 집사의 반열에 참여할 수 없었다. 그러나 저 평범한 사람과 낮은 선비라도 오히려 선생에 대해 비통하고 존모하는데, 더구나 우리 형제는 바로 선생의 족손으로 선생의 학문에 대하여 비통하고 존모하는 정성이 일반적인 수많은 사람보다 훨씬 깊음에라. 목사의 부지런함으로써 남평 현감의 주관함을 만나 돕게 되니 얼마 걸리지 않고 공사가 마무리되었다.

대개 산을 등지고 강을 마주한 넉넉한 공간에 높고 빛나는 이 서원은 선생의 성대한 덕과 남긴 은택이 앞에 보이는 듯 뒤에 있는 듯하다.⁹³ 처마, 서까래, 들보, 문미 등이 사치스럽지 않고 조

서는 조광조를 향사할 서원을 건립하기로 하고 이 서원을 지었다.

93 앞에…듯하다 : 《논어》〈자한(子罕)〉에 “안연이 크게 탄식하며 말하였다. ‘우러러볼수록 더욱 높고, 뚫을수록 더욱 견고하며, 바라봄에

잡하지 않으며, 단청과 깎아내고 새긴 것이 법도에 맞은 것은 선생의 움직일 때와 고요할 때의 위엄스런 자태가 예절에 맞지 않음이 없는 것과 같다. 술동이, 제기, 잔대, 술잔, 각종 대그릇 등도 각각 품격에 맞은 것은 선생이 남긴 가르침을 차례대로 따르는 것과 같다. 예의 바른 많은 선비들이 섬돌을 따라 몸을 굽히며, 평소에 강론하고 익히다가 제사에 곧 경건한 것은 선생이 남긴 교화에 감발한 것이다. 이에 충분히 선생의 덕에 훈화(薰化)되고 선생의 은택에 무젓을 것이며, 선생의 가르침을 따르고 선생의 교화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선생의 명령은 물이 땅에 있는 것 같아서 가는 곳마다 이르지 않음이 없으니⁹⁴ 감동을 받아 흥기한 자가 어찌 유독 이 서원의 선비일 뿐이겠는가, 어찌 유독 이 지역의 백성일 뿐이겠는가. 영암군수 조 아무개는 기를 쓴다. 만력 41년 8월 모일.

앞에 있더니 홀연히 뒤에 있도다.[顏淵喟然歎曰, 仰之彌高, 鑽之彌堅, 瞻之在前, 忽焉在後.]”라 하였다. 원래 공자의 학문이 높아 그 실체를 파악할 수 없다는 의미로 쓰였으나 여기서는 서원의 앞뒤 어디라도 남아 있음을 말하고 있다.

- 94 선생의…없으니 : 소식(蘇軾)의 〈조주한문공묘비(潮洲韓文公廟碑)〉에 이르기를, “공의 신령이 천하에 있는 것은 물이 땅속에 있는 것과 같아서 어디에나 있지 않는 곳이 없는데…비유컨대, 우물을 파 샘물을 얻고서 물이 오직 여기에만 있다고 한다면 어찌 이치라고 할 것인가.” 한 데서 나온 말이다. 여기서는 선생의 정신은 조선 팔도 어느 곳에서든 남아 있으니 온나라의 선비들이 감화를 받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이산서원⁹⁵ 흥폐에 대한 기문 퇴계 선생 서원

伊山書院興廢記 退溪先生書院

이산서원의 원장 김지선(金止善)이 나에게 기문을 지어달라고 부탁하면서 “서원의 흥성과 쇠퇴의 자취를 기록하지 않는다면 지금 현판으로 내걸 수 없고 후대에 알려줄 수 없으니, 어찌 기문을 지어 꾸미지 않으랴.”라 하였다. 내가 삼가 대답하기를 “우리 동방은 명현(名賢)을 위해 서원을 설립한 것이 오래되었다. 포은(圃隱) 이후로 심학(心學)에 공로가 있다고 여겨 설립된 것을 다 헤아릴 수 없다. 만약 여러 선비 가운데 가장 뛰어나고 못 현인 중에 크게 성취한 분은 이백 년 이래로는 오직 선생 한 사람뿐이다. 선생의 서원은 우리 동방에서 마땅히 으뜸이 되어야 하는데, 세상에서 선생의 도학을 존모하고 선생의 빛나는 업적을 추앙하는 자들은 모두 도산서원을 마루로 여기면서 도리어 이산서원의 도취(道趣)가 도산서원의 그것보다 배나 나은 것을 모른다. 이른바 ‘났다[勝]’는 것은 강과 산, 시내와 바위의 경치가 나은 것을 이르는 것이 아니다. 도산의 설립은 선생이 돌아가신 뒤에 있었던 일이라 그의 남긴 은택이 멀지 않은데, 이산의 건창(建創)은 선생이 살아 있을 때 시작되어 그곳에서 몸소 가르치고 인도하며 일깨우고 연마시키며 무릇게 만들고 감화시켜 인재를 만든 것이 15년으로, 그 후에 선생을 받들어 제사를 지냈으니 여택(餘澤)과 유풍(遺風)이 오랫동안 젖어있다. 그러므로 도산과 나란히 놓고

95 이산서원(伊山書院) : 영주의 첫 서원으로 1558년(명종 13)에 군수 안상이 창건하였으며, 1572년 사당을 세워 이황의 위패를 봉안, 1574년에 사액을 받았다.

불 때 백중지간의 차이보다 훨씬 현격하다. 노둔하고 무지한 내가 어떻게 그 자취를 찾아서 사실을 드러낼 수 있겠는가.”라 하였다. 사양하였으나 끝내 허락을 받지 못하고 삼가 흥성과 쇠퇴의 시말(始末)을 서술하여 다음처럼 말한다.

“영주에는 이전에 서원이 없었는데 선생의 뜻을 따라 군수 안상(安瑞) 공(公)이 처음 설립하자, 죽령⁹⁶ 이하의 고을에서 바람처럼 전하며 구름처럼 몰려들어 날마다 학문을 강론하여 선생과 제자가 서로 발전하였다. 선생이 그 일을 기록하고 학규(學規)를 정하였으며 또한 그 당(堂)에 이름을 짓고 재각 문의 여러 편액을 모두 선생이 써서 주었으니 학생을 이끌고 인도하는 정성은 극진하다 하겠다. 선생이 이윽고 돌아가시자 군수 허충길(許忠吉) 공(公)과 원장 전 참판 김륵(金玊)이 비로소 사우(祠宇)를 건립하여 제향을 지냈다. 이로부터 여러 생도들이 더욱 스스로 감발하여 서로 모여 학업을 익혔는데, 풍수로 보면 좋은 터가 아니며 자리 잡은 곳이 좋은 땅이 아니기 때문에 물이 고여 웅덩이처럼 되니 습기가 올라오고 물이 갇혀서 서까래가 휘고 꺾이어 온 당실(堂室)이 무너져 내렸다. 해마다 달마다 보수하고 수리하지만 비용은 많이 드나 효과는 적었으니, 영혼을 편안하게 모실 수 없었다.

이에 사대부가의 부로(父老)들이 고을의 자제들을 이끌고 서로 권면하여 마침내 다른 곳으로 옮겨서 세우자는 의견으로 관찰사에게 편지로 고하니, 갑인년 가을에 동쪽으로 15리 떨어진 지역에 터를 옮겨 잡았다. 이곳은 참으로 음양에 맞는 오구(奧區)⁹⁷요,

96 죽령 : 영주 고을에 있는 고개이다.

97 오구(奧區) : 산이 높고 골이 깊어 풍수지리상으로 명당(明堂)인 곳을 가리키는바, ‘오구(奧區)’라고도 한다.

높고 양지발라 시원스레 툭 트인 곳이다. 용이 날고 호랑이가 웅크린 듯 형세가 번갈아 서렸고, 강물은 띠처럼 감싸 돌고 산은 팔짱을 낀 듯 줄지어 서 있다. 앞으로 숙인 것은 책상을 마주한 것 같고 뒤로 등진 것은 산모퉁이를 지고 있는 듯한데, 그 지맥(地脈)은 봉황산을 종산(宗山)으로 백월산을 지산(支山)으로 삼아 정령(精靈)을 온축하여 이 언덕을 열었으니, 천지가 빚어내고 귀신이 감춰둔 곳이다.

이에 음으로 우리 선비들에게 아끼지 않고 도와주어서 이 서원을 튼튼하고 새롭게 하였으니, 사문(斯文)이 도를 잃지 않을 것이며 우리 도가 남쪽에 있음을 알 수 있다.⁹⁸ 그렇기 때문에 온 지역이 일제히 힘을 합하여 짧은 시간 내에 묘우(廟宇)와 재각을 완성하였다. 드디어 날을 택하여 신주를 옮겨 안치하였는데, 도내 여러 고을의 선비들이 소문을 듣고 모여드니 관과 유복(儒服)을 엄숙하게 차려입고 신주의 뒤를 따르는 자가 수백여 명이나 되었으며 고을의 부노(父老)와 자제들은 노소와 귀천을 가리지 않고 모두 모여 참여하였다. 전 참판 김득 공과 전 부윤 오운(吳濤) 공은 덕망이 높은 상노인임에도 행렬의 앞자리에 서 있었으며, 그 밖의 조정 반열의 사림이 숲처럼 늘어섰으니 그 숫자를 헤아릴 수 없었다. 나도 또한 사당에 배알하는 줄에 외람되이 참여하여 남긴 유품이 멀리 전해지는 것⁹⁹을 직접 바라보았다. 아아, 성대함

98 우리…있다 : 정현(鄭玄)이 마융(馬融)에게 수학하고 산둥(山東)으로 돌아가자, 마융이 ‘도(道)가 동으로 갔다’는 말을 했다. 여기서는 이 고사를 원용하였다.

99 멀리 전해지는 것 : 목여(穆如)는 뜻이 깊고 멀다는 뜻으로, 《시경》〈증민〉은 윤길보가 중산보를 전송하며 지은 시로, 이 시의 제8장에 “윤길보가 시를 지으니, 뜻이 깊고 멀기가 맑은 바람과 같도다.[吉甫作誦 穆如淸風]”라는 말에서 나왔다.

이여. 그 다음 해 봄에 명륜당이 완성되었는데, 명륜당이 완성되자 공사가 마무리되었다. 대개 서원의 흥성과 쇠퇴는 사문의 발전과 퇴보와 연관되니, 사문의 실질과 외양의 아름다움이 오늘에 있지 않은가.

옛 서원을 건립한 것은 가정 무오년(1558) 가을이었는데, 선생이 앞장서고 태수 안상 공이 설립하였다. 옛 사우(祠宇)의 건립은 만력 계유년(1573)¹⁰⁰ 겨울이었는데, 선생을 존모한 많은 선비들의 뜻을 따라 태수 허충길 공이 완성하였다. 만력 갑술년(1574)에 특별히 편액을 하사하였는데, 이산이라 편액된 것은 그 마을이 이산(伊山)이었기 때문으로 마을 이름을 따라 특별히 그렇게 지은 것이다. 정축년(1577) 가을에 책을 하사하였고 겨울에 또 다시 책을 하사하였으며, 기묘년(1579)과 경진년(1580)에 잇따라 책을 하사하였으니, 책이 모두 열일곱 질이었다. 만력 을묘년 봄에 새 서원을 짓기 시작하였는데, 원장인 전 목사 성안의(成安義) 공이 홀로 담당하였다. 서원 짓는 일을 마치자 재각과 묘우를 수리하고 그해 9월 모일에 비로소 신주를 옮겨 봉안하였다.

일찍이 두세 명의 장로(長老)와 서원에서 의논하면서 ‘서원을 비록 다시 지었으나 도는 옛날과 같고 마을은 비록 다르지만 산은 그대로 이산이다. 이전 이름을 따라 새 서원을 명명해도 의리상 괜찮을 것 같습니다.’라 하자, 일제히 답하여 ‘맞습니다.’라 하였다. 마침내 예전 편액을 그대로 내걸었다. 때마침 성안의 공에게 일이 생겨서 대충의 여망에 따라 전 도사 박선장(朴善長) 공을 원장으로 뽑았다. 명륜당을 짓기로 하였으나 일을 마치기 전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또다시 대충의 여망에 따라 전 도사 김지

100 계유년(1573) : 원문은 ‘祭酉’인데, 국립중앙국립도서관본에 근거하여 ‘祭’를 ‘癸’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선 공을 선출하였으니, 바로 참판공 김륵 공의 아들로 나와 같은 해 합격한 과거에서 장원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명륜당의 건립을 마치고 나서 나에게 기문을 지어달라고 권한 자이다. 부자(父子)가 나란히 원장이 된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아버지는 앞서 옛 서원에 사우를 건립하였고 아들은 뒤에 새 서원에 강당을 완성하였으니, 이 서원에 대해 공의 집안은 매우 힘을 쏟았다고 할 것이다. 무오년부터 지금까지 오십여 년으로 학문에 뜻을 두고 도를 추구하는 선비가 많았지만 임시방편으로 세월을 끌면서 일찍이 서원에 빛을 내지 못하였는데, 다행스럽게도 두어 분의 공력에 힘입어 이에 완성하게 되었다. 한번 흥성하고 한번 쇠퇴하는 것이 어찌 운수가 아니겠는가. 정결하고 말쑥한 재각과 요사(寮舍), 드넓은 명륜당은 참으로 세속에 드물게 존재하니 한두 가지로 품평하기는 어렵다. 향사 의식의 각종 제기는 조정의 질례(秩禮)¹⁰¹처럼 빛나고, 향사 조목의 상세함에서 배운 것을 익히며 청소하는 절차는 선생의 훈계가 담겨 있다. 내가 어찌 감히 망령되어 거론하여 후대에 듣는 자들을 번거롭게 하겠는가.”

만력 병진년(1616) 4월 모일에
군수 조찬한은 삼가 기를 쓴다.

101 질례(秩禮) : 옛날에 신분의 상하·귀천을 구별하던 예(禮)로, 본래 《춘추좌씨전》 문공(文公) 6년 조에 나오는 말이다. 곧 유현(儒賢)을 문묘나 지방의 사우에 제향하는 것을 이른다.

방씨 서첩 유실에 대한 기문

房氏書貼遺失記

남쪽 지방에는 이름난 고을이 많으며 이름난 고을에는 명문세가 많고 명문세가에는 경적(經籍)이 많다. 남원은 가장 이름난 고을이며 방씨는 명문세가 가운데 더욱 특별한 명문세가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유포된 기이한 서적은 방씨 집안에서 나온 것이 많다. 내가 왜놈에게 쫓겨 남쪽으로 내려왔을 때 방씨에게서 서첩 하나를 얻었다. 서첩은 고본(古本)은 아니었으나 또한 간행하여 나온 것도 아니었으니, 바로 명의 사신 예겸(倪謙)이 손수 쓴 자신의 시 30여 편과 명의 사신 장환(張寰)이 손수 쓴 자신의 산문과 시 50여 편과 우리나라의 소재 노수신이 손수 쓴 자신의 시와 서간 100여 편과 옥봉 백광훈이 노수신의 시를 쓴 100여 편으로, 세 사람의 시와 네 사람의 글씨를 합하여 280여 편을 모아 한 권을 만들었다.

예겸의 시는 웅혼(雄渾)함을 힘썼으니, 장편고시는 아득히 흘러가는 강물과 같으며 근체시의 절구는 커다란 종이나 웅장한 북과 같다. 그의 글씨는 초성(草聖) 장욱(張旭)을 본받으려고 힘써서 물이 흐르듯 한데 마치 뱀이 구불구불 서려 있는 것 같다. 장환의 산문과 시는 정백(精白)함과 청눈(淸嫩)함을 힘썼으니, 장편 시와 단편의 율시는 빼어난 봉황이나 외로운 난새와 같다. 그의 글씨는 기세가 유연하고 아름다워 마치 산호와 옥수(玉樹)가 가지런히 엮인 듯하다.¹⁰² 노수신의 시는 건굴(健倔)하니, 시어는 기이

102 산호와...듯하다 : 힘차고 생동감 넘치는 필획을 형용한 말로, 한유(

하고 글자는 진중(鎭重)하다. 그의 글씨는 획이 쇠갈고리 같다.¹⁰³ 백광훈의 글씨는 전아(典雅)하여 거의 대부분이 종요(鍾繇)와 왕희지(王羲之)의 글씨에 가깝다.

이 세 사람의 시와 네 사람의 글씨는 실로 천하에 대단히 드문데, 남쪽 고을의 한 마을에서 이것을 모아 서첩 한 권을 만들어 한 사람의 집에 보관하여 보물로 삼은 것은 어찌서인가. 아마도 방씨의 선조 가운데 예겸, 장환 두 사신을 접대하는 동안에 친하게 된 분이 있어서, 이윽고 글씨로 써서 주었을 것이다. 또한 사계(沙溪) 공은 소재(蘇齋), 옥봉(玉峯)과 서로 친우간인데, 분명히 그들의 시와 글씨를 얻어서 합쳐 놓았을 것이다. 이에 방씨의 선조가 중국에도 소문났었고 조선에 명성이 높았던 것을 더욱 확신할 수 있으며, 방씨를 찾아간 자들은 모두 이 서첩을 달라고 요구하였을 것이다.

내가 그 소문을 널리 알리고 그 명성을 더욱 드높이고자 하여 이 서첩을 상자에 담아 나주로 돌아왔다. 정유년의 난리에 배에 싣고 피난을 떠났는데, 끝내는 왜적과 마주쳐 온 집안이 다 죽고 나만 홀로 맨몸으로 달아나 죽음을 면하였다. 방씨의 서첩도 이

韓愈의 〈석고가(石鼓歌)〉에 “오랜 세월에 어찌 자획 이지러짐을 면 하리오, 잘 드는 칼로 산 교룡과 악어를 잘라낸 것 같네. 난새 봉새가 날고 못 신선이 내려온 듯하고, 산호와 벽옥나무 가지가 서로 엇갈린 듯하며, 금줄과 쇠사슬을 얹어 놓은 듯 웅장도 하고, 고정이 물에 뛰어들고 용이 북처럼 나는 듯도 하네.[年深豈免有缺畫 快劍斫斷生蛟鼉 鸞翔鳳翥衆仙下 珊瑚碧樹交枝柯 金繩鐵索鍊紐壯 古鼎躍水龍騰梭]”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韓昌黎集 卷5》

- 103 획이 쇠갈고리 같다 : 구양순(歐陽詢)의 〈용필론(用筆論)〉에서 “배회하고 오르내림에 넉넉하고 풍류가 있으며 굳세기는 무쇠로 된 획이고 부드럽기는 은으로 된 갈고리 같다.[徘徊俯仰, 容與風流, 剛則鐵畫, 媚若銀鉤.]”라고 하였다.

에 잃어버렸으니, 어찌하여 지극한 보물을 어렵게 얻었다가 쉽게 잃어버리게 되었는가. 내가 이미 온 집안의 죽음에 대해 슬퍼하였지만 네 사람의 글씨 서첩을 잃어버린 것에 더욱 슬퍼한 것은 다만 방씨의 서가(書架)가 이제부터 볼품이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얼마 지난 뒤 그 슬퍼한 것을 후회하면서 해명하기를 ‘예검과 장환의 시와 글씨는 이미 매우 중국에 빛이 났으며, 소재와 옥봉의 시와 글씨도 이미 우리 동방에 이름이 났다. 하늘이 어찌면 신선을 내려보내 그것을 가져가서 그로 하여금 동쪽의 일본에 널리 전하게 하여 부상(扶桑)과 석목(析木)¹⁰⁴ 사이에 빛나게 나눠서 퍼트리려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거센 파도 위에 떠다니다가 바위 섬의 곁에서 그물에 걸려서 용왕과 하백의 나라에 흘러 들어가 황홀한 다른 세상에 전파하여 놀라게 하려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회오리바람에 실려 날아가고 우리가 장차 취하여 혹은 멀고 먼 봉래산과 방호산 등 삼신산에 떨어트리거나 혹은 높다란 구천 하늘 문에 올려놓아 네 사람의 시와 글씨를 청도(淸都)와 한만(汗漫)¹⁰⁵ 이외의 지역에 널리 전파하여 방씨가 만든 것을 더

104 석목(析木) : 목현허의 <해부>에 “그 바다가 끝없이 넓어 남쪽으로는 주애(朱崖)에 이르고, 북쪽으로는 천허에 이르고, 동쪽으로는 석목에 이르고, 서쪽으로는 청주(靑州)와 서주(徐州)에 닿는다.” 하였다. 천허와 석목은 모두 별자리인데, 여기에서는 이 별자리가 가리키는 분야(分野)를 가리킨다. 원문의 ‘折木’은 <해부>에 의거하여 ‘析木’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文選 卷12 海賦》

105 한만(汗漫) : 노오(盧敖)가 북해(北海)에 노닐다가 몽곡산(蒙穀山) 꼭대기에서 한 선비를 만나 그와 벗하려 하자 그가 웃으며 “나는 남쪽으로 망량(罔兩)의 들판에서 노닐고 북쪽으로 침묵(沈默)의 고을에서 쉬며 서쪽으로 요명(宵冥)의 마을을 다 다니고 동쪽으로 홍몽(鴻濛)의 앞을 꿰뚫고 구해(九垓)의 위에서 한만(汗漫)과 노닐려 하오.” 하고는 팔을 들고 몸을 솟구쳐 구름 속으로 들어갔다. 이에 노오가

옥 드러내려 한 것인가. 그렇다면 이전에 ‘잃어버렸다는 것’이 어찌 더욱 밝게 드러난 것이 아니며, 우리 동방의 한쪽 지역, 즉 광주와 나주의 두어 고을 사이에서 전파하려는 것과 비교하면 또한 현격한 차이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잃어버린 것은 참으로 잃은 것이 아니라 도리어 크게 얻은 것[大得]이다. 무슨 말인가. 만약 방씨의 후손들이 그것을 비밀로 숨겨두고 세상에 내놓지 않아서 끝내 사람들이 그것이 지극한 보물인 줄을 알게 하지 않으려고 했다면 더이상 말할 것이 없지만, 만일 널리 멀리 퍼트려 무궁하게 전하려 하였다면 이곳에서 잃어버렸지만 저곳에서 얻어서 추측할 수 없이 높고도 깊은 천지와 이 세계와 다른 세계에 전하여 조물주로 하여금 방씨에게 귀중한 보물이 있었는데 조찬한 때문에 얻게 된 것을 알게 하는 것만 어찌 같겠는가. 이에 서첩을 얻고 잃은 시말(始末)을 기록하여 한편으로는 나의 미혹된 생각을 풀고 또 한편으로는 방씨의 서운함을 위로한다.

우러러보며 “나를 그대에 비기면 마치 홍곡(鴻鵠)과 양충(壤蟲) 같구려.” 하였다. 《淮南子 進應訓》

월사 상국 시판의 후기

月沙相國詩板後記

내가 회양 수령으로 나가게 되자¹⁰⁶ 월사 이정귀 재상께서 편지를 보내어, “회양에 내가 지은 시가 있으며, 또한 여러 공들이 화답한 시도 있네. 나를 위하여 화답시를 지어 보내주고 벽에 편액해 두면 마땅히 시첩(詩帖)에 넣도록 하겠네.”라 하였다. 회양에 부임한 다음 날 곧바로 재상의 시와 발문을 가져다 살펴보니 즉 이러이러하다고 되어 있었고, 또 이른바 화답한 시를 모두 살펴보니 즉 이러이러하다고 되어 있었다. 이에 고을 사람에게 그 전말에 대해 물으니, 참으로 그러하였다.

아! 기이하구나. 옛날에 당나라 어사 왕인유(王仁裕)가 흥원(興元)의 두산관(斗山館)에 들어서 작은 현판에 시를 짓고 떠났다. 3년 뒤에 축의 대면산의 암진관(巖眞館)에 들렀는데 두산관에서 지었던 시판이 있었다. 왕유인이 매우 괴이하게 여겨 그 거리를 물으니 이천여 리로, 두산의 동굴이 서쪽으로 청성의 대면산 암진관의 한 우물과 통한 까닭에 시판이 우물에서 나와 벽에 걸어 두었는데, 결국 왕씨와 만나게 되었으니 기이하고 괴상하다 하겠다. 그러나 동굴의 평탄함과 험준함, 그리고 길이는 추측하여 알기 어렵지만 물살의 힘이 미치는 곳까지 서로 통한다면 비록 먼 거리라도 이를 수 있을 것이다.

바야흐로 회양에 큰 홍수가 있었을 적에 비바람이 심하게 몰아치고 천둥과 번개가 쳐서 3일 밤낮을 천지가 어둡게 변하였다.

106 내가…되자 : 1625년 조찬한의 나이 54세에 회양 부사가 되었다.

산이 떠내려가고 언덕까지 잡겨 고을은 연못이 되고 사람은 물고기가 되었다. 폭우 쏟아져 연꽃과 소나무는 쓸려나가고 날짐승 근심하고 들짐승 물에 잠기며 물은 불어 황병산까지 잠기니 버드나무의 수리¹⁰⁷도 궁색한데, 소양강 입구에 진탕을 일으키고 두저(斗渚)를 일렁거리며 월협(月峽)을 쪼개고 용진과 광릉의 허리까지 넘실거리면서 거칠게 내달리며 세 강을 지나 해문(海門)에 밀어 닳혔다가 기도(島)의 습지까지 이르니 시작한 상류부터 흘러 내려간 하류까지의 거리는 모두 천이백여 리였다. 아! 공의 시판(詩板)은 자라나 상어나 교룡의 굴에 멈추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으며 또한 바위섬의 나무 끝이나 돌틈 사이에 걸리지 않고서 높다란 강물 급한 물살에 둥둥 떠내려가다가 끝내 귀허(歸虛)¹⁰⁸와 석목의 아득한 바다로 표류하지 않고 반드시 재상이 거주하는 곳 근처에서 멈췄다. 시판은 태복(太僕)¹⁰⁹을 거쳐서 재상에게 보내져서 결국은 회양의 신관(新館)에 돌아와 걸리게 되었다.

두 고사에서 시판이 떠내려간 거리는 원근의 차이가 있지만, 삼년 이내에 시판이 사라졌다가 나타난 자취는 왕유인의 시판에 비교하면 대단히 비슷하면서도 더욱 기이하다. 그렇다면 이 시가 지극한 보물이 되는 것을 알아서 갑자기 빼앗아 가져갔다가, 지극한 보물을 끝내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 돌려준 자는 누구인가. 필시 양후, 용백,¹¹⁰ 수괴(水怪)가 한 것인가. 아니면

107 버드나무의 수리 : 원문은 ‘蹴楊’인데, 국립중앙도서관본에 근거하여 ‘蹴’을 ‘鷺’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108 귀허(歸虛) : 귀허는 바다 속의 밑바닥 없는 골짜기인데, 물이 끝없이 이곳으로 빠져나간다고 한다. 《列子 湯問》

109 태복(太僕) : 궁중의 가마와 말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청이다.

110 용백(龍伯) : 용백국(龍伯國)의 거인(巨人)을 말한다. 발해(渤海)의 동쪽에 대여(岱輿), 원교(圓嶠), 방호(方壺), 영주(瀛洲), 봉래(蓬萊)의 다

양후, 용백, 수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하늘이 일부러 양후, 용백, 수괴를 시켜서 한 것인가. 그것은 알지 못하겠다. 그러나 한번 빼앗고 한번 돌려준 일에서 재상의 자취가 더욱 드러났으며, 한번 잃어버리고 한번 되찾은 일에서 회양의 이름이 더욱 드러나게 되었다. 그렇다면 그 당시의 홍수는 다만 재상만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 회양을 사랑해서이니, 재해가 아님이 분명하다. 기문을 써도 내용이 부족하여 서문을 거듭 쓰고¹¹¹ 시를 붙였으니, 이 작품이 어찌 벽에 편액하고 상국 시첩의 끝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첫 선산(仙山)을 떠받치고 있는 여섯 마리의 큰 자라를 용백국의 거인이 낚시질하여 한꺼번에 다 낚아서 이를 끓여지고 그 나라로 돌아가자, 대여와 원교 두 산이 북극으로 흘러가서 큰 바다 아래로 가라앉았다고 한다. 《列子 湯問》

- 111 서문을 거듭 쓰고 : 권10의 〈월사상국시판후서(月沙相國詩板後序)〉를 가리킨다.

봉위에 대한 기문

蜂衛記

곤충 가운데 날아다니는 것은 백여 종인데 벌의 종류는 참으로 많아서 다 기록할 수 없다. 다만 꿀 따는 일을 업으로 삼는 벌은 사람을 가까이하니 기를 수 있다. 내가 이에 트랙에 벌통을 세우고 날마다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았다. 벌이 처음 들어갈 때 임금 같은 놈이 있고, 신하 같은 놈이 있고 사졸 같은 놈이 있으며 또 문을 지키면서 출입을 살피는 놈이 있고 또 문을 드나들면서 주의 깊게 망을 보는 놈이 있었다.

해가 뜨면 임금은 명령을 내리고 신하는 명령을 받들어 시행하며 사졸들이 일을 하는 것을 감독한다. 벌들이 일을 할 때는 먼저 나온 놈은 먼저 들어가며 감히 뒤처지지 않으며, 뒤에 나온 놈은 뒤에 들어가며 감히 앞서지 않으니, 한 놈이 나가면 한 놈이 들어가기를 끊임없이 계속한다. 꽃술과 향기 나는 곳과 흐르는 즙과 강렬한 향기에 모여들어 꿀을 따서 물고 오지 않음이 없는데, 정해진 시간에 모이고 차례대로 이르는 것이 마치 부계(符契)¹¹²처럼 정확하였다. 간혹 정해진 시간을 어겨 명령을 지키지 않은 놈은 문밖에 서 죽여 시체를 늘어놓았다.

해가 바야흐로 정오에 이르면 백, 천 마리가 무리 지어 나오니 마치 관아와 저자 같은데 한바탕 시끌벅적 떠들다가 흩어진다.

112 부계(符契) : 사신(使臣)이 외방으로 나갈 때에 지니고 가던 물건. 대나무를 두 쪽으로 갈라서 한 쪽은 조정(朝廷)에 두고 한 쪽은 사신이 지녀서 거짓을 예방하였다.

흘어졌다가 또 차례대로¹¹³ 들어오고 들어와서는 곧 조용해진다. 조용한 뒤에 또 나와 처음처럼 일을 한다. 해가 지면 일을 멈추고 나오지 않으며, 각각 자신의 방을 다듬거나 입으로 날개를 다듬는데, 저녁부터 아침까지 무리가 뽕뽕소리를 내고 움직이며 아침이 되면 다시 전날과 같게 한다. 봄부터 여름까지 날마다 똑같이 반복하여 처음처럼 하지 않은 적이 없었으니, 이에 방을 만드는 일을 거의 마치고 꿀을 모으는 일을 거의 마무리 짓게 되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저녁에 어디에서 왔는지 알 수 없는 별한 마리가 나타났는데, 크기는 대추만 하고 적황색을 띠었으며 우레처럼 날갯짓하며 주둥이는 칼처럼 날카로웠다. 벌통을 백여 바퀴 돌면서 날더니 꿀 냄새를 맡고 문으로 세 번 들어가려 시도하였는데, 문을 지키는 꿀벌에게 밀려서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 때 이미 급한 보고가 올라가자, 과연 십여 마리가 나타나 문을 나서 대항하며 싸워 옆치락뒤치락 막아대다가 죽었다. 또다시 수십 마리가 나타나 옆치락뒤치락 힘써 싸우다가 죽으니, 또다시 오륙십 마리가 나타나 대항하여 싸우니 큰 벌은 패배하여 달아났다.

이에 임금과 신하, 아버지와 아들, 사졸의 많은 벌들이 이전처럼 안도하지 않음이 없었으며 아침저녁 관아와 저자 같은 시끄러움도 변함이 없게 되었다. 아! 휘하의 무리를 고려하고 부려 본 업에 힘써 일을 성취한 것이 인(仁)이 아닌가. 명령하면 시행되고 금하면 멈추며 차례대로¹¹⁴ 드나드는 것이 예(禮)가 아닌가. 아침저녁으로 관아와 저자처럼 시끄러운데 정한 때를 어기지 않으며

113 차례대로 : 원문은 ‘次茅’인데, 중앙도서관본에 근거하여 ‘茅’를 ‘第’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114 차례대로 : 원문은 ‘次茅’인데, 중앙도서관본에 근거하여 ‘茅’를 ‘第’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한번 오갈 때 각각 약속대로 거행하니 신(信)이 아닌가. 별집을 만들어 방으로 삼으며 꿀을 먹어 양식으로 삼으며 이로써 추위를 막고 한 해를 보내니 지(智)가 아닌가. 정성으로 영역을 지켜 적이 이르면 죽도록 싸우며 적이 왔다고 군부(君父)를 저버리지 않으니 의(義)가 아닌가. 사람이 이 다섯 가지를 갖춘다면 오히려 한 시대의 패자가 되고 천하의 왕 노릇을 하여 영원한 후대에 이름다운 이름을 남길 것이거늘, 더구나 하늘을 나는 곤충으로 꿈틀거리는 하찮은 미물임에랴. 어진 성품과 떳떳한 본성을 지닌 사람도 오히려 다섯 가지 중에 하나도 수행하지 못하거늘 꿈틀거리는 미물인 별이 다섯 가지를 지니고 있음에랴. 자신의 임금에게 옷과 먹을 것을 받으면서도 외적이 쳐들어오면 죽지 않고 도리어 적에게 신하가 되어 그 임금을 팔아먹는 자는 어떠한 사람인가. 어찌하여¹¹⁵ 사람이 별보다 못하단 말인가. 내가 그 일을 목도하고 기이하게 여겨 마침내 기를 쓴다.

115 어찌하여 : 원문은 ‘可以’인데, 중앙도서관본에 근거하여 ‘可’를 ‘何’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곤륜¹¹⁶의 복숭아¹¹⁷ 씨에 대한 기문

崑崙核記

곤륜산 너머에 또 다른 산이 있는데, 곤륜산과 그 높이도 같고 넓이도 똑같으며 길이¹¹⁸도 다르지 않다. 그것을 바라본 사람들은 곤륜산과 같으니 산이라 여겼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서 바라보면 산이 아니오, 바로 반도 씨였다. 괴이하게 여겨 어떤 사람에게 물으니, 대답하기를 “이것은 바로 우리 스승이 열매를 먹고 남긴 것인데, 열매는 바로 창해(滄海)의 반도(蟠桃)로 팔천 년에 한번 익는다. 우리 스승이 일찍이 해마다 그 가운데 하나를 취하여 먹었는데, 이미 다 먹고 그 씨를 버린 것이 하나, 둘, 셋, 넷 늘어나 이처럼 쌓이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산의 시말에 대한 대강이며 우리 스승이 영원히 늙지 않은 까닭이다.”라 하였다.

세상에서는 백 세도 살 수 없어서 칠팔십 세로 기대하는데, 이에 반도에 비하면 인생은 조균(朝菌)인가, 해계(醯鷄)¹¹⁹인가. 이

116 곤륜 : 원문은 ‘崑崙’인데, 중앙도서관본에 근거하여 ‘崑’를 ‘崑’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117 곤륜의 복숭아 : 곤륜산은 중국의 서쪽에 있다는 상상 속의 산으로, 서왕모(西王母)가 그곳에 살며 산 위에서는 예천(예천)과 요지(瑤池)가 있다고 한다. 한(漢)나라 무제(武帝) 원봉(元封) 원년에 서왕모가 궁전에 내려와 선도(仙桃) 7개를 바쳤는데, 무제가 그 씨앗을 남겨두려고 하자 서왕모가 “이는 세상에 있을 것이 못 되며, 3천 년에 하나가 열릴 뿐입니다.”라고 하였다는 고사가 있다.

118 길이 : 원문은 ‘延袤’인데, 중앙도서관본에 근거하여 ‘袤’를 ‘袤’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119 해계(醯鷄) : 술[酒] 위에 생겨서 뜨는 아주 작은 벌레이다. 《장자》에 보인다.

산의 높음과 비교하면 어떠한가. 그러나 인간 세상을 참으로 슬퍼할 것도 없고 반도(蟠桃) 씨를 참으로 부러워할 것도 없다. 어째서 그런가. 무궁무진한 관점에서 말한다면 조군도 혜계도 또한 매우 오래 살았으니, 반도 씨가 참으로 많을 필요가 없는 것은 분명하다.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허탄(虛誕)함을 즐겨서 반도 씨에서 오래 살려는 것을 바란 것이 아니요, 애오라지 그 망령된 것을 배척하여 세상의 오래 살기를 구하는 자들을 경계하기 위함이다. 이에 기를 쓴다.

곤륜의 복숭아 씨에 대한 기문 두 번째

崑崙核記

광성자¹²⁰가 서극(西極)의 들판을 노닐다가 어떤 산을 바라보았다. 높고 험준하여 곤륜산과 높이가 같았으며, 구불구불 드넓게 펼쳐지니 곤륜산과 그 크기가 비슷하였다. 가파른 봉우리나 바위 골짜기가 없었고 무성한 소나무, 삼나무의 숲도 없었다. 흙도 아닌데 쌓여 있고 돌도 아닌데 견고하며, 약목(若木)¹²¹이 왼쪽을 덮고 있고 등자나무 숲이 오른쪽에 솟구쳐 있으니, 참으로 진기하고 괴이하였다. 장차 산에 올라 주위를 조망하려 했는데, 반절도 못가서 문득 세 사람을 만났다. 그들에게 나아가 물으니, 그 중 한 사람이 “나는 반고(盤古)¹²²의 벗으로 멀리 유람을 다녔는데, 아직도 이곳에 와보지 못하였다.”라 하였으며, 또 한 사람이 “나는 창해가 억번이나 변하는 것을 보았지만 아직도 이곳에 이른 적은 없다.”라 하였으며, 마지막 한 사람이 “이곳은 바로 우리 스승의 반도(蟠桃) 씨가 모여서 쌓여 이렇게 산이 된 것이다. 복숭아의 이름은 ‘홍(洪)’이며 또다른 이름은 ‘반(蟠)’으로 창해의 북쪽에 있는데, 삼천 년에 한 번 꽃이 피고 또 삼천 년이 지나야 열매를 맺고 또다시 삼천 년이 지나야 익는다. 만 년에 한 번 익는

120 광성자 : 광성자는 중국 상고 때의 선인(仙人)이다. 공동산(崑崙山) 석실에 은거했는데, 황제(黃帝)가 찾아가서 도를 물었다고 한다. 《莊子在宥》

121 약목(若木) : 해 뜨는 동쪽 바다에 있다는 상상(想像)의 신목(神木)인데 그 꽃이 광적색(光赤色)으로 땅을 비춘다고 한다. 부상(扶桑)과 같다.

122 반고(盤古) : 중국의 전설상에 나오는 임금으로, 천지가 개벽하던 처음에 이 세상을 다스렸다고 한다.

데 우리 스승이 해마다 그 열매를 먹고 그 씨를 던졌다. 이 산은 반도 씨가 쌓인 것으로 곤륜산에 그 크기를 견줄 수 있다.”라 하였다. 그가 말을 마치자, 앞으로 나아가 살펴보니 참으로 그러하였다. 이에 광성자가 세 사람에게 절을 한 다음 “나는 오래 산 것으로 세상에서 일컬어지는데, 지금 곤륜산과 같은 이 씨를 본 뒤에 나와 이 세 사람이 팽조(彭祖)와 상(殤)처럼 같지 않으며¹²³ 조균(朝菌)과 대춘(大椿)¹²⁴처럼 현격한 것을 알게 되었다.¹²⁵ 수명이 짧은 것은 수명이 긴 것에 미치지 못한다는 말은 저 세 노인과 함께 있는 나를 가리키는 말이구나.”라 하였다. 세 사람이 문득 보이지 않게 되자 마침내 기이하게 여겨 기를 짓는다.

123 팽조(彭祖)와…않으며 : 《장자》에 보이는 말로 팽조(彭祖)로서 800살을 산 사람이고, 상은 성년이 못 되어서 죽은 아이를 가리킨다. 장수(長壽)와 요절(夭折)을 말할 때 흔히 쓰이는데, 여기서는 세 사람과 광성자의 나이 차이를 비교하는 대상으로 쓰였다.

124 대춘: 원문은 ‘大楓’인데, 국립중앙도서관본에 근거하여 ‘楓’을 ‘椿’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125 조균과…알았다 : 대춘(大椿)은 1만 6000년을 산다는 나무 이름이고, 조균(朝菌)은 아침에 생겨나 곧바로 시들어버리는 버섯 이름이다. 《莊子 逍遙遊》

김호¹²⁶ 유기

遊劍湖記

함녕의 수령이 상사(上使)를 거슬러 하고(下考)¹²⁷를 받았다. 내가 다스리는 곳은 함녕을 포함하고 있기에 관문(關文)을 받고 달려가 조사하였다.¹²⁸ 인하여 함녕 수령을 김호에서 맞이하여 배를 타고 유람하면서 위로하고 한편으로 전별하였다. 당시 장맛비가 이미 개어 호수에 물이 가득 찼는데, 맑고 아득하여 끝이 없을 만큼 드넓었다. 곧바로 가벼운 상앗대와 짧은 노의 배를 흘러가는 대로 맡겨두고 술을 들어 서로 권할 즈음에 갑자기 연꽃 향기가 풍겨와 자리에 넘쳐났다. 좌우를 둘러보니 푸른 일산 같은 잎이 숲처럼 서 있고 아름다운 꽃이 산봉우리처럼 솟아 있었다. 배가 그 위를 지나자 맷돌 가는 듯한 소리가 들렸으며, 천 개의 줄기와 만 개의 잎이 누웠다가 다시 일어났다. 붉은 연꽃이 서로 비비고 푸른 잎이 서로 부딪혀서 향기가 일어 바람으로 퍼져나갔다.

멤돌고 있을 때 피리 소리는 점점 크게 들려오고 저녁 햇빛은 이미 넘어가 산에는 달이 매우 둥그렇게 떠올랐다. 황홀하여 마치 은하수에서 뗏목을 타다가 연잎 위에서 태을진인(太乙真人)을 만난 것 같았으니, 마음속 깊은 이별의 정회가 이에 이르러 더욱

126 김호(劍湖) : 경북 상주에 있는 연못으로 공검지(恭儉池) 공갈못 등으로 불린다.

127 하고(下考) : 관원의 성적고사는 상·중·하로 한다. 즉 상고(上考)는 상등, 중고(中考)는 중등, 하고(下考)는 하등이다. 《大典會通 吏典 褒貶·考課》

128 내가…조사하였다 : 상주 목사로 있던 1621년 경의 일이다. 이때 조찬한의 나이 50세였다.

서글퍼졌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서 오래 머물 수가 없었으니, 마침내 마음이 허전하여 장차 흠어지려고 할 때 여러 객이 이 행적을 기록하기를 원하였다. 내가 대답하기를 “훗날 속세에서 오늘의 유람을 회상하고 이 자리의 이별을 그린다면, 신선이 되어 봉래도를 유람했는지 꿈에서 월궁(月宮)에 올랐는지 그 이상이라 참으로 그러했는지 아닌지 그 진위(眞僞)를 구분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비록 이런 경험을 다시 하고 싶더라도 끝내 쉽게 얻을 수 없고, 가령 얻더라도 또한 이 자리의 사람들을 모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비록 이 기문(記文)이 없더라도 이번 유람을 잊을 수 있으랴. 그러나 잊지 않는다고 기록하지 않아 좌우의 요청을 저버릴 수 없기에 그러므로 마침내 기(記)를 지으니 잊을 수 없는 일을 잊지 않으려고 기록한다.”라 하였다.

천왕봉 기우¹²⁹ 동행기

天王峯祈雨同行記

오월을 거쳐 유월이 다 가도록 온 고을에 한 번도 비가 내리지 않았다. 곡식과 과일은 거의 말라비틀어졌으니 근심스러울 정도로 독한 기운이 하늘의 화한 기운[天和]를 손상시켰기 때문이다. 내가 정사를 잘못 다스려 이런 일을 초래한 것이라 두려워하여 항상 편치 못하고 전전긍긍하였다. 드디어 월출산의 구정봉(九井峰)에서 기우제를 지내니 다음날 비가 조금 내렸다. 2~3일이 지나 관원을 차출하여 무안의 주룡도(駐龍渡)와 월출산 천왕봉의 보제단(普濟壇)으로 보내 기우제를 지냈는데, 이전 내린 비보다 적게 내려 2~3리도 적시지 못하였다. 이런 까닭에 곡식은 더욱 매말라갔고 백성들은 더욱 원망하였다. 내가 더욱 걱정하고 두려워하여 곧바로 그 달 그믐에 월출산 천왕봉의 보제단에 다시 기우제를 지내 반드시 비가 내리게 하겠다고 다짐하였다. 당시 나의 벗인 송간(松澗) 문공(文公)이 마침 나를 찾아와서 나의 걱정거리와 백성의 걱정거리를 근심하니 함께 기도하자고 허락하였다. 그와 함께 성을 나서 남쪽으로 가서,¹³⁰ 송간은 가마로 길을 가고 나는 말을 탔는데 5리쯤에서 나도 가마를 탔다. 높은 곳을 오르고 험한 곳을 지날 때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뒷걸음질만 치는데 승려들은 모두 땀을 흘리며 넘어지기 일쑤여서 백 보도 나아가기 전에 가마꾼을 교대해야 했다.

129 기우 : 원문은 ‘祈再’인데, 중앙도서관본에 근거하여 ‘再’를 ‘雨’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130 성을…가서 : 월출산 부근에 도착했다는 의미이다.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야 구정봉의 신암(新庵)에서 멈췄는데, 고개에 오르기 전에 길가에서 우리를 맞이하여 절을 하는 자는 화주승(化主僧) 일진(一進)이었다. 겨우 고개에 오르자 너른 가사를 입고 엄숙하게 절하는 자는 노장승(老丈僧) 영언(靈彦)이었다. 절문에 이르자 장삼을 입고 이마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는 자는 석남사(石南寺)의 고승 지헌(智憲)이었다. 절은 천왕봉의 왼쪽에 있는 보제단의 아래에 있었다. 세 면은 모두 산으로 암석이 숲처럼 줄지어 있으니, 미륵불이 서 있는 듯 화상이 앉아 있는 듯, 부처가 가부좌를 튼 듯 승려가 마주보는 듯, 바위 모양을 따라 형태를 이루었는데 이루 다 기록할 수 없다. 그 북쪽은 끝도 없이 아득한 하늘을 마주하는데 눈에 온 힘을 주고 바라보면 오가는 구름과 노을, 수를 얹어 놓은 듯한 산과 강이 공중을 가로지른 듯이 아득하고 허공에 점을 찍은 듯이 떠있다. 우뚝하게 불룩 솟아 있는 것은 금성 불갑산의 구불구불한 줄기요, 용의 허리가 따리를 튼 듯 드넓은 들판에 보일락말락 한 것은 회진(會津)의 한 굽이요 죽포(竹浦)의 반절 모습이다.

자리를 잡고 앉은 뒤에 곧바로 집사, 제생(諸生)과 인사를 나누고, 인사를 마친 뒤에 경건한 침묵 속에 기우문(祈雨文)을 지었다. 그 글을 가지고 재계목욕(齋戒沐浴)한 뒤에 베껴 쓴 자는 대축(代祝)을 맡은 송간 공으로 조심스럽게 일을 처리하였다. 밤 4경(更)에 함께 가마에 타고 오르고 올라 제사 지낼 곳에서 멈추니, 이전에 진설(陳設)한 자는 황전(黃戩)이며, 시종 집사(執事)를 맡은 이는 이희영(李希榮)이다. 알자(謁者)는 문관(文瓘)으로 나를 이끌고 들어가니, 몸을 굽히고 공경스럽게 바라보며 나아갔다. 최응현(崔應峴)이 봉로(烽爐)이며 그 좌우에서 봉향(奉香)을 맡은 이는 이옥(李沃)이다. 독축(讀祝)의 왼쪽에는 송간 공이 단정히 손을 맞잡고 있고 ‘배(拜)’와

‘흥(興)’을 여창(臚唱)¹³¹한 이는 통알(通謁)을 맡은 이해(李暎)이다.

제사를 마치고 구정봉으로 돌아와 쉬는데, 이때 노승 지현과 영언의 무리가 합장하면서 고하기를 “어제 우리 태수가 막 도착했을 때 하늘에서 곧바로 비가 내렸고, 한밤중이 되기 전에 또 비가 내렸으며 제사를 마치자 또 비가 내렸습니다. 비가 비록 조금 내렸지만 세 번 하늘이 감응하였으니, 어찌 우리 태수의 지극한 정성으로 이런 결과가 생긴 것이 아니겠습니까.”라 하였다. 내가 조심스럽게 대답하기를 “만약 정성의 깊고 얕음으로 비가 많이 내리거나 적게 내리는 것이라면 내가 여기에 도착한 뒤에 세 번 비가 내렸지만 모두 기왓장도 울리지 못하였으며 다만 안개나 이슬처럼 빗방울만 떨어졌을 뿐이니, 아마도 나의 정성이 얕아서 산신령이 응답한 것도 적은 것인가. 그러나 송간 공이 태수의 근심과 백성의 근심을 걱정하여 자신을 굽혀서 대신 축(祝)하였으니 해이지 않고 깊은 정성이 이처럼 단아하다면, 어찌 끝내 송간 공의 정성에 침묵하여 평평 쏟아지는 비로 응답하지 않겠는가. 지금부터 3일을 기다린다는 것이 제문에서 말한 내용이 아닌가.”라 하였다. 승려가 이에 일제히 대답하기를 “그렇습니다. 우리 태수의 말이 옳습니다. 지금부터 3일 안에 과연 평평 비가 쏟아진다면 비록 태수의 정성에 보답한다고 말하여도 괜찮고 비록 송간 공의 정성에 보답한다고 말하여도 또한 괜찮습니다. 백성들은 평평 쏟아지는 비에 즐거워할 것이니 태수인들 송간 공인들 무슨 상관이겠습니까.”라 하였다. 마침내 송간과 더불어 웃다가 함께 돌아왔다. 그 해의 달과 날은 계축년 7월 1일이다. 이에 기를 짓는다.

131 여창(臚唱) : 의식의 순서를 적은 것을 차례에 따라 소리 높여 읽는 것을 말한다.

천마산과 성거산¹³² 유산기 석주 권필이 평하기를 “경한(勁悍)하고 혈료(浹漻)하여 고아(古雅)한 법을 깊이 얻었다.”라 하였다.-

遊天磨聖居兩山記 -權石洲評曰 勁悍浹漻深得古雅之法-

더할 나위 없이 높고도 커서 사물이 그와 나란할 수 없는 것을 하늘[天]이라 이른다. 더할 나위 없이 신령스럽고 교화를 시켜서¹³³ 하늘과 더불어 공을 나란히 하는 것을 성인[聖]이라 이른다. 하늘과 성인은 천하에서 가장 높은데 이 두 산이 그것으로 이름 삼았으니, 두 산이 못 산과 구별되는 것은 설명을 하지 않아도 분명히 알 수 있다.

대저 어떤 산을 유람하는 자는 그 산에 난 길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고 어떤 산을 구경하는 자는 그 산의 경치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는데, 사람에 따라 흥취가 많고 적거나 깊고 얕으니, 어찌 즐기는 바가 나에게 있고 산에 있지 않으며 마음에 있고 눈에 있지 않음이 아니라. 어떠한 것을 즐기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인가를 판단한다면 또한 사람을 안다고 이를 수 있다.

막 도착했을 때 운거사(雲居寺)에서 유숙하였는데, 운거사는 오래된 사찰이다. 법전(法殿)이 높고 아름다운데 동서에 두 방이 있다. 계단 아래에 가로로 된 방이 있고 또한 별전(別殿)이 있는

132 천마산과 성거산 : 개성에 있는 산으로 천마산과 성거산 사이의 골짜기에 박연폭포가 있다.

133 신령스럽고 교화를 시켜서 : 《논어》〈학이(學而)〉의 집주에서 “성인이 지나가면 교화되고 계시는 곳은 신묘해지는 묘함을 엿보아 측량하기 어렵다.[聖人過化存神之妙 未易窺測]”라고 하였다.

데, 모두 매우 화려하여 볼만하다. 운거사에서 서쪽으로 5리 정도 들어가면 박연폭포가 있는데, 연못[淵]이 위아래로 있었다. 대개 박연폭포의 승경은 천하의 장관이고 사해에서 으뜸가니, 하나의 경치에 대해 정확하게 묘사하여 기리고 칭송하여서 그 형세를 드러낼 수는 없다.

아래 연못의 푸른 절벽은 검과 칼로 쪼개고 갈라놓은 것 같은데, 주위에 노을이 겹겹이 주름지고 안개는 갈라져 있으며 마치 담이나 병풍처럼 우뚝 솟았으니 높이는 수백 장(丈)이며 넓이는 수백 보(步)가 된다. 폭포는 맨들맨들 닳은 돌부리에서 떨어지는데, 돌부리가 매달린 곳은 절벽의 정중앙으로 나는 듯 쏜살같은 물줄기가 물살을 뿜어대며 우레처럼 쿵쾅거리고 번개처럼 부딪히니 마치 하늘이 열리고 노을이 떨어지며 구름이 걷히고 용이 드리운 듯한 장관으로 끝내는 웅덩이를 이뤄 연(淵)이 된다. 연못의 넓이는 겨우 수십 보(步)인데, 가득 차도 넘치지 않으며 물이 멈춰 나아가지 않으니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다. 생각해보니 이것을 일러 ‘바닥이 없다[無底]’고 하니, 곧바로 어두운 저승에 도달할 것이고 겉으로 머나먼 사해에 미칠 것이다. 연못의 밖은 흰 모래와 깨끗한 바위가 가득히 펼쳐지고 줄지어 있다. 취송(翠松)과 벽수(碧樹)가 성글게 심어져 골짜기에 그늘을 이룬다. 위아래를 살펴보기를 마치지 않아도 정신이 상쾌하고 뼈가 시원하니 신선과 더불어 청도(淸都)¹³⁴에 올라 즐겁게 노니는 것 같았다.

위의 연못은 성긴 바위 사이로 계곡물이 쏟아져 내리는데, 계곡물은 거울의 자루 같다. 그 물이 떨어져 마침내 오목하게 파여 연못이 되었다. 연못의 넓이와 길이는 바위의 모양을 따라 둥글

134 청도(淸都) : 하늘 위에 있는 상제(上帝)의 궁궐을 가리킨다.

거나 네모져 있는데, 바위는 쟁반처럼 둥글고 깎아서 다듬은 것처럼 평평하며 가운데 깊은 곳은 바리때 같고 바깥의 둥근 테는 맷돌 같다. 또한 바리때 안에 똑바로 서 있는 표석(表石)이 있으니 물이 표석을 옥가락지처럼 돌아나가는데, 맑고 푸른 빛이 어려 귀신이 모아둔 물인가 의심이 든다. 그 깊이를 비록 헤아릴 수는 있지만 낮이 놀라고 간담이 떨려 굽어볼 수가 없다. 그때 떨어진 잎이 물에 빙빙 떠도는데, 새가 물고기가 다 바람에 떨어뜨릴 정도이니 더 이상 조금도 머물 수가 없었다. 백성들이 홍수나 가뭄을 들 때 재계하고 경건하게 기도를 드리면 날이 개거나 비가 내림을 곧바로 응하지 않음이 없으니, 어찌 이른바 신룡이란 것이 그 안에 터를 잡고 굴(窟)로 삼은 것이 아닌가.¹³⁵ 웅덩이를 채우고 넘치는 물보라는 맨들맨들한 돌부리에 붙어서 낙하하여 폭포가 되니, 이것이 아래 연못보다 더욱 기이한 모습이다.

그 곁에 괴이한 바위와 기괴한 벼랑이 교대로 우뚝 서거나 서로 웅크리고 있는데, 기다란 소나무와 짧은 단풍나무가 푸른 일산을 드리운 듯 붉은 우산을 펼친 듯하다. 이에 골짜기의 비단 같은 화려함과 봉우리의 능라 같은 채색이 연못 안에 모두 어지럽게 거꾸로 비추는데, 앉아서 고개를 돌리기도 전에 모골(毛骨)에 시원한 바람이 이니 마치 날개가 돌아 날아올라 한문(寒門)을 밀치고 여러 제왕을 바라보는 것 같으니, 두려움에 눈도 뜨지 못하여 오래 머물 수 없었다.

곧바로 연못을 떠나 계곡을 따라 올라가니 마치 화가 나고 싸우는 듯한 바위가 계곡 옆으로 우뚝 솟아 있는데, 그 솟자를 헤아릴 수 없었다. 거북이 같고 양 같으며 또는 곰이나 표범, 사자 같

135 위의 연못은…아닌가 : 권1 고시(古詩) 〈박연폭포〉 참조.

은 바위가 그 사이에 있는데, 바위의 높낮이를 따라 계곡물도 깊거나 얇았다. 앉을 만하거나 완상할 만하거나 손으로 쓰다듬거나 기대거나 바라볼 만한 바위들이 열 걸음에 8, 9개나 되니, 좌우에 따라오는 자들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서로 재촉하지 못하고, 앉으면 설 것을 잊고 서면 걸을 것을 잊으며 걸을 때는 앞길로 나아갈 것을 잊었다.

계곡을 자세히 구경하면서 겨우 5리쯤 가니 관음암(觀音庵)이 나왔는데, 작았지만 오래되었다. 암자의 왼쪽에는 굴이 있는데, 대단히 기이하고 험준하니 관음굴(觀音窟)이라 부른다. 굴의 높이와 넓이는 십여 명의 사람이 앉고 설 수 있으며, 위아래와 세 옆 면은 모두 바위이다. 굴 뒤쪽에는 두 개의 불상이 있으니 가부좌를 틀고 남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둘 다 바위를 깎아 형상을 새겼다. 바위는 대단히 맑고 깨끗하여 보배로 삼을 옥 같은데, 공교롭고 오묘하게 깎아 마치 귀신이 새긴 것 같다. 또한 바위에 나한상 8, 9개를 좌우에 새겨 벌여 놓았으며, 그 벽에는 명현들이 손수 새긴 글씨가 많이 있었다.

암자의 서쪽으로 겨우 2, 3리쯤 가면 태종대(太宗臺)라는 바위가 있는데, 넓이는 백여 명의 사람이 앉을 수 있으며 바닥은 마당처럼 평평하다. 가운데 구멍 하나가 있으니 바로 용기(龍旗)가 서있었던 흔적이다. 앞에는 큰 바위가 있으니 우뚝 웅크린 모습이 마치 호랑이 같다. 시원한 여울물이 졸졸거리며 바위 위를 흘러 쏟아지는데, 깊은 곳은 담(潭)이 되고 얇은 곳은 간(澗)이 된다. 태종대에서 굽어보면 곡수(曲水)에 잔을 떠올 수 있는데,¹³⁶ 더없

136 곡수(曲水)에…있는데 : 불구불 굽이져 흐르는 물에 술잔을 띄워 차례로 마시며 노는 것을 의미한다. 왕희지(王羲之)의 <난정기(蘭亭記)>에서 나온 말로, 회계(會稽) 산음(山陰)의 난정(蘭亭)에서 42인의

이 맑고 깨끗한 계곡은 아득히 바위가 펼쳐진 사이로 물이 흐르는 단구(丹丘)¹³⁷와 같으니, 그 경치는 형용하기 어려워 만분의 일도 그려내기 어렵다. 대개 고려의 태종이 이 바위를 좋아하여 이곳에 와서 노닐었으니, 바위는 그 때문에 이름 지어졌다.

구경을 마치지 못하였는데 홍망에 대한 감개가 일어 오래 머물 수 없었다. 곧바로 태종대를 내려와 길을 찾아 나서서 두어 리도 못가서 마담(馬潭)이 나왔는데, 담은 매우 기이하였다. 큰 바위가 3, 40보 정도 펼쳐져 있는데, 높은 곳에서 점점 아래로 기울었으며 마치 기름을 바르고 부은 듯이 물기가 많아 미끄럽고 위험하여 서서 똑바로 걷지 못하였다. 계곡물이 위로부터 중간을 지나 떨어지는데 물보라를 일으키며 쏟아져 폭포가 되었다. 폭포의 높이는 8, 9장(丈)으로 물이 떨어져 하나의 담(潭)을 이루는데,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다. 그 웅장하고 절묘한 경관은 박연폭포와 백중(伯仲)을 이루는데, 박연폭포가 없다면 이를 박연폭포라 하였을 것이다. 층층의 위태로운 바위가 앞뒤로 줄지어 아름다움을 드러낸 것은 일일이 설명할 수 없다.

마담을 거쳐 위로 두어 리를 올라가면 기담(妓潭)이 나온다. 깎인 바위가 병풍을 이루는데, 병풍을 열어젖히고 물이 모여 있다가 팔팔 벼랑을 따라 떨어져 웅덩이가 되어 깊은 못(潭)을 이루니 그 깊이는 1, 2장(丈) 정도 된다. 일찍이 아름다운 여인이 이 바위에서 노닐다가 갑자기 물에 떨어져 죽어서 이런 이름을 지니게 되었다고 한다. 그 광경을 상상하니 그 요염함을 그려볼 수 있다. 기담을 거쳐 위로 두어 리를 올라가면 넓은 바위가 평평하

명사(名士)들이 모여 계사(禊事)를 행하고 유상곡수(流觴曲水)를 하고 시를 지으며 성대한 풍류를 즐겼다고 한다.

137 단구(丹丘) : 신선이 산다는 전설 속의 지명이다.

게 펼쳐져 있는데 기울어져 있어도 위태롭지는 않으며 반들반들 하지만 미끄럽지는 않으니 4, 50명의 사람이 앉을 수 있다. 얇은 여울이 곁에서 쏟아지는데 마실 수 있고 양치할 수 있으며 빨래를 할 수 있다. 그 곁에는 고목이 거꾸로 누워 계곡에 드리웠는데, 생선의 비늘과 말갈기 같은 줄기의 껍질이 한껏 돌아 있어서 마치 구불구불한 고룡(古龍)이 머리를 들고 육지에서 일어나는 것 같다. 바위 면에서 백 보를 채 못가 암자가 있으니 ‘대흥암(大興庵)’으로, 맑고 삼삼함이 즐길 만하다. 암자에서 나와 곧바로 3~4리를 올라가면 적멸암(寂滅庵)이 나오는데, 벽돌을 포개어 담장을 쌓고 벽돌을 두루마리로 삼아 종횡으로 그림을 그렸으며 범자(梵字)의 진언(眞言)¹³⁸을 줄지어 썼으니 기이하고 고아하여 볼만하였다. 담장 너머에는 늙은 전나무[檜]가 곧장 구름 이는 하늘에 닿는데, 높이는 수백 심(尋)¹³⁹으로 그 크기가 걸맞으니 다른 산의 평범한 나무와 비교할 수 없다. 담장과 전나무는 대개 나옹화상이 심고 쌓았다고 한다.

그 암자는 난리 뒤에 비로소 증진하였는데 매우 아름답고 삼삼함이 여러 암자 중에 으뜸이다. 불전(佛殿)은 금빛과 푸른색이 현란하여 용의 비늘처럼 서로 밝게 비추는데,¹⁴⁰ 발을 옮겨 조용히 걸어가니 마치 유리 보물을 밟는 것 같다. 불상 뒤의 한 방은 소요함이 신선의 방 같으니, 거닐면서 앉았다 일어나는 동안에 세속의 생각이 연기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짐을 느꼈다. 너른 승복

138 진언(眞言) : 불교에서 신비하고 영적인 능력을 가진다고 생각되는 신성한 말을 가리킨다.

139 심(尋) : 1심은 여덟 자이다.

140 용의...비추는데 : 사마상여 <자허부>에서 “용의 비늘처럼 밝게 빛난다.(明爛龍鱗)”라 하였다.

을 입은 늙은 선사가 불경을 안고 졸고 있으니, 이 사람 이외에 다른 승려는 없다.

암자에는 동대(東臺)가 있는데 동대는 비할 데 없이 가장 높고 시야가 트여, 올라가서 조망하는 통쾌함이 나는 신선보다 시원하였다. 수많은 봉우리와 골짜기가 사방에 펼쳐있는데, 구름 같고 노을 같으며, 비단의 수 같고 쪽진 머리 같으며, 사람이 껴안 듯 새가 할퀴는 듯, 짐승이 움직이는 듯 새가 쉬는 듯, 호랑이와 범이 엮드리고 물고기와 용이 선 듯한 모습들이 한번 바라보는 사이에 온갖 기교를 다투니, 어릿하고 아득하여 영혼과 정신이 흩어져 버리니 확실하게 가리킬 수 없다. 그러나 여러 봉우리보다 가장 우뚝 솟아 있는 것으로 동쪽에는 개성봉(開聖峰)이 있고, 남쪽에 지장봉(知藏峰)과 인달봉(仁達峰)이 있으며, 북쪽에는 정광봉(定光峰)이 세 봉우리로 갈라져 나란히 서 있다. 또한 보선봉(普善峰)이 있는데, 봉우리 아래에 암자가 있으니 이를 보선암이라 부른다. 암자는 반은 허공에 있으니 아득하여 찾기 어렵다.

적멸암에서 서쪽으로 오르다가 내려가면 지족암(知足庵)이 나오는데, 이 암자의 절경은 형용하기 어렵다. 대개 그 형세는 동쪽으로 여러 봉우리를 등지고 서쪽으로 너른 바다를 마주하고 있으니, 당(堂)에 오르면 시야가 상쾌하여 눈에 거리끼는 게 없다. 다만 태양이 서쪽 바다로 떨어질 때¹⁴¹ 금 기둥이 만 길로 솟으며, 구름 빛과 바다의 색이 끝도 없이 그 모습을 변화하였다. 사방을 우러러보고 굽어보니 이 몸이 속세 멀리 법천(法天)에 올라 부처의 도를 꿰뚫은 것 같았다. 넓은 들은 솟돌 같아 바닥이 없는 곳에 서 있노라니 두려운데, 높이는 백 심(尋) 넓이는 백여 보로 열

141 다만…때 : 원문은 ‘唯有日東投穴’인데, 중앙국립도서관본에 근거하여 ‘東’을 ‘車’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아름 정도 되는 은행나무 한 그루가 비탈진 돌계단을 보호하고
 서 있었다. 가지 사이로 찬바람이 항상 뒹뒹거리는데 바람이 불
 지 않아도 서늘하니 상쾌하다고 하겠다. 불우(佛宇)에는 금색과
 푸른색이 영롱하며, 별전의 계단은 높다라니 귀신이 만든 것처럼
 위태로워 형상하기 어렵다. 지족암은 적멸암과 서로 자웅을 겨뤘
 갑을(甲乙)을 다툰 만한데 드높아서 시야가 트인 것은 더 낮다.
 많고 적은 봉우리들이 엇갈려 빼어난 것은 다 기록할 수 없는데,
 동쪽으로는 지족봉(知足峰)과 보현봉(普賢峯), 북쪽으로는 미국
 봉(彌鞠峰), 남쪽으로는 철마봉(鐵馬峰)과 청령봉(淸泠峰), 송악
 봉(松岳峰)과 법왕봉(法王峰), 서쪽으로는 낙월봉(落月峰)이며 안
 산에 자리잡은 것은 필첨봉(筆尖峰)이다. 이 암자에는 승려 한 명
 만 거주한다. 대개 천마산의 지세는 여기에서 마쳤다.

다음날 지족암 동쪽으로 나뭇가지를 부여잡고 오르고 올라 힘
 준한 곳을 지나고 깊숙한 곳을 넘어 힘들게 길을 찾아 반나절을
 오르내렸다. 숲이 뿔뿔하여 15리 정도는 하늘을 볼 수 없었으니
 간신히 현화사(玄化寺)에 도착하였다. 절은 도적의 방화에 타버
 렸고 남은 터는 잡초에 파묻혔다. 한 노승이 전각 하나를 다시 짓
 고 있는데, 공사를 마치지 못하고 아직도 목수를 모으고 있었다.
 이전 터를 닦을 생각인데 노승에 대해 무모(無謀)하다고 이를 만
 하다. 절 밖에는 바위 거북이 비석을 짊어지고 엎드려 있으니, 바
 로 고려의 학사인 주저(周佇)¹⁴²가 지은 글이다. 뜰에는 부서진 석

142 주저(周佇) : 주저는 고려 전기의 중국계 귀화인이다. 비문은 곧 현화
 사의 창건에 관한 시말을 기록한 것인데, 원래의 제목은 <영취산대
 자은현화사지비명(靈鷲山大慈恩玄化寺之碑銘)>인바, 당시의 문신으
 로 문장에 능했던 주저(周佇)가 짓고, 역시 당시의 문신으로 글씨에
 능했던 채충순(蔡忠順)이 썼다고 한다.

탑이 있으니 바로 화주승 수견(壽堅)이 세운 것이다.

현화사로부터 동쪽으로 5리쯤 가니 바위 고개가 하늘에 닿을 듯 솟아 날짐승과 들짐승도 다니지 않는 곳이니, 그 험준함은 듣기만 하여도 사람들은 머리가 세질 정도이다. 그러나 고개[巔]를 똑바로 마주하고 개미와 자벌레처럼 딱붙어서 나무와 풀을 부여 잡고 오르니 땀은 쏟아지고 눈은 아찔하여 열 걸음에 아홉 번은 넘어졌다. 한참 후에 비로소 정상에 올랐다. 정상에서 곧장 내려와 화장사(花藏寺)로 들어갔다. 절은 서역승 지공(指空)이 창건하였는데, 병란의 화재를 겪었지만 오히려 우뚝하니 영이(靈異)하고 장엄(莊嚴)하다고 하겠다. 법전은 환하게 트이고 드넓으며 단청은 아름답고 선명하니 마치 상계(上界)에 있는 듯 숙연하고 귀신 세계처럼 엄숙하여 두려움에 오래 서 있을 수가 없었다.

동쪽에 선왕(先王)의 화상을 모신 어용전(御容殿)이 있고, 전각의 동쪽에 또 나한전(羅漢殿)이 있다. 서쪽에는 승당(僧堂)이 있는데, 넓이는 백여 간(間)으로 당에는 지공의 법상(法像)이 있다. 또한 여러 요사(寮舍)가 있는데, 중첩하여 만들어 간(間)이 줄지어 있다. 종을 매단 누각은 높고 시원하며 우뚝한 곳에 자리 잡았으니, 올라가서 사방을 돌아보매 시야에 막히는 것이 없었다. 종루에서 내려오면 왜나무 뜰이 넓게 펼쳐져 있는데, 사방을 둘러보면 더욱 드넓다. 주위 구경을 마치기 전에 승려가 무릎 꿇고 상자 하나를 올리니 이에 곧바로 자물쇠를 열고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패엽경(貝葉經)》과 단향목의 상서로운 향(香)이 들어있었는데, 모두 서천(西天)에서 생산되어 지공이 손수 담아둔 것이니 참으로 기이하고 현묘하다. 절에서 옛날 길을 따라 다시 현화사로 돌아와 그곳에서 유숙하였다.

다음날 현화사에서 5리쯤 가니 험준하고 드넓은 곳을 만났는

데, 발이 후들거리고 멍침멍침하며 숨이 막히고 눈이 어쩔함은 화장사의 바위 고개를 넘을 때보다 심하였다. 반절도 채 오르기 전에 두려움과 걱정으로 한참 동안을 오도 가도 못하고 당황한 상태로 있었다. 그러다가 용기를 내서 바위틈을 손끝으로 잡고 매달려 올라가거나 벼랑을 무릎으로 기어 아주 조금씩 올라갈 즈음에 북쪽으로 성거산의 작은 암자를 바라보았다. 암자는 천봉(千峯)의 정상 절반쯤에 있는데, 창에 구름이 덮여 그윽하고 문에 안개가 끼어 고요하였다. 붉은 기둥과 채색한 주춧돌이 바위틈으로 보일락말락 하는데, 목을 빼어 바라보니 신선이 사는 집 같았다.

하루 내내 고생하면서 겨우 바위 하나 올랐는데, 그 이름은 차일암(遮日巖)이었다. 저 멀리 하늘의 틈새가 갈라져 보이고 산봉우리는 구름 끝에 걸려 있다. 머리를 들어 손을 휘두르면 북극성을 잡을 것 같으며 천지사방과 팔방을 환하게 볼 수 있었다. 대개 성거산의 산세는 이곳에서 다한다. 차일암에서 서쪽으로 겨우 5리 정도 내려가니 기울어진 벼랑이 땅에 백여 보쯤 펼쳐져 있는데, 두꺼운 바위와 삐죽한 돌이 뒤섞여 흩어져서 물이 그 사이로 흐른다. 물은 벼랑 입구에 모이는데 알아서 세차게 흐르지 못하니 수많은 낙엽이 계곡 바닥에 쌓여 물길을 막고 있다. 이에 여러 승려와 함께 손으로 물길을 내어 그 여울을 흐르게 하니 물살이 급하게 벼랑으로 떨어지는데 마치 병을 거꾸로 세워 부은 것 같다. 이에 어지러이 흩어져 있던 붉은 낙엽들이 물결을 따라 마치 구슬을 켜 듯 생선을 나란히 엮은 듯 흘러서 차례대로¹⁴³ 급류에 매달려 떨어지는데 서로 바라보고 웃으며 구경하니, 한가로운 가

143 차례대로 : 원문은 ‘次茅’인데, 국립중앙도서관본에 근거하여 ‘茅’를 ‘第’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운데 기이한 운치라 하겠다.

물길을 따라 곧바로 두어 리를 내려가니 커다란 바위 하나가 나왔다. 앞은 네모지고 뒤는 뾰족하여 만 곡(斛)을 실을 만한 배 모양으로 동문(洞門)에 외떨어져 있으니, 완전히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에서 솟아나서 귀신이 보호하고 지켜 오랜 세월을 지내온 것 같다. 이에 조물주가 만들어 낸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기이하며 무궁무진한 가운데 지극히 공교로운 것을 숨겨두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주암(舟巖)을 지나 두어 리를 가니 승려 10명의 무리를 이끈 한 노승이 의복을 단정히 차려입고 서서 우리가 오는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모두가 다 아는 얼굴로 그들과 함께 돌아온 곳은 실로 운거사(雲居寺)였다.

아! 처음에 산에 오르기 전에 이곳에서 유숙하였는데 끝날 때 이미 산에 오르고 난 다음에도 이곳에서 유숙하니, 이곳은 시종(始終)의 문이요, 본말(本末)의 길이라 할 수 있다. 산을 오르기 전에는 뜻을 품고 묵묵히 기도하며 맑은 생각으로 엄숙하고 경건하여 잠에서 깨거나 잠이 드나 항상 산신령과 그윽하고 어두운 곳에서 서로 접하는 것 같았으니, 바로 이 절이었다. 이미 산에 올랐다가 내려왔는데, 마음이 눈과 경영하고 뜻이 정신과 도모하여 산신령, 지신(地神)과 함께 이 지역 안에서 드넓게 유람하며 신선, 승려와 함께 세속 밖에서 상쾌하게 즐긴 곳도 바로 이 절이었다.

그렇다면 높여서 사모해야 할 대상으로 하늘[天]과 성인[聖]보다 더한 것이 없는데 내가 이 산에서 유람한 뒤로 영대(靈臺, 마음)가 막힘없이 환하여 성인의 흥중과 차이가 없고 담박(澹泊)하고 고요하여 묵묵히 하늘과 더불어 노닐었으니, 내가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친 것은 이 두 산의 도움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산이 이 이름을 얻은 것은 다만 절로 못 산과 구별되어서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권면하여 이 산에 오르게 하려는 것일 것이다. 이 산의 길을 가고 이 산의 경치를 구경한 사람을 고금에 어찌 한정(限定)할 수 있으랴만, 그 흥금이 쇠락(洒落)하고 맑고 드넓어 산의 운치를 함께 즐기기에 또한 나만한 사람이 있겠는가. 아아, 하늘과 성인은 법으로 삼아 배울 수 있으니, 이 산에서 시작하여 이 산으로 돌아오면서 산의 운치를 찾고 산의 이름을 궁구한다면 그에서 멀지 않을 것이다.

나를 따라 유람한 자는 조카 전(僣)과 칙(弼) 두 사람이며, 박생(朴生) 형제 두 사람이며, 우봉의 젊은 선비 최 아무개 한 사람이며,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며 길을 안내한 자는 우봉 관아의 아전인 이희주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게으르지 않고 나의 가마를 어깨에 맨 자는 운거사에 거주하는 법찬(法瓚) 승려이다. 그리고 대성(大成), 지경(持敬), 혜일(惠一), 신혜(信惠), 해인(海仁), 법행(法行), 쌍운(雙允), 능인(能印), 지진(智眞), 신준(信準) 등이 나를 따랐다. 그 해와 달과 날은 만력 을사년 9월 7일이다. 이에 기를 짓는다.

백이가 명성을 위해 죽었다는 것에 대한 설

伯夷死名說

객이 나에게 힐난하기를 “하나가 주(主)가 되고 하나가 빈(賓)이 되면 명성과 실질이 그에 뒤따릅니다. 그러므로 주(主)를 숭상하고 빈(賓)을 물리치는 것은 성인의 가르침이요, 실질을 귀하게 여기고 명성을 천하게 여기는 것은 달사(達士)의 논의입니다. 저 이른바 백이라는 자는 주(主)를 숭상하였습니까, 실질을 귀하게 여겼습니까. 주(紂)가 폭정을 휘두른 때를 당하여 기약하지 않고 팔 백 명의 제후가 모여 천명을 받들어 독부(獨夫)를 죽였습니다.¹⁴⁴ 천지가 용납하지 않고 신령과 사람이 대단히 통쾌하게 여겼습니다. 기혈(氣血)을 지녀 소리를 내는 모든 사람이 목을 빼고 주(周)나라를 종주(宗主)로 삼지 않음이 없는데, 저 백이란 자는 홀로 어떠한 사람이기에 주나라의 곡식을 먹지 않는 것으로 의리를 삼아 서산에 올라가 굶주리다 죽었으며, 노래를 불러 주(紂)의

144 주(紂)가…죽였습니다 : 《사기》〈제태공세가(齊太公世家)〉에, “마침내 맹진(盟津)에 이르니, 약속하지 않았는데도 모인 제후가 팔백 명이였다.” 하였고, 독부(獨夫)는 하늘도 버리고 백성도 버려 외롭게 된 통치자라는 뜻인데, 《서경(書經)》 태서 하(泰誓下)에 폭군 주(紂)를 독부로 명명하고 그의 죄악상을 나열한 내용이 나온다.

죽음을 슬퍼하였습니까.¹⁴⁵ 그의 죽음은 이른바 명성을 위해 죽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실질을 물리치고 명성을 위해 죽은 것이 이처럼 분명한데 오히려 의로운 선비라는 명성을 받고 있습니다. 백이란 자는 명성을 위해 죽고 실질을 물리친 자라고 이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라 하였다.

내가 조심스레 답변하기를 “그대의 힐난은 옳으며, 그대의 논설은 맞습니다. 그러나 빈(賓)과 주(主)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지위이며, 명성과 실질은 한 개의 사물입니다. 어찌 같은 한 개의 사물로 서로 다른 지위를 귀하게 여긴단 말입니까.”라 하였다.

객이 “어찌하여 한 개의 사물이라 이름니까.”라 묻자, 나는 “실질이 있으면 명성은 참으로 그를 뒤따르니, 명성과 실질은 다만 하나이면서 둘이요, 둘이면서 하나입니다.”라 대답하였다. 다시 객이 “어떻게 그것을 밝힐 수 있습니까.”라 묻자, 나는 “요임금과 순임금이 천하를 다스릴 때 ‘높고도 높으며 크고 넓어’¹⁴⁶ 억지로 하는 것이 없이 교화한 실질’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높고도 높

145 백이란…슬퍼하였습니까 : 백이 숙제가 부른 <채미가(採薇歌)>로, 그 가사를 들어보면 “저 서산에 올라가서, 고사리를 캐도다. 폭력으로 폭력과 바꾸면서, 제 잘못을 모르도다. 신농과 우하가 이제는 없으니, 나는 어디로 돌아가나.[登彼西山兮, 採其薇矣。以暴易暴兮, 不知其非矣。神農虞夏忽焉沒兮, 我安適歸矣。]”라 하였다.

146 요임금과…넓어 : 《논어》<태백(泰伯)>에 “위대하시다, 요 임금의 임금 노릇 하심이어! 높고 크다, 오직 하늘이 위대하시거늘 오직 요 임금만이 그와 같으셨으니, 그 공덕이 넓고 넓어 백성들이 형용하지 못하는구나. 높고 큰 그 공이어, 찬란한 그 문장이여! [大哉, 堯之爲君也! 巍巍乎唯天爲大, 唯堯則之, 蕩蕩乎民無能名焉, 巍巍乎其有成功也, 煥乎其有文章!]”라고 하였다. 또한 같은 곳에서 공자가 순 임금을 두고 말하기를 “외외하도다! 순 임금과 우 임금이 천하를 가졌으나 간여하지 않으심이어. [巍巍乎 舜禹之有天下也而不與焉]”라고 하였다. 《論語 泰伯》

으며 크고 넓어 억지로 하는 것이 없이 교화하였다’는 명성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우임금과 탕임금, 문왕과 무왕 및 주공과 공자는 ‘근검과 인외와 원성(元聖)과 장성(將聖)의 실질’을 지녔습니다. 그러므로 ‘근검과 인외와 원성과 장성이라는 명성’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임금과 순임금이 억지로 하는 것이 없다는 명성을 위해 죽었다고 말하는 것이 옳습니까. 우임금과 탕임금, 문왕과 무왕 및 주공과 공자가 근검과 인외와 원성과 장성의 명성을 위해 죽었다고 말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렇다면 백이가 의리를 위해 죽은 것이지 명성을 위해 죽은 것이 아님을 이로부터 알 수 있습니다. 아! 백이의 죽음은 이처럼 의로운데 우리 그대가 억지로 명성을 위해 죽었다고 책망하니, 만일 그대의 논의를 끝까지 진전시켜서 책망하기를 멈추지 않는다면 저 성인인 요임금·순임금·우임금·탕왕·문왕·무왕·주공·공자 등도 모두 명성을 위해 죽었으며 그 실질과 어긋난다는 것입니까. 그대가 말한 명성과 내가 말한 실질이 빈(賓)과 주(主)가 되지 않으며 거짓과 참이 아니라고 어찌 확신하겠습니까. 그대는 장자의 명성¹⁴⁷으로 나의 실질을 어지럽히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라 대답하였다. 이에 객은 웃으면서 떠났다.

147 장자의 명성 : 《장자》〈소요유〉에서 요임금과 허유의 대화에서 명목과 실질에 대해 토론하였다.

대은은 마음을 숨긴다는 것에 대한 설

大隱隱心說

이름은 숨길 수 있어도 자취는 숨길 수 없으며 자취는 숨길 수 있어도 마음은 숨길 수 없는데, 크게 숨은[大隱] 자는 어떻게 마음을 숨겼는가. 다만 저 소부(巢父)와 허유(許由), 변수(卞隨)와 무광(務光)¹⁴⁸ 등은 그 이름을 숨겼지만 이름이 더욱 높아졌으며, 장저(長沮)와 곁닉(桀溺)과 사양(師襄)¹⁴⁹ 등은 자취를 숨겼지만 자취가 더욱 드러났다. 그렇다면 이름은 참으로 숨길 수 없으며, 자취는 참으로 숨길 수 없다. 이른바 은자라는 것은 세상에 드러날 따름이다. 그렇다면 마음을 숨겨 드러나지 않아서 대은(大隱)이 된 자는 아니 어떠한 사람인가.

만일 지혜를 숨겨서 어리석은 것처럼 행동하면 어리석음으로 드러나고 공교로움을 숨겨서 졸렬한 것 같이 행동하면 졸렬함으로 드러나며 성스러움을 숨겨서 미치광이처럼 행동하면 미치광이로 드러난다. 무슨 말인가. 백리해(百里奚)가 우(虞)나라에 거처할 때 어리석음으로

148 소부(巢父)와…무광(務光) : 소부와 허유는 요임금 때의 은사(隱士)로, 요 임금이 일찍이 그들에게 천하를 선양하려고 하였으나, 듣지 않고 산으로 들어가 은거하였다. 변수는 하(夏) 나라 때의 고사(高士)이며, 무광은 은(殷)나라 탕왕(湯王) 때의 선인(仙人)이다.

149 장저(長沮)와 곁닉(桀溺)과 사양(師襄) : 장저와 곁닉은 춘추 시대 초나라의 은사(隱士)이고, 사양은 주(周)나라의 악사(樂師) 양(襄)으로, 주나라가 쇠미해지자 섬으로 들어가 은거하였던 사람이다.《論語 微子》

이름이 났고,¹⁵⁰ 대장(大匠)이 소매 안에 손을 넣고 있으니¹⁵¹ 졸렬함으로 이름이 났고, 기자(箕子)가 세상을 피할 때 미치광이로 이름이 났으니, 이들은 모두 그 마음을 숨기려고 하였으나 이름이 더욱 드러났다. 사람들은 그들이 마음을 숨기려는 것을 알고 있으니, 이것이 과연 마음을 숨긴 것인가, 이것이 과연 마음을 숨겨서 대은(大隱)이 된 것인가. 반드시 그 지혜를 알지 못할 정도로 어리석게 행동하고 그 공교로움을 알지 못할 정도로 졸렬하게 행동하고 그 성스러움을 알지 못할 정도로 미치광이로 행동한 연후에 바야흐로 마음을 숨긴 대은(大隱)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지혜롭지도 않고 어리석지도 않으며, 공교롭지도 않고 졸렬하지도 않으며, 성스럽지도 않고 미치광이도 아니어서 살아서도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고 죽어서도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할 정도가 되어야 바야흐로 마음을 숨겼다고 이룰 수 있다. 천하 고금에 이와 같은 사람을 어찌 한정(限定)하랴마는 세상에서 기록하지 않고 사서에 쓰지 않으니 후세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들어서 알 수 없다. 그렇다면 일부러 숨은 것인지 숨지 않은 것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는가. 만일 숨는 정도를 끝까

150 백리해가…났고 : 백리해는 진(秦)나라 목공(穆公)을 도와 패업(霸業)을 이룬 인물이다. 처음 우(虞)나라의 대부(大夫)로 있을 적에, 진(晉)나라가 우나라의 길을 빌려 궤(虢)를 치려고 할 적에, 궁지기(宮之奇)는 길을 빌려줄 수 없다고 간하였으나 백리해는 간해 봐도 소용이 없음을 알고 간하지 않았다. 결국 우나라가 진나라에게 망하게 되자 진나라 목공이 초빙하여 패업을 이루었다. 《孟子 萬章上》

151 대장(大匠)이…있으니 : 한유(韓愈)의 제유자후문(祭柳子厚文)에, “다른 사람들은 나무를 잘 깎지 못하여 손가락을 다쳐 피가 흐르고 얼굴에는 땀을 뻘뻘 흘리는데, 뛰어난 장인은 도리어 소매 속에 손을 넣고 곁에서 구경만 하고 있었다.[不善爲斲 血指汗顏 巧匠旁觀 縮手袖間]”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지 확충하도록 책임을 지운다면 밭에서 힘써 농사지어 그 고을에서 늙어 죽어도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한다면 마음을 숨긴 것에 가깝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면 어리석은 백성¹⁵²들조차도 모두 마음을 숨겼다고 할 수 있는가. 그러므로 ‘마음을 숨긴 자는 마음을 드러낸 자’라 말할 수 있다.

공자는 “나는 숨긴 것이 없다.”¹⁵³라 하거나 또는 “행동은 엄격하게 하되 말은 공손하게 해야 한다.”¹⁵⁴라 하거나 또는 “그 침묵은 용납될 수 있다.”¹⁵⁵라 하였는데, 만약 마음에 숨긴 것이 없는데 더욱 공손하게 말하여야 하고 공손함도 부족하여 또다시 침묵해야 한다면, 이는 그만두어야 하니 이 어찌 그 마음을 숨긴 것이랴. 대저 용이 연못에 숨어 있을 때 그 자취를 숨길 따름이요, 변화하여 우레와 비를 내리는 마음은 참으로 숨기지 않았다. 군자가 세상에 숨거나 나아가는 것이 용과 같지 않은가. 그렇다면 마음을 숨겼다고 하는 것은 마음을 숨긴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을 속인 것이다. 어찌 군자가 되어 자기의 마음을 속이는가.

152 어리석은 백성 : 원문은 ‘慝之蚩蚩者’인데, 중앙국립도서관본에 근거하여 ‘慝’을 ‘戢’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153 나는…없다 : 《논어》〈술이(述而)〉에, 공자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숨기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너희들에게 숨기는 것이 없다.[二三子 以我爲隱乎 吾無隱乎爾]” 하였다.

154 행동은…한다 : 《논어(論語)》헌문(憲問)에 “나라에 도가 행해질 때에는 말과 행동을 모두 준엄하게 해야 하나 나라에 도가 행해지지 않을 때는 행동은 준엄하게 하되 말은 낮춰서 해야 한다.[邦有道 危言危行 邦無道 危行言孫]”고 하였다.

155 그 침묵은…있다: 《중용장구》 제27장에 “나라에 도(道)가 있을 때에는 그 말이 흥기(興起)시킬 수 있고, 나라에 도가 없을 때에는 그 침묵이 몸을 용납할 수 있다.[國有道其言足以興 國無道其默足以容.]”라는 말이 나온다. 자사의 말인데 현주는 공자의 말로 인용하였다.

혀로 글을 짜는 것에 대한 설

舌織說

직조라는 직업은 기교도 갖추어야 하면서 힘이 든다. 베틀이 있어야 하고 북[杼]도 있어야 하며 명주실과 삼실, 길쌈하는데 필요한 도구가 있어야 한다. 그런 후에 길쌈하는 여인이 비로소 베틀에 올라가 일을 한다. 손으로 올리고 발로 눌러 날실을 넣은 북을 좌우로 들어 올리고, 쇠꼬리 끈을 잡아당겨 수직으로 열고 닫아 무명베와 비단을 만들고 능라 비단, 수놓은 비단을 만들어 피륙을 생산한다. 일을 마치면 잘라서 옷을 만들어 사람들이 입게 만드니, 그 노고가 이와 같다.

자안(子安) 왕발의 직조는 이와 다르다. 베틀도 없고 북도 없으며 손을 올리거나 발로 누르지 않지만, 새벽부터 밤까지 흔들거나 밤낮으로 두드리는 것은 다만 세 치 혀인데, 무명베와 비단과 능라와 수놓은 비단 등이 절로 문장에 입혀져 넉넉하니, 어찌 그리 수고로움은 지극히 적은데 혀에 의해 생산된 것은 지극히 넓은가. 이로써 본다면 선비가 직조에 공교로운 것이 길쌈하는 여인보다 훨씬 뛰어나다. 그러나 자안의 수고로움은 오로지 혀에 있기에 오히려 자취가 있으니, 옷은 입고 음식은 먹고 산다. 성인의 수고로움은 오로지 마음에 있기에 천지를 씨줄 날줄로 경영하여 천하 사해의 만종(萬鍾)의 봉록이 뒤따르니, 의식(衣食)과 같이 허찮은 것은 말할 것이 없다. 그러므로 나는 “손의 공교로움은 혀의 공교로움만 못하고, 혀의 공교로움은 마음의 공교로움만 같지 않다.”라 한다.

돼지 우리에 대한 설

圈豚說

집에서 기르는 가축은 여섯 가지가 있는데, 돼지도 이에 속한다. 돼지의 성질은 코를 잘 이용하여 흙을 파서 먹이를 찾으며 불결한 곳을 대단히 좋아한다. 모래와 돌을 빼고는 못 먹는 것이 없다. 다만 배를 채우는 데에만 힘쓰며, 배가 한껏 부풀어 불룩한 뒤에 땅에 드러누워 자다가 조금 지나면 또 처음처럼 두리번거린다. 낮에는 정원이나 채마밭에서 주둥이로 흙을 후비고 밤에는 항아리나 소반의 음식을 엿보아 뒤집어대는데, 막아도 멈추지 않는다. 또한 성질이 작은 틈으로 나가기를 좋아하는데, 앞으로 나아가는 데는 날카롭고 뒤로 물러나는 데는 둔하다. 반드시 사람이 싫어하는 짓을 골라서 하기에 미움과 분통을 사는 것이 어떤 가축보다도 심하다.

또한 힘이 세고 용감하며 다리는 짧아도 달리기는 빠르며 주둥이가 길어 구멍을 잘 뚫는다. 돼지가 건드리면 마치 종이를 뚫듯이 울타리에 구멍이 나고 담장이 부서진다. 집안의 어린이나 이웃의 노인들이 매우 싫어하지만 막아내지는 못한다. 내가 이에 두어 명의 종에게 명령하여 트랙의 서쪽 모퉁이를 파고 목책을 묶어서 우리를 만들었다. 우리의 모양은 국자 모양이라 매우 협소했지만 튼튼하였다. 드디어 돼지 떼를 몰아 우리에 가두었다. 처음 우리에 들어갈 때 돼지들은 불피리를 불어대는 것처럼 짹짹 울어대니 대단히 시끄러워 한참 동안은 차마 들을 수가 없었는데, 돼지로 인한 피해는 그날로 사라졌다. 이에 집안의 젊은이와 이웃 마을 사람들

이 서로 모여 축하하면서 “돼지 무리가¹⁵⁶ 이미 우리에게 들어갔으니 우리는 걱정이 없어졌구나.”라 하고는 곧바로 울타리를 수리하고 채마밭에 울짙을 돌렸다.

아! 돼지가 기미를 아는 지식이 만약 개나 양의 정도였다면 사람들이 어찌 이처럼 돼지를 괴롭게 여기며 어찌 이 정도로 울타리를 견고하게 만들었으랴. 소, 말, 개, 양, 닭은 동물 가운데 지극히 어리석은데, 돼지의 고집이 세고 무지함이 도리어 다섯 가축의 제일 아래에 자리하여 이런 재앙을 불러들였으니 애처롭구나.

옛날에 도철(鸞鷟)¹⁵⁷이 태어나자 천하가 근심하였고 혼돈(混沌)이 있을 때 천하가 괴로워하였다. 천하가 근심하고 괴로워하였기 때문에 반드시 이 둘을 제거한 이후에 비로소 편안하고 즐거워 생을 누릴 수 있었다. 만족을 모르는 사람도 오히려 이처럼 보존될 수 없는데, 더구나 짐승이랴. 세상의 이익만 무턱대고 쫓아서 그물과 함정이 앞에 있는 줄 모르는 자들은 어찌 나의 우리안을 보지 않는가.

156 돼지 무리가 : 원문은 ‘豚倘’인데, 국립중앙도서관본에 근거하여 ‘倘’을 ‘黨’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157 도철(鸞鷟) : 중국 신화 중에서 사흉(四凶)이라 불리며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네 마리의 괴물 중 하나로 탐욕이 많고 흉악한 사람을 비유한다.

관악기가 육성보다 못하다는 것에 대한 설

竹不如肉辨

어떤 이가 나에게 묻기를 “맹가(孟嘉)가 환온(桓溫)을 상대하면서 대 악기가 사람의 목소리만 못하다는 질문에 대하여 점점 자연에 가깝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였는데,¹⁵⁸ 점점 자연에 가깝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라 하자, 나는 대답하기를 “대저 오음(五音)과 육률(六律)¹⁵⁹은 성정(性情)에서 나오는데, 그 성(聲)과 기(氣)를 형용한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여기에 사람이 있으면 이에 기(氣)가 있고 이에 기(氣)가 있으면 이에 소리가 있고 이에 소리가 있으면 이에 음악이 있게 됩니다. 음악과 예(禮)는 모두 나에게 갖추어져 있는데 그에 통하거나 막힌 것은 물욕이 가리거나 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고 시대에는 음과 예에 통하지 않은 자가 없었는데, 성인이 나온 연후에 후대가 물욕에 가이워질 것을 걱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비로소 율려(律呂)를 제정하고 악기를 만들어 율려를 적용시켰으니, 금(金)·석(石)·사(絲)·죽(竹) 등의 악기 종류가 그것임

158 맹가가…대답하였는데 : 위진(魏晉) 시대 진(晉)나라 사람 맹가(孟嘉)가 환온(桓溫)의 참군(參軍)으로 있을 때 환온이 묻기를 “기악을 듣는데 현악기는 관악기만 못하고, 관악기는 육성만 못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점점 자연에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라 하였다 한다.《世說新語箋疏 識鑑》

159 오음(五音)과 육률(六律) : 오음은 곧 궁(宮), 상(商), 각(角), 치(徵), 우(羽)를 말하고 육률은 십이율(十二律) 중의 양음(陽音)에 속하는 황종(黃鐘), 태주(太簇), 고선(姑洗), 유빈(蕤賓), 이칙(夷則), 무역(無射)을 말한다.

니다.”라 하였다.

객이 “그렇다면 무엇을 자연에서 멀다고 하고 무엇을 자연에서 가깝다고 합니까.”라 묻자, 나는 대답하기를 “금(金)·석(石)·사(絲)는 손과 손가락을 따르며, 손과 손가락의 움직임은 성기(聲氣)를 따르며 성기(聲氣)가 발함은 성정을 따릅니다. 그러므로 그 소리의 전함이 더욱 자연에서 멀어집니다. 대[竹]는 이와 달라서 성기를 따르며 성정에서 근본합니다. 그러므로 그 소리가 나음이 자연에서 더욱 가깝습니다. 사람의 목소리에 이르면 그 성기(聲氣)는 성정을 따를 뿐입니다. 그러므로 반응이 더욱 자연에 가깝습니다. 이것이 사(絲, 현악기)가 죽(竹, 관악기)보다 못하며 죽(竹)이 육성보다 못하니, 자연에서 먼 것과 점점 가까워지는 구별이 있게 된 까닭입니다. 이로써 보건대 다섯 줄의 거문고를 듣고도 노여움이 전부 풀리지 않은 사람이 남풍가를 들으면 화가 풀리지 않음이 없습니다.¹⁶⁰ 거문고 연주를 멈추지 않고 노래를 그 위에 부르는 것은 이런 까닭입니다.”라 하였다. 이에 어떤 이는 절을 하고서 사례하면서 “사리에 맞는 말이여!¹⁶¹ 지극하도다. 그대의 말은 맹가도 미치지 못하네.”라 하였다.

160 다섯...없습니다 : 순(舜) 임금이 오현금(五絃琴)을 처음으로 만들어 남풍가(南風歌)를 지어 부르면서 “훈훈한 남쪽 바람이여, 우리 백성의 수심을 풀어 주기를. 제때에 부는 남풍이여, 우리 백성의 재산을 늘려 주기를.[南風之薰兮 可以解吾民之慍兮 南風之時兮 可以阜吾民之財兮]”이라고 했다는 고사가 전한다. 《禮記 樂記》

161 사리에 맞는 말이여 : 오(吳)나라 계찰(季札)이 노(魯)나라에 사신으로 가서 위(魏)나라의 시를 듣고 말하기를, “중용(中庸)의 소리로다. 크면서도 요약되고, 검소하여 행하기 쉽다.[颯颯乎 大而婉 險而易行]” 하였는데, 두예(杜預)가 ‘풍풍(颯颯)’은 중용의 소리라고 해석하였다. 《春秋左氏傳 襄公29年》

대對

현부대

玄夫對

경자년 봄 3월 1일 조자(趙子, 조찬한)는 자신의 호를 ‘현부(玄夫)’로 바꿨다. 이날 밤에 어떤 장부가 조자의 꿈속에 찾아와 고하기를 “어떤 실상이 있어서 그에 따른 이름이 있는 것은 참으로 마땅하다. 지금 나는 검은 옷에 검은 두건을 쓰고 바지와 저고리, 슬갑도 검은색을 선호하지 않음이 없으니 현부라 자호(自號)하여도 실상에 부끄럽지 않다. 그러므로 다른 곳에서 온 자가 현부라고 부르면 나는 곧바로 주저하지 않고 대답한다. 이에 부르는 자나 대답하는 자나 만족하게 여긴다. 어째서 그런가. 그 이름으로 써 부르는데 실상에 맞게 이름을 지었기 때문이다. 우리 그대는 그렇지 않으니, 흰옷을 입고 산사람이 되었으며 얼굴은 희어 서생이 되었다. 또한 나이는 사십이 다 되었는데 이룬 것도 없으며 머리카락은 세지 않은 것이 별로 없다. 전적으로 기휘(忌諱)를 저촉하여 비방을 받으니 어리석음이 이미 환하게 드러난 것이 적지 않다. 비록 백부(白夫)라고 불러도 괜찮을 것인데, 지금 이에 망령된 호칭을 주제님께 더하여 나의 호칭과 매우 가까워서 그 거짓과 실상을 뒤섞어 놓으니, 이것이 내가 의혹이 생겨 그대에게

변론을 요청하지 않을 수 없는 까닭이다. 잘 모르겠지만, 그대는 말할 것이 있는가.”라 하였다.

이에 조자가 읊을 하고 그와 나란히 앉아 조심스럽게 대답하기를 “그대의 말은 합당하며 그대의 비난은 옳다. 그러나 그대가 나에게 대해 아는 것은 다만 한 가지이고 두 가지를 빠트렸으니, 감히 그 두 가지에 대해 절복(折服)시키고 한 가지를 따져서 그대의 책망을 막지 않을 수 있겠는가. 지금 세상 사람은 대부분 눈을 부릅뜨고¹⁶² 크게 소리치면서 시비를 분명하게 정하려 하는데, 나는 세속과 다르게 조용히 침묵하면서 이쪽과 저쪽을 한가지로 보고 좋아하고 미워하는 대상을 똑같이 여기면서 다만 현허(玄虛)와 무위(無爲)를 숭상하니 그 뜻이 현(玄)에 가깝지 않은가. 지금 세상 사람은 대부분 잘 꾸미고¹⁶³ 다듬으며 화려하게 장식하여 아첨하는데,¹⁶⁴ 나는 그런 것에는 어두워 들판에 거처하면서 먼지와 때가 얼굴에 가득해도 씻을 줄 모르고 진흙이 옷을 더럽혀도 빨 줄 모르면서 다만 현정(玄靜)과 무기(無機)를 바탕으로 삼으니 그

162 눈을 부릅뜨고 : 호목(蒿目)은 《장자(莊子)》 〈변무(駢拇)〉에 보이는 말로, “지금 세상의 인인은 멀리 바라보며 세상의 환란을 근심한다.[今世之仁人 蒿目而憂世之患]”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여기서는 《장자》의 내용과는 어울리지 않고 상대방을 이기려는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163 잘 꾸미고 : 전불(剪拂)은 원래 말의 털을 다듬고 먼지를 씻어 준다는 의미로, 인재를 칭찬하고 이끌어 줌을 뜻한다. 두보의 〈견민봉정업공이십운(遣悶奉呈嚴公二十韻)〉에 “관용으로 나의 줄렬한 성품을 탓하지 않으셨고, 전불해 주시며 나의 곤궁함을 생각해 주셨지.[寬容存性拙, 剪拂念途窮.]”라고 하였다. 여기서는 이런 의미와는 달리 가식으로 꾸민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164 아첨하는데 : 원문은 ‘媚洗’인데, 국립중앙도서관본에 근거하여 ‘洗’를 ‘悅’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몸이 현(玄)에 가깝지 않은가. 또한 하도(河圖)를 짚어지고 황하에서 용마가 뛰어나온 시대에는 미칠 수 없지만 이욕(利慾)의 경계에 급급하지 않고 장육(藏六)과 운기(運氣)¹⁶⁵로 그물과 작살¹⁶⁶의 재앙을 멀리하였으니, 또한 옳지 않은가. 묘당에 들어가서 죽는 것보다는 진흙탕에서 사는 것이 낫지 않은가.¹⁶⁷ 어찌 지리소

165 장육(藏六)과 운기(運氣) : 장육은 거북이처럼 몸을 감춘 채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세상을 피해 숨어 사는 것을 말한다. 장육은 귀장육(龜藏六)의 준말이다. 거북이가 위험한 상황을 만났을 때 머리 · 꼬리 · 네 발 등 여섯 곳을 두꺼운 갑각(甲殼) 안에 감추는 것처럼, 수행자도 안(眼) · 이(耳) · 비(鼻) · 설(舌) · 신(身) · 의(意) 등 육근(六根)을 잘 단속해야 한다는 불교의 교설에서 유래한 것이다. 《雜阿含經 卷43》운기는 오운(五運)과 육기(六氣)라는 개념으로 질병의 발생을 설명하는 한의학 이론이다. 오운(五運)은 목(木) · 화(火) · 토(土) · 금(金) · 수(水)의 다섯 가지 요소이고, 육기(六氣)는 풍(風) · 한(寒) · 서(暑) · 습(濕) · 조(燥) · 화(火)의 여섯 가지 요소이다. 오운은 십간(十干, 甲乙丙丁戊己庚辛壬癸)에 배정되고 육기는 십이지(十二支, 子丑寅卯辰巳午未申酉戌亥)에 배정된다. 옛날의 1년은 십간십이지(十干十二支) 즉 간지(干支)로 표현되므로, 갑자년(甲子年) · 을축년(乙丑年) 등의 간지에 들어있는 오운과 육기의 특성에 따라 그해의 기후 변화와 질병 발생의 상관관계가 나타난다는 이론이다. 옛 사람들은 거북이 기를 흡입하여 음식을 먹지 않고도 장생한다고 믿었다. 권13의 〈예미귀부(曳尾龜賦)〉참조.

166 그물과 작살 : 원문은 ‘網獨’인데, 국립중앙도서관본에 근거하여 ‘獨’을 ‘獨’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167 묘당에…않은가 : 《장자(莊子)》〈추수(秋水)〉에 “장자가 복수에서 낚시를 하고 있을 때 초왕이 두 사람의 대부로 하여금 가서 먼저 말하게 하기를 ‘초나라의 경내의 정치를 맡아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장자가 낚싯대를 쥔 채 돌아보지도 않고 말하기를 ‘나는 듣건대 초나라에 신령스러운 거북이 있어 죽은 지 이미 삼천 년이 지났는데 왕께서 상자에 싸서 묘당에 보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거북은 죽어서 뼈를 남겨 소중하게 받들어지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살아서 진흙 속에서 꼬리를 끌며 다니기를 원할까요?’라고 하였다. 두

가 두려워한 역(役)으로 뱀새가 나무 한 가지에 튼 동지와 바꾸겠는가.¹⁶⁸ 그렇다면 몸이 이미 현(玄)하고 뜻도 현(玄)하고 또 현부(玄夫)의 도를 얻어서 도호(道號)로 삼아 부르는 것이 어찌 주제 넘으며 망령되랴. 이로써 미뤄본다면 나의 호칭이 그대의 호칭과 흡사한 것이 아니라 실로 그대의 호칭이 나의 호칭과 흡사한 것이다. 그대가 말한 현(玄)이란 것은 백(白)을 숭상한 것이 아닌가, 내가 말한 백(白)이라는 것은 현(玄)을 숭상한 것이 아닌가. 그러나 그대와 내가 이미 현부(玄夫)라 하였으니 어찌 그 참과 거짓을 따지며, 어찌 그 빈(賓)과 주(主)를 따지며, 또한 어찌 피아(彼我)가 서로 구분된 것을 따지랴. 그대는 견백(堅白)의 설¹⁶⁹로 나

사람의 대부가 ‘차라리 살아서 진흙 속에서 꼬리를 끌며 다니기를 원할 테지요.’라고 하자, 장자가 ‘어서 돌아가시오. 나도 진흙 속에서 꼬리를 끌며 살려고 하오.’라고 했다. [莊子釣於濮水, 楚王使大夫二人, 往先焉曰: 願以境內累矣. 莊子持竿不顧曰: 吾聞楚有神龜死已三千歲矣, 王巾笥而藏之廟堂之上, 此龜者寧其死爲留骨而貴乎? 寧其生而曳尾於塗中乎? 二大夫曰: 寧生而曳尾塗中. 莊子曰: 往矣. 吾將曳尾於塗中.]”라고 한 것을 가리킨다.

- 168 지리소가…바꾸겠는가 : 《장자(莊子)》〈인간세(人間世)〉에 나오는 불구자인 지리소(支離疏)를 가리키는데, 그는 불구자인 관계로 국가의 병역(兵役)이나 부역(賦役) 등을 모두 면제받고, 국가로부터 구호 양곡을 배급받아 생활을 영위하면서 아무 일 없이 몸을 잘 보전하여 장수를 누렸다고 하였다. 《장자(莊子)》〈소요유(逍遙遊)〉에 ““뱀새가 깊은 숲 속에 들어가 등우리를 틀 때 나뭇가지 하나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하였다. 여기서는 지리소가 나라의 역(役)에 들지 않고 도리어 구호를 받아 살았는데, 그것도 구차한 것이라 여겨서 숲에 등지를 튼 뱀새보다 못하다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 169 견백(堅白)의 설 : 전국 시대 조(趙)나라의 논변가 공손롱이 ‘견백동이(堅白同異)’라는 궤변을 제출하였다. 단단하고 흰 돌이 있을 경우, 단단함(堅)과 흰색(白)과 돌(石)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가라는 질문에 공손롱이 그것은 불가능하고 두 가지를 충족시키는 것은 가능하다고 하였다. 눈으로 보면 색이 ‘흰 돌’이라는 것만 알 수

의 현(玄)을 어지럽히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장차 현(玄)하고 또 현(玄)하며 묵묵히 나의 태현(太玄)을 지킬 것이네.”라 하였다. 객이 웃으면서 사례하며 “현부여, 현부여. 그대의 현은 양웅(揚雄)도 미치지 못하리.”¹⁷⁰라 하였다. 마침내 꿈에서 깨어 그 말을 기록하였다.

있고, 손으로 만져보면 ‘단단한 돌’이라는 것만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결국 단단한 돌과 흰 돌은 서로 다른 것이요 절대로 같은 것이 될 수 없다고 하였다. 요컨대 사실상 같은 것을 다른 것으로 만들고, 다른 것을 같은 것으로 만드는 괴상한 논리를 말한다. 《公孫龍子 堅白論》

170 그대의…못하리 : 양웅이 《태현경》을 지었기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사악이 곤을 천거한 것에 대한 논

四岳薦鮒論

논하기를 “사악(四岳)¹⁷¹은 요임금의 총재(冢宰)이다. 요임금에 의해 총재가 되어 요임금과 천하를 다스렸으니, 성스럽고 지혜로운 자가 아니면 불가하다. 그런데 요임금이 그에게 홍수를 다스리게 할 때 다만 곤을 천거하기만 하였으니, 사악이 밝지 못해서 인가, 아니면 요임금이 사람을 알아보기 어려워서인가.”라 하니, 나는 이에 다음과 같이 답한다.

“그렇지 않다. ‘어렵다’고 한 것은 정말로 사람 보는 것이 어려워서 사람을 알지 못한 것이 아니요, 그 조심스러움을 어렵게 여긴다는 뜻이다. 어찌 사악의 현명함으로 곤이 악한 사람을 몰라서 천거하였겠으며, 어찌 요임금의 성스러움으로 그의 악함을 제대로 모르고서 끝내 쓸만한 자인지를 시험함에 이르렀겠는가. 요임금의 조정에 ‘띠풀을 뽑으면 무리 지어 나온다’¹⁷²는 칭송이 있

171 사악(四岳) : 사악(四岳)은 사방 제후를 다스리던 요(堯) 임금 때의 대신(大臣)이다.

172 띠풀을…나온다 : 주역(周易)의 태괘(泰卦)는 하늘과 땅이 서로 자리를 바꾸어 사귀는 형상인데, 그 초구(初九) 효사(爻辭)에 “띠풀을 뽑음이라 그 무리로써 가는 것이니 길하다.[拔茅茹 以其彙征 吉]” 하여, 군자(

는데, 어찌 인재가 부족하여 어리석고 다투기 좋아하는 곤을 끝내 천거하고 등용하였는가. 대개 요임금의 생각은 ‘홍수가 천하에 범람한 지 이미 9년이나 되었으니 하루 아침저녁으로 다스릴 수 없다. 구주(九州)의 들판에서 양잠과 삼을 일군 공은 반드시 신성(神聖)하고 근검한 덕이 필요한데, 신성하고 근검한 자는 오직 우(禹)일 뿐이다. 이것은 곤의 재주를 시험한 다음 우에게 치수의 공적을 책임 지우는 것이며, 아버지의 허물을 덮고 천하 만대에 위대한 업적을 드러나게 만든 것이니, 만약 순에게 선위하게 한다면 틀림없이 그가 나에게 선위를 받았던 것처럼 할 것이다.’라 하였을 것이다. 어째서 그러한가. 저 곤이란 자는 재주는 넘치지만 성의가 부족하였으니, 9년 동안 치수를 하였으나 공은 이루지 못하였고 끝내는 우산(羽山)에서 죽음을 당하였다. 신성(神聖)한 우의 지극한 효도와 큰 덕은 참으로 극진하지 않음이 없는데 아버지의 뜻을 잇고 아버지의 일을 전승하여 만방의 백성을 구제하는 것으로 마음을 삼았으니, 어떤 물길을 내지 못하며 어떤 홍수를 다스리지 못하랴. 이에 요임금은 홍수를 다스리고 물길을 내는 공이 16년 뒤에 이뤄질 것인데, 곤이 성공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면 우의 성공을 격동시킬 것이 없음을 알았던 까닭이다. 사악이 곤을 계속해서 천거한 것은 또한 요가 곤이 성공하지 못할 것과 우가 끝내 성공할 것을 아는 그 사실을 알았던 것이다. 요임금이 아니라면 곤이 성공하지 못할 것과 우가 끝내 성공할 것을 알지 못할 것이며, 사악이 아니라면 요가 곤이 성공하지 못할 것과 우가 끝내 성공할 것을 아는 그 사실을 알 수 없었기에, 계속해서 곤을 천거하였던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요임금에

君子가 벗들과 함께 나아감을 말하였다. 선류(善類)가 많이 등용되었음을 뜻한다.

게 사악이 있었던 것이며 사악이 요임금을 만나 등용되었던 것이다. 어떻게 그것을 밝힐 수 있는가. 《기》에 ‘상성(上聖)은 천지의 시작과 끝을 안다.’라 하였는데, 요가 과연 상성(上聖)의 존재로 천지의 시작과 끝을 아는 자가 아니었다면, 일찍이 곤의 성공하지 못할 것과 우가 능히 성공할 것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악은 곤을 천거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를 천거하였으며, 요는 곤을 등용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를 등용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밖의 경계가 없는 것에 대한 논

無外論

“지극히 큰 것은 밖의 경계가 없음을 이르니, 천지를 지극히 크다고 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다. 어찌 옳겠는가. 대저 천지에는 사방(四方)이 있고, 팔극(八極)이 있다. 사방이 있고 팔극이 있으니 어찌 지극히 크다고 하겠는가.”

“그렇다면 천지 너머에 또한 천지보다 더 큰 것이 있는가.”

“지극히 크다고 할 때의 큼은 무상(無上)으로 위를 삼고 무하(無下)로 아래를 삼으며 가가 없으므로[無涯] 사방을 삼고 밖이 없음으로[無外] 팔극을 삼으니, 이것이 바로 지극히 큰 것의 토대가 되며 천지가 속한 마을이다. 대저 천지가 이 마을에 처하는 것이 새알 하나가 천지 사이에 놓여 있는 것과 어찌 다르랴.”

“그렇다면 새알 하나 이외에 또한 무슨 사물이 있는가.”

“새알 이외에 또 다른 새알이 있어서 하나부터 천, 만까지 헤아릴 수 있는데 마치 사람 숫자만큼 그런 새알이 많으니, 많은 사람이 천지에 처한 것과 어찌 다르랴.”

“그렇다면 새알 아래에 새알이 있고 새알 위에 새알이 있어서 겹겹이 포개져 있으니, 새알 너머에 또 다른 새알이 포개져서 있는 것과 같단 말인가.”

“그렇지 않다. 사람 위에 사람이 없고 사람 밑에 사람이 없으니, 새알 위에 다른 새알이 없고 새알 아래 다른 새알이 없는 실상을 짐작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무무씨(無無氏)가 지극히 커다란 마을에 처할 때 여러 새알이 뒤섞여서 열리고 닫히는데 천, 백 개

가 바뀌가며 그치지 않는 것을 보고 있었던 것이니, 조물주가 새알 하나의 안의 변화를 관찰하면서 스스로 무궁무진하며 가도 없고 끝도 없이 크다고 여기는 것과 어찌 다르랴. 그렇다면 새알 하나의 안에 해와 달, 별들이 있고 산악과 강과 바다가 있고 초목과 곤충과 날짐승, 들짐승과 오랑캐와 만물이 셀 수 없이 많으며, 왕도와 패도, 치란과 흥망, 삼교(三教)¹⁷³와 오상(五常), 선악과 시비가 있으니, 독안의 초파리와 맷돌의 개미¹⁷⁴가 도리어 스스로 적다고 하거나 크다고 하면서 우쭐하며 기뻐하고 화를 내며 서로 속이고 서로 공격하여 죽여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한 뒤에야 그치는 것과 어찌 다르랴. 아! 슬프도다.”

이에 혹자(或者)는 두려워하며 물러나면서 “선생의 말이 없었다면 어떻게 지극히 큰 세상을 알 수 있었으랴. 지금 이후로 천지가 지극히 작고 밖의 경계가 없는 것이 지극히 큼을 알겠습니까.”라 하였다.

173 삼교(三教) : 유교, 불교, 도교이다.

174 독안의…개미 : 초파리[蠅]는 술 위에 생겨서 뜨는 아주 작은 벌레이다. 《장자》에 보인다. 개미가 맷돌 위에서 다닐 때에 맷돌은 왼쪽으로 돌고 개미는 오른쪽으로 가면 맷돌은 빠르고 개미는 느리기 때문에 맷돌을 따라 왼쪽으로 돌지 않을 수 없다는 것. 즉 맷돌을 천체(天體), 개미를 일월(日月)의 운행에 비유한 것이다. 《晉書 天文志》

전傳

송생전

宋生傳

선비 송희갑(宋希甲)은 회덕 사람이다. 나이가 15, 6세가 되었어도 공부를 하지 않아서 향리에서 평범한 아이로 여겼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무시하였다. 이에 갑자기 분발하여 “선비가 세상에 태어나 스승이 없는 것이 걱정이지 학문이 서지 못한 것은 걱정할 바가 아니다. 내가 들으니, 석주 권 선생은 학문이 넓고 행실이 엄준하며 뜻이 개결하고 도가 높다고 한다. 고결하게 세상에 드러난 것으로 혼탁한 속세와 영합하지 않고 시와 술에 의탁하여 자연속에서 노닐면서 자취를 감추었다고 하니, 이 분은 나의 스승이 될 수 있다.”라 하고는 그날로 신발을 신고 책상을 짚어지고 걸어서 강화로 들어갔다. 집을 찾아가 절을 올리니 석주가 한번 보고 곧바로 기특하게 여기고는 《한서》를 내주며 가르쳤다.

처음에는 선생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마치 이해하지 못한 듯하더니 본래 남들보다 대단히 총명하였기에 아침에 발전한다 싶은데 저녁에는 더욱 성취하였다. 수십 일이 되기 전에 수십 편을 외우는데 한 글자도 틀리거나 빠트리지 않았다. 학도 십여 명이 차분하게 앞뒤를 다투면서 사람마다 각각 다른 것을 배

웠는데, 송생은 항상 뒷전으로 물러나 앉아 묵묵히 들으면서 그
들이 배우는 것을 모조리 암송하여 조목과 구절을 환히 꿰뚫었
다. 그것을 자신의 일과로 삼아 익혔는데, 매일 외웠는지 시험해
보면 그렇지 않은 적이 없었다.

일찍이 서재를 지을 때 몸소 일에 참여하여 게으르지 않았다.
견고한 재목을 쪼개고 무거운 물건을 운반하면서 항상 두어 사람
의 할 일을 혼자 하였으며 목공이 미처 다듬지 못한 것을 찾아서
다듬었는데, 깎아내고 새기는 공이 평소 업(業)으로 삼는 자와 다
름이 없었다. 손보아 고치고 흑손질 하여 짧은 시간 안에 공사를
마쳤는데, 목공이 혀를 내두르며 “힘과 재주가 모두 뛰어나니 미
칠 수 없다.”라 하였다. 그가 여러 생도와 함께 거처할 때 아직 해
가 뜨기 전에 책을 읽고 동이 트면 직접 물을 길고 불을 때서 밥
을 지어 함께 먹었다. 식사를 마치면 어깨에 지게를 지고 낮을 들
고서 산에 올라 땀감을 베어 돌아왔다. 돌아와서는 다시 책을 읽
었으니, 관솔불을 밝혀서 시간을 연장하며 밤을 지새웠다. 생도
가운데 나태하고 게으른 자들은 격동되어 조심하고 부지런하게
되었다.

시간이 오랜 뒤에 석주가 전염병에 걸려 거의 일어나지 못하
게 되자 제생과 왕래하던 자들이 발걸음을 끊고 다니지 않았는
데, 송생은 항상 밤늦게까지 잠들지 않고 앉았다가 닭이 울기 전
에 찾아가서 문밖에 서서 집안사람이 나오기를 기다려 조심스럽
게 병환이 어떤가 물었다. 낮에도 또 찾아가 약으로 치료하고 저
녁이면 또 찾아가 안부를 물었으며 한밤중이 되어야 돌아왔다.
서재에서 선생의 집까지 거의 십 리였는데 하루 동안 세 번 찾아
갔다가 세 번 돌아왔으니, 모두 사십여 일을 이렇게 하였다. 그
사이 틈이 나면 그물로 참새를 잡거나 물고기를 포획하여 날마다

음식을 준비하였는데, 송생도 마침내 그 병에 걸려 거의 죽을 뻔 하였다가 살아났다.

일찍이 식량이 떨어져 술값을 따서 눈에 섞어 먹었다. 그의 벗이 듣고는 밥을 싸가지고 와서 먹게 하면서 “어찌 알리지 않았는가.”라 하자, “사람의 귀를 번거롭게 하고 싶지 않아서라네.”라 하였다. 모두 두 차례에 걸쳐 형의 상(喪)을 당할 때도 걸어가서 장례를 치렀는데, 병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는 울면서 음식을 먹지 않았고 부고를 듣고는 신위를 만들어 묵놓아 슬피 울어 이웃 마을 사람들이 그 애통함에 감동하였다. 이웃 마을의 노인과 젊은이들이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기를 “송생의 효성과 우애는 하늘에서 나왔구나.”라 하며 사랑하고 존경하지 않음이 없었다.

문장은 건굴(健僂)하여 세속과 다르게 짓는 것을 힘썼으며, 그가 지은 시는 간혹 고체(古體)와 흡사하여 기력(氣力)이 넘치니 석주는 자신도 미칠 수 없다고 칭찬하였다. 이옥고 주자(周子, 주돈이)의 〈태극도설(太極圖說)〉과 장자(張子, 장제)의 〈서명(西銘)〉 등의 책을 읽고 개연(慨然)히 도를 구할 뜻을 지녔으며 다시 문사를 아름답게 꾸미려는 뜻을 지니지 않았다. 나아가 각고의 노력으로 연마하여 학문을 성취할 것을 기약하였다.

하루는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 그날 밤 잠에서 수백 개의 빈칸에 ‘형(形)’자를 쓰는 꿈을 꾸었다. 꿈에서 깨었다가 다시 똑같은 꿈을 꾸었는데 여러 날 동안 이를 반복하였다. 이 일로 자신의 죽음을 점쳤으나, 죽고 사는 것으로 마음을 동요하지 않았다. 그 후에 병이 조금 낫자 하직 인사를 드리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 이옥고 돌아온 뒤에 병이 심해지자 스승인 석주에서 편지를 띄웠으니, 그 내용인즉 자신의 병은 염려할 것이 없고 더욱 스승의 곤궁함이 걱정스럽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끝내 그는 그 질병

으로 죽었으니, 한결같이 도를 믿고 돈독하게 스승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면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아아, 뜻을 지닌 선비가 연기처럼 사라진 것이 고금에 어찌 한정(限定)하라만, 뜻을 돈독하고 견고하게 수립한 자로 송생 같은 사람이 있겠는가. 그에게 좀 더 살게 하여 자신의 학업을 완성시켰다면 성현의 경지에 오르기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하늘이 송생에 대해 이미 태어나게 하고 또 요절시켰으니 하늘은 그에게 뜻이 있었던가? 하늘은 그에게 뜻이 없었던가. 아아, 슬프도다. 이른바 후생(後生)이 과연 두려울 만하다고 한다면 송생 같은 후생이 또한 적지 않은 것이니 내가 어찌 슬퍼하랴. 그러나 가령 송생에게 나이를 빌려주어 그의 학업을 이루게 하였더라도 어진 송생을 지금처럼 세상에서 아는 이가 없을 것이니, 비록 송생이 아직까지 살아 있더라도 곤궁한 선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비록 슬퍼하지 않으려 하지만 그럴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그가 살아 있으나 죽으나 모두 슬퍼할 만하여 한 사람도 슬퍼하지 않는 자가 없으니, 내가 어찌 송생을 위하여 슬퍼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아니 내가 송생을 슬퍼한 것은 나만 홀로 송생을 슬퍼한 것인가.

대부송¹⁷⁵전

大夫松傳

대부의 휘는 ‘송(松)’이고 젊었을 때의 자는 ‘목공(木公)’이니, 그 자질이 나무처럼 강하기 때문이다. 그 계통은 조래(徂徠)¹⁷⁶에서 나왔다. 어떤 이는 “그의 선조는 백예(柏翳)¹⁷⁷의 후손으로 산림에 거처하여 고상(高尚)함으로 칭송을 받았다. 진나라 때에 이르러 형제 다섯 사람이 모두 태산의 남쪽에 은거하였는데, 시황제가 동쪽으로 순수(巡狩)하다가 돌아갈 때 갑자기 거센 비바람을 만나 다섯 공(公)에 의지하여 행차를 멈추고 쉬었다. 그 그들이 비에 젖는 걱정을 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마침내 대단히 기뻐하여 특별히 대부라는 작위를 내리니 이에 대부송이라는 호를 지니게 되었다.

대부는 진나라에 절개를 굽혔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만

175 대부송(大夫松) : 진 시황(秦始皇)이 태산에 올라가 봉선(封禪)의 제사를 올리고 나서 홀연히 폭풍우를 만나자 소나무 아래로 피했는데, 그 소나무가 공을 세웠다고 하여 오대부(五大夫)의 작위를 내려 봉했다는 ‘대부송(大夫松)’의 고사가 전한다. 《史記 卷6 秦始皇本紀》

176 조래(徂徠) : 중국 산둥성(山東省) 태안현(泰安縣) 동남쪽에 있는 산 이름으로, 동량(棟梁)이 될 재목이 자라는 큰 산의 뜻으로 쓰인다. 《시경》〈비궁(闕宮)〉에 “조래산의 소나무와 신보산의 잣나무를, 자르고 쪼개고 재고 맞추어서, 커다란 재목 만드니 웅장한 궁궐이 완성되네. [徂徠之松 新甫之栢 是斷是度 是尋是尺 松栢有鳥 路寢孔碩]”라는 말이 나온다.

177 백예(柏翳) : 옛날 순(舜) 임금과 우(禹) 임금 때의 신하인 백익(伯益)의 별명이다. 순 임금을 도와 새와 짐승들을 길들인 공로로 영씨(嬴氏) 성을 하사받아 진(秦)나라의 시조(始祖)가 되었다. 《史記 卷5 秦本紀》

일 대부가 아는 것이 있다면 진나라가 천하의 황제가 될 때를 당하여 다만 노중련과 함께 동해에 빠져서 죽었을 것이요,¹⁷⁸ 끝내 상산의 사호(四皓)나 도원의 주인처럼¹⁷⁹ 작록을 사양하거나 세상에서 도피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대부 같은 행위를 지조가 있다고 할 수 있는가, 그와 반대인가. 그 후에 한나라가 과연 진나라를 멸망시키자 소하로 하여금 미양궁을 짓게 하였는데, 대부의 족속을 모조리 잘라 칼질과 톱질을 하였다. 대부는 진나라에 잠시 굶혀 명성을 얻었지만 크게 죽임을 당하였다. 아! 슬프도다.”라 하였다.

태사공이 말한다. “내가 태산에 올랐는데, 그 꼭대기에 아직도 오대부 마을이 있다. 다섯 공이 대부란 작위에 대해 구한 것도 아니요, 저 작록은 밖에서 이른 것이니, 공이 어찌 진나라에 굶힌 것이겠는가. 비록 고죽국의 백이, 숙제처럼 나라를 양보하며 절조를 지켰다고 칭송을 받는 자와는 조금 거리가 있을지라도 불

178 노중련과…것이요 : 전국 시대 제나라의 고사(高士)이다. 그가 조(趙)나라에 가 있을 때 진(秦)나라 군대가 조나라의 수도인 한단(邯鄲)을 포위했는데, 이때 위(魏)나라가 장군 신원연(新垣衍)을 보내 진나라 임금을 천자로 섬기면 포위를 풀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노중련이 “진나라가 방자하게 천자를 참칭(僭稱)한다면 나는 동해를 밟고 빠져 죽겠다.” 하니, 진나라 장군이 이 말을 듣고 군사를 후퇴시켰다 한다. 《史記 卷83 魯仲連列傳》

179 상산의…주인처럼 : 상산사호는 진(秦)나라 때 상산에 숨어 살던 동원공(東園公), 하황공(夏黃公), 녹리선생(角里先生), 기리계(綺里季) 등 네 노인으로 모두 수염과 눈썹이 하얗기 때문에 사호라고 부른 것이다. 덕망이 매우 높았는데 한 고조(漢高祖) 때 장량(張良)의 계책으로 태자를 돕기 위해 잠시 세상에 나왔다가 다시 산으로 돌아갔다. 《史記 卷55 留侯世家》 도원의 주인이란 도연명의 〈도화원기〉에 보이는 사람들로, 진의 난리를 피해 도화원에 숨어 살며 세상과 단절된 생활을 하던 인물들이다.

명예스러운 관직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으니 아마도 유하혜(柳下惠)의 무리인가보다.¹⁸⁰ 그러나 공자는 ‘세상이 추워진 뒤에 송백(松柏)이 뒤에 시든 것을 안다.’¹⁸¹고 하였으니, 이 말 또한 취한 게 있었을 것이다.”

180 불명예스러운…무리인가보다 : 《논어(論語)》 미자(微子)에 “유하혜가 사사(士師)의 직책을 수행하다가 세 번이나 쫓겨나자[三黜] 왜 다른 나라로 떠나가지 않느냐고 어떤 이가 물었는데, 이에 대답하기를 ‘올곧게 도를 행하면서 섬긴다면 어디를 간들 세 번 쫓겨나지 않겠는가.[直道而事人 焉往而不三黜]’라고 했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181 세상이…안다 : 《논어》 자한(子罕)에 보이는 말이다.

탕파전

湯婆傳

탕파(湯婆)¹⁸²는 동산 사람이다. 성왕(聖王)의 후손으로 대대로 임여(臨汝)의 온천¹⁸³에 거처하였다. 그의 오라버니 공방(孔方)은 공적이 있어서 백수(白水)에 봉해져서¹⁸⁴ 세상에 크게 쓰여졌다. 다만 탕파는 입이 작고 배가 불룩하며 얼굴은 못생기고 자질은 강하였다. 몸체는 매우 얇지만 본성은 따뜻하니 사람들에게 포용되지 않음이 없다. 항상 매우 추운 겨울이면 끓는 물을 마셔서 몸을 데운 뒤에 사람들에게 아첨하면, 탕파를 알든 모르든 그를 맞이하면 곧바로 따라간다. 비록 휘장을 친 침상 안이라도 지나치게 가까이한다는 혐의를 두지 않았다. 한번 만나면 마음을 열고 성의를 보이며 이불을 나란히 덮고 누워 손으로 그 어깨를 만져도 피하지 않으며 발로 그 배를 눌러도 화를 내지 않는다. 다만 부드럽게 순종하며 어기지 않는 것을 힘써서 사람이 부르면 차갑거나 화난 태도를 보이지 않으며, 노소귀천(老少貴賤)에 관계없이 선택하지 않고 오직 명령을 따른다. 자신의 피부를 문지르거

182 탕파(湯婆) : 동기(銅器)에 끓은 물을 담아 이불 속에 넣어서 다리를 따뜻하게 하는 제구를 말한다. 여기서는 제구를 의인화하여 전을 썼다.

183 임여의 온천 : ‘임여지탕천(臨汝之湯泉)’이란 말은 한유의 <공군묘지명(孔君墓誌銘)>에 보인다.

184 백수에 봉해져 : ‘백수(白水)’는 한(漢)나라 광무제(光武帝)의 고향인 백수향(白水鄉)을 가리키는 말로, 왕망(王莽)이 한나라를 찬탈하고 황제가 되자 광무제가 백수에서 일어나 한 왕조를 재건한 바 있다. 광무제는 화폐 오수전(五銖錢)을 사용하였다.

나 골격을 어루만져도 오히려 그 정조를 굳게 지켰으며 어두워도 마음을 속이지 않았으니 부끄러울 바가 없었다. 부도(婦道)에 아침을 꺼리니 그는 더욱 침묵에 뛰어났다. 사람들이 간혹 홀로 거처할 때를 삼가지 않으면, 그는 보아도 못 본척하였으며 입을 닫고 발설하지 않았다. 그의 몸이 조금만 차가워지면 잠시도 곁에 두지 않았는데, 비록 세 번 내침을 당해도 또한 화를 내는 기색이 없었다. 이 때문에 사랑하여 가까이 두지 않음이 없었는데, 그가 사람의 발을 보호하는 공이나 다리를 따뜻하게 하는 노고는 비록 부친에게 효도를 다한 황향(黃香)이라도 미칠 수 없다.¹⁸⁵ 다만 모습에 덕과 어울리지 않아 편안한 마음으로 물리나 스스로를 지킬 뿐이었다. 젊어서 시집을 가지 않고 늙어서 자식이 없으니 따뜻함으로 받아들여지기를 구하였으나 다만 밤에만 태움을 받고 나머지 아침, 낮, 저녁에는 버림을 받았다. 과부로 살면서 동료도 없는데, 끝내는 다동(茶僮)과 찬비(爨婢)에게 짓밟혀 상처와 구멍이 나서 집안의 할망구로 죽으니 박명하다고 하겠다.

태사공이 말한다. “탕파는 안색으로 사람을 섬기지 않는다. 일찍이 사람에게 용납되기를 구하지 않았고 다만 사람들을 포용하는 도량이 있었으며, 사람에게 아침하지 않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재주를 지녔다. 조화롭게 지내되 휩쓸리지 않았으며, 친하게 지내되 정조를 버리지 않았다. 나아가고 물리나기를 다만 명령에 따랐지만 정조를 지켰고 의리를 지켰다. 화려하게 꾸며서

185 부친에게…없다 : 후한(後漢) 황향(黃香)은 자가 문강(文強)으로 강하(江夏) 안륙(安陸) 사람이다. 아홉 살에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를 섬기는데 지극히 효성스러워 여름에는 베갯머리에서 부채를 부치고 겨울에는 몸으로써 이불을 따뜻하게 하였다. 《後漢書 卷80 文苑列傳》)

여우처럼 아첨하며 한 사람을 섬기면서도 두 마음을 지닌 세상
사람들은, 어찌 탕파를 거울로 삼지 않으랴.

해상에서 거북을 낚는 객에 대한 전

海上釣龍客傳

객은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다. 그가 일찍이 옛날 한 어부가 커다란 다랑어를 낚았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낚싯대로 낚아서 과연 큰 다랑어를 잡았는데, 너무 커서 먹을 수가 없게 되자 곧 바로 그 낚싯대를 던져 떠나가게 하였다. 옛날에 임공(任公)이 큰 물고기를 낚았다¹⁸⁶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낚싯대로 낚아서 과연 큰 물고기를 잡았는데, 너무 커서 먹을 수가 없게 되자 곧바로 그 낚싯대를 던져 떠나가게 하였다. 옛날의 태공이 왕을 낚아서 매가 날아오르는 듯한 공을 세웠다¹⁸⁷는 소식을 듣고, 마침내 자신의 낚싯대를 잡고서 탄식하기를 “태공의 낚시는 훌륭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풍운(風雲)은 이르게 할 수 없고¹⁸⁸ 뛰어난 왕은 항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나는 차라리 이 낚싯대를 버리고 더 큰 낚싯대를 만들어, 해와 달로 바늘을 만들고 무지개로 대를 만들며 천자의 의리 없는 재상을 낚싯밥으로 만들어 용백(龍伯)과 같이 동해의 거대한 거북을 낚아서¹⁸⁹ 나의 뜻을 통쾌하게 하

186 임공이…낚았다 : 임공(任公). 임보(任父). 전설상에 나오는 고기를 잘 잡았던 사람이다. 『장자(莊子)』 외물(外物)편에 보면 그가 고기를 잡을 때 장면이 나오는데, 불알 칸 소 50마리를 미끼로 하여 회계(會稽) 땅에 걸터앉아 동해 바닷가로 낚시를 드리웠다고 한다.

187 태공이…세웠다 : 《시경(詩經)》 대아(大雅) 대명(大明)에 “태사인 상보께서 그때 매가 날듯 하셨다.[維師尙父 時維鷹揚]” 하였다.

188 풍운은…없고 : 풍운이 이른다는 말은 명군(明君)과 양신(良臣)이 서로 만난 것을 말한다. 《주역》〈건괘(乾卦)〉의 “구름은 용을 따르고 바람은 범을 따른다.[雲從龍, 風從虎.]”라고 하였다.

189 용백(龍伯)과…낚아서 : 중국 신화 중에서 먼 북쪽에 있는 용백국(龍

면 충분하리라. 마침내 낚싯대를 들고 동해에 갔다가 갑자기 황해의 고래를 만나 겨우 죽음은 면하였다. 거북은 끝내 낚지 못하고 낚싯바늘에 잘못 걸려 물에 빠져 죽었으니, 슬프도다.

태사공은 말한다. “객은 뜻이 크나 재주가 부족한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거북을 비록 만났더라도 낚을 수 있었겠는가. 거북을 참으로 낚을 수 없다면 왕을 낚을 수 있으랴. 다만 재상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긴 하였지만 끝내 세운 공이 없으니, 객은 거리낌 없이 큰소리를 쳤지만 성취한 것이 없는 자라고 이를 것이다.”

伯國)에 산다고 전해지는 거인들이다. 그들 중 한 명이 어느 날 낚시를 하러 나갔다가 바다 저편에 있는 골짜기에서 여섯 마리의 거북을 낚았다. 이 거북들이 실은 바다에 떠 있는 신산(神山: 신선이 사는 낙원)을 받치고 있는 거대한 거북들인 까닭에, 다섯 개의 신산 중 두 개가 불행하게도 북극으로 흘러가 버렸다고 한다.

서|書

택풍당 이식에게 답하는 편지

答李澤風書

그대의 편지를 받드니 종이 가득 글의 의미가 물 흐르듯 하여 저의 마음과 눈이 상쾌해졌습니다. 지금 세상에 어찌 이런 편지가 있겠습니까. 노부(老夫)는 평생 눈이 지나치게 높아 이 세상에는 조예가 깊고 학문이 넓은 사람이 적다고 생각하였는데, 지금 그대를 얻어 하늘이 우리 동방에 사문(斯文)을 돌아보게 하였으니 어찌 우연이겠습니까. 다만 그 구슬이 가득한 상자가 산속 숲의 고요한 물가에 버려졌는데, 산수의 도깨비가 푸른 하늘에 묵묵히 하소연하여 그대가 없는 틈을 엿보아 급히 회록(回祿)¹⁹⁰을 시켜 가져가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나이가 아직 젊어서 정신과 혈기가 바야흐로 굳센데, 《시경》 삼백 편을 산삭하고 《도덕경》 오천 언을 지은 노자와 공자도 오히려 그 만년의 일이었으니, 기이함을 토하고 화려함을 문장으로 엮어 사해를 환하게 비출 날이 아직도 반백 년 이상 여유롭게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후로는¹⁹¹ 모름지기 여의주를 보물로 여겨서 깊은 연못의 물웅덩이

190 회록(回祿) : 화재(火災)를 맡았다는 신이다.

191 지금 이후로는 : 원문은 '自今以後'인데, 중앙국립도서관본에 근거하

에 몰래 감춰두지 말고 큰 도시나 커다란 고을 사람들의 눈에 널리 보이게 하여 천 년 가는 커다란 명성을 수립하기를 보잘것없는 노생은 바랍니다.

유감스러운 것은 나의 비루한 작품에 대해 지나치게 포양하여 허무맹랑하니 삼가 죽하를 위해 말하노니 취하지 마십시오. 지금 노생이 그대의 맑은 원고에 대해 일언반구도 언급하지 않았는데, 그대가 지나치게 포양한 것으로 인하여 확실하지 않은 논의에 똑같이 귀결될까 경계합니다. 그러므로 그에 대해 놔두고 침묵합니다. 그대는 그것을 아십니까.

며칠 동안 대화를 나누는 동안 티끌 세상의 비루함이 완전히 사라져 도도(陶陶)한 즐거움을 조석의 여가에 잠시 얻을 수 있었으니 덧없는 세상의 하나의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늘이 또다시 장난을 부려 활과 화살을 갖추어서 두 마리 새를 올지 못하게 하려 하니,¹⁹² 아아, 한탄스러울 뿐입니다. 바야흐로 낭청(郎廳)에 앉아 문서와 장부가 어지러워 다만 공무에 시달릴 뿐만이 아니니 대화를 주고받는 즈음에 손과 눈이 한가롭지 못해 이에 말을 다

여 ‘습’을 ‘今’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 192 두 마리…하니 : “쌍조(雙鳥)”는 한유(韓愈)의 <쌍조시(雙鳥詩)>에 나오는 두 마리의 새를 가리킨다. 한유 시의 대략에서는 “해외(海外)로부터 온 한 쌍의 새가 삼 천 년 동안 서로 못 만나 올지 않을 때는 온갖 새들이 잘 올었다. 그런데 이 한 쌍의 새가 서로 만나 쉬지 않고 올고부터는 모든 조화가 파괴되어 버렸다. 이에 천공(天公)이 이 새들을 잡아 각기 다른 곳에 가두자 그제야 온갖 벌레와 새들이 울기 시작했으며, 한 쌍의 새는 소리 죽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살면서, 아침에 천 마리 용을 먹고 저녁에 천 마리 소를 먹고 아침에 황하의 물을 다 마시고 저녁에 바닷물을 다 마셨다. 그리하여 삼 천 년 뒤에 다시 일어나 올 날을 기다린다.” 하였다. 여기서는 뛰어난 인물의 비유로 쓰였으며, 조찬한과 이식 두 사람을 가리킨다.

하지 못합니다. 단오일 현부는 인사를 드립니다.

[원래 편지를 붙임] 附元書

영공(令公)의 진귀한 원고 한 권을 하루 밤낮을 받들어 읽었는데, 글자는 견실하고 문장은 자세하니 마음과 눈이 모두 수고로웠습니다. 차분히 살펴보니, 문장과 의장(意匠)이 일렁이고 글을 짓는 법이 공교롭고 정밀한데, 끌어 당겨 보면 아득하여 끝도 없고 요약한 것은 또렷하게 형상할 수 있습니다. 어찌 다만 당대의 작자만 뒤로 멀리 물러나겠습니까, 세상에 전해져 불후의 광채를 발할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저 이식(李植)은 어려서 학문을 배우지 못하였으며 장성하여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기에 단정히 앉아 한 권의 책도 읽지 못하였으니, 저의 문사(文詞)에 대해서는 알조입니다. 돌아보건대 잘난 것 없이 하찮은 저는 늙어도 기운은 떨어지지 않는데, 대롱 구멍으로 표범 무늬 하나를 보더라도¹⁹³ 마음속으로 혼자서 기뻐하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우환을 겪은 이후로 이전의 총명한 기운이 사그라지고 막혔기에 이제는 조금도 진보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 지은 것을 모조리 꺼내어 수백, 수천의 구절과 시어를 찾았는데, 뜻을 집중하고 공력을 쏟은 정도가 오늘날 해이한 정신으로 산만하게 지은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전에 영공에게 올려서 보여 드린 몇 편의 작품과 비교하여도 조금은 누추

193 대롱…보더라도 : 대롱으로 하늘을 엿본다[以管窺天]’는 말과 같은 뜻으로 시야가 좁다는 말이다. 《진서(晉書)》 권80 〈왕희지열전(王羲之列傳)〉에 “요즘 사람들은 대나무 구멍으로 표범의 문채를 엿보는데, 어찌다 무늬 하나를 볼 뿐이다.” 하였다.

하고 잘못된 점을 면하였다고 생각하여 그대로 책상자 안에 보관하기로 하였습니다.

무오년(1618)부터 지금까지 독촉을 받지 않으면 게을러서 글을 짓지 못하였으며, 지어도 스스로 만족스럽게 여기지 않아서 또한 책으로 엮지 않았습니다. 다만 경전 수백 권을 구해 놓고 농사를 짓지 않는 여가에 애오라지 눈가림¹⁹⁴을 하였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또 몇 말쯤 들어가는 통을 만들어 놓고는 보고 듣고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곧바로 작은 종이에 써서 던져 넣곤 하였는데, 모두 합하면 한두 권 정도 되었습니다. 민가의 이야기나 잡극(雜劇) 같았지만 장독 덮개로 사용되는 것은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도 회록(回祿)의 재앙을 만나 온통 잿더미로 변하였으니, 저의 분통이 터져 스스로 마음을 풀 수 없었습니다. 이윽고 차분히 생각해보니, 진시황 이전에는 주하사(柱下史)가 명산에 책을 보관하던 것이 많았습니다만 분서(焚書)의 재앙을 만나지 않고 면한 것은 다만 경전¹⁹⁵과 제자서와 유세가들의 책이었습니다. 그 후에 전쟁의 참상이 대대로 있었지만, 그러나 진나라 때 국법으로 책을 불살랐던 것과는 같지 않았습니다. 《한서(漢書)》·《진서(晉書)》·《수서(隋書)》·《당서(唐書)》의 〈예문지(藝文志)〉에 기록된 책의 명목 가운데 지금 남아 있는 것은 백에 한두 가지도 되지 않으니, 탁월하고 걸출한 책은 비록 백겁, 천겁이

194 눈가림 : 《전등록(傳燈錄)》에 의하면, 한 중이 약산(藥山) 유엄 선사(惟儼禪師)에게 묻기를 “화상(和尚)께서 평소에 다른 사람에게는 경(經)을 보지 못하게 하시면서 어찌하여 스스로는 경을 보십니까?” 하자, 유엄 선사가 대답하기를 “나는 다만 눈가림을 하기 위해 보는 것이다.[我只圖遮眼]”고 했다는 데서 온 말이다.

195 경전 : 원문은 ‘經傳’인데, 중앙국립도서관본에 근거하여 ‘傳’를 ‘傳’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지나도 남아 있지만 시냇물이나 반딧불 같은 책은 비록 한두 세
대만 지나도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외
우는 사람이 널리 퍼져 있고 보관하는 사람이 많은 이상 집집마
다 수색하고 사람마다 죽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
는 일찍이 말하기를 “만세(萬歲)토록 전해질 문장은 육경(六經)이
그것이요, 천년 전해질 문장은 제자백가가 그것이요, 백 년 전해
질 문장은 한 시대에 이름을 날린 소가자류(小家者流)가 그것이
요, 십 년 전해질 문장은 과문(科文)으로 지었다가 그때가 지나면
바로 바뀐 문체가 그것이요, 일 년 전해질 문장은 마음 내키는 대
로 구절을 주워 모은 나머지 노둔하고 졸렬하여 전해질 수가 없
으니¹⁹⁶ 우리들의 문장이 바로 그것이다.”라 하였습니다. 더구나
앞에서 언급한 제가 지은 수백, 수천의 작품과 한두 권의 문자로
말하면 더욱 보잘것없이 졸렬하여 고인의 한 터럭도 당할 수 없
으니,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일 년도 전하지 못할 것은 분명합니
다.

지금 제가 직접 나서서 보관하고 제가 아끼는 사람으로 하여금
지키게 하였는데도 한번 화재를 당한 이후로 남아 있는 원고가
없게 되었으니, 제가 죽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될지 짐작할 수 있습
니다. 그리고 지금 가령 화재를 당하지 않았더라도 이전부터 수
십 년 동안 제 그림자를 비춰 보면서 혼자 즐기는 자료에 불과할
따름이니 어찌 애석하게 여기겠습니까.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조물
주가 저의 수고를 애처롭게 여기고 저의 어리석음을 안타깝게 여
쳐서 어찌면 하나도 남김없이 없애버리게 해 준 것인 듯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비록 어리석더라도 지금 와서 그것을 후회하겠습

196 전해질 수가 없으니 : 원문은 ‘無傳’인데, 중앙국립도서관본에 근거하여 ‘傳’을 ‘傳’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니까.

다만 생각건대, 전날 밤에 욱되게도 영공(令公)께서 한 마디 칭찬하는 말을 해 주셨는데, 평론한 내용 가운데 서로 계합(契合)되는 점이 한두 가지는 있는 것 같았습니다. 비록 그 말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나를 알아주는 것이라 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영공의 문장은 후대에 전해져 반드시 백년, 천년 뒤에서 존재할 것은 의심할 나위가 없습니다. 만일 영공의 진귀한 원고의 〈방씨서유실기(房氏書遺失記)〉¹⁹⁷와 같이 인정하는 말을 저에게 한마디라도 해 주신다면, 제가 수십 년 동안 애쓰면서도 완성이 못했던 것은 영공이 한번 손을 들어 광채를 발하는 문장만 못할 것입니다.¹⁹⁸ 그렇게 된다면 제가 분통이 터져 마음을 풀지 못했던 것이 장차 깨끗이 해소되면서 자연스레 쾌활해질 것입니다. 이것은 소인의 마음으로 군자를 헤아린 것인데, 영공께서는 혹시 그럴 의향이 없으신지요. 저는 도력(道力)이 굳건하지 못하여, 아내와 자식이 산속에서 울고 있을 모습을 상상하면 새벽에 잠자리에 들어도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등불을 켜놓고 이 글을 짓노라니 정신이 조급하고 어지러워 미처 고칠 틈도 없이 곧바로 함부로 올립니다. 삼가 바라건대 영공께서는 잘 살펴주십시오. 이만 줄입니다.

기미년(1619) 단오에 이식은 재배합니다.

197 방씨서유실기(房氏書遺失記) : 권15의 〈방씨서첩유실기(房氏書貼遺失記)〉를 가리킨다.

198 영공이...것입니다 : 조찬한의 광채를 발하는 문장으로 자신의 잃어버린 문장을 칭송해준다면 세상에 널리 알려질 것이라는 의미이다.

항아가 직녀에서 주는 것으로 상정하여 지은 편지

擬嫦娥與織女書

우연히 들으니, 그대는 베를 짜다가 작은 잘못을 저질러 거둬 황제의 꾸지람을 받고 갑자기 견우와 생이별하여 탄 집에서 살면서 한탄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부의 지극한 정이 어찌 다함이 있으리오. 다만 견우 죽하는 아직까지 몸에 탈이 없이 지내고 있고, 신령한 그대와 인연을 맺었으니 하늘과 더불어 신선의 수명을 누릴 것이오. 그렇다면 1년에 하루만 만난다고 하여도 만고의 세월이면 오히려 충분할 것인데, 어찌 만날 날은 적고 떨어져 지내는 시간이 많으며 상제의 은혜에 차별이 있다고 섭섭해하며, 근심에 차서 한탄하면서 떨어져 있는 동안 원망만 합니까. 이것이 소첩이 오랫동안 대단히 슬퍼하고 있으면서 그대를 끝도 없이 부러워하는 바입니다. 소첩 같은 죄인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달리 무슨 말을 할까요. 소첩은 상제의 약을 달이다가 엄준한 법을 어긴 죄를 지었으니 만 번 죽어 제 몸이 가루가 되어도 마땅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홍은(鴻恩)을 내려서 몸을 온전하게 하여 아직도 실낱같은 목숨을 유지하고 있으니, 한번 죽는 것 이외에는 다시 무엇을 바라리오. 광한전 깊숙한 곳에 거처한 지가 지금 벌써 얼마나 많은 성상(星霜)이었던가. 앞뒤를 둘러보아도 절굿공이를 잡고 도끼를 휘두를 일밖에 없는데, 붉은 계수나무가 더욱 자랄수록 붉은 얼굴은 더욱 시들어만 갑니다. 과부의 혼백은 죽을 기약도 없으니, 땅이 늙고 하늘이 무너질 때까지 나의 삶은 참으로 고달플 것입니다. 이에 홀로 답답해한들 누구에게 말하겠습니까. 혹시라도 그대는 베를 짜고 남는 시간에 서로 만날 길이 있다면,

장막으로 맞이하여 눈물을 닦고 피를 토하며 하소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소첩의 경우 달과 별의 궁궐에 금령이 대단히 엄하여 서로 멀리서 바라보면서 다만 그리움만 더할 뿐 두꺼비와 토끼에 의지하여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까마귀와 까치가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을 바라보면 미친한 나의 감회는 아득히 다하지 않습니다. 바라건대 하녀(下女)를 생각해 주십시오.

석천 권래(權來)¹⁹⁹의 《유산록》 발문

權石泉遊山錄跋

공은 넉넉한 재물로 관동의 넉넉한 경치를 유람하였으니,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또한 문장으로 드러낸 것이 이처럼 넉넉하고 아름다우니, 하늘이 공에 대해 그 넉넉함을 많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지녀도 넉넉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더구나 그 세 가지를 겸하여 모두 소유한 자임에랴. 더구나 재물이 넉넉하다고 그 마음을 사치스럽게 지니지 않았으며, 멀리 유람한다고 그 눈을 크게 뜨지 않았으며, 문장을 공교롭게 짓기 위해 그 재주를 믿지 않았음에랴. 이에 큰 업을 세우고 기국(器局)과 식견을 원대하게 하였으니, 넉넉하고도 더욱 넉넉함을 향유하였다. 세상에서 조금의 재물과 조금의 재주와 한쪽으로 치우친 견해를 가졌으면서 문득 스스로 교만하다가 실패를 부른 자들은 어찌 공으로 거울을 삼지 않으랴.

199 권래(權來) : 자는 약이(樂而), 호는 석천(石泉), 본관은 안동이다. 군자감 정을 지냈다. 제자백가서와 경사에 통달하였고 문장에 능하였다.

지명誌銘

습정 임환²⁰⁰ 군의 묘지명

林君習靜墓誌銘

그대를 만나기 이전의 벼이 많은데 모두 얼굴로만 사귀었고, 그대를 만나기 이후의 벼이 적지 않은데 모두 얼굴로만 사귀었다. 진심에서 벗어나지 않은 자를 벗어나는 것은 오직 그대뿐인데, 그대가 떠난 것은 벌써 6년이요, 다만 나 혼자 살아남으니 그대를 위해 슬퍼하지 않는다면 누구를 위해 슬퍼하리오. 슬프도다. 어찌 차마 그대의 일을 서술하여 그대의 묘지(墓誌)를 지어 저승의 무덤을 덮고 이승에 내걸으리오.

그대는 눈썹이 넓고 눈은 별처럼 빛이 났으며, 두툼한 뺨에 키가 컸다. 활을 잘 쏘고 말을 잘 탔으며 술을 즐겨 끝이 없었는데 취하면 문득 농담을 잘하여 온 좌중이 크게 웃지 않은 적이 없었다. 충과 효, 우애는 실로 하늘에서 나왔으며, 의리가 있는 곳은

200 습정 임환(林懷) : 1561~1608. 본관은 나주(羅州). 자는 자중(子中), 호는 습정(習靜)이다. 정유재란이 일어나 이순신(李舜臣)이 보화도(寶化島)에서 군량이 떨어졌을 때 자기 집의 곡식 수백 석을 지출하였으며, 전라도에서 의병을 모아 대장이 되어 8도에 격서(檄書)를 보내 백성의 쫓겨난 것을 호소하였다. 이 소식이 조정에 전하여 공조좌랑에 보직되었으며 수천의 적병과 대치하면서 고두성(孤頭城)을 지켰다.

자신을 잊고 용감하게 뛰어들었으니 맹분(孟賁)과 하육(夏育)도 막지 못할 정도였다. 임진왜란 때 그대는 백면서생으로 화급하게 의병을 불러일으켜 창의사 김천일(金千鎰)을 보좌하였다. 비록 강박한 의병이더라도 머리를 숙이고 믿고 따랐으니, 충성으로 무장하고 의리로 다스려서 대체와 세목이 확립된 것은 모두 그대의 힘이다. 당시에 왕세자가 수안(遂安)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그대는 강화도에서 편지를 받들고 조정에 들어가 이들을 머물면서 세 번 소장을 올려, 왕세자를 모시고 남쪽으로 내려가 중흥의 기틀을 세울 것을 간곡히 청하였다. 곧바로 사포서별제에 임명되어 직책을 띠고 돌아왔다. 하루는 미복(微服)으로 걸어서 한양에 들어가 어지러운 적들 사이에서 옛집을 찾아가 사당의 신주를 찾아 등에 지고 돌아왔다.

바야흐로 의병이 동쪽에서 싸울 때 그대가 상주에 이르렀는데 병이 위독하여 들것에 실려 고향으로 돌아왔다. 후에 진주성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분통을 터트리면서 “대장부가 다른 사람과 의병을 일으켰는데 저 사람은 죽고 나는 살았구나.”라 하면서, 그들과 함께 죽지 못한 것을 평생의 한으로 여겼다. 정유재란이 일어나 호서와 호남이 거의 유린당하자 향병(鄉兵)의 추대를 받아 의병을 계승하여 대장이 되었다. 이에 분연히 왜적을 공격하여 섬멸할 뜻을 두고 드디어 격문을 돌리고 소장을 올렸다. 소장이 올라가자 특별히 공조좌랑에 임명되었다. 왜교²⁰¹의 싸움에서 적을 포위한 군사²⁰²가 얼마되지 않았으니, 적이 나오는 것을 보고 모두 뒷걸음질 쳤다. 그대 홀로 우뚝 서서

201 왜교 : 순천 왜교성을 가리킨다.

202 적을 포위한 군사 : 원문은 ‘環冠之師’인데, 중앙국립도서관본에 근거하여 ‘冠’을 ‘寇’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적을 쳐다보며 미동도 하지 않으니 명나라 장수가 혀를 내두르며 “막강하구나, 진사군(進士軍)이여.”라 하였다. 마침내 왜병은 관군에게 몰살당하여 다시 많은 군사를 모을 수 없었다. 전쟁이 끝나자 곧바로 무주현감에 임명되었다. 반년이 지나자 마음에 마뜩지 않아 관직을 버리고 떠나갔다. 그다음 해 명나라 장수 오종도(吳宗道)가 상소한 일로 인하여 접반관이 되어 해주에 이르렀는데, 형인 임순(林恂)이 강계부사로 있다가 임지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목놓아 슬피 울면서 달려가려고 하였으나 오종도가 허락하지 않았다. 밤낮으로 6일을 통곡하니 오종도 역시 감동하여 울면서 전송하였다.

그다음 해 공조좌랑에 있다가 직산현감으로 부임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공무로 한양에 갔는데, 당시 조정의 논의는 우계 선생을 심하게 공박하고 있었다. 이에 그대는 분개하면서 “우계는 선비들이 스승으로 여기는 바인데 지금 이처럼 배척하니, 선비의 신분으로 그 배척을 막지 않는다면 어찌 선비이겠는가.”라 하였다. 이에 선비들이 그대의 의논을 지지하면서 소장을 올렸는데, 권력자가 그대에게 화를 내며 공박하였다. 이로 인해 그대는 벼슬에서 물러났으나 평소 자연을 즐기려던 자신의 뜻은 이루었다.²⁰³ 이윽고 또다시 문화(文化) 현령이 되었는데, 권귀(權貴)에게 아첨하지 못하여 탄핵을 당하였다. 성의 남쪽에 병들어 지내면서 치료하지 못하다가 가마를 타고 남쪽 고향으로 내려갔는데, 끝내 그 병으로 타계하였으니 당시 나이 48세였다. 부고가 전해지자 알고 지내든지 알지 못하든지 원근의 사람들이 놀라 상심하면서 “의로운 선비가 죽었구나.”라 하였다.

203 이로...이루었다 : 백사 이항복이 지은 <전문화현감임공묘지명(前文化縣監林公墓誌銘)> 참조.

그대는 본성이 어질고 또한 굳세다. 친척 가운데 학문하려는 자들을 반드시 모아서 가르쳤으며, 굶주리고 추위에 떠는 사람이 라면 비록 길가는 전혀 모르는 자라도 반드시 부족한 것을 빠뜨린 것처럼 구제하였다. 만일 예가 아니면 비록 장성한 조카나 손자라도 매질을 하여 봐주지 않았다. 넓은 옷과 큰 관²⁰⁴을 착용하고 엄숙히 앉아 날을 마쳤는데, 온 집안이 조정처럼 숙연하여 집안 아이들이 감히 우러러 바라보지 못하였으며 그대가 자리 잡고 있으면 모두 두려워하였다. 일에 임하면 반드시 경계하기를 “내가 여기에 있으니 들어서 알지 않겠느냐.”라 하였다.

일찍이 바닷가 집에 거처할 때 쌓아 놓은 곡식이 산처럼 높아 친구들의 혼인과 상례에 다급한 비용을 대 주었다. 통제사 이순신 장군이 명량에 있을 때 군량이 적다는 소식을 듣고는 곧바로 쌓아 놓은 수백 석의 식량을 모두 털어²⁰⁵ 내주면서 “적을 마주하고 있으니 군량이 있어야 하는데 군량이 없으며, 적을 마주하지 않으니 군량이 없어도 되는데 식량이 남아돈다.”라 하였다.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군을 의롭게 여겼다. 명나라 장수 오종도가 그대를 한번 보고는 생사를 같이하기로 허락하면서 “아무개는 의로운 선비이다.”라 하였다. 그가 명으로 돌아가게 되자, 조선에서 낳은 아이를 군에게 맡겼다. 명나라 장수 이의(李義)가 순천에 있을 때 그의 애첩을 부탁하면서 “그대의 성신(誠信)을 안다.”라 하였다. 창의사의 아들 김상신(金象伸)이 죽음에 임박하여 또 한 편지로 그의 처자를 부탁하니, 그대는 시종 주의를 기울여 그

204 큰 관 : 원문은 ‘大寇’인데, 국립중앙도서관본에 근거하여 ‘寇’를 ‘冠’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205 수백…털어 : ‘鑿儲數百石’인데, 국립중앙도서관본에 근거하여 ‘鑿’을 ‘罄’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들을 보호하였다.

아아, 그대가 일찍이 인정한 사람이 한 시대에 그 숫자를 어찌 한정(限定)할 수 있겠는가마는 나는 그대보다 11살이 적으며 재주와 식견은 아득히 미치지 못한다. 그런데 나를 만나자마자 즉시 마음으로 허여하여 나이 많은 벗 이상으로 예우(禮遇)하였다. 의병을 일으킬 때 나에게 앞으로의 조짐을 진단해 달라고 요청하자 나는 크고 작은 일 가리지 않고 자세히 설명하였다. 문득 어느 날 하직하고 떠나게 되자 그대는 애석해하였으나 만류할 수 없어서 며칠을 나를 따라오니 차마 이별하지 못하고 서로 바라보면서 눈물만 흘렸다. 온 군대가 그 때문에 감동하여 울먹이며 “장군의 정성은 다만 충성과 효도, 우애뿐만이 아니라 벗과 사귄데도 또한 그러합니다.”라 하였다. 매번 나와 만나게 되면 반드시 서로 즐거워하였고, 서로 이별하게 되면 반드시 서로 슬퍼하였다. 슬퍼하고 즐거워할 때는 몇 번이나 그렇게 슬퍼하고 즐거워하였는지 알 수가 없더니 이제는 줄곧 슬프기만 하고 다시는 즐겁지 못하니, 슬프고 슬프도다.

그대의 뜻은 원대하고 그릇은 큰 데도 중용(重用)되지 못하고 벼슬은 6품에 그쳤다. 힘써 공부하고 문장에 공교로웠는데도 또한 과거에 합격하여 진사가 되지 못하였다. 게다가 수를 누리지도 못하였고 아들도 없다. 하늘이 공에 대해 매우 돈독하게 한 것은 효제(孝悌)와 충의(忠義)와 뜻과 그릇이며, 유독 인색한 것은 작록과 수와 아들이다. 이른바 하늘이란 것은 끝내 믿을 수가 있어서 믿을 수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인가, 아니면 그 반대인가. 아아, 슬프도다.

그대의 성은 임씨로 대대로 나주의 회진(會津)에 살았다. 고려 시대에 판사재시사 임비(林庇)가 군의 시조이며, 13대가 지나 병

조참판에 추증된 전라병우후 임평(林樺)이 군의 증조이다. 예조 참판에 추증된 경주부윤 임봉(林鵬)이 군의 조부인데, 이분께서 가선대부 평안도절도사 임진(林晉)을 낳으시니 군에게 아버지가 된다. 이분이 선전관 윤기(尹覲)의 따님과 결혼하여 군을 낳았다. 군의 형제는 5명으로 모두 널리 알려진 선비이니, 큰 형은 정랑을 지낸 임제(林悌)로 호는 풍강(楓江)이니 시로 이름이 났으나 일찍 죽었다. 다음은 진사 임선(林愼)으로 또한 시에 뛰어났다. 그 다음은 강계부사 임순(林恂)으로 무관인데 문장을 갖췄다. 네 번째가 바로 그대이다. 임택(林悵)은 자가 자정(子定), 호는 창랑(滄浪)으로 막내이다. 재주가 더욱 뛰어났는데 세상에 숨어지내다가 요절하였다. 이들은 모두 그대보다 뒤에 타계하였다. 진사와 자정은 또한 나의 벗이다.

군의 이름은 임환(林權)으로 자는 자중(子中)이며 호는 습정(習靜)이다. 부인 임씨는 사옹원 직장 임호(林浩)의 따님으로 군이 죽은 뒤에 건강을 잃을 정도로 슬퍼하여 죽기를 기약하다가 그 다음 해에 마침내 타계하였다. 첩은 두 사람으로, 한 사람은 진사 양산룡(梁山龍)의 따님인데 정유재란 때 왜적을 만나 절개를 지키다 타계하였다. 또 한 사람은 아무개의 따님으로 2녀 1남을 두었는데 큰 딸의 이름은 승무(勝無)로, 군이 일찍이 무릎에 놓고 기르면서 나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더 나은 아이가 없으니 그렇지 않은가.”라 하였다. 그 동생은 어리다. 남자의 이름은 아무개로 군이 죽고서 태어났다. 정랑 임제의 넷째 아들 기(埶)로 후사를 삼았으니 기 또한 훌륭한 선비로 가업을 이어 장차 성취할 것이다.

그 명은 다음과 같다.

말은 충성스럽고 마음은 신실하여	忠口信腹
기장과 고기에 의와 충을 길렀네	義梁肉忠 ²⁰⁶
신실한 것 듣고 의로운 것 보니	耳信目義
성색(聲色)을 구차하게 여겼네	聲色趣苟
의리는 내달리는 황하처럼 결단하니	義決河奔
내달림을 얹어매어 제어할 수 없네	駟縻非御
독이 넘쳐 집이 무너지는 것처럼	堤而圯舍
참으로 의리를 실천하였네	苟義由蹈
영광은 피하고 작록도 낮으니	光避祿莫
사양을 머금어 성취하지 않았네	炤讓不致
즐거 쓰고 등용하지 않으니	嗜而不施
명성이 이에 그쳤구나	名止于此
의리는 이지러지지 않는 것을	非義之匱
평소에 보았는데	雅所遇耳
산에서 굶주린 자는	餓于山者
오직 의사인가 보구나	獨義士歟

206 기장과…길렀네 : ‘義梁肉忠’ 인데, 국립중앙도서관본에 근거하여 ‘梁’을 ‘梁’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고 좌랑 신군 묘갈명

故佐郎愼君墓碣銘

정사년 봄 정월에 승문관 박사 신천익(愼天翊)이 호남에서 천 리를 걸어와 영천(榮川)에 있는 나를 찾아와서 옆드려 통곡하면서 그의 죽은 아우의²⁰⁷ 묘갈명을 요청하였다. 내가 울면서 “나는 늙어도 죽지 않았는데 어찌하여 차마 그대의 아우 묘갈명을 짓겠는가.”라 하였다. 또 울면서 “내가 다행히 죽지 않았으니 어찌 차마 그대 아우의 묘갈명을 사양하겠는가.”라 하였다. 마침내 다음처럼 묘갈명을 짓는다.

“군의 이름은 신해익(愼海翊)이고 자는 중거(仲擧)이다. 먼 조상인 신익(愼翼)은 고려조에서 출사(出仕)하여 벼슬이 태자태부에 이르렀다. 여러 대를 지나면서 유명한 자손들이 많았다. 고조의 이름은 신우장(愼友張)으로 병절교위(秉節校尉)를 지냈으며, 증조의 이름은 신희남(愼喜男)으로 예조참의를 지냈으며, 조부의 이름은 신여경(愼餘慶)으로 연산현감을 지냈으며, 부친의 이름은 신인(愼謹)으로 이전에 돌아가셨다. 어머니는 덕수 이씨로 부친의 이름은 이용(李溶)이니 충순위(忠順衛)를 지냈으며 좌의정 용재 이행 선생의 후손이다.

군과 그의 형인 박사는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날에 태어났는데, 군이 뒤에 태어났기에 아우가 되었다. 어려서부터 단아하고 빼어난이 똑같아서 비록 친척이라도 반드시 주의 깊게 살펴본 뒤에

207 죽은 아우의 : 원문은 ‘亡第’인데, 국립중앙도서관본에 근거하여 ‘第’를 ‘弟’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분간할 수 있었다. 일찍 부친을 여의고 어머니의 명으로 모두 나에게 학문을 배웠다. 자라면서 더욱 분발하여 문예가 날로 발전하였다. 22살이 되었을 때 알성시에 응시하여 급제하였다. 임금 앞에서 시를 읊었는데 거동이 우아하여 바라보매 마치 하늘을 나는 신선 같았으니 보고 듣는 자들이 크게 탄복하지 않음이 없었다. 성균관 전적의 벼슬로 어머니에게 영광을 돌리면서 ‘나의 뜻은 이와 같음에 지나지 않는다.’라 하였다.

끝내 벼슬에서 물러나 한가롭게 거처하였는데 곧 병에 걸려 여러 해를 옮겨 다녔다. 병을 치료하기 위해 한양에 왔다가 예조좌랑겸춘추관기사관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이윽고 병이 위독해져 끝내 객지의 숙소에서 죽고 말았으니, 당시 나이가 25살이었다. 부고가 전해지자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모두 탄식하며 안타까워하였다.

홍양 유씨와 결혼하여 아들 하나를 낳았으니 이름이 성기(聖夔)인데 겨우 6살이다. 군은 말이 적고 장난질을 하지 않았으며 행동거지가 법도에 맞았다. 성품은 지극히 효성스러워 어머니께서 일찍이 감동하였다. 가난으로 맛난 음식을 올리지 못한 것을 마음 아파했는데 일찍이 ‘한 고을 현령이면 충분하겠다.’라 하였으니, 그가 노력하여 빨리 벼슬에 나아간 것은 다름아닌 어머니를 위해서였다. 그러나 세속에 영합하여 불따르지 못하고 바야흐로 행장을 꾸렸는데 병이 심해져 매번 거리를 계산하면서 남쪽을 바라보았다. 이윽고 숨이 끊어지고 나서 어머니의 행차가 있었으니, 아아, 슬프도다.

군의 부모가 기도를 드린 뒤에 잉태하였는데, 이윽고 탄생하자

꿈이 과연 들어맞았기에 드디어 꿈을 꿈대로 이름을 지었다.²⁰⁸
 그가 죽을 때도 어머니께서 또 꿈을 꾸었는데 뒤에 과연 꿈과 같
 았다. 그의 탄생과 죽음은 참으로 기이하다. 일찍이 들으니, 도
 가(道家)에 시해(尸解)와 방광(放光)²⁰⁹이란 말이 있다고 하는데,
 아마도 이른바 죽은 자가 또한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것을 가리
 킨 말인가. 그것은 알 수 없다.” 드디어 명을 덧붙인다.

저 재주 없고 어질지 않은 자들은	彼不才不賢者
하늘이 재주 없고 어질지 않다고 여겨 거둬가지 않아서	天且以謂不才不賢而不之收
그들의 수를 다 누리게 하는가	使得盡其年數
저 재주 있고 어진 자들은	彼才而賢者
하늘이 재주 있고 어질다고 여겨서 급히 거둬가	天且以爲才而賢而急收之
그 수를 다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使不得盡其年數
저 재주 없고 어질지 않으면서 그 수를 누리는 자는	彼不才不賢而盡其年者
세상에서는 과연 수를 누리지만 하늘에서 요절한 자인가	是果壽於人而夭於天者歟

208 꿈이…지었다 : 꿈에 두 마리 학이 와서 팔뚝에 앉았는데, 하나는 날
 아서 하늘로 올라가고 하나는 날아서 바다로 들어갔다. 그래서 이름
 을 천익, 해익이라 지었다. 《林下筆記 文獻指掌編》

209 시해(尸解)와 방광(放光) : 시해는 몸은 남겨두고 혼백만 빠져나가 신
 선이 되는 도술이며, 방광에 대해서는 《도경(道經)》에 이르기를, “수
 련(修煉)하는 사람이 내단(內丹 도가(道家)에서 하는 토고납신(吐故
 納新), 즉 호흡법(呼吸法)이 이루어지면 달[月]과 같은 빛이 미간(眉
 間)에 나타난다.”라 하였다.

저 재주 있고 어질면서 그 수를 누리지 못한 자는

彼才而賢而不得盡其年者

세상에서는 과연 요절하였지만 하늘에서는 수를 누린 자인가

是果夭於人而壽於天者歟

아, 나는 하늘의 사람이 아니고

嘻吾非天之人

바로 세상의 사람이니

乃人之人

어찌 하늘에서 수를 누릴 것을 기뻐하고

庸足喜其壽於天

세상에서 요절한 것을 슬퍼하지 않으랴 而不爲悲其夭於人也歟

방공 묘갈명

房公墓碣銘

공의 성은 방씨이며 이름은 덕린(德隣), 자는 계운(季雲)으로 유학을 업으로 삼았다. 병오년 사마시에 합격하였으나 끝내 과거에는 합격하지 못하고 한가롭고 여유롭게 집에서 늙어갔다. 무술년 봄 강령현에 둘째 아들 복령(復齡)을 따라갔다가 그해 겨울 12월에 병으로 타계하였으니, 나이가 73세였다.

아버지의 이름은 방응청(房應淸)으로 통정대부행고부군수를 지냈으며, 조부의 이름은 방한장(房漢長)으로 어모장군행충무위부사직을 지냈으며, 증조의 이름은 방귀화(房貴和)로 통훈대부행호조좌랑을 지냈다. 그의 선조 10여 대는 고려 조정에서 연달아 현달하였으니, 당나라 태사 방현령(房玄齡)의 후예이다. 남원 양씨에게 장가들었으니, 참봉 양귀원(梁貴源)의 따님으로 공보다 먼저 돌아가셨다. 부인은 세 명의 아들과 두 명의 딸을 낳았다. 장남의 이름은 득령(得齡)으로 아들 하나를 두었으니 이름이 호(瑚)로 무과에 합격하였다. 차남의 이름은 복령(復齡)으로 일찍이 강령현감이 되었다. 이전에 선전관에 있을 때 사실과 어긋나게 대간의 탄핵을 받았는데²¹⁰ 선조대왕이 그가 쓴 선전관청(宣傳官廳) 네 글자를 가져다 보고는 그의 필법을 칭송하고 감탄하면서 병조에 비망(批望)하여 곧바로 수문장에 임명하였다. 이 일로 인해 그의 이름이 조정에 알려지게 되었다. 아들 셋을 낳았으니, 명

210 사실과...받았는데 : 원문은 ‘誤彼臺駁’인데, 국립중앙도서관본에 근거하여 ‘彼’를 ‘被’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건(明建)·명술(明述)·명달(明達)이다. 그다음은 후령(後齡)으로 요절하였다. 아들 둘을 낳았으니, 명선(明選)·명괄(明适)이다. 딸은 학생 최경지(崔敬止)에게 시집갔으며, 둘째 딸은 참봉 진기정(晉起禎)에 시집갔다.

공은 키가 9척에 가까웠으며 수염이 배 아래까지 내려왔으니, 현철한 어른이었다. 일찍이 그 침소를 깨끗이 정돈하고 화훼를 즐지어 심은 뒤에 그 정자에 침의(瞻依)²¹¹라는 현판을 내걸었는데, 트인 시야를 조망하면 사방의 경치가 모두 눈 안에 들어왔다. 남원에 이르는 사절(使節)들은 반드시 먼저 공의 이름을 물었으며 그 다음으로 공의 정자에 대해 물었다. 왕래하는 자들이 끊이지 않았고 술자리가 날마다 이어졌으니 다만 산수의 풍경과 술과 안주의 즐거움 때문만은 아니었으며 오직 공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았기 때문이다. 명나라 장수 심유경(沈惟敬)이 일본에서 명나라로 돌아갈 때 남원에 머무른 적이 있었는데, 스스로 ‘나는 걸출한 협객으로 천하를 두루 유람하였으니, 바다도 눈에 차지 않고 호걸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라 하였다. 그런데 한번 공의 정자에 갔다가 그 정자에서 공을 보았는데, 수염은 하얗고 풍채와 위기가 정중하니 속세의 사람이 아닌 것을 알았다. 곧바로 진심을 다해²¹² 공경을 표시하고 도사의 의관과 신과 허리띠 등을 예물로 주었다. 공은 항상 이것을 착용하고 생활하였으니 사람들이 바라보고는 노선(老仙)에 비교하였다. 공은

211 침의(瞻依) : 어버이처럼 항상 바라보고 의지하며 사모한다는 말인데, 《시경》 소아(小雅) 소반(小弁)의 “눈에 뜨이느니 아버님이요, 마음에 그리느니 어머님일세.〔靡瞻匪父 靡依匪母〕”라는 말에서 유래한 것이다.

212 진심을 다해 : 원문은 ‘輪悃’인데, 국립중앙도서관본에 근거하여 ‘輪’을 ‘輪’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평소 활쏘기를 좋아하였으니, 활을 쏘면 줄곧 과녁을 맞추었으며
 늙어서도 실력이 줄지 않았다.

정유재란 때 떠돌아다니며 걸식하다가 아들이 다스리는 고을
 로 찾아가 지내다가 타계하였다. 그다음 해 봄에 남원의 흑성리
 군수동의 외조 선영의 곁에 반장(返葬)하고 묘좌(卯坐) 유향(酉
 向)의 언덕에 양씨를 합장(合葬)하였다. 통정대부 승정원좌승지
 겸경연참찬관에 추증되었으니, 아들 복령이 원종공신에 들어갔
 기 때문이다. 16년 뒤에 강령현감 복령이 영암으로 나를 찾아와
 “그대는 우리 부친의 족질이면서 우리 부친을 오래도록 종유하
 지 않았습니까. 우리 부친이 옷과 신을 준 명나라 장수에게 사례
 하는 마음을 표시한 것도 그대의 글이 아니었습니까. 우리 부친
 의 품모를 알기에 문장이 지나치지 않을 자는 오직 우리 그대뿐
 입니다. 어찌 묘갈명을 지어 저승에 계신 분을 밝게 드러내지 않
 을 수 있겠습니까.”라 하니, 내가 사양하였으나 끝내 물리칠 수
 가 없었다. 삼가 앞의 내용처럼 위대의 조상을 차례대로 서술하
 고 묘갈명으로 잇는다. 그 묘갈명은 다음과 같다.

빼어난 모습에 현철한 키	偉貌長身
하얀 수염은 아름답구나	好鬚之白
지금 그는 돌아갔으니	今其漠矣
무덤의 풀만 수북하구나	墳草之積
그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면	有欲求之
어찌 비석의 글을 살펴보지 않으랴	盍稽于石

기 빙군²¹³의 묘표 음기

奇聘君墓表陰記

공의 이름은 효증(孝曾), 자는 백로(伯魯)로 일찍이 부친의 가르침을 받았다. 장성하면서 더욱 학문에 매진하여 부친이 살아계실 때 진사가 되니, 명문가의 자제로 명성이 매우 자자하였다. 이윽고 부친을 여원 뒤에 모친을 모시면서 효도와 공경을 다하였고 아우와 누이를 예(禮)로서 신칙하였다. 여러 차례 과거에 응시하였지만 합격하지 못하고 음서로 영은전참봉, 조지서별제 등의 벼슬에 제수되었다. 이윽고 장악원직장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파직되어 고향으로 돌아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임진왜란을 만났는데, 당시 7도(道)가 함락되어 적의 소굴이 되었다. 다만 남쪽 바닷가 지역만 그런 상황을 면하였는데, 공은 분격하여 병사와 군량을 모아 한겨울임에도 불구하고 바다로 배를 몰아 때에 맞춰 행재소에 도달하여 군량이 떨어졌던 왕을 호위하던 군사와 명나라 군사를 구제할 수 있었다. 임금이 공을 불러 충성스런 노고를 칭찬하면서 곧바로 군기시첨정겸동복현감에 제수하였다. 그러나 갑작스레 무고와 비방을 받고 곧바로 파면되었다.

병신년에 모친상을²¹⁴ 당하였으며 정유재란에 아우와 누이가 모두 적에게 몰살당하였는데 부친의 원고를 받들어 홀로 죽음을

213 빙군(聘君) : 조정에서 예를 갖추어 관리로 초빙한 숨은 선비를 이른다.

214 모친상을 : 원문은 ‘外憂’인데, 문맥에 근거하여 ‘內憂’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면한 것은 기미를 살피서 세상에서 멀리 떠났기 때문이다. 이윽고 중풍으로 오른쪽이 마비가 되어 거의 10여 년을 약을 복용하면서 숨어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와 선영의 아래에 여막을 짓고 6년을 살다가 병으로 타계하였으니, 당시 나이가 67세였다.

증조의 이름은 기찬(奇禡)으로 홍문관응교를 지냈으며, 조부의 이름은 기진(奇進)으로 경기전참봉을 지냈다. 조부의 둘째 아들이 광국공신덕양군에 추증된 대사간 기대승 선생인데, 함평 이씨와 결혼하여 공을 낳았다. 공의 부인은 김씨로 성품이 인자하여 시부모 섬김과 자식을 기름에 덕에서 어긋나지 않았다. 부인은 공보다 먼저 돌아가셨는데, 묘소는 공의 오른쪽에 있다. 공의 어머니의 부친의 이름은 이임(李任)으로 충순위(忠順衛)를 지냈으며, 조부의 이름은 이종의(李宗義)로 부총관(副摠管)을 지냈으며, 증조의 이름은 이종수(李從遂)로 충좌위(忠佐衛)를 지냈으니, 고려 신무위대장군(神虎衛大將軍)을 지낸 이언(李彦)의 후손이다. 부인은 한 명의 아들과 두 명의 딸을 낳았으니, 아들의 이름은 정현(廷獻)으로 음서로 벼슬에 나아가 현풍현감을 제수받았다. 정현은 딸 하나를 두었으니 선비에게 시집갔다. 부인의 큰 딸은 곧 나의 아내이다. 두 아들과 세 딸을 낳았으니, 세 딸은 모두 어리며 아들의 이름은 휴(休)로 진사이다. 막내 아들은 아직 강보(襁褓)에 있다. 둘째 딸은 한리겸(韓履謙)에게 시집갔는데 그는 문과에 합격하여 덕산현감이 되었다. 지금까지 아들이 없다. 만력 정서년 정월 모일에 장녀의 사위 통훈대부행영천군수 조찬한은 삼가 짓는다.

회양향교 중수 통문

淮陽鄉校重修通文

우리 고을 치소가 잔약(殘弱)하여 읍이라 할 수 없을 정도라는 것은 조목조목 알려주지 않아도 명확히 아실 것입니다. 금강산 천만 봉우리 너머에 있는 고을이 모두 폐허가 되어, 숨만 허덕이며 조석도 보존할 수 없으니 저의 큰 고민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일이 있으니 바로 향교가 무너져가고 있으나, 중수를 하지 못한 지가 벌써 여러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너져 내리는 우환이 코앞에 다가왔으니 우리 공자를 편안하게 모시지 못한다는 탄식과 불행하게도 비슷하게 되었는데, 이와 같은 물력(物力)으로 어떻게 해 볼 수 없다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루 관아에 있으면 그날 하루의 책무를 다 처리하지 못하는데, 대성전이 무너지는 우환이 당장 하루 안에 발생한다면 제가 조정에서 무거운 견책을 받는 것과 사문(斯文)에 무거운 죄를 짓는 것은 근심거리도 되지 않을 것이요, 다만 성문(聖門)에 치욕을 끼친 일이 어떠하겠습니까. 옛날에 엽후(鄴侯) 이필(李泌)이 서원을 급히 중건하려고 마음먹은 것²¹⁵과 정나라 자산(子產)이 감히 향교를 헐

215 엽후…것 : 엽후는 당나라 이필(李泌, 722~789)의 봉호이다. 당 나

지 못한 것²¹⁶은 진실로 이런 까닭이 있습니다.

이번에 형편없는 형세를 헤아리지 않고 향교 중건을 시작한 지 며칠 되었는데, 그에 들어가는 음식 비용은 백방으로 생각해도 마련할 길이 없기에 가까운 고을 제형(諸兄)들에게 널리 알립니다. 제일 급한 것은 소금과 쌀이고 그다음은 생선과 채소입니다. 만일 많건 적건²¹⁷ 은택을 아끼지 마시고 큰 공사를 도와주신다면, 다만 같은 이웃에서 급한 사정을 도와주는 의리 그 이상일 것입니다. 아니 제가 종주로 삼아 성인으로 모시는 분이 제형들이 함께 종주로 삼은 분이 아니며 오직 나만 성인으로 삼은 분입니까. 그렇다면 이웃 고을을 돕는 것일 뿐만 아니라 바로 장차 무너져가는 지역에 있는 우리 성인을 구제하는 것이니, 무엇이 이것보다 급한 일이 있겠습니까.

라에서 이필을 우대하여 봉래궁(蓬萊宮) 옆에다 서원(書院)을 지어 주어 거처하게 하였다. 그는 장서(藏書)가 2만여 권에 이르렀다 한다. 후에 남악에 남악서원을 지어 이곳에서 은거하며 지냈다.

216 정나라…것 : 정(鄭)나라 사람들이 향교(鄕校)에 가서 놀면서 정치의 잘잘못에 대해 논하자, 연명(然明)이 자산에게 말하기를, “향교를 헐어 버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는데, 자산이 말하기를, “어찌 그런 짓을 한단 말인가. 저 사람들이 아침저녁으로 일을 마치고 그곳에 가서 정치의 선악을 논하니, 그들이 선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대로 행하고, 그들이 악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고치고 있다. 그들은 나의 스승인데 어찌 향교를 헐단 말인가.” 하였다. 《春秋左氏傳襄公31年》

217 많건 적건 : 유부(庾釜)에 대한 기록으로는 《논어(論語)》〈옹야(雍也)〉에 보인다. 공자(孔子) 제자인 공서적(公西赤)이 공자의 사자(使者)가 되어 제(齊)나라에 갔을 때, 염구(冉求)가 공서적의 모친(母親)에게 곡식을 주기를 청하자, 공자가 부(釜)로 주라고 했다가, 염구가 더 주기를 청하자, 공자가 다시 유(庾)로 주라고 했는데, 염구가 그 말을 듣지 않고 5병(秉)의 곡식을 주므로 1부(釜)는 6두(斗) 4승(升)이고, 1유(庾)는 16두이고, 1병(秉)은 16곡(斛)이다.

평범한 사내가 수재나 화재를 당하는 것을 본다면 오히려 물에 빠지거나 불에 그슬리는 것을 꺼려하지 않고 구하거늘 더구나 무너져가는 성묘(聖廟)이겠습니까. 이런 상황인데도 기꺼이 구원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하늘을 오르내리는 우리 공자의 명령이 “너는 왜 구제하지 않느냐.”²¹⁸라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와 같은 상황에 기꺼이 구제하는 자가 있다면 “노나라에 군자가 없었다면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러한 덕을 취하였겠는가.”²¹⁹라 하실 겁니다.

우리 유도(儒道)의 근기(根基)를 바로 세우는 일은 반드시 제형의 오늘의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회양 한 고을의 다행일 뿐만 아니라 온 조선 수천 리의 수많은 유림의 큰 다행으로, 문치를 숭상하고 학교를 세운 우리 성상(聖上)의 교화로 인해 이뤄진 것입니다. 바라건대, 여러분께서는 너그럽이 살펴주십시오.

218 너는…않느냐 : 《논어》〈팔일(八佾)〉에 “계씨가 태산에 여제(旅祭)를 지냈다. 공자가 염유에게 “네가 그것을 바로잡을 수 없느냐?”라고 하자, 염유가 “불가능합니다.[季氏旅於泰山。子謂冉有曰：‘女不能救與，對曰，不能。]’라 하였다. 여기서는 이 말을 인용하여 회양서원의 구제에 도움을 주지 않느냐는 의미로 쓰였다.

219 노나라에…취하였겠는가 : 《논어》〈공야장(公冶長)〉의 공자가 제자 자천(子賤)을 군자답다고 칭찬하면서 “노나라에 군자가 없었다면 이 사람이 달리 어디에서 이러한 일을 취했겠는가.[魯無君子者 斯焉取斯]”라고 한 말을 발췌한 것이다. 여기서는 유학의 도를 배워 서원을 구제할 줄 안다는 의미로 쓰였다.

현주집

제15권 하

記기

序서

辨변

書서

墓碣銘묘갈명

기記

함재기

涵齋記

나의 장인¹은 선친(先親)의 마지막 가르침으로 ‘함축(涵蓄)’ 두자를 받으시고 마침내 그 선친의 가르침²의 의리를 함영(涵泳)하였는데 일상생활에 실천하고도 부족하여 이에 선산(先山) 아래 재실(齋室)을 지어 내어 ‘함(涵)’이라 편액하고 여기서 삶을 보내며 돌아가셨다. 그 선친의 가르침을 함영한다고 한 ‘함(涵)’의 함축(涵蓄), 함영(涵泳)의 뜻이 여기에 지극하였으니 그 선친의 뜻을 계승(繼承)하고 선친의 일을 전술(傳述)하였다고 할 만하다. 선친의 미덕을 이어받고 선친의 사업을 잘 주관한 이가 또 우리 그대³인데 또 선인의 함양하라[涵]는 가르침의 ‘함(涵)’을 능히 함영하여 그 재실에 거처하면서 이미 아름답게 꾸미고서 화훼를 심고 두 개의 못을 파 연꽃을 심었으며 바위 사이 솔과 시냇가의

-
- 1 나의 장인 : 조찬한은 기효증(奇孝曾, 1550~1616)의 딸과 혼인하였다. 기효증은 호가 함재(涵齋)로 그의 부친은 고봉(高峯) 기대승(奇大升)이다.
 - 2 선친의 가르침 : 원문은 ‘先訓’인데 연세대본 《현주집》에는 ‘先’이 ‘涵’으로 되어 있다.
 - 3 우리 그대 : 기효증의 아들이자 조찬한의 처남인데, 자세하지 않다.

대, 뜰의 섬돌에 심은 식물 등이 정갈하게 시원하고 맑음을 더해 주는 듯하였으니, 또한 아버지가 집터를 닦고 자식이 집을 이루었다[考肯構而子肯堂]⁴ 할 만하다. 부친이 조부의 사업을 전술하고 아들이 아버지의 일을 잘 계승한 뜻이 성대하게 한 재실에 넘쳐흐르니 선인을 전술하고 계승하는 효도는 우리 그대의 부자간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아들과 손자 두 세대의 효도는 모두 ‘함(涵)’이라는 한 자에서 나왔고 두 세대로 하여금 효도를 잘 행하여 폐함이 없게 한 것은 선생의 한마디 교훈이 자상하게 자손을 깨우쳐 경계하고 당부함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아! 선생의 교화가 사문(斯文 유도(儒道))에 있는 것이 이처럼 분명하니 어찌 단지 한 재실에만 드러나고 말 뿐이겠는가. 그렇지만 혹시라도 그 재실에 가서 재실에서 뜻을 터득하여 확충한다면 선비가 수신(修身)하는 방법에 있어서 ‘함(涵)’ 한 글자를 써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니 어찌 단지 자식과 손자에게만 전하고 그치겠는가. 이렇게 기문을 짓는다.

-어떤 본에는 ‘어찌 단지 그대의 한 집뿐이겠는가.[豈唯君之一家也哉]...’라고 되어 있다.-

4 아버지가...이루었다 : 선조의 유업(遺業)을 후손이 잘 이어받는 것을 말한다. 《서경》〈대고(大誥)〉에 “아버지가 집을 지으려 하여 이미 설계까지 끝냈다 하더라도 그 자손이 집터도 닦으려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집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若考作室, 既底法, 厥子乃弗肯堂, 矧肯構.]”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서序

연경으로 가는 윤정춘에게 주는 서문⁵

贈尹靜春赴燕京序

무릇 큰 지혜는 지혜롭지 않고 큰 청렴은 청렴하지 않다.[大智不智, 大廉不廉.]⁶ 이것이 무슨 말인가. 그 높은 견식(見識)으로 세속 사람들이 범위 안에서 잔다랗게 연연하는 것을 일삼지 않고

-
- 5 연경으로…서문 : 윤정춘(尹靜春)은 윤휘(尹暉, 1571~1644)로, 정춘은 그의 자이다. 본관은 해평(海平), 호는 장주(長洲)·천상(川上), 시호는 장익(章翼)이다. 영의정을 지낸 윤두수(尹斗壽)의 아들로, 1594년(선조29)에 문과에 급제하였다. 이 서문은 1619년(광해군11) 12월 후금과의 통교를 주시하면서 조선의 사대(事大)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여론이 일어났던 명나라 조정에 조선의 입장을 해명하기 위한 진주사행(陳奏使行)의 부사(副使)가 되어 명나라로 사신갈 때 조찬한 이 지어 준 것이다. 《光海君日記 11年 12月 29日》
- 6 큰…않다 : 《장자》〈제물론(齊物論)〉에 “큰 도(道)는 일컫지 않고, 큰 말은 말하지 않고, 큰 인(仁)은 어질지 않고 큰 청렴은 겸손하지 않고 큰 용맹은 사납지 않다.[夫大道不稱, 大辯不言, 大仁不仁, 大廉不謙, 大勇不伐]”라고 한 말과 같은 논조의 말이다. 참고로, ‘겸(謙)’을 ‘겸(謙)’으로 보지 않는 의견으로, 마기창(馬其昶)은 ‘겸(謙)’을 ‘엄(嚴)’으로 보아 “큰 청렴은 스스로 한계를 드러내지 않는다.”고 풀이한 반면, 황원병(黃元炳)은 “큰 청렴은 태도가 완연(宛然)해서 마치 청렴하지 않은 것 같다.”고 풀이하여 ‘대렴불렴(大廉不廉)’으로 보아 조찬한 이 주장한 명제와 뜻이 같다.

생각을 거치고 고려를 하고서 말로 다 밝히지 못하다 보면 단지 지혜롭지 않은 데 귀착할 뿐만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비방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 그 넓은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창졸간에 도 밝게 살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마음을 풀어버리고 뜻대로 하고서 밝음으로 다 살피지 못하다 보면 단지 청렴하지 않은 데 귀착할 뿐만 아니라 끝이 없는 책망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큰 지혜를 지니고 상공(相公 윤두수(尹斗壽))의 가정에서 성장한 공으로서는 춘추(春秋)의 대의(大義)⁷를 밝히지 않은 것이 아니지만 그 말이 능히 지극하게 밝히지 못했다는 까닭으로 결국 헤아릴 수 없는 비방을 면치 못하는 것이고 큰 청렴을 지키며 상공의 교훈을 복습한 공으로서는 방한(防閑)의 대요(大要)⁸를 살피지 않은 것이 아니지만 그 봄이 능히 지극하게 살피지 못했다는 까닭으로⁹ 결국 끝이 없는 책망을 면치 못하는 것이다. 비록 외부에서 비롯된 것을 가지고 나의 마음을 동요하지는 않더라도 또한 세속 사람들이 불신(不信)하는 점에서는 어찌할 수 없다. 그런데 이번에 성상께서 직접 선발하여 특별히 공을 진주변무(陳奏辨誣)하는 사행(使行)에 부사(副使)로 임명했으니¹⁰ 하늘이 어찌면 공이 지혜롭고 청렴함을 알고서 이번 사행에

7 춘추(春秋)의 대의(大義) : 주(周)나라를 존숭하고 오랑캐를 물리치는 ‘존주양이(尊周攘夷)’의 의리를 이르는데, 여기서는 명(明)나라를 높이 고 오랑캐를 배척하는 의리를 이른다.

8 방한(防閑)의 대요(大要) : 방(防)은 제방(堤防)으로 물을 막는 데 쓰는 것이고 한(閑)은 울타리로 짐승을 막는 데 쓰는 것인바, 방비하고 금지하는 예(禮)의 요점을 뜻한다.

9 까닭으로 : 대구(對句)를 이루는 앞의 문장에 근거하여 ‘以其’를 보충하여 번역하였다.

10 이번에…임명했으니 : 1619년(광해군11) 조선과 명나라 연합군이 후금(後金)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심하(深河)의 전투 이후 명나라에서

서 억울함¹¹을 바로잡아 끝이 없고 헤아릴 수 없는 비방을 영원히 종식시키려고 한 것인가. 이것이 무슨 말인가. 《춘추》에서 밝힌 것을 가지고 대의(大義)를 진술하여 이 무고(誣告)를 변론하고¹² 가정에서 익힌 것을 가지고 간사(奸邪)함을 살펴 이 혐의(嫌疑)를 떨어지게 한다면, 중화(中華)와 외夷(外夷)가 공의 고의(高義)에 심복할 뿐만 아니라 하인이나 역관들까지도 공의 염근(廉謹)함을 경복(敬服)하지 않는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예전에 시끄럽게 앞장서 떠들던 자들도 혀를 내두르고 감탄하며 말하기를, “공의 지혜가 이러하므로 공의 신중함이 이와 같다.”라고 하면서 마침내 연달아 그 비방을 멈추고 소곤거리며 입을 모아 탄미(歎美)할 것이다. 요진(遼塵)과 계수(薊樹)¹³ 사이를 부지런히 오가는

는 조선의 강홍립(姜弘立)이 이끌던 원군(援軍)이 후금에 항복한 사실과 누르하치와의 통교(通交) 문제를 주시하면서 조선의 사대(事大)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여론이 퍼졌고 급기야 명나라 대신(大臣) 서광계(徐光啓)가 조선을 감호(監護)해야 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하였다. 자칫 주권을 상실할 수도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광해군은 이 일을 해명하기 위한 진주사(陳奏使) 파견을 결의하고 12월에 정사(正使) 이정귀(李廷龜), 부사(副使) 윤휘(尹暉)를 파견하였는바, 이를 가리킨다. 《광해군일기(光海君日記)》 11년 12월 29일 참고로, 이정귀와 윤휘는 이듬해 만력제(萬曆帝)의 장의(葬儀)와 태창제(泰倉帝)의 즉위식에 참석한 뒤 조선의 요구대로 칙서(勅書)를 받아 원만하게 사행을 마무리짓고 돌아왔다.

- 11 억울함 : 원문은 ‘冤行’인데 연세대본 《현주집》에 근거하여 ‘行’을 ‘枉’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 12 이 무고(誣告)를 변론하고 : 원문은 ‘辨是誣’인데 연세대본 《현주집》에 근거하여 ‘辨’을 ‘辯’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 13 요진(遼塵)과 계수(薊樹) : 요동(遼東)의 먼지와 계주(薊州)의 나무로, 우리나라에서 중국 북경으로 가는 험난한 사행길을 말한다. 특히, 계수(薊樹)는 ‘계문연수(薊門煙樹)’의 줄임말로, 연경 팔경(燕京八景)의 하나를 가리키기도 한다.

일을 마음속으로 고생스럽게 여기지 말고 시종일관 힘쓰기를 바란다. 아! 천하 후세로 하여금 공이 대의(大義)를 밝힌 사실을 알게 하고 어리석음과 지혜, 탐욕과 청렴의 잣대를 가지고 어슴푸레한 가운데 공을 헤아리지 않게 하는 일이 이번 일에 달려 있지 않겠는가. 이번 일에 달려 있지 않겠는가.

덕에 길함과 흉함이 있다는 데 대한 변¹⁴

德有吉有凶辨

“무릇 덕(德)이라는 말은 얻음[得]이니, 천리(天理)의 바름을 얻은 것을 덕(德)이라 이른다. 이미 그 바름을 얻었다면 그 덕은 길하지 않음이 없다. 《서경(書經)》에서, ‘덕(德)이 있으면 길하고 덕이 없으면 흉하다.[德吉否德凶]’¹⁵라고 한 말이 이것이다. 어찌 덕이 있는데도 길하지 않고 덕이 없는데도 덕이 되는 일이 있겠는

14 덕에…변 : 이 글은 한유(韓愈)가 유학(儒學)의 도(道)를 천명한 글인 〈원도(原道)〉의 첫머리에서 “인과 의는 그 이름이 하나로 정해져 있지만, 도와 덕은 그 자리가 비어 있다. 그러므로 도에는 군자와 소인이 있고, 덕에는 흥덕과 길덕이 있게 되는 것이다.[仁與義爲定名, 道與德爲虛位. 故道有君子小人, 而德有凶有吉.]”라고 한 데 대해 조찬한 이 자신의 의견을 논변한 것이다. 《古文眞寶後集 卷2》 한편 계곡(谿谷) 장유(張維, 1587~1638) 역시 과작(課作)으로 같은 제목의 글을 지었는데, 두 글이 비슷한 논조이면서 곡절(曲折)이 달라 비교하여 읽어볼 만하다. 《谿谷集 卷3 雜著 德有凶有吉辨》

15 덕(德)이…흉하다 : 이 말은 《서경》에 실려 있지 않은데, 다만 《서경》〈대우모(大禹謨)〉에 “도를 순히 따르면 길하고 도에 반하면 흉하니, 그림자나 메아리 같다.[惠迪吉, 從逆凶, 惟影響.]”라고 한 말과 〈함유일덕(咸有一德)〉에 “덕이 오직 한결같으면 동함에 길하지 않음이 없고, 덕이 한결같지 못하면 동함에 흉하지 않음이 없다.[德惟一, 動罔不吉, 德二三, 動罔不凶.]”라고 한 말이 있다.

가. 혼자서 괴이하게 여기는 것은 한유(韓愈)가 ‘덕에 흥함이 있고 길함이 있다.[德有凶有吉]’라고 한 말이다. 아, 주공(周公)과 맹자(孟子)가 돌아가신 뒤로 덕을 아는 이가 드무니 한유의 무리가 어찌 덕을 아는 자이겠는가.”

“아니다. 한유가 말한 ‘흥함이 있다’고 한 것은 내가 말하는 덕이 아니다. 내가 말하는 덕은 요(堯), 순(舜), 우왕(禹王), 탕왕(湯王), 문왕(文王), 무왕(武王), 주공(周公), 공자(孔子), 맹자(孟子)가 서로 전해온 것이다. 그 덕의 특징은 천리의 바름을 얻지 않음이 없으니 이것이 이른바 길함이 있는 덕[有吉之德]이다. 저 한유가 말한 덕은 노자(老子), 장자(莊子), 양주(楊朱), 묵적(墨翟), 불씨(佛氏)가 말한 것으로, 천리의 바름을 얻지 못하였는데도 스스로 덕이라고 여긴 것이다. 그래서 그 덕은 흥하니 이것이 이른바 흥함이 있는 덕[有凶之德]이다. 한유가 길흥(吉凶)으로 덕을 말한 것이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다. 이것이 한유가 덕의 설에 밝지 못한 까닭이다. 저 노자와 장자의 허무(虛無)와 양주, 묵적, 불씨의 궤탄(詭誕)은 텅텅 비어 모두 천리의 바름을 얻지 못하였으니 그 얻었다는 것은 얻지 못한 것이요, 그 덕은 덕이 아니다. 덕이 아닌 덕을 어찌 그 덕이라 이르면서 억지로 흥(凶)이라고 명명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얻지 못한 것은 덕이라 이를 수 없고 덕이 있으면 흥이라 이를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이를 가지고 헤아려 보면 한유 같은 이는 노자, 장자, 양주, 묵적, 불씨가 덕이 아님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요, 순, 우왕, 탕왕, 문왕, 무왕, 주공, 공자, 맹자의 덕까지 아울러 알지 못하였으니 애석하다! 그렇지만 경(經)

에는 흉덕(凶德)과 박덕(薄德)¹⁶의 덕(德)이 있고, 전(傳)에는 양덕(涼德)과 상덕(爽德)¹⁷의 덕(德)이 있으니, 한유가 이 설을 말한 것은 또한 여기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세상에서 한유의 글을 읽는 이들이 말을 가지고 의리(義理)를 해치지 않는다면 더불어 덕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일 것이다. 그러한즉 한유가 덕을 알았다고 이르는 것도 옳다. 일찍이 맹자 뒤의 한 사람이라 일컬어진 사람¹⁸이 덕인 것과 덕 아닌 것을 알지 못했겠는가. 나는 그래서 ‘한유

-
- 16 흉덕(凶德)과 박덕(薄德) : 흉덕은 《서경》〈반경 하(盤庚下)〉에 “옛날 우리 선왕(先王)께서는 ‘장차 전인(前人)의 공(功)보다 많게 하리라’ 하시어 산(山)으로 가서 우리의 흥한 덕(德)을 낮추어 우리 나라에 아름다운 공적(功績)이 있게 하셨다.[古我先王將多于前功, 適于山, 用降我凶德, 嘉績于朕邦.]”라고 한 데 보이고, 박덕은 《춘추좌씨전》 희공(僖公) 19년에 송나라 사마자어(司馬子魚)가 말하기를 “제환공(齊桓公)은 망해 가는 세 나라를 보존시켜 제후들을 복속시켰는데도 의사는 오히려 덕이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다.[齊桓公存三亡國以屬諸侯, 義士猶曰薄德.]”라고 한 데 보인다.
- 17 양덕(涼德)과 상덕(爽德) : 양덕은 박덕(薄德)으로, 《춘추좌씨전》 장공(莊公) 32년에 “궂나라는 박덕함이 많으니 어찌 땅을 얻을 수 있겠는가! [虢多涼德, 其何土之能得!]”라고 한 데 보이고, 상덕은 실덕(失德)으로, 《서경》〈반경(盤庚)〉에 “그러므로 잃은 덕이 있는지라 위로부터 너희를 벌하시리니 너희 능히 면할 길이 없으리라.[故有爽德, 自上其罰汝, 汝罔能迪.]”라고 한 데 보인다.
- 18 맹자…사람 : 한유를 말하는 것으로, 그는 〈원도〉를 통해 사상 처음으로 요(堯), 순(舜), 우(禹), 탕(湯), 문왕(文王), 무왕(武王), 주공(周公), 공자(孔子), 맹자(孟子)로 이어지는 유학의 도통을 말하고 “맹자가 죽은 뒤로는 제대로 전해지지 않았으니, 순자와 양웅(楊雄)이 이 도를 선택하긴 하였으나 정밀하지 못하였고 이에 대해서 말하긴 하였으나 상세하지 못하였다.[軻之死, 不得其傳焉, 荀與揚也, 擇焉而不精, 語焉而不詳.]”라고 하면서 은연중에 유도(儒道)의 전수(傳受)를 자임하였는데 그가 살던 중당(中唐) 시기는 불교가 융성하고 유학이 침체하였으므로 그의 주장은 용기 있는 주장이었다. 그는 비록 후대 성리학자들로부터 순정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기는 하였지만 북송의

는 덕을 알지 못한 것이 아니라 바로 덕을 알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표현해 내지 못한 자이다.’라고 말한다.”

구양수(歐陽脩)가 그의 고문(古文)을 계승하는 한편 동시대 성리학자들에게 영향을 끼쳐 맹자 뒤의 한 사람이라고 일컬어졌다.

장량이 사호를 초청하는 편지¹⁹

張良請四皓書

-
- 19 장량이…편지 : 장량은 한(韓)나라 귀족의 아들로, 자는 자방(子房)이다. 한나라를 멸망시킨 진 시황(秦始皇)을 박랑사(博浪沙)에서 저격했으나 실패하여 은둔하다가, 황석노인(黃石老人)으로부터 병법을 배운 뒤 한 고조(漢高祖) 유방(劉邦)이 군사를 일으키자 유방이 천하를 통일하도록 보좌한 뒤 유후(留侯)에 봉해져 한신(韓信)·소하(蕭何)와 함께 한(漢)나라를 창업한 3걸(三傑)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일컬어진다. 사호(四皓)는 진(秦)나라의 학정(虐政)을 피하여 상산(商山)에 은거했던 네 사람의 은자, 즉 동원공(東園公)·하황공(夏黃公)·녹리선생(用里先生)·기리게(綺里季)로, 이들은 모두 나이가 여든이 넘어 수염과 눈썹이 희었기에 당시 사람들이 사호라고 일컬었는데 처음에 한 고조가 초빙하였으나, 은둔한 채 응하지 않았다. 이후 고조가 만년에 여후(呂后)의 아들로 뒤에 혜제(惠帝)가 되는 태자(太子) 유영(劉盈)을 폐하고 척 부인(戚夫人) 소생인 조왕(趙王) 여의(如意)를 대신 세우려고 하자, 대신(大臣)들이 수없이 간쟁했으나 듣지 않았다. 이에 여후가 여택(呂澤)을 시켜 장량(張良)에게 좋은 계책을 내도록 강요하게 하여 장량의 계책에 따라 태자로 하여금 정중히 서신을 갖추어 겸손한 언사와 안거(安車)로써 사호를 초빙하였는데, 과연 이 네 노인이 입조(入朝)하여 태자를 매우 지성으로 보호하게 되자, 마침내 고조가 태자를 바꾸지 않았다. 《史記 卷55 留侯世家》참고로, 상산은 섬서(陝西) 상현(商縣)의 동남쪽에 있는 산으로, ‘상안산(商顏山)’이라고도 한다.

저 장량은 사공(四公 사호(四皓)) 족하게 아웁니다. 살육이 극에 달하고 병란이 이어져 소란스러운데 아득히 멀리 날아가 내려앉아 마음의 움직임을 막고 덕(德)에서 노닐면서 지금 세상이 어떻게 다스려지고 있는지 전혀 모르시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광포(狂暴)하고 강팍(剛愎)한 자를 멸하고 이겨 군중의 소란이 잠잠해져서 천하가 눈을 비비고 चु춘 지 오래입니다. 사공 또한 귀가 있으시니 어찌 교화(教化)가 끝없이 펼쳐지고 있음을 듣지 못해 아직도 은거하여 돌아올 줄 잊어버린 분들이시겠습니까.

더구나 사공의 뜻은 세상을 멀리하려는 것이 아니고 멀리하려고 했던 것은 폭정(暴政)이었으니 오늘의 교화를 놓고 또한 불인(不仁)하다고 생각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천하가 안정된 지 오래되지 않은 시기에 성상 폐하의 춘추(春秋)가 권근(倦勤)²⁰하시는 때이니 안방의 침석(寢席)에서 생기는 사스러운 정으로 어린 자식을 총애하는 것은 바로 노년의 늙상 있는 마음이지 또한 국본(國本 태자(太子))을 움직이려는 조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려스러운 바는 인공(仁恭)하고 효경(孝敬)한 태자에게 아형(阿衡)이나 주공 단(周公旦)·소공 석(召公奭)²¹과 같은 보필할 신하가 없어 무릇 고문(顧問)할 일이 있을 때

20 권근(倦勤) : 오랜 세월 정사를 보느라 나이가 들어 힘이 부친다는 말로, 《서경》〈대우모(大禹謨)〉에서 순 임금에 우(禹)에게 말하기를, “짐이 제위에 있는 지가 33년이니 늙어서 부지런히 해야 할 정사에 게으르니 너는 오직 태만히 하지 말고 짐의 무리를 거느리라.[朕宅帝位, 三十有三載, 耄期倦於勤, 汝惟不怠, 總朕師.]”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21 아형(阿衡)이나 주공 단(周公旦)·소공 석(召公奭) : 아형은 재상에 해당하는 상(商)나라의 관직 이름인데, 보통 상나라 탕왕(湯王)의 아형이었던 이윤(伊尹)의 별칭으로 쓰인다. 이윤이 탕왕을 보좌하여 결(桀)을 쳐 하(夏)나라를 멸하고 천하를 다스렸으므로, 탕왕이 그의 공을

마다 걸핏하면 보좌할 이가 부족한데 진(秦)나라 이후 학문이 없어진 가운데 누가 바른 도로 인도하여 천하의 바람에 부응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만약 위태로운 조짐이 장차 싹터서 전성(前星)이 빛을 잃어버린다면²² 천지와 종묘사직의 신령도 믿을 수 없어 결국 멸망한 진나라처럼 되는 것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예로부터 산림(山林)에 묻혀 사는 선비들은 이 세상에 뜻이 없는 게 아니라 세상과 서로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공처럼 현명한 분들이 벌써 진(秦)나라 사구(沙丘)의 일²³을 잊어버리셨습니까. 혹여 거짓 조서가 내리지 않아 공자(公子) 부

기려 아형으로 존대하였다. 《서경》〈태갑(太甲)〉에 “새로 즉위한 왕이 아형에게 불순히 하였다.[惟嗣王不惠于阿衡]”고 하였는데, 그 소(疏)에 “탕(湯)이 이윤에게 힘입어 천하를 평정하였기 때문에 벼슬의 이름으로 삼았다.”고 하였다. 원문의 ‘朝爽’은 주(周)나라의 주공 단(周公旦)과 소공 석(召公奭) 형제로, 조선 태조 이성계(李成桂)의 등극 후 이름이 ‘트’이기 때문에 피휘하여 같은 뜻의 ‘朝’로 바꾸어 쓴 것이다. 두 사람 다 문왕(文王)의 아들이자 무왕(武王)의 아우로, 조카 성왕(成王)을 도와 주나라를 반석에 올려 놓았다.

22 전성(前星)이 빛을 잃어버린다면 : 태자가 폐위된다는 말이다. 전성은 《한서(漢書)》〈오행지(五行志)〉에 “심은 대성으로 천왕이다. 그 앞의 별은 태자이고 뒤의 별은 서자이다.[心, 大星, 天王也. 其前星, 太子, 後星, 庶子也.]”라고 한 데서 온 말로, 태자를 가리킨다.

23 진(秦)나라 사구(沙丘)의 일 : 진 시황(秦始皇)이 천하를 순행할 때 중거부령(中車府令) 조고(趙高)가 부새령(符璽令)으로 따라갔는데, 진 시황이 사구(沙丘)에서 죽음에 임박하여 장자(長子)인 부소(扶蘇)를 불러 후사를 이으라는 내용의 편지를 조고에게 전했으나, 조고가 이를 숨기고 같이 동행한 승상 이사(李斯)와 결탁하여 가짜 조서(詔書)를 내려서 부소를 자살하게 하고, 그때 수행하였던 막내아들 호해(胡亥)를 이세 황제(二世皇帝)로 삼았던 일을 말한다. 《史記 卷6 秦始皇本紀》

소(扶蘇)가 사형을 받는 일이 없기라도 했다면 사공의 자취도 굳이 이처럼 멀리 갈 것이 없었고 여좌(閭左)²⁴나 관동(關東)²⁵이 여전히 행복하게 안도하며 살아가서 온 천하가 오늘처럼 한나라의 세상이 되는 일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치세(治世)에 불행하게 옛날의 위기를 부른다면, 사공처럼 현명한 분들이 어찌 전날에 폭정을 피해 멀리 떠났던 일처럼 질시하며 구제하지 않고 도리어 홀로 자기 몸만 깨끗이 하려는 계획을 세우시겠습니까. 성상 폐하께서는 미천(微賤)했을 때부터 사공의 풍도(風度)를 칭양(稱揚)하시면서 매번 장막에서 계책을 세울 때마다 사공의 높은 인격을 사모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장을 누비며 어수선하여 예물과 수레를 갖추어 모실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태가 이러하니 사공께서 마음을 확 돌려 속히 일어나 춘궁(春宮 태자)을 도와주신다면 성상 폐하께서 비록 아주 작은 사사로운 감정이 있더라도 종묘사직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오직 평생 사공을 위하지 않겠습니까.

24 여좌(閭左) : 진(秦)나라 때 부역(賦役) 등을 면제받고 이문(里門)의 좌측에 살던 빈약한 민가(民家)를 말한다. 진 시황이 천하를 통일하고 나서 세금을 3분의 2로 올려 받고, 나중에는 여좌의 백성들까지 동원하여 수자리를 살게 하자, 결국 난을 일으켰고 얼마 안 되어 나라가 망하였다. 특히 이곳 출신인 진승(陳勝)과 오광(吳廣)이 부역하는 자들을 이끌고 가다가 기일 안에 도달하지 못한 죄를 짓고는 처형을 당할까 두려워하여 농민들을 모아 반란을 일으켜 진나라 멸망의 기폭제가 되었다. 《史記 卷48 陳涉世家》

25 관동(關東) : 진나라 이세 황제(二世皇帝) 때 관동에서 도적들이 일어나자 이세가 조고를 책망하자, 조고는 “관동 땅의 도적은 일을 성사할 수 없다.”라고 속여 황제를 안심시켰다. 이후 조고는 황제를 시해(弑害)하였다. 《史記 卷6 秦始皇本紀》

근래 상안산(商顔山)에 해가 길어 삼수(三秀)²⁶가 밝게 빛나는 가운데 바둑 두고 소리 내어 노래하는 그 취미가 외롭지 않으실 것이지만 마침 일이 말하기 곤란한 점이 있고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되니 귀를 씻는 인색함²⁷을 숭상하여 생령(生靈)들의 바람을 거둬 버리지 마소서. 그렇게 해 주신다면 수련(修練)하는 방법은 저 장량 또한 배운 바가 있으니 나랏일이 대강 안정되기를 조금 기다렸다가 병을 핑계로 사직하고 벽곡(辟穀)하면서 사공과 더불어 적송자(赤松子)와 같이 노니는 것이 원하는 바이고 바라는 바입니다.²⁸ 오직 사공께서는 이에 대해 생각해 주소서. 장량

26 삼수(三秀) : 영지(靈芝)의 다른 이름으로, 일 년에 세 번 줄기가 뻗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해강(嵇康)의 <유분시(幽憤詩)>에 “빛나고 빛나는 영지는 한 해에 세 번 꽃을 피우는데, 나는 홀로 어이하여 뜻이 있어도 이루지 못하는가.[煌煌靈芝, 一年三秀. 予獨何爲, 有志不就?]”라고 하였다. 《文選 卷23》

27 귀를 씻는 인색함 : 허유(許由)와 소보(巢父)가 기산(箕山) 아래 영수(潁水) 가에 숨어 살았는데, 요(堯) 임금의 제위(帝位)를 맡기려 하자 허유가 이를 거절하고서 더러운 말을 들었다면서 귀를 씻으니, 이 말을 들은 소보가 “그대가 만약 높은 산 깊은 골에 살면서 세상과 통하지 않았다면 누가 그대를 알아볼 수 있었겠는가.[子若處高岸深谷, 人道不通, 誰能見子?]”라고 꾸짖고는, 귀를 씻은 더러운 물을 자기 소에게 마시게 할 수 없다고 하며 소를 끌고 상류로 올라가서 물을 먹었다는 전설이 전한다. 《高士傳 許由》

28 수련(修練)하는…바입니다 : 장량은 한 고조(漢高祖)의 모신(謀臣)으로 일찍이 한 고조를 도와 천하를 통일하고 유후(留侯)에 봉해지고 나서는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지금 세 치의 혀로써 제왕의 스승이 되어 만호에 봉해지고 열후가 되었으니, 이는 포의에게 극도의 영광이라, 나에게에는 더없이 만족스러운 일이다. 이제는 인간의 일을 다 버리고 선인 적송자를 따라서 노닐고 싶을 뿐이다.[今以三寸舌爲帝子師, 封萬戶, 位列侯, 此布衣之極, 於良足矣. 願棄人間事, 欲從赤松子游耳.]” 하고는, 이에 벽곡(辟穀)과 도인술(道引術)을 배워 몸을 가볍게 하여 선인(仙人)이 되려고 하였다. 《史記 卷55 留侯世家》 벽곡은 도가(道家)의 수련술

은 머리 조아리고 거듭 절합니다.

(修鍊術)의 한 가지로, 화식(火食)을 하지 않고 생식(生食)만 하는 것을 말한다. 적송자는 전설상의 신선 이름으로, 염제(炎帝) 때 비를 다스리는 직책을 맡았는데, 불속에 뛰어들어 자신을 태우는 놀라운 능력을 터득한 다음 맹렬하게 타오르는 불길 속에 몸을 던져 자신을 태우고 연기를 따라 자유롭게 오르내리다가, 마침내 몸이라는 껍질을 벗고 신선이 되었다고 한다.

《양선생왕복서》에 대한 발문²⁹

兩先生往復書跋

하늘이 도(道)에 대해 그 어두워짐을 우려하여 마침내 퇴계(退溪)를 낳아 도를 밝혔다. 이리고도 여전히 도가 다 밝혀지지 않을까 염려하여 또 고봉(高峯)을 낳아 밝혔다. 두 분 선생이 질의(質疑)하고 문답(問答)하여 도가 비로소 크게 밝혀졌으니 그 한 말씀, 한 글자가 도 아닌 것이 없었는데 상자 속에 적막하게 묻힌 채 40년이 지나도록 세상에서 그 글을 일컬을 수가 없었다.

29 양선생왕복서에 대한 발문 : 《양선생왕복서(兩先生往復書)》는 1558년부터 1570년까지 13년간 고봉(高峯) 기대승(奇大升)이 퇴계(退溪) 이황(李滉)과 서로 왕복한 편지를 낱짜순으로 모아 편집한 것이다. 1570년 12월 퇴계가 돌아가신 후, 고봉은 보관하고 있던 퇴계의 편지와 자신의 편지 부분을 바탕으로 무오년(1558)부터 정묘년(1567)까지의 편지를 모아 2권의 책으로 만들고 퇴계서척(退溪書尺)이라 하였다. 2년 뒤 고봉이 별세하자, 고봉의 장자 기효증(奇孝曾)이 퇴계의 손자 이안도(李安道)의 도움을 받아 퇴계서척에 빠졌던 무진년(1568)에서 경오년(1570)까지 3년간의 편지를 정리하였으나 간행하지는 못하였다. 그후 기효증의 사위인 조찬한이 1612년 영암 군수로 부임하자, 이의 간행을 의논하여 1613년 10월에 간행을 시작하여 1614년(광해군6) 봄에 영암에서 목판으로 3권 3책을 간행하고 《양선생왕복서》라 이름하였다. 《이규필, 《고봉집(高峯集)》 해제(解題) 2, 국역 고봉전서1, 한국고전번역원, 2007.》

그런데 다행히 우리 장인³⁰께서 효도(孝道)를 잘 행하고 능히 전술(傳述)한 데 힘입어 전쟁을 겪으며 가산(家産)을 잃고 이리저리 다니며 굴속으로 피신하던 10년 사이에 남아 있는 서적이 조금도 보존된 것이 없었는데 두 분 선생이 주고받은 편지의 수백 마디 말은 특히 털끝만큼도 누락되거나 사라진 것이 없었다. 그러한즉 비록 신명이 묵묵하게 보호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찌 선친(先親)의 뜻을 계승하는 정성이 만들어 낸 일이 아니겠는가. 지금에 이르러 갖은 고생하며 경영하여 이 읍에서 이 책을 발간하였으니³¹ 또한 어찌 선조(先祖)의 일을 전술(傳述)하는 정성이 이루어 낸 일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어진 면재(勉齋) 선생 같은 제자³²를 얻어 전하지 못할 바에야 어찌 가사(家事)를 잘 주관하는 아들이 선친의 뜻을 잘 밝히는 것만 하겠는가. 나는 그러므로 오늘 이 책을 발간한 일은 우리 집안의 다행이 아니라 우리 유도(儒道)의 다행이라고 말한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우리 도가 장구하게 이어지는 일이 이 책에 힘입어 터를 잡는다면 이 책이 오늘에

30 우리 장인 : 조찬한의 둘째 부인 행주기씨(幸州奇氏)는 첨정(僉正) 효증(孝曾)의 딸로, 기대승(奇大升)의 손녀인바, 조찬한에게 처조부가 된다.

31 지금에...발간하였으니 : 조찬한이 1612년 영암 군수로 부임하자마자 간행을 도모하여 1613년 10월에 간행을 시작, 1614년(광해군6) 봄에 완간한 일을 말한다.

32 면재(勉齋)·제자 : 면재는 황간(黃幹, 1152~1221)의 호이다. 자는 직경(直卿), 시호는 문숙(文肅)으로, 민현(閔縣) 사람이다. 주자(朱子)와 유청지(劉淸之)에게 수학하였는데, 주자는 그의 능력을 인정하여 학문을 전수하고 사위로 삼았다. 뒤에 주자는 그에게 《의례경전통해(儀禮經傳通解)》의 완성을 부탁하였는데 미처 완성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자 주자의 다른 제자인 양복(楊復)이 마저 정리하여 《의례경전통해속(儀禮經傳通解續)》을 편찬하였다.

발간된 일이 또한 어찌 하늘이 도가 어두워짐을 우려해서이고 사람의 힘이 미칠 수 없는 바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만력 42년(1614, 광해군6) 3월 모일이다.

묘갈명墓碣銘

현주 조공의 묘갈명

玄洲趙公墓碣銘

고(故) 승정원 좌승지(承政院左承旨) 현주(玄洲) 조공(趙公)이 돌아가신 지 59년째 되는 해에 그 손자 귀상(龜祥)이 묘갈명을 지어 달라고 나에게 청했는데 감히 지을 수 없다고 사양하였다. 하지만 의리상 감히 끝내 사양하지 못할 점이 있기에 삼가 서술하고 명을 짓는다.

공의 휘(諱)는 찬한(欽韓), 자는 선술(善述)로 한양부(漢陽府) 사람이다. 시조 휘 지수(之壽)는 고려 때 첨의중서사(僉議中書事)를 지냈다. 손자 휘 양기(良琪)에 이르러 열세 살에 총관(摠管)이 되어 합단(哈丹)³³의 군대를 쳐부수고 원(元)나라 세조(世祖)에게 크게 칭찬을 받았다. 이때부터 양렬공(襄烈公) 휘 인벽(仁璧), 양절공(良節公) 온(溫)은 조선(朝鮮)이 개국(開國)할 때에 자취를 감추기도 하고 드러내기도 하며 각기 그 뜻을 행하여 명망(名望)과 공

33 합단(哈丹) : 원나라 태조의 아우인 합적온(哈赤溫)의 후손으로, 내안(乃顔)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다가 원나라 관군에게 패하였다. 그 잔당을 이끌고 충렬왕 때 압록강을 건너 고려로 침입해 들어와서 노략질을 자행하였으나 연기(燕岐)에서 패하여 북쪽으로 달아났다.

훈(功勳)이 당대에 비길 자가 없었다. 증조 휘 방언(邦彦)은 참판(參判)을 지냈고, 조부 휘 옥(玉)은 현령을 지내고 참판에 추증되었으며, 부친 양정(楊庭)은 판서(判書)에 추증되었다. 모친 진부인(眞夫人) 한씨(韓氏)는 아산 현감(牙山縣監) 응성(應星)의 따님이다.

공은 융경(隆慶) 6년(1572, 선조5) 정월 모일(某日)에 출생하였다. 어려서부터 뛰어난 자질이 있어 의젓하여 마치 어른 같았다. 판서공(判書公 조양정(趙楊庭))은 가법(家法)이 본디 엄했는데 공은 가르침을 잘 따라서 독서할 때 박람강기(博覽強記)하는 데 힘썼고 재주와 생각이 자유분방하고 특출나서 거의 한계를 지을 수 없어 명예가 갈수록 높아졌다. 중간에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고 만력(萬曆) 33년(1605, 선조38) 정시(庭試)에 급제하였는데 선조(宣祖)가 이때 지은 과문(科文)을 빼어나게 여겨 어필(御筆)로 비점(批點)을 찍어 전시(殿試)에 직부(直赴)하도록 특별히 명하였다.³⁴ 처음에 성균관(成均館)에 소속되어 학유(學諭)가 되었다가 전적(典籍)으로 승진하고 형조와 호조의 좌랑(佐郎)을 역임하고서 사간원 정언(正言)에 임명되었다. 병조 좌랑을 거쳐 외직(外職)으로 나가 영암 군수(靈巖郡守)가 되었다가 얼마 되지 않아 파직되어 돌아왔다. 다시 정언 겸 지제교(正言兼知製敎)에 임명되었다가 외직으로 나가 영천 군수(榮川郡守)가 되었는데 연이어 어떤 일에 연좌되어 파직되고 삼도토포사(三道討捕使)에 임명되

34 만력(萬曆)…명하였다 : 이해 5월 7일에 선조가 좌의정 기자헌(奇自獻)과 대제학 유근(柳根) 등에게 명하여 정시(庭試)에 응시한 유생들에게 ‘한 고조가 한신을 대장군에 배수한 내용으로 상정하여 지은 제서(制書)[擬漢高祖拜韓信爲大將制]’라는 제목으로 제술(製述)하게 하였는데, 이때 조찬한이 거수(居首)를 차지하여 전시(殿試)에 직부(直赴)하게 하였다. 《宣祖實錄 宣祖 38年 5月 7日》

었다. 이때 대도(大盜)가 호남과 영남에 창궐하니 조정에서 이를 근심하여 공으로 하여금 가서 다스리게 하였다. 공은 각 도(道)를 드나들며 간간이 장리(將吏)를 선발해 독찰(督察)하여 도적을 모조리 잡아 참수하니 도적에 대한 걱정이 마침내 사라진지라 포상하여 통정(通政)의 품계를 내렸다.

조정으로 들어와 예조 참의가 되었다가 동부승지로 옮겼다. 이 때 광해군이 정사(政事)가 혼란하여 간흉(奸凶)들이 득세하여 금용(金壙)의 화변(禍變)³⁵이 막 발생하여 그치지 않으니 공은 조정에 있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았다.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외직을 청해 상주 목사(尙州牧使)가 되었다. 부임하는 도중(途中)에 시를 지으니,³⁶

세상 일 듣다 보니 마음에 취한 듯한데³⁷

聞來世故心如醉

35 금용(金壙)의 화변(禍變) : 광해군에 의해 인목대비(仁穆大妃)가 서궁에 유폐된 것을 말한다. 금용은 본래 중국 하남성(河南省) 낙양현(洛陽縣)의 서북쪽 구석에 있는 성(城)의 이름으로, 삼국 시대 위(魏)나라 명제(明帝)가 여기에 성을 쌓고 성안에 서궁(西宮)을 두었는데, 그 뒤 가평(嘉平) 6년(254)에 훗날 진(晉)나라의 경제(景帝)로 추존된 사마사(司馬師)가 위주(魏主)인 조방(曹芳)을 여기에 유폐시켰고, 진(晉)나라의 양후(楊后), 민회태자(愍懷太子), 가후(賈后)가 모두 여기에 유폐되었다. 《讀史方輿紀要 河南 河南府 洛陽縣》

36 부임하는…지으니 : 이 시는 《현주집》 권6에 수록된 〈검호취별(劍湖醉別)〉이라는 칠언율시(七言律詩)의 경련(頸聯)과 미련(尾聯)이다.

37 마음에 취한 듯한데 : 마음이 울렁거려 가눌 수 없는 것으로, 나라가 멸망하여 옛 궁궐터가 기장밭이 됨을 보고 서글퍼하여 읊은 시인 《시경》〈왕풍(王風)·서리(黍離)〉에 “저 기장은 이삭이 늘어져 있는데, 저 피는 이삭이 패었도다. 길을 가다가 밭걸음 멈추어, 중심에 취한 듯하노라. [彼黍離離，彼稷之穗。行邁靡靡，中心如醉.]”라고 하여, 우국(憂國)의 심정을 억누를 수 없음을 말한 것이다.

위태로운 시국 보며 살쩍이 벌써 세었네 看到時危鬢已蓬
 어찌하면 푸른 물결의 무한한 달빛 아래 安得滄波無限月
 벼슬 그만두고 돌아가 낚시하는 늙은이 될꼬 解官歸作釣魚翁

라고 하였다. 부임하자 우복(愚伏) 정경세(鄭經世)와 창석(蒼石) 이준(李峻)이 이 지역에 살고 있어 의기가 투합하여 즐거워하였다. 일찍이 인근 고을의 봉생정(鳳笙亭)에서 함께 노닐었는데 산수(山水)가 빼어나고 그윽한 곳이었다. 술기운이 오르자 정공(鄭公)이 그에게 이르기를, “시국(時局)이 망극(罔極)하니³⁸ 만일 토구(菟裘)의 계획³⁹을 세운다면 이곳을 놔두고 어디로 가시겠소?”라고 하니, 공은 돌아가 은거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공들이 물력(物力)을 내어 정사(精舍)를 지었는데 공이 또 글을 지어 이 일을 기록으로 남겼다.

마침 인조(仁祖)가 반정(反正)하여 간흉들이 형벌을 받아 죽고 공들도 모두 소명(召命)에 응하였다. 공도 임기를 마치고 돌아와 형조참의 겸 승문원제조(刑曹參議兼承文院提調)에 임명되고 조경사(朝京使 명나라에 가는 사신)에 차출되었는데 황달병에 걸려가지 못하였다. 이윽고 부원수(副元帥) 이괄(李适)⁴⁰이 반역하였

38 망극(罔極)하니 : 《시경》〈청승(靑蠅)〉에 “윙윙거리는 파리여, 가시나무에 앉았도다. 참소하는 사람이 끝이 없어, 사국을 교란시키도다.[營營靑蠅, 止于棘. 讒人罔極, 交亂四國.]”라고 한 것을 암시하는 말이다.

39 토구(菟裘)의 계획 : 본래 춘추 시대 노(魯)나라의 지명인데 은거지(隱居地)를 뜻하는 말로 쓰인다. 《춘추좌전(春秋左傳)》 은공(隱公) 11년 조(條)에 은공이 “토구에 집을 짓게 하였으니, 내가 장차 그곳에서 노년을 보낼 것이다.[使營菟裘, 吾將老焉.]”라고 한 내용이 보인다.

40 부원수(副元帥) 이괄(李适) : 인조반정에 가담했던 무장이었는데,

다는 글이 이르자 임금이 남쪽으로 몽진했는데 공은 질병에도 막 무릅쓰고 가서야 비로소 행재소(行在所)에 뒤미쳐 갈 수 있었다. 간관(諫官)이 이 일로 공을 탄핵하였는데 얼마 되지 않아 좌승지에 제수되자, 사헌부 관원이 다시 그 문제를 거론하면서 전조(銓曹 이조(吏曹))까지 아울러 추고(推考)하였다. 마침 청음(淸陰) 김상헌(金尙憲)이 이조 참의로 있으면서 대답한 말이 자못 준엄하자 헌관은 인피(引避)하면서 공에게 이전의 잘못이 있다고 말하기까지 하였는데 이는 혼조(昏朝 광해군) 때 승정원의 승지로 있던 일을 지적한 것이었다. 무릇 사람을 아는 일은 본래 쉽지 않다. 공은 이미 당시에 억지로 애써 한번 벼슬에 나오는 것을 마음에 좋지 않다고 여기면서 외직을 청하고 매우 부지런히 물러날 생각을 했으니 평생 쌓은 뜻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도리어 격렬한 논쟁을 기회로 삼아 서로 이기기만 힘쓴다면 거의 또 한 공의 본래 모습을 알지 못하고 그러한 것이다. 이는 반드시 헤아릴 수 있는 이가 있을 것이다.

다시 형조참의 겸 승문원제조에 임명되었는데 얼마 되지 않아 외직으로 나가 회양 부사(淮陽府使)가 되었다. 이때 조사(詔使) 강왈광(姜曰廣), 왕몽윤(王夢尹)이 우리나라에 오자⁴¹ 빈사(賓

1624년(인조2) 평안병사 겸 부원수(平安兵使兼副元帥)로서 군사 1만 2천여 명을 이끌고 반란을 일으켜 서울을 점령하고 흥안군(興安君) 이제(李璉)를 왕으로 추대하였으나 서울 입성 하루 만에 관군에게 패하여 도망가다가 부하에게 피살되었다. 《仁祖實錄 2年 2月 11日, 14日》

- 41 조사(詔使)…오자 : 조사는 중국에서 오던 사신으로, 중국 천자의 조칙(詔勅)을 가지고 온다 하여 이르던 말이다. 강왈광(姜曰廣)은 명나라 한림원 편수관이고 왕몽윤(王夢尹)은 공부 급사중으로, 1626년(인조4)에 황자(皇子) 탄생을 알리는 칙서를 반포하기 위해 정사와 부사로서 함께 나왔다.

使)⁴² 북저(北渚) 김류(金瑬)가 공이 나라를 빛낼 재주가 있다고 아뢰자, 소환하라고 명하니 조사를 맞이해 오는 길에서 주고받은 시가 공의 손에서 나온 것이 많았다. 중형(仲兄) 현곡(玄谷) 위한(緯韓) 역시 양양 군수(襄陽郡守)로 아울러 소명을 받으니 당시 사람들이 영화롭게 여겼다.⁴³ 조정에 들어와 승정원에 임명되었는데 난청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상소를 올려 사직하였다. 다시 예조참의를 거쳤다가 외직으로 나가 선산 부사(善山府使)가 되어 임기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갑자기 얼굴에 생긴 종기를 앓다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승정 4년(1631, 인조9) 9월 모일이었다. 교하(交河) 맹곡(孟谷) 묘좌(卯坐)의 언덕에 안장하였다.

공은 타고난 자질이 남보다 뛰어나고 기개(氣概)가 걸출하여 드넓으면서도 능히 간약(簡約)하였고 엄숙하면서도 능히 온화(溫和)하여 예(禮)로써 가정에서 행하고 인(仁)으로써 정사에 임하였고 세리(勢利)에 담담하고 빙벽(氷檠)⁴⁴으로 자신을 경계하였다. 더하여 문무(文武)의 재력이 있어 내직과 외직을 출입하면서 명

42 빈사(賓使) : 중국 사신을 의주에서 맞이하고 전송하며 연회를 베풀어 위로하는 관원으로, 정1품의 의정을 제외한 2품 이상의 관원이 임명되는 것이 상례였다. 조선조 태조 때까지는 접반사(接伴使)라고 하였는데, 태종 때 원접사(遠接使)로 바뀌었다. 종사관(從事官)·제술관(製述官)·사자관(寫字官)이 수행하였는데, 학문과 시에 뛰어난 문신을 선발하였다.

43 영화롭게 여겼다 : 원문은 ‘榮之’인데 《남계집》 권74 〈승정원좌승지조공묘갈명(承政院左承旨趙公墓碣銘)〉에 근거하여 ‘榮’을 ‘榮’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44 빙벽(氷檠) : 맑은 얼음물과 쓰디쓴 소태나무라는 뜻으로, 굳게 절조를 지키면서 청백하게 사는 것을 비유한다. 당(唐)나라 백거이(白居易)의 “3년 동안 자사(刺史)로 있으면서, 맑은 얼음물을 마시고 쓰디쓴 소태를 씹었노라.[三年爲刺史, 飲氷復食蘗.]”라는 시구에서 유래하였다. 《白樂天詩集》 卷1 三年爲刺史

성과 공적이 매우 높았으니 당대의 정사를 보좌하여 역사에 공명(功名)을 드러낼 만하였는데 결국 또한 뜻을 다 펴지 못하였다. 어린 시절 지극한 효성으로 아버지를 섬겼는데 왜란을 당해 어머니를 등에 업고 깊은 산속으로 피신하고서 좋은 음식 올리는 일을 빠뜨리지 않으니 보는 사람마다 모두 탄복하였다. 늘 벼슬하느라 제대로 봉양하지 못하는 것을 종신(終身)의 아픔으로 여기고 진미(珍味)를 대할 적마다 슬픔으로 목메어 차마 먹지 못했다. 또 가난하게 사는 누이가 한 명 있었는데 아버지처럼 받들면서 늙어서까지 게을리 하지 않았다. 평소 지낼 때 반드시 일찍 일어나 빗질하고 세수하고서 옷깃을 바르게 여미고 단정히 앉으니 바라보면 엄숙하여 범할 수 없었다. 자제를 가르칠 때는 엄하면서도 법도가 있었고 규중(閨中)에서 내외(內外)를 엄숙히 단속하여 마치 조정(朝廷)과 같았다. 여러 차례 큰 고을을 맡으면서 공평하고 너그러우면서도 위엄이 있어 백성은 사랑하고 아전은 두려워했기에 매양 떠나간 뒤에 그리워하는 경우가 많았다. 농간을 없애고 번다함을 줄이는 문제에 있어서는 일을 만날 때마다 바람이 이는 것처럼 신속하였고 도적 소굴을 평정(平定)할 때는 늘 여유가 있었다. 관직에서 물러나는 날에 행낭이 비어 있어 늘 남에게 노자를 빌렸으니 평소 소박한 처세가 그러하였던 것이다.

선진(先秦)의 고문(古文)을 즐겨 읽으면서 온갖 서적까지 나아가 살펴보지 않은 책이 없는지라 그 문장이 끝없이 넓고 거침없이 쏟아내어 여러 문체를 두루 구비하여 길건 짧건 마음대로 지었는데 그중에도 소(騷)·부(賦), 변려(駢儷)에 더욱 뛰어났기에 식자(識者)들이 초(楚), 한(漢), 육조(六朝)의 유법(遺法)을 능히 터득하였다고 하였다. 요컨대 그 성취한 바는 참으로 한때의 소가(小家) 정도로 평가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었다. 만년에 서예를 좋아하

여 종요(鍾繇)와 왕희지(王羲之)의 필법의 경지에 깊이 나아갔는데 휘호한 글씨를 어쩌다 만나면 사람들이 반드시 보관하면서 귀하게 여겼다. 이런 까닭으로 벼으로 어울려 지내는 이들로 이를 데면 석주(石洲) 권필(權輶), 동악(東岳) 이안눌(李安訥), 소암(疏庵) 임숙영(任叔英) 같은 분들은 예원(藝苑 문단)의 거장이라고 일컬어졌는데도 모두 옷깃을 여미며 공을 추존(推尊)하였다. 그리고 후배로 이를테면 백헌(白軒) 이경석(李景奭), 천파(天坡) 오숙(吳翹), 소은(素隱) 신천익(愼天翊) 같은 이들이 다들 공을 종유하여 수업하고 강론하여 명성을 이루었다.

선생은 식견과 도량이 원대하여 성품이 비록 악을 미워하였으나 일찍이 남의 과실을 드러낸 적이 없었는데 오직 심하(深河)의 전투에서 두 원수(元帥)가 살아서 항복했다는 소식⁴⁵을 듣고 특히 심하게 우울해 하고 분노하면서 시를 지어 속마음을 나타내었으니 그 대의에 밝음이 이와 같았다. 조정에 있을 때는 일찍이 권세가(權勢家)에 발길을 들이지 않았고 이르는 곳마다 유사(儒士)와 현호(賢豪)들과 종유하여 종종 속세를 벗어난 고고한 의취가 있었다. 사문(斯文)에 가장 뜻을 두어 일찍이 고봉(高峯 기대승(奇大升))과 퇴계(退溪 이황(李滉)) 두 분이 주고받은 편지를 간행하면서 빠뜨린 글까지 포함하니⁴⁶ 이에 힘입어 사라지지 않게 되었다. 또

45 심하(深河)의…소식 : 1618년(광해군10) 명나라가 요동(遼東)을 침범한 후금(後金)을 토벌하면서 조선에 원병을 요청하자, 도원수(都元帥) 강홍립(姜弘立)과 부원수(副元帥) 김경서(金景瑞)가 1만 3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출정하였는데, 이듬해 패전을 하는 등 전세가 불리해지자 휘하 전군을 이끌고 후금에 항복하였다. 이 전투를 후대에 심하(深河)의 전역(戰役) 혹은 건주(建州)의 전역(戰役)이라고 한다.

46 고봉(高峯)과…포함하니 : 1612년(광해군4) 영암 군수로 부임한 조찬한이 간행한 《양선생왕복서(兩先生往復書)》로, 그는 1613년 10월

김주(金澍), 하위지(河緯地)를 직접 제사 지내고 이어 내격묘(來格廟)를 창건하여 김공을 제사 지냈는데 막 제기를 진설하고 있을 때 신령한 무지개가 옛 묘에서 떠올라 곧장 사당 문앞까지 뻗으니 보는 이들이 기이하게 여겼다.

공은 모두 두 번 장가 들었다. 전부인 류씨(柳氏)는 지평(持平)은(澥)의 따님으로, 정숙(貞淑)하고 부도(婦道)가 있었는데 정유재란(丁酉再亂) 때 왜적을 만나 스스로 목을 찌르고 죽으니 나주(羅州) 초곡(草谷)에 장사 지냈다. 후취 부인 기씨(奇氏)는 첨정(僉正) 효증(孝曾)의 따님으로, 바로 고봉 선생 대승(大升)의 손녀이다. 장엄(莊嚴)하고 법도(法度)가 있어 공을 섬길 때 시종일관 뜻을 어김이 없었는데 경자년(1660, 현종1) 9월에 별세하니 향년 82세이며 공의 묘 왼편에 합장(合葬)하였다. 2남 2녀를 낳으니 장남 휴(休)는 현감, 차남 비(備)는 교리이다. 형제가 문행(文行)으로 이름났으나 연이어 요절하니 애석하게 여기는 이들이 많았다. 따님들은 현감 이상필(李尙弼), 지사 홍처대(洪處大)에게 시집갔다. 친손, 외손, 증손은 모두 약간 명이 있다.

명(銘)은 다음과 같다.

세상에서는 사장(詞章)을 일컬어	世稱詞章
도(道)보다 높지 않다 하는데	於道不尊
굴마(屈馬)와 서유(徐庾) ⁴⁷ 를	屈馬徐庾

에 간행을 시작하여 1614년 봄에 영암에서 3권 3책의 목판으로 간행하였다. 앞의 〈양선생왕복서발(兩先生往復書跋)〉 참조.

- 47 굴마(屈馬)와 서유(徐庾) : 굴마는 굴원(屈原)과 사마상여(司馬相如), 서유는 서릉(徐陵)과 유신(庾信)을 말한다. 이들은 모두 문장가로 유명하다. 굴원은 전국 시대 초(楚)나라의 대부(大夫)로, 〈어부사(漁父辭)〉, 〈이소(離騷)〉 등의 초사(楚辭) 작품으로 유명하고, 사마상여(司

어찌 가벼이 논하겠는가	夫豈輕論
오직 저 정사(政事)의 재능은	唯彼政能
사람들 번번이 뛰어남을 다투는데	人輒競長
또한 그중에 훌륭한 자들 있었으니	亦有大者
장조(張趙)와 공황(龔黃) ⁴⁸ 이라네	張趙龔黃
공은 이 두 가지 일에 있어	公於二事
사람들에게 환히 알려져 있으니	昭在耳目
설령 실컷 평가할 수는 있더라도	縱饒軒輊
공을 해칠 ⁴⁹ 수는 없을 것이네	而莫能桡
무엇보다 집에서 평소 지낼 때	最是居家
효와 예를 실천한 것인데	孝與禮須
하물며 부식(扶植)한 바가	矧所扶植

馬相如)는 전한(前漢) 때의 대표적인 부(賦) 작가이다. 서풍과 유신은 육조(六朝) 시대 문장가로, 문장이 아름다워 이들의 작품을 서유체(徐庾體)라고 일컫는바, 변려문(駢儷文)의 대표 작가들이다.

- 48 장조(張趙)와 공황(龔黃) : 한(漢) 나라 때 지방 관원으로 나가 멋진 정사를 펼쳤던 장창(張敞)·조광한(趙廣漢)·공수(龔遂)·황패(黃霸)를 각각 병칭한 말이다. 장창과 조광한은 앞뒤로 경조윤(京兆尹)이 되어 정사를 잘 하기로 명망 높았던 자들이다. 《한서(漢書)》〈왕길전(王吉傳)〉에 “이에 앞서 경조윤을 역임한 자로 조광한, 장창, 왕존(王尊), 왕장(王章), 왕준(王駿)이 있었는데, 모두 뛰어나다는 명성이 있었다. 그러므로 경사(京師)에서 ‘앞에는 조광한과 장창이 있었고 뒤에는 삼왕(三王)이 있었다. [前有趙張, 後有三王.]’라고 칭찬하였다.”라는 내용이 보인다. 공수와 황패는 치적이 뛰어난 훌륭한 지방관의 대명사로, 공수는 선제(宣帝) 때 발해 태수(渤海太守)로 있으면서 큰 치적을 남겼고, 황패는 무제(武帝) 때에는 하남 태수(河南太守)의 승(丞)으로, 선제 때에는 영천 태수(潁川太守)로 있으면서 백성을 잘 다스렸다. 《漢書 卷89 循吏傳 龔遂, 黃霸》
- 49 해칠 : 원문은 ‘桡’인데 《남계집》 권74 〈승정원좌승지조공묘갈명(承政院左承旨趙公墓碣銘)〉에 근거하여 ‘桡’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우뚝한 절의(節義)의 대유(大儒)임에라	卓節宏儒
명교에 뜻을 두었고	志存名教
행실은 강상(綱常)을 드러냈네	行著秉彝
이 많은 미덕을 거두고서	斂茲衆美
되레 기러기처럼 그물에 곤욕을 당했네	乃困鴻罹
높은 명성과 빼어난 예능은	高名奇藝
온전히 하기가 어렵기도 하겠지만	完者或難
오래 지나면 저절로 밝혀지리니	庶久而明
감히 저울질할 바가 아니라네	非所敢權
울창한 저 교산 ⁵⁰ 은	鬱鬱交山
강을 띠로 두르고 바다를 옷깃으로 삼았네	帶河襟海
나는 공의 사적을 게시하여	我揭其迹
후일에 묻히지 않게 하노라	俾無後昧

승정(崇禎) 기원 후 63년 경오년(1690, 숙종16) 6월에

반남(潘南) 박세채(朴世采)⁵¹는 삼가 짓는다.

-문집 1질은 승정 83년 기축년(1709, 숙종35) 3월에

50 교산 : 조찬한은 1631년(인조9) 9월에 교하(交河) 맹곡(孟谷)에 안장되었다.

51 반남(潘南) 박세채(朴世采) : 1631~1695. 본관은 반남(潘南), 자는 화숙(和叔), 호는 현석(玄石)·남계(南溪), 시호는 문순(文純)이다. 김상헌(金尙憲, 1570~1652)과 김집(金集, 1574~1656)의 문인이다. 1648년(인조26)에 진사시에 급제하였고 좌의정 등을 역임하였다. 송시열(宋時烈) 사후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양분되면서 소론의 영도자가 되었다. 예학의 대가로, 저서에 《육례의집(六禮疑輯)》, 《삼례의(三禮儀)》, 《사례변절(四禮變節)》, 《가례요해(家禮要解)》, 《가례외편(家禮外編)》, 《남계예설(南溪禮說)》 등이 있으며, 문집으로 《남계집(南溪集)》이 있다.

적상산성(赤裳山城)⁵²에 보관하였다.-

52 적상산성(赤裳山城) : 강화도의 마니산(摩尼山), 봉화(奉化)의 태백산(太白山), 강릉(江陵)의 오대산(五臺山)과 함께 실록을 보관하고 있는 사고(史庫)가 있는 곳으로, 전라북도 무주(茂朱)에 있다.

현주집 발문 -신천익-

玄洲集跋 慎天翊

우리나라는 비록 소중화(小中華)⁵³라 일컬어지지만 땅이 치우치고 척박하기에 앞뒤로 문장 대가(大家)라고 하는 분들이 모두 국량(局量)이 얇고 좁음을 면치 못했으니 혹여 풍습(風習)에 변화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선생의 저술은 유독 초연하게 우뚝 뛰어올라 양웅(揚雄)과 사마상여(司馬相如)⁵⁴의 진정한 후계를 곧바로 잇고 왕발(王勃), 양형(楊炯), 노조린(盧照鄰), 낙빈왕(駱賓王)⁵⁵을 앞지르고 이백(李白), 두보(杜甫), 한유(韓愈), 유종원(柳宗元)⁵⁶의 문체를 따랐으니, 기이하면서도 위대하다. 나 천익(天翊)

-
- 53 소중화(小中華) : 조선은 중화(中華)의 제도와 사상을 본받아 잘 지킨다고 하여 중국 사람들이 조선을 가리켜 소화(小華) 또는 소중화라 하였다.
- 54 양웅(揚雄)과 사마상여(司馬相如) : 《시경》 육의(六義) 가운데 하나인 부(賦)가 굴원(屈原)의 《초사(楚辭)》를 계승한 송옥(宋玉) 등에 의하여 독립적인 문체로 정립되고, 한대(漢代) 사마상여(司馬相如)에 이르러 내용과 형식이 달라진 ‘한부(漢賦)’라는 새로운 문체로 발전되어 이후 한·위(魏)·육조(六朝) 시대에 성행하였는데, 한대에는 이른바 ‘한부사대가(漢賦四大家)’로 서한(西漢)의 사마상여, 동한(東漢)의 양웅·반고(班固)·장형(張衡)이 저명하였는바, 그 가운데 특히 사마상여와 양웅이 유명하여 양마(揚馬)로 병칭된다.
- 55 왕발(王勃)·낙빈왕(駱賓王) : 초당(初唐) 시대에 문장으로 천하에 명성을 나란히 한 네 문인으로, 당시에 사결(四傑)로 일컬어졌는데, 양형이 일찍이 사결의 호칭의 순서에 대해서 말하기를 “나는 노조린의 앞에 있기는 송구스럽고, 왕발의 뒤에 있기는 수치스럽다.[吾愧在盧前, 恥居王後.]”라고 하였다. 《舊唐書 卷190上 文苑列傳 楊炯》
- 56 이백(李白)·유종원(柳宗元) : 이백과 두보는 성당(盛唐)의 시인으로, 각각 시선(詩仙)과 시성(詩聖)으로 일컬어지고 한유와 유종원은 후대

은 어릴 적부터 선생을 곁에서 모시는 기회를 얻었는데 다만 문장(文章)만 그런 게 아니었으니 드넓으면서도 간약(簡約)하고 엄숙하면서도 온화하였고 예(禮)로써 가정에서 행하고 인(仁)으로써 백성을 다스리셨다. 현철(賢哲)한 데다 재기(才氣)도 있었으니 어디에 쓰인들 맞지 않았겠는가만, 마침 혼조(昏朝 광해군)가 집권한 때를 만나 낮은 자리에서만 맴돌았으니 문재(文才)를 인정받아 발휘하지 못한 것은 참으로 당연한 일이었다. 운명이니 어찌하겠는가. 선생의 막내아들 조비(趙備)가 교리(校理)로서, 임실(任實)의 수령으로 부임하여 다행히 약간의 작품들을 모아 간행하여 불후(不朽)하게 전하기를 도모하면서 내가 어리석음을 알면서도 선생의 문인이라는 연고로 편지를 보내 발문을 청했다. 나는 사절하다가 그만두지 못해 위와 같이 대략 서술한다.

통정대부(通政大夫) 홍문관 부제학(弘文館副提學) 신천익(愼天翊)⁵⁷은 삼가 발문을 쓴다.

에 당송팔대가(唐宋八大家)로 병칭되는 고문(古文) 작가들이다.

- 57 신천익(愼天翊) : 1592~1661. 본관은 거창(居昌), 자는 백거(伯舉), 호는 소은(素隱)이다. 1615년(광해군7)에 광해군의 실정을 보고 사직, 전라도 영암에 은거하였다. 인조반정 후 홍문관과 사간원의 요직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문집에 《소은유고》가 있다.

현주집 지 -조귀상-

玄洲集識 趙龜祥

-돌아가신 조부의 유고(遺稿)는 선친(先親)께서 임실현에 부임하셨을 때 간행하고 객관(客館)에 그 판목(板木)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기유년(1669, 현종10)에 객관이 불타 버릴 때 목판까지 모두 재가 되었다. 불초한 손자 귀상(龜祥)은 행여 오래 지나 전해지지 못할까 염려하여 다시 활자를 가지고 무주부(茂朱府)에서 백여 본(本)을 인출(印出)하였다. 지금 선조(先祖)의 자손들 및 약간의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어 그 전말(顛末)을 기록한다. 지금은 승정(崇禎) 기원 후 두 번째 경인년(1710, 숙종36)이다.-

원문
原文

玄洲集

卷之十三

門人慎天翊攷

辭 賦

三十六宮都是春賦

世有支離子。弱喪離索。摘埴偃偃。友無是公。處何有鄉。不達生之理。焉窮死之方。既未知夫天地。又何卜於陰陽。黔羸氏往而造其廬。遂詰之曰。夫扶輿憑瀛。大氣舉之。物之林林。惟理之爲。挺吹萬以聰明。懿莫我之爲最。是故。聖人達士。配天則地。窮玄察極。妙觀天咫。鑑方寸之虛靈。究無臭而無聲。今吾子塊嘿遐外。兩忘心目。無疑自信。有何見識。支離子汗容赧面而對曰。賤子倥傯。苟充物類。朱愚白老。禽息鳥視。既昧人則。詎明天咫。黔羸氏三讓。進而教之曰。夫不知義卦交易變易之理。則泥於盈虛消長吉凶否泰之機。泥於盈虛消長吉凶否泰之機。則終爲草木土石鳥獸之歸矣。僕將爲吾子覩縷邵子三十六宮都是春之說。子不欲聞之乎。於是支離子起而問焉曰。何謂其三十六宮也。願承其槩。黔羸氏曰。諾。其爲宮也。基鴻濛。接混茫。陶理氣。鑄陰陽。肇于無極。形于太始。伶倫考曆而卜日。風犧視圖而相址。以真宰爲匠。以造化爲鑪。豐隆奮椎而鍛冶。回祿束蘊而吹噓。於是太虛爲梁。素朴爲礎。玄牝爲門。紫微配位。日月星辰以爲樑櫨。風雲霜露以爲牖戶。無垠土大木之飾而鞏此宇宙。無鉤繩剗削之勞而帖妥萬古。以無形爲丹青。色不漫漶。以不息爲樞機。不蠹不爛。爾其占位。則曰乾曰坤。若震坎離相生相長。爭設互施。爲男爲女。爲父母之復而姤。姤又復。天遠根。月遂窟。爰舒慘庸開闔。暄且凄。寒又煥。緯以周三十六。以之而考其音律。則黃鍾大呂兮無不中。以之而卜其序次。則子丑寅卯兮互爲用。叶于五行兮金木水土。合于五味兮酸辛鹹苦。青帝居東兮白帝西。祝融玄冥兮南又北。鴻紛博敞。混淪磅礴。紆餘塊圯。無垠無壑。芸芸戢戢。叢叢藉

藉。道無終竟。理何所極。輪焉奐焉兮。跂如翼如。接室連牆兮六六。談未卒。支離¹子應聲答曰。三十六宮則聞之詳矣。何爲其都是春也。有二儀。然後五德著而成務。有四時。然後萬物兆而生化。是故。春而有秋。如畫²有夜。既有其生。焉能無死。如或有來無去。同而無異。長春不秋。無冬無夏。則氣不可以爲氣。理不可以爲理。三百六旬兮何用。五音六律兮無取。夏而秋。秋而冬。冬而又春兮。胡爲乎都是春而止哉。黔羸氏听然而笑。揮手止之曰。何足下疑之太早也。吾爲足下畢之。夫乾行健。健以元。流行者元。不息者元。生生者元。化化者元。是以在天曰元。在時曰春。亨與利貞兮雖殊。究其用則一元。夏與秋冬兮雖異。考其行則一春。是以。使之爲利爲貞者。卽一元也。使之爲秋爲冬者。卽一春也。是知三十六宮兮雖異位。去去來來兮惟是春。彼邵子者說道都是元不足。而方說都是春云云。誰識都是元云云者。乃是都是春云云也。支離子膝席踊躍而前曰。豁鄙開聾。快我瞻聆。悛狂卽聖。悟醕方醒。黔羸氏曰。猶未也。請盡之。蓋吾子徒聞三十六宮之爲都是春。而不知都是春之爲都是元。徒聞都是春之爲都是元。而不知都是元之爲都是仁。獨不達物我無間而天人一理之說乎。曰。春與元則已有受矣。何爲其都是仁也。曰。人有四端。仁乃其元。惟聖則天。順元體仁。是故。溫良恭儉之雖殊。究其體則一仁。孝悌忠信兮雖異。考其性則一仁。是知四時之周環。五行之生克。萬物之榮與悴。無非一春自然條達之良能。致知也。格物也。誠意正心也。暨夫刑妻御邦之道。亦無非一端仁理周洽旁暢而有以自彊。然則天理如何都是春。聖人如何都是仁。天亦一聖。聖是一天。天兮人兮。一而二焉。五帝一仁。三王一仁。文武周公兮一仁。有如孔聖兮一仁。彼日一至焉之何論。或不違三月則庶幾。噫。春風邈爾難煽兮。草木黃落兮江漢回。滔滔者天下皆是。又何誅夫今之人。況足下知乾巽坤

1 雖：離

2 畫：晝

震之爲異宮。而不知流暢周達者乃是春。知洒掃平天下之爲異節。而不知泛應曲當者乃是仁。是猶騎驢而覓驢。何不出戶而由道。語欲訖。支離子磬折而趨。百拜而謝曰。向者。先生高談極辯。河漢無極。漭渺浩沔。顛倒怳惚。若臨滄洋。四絕舟筏。只識三十六宮之所以爲宮。而不知都是春之所以爲春。逮聞元是春。春是仁。天與人同一理之論。然後如涉得濟。如客得歸。廓開迷胸。剔霧就暉從前牢癡四十九年。今夕何夕。親炙音塵。既承嘉誨。夕死何悔。又有一首。見下純六類。

拔劍起舞賦

漢太史公與楚史氏有舊。往過楚史而問焉曰。昔我皇之定天下也。天怒湯克夏狂。牯百二。建三章。戈盡倒。壺³爭漿。摧枯拉朽。捷於影響。然而項王何人。乃獨爲兀。辛勤搶攘。八年馬上。睢水之敗。彭城之圍。中胸之厄。置俎之危。自始迄終。興機敗績。靡不採記。昭載汗竹。至若軍霸上。宴鴻門之日。衆寡之勢懸絕。屈大勇而能怯。約婚之計。留侯籌之。早謝之策。項伯謀之。是用輕騎馳詣。出於倉卒。扈不成行。騎不就列。唯良，噲等一二臣同。雖有良史。未遑與從。故拔劍起舞之一事。在國史未盡其詳。今史氏勿以觸上爲諱。又勿以成敗論雄。姑以當時之見。試爲我覲縷。史氏曰。諾。敬爲子說。始我王擁兵而入也。非不知約法之爲仁。非不知殺降者之爲非義。非不知掘驪山之爲虐。非不知焚阿房之爲暴。第以位爲上將軍。功又冠三軍。碎邯鄲百萬。如舐糠鋤芸。使強秦自滅。是誰之力也。使諸侯膝行。又誰之績也。豈不能捷逕以疾馳。以天下爲盡在己。鹿將焉逃。所以徐徐入關則後之。柰何不量勢力。經⁴自先入。據關守要。反肆拒轍。所以拔驪山焚阿房。非怒秦也。乃

3 壺：壺

4 經：徑

怒漢也。矧如降王子嬰者。不以璽綬出迎。而乃與漢謀。厥罪難追。然則彼以不殺降除苛⁵法。爲恩於秦。而此乃反之者。亦不外兵法以恩以威相反之術也。於是陳兵四十萬。次鴻門而耀敵。嗟一卵與一毛。柰鴻爐與泰岳。於是鼓駭天旗掩月壘。雲布土虎列幄幕。籠霄地欲狹。將軍樹轟天爲低。是日也。徊徨有人。草草容儀。壁門朝開。謁者傳⁶辭。乃以沛公之意。致命于將軍幕府。其略曰。獲罪臣劉某。請送死于麾下。始臣之先入。非敢自計。一以爲王前驅。一以爲民除害。是用府庫之財。不敢自專。宮室之居。不敢自安。清逵道兮俟我后。迄于今幾日。而況金甌一缺。群雄蜚集。紛紜覬覦。朶順爭嚼。是以閉關以儼鎖鑰。備他盜也。何意之有。謹以秦皇帝璽符。百拜獻於左右。方其時也。以王之深怒。何與項伯之嚴煩。以王之大略。何容子房之巧術。然王之量鉅而仁弘兮。弄沛公於掌握。頡謁者出。使招來前。于時。沛公跽伏轅門。死息僅延。冒威驚趨。三跌而顛。拜叩庭除。順王頤指。倘有喑啞之一聲。幾自斃而不起。遂延生而許平。偉大度之叵測。鬼神爲之嚮呻。天地爲之瑟縮。臣僚爲之聳汗。將士爲之脅息。爾乃作高會張大酒。樂動慘惻。西日在岫。罰卮飲卒。壽禮行畢。逐⁷乃命沛公起。獻舞于席。命項莊偕。其執劍也。霜鉞虹直。雪鏑電閃。飛光掣杯。散彩翻幕。蹲蹲兮凌亂。傴僂兮忸怩。揮霍兮鴻翥。縱橫兮鳳躍。持長兮入短。耀背兮照腋。瞻在前兮在後。羌北指而西拂。縱輕體以迅赴。影迫形兮不及。於是舉袂者三。有一范增。劉郎軀幹。楚家性命。揮袖裏之青蛇。窮沛澤之神龍。豈料夫貸咎刻之餘息。成萬古之英雄。縱一朝之殘俘。爲八載之強讎。嗚呼。苟內欲其必殺。豈其舞之秩秩。勢已蹙於鼎魚。又何憚夫鈇鑕。其生也。其殺也。只在於一呼吸之間。則又何必足之蹈手之舞而後可殺也哉。蓋莊之舞。

5 苛：苛

6 傳：傳

7 逐：遂

范之袂。皆偶然之發也。爲積威之所約。滋一時之驚惑。如或有意於劍舞。以遂其機事。則以數里辟易之怒。豈被沮於翼蔽。以千人自廢之威。豈怯縮於裂視。第惟我王之意。則以爲俱是楚人。約爲兄弟。豈以爭天下之利。終至忘一家之義。且人旣服其過。不宜有怒。是用釋忿。醉飽而還。以威以仁。若施冬春。視嬰兒而自如。曾不滿乎一眼。逮夫龍虎相啖。智勇俱困。干戈十載。風櫛雨沐。哀我生靈。幾多魚肉。茲乃以百戰百勝之勇。爲兩全兩得之計。于以返太公，呂后。使父子而夫婦。而後請割鴻溝。漢西楚東。無非至仁。無非至公。奈之何忘我大義。背我大德。乘我不戒。奄逞詭譎。用良，平姦謀。乃曰急擊勿失。嗚呼。非仁義不足。非智勇不及。倘此時。不自決而渡吳江。如漢王間行趨灞上之舉。則今日之天下。未可知也。然丈夫幸免而苟容。曾所竊笑於當日。誰知語馬童而自刎。故令羞漢王鴻門潛遁之面。至今烏江之風雨。應海鴻門之一宴。尤可恨者。莊之一舞。非楚之有意於漢。漢史之失其真。以項莊之舞。疑項王之心。非惑耶。於是太史公盱衡而笑。揮手而止曰。史氏之見。是則是矣。雖然。成敗之數。在天非人。故其入關之先。非漢自先。天實先之。鴻門之翼蔽。非項伯翼蔽。天實蔽焉。天又誑楚於彭城。非紀信誑而可免。天又勸迫於固陵。非良，平勸而迫戰。至於德亭長而自刎。或天假王手而使刎。噫。天之絕暴而佑仁。若觀火而不誣。若然則增之袂。莊之舞。終逞其機。必止於斬祛與中鉤。又何損齊，晉之爲霸。況足下欲掩君過。反揚國惡。拔驪殺降。雖出於怒漢。而江中之事。又誰怒也。漢王雖可怒。江中是可忍歟。談未卒。史氏赧汗百拜謝曰。子之筆法。董狐不如。

鳳凰翔千仞賦

鵬與鸞鳩。相與笑於榆枋之間曰。鯤之南也。以運而徙。鶚之東也。以惡

雲弄玉。或相邀乎寒門。或相馴乎積石。遂長往而不返。杳莫拊其逸躡。談未卒。鸞鳩曰。噫。然則是禽也。有聞無見。有聲無形。雖同族於羽毛。固異質於尋常。彼千仞之蒼蒼兮。夫孰視其翱翔。余固知子所云鳳者。歸漆園鷦鷯之寓言。鷦乃嘆然嘆曰。謂鳳云者。豈其然乎。既亂遁而治見。寧一往而不復。是謂仁鳥。其埃也德。是故。翔乎攀援之世。集于雲鳥之國。舉乎人神雜糅之代。下乎鈞天廣樂之域。遁乎茹毛飲血睢睢盱盱之時。踰乎茅茨土階熙熙皞皞之日。食卵爲糧兮。宜棄軒轅之俗。通駿厥聲兮。宜答岐山之嶽。故一來與一鳴。須至德之昌辰。彼將聖之爲臣兮。猶有憾於無君。麟雖出兮遇獲。宜欲鳴而未鳴。聖德衰之歌悲。應爾鳳之惻傷。由是觀之。則雖五百而一見。亦希瑞而罕祥。曠千載寥寥邈邈兮。蓋有之。我或未聞。雖然。極否而泰。道所循環。用晦而明。乃理之端。道不可以終泯。理不可以終熄。矧今剔昏替芟狂惑。屏奸賊列鴻碩。素朴登奢華黜。仁霽需惠霖霖。軫句芒。完獮狘。春羞德。海讓澤。鮐耄歌兮鰲鼈舞。輸萬物於壽域。想鸞鸞於千仞。佇卽臻乎華岡。將一鳴而驚人。豈永絕而無聲。遂作鳳之觜三章。其詩曰。鳳之觜兮。德之瑞兮。吁嗟鳳兮。鳳之尾兮。德之至兮。吁嗟鳳兮。鳳之鳴兮。德之昌兮。吁嗟鳳兮。詩罷。仍詠鳳兮之歌。歌曰。聖王既逝。大道既隱。鳳兮鳳兮。何翔之遠。聖王既作。大道既顯。鳳兮鳳兮。何來之晚。仰千仞其無覩。但鷗臯之漫空。於是。鸞鳩乃翟翟于色。瞿瞿于中。茫然若喪。蹶然若失曰。今我仰而視。俛而啄。逃於隼。匿於弋。跳梁乎女桑之顛。彳亍乎崩籬之隙。奮然鼓翼。不越三劫之塔。突爾迅征。未踰十步之庭。恒畏首而畏尾。戒鷹鷂與狸狔。瞻鸛鶴之高翅。望鴻鵠之逸翮。猶尙竦羨。自慙蹇拙。且聞先生丹岫彩翼。高飛千仞之表。覽德翔集之說。然後驚猶井蛙之觀海。慄如夏蟲之見冰。塌若病鷗。默若癡蠅。怳惚然疑。莫知所爲。

射石虎賦

弓人之子往詰于矢人之家曰。若知夫決拾之妙乎。鏑飛于窮。陽鳥九落。鏃發於機。懸蝨中裂。或三連乎其白。或百穿之有葉。雖巧造乎玄機。亦其術之可學。獨怪夫猿臂之老將。致飲羽於夜石。以言其巧。則脆竹之觸石也必折。以言其力。則矢鋒之貫石也無術。以爲真也。鬼神之所不及。以爲僞也。太史之所昭載。雖造化猶有所憾。夫人力豈至此乎。廣是何人。所爲如何。蒙竊然疑。莫析詳訛。盍爲聾瞽。粗敘終始。矢人曰。唯。敬爲子說。惟漢三世。道允治聳。散隴蜀之間氣。得將相之有種。於是惟熊瑞夢。苦縣仙姓。結髮屠中。九扛其鼎。爾其頭輪。嶷目電睞。宛其脊。駢其脅。胸四海。身十尺。書雕蟲兮劍一人。非余志之所欲。爰支左屈右而彈射。云余學乎逢蒙之妙術。慨莫逮乎高帝。有文皇之歎喑。際孝武之好大。拔行間而樹大纛。西衝北突兮弓搭伊吾。腦沙髓磧兮羌棘骨暴。或解鞍閑眠而奪胡氣。或佯死超絡兮褫胡魄。漠南北兮王庭絕。陰飆息兮殺氣衰。血洗箭兮青海灣。歌鼓競兮玉門關。功可論兮蓋天下。侯萬戶兮乃數奇。於是釋虎符解魚麗。秋蓮匣綠沈澁。龍旌卷兮獸鼓死。甲鱗謝兮鳴螺息。當時百戰之勇。今日蓬蒿之人。平生四方之志。蕪沒桑梓之間。東陵秋早。時賣故侯之菰。霸岸宵歸。寧免醉尉之訶。噓紆軫兮吐鬱。屈橫宛虹兮千尺。何舊日之飛將。今直爲此落莫。逮乎跳梁報警。宵旰煎惕。皇推公轂。北平雄節。於是威風遐煽。草樹黃落。狼烽晝霽。虎坼宵譟。轅門告暇。士歌騎騰。時霜霰之刻轢。際天侯之陰凝。將軍於是憑堅利以縱獠。順玄沍以效殺。乃左烏號右魚服。撚霜鋒擗雪鐙。蹕平唐兮逐奔。越嵒巖兮鱗縮。竭鷹鵠於翳薈。罄玃縱於巢窟。弦不虛控兮。先中命處。洞胸達腋兮。他他籍籍。方拗怒而罷獵。馬猶踈於餘足。衝猛噬而賈勇。值歸途之昏黑。于時。林中有獸。兕耶熊

耶。披草而伏。如虎而疑。遠而望之。形奮⁸而蹲踖。近而瞋之。狀挐攫而躩踞。祕眈眈之獰睜。露陸離之文脊。翳白額於幽蔚。闐戟牙於奧薄。似眠飢而臥蹊。若偵巖而當谷。猶負嵎而厲吻。如卽禽而反齧。疑助嘯而風答。悅潤斑而霧濕。非塗山之化石。諒牛哀之成贊。馬踟顧而不前。人喘汗而莫進。是探穴而編鬚。吁可畏乎駭矚。於是將軍抽流星引明月。鉤強弦載勁竹。目已注於心繫。指豈破而虛發。閃飛電兮爆搏。霹靂驚兮山魍倒。纔離控而應彈。已沒鏃於腸竅。何百獸震恐之威。逢一箭而奄斃。噫既死而留皮。宜可寢而可處。遂乃前而察之。手而摩之。則非毛之斑。乃姿之屹。非皮之鞣。乃質之確。何猖獗之豹變。幻山骨之堅頑。無外威之狐假。有雲根之巘岈。永疇昔之所射。着嶄巖之半腹。談未卒。弓人曰。异哉。何爲其然也。謂虎然也。虎難化石。謂石然也。石難飲鏃。況虎可搏兮。不可狎兮。石可轉也。不可貫也。誠猶可通。力不可強。鬼耶人耶。惚兮恍兮。孰使然哉。不可惻兮。且吾聞之。射不主皮。所求者鵠。中必決眦。非獸則禽。是知更羸虛彈。擊雁先落。由基未發。玄猿豫哭。鸚而不死。平公之弱也。咒而猶殪。唐叔之力也。彼用力之巧拙。舉企及於毛血。惟射石之一事。誠未聞乎千億。荀子言之不文。豈史氏之難信。矢人曰。吁。豈其然乎。爲子盡之。夫心專則誠一。誠一則神通。物無微而不形。形靡堅而不灑。是故。彼夜歸射石而能貫。雖廣也。亦不自必。當持疑心動而目矐。見其虎。未見其石。此所以懼專於誠。誠專於衷。衷專於手。手專於弓。弓專於矢。矢專於虎。矢既由於精誠。石亦忘其堅固。然則非矢之發。乃誠之激。非石之融。乃誠之徹。非矢射石。誠卽射石。非矢貫石。誠卽貫石。彼用誠於造次。尙通金而貫石。況至誠之無息。無所往而不極。推是觀之。猛於虎者。可擾逼也。堅於石者。可穿鑿也。天地也。日月也。猶可感而可貫。則矧近在乎昆蟲木石也。

哉。嗟乎將軍之矢。有迹之誠也。君子之誠。無迹之矢也。只知有迹之矢貫頑石之爲奇。而不知無迹之矢能一貫於大道。則豈不爲流俗慨也。獨惜乎廣之寸誠。能徹半夜之頑石。廣之衷曲。不能達元帥之戎幕。身未致於侯王。竟齒劍而自戮。千載英雄之景慕。幾多回腸而淚臆。語訖。弓人乃離席。拜稽謝曰。今我業工於弓。責妙於矢。彼射石而石開。謂可學而能是。及聞君子誠一之喻。渙然水釋。廓然病愈。蒙雖不敏。請事斯語。

筆諫賦

子墨客卿。問於翰林主人曰。若知夫諫君之道乎。天蓋高縱難測兮。有寸誠可以固矣。龍爲蟲可擾狎兮。批尺鱗必至死。是以得其道者。則君格而國以昌。失其道者。則身誅而國隨亡。此所以韓非作說難。戒盡言於游士。蘇公著諫論。勉忠告之以智。噫。不可無是諫。亦不可遽是諫。主人曰。然。史取諤諤。易貴謇謇。固正言在不諱兮。奚暇含容而俯仰。客卿曰。否。梅伯爲醢兮。無奈暴君之革命。比干受剖兮。何益淫主之亡國。故以幾以諷之有道兮。其爲諫也不一。主人曰。然則何如。斯可謂得幾諷之道乎。容卿曰。唐有柳子。憲后攸臣。其諫也筆。憲所格焉。不喻道而喻筆。偉茲諫之可法。主人曰。願承其槩。曰。唯唯。柳公之筆。希代之迹。巧合玄關。一天雨粟。妙符神機。滿紙風雷。金繩鐵畫。蛇走龍回。玉索銀鉤。鬼泣神驚。張草李入不足比兮。王毫鍾墨兮莫與京。宜爲世法。乃動帝目。故其副愛州。未瓜而催召。自公虛座近密。寵以翰林。盛以玉堂。每一進書。褒美未央。鳳閣焚草。數幅短章。龍顏含笑。一唱三歎。忽一日。天子乃廷召面褒曰。看卿筆法。見聞所罕。行行骨力。字字精神。曲得規度。工造真元。意匠慘澹兮。巧刮造化之窟。神馬恍惚兮。細入秋毫之末。蓋鬼神之或助。豈人力之所及。何由而至於此乎。始爲

朕略陳其術。於是柳子乃拜手稽首進曰。臣請爲陛下敬喻用筆之道。夫心者。君也。一身之天君。手者。臣也。一身之良臣。筆毫者。尖奴。字畫者。政事。是知出令者。君也。行君令。致尖奴者。臣耳。君不出令。則雖有臣。不得自專。臣不致令。則雖有奴。不得自先。政何由成。國不能國。然則心與手謀。手與筆合。畫縱點橫。字排行直。豈非言以盡心。文以盡言。言固是心。文固是言。所以有紛萬事。一心之原。心正則手正。手正則筆正。心不正則手不正。手不正則筆不正。行不成行。字不成字。毫釐千里。一操舍際。是故。其操筆也。非操筆也。乃操心也。其秉筆也。非秉筆也。乃秉心也。于以染之揮之兮無不中規。于以摸之寫之兮各得其宜。於是一心正一畫正。一畫正一字正。一字二字千萬字兮。無不一出於正。一行二行千萬行兮。亦無不一合乎正。然則右軍之寫道經也。心在博白鵝。則其字不正。安石之寫隣□也。心在於索高價。則其字不正。故古之持是筆者。莫不反心而求正。心爲表筆爲影兮。表端而形無不直。心爲響筆爲應兮。響速則應無不急。乃知聖人之書兮聖人之心也。小人之書兮小人之心也。以書永心。心焉度哉。以心求人。人焉度哉。故彼八卦九疇具萬理兮。乃羲禹體天生物之心也。誅奸諛於既死。發潛德之幽光者。乃孔聖好善惡惡之心也。惟聖克念。小心援筆。惟狂罔念。肆意放筆。念茲在茲。非筆惟心。毋怠毋忽。非筆惟心。噫。小而言家則家長爲心。大而言國則國君爲心。故家長既正。一家卽正。國君既正。一國卽正。董子曰。心和則氣和。氣和則形和。而天下四方無不一以和。夫如是則豈獨責一物之不和。臣亦云心正則氣正。氣正則形正。而天下萬物。無不一以正。夫如是則豈獨責一筆之不正。言未卒。天子乃改容斂衽。嘉乃碩言。黜爾邪萌。就爾正源。吁。當此時也。陽城之詆延齡。雖曰直矣。而未免忠州之貶謫。韓公之論佛骨。雖曰忠矣。而未免潮陽之遠落。未廻日月之光。返遭雷霆之怒。忠見尤兮直黜。世滔滔而接武。孰若斯人以筆以諫。故善諫者。不以言爲諫。而以物爲諫。吾固知陽。韓勤懇

於章奏。反不如喻筆之一諫。嗚呼。用裴度用元衡之時。則心既正筆亦正。字無不正。用程异用甫鎔之時。則心不正筆不正。字皆不正。推憲宗十五載之筆迹。驗憲宗十五載之操捨。難罔者。心也。難欺者。筆也。懿斯人之筆諫。誠萬古之特筆。主人謹應之曰。人孰無筆。吾取爾之直筆。人孰無諫。吾取爾之諷諫。語未訖。穎以禿辭。西狩獲麟。客卿告退。主人默然。

穗書賦

子墨客卿。問於翰林主人曰。鶴以爪印。蟲以蹄畫。脩蛇無足。短蚓有迹。紛變化之如雲。或天感而鬼格。獨怪夫神農之起畫。手瑞穗而取則。民以粒而以織。豈此書之有賴。主人曰。敬爲吾客。粗敘玄始。粵自圓升方結。二大生朴。巢盱燧睢。五克晦質。舉息禽而視鳥。競歸獸以茹血。然厥理之孔昭。豈終泯於橫目。帝瑟縮而默嚮。眷牛元而御極。於是纘驪圖紹龍師。嘗草濟天。鞭木若時。有無爲市。日昃而虛。糅斲爲農。野鋤宮居。爰裘褐於寒暑。乃渴飲而飢食。反良知於忤憎。謫天人之吻合。是知大道不可以終晦。斯文不可以遂滅。諒天視之自我。允產祥而符德。茲命物而詔聖。茁羊頭之嘉穀。紛撐畦而柱原。敷八穗以郁郁。猗歟盛哉。既豐既實。休歟美哉。既茂既碩。於是耄艾歌詠。載欣載奔。以芟以刈。獻帝之門。帝曰。欽哉。嗟我元元。天其眷予。予敢不承。遂乃觀其條暢。察其敷榮。則一莖冤延。狀金繩而鐵索。入岐紆餘。宛蛇蟠而蛟結。于時。謀石瀉心。詰穎免冠。信手縱橫。隨意揮旋。行行疏密。摸稯稯也。字字盤屈。體秧秧也。效豐穗之蕤蕤。做嘉禾之濯濯。巧刮造化之窟。細入秋毫之末。掃一場之雷電。驚半空之風雨。遂下令于民曰。今此有穗。天實予佑。用此以書。開爾昏惑。以書以令。宜字宜畫。惟明爾農。力爾之穡。而況夫壯不田。爾口何食。婦長無織。爾體何裳。勸哉蚩蚩。

務爾農桑。於是無田不甫。有稼如雲。我有衣裘。帝何我溫。我有困廩。帝何我足。熙如皞如。何帝之力。素哉朴哉。于胥樂兮。此乃神農之教其民。而穗書之所以作也。逖哉邈乎。不可尙已。談未卒。墨卿乃矚足呀口。蹶然而起。主人曰。未旣也。願爲客畢之。惟籀與篆。斗與隸也。崩雲之狀。垂露之態。八分十體。黠黝茫昧。雖爭設而互施。只眩目而駭視。旣無益於生息。又何補於教化。徒勞精而費神。謾襲訛而承謬。故斯民之分四。儘去農而歸土。旣神農之世遠。宜雨粟而鬼泣。偉炎代之有書。誠萬古之民則。然則是書也。以穗爲書。以書爲穗。非書而書。非穗而穗。土而爲農。其農也土。農而爲土。其土也穗。嗚呼莫逮。遠矣羲農。遂爲之贊曰。天與其德。穗與其聖。穗以爲書。勸斯萬姓。穗哉書哉。聖帝之慶。聖帝有慶。兆民賴之。非羲非農。我安適歸。於是主人談訖。墨卿告退。一堂圖書。千載興喟。

河圖賦

玄褰黃塾。方與圓匹。剛柔相盪。以生以息。儘恣恣而自暮。競歸獸而罔覺。帝瑟縮而默詔。有牛元之神伏。宜或躍之瑞河。表聖后之靈德。聖欽若而授受。龍聽天而圖降。圖何爲乎寵聖。聖於是乎俯仰。爾其根陰陽。體霄壤。則帝衷。幻神契。甚芒而的。示昭於昧。其爲圖也。非縑素。非丹牘。非山川。非土物。無爻無畫。有點有綴。左奇右偶。老九少七。立四爲體。孕五於腹。包兩儀於數點。備萬理於寸目。放彌六合。卷藏於密兮。摠厥數有三五。於是途分黃赤。瓣雄烏與雌兔。極察南北。識挹斗與揚箕。驗昧暘於坤倪。地道竝規。占休咎於民彝。人理竝舉。以之窮天。以之盡地。以之醒一世。以之蘇萬祀。然後人爲人。物爲物。家能家。國能國。君君臣臣父子夫婦。以華以夷。以今以古。是知觀天象而創易。得此而權。尋鳥迹而做字。賴此之存。儼皮結姻者。取陰陽之有度。犧牲充庖

者。示饗祀之有義。于時。變尾爲淳。代繩而墨。顛顛者以皞皞。昧昧者而郁郁。是故。二帝得之。得爲二帝。三后得之。得爲三后。磨不磷兮涅不礪。出無窮兮入無極。是造物之無盡藏兮。視無端兮用不竭。偉既靈而且神。先洛龜而兆朕。此所以天誘其衷。惟德是眷。地不愛寶。惟祥是產。雖十年而九水。不能溺其軌躅。雖八載而七旱。不能涸其至澤。天下可竊。此圖難竊。九鼎可毀。此圖難毀。先天地兮後天地。符萬聖而不惑。雖三精磨滅而漸盡兮。亦此理之難熄。嗚呼。既生是聖。又出是圖。圖以聖著。聖以圖師。非聖非圖。吾何取則。雖然。圖之爲物。爲聖人出者也。聖出圖出。如響之答。胡聖有迭作。而圖有出不出。際蒼籙之欲季。有將聖之大作。宜嘉祥之協應。表斯文之彬郁。天不欲乎平治兮。故發嘆於不出。然豈河之無圖。奈西狩之有獲。迄于今蓋千載兮。但河水之瀾瀾。撫遺圖於陳編。起悲歌而永思。歌曰。圖之出兮道之顯。圖之伏兮道之隱。既顯而隱。胡隱不顯。聖徂神逝。我無適歸。圖乎圖乎。吾已矣夫。

曳尾龜賦

莫神蜿蜒。躍天潛淵。莫瑞噉噉。息梧翔雲。之二蟲也知所止。焉有夫兮玄衣。胡爲乎泥中。曳六一而運五。渾青泥而西東。困有甚於甲子。誰云爾之太靈。爾其著神詩書。載靈羲經。德尚乎物。位長乎甲。吸道之腴。運氣而息。司太陰而爲寒。處溟渤者名穹。神無微而不炳。智何玄而莫通。宜乎處乎深潭。避龍伯之釣餌。出乎清洛。表聖王之文思。而況大海東邊。久絕巨縉之客。太華峯頭。非乏如船之葉。今茲泥之淖淖。何自苦其如此。惟彼鱗之在藪。虞者之喜。龍而處陸。蟻軼而侮。爾曳雖樂。爾尾之污。龜乎龜乎。爾生良苦。於是龜聞太息。請對以臆曰。我玄蹤國於山澤。性是不羈。愛此閑寂。非不知藏文於深奧。非不知呈瑞於人寰。

北海雖迴。懼後車之載還。南山雖遠。柰捷徑於要津。況一落於漁人。將夏鼈而共箸。顧出曬之無計。爭毀櫓之相戒。生不免於支牀。死何補於納廟。神雖王而罔活。智雖成而反囚。于斯時也。衣之以文繡。共之以天球。華屋九鑰。錦櫓十襲。至若師期將啓。國疑罔決。舂蠶纔畢。神與之協。其吉與凶。兆告爾卜。以敗以成。靈雖莫測。以鑽以灼。哀我軀殼。與其藏於廟社。孰若逸於江湖。與其死而鑽灼。孰若生而泥塗。何況泥之溷溷。何與於我。塗之濁濁。何有於我。彼以外污。吾以內潔。內潔故不染。外污故易滌。吾首之矯矯兮。觸溷溷而無屈。吾尾之曳曳兮。遵濁濁而無傷。然則尾之污兮浴可滌。殼之鑽兮安可活。泥之污兮污不惡。尾之曳兮樂無極。彼處廟服鮮而御潔兮。寧易此泥塗之樂哉。且子獨不聞乎。高步易躓。厚味腊毒。神憎名大。鬼瞰室赫。位極人臣兮俱五刑。何似山東父老生糲食。祿食萬鍾而烹死五鼎。何似生垂席門饜糠粃。故顏氏之庶幾。處陋巷而亦樂。言訖。奮尾舉足而逝。噫。小子之狂簡兮。微斯龜與誰爲則。誦寓言於南萃。卜行藏於今日。

黃龍負舟賦

天乾□□。飽風一葉。江神送颿。聖后攸涉。忽銀屋之中沸兮。愕黃鱗之負鴈。烘千電兮焚海。激萬雷兮崩岳。付顛沈於須臾。奪舟中之魂魄。聖不變而蜺視。龍乃格而遁匿。方其胼胝八載。績父不績。三呱三過。不家於國。開嶧崧而殺淶。疏嶠而分洪。鑿巖辟而下瀨。刊鬼嶺以走瀧。得應龍以劈峻。鎮巫祈以杜擘。竟風沙之茫然。民下巢而火粒。雲旣土而夢弋。乃海四而州九。爰騰傾而赴勢。亘萬里之回互。旣略旣夷。貢匪以土。壤白黑赤。田上中下。於是舟航八極。輪鬣四野。有行卽屆。何往不通。遂乃卜晴晝候長風。理高楫橫大江。波盡伏濤不揚。榜人唱海童藏。陽侯。河伯之屬奔走以轆轤兮。乾端坤倪兮霾暝晴。方利行乎四

方。快雲帆之高張。倏戕風之暴起。致駭浪之蕩瀾。迨中江而未濟。勢摧檣而墜楫。夫何放菹之餘蟲。乃於焉而肆毒。黃其身兮赤其目。露牙角之千尺。劈層瀾以躑躅。背孤舟而出沒。風雲九萬。霹靂一穴。舟中聖人。波底乖龍。彼帽黃而戴黔。盡膽掉而股慄。然大聖之莫惻。視喘蜾而不色。況生寄而死歸。肯爾蟲之惴怯。龍聞言而觀色。識大禹之在是。爰赧德而怛威。乃俛首而低尾。因忽不見。神耶鬼耶。何所爲而來。何所見而逝耶。忽來倏往。靈怪矣哉。嗚呼。禹如天龍如神。天使神神聽天。禹可使龍。龍豈禹侮。禹可懼龍。龍豈禹懼。然則是龍也伏禹神薰禹德。誓禹靈淪禹澤。畏禹變化。忱禹不測。故奔走以警蹕。護木道以翱翔。呵罔象兮喝馬銜。叱鯪鯢兮逐鵬鯨。甘背負以服役。遏群妖而莫呈。將駕越而奮迅。替篙師之鴉戛。然舟人之汝懼。聖爲人而不悅。龍體禹而卽逝。諒進退之唯命。噫乎茲蟲之至靈。孰若斯人之至聖。是知龍之所能者雨也澤也。而所不能者疏導。龍之所善者雷也電也。而所不善者拯濟。無龍則早一世。無禹則溺萬古。無龍則雨師雷公兮猶可理陰陽。無禹則天不天地不地。人不人而龍不龍。此禹之所以爲龍懼。而龍不能懼禹色而動禹中也。偉濟江之不變。與大麓之不迷。允執厥而相傳。先後聖之一規。頌曰。蜿蜿黃龍。髻刺天兮。巍巍玄聖。德齊天兮。龍之來兮聖使然。龍之逝兮聖使然。不神而神。非天而天。無以議爲。微禹吾魚。

鹽車有絕足賦

鳥途懸霄兮石齒齒。猿狖莫攀兮人上慄。玄熊赤豹兮。足繭而喉喘兮。過雨行雲兮愁半腹。彼誰驅車兮車載鹽。鞭不前兮車欲覆。嗟爾馬胡爲來哉。玄雖黃兮足則絕。世皆貴肥而賤瘦兮。疇取爾之權奇。孕房精於渥洼兮。曾父龍而母螭。四碧玉兮雙批竹。瞳生稜兮鏡新磨。喜鵲厲兮怒人立。螺尾鱗身兮斑五花。豎齒至兮辭冀野。謂崇丘其黃金。胡不登

乎天閑兮。反賈豎焉相尋。賈乃牽爾而爲驂兮。其車也不糞則鹽。賈既輕爾而重利兮。之東北忽又西南。其載也積至斗。其驅也鞭又策。皮乾毛暗兮烏啄瘡。三山露骨兮四蹄落。憊兩耳兮牛垂。脅一息兮魚沫。吳之鹽兮蜀之途。去苦遲兮來不速。食不飽兮力不瞻。移一步兮三四蹶。叱驚鬼兮鞭劈雷。踟不前兮汗滴滴。何昔日之龍孫。反蹇驢之不若。哀時命不相謀兮。涕方瞳兮如泣。余乃攀轅而遮道兮。爲駿骨而一哭。爾馬也胡爲來哉。吁嗟乎至於此極。哀之命不哀亦命兮。遇也時時不可必。嗚呼。自其遇者而言之。則買死骨金且五百。自其不遇者而言之。則却千里日行百里。自其時者而言。則駑駘尙蒙錦繡。自其不時者而言。則麒麟亦獲於郊藪。蓋自古而猶然。固遇時之非偶。是知魯殯未辦兮。等看喪家狗。周熊未卜兮。只一屠牛坦。逮鷹揚鳳歌於當世。而後方識追風滅影之與跛驢病賴而懸遠。噫蚩蚩之鹽豎。豈知爾之爲駿小。歌曰。世有伯樂兮。駿昇天衢。世無伯樂兮。駿困鹽車。不是無是馬。只是無是人。其真無是馬耶。其真無是人耶。人兮馬兮。奈何乎天。歌未竟。忽風雲兮又霹靂。馬龍逝乎玄間。余始知神駿之變化兮。終不爲鹽車中物。彼媚聖嫉賢之世人兮。又何異鹽夫之失色。

鵲巢賦

有樹蓊鬱兮枝杻樛。黃葛女蘿兮縷絡之。上乏鷹鷂之覬覦兮。下絕蛇虺之朵頤。擇高枝之扶疏。怪維鵲之有巢。人匠尙拙於經營。爾禽也何以家爲。昔爾之聿來胥宇。幾勞殷斯而勤斯。雄曰嗟爾雌兮。我是急於求棲。既綿蠻而止隅。又差池而含泥。蚓處垤而神王。免營窟而炳幾。曰余未有室家。獨繞樹三匝兮無依。雌曰嗟爾雄兮。盍求棲而依歸。彼蠢蠢之微禽。舉有巢而卵育。寧效拙於鳩婦。任風飢而露宿。雄爰唱兮雌和。卜茲樹而開基。遂乃雄飛雌集。雌去雄隨。既啄既踏。喙含足提。來

而又去。一枝二枝。朝而又暮。一日二日。雄曰何之。南有樛木。雌曰何之。鬱彼北林。何茶不捋。有枝皆含。蹢躅兮原隰。兮于兮叢薄。手胼兮口瘡。上構兮下結。日出喳喳。念風雨之飄撓。日入彊彊。悶桑杜之未饒。拋梁上兮既輦。開戶牖兮南通。迨皇天之未陰。乃綢繆而訖功。偉斯翼而斯棘。信攸除而攸去。於是雄曰雌乎。入此室處。雌曰雄乎。與子同夢。爰居爰處。賴此梁棟。乃刷乃翹。依此詹楹。卵而啄菹。乳哺翔鳴。遂相與賀曰。卑枝成屋。異工部之避賊。構木爲巢。如有巢之樂國。低不打頭。於斯焉足以令居。廣可容膝。於我乎亦云渠渠。不日成之。誰謂予無家。羽翼已成。誰謂爾無子。遂賀畢而戒其子曰。今此作巢。余所創始。構之非難。創之惟難。創之非難。守之惟難。勸哉肯構。無忝爾生。雨雪攸避。念我經營。卵育所安。念我勞苦。不慎爾守。鴟鵂是保。不密爾守。維鳩是奪。念哉念哉。宴安鳩毒。余乃聞而感之。作箴而書諸紳。其箴曰。人則君。鳥則鵲。小則巢。大則國。

臨河歎賦

莫我知。知我者天兮。夫豈不可爲而爲之。舊余棲棲兮南北東。又余車兮西馳。河之水兮色幽幽。胡發嘆乎未濟。深莫乘兮淺莫涉。我如濟兮不可悔。曰余十有五而志學兮。慨文武之已逖。然天之未喪斯文兮。焉能繫不而食。故吾之席未暇暖兮。之蔡之楚之齊兮不可。羶羊石罍兮。惟怪之欲聞。噫世主無足爲者。匡之畏兮宋之圍。其於予何。飢於陳兮困於衛。道不爲瑕。然不可必天下而棄之兮。雖公山中牟兮欲往。爰翩翩兮將指趙。念西路之羌永。纔到河而問津兮。蹇將涉兮未涉。聞淫戮之及賢。短趙孟之爽德。遂臨河而愕旋。浩余歎兮蹢躅。嘆曰。鳳高嘯於千仞兮。覽德輝而下之。鴻又飛兮冥冥。非弋人之所纂。胡爲乎遑遑欲何之。嗟小子之狂簡。重爲之歎曰。將涉淺兮。石齒如戟。將乘深兮。龍

髻雷拂。石可闢乎。傷我足。龍可批乎。隳我楫。石與龍皆可懼兮。二子盍歸乎來。嗚呼。河不出圖。時不來歟。狩而獲麟。命之哀歟。將行也命。將廢也亦命。欲濟者命。不濟者亦命。天既縱乎將聖。又何命之堙阨。雖然。以過化存神之德。值未欲平治之日。夫子之不遇時。非夫子之不幸。而實時君不能用之不幸也。又非不得於時君之爲不幸。而實時君不得於夫子之爲不幸也。天不窮於夫子。而天實窮於時君。天不薄於夫子。而天實薄於時君。是知夫子之得邦家者。齊不齊魯不魯。秦楚不爲秦楚。故景公之不封以尼谿。則非晏嬰止之。而天實使止之。定公之女樂以亂政。則非季桓受之。而天實使受之。逮不用遺言之康子。暨止封書社之子西。咸皆天誘。非所自沮。然則簡子之殺鳴犢。舜華者。庸詎知天使殺而殺之也。噫噫。夫子之不濟河兮。獨不爲夫子惜。而重爲趙簡深惜也。

春郊牧牛圖賦

郊如掌草似茵。中一川左右山。濃霞破兮浮未高。嗽上岑兮鷓鴣鳴。彼誰子髮黃而衣青兮。睡牛背兮過橋行。驅且行兮斂復飲。管一郊之春色。家何在兮問不言。杳墟里兮深谷。嶠嶠露頂兮。植杖南畝者。是渠家之乃翁。嗟爾牛既朴而既茁兮。一生苦樂兮。唯爾童牟然吼。角戢而耳濕。紛滿脰之黃鍾。朝牽出兮暮驅入。幾山南又水北。勞爾之日牧而又牧兮。之原隰忽又阡陌。何所獨無芳草。更胡爲兮西郊。方其隴雲潑墨。夜雨深兮一犁。朝光吐煖。霧五里而十里。王孫遊兮去無來。自春色兮滿芳沚。爾乃叱上堤鞭入煙。沿澗吟度隴眠。晴褊袒雨笠蓑。黃昏笛夕陽笳。時逐隊兮隔溪呼。又斜風兮三兩歌。然則是童也。人來問酒家。遙指杏花村者耶。夜深叩角歌。重到葛洪川者耶。共羊來日之夕耶。見客拜風雨惡耶。厭過堂下者耶。喜放桃野者耶。前山雨後山晴。不脫蓑衣。

臥月明者耶。於是童呼不應兮牛不訛。非疇昔所見於青蕪。余乃近而摩挲兮。乃知龍眠之所摸。余亦有牛兮。服田而服箱兮。渴無水飲兮飢不芻。蹄穿頰蒼兮瘦到骨。朝鞭暮筴兮呵又叱。安得牽之入此圖兮。向豐草兮共爾牧。牧童兮牧童兮。使我手撫兮空歎息。

守歲賦

甲辰之歲。臘月告晦。客自外至。二與三會。遂促我以燈。坐我以堂。列我以雕机。倒我以芳觴。少焉。談倦意怠。如有不樂。隱几頽睡。謹謝客。客有出位者。執酌進曰。歲律云暮。日月其除。日之夕矣。夜如何其。今夕何夕。除夕之夕。此酒此日。可嘗可惜。今者不樂奈明何。明朝看鏡奈老何。老哉老哉老且死。死不復生哀此世。此所以將聖在川嘆一逝而莫留。英雄寄公悲歲月之如流。況吾與子俱是弱喪。胸難去茅。面猶有牆。曾日月之幾何。奄視茫而髮蒼。生無成兮何事業。負頭上之崢嶸。是用崇酒載肴躋子之門。雖分陰而當惜。況歲華之將殘。看今霄之雙鬢。又明朝之一年。矧一老與一少。判曉夜於今昔。倘一場之甘眠。已擲梭之難及。寧渴睡於半餉。昧昨少而今暮。今余所以無寐。懼余守之未固。是知今宵未盡是今年。明朝旋至卽明年。冬隨宵舊。春逐朝新。甲從宵窮。乙與朝始。胡爲睡負此隙駟。談未卒。余卽斂衽謝曰。夫陰陽舒慘。四序迭迎。理氣回薄。萬物枯榮。推原反本。均賦同天。固無彼而無我。胡妄私而妄專。偶然爲人。何足以喜。忽然爲鬼。何足以懼。欲往忽來。寧有窮已。然則生老者形化。病死者氣化。以其化者而言。則一日之內。千百化而有餘。以其不化者而言。則千萬世爲一朝。而天地與我終始。噫。造化勞我以生兮。旣無喜又何悲。且客徒知守其歲。不知守其命。徒知寤其寐。不知寤其性。何爲其然也。苟守而不寤者。則雖日守而不足。苟寤而不衰者。則雖日寤而不給。彼高高之流光與堂堂之飛晷。非汝守而可

留。非汝寤而可駐。則庸知客之守與寤者。終不能守而寤。庸知吾之不守與不寤者。乃固守而深寤也哉。客於是呿口吐舌。不辭而往。我鼾如雷。日高三丈。

赤壁賦

歲庚申時九月後重陽先望日。先生與客。舟游石壁。于時驟雨旋止。狂飆忽息。水清若空。纖縠初濯。刺鏡面而遐邇。覽形勢之紆直。執卮酒以相壽。流左右而遊目。紛錦累而繡堆。杳霞連而霧屬。遠而望之兮。雙龍鱗之照爛。近而察之兮。驚虎豹之藏蹲。雕山骨之戍削兮。琢雲根以頽疊。恍如女媧之所鍊兮。塞天寶而餘素質。又如大禹之所鑿兮。決龍門而河道闢。若非鬼運而神輸兮。疇克岸委而崖積翠。疑長鯨之曝鬣兮。白訝防風之朽骨。夫何造化之神權兮。幻至奇以無迹。於是先生執酌流眄。嘆然長歎曰。厥初開張。孰主張是。其始芒芒。我昧斯理。若以設此者。爲有意於固國。崤函漢方兮。無奈秦楚之亡。若以設此者。爲無意於固國。胡然周遭兮。屹若長城與巨防。況箕壇至於濟麗兮。孰有恃此以威敵。網先朝蜚子之充斥兮。慘王師望風而魚肉。至今江波之嗚咽兮。想魂悲而鬼泣。天之設此抑何意歟。客有出位者。應聲答曰。以余所料。似非偶耳。今者昧朝。木道將啓。天乃晦冥大雨。以風倒海翻山。混混濛濛。江商下碇。陸旅止轄。船于此地。神所難卜。然而先生猶且怡然。不以爲惑。回風止雨。如叱老僕。爰開爰霽。曾不瞬息。既申之以晴景。又重之以明月。秋江淨兮如練。壁色露兮無隔。榜人喜兮棹謳發。芳酒御兮嘉蔬錯。江妃出兮水神嬉。巢鵲起兮潛蛟躍。豈非神明之默佑。快先生之清賞。俾揮毫而摘藻。摸勝區之景象。答造化於千古。有今日之高躋。是知先乎蘇子幾千年兮。無是作於赤壁。後乎蘇子幾千年兮。亦無作於赤壁。然則天之創赤壁。非爲吳蜀也。爲蘇子也。安知今之有石壁。

非爲歷代固國而威敵。只爲先生一言而設也。言未既。先生乃揮手止之。微笑不答。俛然放筆。如有慙色。

反赤壁賦

壬戌之秋。余在商邑。如有不豫。臥吟村榻。客有自外者。勸余持酒浮舟于洛日。今茲歲紀。屬于壬戌秋之既望。又值此月。此非蘇仙游赤壁之夕歟。是用騷林墨壇好事之徒。莫不提壺⁹挈榼。爭泛江湖者。蓋以是月與日。歲常有焉。難遇者年。百歲忽然。佳期易還。時不可失。蓋從我而游。踵前脩之奇蹟。余乃听然露矧。應聲而笑曰。嚮者蘇子之遊。初非擇年於今歲。又非卜夜乎今日。又非選勝於赤壁。又非倍興於此夕。偶然作賦於前後。便成勝迹於千億。苟有蘇子之名之大。又有蘇子之才之逸。雖非今歲之歲。雖非今月之日。雖非赤壁之游。隨所遊之勝迹。今者既無蘇子之大名。又無蘇子之逸才。徒務襲其年月。欲踵美而追懷。雖使載酒百瓮。鼓吹十行。浮萬斛之舟。建千尺之檣。乘滿空之風。張蔽海之席。出蒼梧而浮孟渚。掠渤澥而漂碣石。歷桑若兮尋蓬瀛。舞清飆兮歌素月。苟無蘇子之所賦。等井蛙之自多。迹雖勝而且奇。人孰聞而知耶。今客不反其本。徒欲逐末。客之好名。不幾惑歟。而況以赤壁之游。揣蘇子之迹。欲以記勝。只露其陋。既無取乎蘇子。又何慕乎赤壁。嘗念中流翫景。出於自然。弔古興懷。亦所必然。何自哀其短生。漫託羨於江水。爰一哀而一寬。近婦人而女子。況乎清風自風。明月自月。江自江兮山自山。蘇自蘇兮客自客。又何必取之而用之兮。爲自家之翫物。是知區區於死生之際。屑屑於取舍之間。此余所以哀蘇子之陋。而竝與赤壁而爲陋者焉耳。余方以大氣爲舟。以至理爲楫。以黔羸爲蒿¹⁰工。以造化

9 壺：壺

10 蒿：篙

爲賓客。刺乎漭沆之口。涉乎混茫之洋。洌洌橫驚乎寂寞之濱。汎汎中流乎無何有之鄉。將落帆於大道之窟。且下碇於玄牝之門。奚暇與客游洛之濱。況風利不得泊也。謹謝客。客於是憮然失色。逡巡避處。乃逸而遁。杳不知所。

螭蜺賦

小而無內。小之至也。無內與外。無之謂也。疇至察於無中。強名之曰螭蜺。考厥族於漆園。怪造化之勞精。受天明命。寓於林叢。無於有內。有於無中。處於有無之間。逸於名實之外。以至微爲一身。以至玄爲一世。國於蚊之眼。宅於蚊之睫。以蚊之眶爲四瀆。以蚊之眉爲六合。𦔻𦔻戢戢。日生九十九子兮。恢恢乎宅有餘兮。國無壅睫。曾不知其有物。蚊焉得以眇目。是知盡師曠之聰而不能辨其有聲。極離委之目而不能察其有形。方且以一粟爲大塊。以一塵爲大千。以蚊睫之一涕爲大洋。以蚊睫之一毛爲太山。茫洋衆浮乎島嶼之外。逍遙群遊乎丘塗之間。足以盡其性。足以樂其天。是惡知夫人世。又惡知夫人世之有萬物也哉。嗚呼。自其大者而言之。則大鵬之大亦不足。自其小者而言之。則螭蜺之小亦有餘。又安知大鵬之外。又有大於大鵬千萬層兮。螭蜺之睫。又有小於螭蜺千萬層。而各不覺其有螭蜺如今日之蚊睫。而莊周之瓣。不能盡其大小也哉。

三十六宮都是春賦

靜研朱以滴露兮。兀蹟玄於羲畫。由相摩而相盪。揣剛柔之交易。懿六六之互推。原一元之條達。究生意之活潑。揔春風之融洽。緬七竅之肇鑿。位兩儀之清濁。帝降衷乎庖犧。龍負圖而河出。犧欽受而默符。是

扚卦焉有入。推厥畫之交變。窮富有之大業。風天下兮雷地中。互爲父而爲母。既以母而孕男。反七日兮無悔。又以父而生女兮。柔過剛兮何咎。偉姤復之相生兮。遂月窟與天根。往又返兮環轉。三十六兮氤氲。然彼往兮此返。孰主張而使然。噫流行之磅礴。悟一理之良能。彼東君之贊元兮。煽和氣以薰蒸。發條風之習習兮。着萬類而鼓動。開凝蟄而蠢揚。暢句茁而敷聳。花千枝以紅白。葉百卉之青蔥。觸有形而成物。著生理而融通。縱秋冬之凝閉。亦一元之進退。由兩曜之舒慘。幻群物之成毀。偉洋洋之發育。均四時而一體。故四序之雖殊。綱一春而爲目。爰推姤以至復。覩真元之回薄。數厥爻之變易。止琴高之鱗次。儘默化而相承。悟萬殊之一理。諒春元與理氣。用則同而體異。嗟是道之自強。在流暢之不已。倘毫銖之間斷。詎能覆而能載。天不可以爲天。易不可以爲易。肆邵翁之妙觀。比春晷之流澤。余推彼而悟此。不曰春而曰仁。噫噫。堯舜禹湯文武孔孟之事業兮。一帝一王一師兮都是仁。

七夕賦

駕紅龍兮披白霓。驚霞轂兮載雲旂。河之廣兮不可越。宛中央兮我所思。羌可遇兮不可從。苦難會兮易別。噫今夕兮何夕。是七月之七日。曰余生之陞陞。紅顏好兮奈命薄。衆女嫉余之蛾眉兮。又妬余之良匹。皇不揆余之中情。信如篁之巧說。皇齋怒而降譴兮。乃夫南而婦北。曰無淫而無怠兮。夫可牛而婦織。恩尚許兮相望。隔一水兮盈盈。嗟爾牽之牢然兮。紛幾時乎服箱。耿思君兮隄側。愁擲杼兮七襄。成雲錦兮陸離。爛一機之文章。人如玉兮河如銀。望不極兮空斷腸。皇格余之相思兮。許一歲兮一迎。胡悠悠之七夕兮。只年年兮一日。夏之日兮長如年。懼余鬢兮霜雪。生金飆於昨夜。落人間之一葉。遂星言兮夙駕。趁吉日兮辰良。駟躩踞兮六沛艾。飄雲輶兮曳皓裳。謬余涉兮河之橋。烏鵲飛兮

北南。亦既邁兮水中沚。罷愁思兮笑談。捐余玦兮水北。遺余佩兮水陽。
子交手兮凝睇。鼓瑟琴兮樂未央。羌不可乎久留。樂未央兮愁未極。愁
未極兮可如何。足可惜兮此日。邈後期兮何日。又明年兮此日。噫日月
之有度兮。苦兒女之多情。然姮娥之永寡兮。羨一日於百齡。縱一歲而
一遂。亦天地之無窮。忽星離而雨散兮。訪舊機兮寒宮。涕流離兮交臆。
人寰爲之風雨。憑漢槎而聞說兮。詠七夕以爲賦。

羅池廟賦

墻崩級夷兮藤絡之。廟貌暝兮愁雲集。蒼鼠跳梁兮竄古瓦。鼯又嘯乎梁
北。得樵歸而就詰兮。仰柳侯之攸宇。侯胡爲乎此妥。系河東之名譜。自
頭角之嶮然。稱柳氏之有子。謂功業之立取。逮父時而趾美。嗟齒少而
志銳。竟高步而致躓。爰禦魅兮柳之州。路千萬兮其里。不鄙夷而禮法
兮。致康和而殷富。苟有令焉勸趨。民謂公兮吾父。懷故國兮曷已。路脩
門兮無日。思結輜而不洩兮。慨齋志而淪沒。噫精爽之不昧兮。語歐魏
以將死。果其死而爲神兮。又夢翼以祀我。廟遂成兮羅池。船兩旗兮侯
來。來乘駒兮以入廟。蕉荔香兮靈徘徊。陳瑤席兮玉璫。徐揚抱兮且安
歌。舞體輕兮褰裳續。靈偃蹇兮從雲車。日既吉兮辰良。登酒牲兮芳菲。
靈爲風兮又爲雨。猿與吟兮鶴飛。孰我靈之敢侮。有醉死之過客。偉既
靈而且神兮。瞻棟宇兮玄肅。余千載兮遐想。獨爲公而永惜。以如此之
賢才。立當日之朝廷。胡炙手於彼儉兮。昧趨向之常程。倘在省而謹飭。
已能如乎刺史。雖不食乎羅池。豈侯神之永餒。參昌黎而翱翔兮。庶配
饗乎聖祀。矧驚動而禍福兮。曾未聞乎君子。鄒之郊兮魯之原。暨濂洛
與關閩。既生榮而死哀兮。寧假巫而惑民。配宗社以永建兮。與日月而
昭格。肯自托於荒祠兮。反同歸於叢櫟。然世降而俗末兮。痛交道之不
復。願以柳易播之一節。起衰季之歎服。

車賦

遵遼道之邇。閱去馬與來牛。咸服役而致遠兮。功地用之莫儔。胡爾御之殊科。騁雙轂之麟麟。眷風行而雷運。若鬼護而神鞭。問誰創乎此制。緬軒后之攸作。思便用於陸輸。肇就山而冠木。爰斧彼以鉅彼。按繩墨而剗剗。裁長短而曲直。以縱橫而離合。輪外員而體天。箱內方而則地。曰杠杙與輻員。暨輓輶與轅軌。紛旁豎而互設。各持持而職職。澤用抒而山侔。下乃軒而上輶。軸恒中而司轉。蚤衛內而攝固。既脂膏以塗澤。又鞅靽以牽護。爰載重而涉遠。御以鬣兮或角。亘四海而攸同。垂萬祀而不易。祥曠左以妥神。戎又造兮巢革。惟輦輶與輦輶。舉推此而演益。慕南指而蚩亡。嘆東轍而姬衰。下幾想乎泣辜。後曾仰乎載師。魏宜敬乎賢間。越胡禮於蛙蛄。哂塗山之骨專。唾沙丘之魚臭。見宋力於挾輶。識楚勇於超乘。或投葬而客留。或窺井而壽增。考雜出於經籍。偉用廣而功彰。苟合制而中度。宜利行乎四方。然御驅之有道。苦顛仆之無常。古明王之是懼。慎登降焉以節。牡孔良而孔阜。馴以四而又六。前孫陽以爲御。後王良使執策。鑾鈴鏘兮和應。執如組而如琴。王爰陟兮按綏。輶晴¹¹晝之雷音。捨嶄巖之絕陁。就平坦之易路。惟其意之所適。任翱翔而容與。胡淫辟之反是。謾遊畋焉是事。御國卜之未之。駕跛驢以爲駟。惟峻途焉是騁。罔晝夜以轟轡。哀馬逸而莫止。昧轂下之胡越。俄輶摧而輻裂。竟輪壞而軸折。前纔覆而後繼。歸百王於一轍。非爾乘之不良。乃爾御之乖法。余少師乎秦樓。解操鞭而援轡。倘爲御於我王。庶或展此薄伎。智爲輪兮人倚。信爲輻兮民輶。質爲杠兮既堅。禮爲策兮且節。巾正路之坦夷。稅安宅之敝赫。軼三代之隆昌。駕吳唐之無爲。噫哲王之已逖。孰爾才之見知。彼載糞與服鹽。儘駉駉與白羲。慨有車而無

11 晴：晴

馬。羌孰御而載馳。徒賦車而比國。曠世路而興悲。

完丘賦

邈南征兮司天。曠鑄鼎兮窺奸。紛禹步之幻怪。競傳芭兮迎神。聒揚抱兮坎坎。觸完丘之壇曼。子之蕩兮憺忘歸。乃婆娑乎其間。肅薦碧兮寘璵。蕉匪黃兮荔丹。瑤席展兮旣閑。雜竿瑟兮俱陳。浴蘭湯兮沐芳。襲姸服兮嫵媚。抗皓手兮安歌。芳菲菲兮旣繁。舞脩容兮浩唱。靈□蜺兮如雲。颿遠舉兮漸近。爛昭昭兮未闌。胡然天兮善窈窕。君樂康兮欣欣。格翦紙之繽紛。降鷺羽之翩翩。旣斯丘之案衍。又斯舞之蹁躑。彼龍駕兮帝服。合風迴兮雲旋。喜壽我兮福我。頌黍稷兮虬蟠。然無冬兮無夏。將或荒乎斯民。噫太皞之遺墟。乃聖神之陶甄。胡後裔之爽德。屬牝鷄之司晨。惑妖巫兮荒樂。尚淫侈兮莫悛。驅國人兮一丘。任髻之盈填。爭棄隸而廢職。歸一世於淫昏。痛雜糅之孔極。嘆幽明之混紛。彼驚動而禍福。豈王政之所關。故不刪而編首。刺陳風之訛畱。作聾瞽之瞑眩。開萬古之視聞。噫敬之而遠之。有吾師之格言。

採菊東籬下賦

車休巾兮舟罷卓。倦尋堅與經丘。旣眎柯之尋常。寧撫松而銷憂。初無心於北窓。俄有事乎東籬。東籬兮何有。佳菊兮籬籬。薄言兮采采。將以遺兮美人。美人兮何許。杳西方兮雲端。豈落英可供乎夕飧。吾取爾之酷烈。昔余之種爾菊兮。趁春霖之乍歇。相茲土之膏沃。喜數叢之條達。荷余鋤兮理荒。日峻茂其枝葉。效自聞於蘭蕙。法後凋於松柏。肯托根於桃蹊。愧闌艷乎李逕。結幽期於歲晚。待芳姿之交映。迨金飈之振柯。露宵結而霜落。迴登山而臨水。但無邊之落木。時天葩之燦爛。一籬東

之春色。任吐芬之鮮鮮。羌自黃而自白。噉上岑兮送椒。含露華而淑郁。岸余頂之葛巾。綴余嘯於東臯。想孤艷於澤畔。記遺芳於山椒。掇其英兮盈把。襲滿袖之菲菲。采復采兮夷猶。覺興淺而愁深。擷在筐兮悵忘。歸嘆規毀之已沈。噫雜花之爭春。非余心之所樂。謇朝榮¹²而暮替。任隨風兮輕薄。孰天秋而獨秀。抗傲霜之高節。聊一采而一嗅。猶可愛乎馥馥。亂曰。采薇西山兮。寧易萬鍾之祿。采菊東籬兮。何如五斗之粟。前西山兮後東籬。風萬古之六合。

訓子

余惟父子之大倫兮。乃居一於三五。苟父之不詔以義方兮。是陷子於違忤。肆余諄諄其懋汝兮。懼汝悖乎恒則。懼汝居閑而處獨兮。昧余志之竦惕。懼汝臨事而應物兮。遽輕動而妄作。懼汝不謙而自抑兮。遽肆言而悖德。夫慎微而謹獨兮。乃聖賢之明飭。苟服膺以脩省兮。與君子而同域。故夫婦之至愚兮。亦有刑而有別。處兄弟而友悌兮。諒體二而氣一。彼忿爭而參商兮。宜戒之於造次。況出身而事君兮。忠必由乎孝至。在勿欺而好犯兮。宜盡己而效死。矧長貴之凌妨兮。鮮災禍之不逮。故下馬於鄉間兮。宜鞠躬而敬止。然遠朋之會文兮。豈非信而可立。寧以面而不石兮。宜取益而義合。彼僕御之賤微兮。亦天生之人子。恤常存乎飢寒兮。宜厚愛而薄罪。凡臨刑而畏殺兮。體上天之好生。彼恃挾而生驕兮。有必剋之神明。苟事父與事君兮。暨事天而不愆。是不外乎誠明兮。余無間於往賢。寔所勉之匪他兮。孝無大於此者。如放利而殉名兮。所無望於稚艾。彼徒勤其定省兮。乃區區之末節。不以色而甘旨兮。養非志而何屑。雖日養其三牲兮。噫不敬則何別。信養志爲至孝兮。奚

12 榮：榮

取爾之立揚。余幼失其怙恃兮。違炯戒於趨庭。詠蓼莪而悲淚兮。慕生育之至恩。念哀哀之父母兮。誰使亡而使存。今欲報其可追兮。瞻昊天之罔極。痛風樹之莫逮兮。泣三釜之靡及。肆明發而不寐兮。哀有懷其二人。睠霜露之時降兮。人一去而無還。縱欲承其嚴戒兮。徒仿像其夢寐。今余所以警汝兮。乃吾考之所志。余不惕則違親兮。汝不勉則違我。苟以子而有違兮。蹈不孝之大過。既自警而警汝兮。勉勿頽其家聲。舜恭廩而稱大兮。范折筭而臻昌。陸稱德而蹈危兮。庾承淳而乖方。凡吾所以勸戒兮。豈不外乎理軌。既申之以倫彝兮。又重之以物事。恒臨酒而畏醉。每好賢以易色。口守瓶而出好兮。戒奔駛之罔抑。由內誠而外敬兮。天乃祐而慶福。勛和順而奉承兮。服提耳之善誘。且念茲而在茲兮。宜勿墜而勿壞。

辭

發棹辭 遊四郡時作

蘭爲舟兮桂爲櫂。泝空明兮倚三島。懷芳約兮不能忘。望佳人兮隔煙浦。蕭鼓吟兮旗掩雲。旄戟豎兮天欲暮。君愉佚兮迎我。鼓瑟琴兮芳酒。御滿船兮美人。忽獨目成乎下女。子交手兮憺忘歸。遺玉佩兮江之滸。理芳楫兮下灘。鳳踟躕兮棲所□。忽雲回兮雨收。悵獨往兮徒離憂。

送愛州尹辭

若有人兮盼而頎。玉色顏兮耀奇牙。蘭爲佩兮履蕙綦。芝裂綬兮若爲綯。既睇眇兮善窈窕。又菲菲兮如春花。合升天兮入紫宮。荃宜邇兮不

宜遐。方整飾兮奉巾帨。不我慍兮謂我嘉。旋下墀兮翳長袖。席未破兮
回雲車。輕銀臺兮重金樞。眷西顧兮寵有加。懷貞慤兮保慢愚。慎終始
兮戒參差。女七日兮化爲龍。歲未晏兮皆汝華。邊風起兮城上寒。我送
君兮悲奈何。

玄洲集

卷之十四

門人慎天翊攷

祭文

銘

祭文 十四首哀辭二首○文集

祭亡室文

惟靈受氣爽淑。貞順天得。弱失怙恃。長姊是托。哭泣之哀。隣里側耳。香火六載。孝聞日邇。與我論婚。長姊實倚。祭已之春。始執棗栗。內坦外夷。德言吾悅。以我浮靡。就君鋤削。毫釐有失。峻責可法。貞亮之容。炳著于色。死生之偕。與之成說。睂勉有亡。箕帚糟糠。秉婦之道。主饋端明。朋或自遠。議厥酒食。拭盤舉案。賓友嘉服。嗚呼哀哉。曾未周年。我遭母憂。畢喪而還。家食一秋。賊燹猝逼。海陸無路。不陸而船。實從叔母。全家一葉。海門風雨。叔母病船。泊下三鄉。謂賊必遲。淹度日星。嗚呼哀哉。避賊之謀。吾實不臧。九月十七。日未中央。凶礮忽動。賊舸飛入。噉嘈奔竄。僵屍草澤。造次相失。父子夫婦。奉老蒼黃。咫尺顛仆。君不在傍。天胡罔極。呱失厥乳。翌日命絕。走瘞道周。白刃交橫。呼山叫海。晝伏宵征。喪子失妻。胡忍人情。吾戴吾頭。此時猶生。路出蒙灘。眼迷南北。忽遇一人。問我何客。吾告姓名。他聞卽愕。云子內君。惟彼道側。失君之故。呼天乞死。三赴于水。三被婢止。節義則高。性命可憐。吾驚急往。他語果然。握手噎泣。聲畏虎聞。謂必天誘。此會末期。自今相携。死何悔悲。主嫗揮涕。嘆我生逢。君卽賣環。備食以供。食何下咽。叔母不在。欲共還尋。賊已環蔽。君時繭足。行不進程。走將何歸。四面鳴槍。一畫于林。相視蒼茫。嗚呼哀哉。是夜偃偃。周章野口。前戈後刀。靡左靡右。困伏叢蔓。夜盡日出。日將亭午。猶免賊逼。午而至未。竟與賊遄。嗚呼哀哉。君於此時。勸我走避。勿以我故。坐致彼至。俄然賊至。君促我出。我出突賊。裸體徒襪。一奴隨我。走山得脫。賊去卽下。日已昏黑。獨與孳叔。訪君所伏。哀哀已死。屍血塗草。謂必遇害。撫屍踊

悼。嗚呼哀哉。有刃在頸。吾所佩刀。君時自帶。我昧其由。豈意茲夕。竟至自剄。屍在林中。吾獨奈何。飢竄涌珍。萬死苟活。跟賊退勢。反尋舊宅。此時君骸。已返故山。十月具槨。葬急以權。明年暎春。就食于洛。過暮翌月。爲君南國。買棺改葬。今已四齡。嗚呼哀哉。君爲我死。我負君生。君所寄鏡。至今猶明。今以新恩。來掃君塋。今猶告文。何面幽冥。嗚呼哀哉。赴水雉頸。凡婦猶或。自刃自刎。烈士難必。勇矣哉君。夫何能此。烈矣哉君。夫何至此。勇矣烈矣。如其節義。生死合道。如其貞矣。旌閭掩幽。責在於我。勒碑記德。責在於我。余所不者。有如此辭。今夕之薦。虔告深悲。魂其倘來。降鑑于茲。嗚呼哀哉。尙饗。

祭習靜文 林權

惟靈磊磊其器。嶷嶷其儀。魁顏豐頰。駢齒廣眉。明星炯炯。眼光照人。符彩昂昂。風神出塵。八尺之長。萬夫之右。旣文又射。又善飲酒。忠孝天得。友愛能事。避利如讎。嗜義於色。苟蹈者義。萬死且樂。難奪之志。不渝者誠。崩天潰河。可障而擎。嗚呼。值國初濫。從戎倡幕。倡動與靜。公實坐作。倡聲與勢。公實籌畫。倡故視公。如弟如兄。如足如手。爲死爲生。遭厲昇還。未共守臺。使倡魂孤。獨生所惡。嗚呼。逮丁再剿。兩湖魚爛。延頸受刃。邑夷城散。公乃踵義。南土響答。徒手悲呼。賊圍解匝。血搏順陣。以單仰堅。賊沮所懣。挫銳摧先。官軍伏氣。天將之歎。颺告我王。王寵以官。嗚呼。理茂以寬。不樂竟歸。爲文爲稷。非志所期。逢咀不肖。俾奸謀忠。于時忽忽。絕意名功。病憊城南。藥物几杖。塵棲酒瓮。蟲蠹詩軸。提挈于南。眷彼鵠原。築室掃庭。曾未判年。嗚呼。交今不古。背笑賣友。滔滔射利。孰敬其久。公獨守信。挽回古初。吳將感義。托其妻兒。傳譯照肝。異域一心。仰風輸誠。貫石斷金。無貴無賤。凡所相識。疇不悃悃。死生相托。嗚呼。訪我草谷。初自癸巳。一握相期。在沒終

始。謂公吾兄。公以弟視。逮公舉義。公實我倚。情有所迫。未克究竟。濕霜告別。淚睫相映。疼痛生平。莫暴我貞。嗚呼。黑虎之秋。吾病告革。兄弟莫救。家室遠隔。公時赴護。劇於同腹。舟來載我。館我南郭。節時飲食。藥餌之良。迎醫視脈。鍼石俱張。賴此以愈。得免死亡。續命將斷。云誰之力。嗚呼哀哉。公在城南。癰痼羸黑。吾驚慘詰。胡至此極。公云致此。吾所未悉。端由麴蘖。所以斷絕。日黃日悴。瘦到于骨。遂挈以南。竟不能北。五月未旬。夢我殷勤。風儀仡仡。恰若疇昔。言我已健。勿復念及。謂公必愈。孰意已逝。夢後不日。竟承凶計。嗚呼哀哉。微斯爲痛。果誰爲痛。非爲公痛。爲斯世痛。非爲公悲。爲國家悲。始天生公。謂或可期。故授公材。與忠信義。胡器之宏。而命之蹇。文而不第。歸譏於數。才不將相。吾昧其理。嗚呼哀哉。公之氣槩。與公精爽。宜永不泯。或昇而上。騎風泛雲。正氣爲駟。從關與張。秉雷驅霆。或爲星辰。昭布蒼冥。不然入地。爲山爲岳。爲江爲河。怒濤揚沫。炳炳心目。婉婉可忘。嗚呼哀哉。公逝未期。嫂又繼亡。妾有二女。遺腹一子。獨無父憐。惟母之倚。養嗣克孝。惟寡之恃。嗚呼哀哉。道里悠邈。哭不以時。經歲方臨。情壞禮虧。宿草不哭。記雖垂說。涕自無從。聲未覺失。靈其知耶。我來哭此。靈其知耶。我奠于是。靈知否乎。胡不語只。嗚呼哀哉。

祭亡友金伯順 昌孝

惟靈淳毅其質。忠愍之行。學學以持。祛傲存敬。礪志礱學。屢貢未中。意何坦夷。命何阻壅。一命未就。五旬斯忽。嗚呼哀哉。歲丁丁酉。二湖盪潏。兇鋒所靡。僵屍山積。造次相失。恩愛莫保。以兄孝慈。俘子喪母。舉道飄竄。偷喘林奧。嗚呼哀哉。我時遭賊。喪滅全家。獨戴我頭。赤軀蹈遐。瘡膚繭足。命餘喉隙。飢仆涌岫。延息巖窟。左劍右銃。獸鬻巢穴。四無脫路。口絕糜粒。氣存呼吸。難淹晷刻。嗚呼哀哉。兄時伺隙。糊

我以食。卽扶我疾。背負替僕。館我飽我。不隔戶室。視如同氣。聚食共堂。倉卒顛沛。以走以將。數月之間。患難與同。萬萬必死。得君以生。急人於厄。親舊猶或。況吾與兄。曾不一識。聞名救死。古未聞知。嗚呼哀哉。一飯之惠。丈夫猶懷。浹月救活。義誠何如。感鏤心髓。死無所辭。北南懸邈。承計不時。逮佩南符。今已踰年。公私所牽。帶曠哭筵。今始歷奠。我思如焚。嗚呼哀哉。涌山之峯。龍江之水。天荒地老。或有窮已。我感我思。曷有其屆。嗚呼哀哉。尙饗。

祭元右尹文鏡

惟靈惟中之慤。惟外之嶷。惟質之堅。惟氣之確。惟執之固。惟守之約。墨毀廬墓。負石塋築。分貳姊妹。自擇老瘠。孝友之天。可質神明。行脩業成。身立名揚。介潔自持。偉器天成。嗚呼哀哉。吾雖飲名。曾未相識。吾忝嶺郡。公宰湖邑。逮吾過湖。公先侯路。一夜房樓。傾蓋如素。卽與論婚。公女我子。金石互堅。瓜葛之倚。公鍾女愛。不忍寄我。吾兒贅托。十五餘載。公差長我。我猶兄視。嗚呼哀我。吾嘗多疾。聾聵臃腫。公無片恙。不怯夏冬。吾謂公材。實合廊廟。吾謂公壽。必耄與耄。嗚呼哀哉。由我雖吾。不我是天。何器之國。而命之屯。乍騫臺省。仍謫湖縣。用判而陞。刺史畿甸。不樂乃解。盤桓朝列。逮扈于公。貳副西銓。功登金秩。乃牧商民。俄秉巡節。嶺海稱理。還朝不日。僨接毛壘。值虜充斥。悉西鑿糟。公返卽還。昧冒槍刀。棲托海滙。飢渴濕瘴。惻悶顛連。濟活流穴。久損榮衛。僅乃復命。抗章獻策。遂忤台伯。偪側蹇產。凡幾日月。舉職京兆。登對吐臆。天高愈邈。丹悃莫白。嗚呼哀哉。病違朝天。實由忠告。散居告省。返自先壟。徂秋迄冬。乘馬出入。兒自京來。報我康億。曾未一句。凶計忽及。謂夢非夢。謂眞豈眞。驚呼惶惑。慟哭起立。嗚呼哀哉。我病而存。公康而沒。病者康者。誰其存沒。天耶鬼耶。理不可測。三秀

列侍。公常怡悅。公胡棄去。其忍永訣。孫稚呱呱。公常膝之。公胡捨去。其忍手釋。生何有知。死何昧識。生知死昧。知不如昧。身縻官守。無緣哭拜。敢送微薄。遠薦哀悃。代兒哭奠。訴此悲懇。臨文荒惘。辭失條節。靈庶恕察。以降以格。

祭龍巖先生金公文金澍

惟靈受材之宏。逢時之屯。秉道而邁。當否而騫。抱明揚耀。天昏彌黜。噓炎撥溫。廣冬愈沍。掌禮典儀。崩缺斯舉。銜命奏賀。肅駢天辰。克竣乃事。班馬旋轅。歷遼穿薊。隔水鄉園。方催膏轄。瞻望君門。孰意東天。瑞日承夜。天命丕革。大聖龍翥。歸將曷歸。國非故國。所承者命。命安所復。以聖易狂。欲死近阨。以身許君。欲歸誰臣。爰脫袍靴。戒僕有言。夫人之沒。葬是偕藏。墓而不表。泯跡與名。丁寧付僕。垂飭來昆。遂返華疆。輿廝混群。悲生樂死。韜晦滅絕。嗚呼哀哉。登山採薇。非是死名。過墟歌麥。亦出至情。然猶特立。名顯跡列。嗚呼哀哉。荊蠻斷文。志在沈滅。聖稱至德。何如仲伯。江頭脫靴。是乃湮沒。唯其殉義。至德同域。事異跡同。殊塗等轍。嗚呼哀哉。其心貞矣。其志確矣。其蹤微矣。其節卓矣。其志悲矣。其德至矣。吾東千古。一人而已。猥忝邑宰。景仰聳感。敢薦微薄。冀一歆鑑。嗚呼哀哉。

祭河司諫文 緯地

嗚呼泰山喬岳。可剗可掘。先生之志。不可屈也。穹溟砥柱。可馮可拔。先生之操。不可奪也。嗚呼。玉佩長裾。非我所光。金貂華秩。非我所營。予美無此。誰適爲容。食焉不粟。服焉非衷。昧命殉義。遇觸乃激。嗚呼。風電杳杳。寰宇辟易。震霆號號。生類瑟縮。日月上慘。收視晦魄。鬼神

旁慴。嘯呶躑躅。嗚呼。刀鉅斧鉞。不能動髮。火山湯海。不能威熱。從容不色。蹈烈是篤。鴻毛益輕。金石愈確。辭正義屹。聖怒攸撓。虧躬完節。與五爲六。嗚呼。維洛汭汭。有時而涸。維烏臺臺。有時而谷。維其烈烈。氣也何息。猥以譴劣。叨宰邦域。敢揭賤虔。薦此微薄。伏願英靈。庶賜臨格。

卒領議政申欽致祭祭文

惟靈金聲夙亮。玉操彌溫。才隨器稱。知與行臻。心存激揚。學究天人。騫清翥要。歷敷愈賁。班巍秩聳。文雅益著。矜持待時。泛浮隨世。乍履西銓。猶不以施。以休戚臣。負柱石姿。宣祖寔倚。未命之悲。逮際昏惑。讒慝構殃。罪擯忱惕。積有星霜。肆予初載。首擢登崇。揀選陶甄。一出忠公。士以稱多。國以之華。爰虛鼎席。側佇和羹。延陞首揆。望洽蒼生。數四年間。事多蒼黃。險阻艱難。共予備嘗。以予寡昧。遭時極屯。若涉溟洋。浩無涯限。方期舟楫。洪濟元元。天胡不憖。奪之斯速。如魚失泳。若鴻靡翼。內逆雖夷。外狁將迫。兵無可捍。民已大棘。予將疇依。疇與爲國。邈彼蒼天。胡寧忍酷。痛悼入骨。涕淚交漱。茲遣近臣。虔薦微薄。嗚呼慟哉。靈庶歆格。

祭愼佐郎哀辭 海翊

嗚呼。其真死耶歟。其真死而不復生耶歟。嗚呼慟哉。尙忍爲辭而祭君之靈耶歟。君之兄弟自十一歲而從我兮。小鳳雛鸞之習飛而爭鳴。我提我撕之不克明兮。兄超弟邁以日相私淑。游我門凡八九載兮。已濤江之淼漠。迭妙齡而蜚英兮。況大闡其榜甲。童顏頰其映花兮。名一日於四國。謂前路萬萬有餘兮。重爲國而有望。胡錦還之不日。忽襲邪以爲恙。

強羸瘵而戾于洛。志一縣以便養。騫春部以歷冬兮。宦非心而疾不愈。頃一書以抵我兮。云恐未免夫客鬼。謂病裏之偶言兮。可不以爲深慮。曾日月之幾何。忽承訃於邸報。謂非真而或訛兮。忍慟哭而再視。有忒姪之簡封兮。又君計以爲告。嗚呼。訃其真而不訛。信其死而不陽。慟慈烏之嗚嗚兮。自南飛兮後平生。恩愛切兮天未極。哀猿噉兮腸已絕。遺孤藐兮孀不老。誰所仰而誰所托。顏三十而觀化。尙云夭而永惜。不及顏其五年兮。天胡忍夫此酷。恒禍淑而佑澆兮。天何道之此逆。嗚呼。君視我其猶師。吾不能視猶子弟。官有守而路脩阻。哀不能以相濟。生不得以永訣。死不得以撫擗。念吾兒之單子。望公等以他日。吾老病而猶生。君胡幼而奄忽。兒貿貿而誰兄。吾踽踽其無屬。寧吾哀之可極。魂庶幾兮來格。嗚呼哀哉。

哀鷹文

壬寅冬。畜一鷹。乃伯氏送也。長不滿一尺者二寸。金其眸。玉其爪。劍吻而鉤距。腦頰突聳。尾翮整銳。其短小精悍英猛俊烈之氣。常颯颯動軒楹。余甚珍之。擾數日而獵之。其始放也。後雉數十丈而飛。飛又不甚決。獵者疑其不捷。而望者曰鷹已出雉之前路矣。遂與望者而望之。則雉未及地。而鷹之拳已加其後腦矣。余與獵徒。無不滿志。又放之亦然。三四放無不然。或半空而掣。余旣才之。日放而日皆然。隨放闕數而獲有多小焉。忽一日獠于前嶺。放之者緩不守機。雉已入藪而鷹及之。鷹及之而犬隨之。其藪之奧穢。乃薦蘿荊莽之所纏織。鷹欲攫雉而出。則四方上下無可超脫。而犬之呀呀者已在其後。鷹無可逃。竟被其噬。而獵者之來後之。嗚呼。其命矣夫。余從室窓而望之。促獵者臂來。則鷹之挺於臂猶攫竦。小無摧沮色。側目厲吻。怒氣益勃勃。意謂無傷。近座隅而審之。則腸之出外者半尺。撫其瘡則胸膛洞開。若剝匏割爪然。雖欲

得半餉之命。得乎。俄果低頭脅翼而死。余悲憤不已。卽瘞其屍于西丘之麓。殺其狗而復其讎。乃作文而哀之。其文曰。

蒼崖萬丈峙海中兮。雲巢霧穴翊天公兮。媼毫配猛卵驍雄兮。始展鋒稜背摩穹兮。鳩鳥爲媒罹網籠兮。來掣我鞵當嚴冬兮。臂出登崔西日春兮。千峯雪虐飛走窮兮。側曠寒霄聳如峯兮。翻身倏霍電鬪風兮。孤雌所伏落榛叢兮。狺然曰獫獫所同兮。嗅逐之疾先獠童兮。張牙雪皓舌齧紅兮。四出無路罔西東兮。哀哀謬齧碎錦胸兮。終古雲長死呂蒙兮。爲肉其讎磔厥狴兮。情何間物涕翻瞳兮。嗚呼英爽庶感通兮。

月出山九井峯祈雨文

元元居土。腹穀以生。穀之不茂。衆命攸傾。國何以妥。神何由寧。今茲旱竭。罔有紀極。敲赫蘊隆。晷濕俱赤。何苗不乾。何穰不縮。闔野嗷喁。望望穹蒼。若渴呼飲。若呱乳吭。屏屏如雨。杲杲日日。如戲如怒。莫究而詰。端由卑賤。職忝司郡。誠微撫勞。政夥疵怨。凡有殃罰。宜加此身。哀哉不言。無告非民。何辜于天。何負于神。毒虐厥命。乃至斯殷。肆惕齋沐。虔奉誠明。剗我剛鬣。薦我粢盛。神其降嗅。詔龍于潭。或驟或凍。以澍以霖。澤我焦焚。青我拈黃。潤我疆場。活我一方。吐胸訴臆。肅埃冥應。巖如有靈。應其不肯。

月出山天王峯祈雨文

維岳嶺巖。鎮茲一郡。名于南祀。甲於群嶽。嶽峨我祗。靈于靈土。民凡有訴。罔不以報。今此旱乾。不日不月。如焚如憊。生類萎絕。苗黃撐畝。穗乾柱畦。泉土井渴。溝落渠彫。魚鼈陸斃。蚯蚓出枯。何物不悴。何草不楮。大命近止。哀哉田野。猥以不才。來理茲邑。不忍坐視。潔祈有日。

逮于三晝。暫濡北陸。是豈冥答。增所慄惕。今欲再肅。奠此微薄。喘喝所惱。不獲躬執。敢遣祀官。替告忠血。伏願山靈。歆嗅精誠。油然霈然。霖霖滂滂。以沃燒焚。以活一方。肆薦馨香。不憚煩黷。靈如有靈。驗此昭格。

天王峯再祈文

天之何爲。旱如此極。不日不月。今垂二朔。土焦山灼。生類焚爍。田無不楮。百稼殂落。耘者輟鋤。默嚔語泣。身爲子牧。愧非民則。目覩心愍。渙然涕睫。忍看枯穗。撐畦柱陌。寧尙無生。自就槁涸。忍看橫目。顛仆溝壑。寧尙不粒。自飢以絕。政之有疵。民非可罰。責有所歸。譴不辭酷。厥理孔昭。胡此冥漠。初祈九井。翊日有作。然猶乍集。不踰山腹。再祈遣官。敬籲茲岳。雖蒙驟下。終不頃刻。茲焉含憾。若自燒滅。力疾扶服。竭衷齋肅。靈惟親敬。雖捨不職。旁州英髦。共我虔潔。精誠所激。不憚代祝。奠雖微薄。此猶可格。山於此邑。以靈而壓。一世災旱。寔天所作。固非茲山。所可與測。一郡休咎。靈實攸職。晴之雨之。惟所闔闢。今祭之後。祇埃甘澤。膏我四境。霈然而足。今日不然。至于明日。明日又明。終始三日。如終不然。是不能答。非誠與物。淺且薄也。是山之靈。不能福也。靈與不靈。此可驗識。雖有馨香。請勿更瀆。

駐龍渡祈雨文

百鱗之長。四靈之一。噓氣成雲。興雨蓂物。屬此長養。久屯膏澤。霍霍如雨。杲果之日。土生人口。田疇龜拆。穡夫噎泣。枯穗黃縮。如憐如焚。大命近止。由我不職。忝守百里。哀我蒼生。仰我父視。農爲民本。無本何生。民苟無生。神罔攸寧。今之不雨。已逾一月。虔禱月出。靈亦不格。

故增悚惕。莫遑寢食。側聞茲渡。龍神攸窟。有祈卽應。靈若符合。茲卜良吉。益加齋肅。病闕躬訴。遣官替告。物微而薄。誠出悃府。靈其降感。油沛卽雨。以凍以驟。以霖以澍。潤我四野。實我百稼。生我元元。活我郡疆。太守雖劣。亦長一邑。龍如有靈。誠無不答。

鐵吞山差員祈雨文

嶺嵩維岳。鎮茲郡域。孕靈澤物。昭假不忒。今茲亢旱。不日不月。五種不入。百稼枯絕。人將靡粒。神罔攸托。政之有疵。罪在不職。貿貿遐氓。何戾之獲。何辜何負。俾將填壑。寧自焚滅。替民訴赤。其或苛厲。橫斂推剝。其或干謁。蝕蔑政法。其或縱慝。奪時役臘。其或務利。轢公逞慾。四有一失。合昭罰剋。政條有犯。無豫黎億。至於奸訟。至於枉獄。雖示顯譴。敬以身服。何怒于民。而厄于穡。病未當犧。代員籲臆。神如有靈。格此虔惕。霈以甘霖。澍我靈澤。以碩我穀。沾¹我疆場。

食沙井祈雨文

人之所仰。天與神耳。何怒於人。旱至于此。無土不焦。有泉皆涸。何苗不枯。何穗不縮。穀將不秋。人曷以粒。不粒則仆。或朝將夕。究厥所召。民非可罰。良由民牧。政夥疵慝。政之有疵。責在不職。寧自焚灼。以塞厚責。訴天與神。天神冥漠。側聞茲井。神龍所蟠。龍既是宅。食息郡土。太守雖劣。乃土之主。凡所籲呼。宜無不答。頃在病篤。差員訴臆。由龍不應。旱至此極。不敢偃息。視民塗炭。扶曳力疾。昧冒躬奠。龍如有靈。終豈無格。如澤一世。聽天而作。固非神龍。所能擅福。苟水百里。以活

1 沾：沾

一邑。一龍而足。龍豈可辭。牲幣薦虔。病告血辭。冀沛甘澍。勃興我穡。一日二日。埃及三日。若終不雨。寔報明誠。是龍之靈。終不靈也。誓勿更瀆。以費馨香。

鐵吞山再祈文

暴旱既極。上敲下赫。既春既夏。有曝無澤。百苗枯落。無望其穡。氓之無辜。咎在司牧。几有疵癘。不避昭責。豈慳一格。終餒是邦。哀哉不言。口魚胥喁。頃者力疾。敬禱浮石。雖蒙乍集。旋即嘆涸。望望之望。日又日日。今茲再祈。出於惓惓。病未躬籲。代薦衷愬。惟岳巖巖。郡所由宅。嘯靈答虔。實在頃刻。以油以沛。快注甘液。俾沃一方。活我兆億。叩心供誠。惕埃冥驚。

銘 一首

硯銘

平其面。唾不拭。虛其中。水不涸。磨不磷。道之確。德不孤。益者三。捨則藏。靜以恬。以墨者。通儒心。

玄洲集

卷之十五

上○門人慎天翊攷

序 記 說 辯 對 論 傳 書 跋 誌 銘 通文

序 二十三首○文集

贈慎童子序 天翊, 海翊。○兩人下南時。贈之。

師之道有三。而事師之道有三焉。何則。有句讀之師。有文章之師。有道義之師。句讀之師。通一卷一編者當之。文章之師。學問審博者當之。道義之師。才全德備者當之。是以。事句讀之師。止於習服敬謹而已。事道義之師。猶事君也事父也。用其誠。無不至焉。禮所謂事之如一者是耳。若事文章之師之道。則雖與事道義之師之道有間。而唯其明我蒙也。智我愚也。才我不才也。如是則其爲悅服。亦無所不用其極矣。是故。使其生致其誠。就於學者。師也。使其師致其誠。進其業者。生也。師與生之誠。必交孚相感。而後可以得師生之道矣。然則爲師難。生亦不易者。若是其難誣。如吾蔑蔑者。其可忝是位辱是名。而犯好爲之誅耶。慎氏子兄弟十一歲而失所怙。以母命。走余爲學。余旣哀其孤且蒙。而又感其母訓之丁寧。始以口讀。用其誠而誨之。生又用其誠而受之。故往來矻矻三四年間。蒙啓而學稍進。余又嘉其啓且進也。由口讀。勵以文章者又數年。而其文若幾浩焉。其學若幾邃焉。苟如是不已焉。則幾乎向文章之方而不遠矣。慎生勉乎哉。雖然。如吾蔑蔑者。其可冒師名而責事師之道乎。顧吾兩童子服母訓。從我千里者今已六年。而未敢以師位自居。唯誘導訓迪之誠。則猶慈父之護稚子者。非爲爾童子顛蒙而然也。唯是重母訓發於至誠而以至今日。則自今至于成就樹立。皆爾等用誠不息之秋。而向所謂師生之道。幾乎責其成矣。苟能誠之又誠。勉而加勉。一日二日。如有所得。翻然自悟於心。則事我以口讀之師亦宜。事我以文章之師亦宜。事我以道義之師亦宜。又他日悟而益悟。則不曰道義之師亦宜。不曰文章之師亦宜。不曰口讀之師亦宜。又不曰道義文章

之師。而曰口讀之師亦宜。在吾子自擇之。今以亢寒。寧觀遠學。於其別也。不可以無辭。故終始言之。慎生勉乎哉。

贈湖南方伯尹靜春序 暉

我東之以富強文物繁華。名中州。聞外夷者蓋久。以其有八路之委輸而湖南之利半之也。夫湖之爲道。地方幾至千里。大小郡邑。棋布而繡錯者五十餘區。如羅如光。如全府。潭府。南順之爲州。物鉅地雄。城峻野闊。醇士艷女之所都會。歌鍾笙竽管絃之所融洽。而南以橫海爲際。故國漕由是而通。駿良由是而攻。以之壯軍旅。而齒革。皮幣。竹箭之所資。以之奉宗廟社稷而芡菱。橘柚。苞茅。粳稻之所貢。則我國之有湖南。不啻若中國之有江南也。賴此而文物繁華二百有餘載。而始剝於壬。丁之亂。再爛於癸。甲之饑。重困累瘁於守宰剝割之政。竟至於凋瘵板蕩之極者。非唯兵戎惡歲聚斂之者相乘。豈觀風察俗。任黜陟之責者匪人而有以致之耶。於是我殿下祔禮纔畢。咸與維新。思所以蘇殘復古之術。采廊廟之師錫而得我公焉。公於是受命而按節。登車而南驚。簪士之擁雕軒蹕文馬。填噓於南門外者不知其幾千。而某之於我公。有忝托孩童之舊。則可無一言以相贈於岐路耶。噫。以公之文。而倡學校明人倫。則鄉修而井理矣。變厖歸淳之道。不在是歟。以公之武。而繕甲兵修城池。則土銃而卒舅矣。挫敵摧兇之策。不在是歟。以忠孝而敦俗。則其俗無不淑矣。以信義而威敵。則其敵無不服矣。語曰。文武竝用。長久之術也。又曰。忠孝信義。國之四維。如是而國不能富強。治不臻文物繁華。則天之生我公畀是任。欲將奚以哉。雖然。使他日居三公之位。闡太平之基。亦無非我公。則豈使我公久於南服。徒責其富強文物繁華而止哉。遂以詩系之曰。

領額湖界。疆逾千里。島寇猝獬。餘黎瘡劓。暴夷踵恆。毒逋徵斃。多

州多縣。日就凋憊。良由疆伯。不明褒斥。茲擢我公。岳牧攸錫。南口罷喁。仰乳于母。收涕息顰。笑謔欄戶。奸遁蠹祛。革餐慕潔。公去勿遲。苦飢苦渴。以哺以乳。活我橫目。公來勿遲。有銓有樞。以提以握。贊我洪猷。公來公去。是休是戚。去兮來兮。勿遲而速。

贈嶺南方伯序

湖嶺於國爲根基。而嶺之大倍之。非唯地右土爽。民物之殷充也。洋海左汨。崇山四環。竹箭。橘柚。皮革。金錫產焉。名都鉅邑。繡錯棋布於中。而俗習純慤。有新羅赫居氏之遺風焉。黌庠院校。相望於境。而莊脩守道之士。往往出焉。有前修先哲之遺化焉。茲所以爲根爲基而國能爲國也。雖然。必須承宣觀察者得其人。然後乃可淳美其風化。而鞏固其根基也。余於新按使之行也。勉之以三款曰。崇忠孝而右斯文。茲非振其頽波歟。省浮費於夷館。察姦壞機。茲非繕其邊圉歟。發困賑飢。急於星火。非所以濟活流穴歟。以之而黜賊蠹而尙廉峭。則其爲風化淳且美。而其爲鞏固根基。得承宣觀察之責者。不外是矣。然則余之勉按使之責者。亦得其勉之之責耶。吁。其勉之哉。

送奇幕府序

我殿下之覃化越四十載。北西二界以老胡頡頑事。飛狀踵聞。國人大洶焉。老者瞿而顰。壯者趨而呶。婦人童子。譖默而相藏。若相負戴而竄者。於是廷議。以群策進曰。日國之剝於夷也。猝被獠突。致七路迎刀竹破。以此瘡餘橫目。驚彈擊落。迄于今惴惴恆惑。蓋此賊雲翔於忽巢。只欲吞類自肥。而先敵預謀。在我今日。則盍若蚤揀才略稱位者。授以都體察之任。務要候情。以壞機牙之未動乎。遂以左議政許公允其掄。於

是老者罷輦而欣。壯者息呶而躍。婦人童子呀口出。賀曰。許公帥矣。我無走矣。遂相與入其門。若相安堵而處者。於是許公啓請從事三人。俾贊經略。而修撰奇公。亦在選中。將以某月。先帥啓行。按視海西。是其銜殿下之命。而宣元帥之令者。其舉不亦盛乎。於是老者壯者婦人童子又相疑曰。惟吾修撰奇公。以明經邃學。處我王論思之地。我王之德。公實亮之。我王之學。公實廣之。今其出矣。王孰訪之。俄又繼而喜曰。猗我從事奇公。以其明而贊我相。以其斷而助我相。文武以佐之。勇智以資之。鞭撻西戎。在此一麾。而出征入輔。王猷益壯。則今此之行。不其喜耶。以某亦在喜者之中。遂作歌而歌曰。

處幄之內。王德之益。從閫而外。王愾之敵。納猷蛇蛇。王沃□□。檄毫電霍。虜魂破賴。乍出而入。箛以鼓隨。汝不吾信。將視麟圖。

送洪翼之赴遂安郡序 瑞翼

吾友翼之。讀書著文。矻矻力科業。幾四十載。累舉而累不中。人皆以窮士目之。余獨謂翼之之力科業。非以進取名利爲事。特以榮奉大夫人爲心。而孜孜不倦者也。其忠孝愷悌之聞於世者。幾四十載。天無報施善人之理則已矣。如有之則豈使翼之。終於窮者耶。言未既。翼之果中甲科。特以先功躋通政。俄又得遂安郡。郡介嶺海也。滑甘豐饒。於是乎出。則其於榮奉大夫人。何如也。其爲報施之理果然否乎。吾與翼之友素矣。弱而失所怙恃。長而益迍邐。垂老而滯下品。與翼之相懸。不啻若霄高而壤卑。則余之無忠孝愷悌之實。於此可見。而天之報施善不善之理益昭昭矣。雖然。翼之方富於年。苟能推忠孝愷悌之實。而益勉其所不及。則天之報翼之。豈特一邑而止哉。於其行也。索余語甚急。遂爲序以勉焉。噫。忠孝愷悌。其臨民之本歟。

送朴百源赴端州序 孝誠

端於吾東。爲名州最。以其有白金，珠，碧琳琅也。世之責白金，珠，碧琳琅者。皆走于端。吾東之稱至貨。必皆曰端。端之吏以此而誅也。端之民以此而窮焉。金，珠愈聚而民愈散。將金，珠一世而空一州。爲端州者。寧散其民而聚金，珠乎。寧散金與珠而聚其民乎。今朝廷特以公爲端之意。我知之矣。以其忠而勸其民。以其孝而礪其民。以廉介愷悌而保慈之。則民將曰吾侯之寶。非金珠也。乃忠孝也。吾侯之寶。非琳琅也。乃廉介愷悌也。遂相與抵金於山。投珠於淵。莫不以忠孝廉介愷悌焉相率。而昔之散之者。於是乎聚。昔之聚之者。於是乎散。非特端之民爲然也。將隣比舉世。莫不效而匹之。寶忠孝而泥金珠。其始自今。稱吾東之忠孝廉介愷悌者。必皆曰端州端州。則端之名吾東。不金珠而忠孝矣。以金珠而易忠孝。其不在於今日。而抑忠孝廉介愷悌。非吾友之事歟。噫。勉乎哉。方有所悲。不以詩而以序。

贈崔燕岐序

吾於公之先大夫之詩。有所感矣。其韻清而高。其格和而嚴。其詞淡而華。讀之使人興起。藹然有感發懲創之端。非得乎天而合於神者。其能之乎。信唐後之希音也。嘗擊節歎曰。清高者。雅也。和嚴者。典也。淡而華者。質文稱也。人之從是政者。苟以孤竹公之得於詩者施之。則其亦庶乎其近矣。既而。人有以吾公之試於邑者告之曰。不猛而民自戢。非雅歟。不糾而民自服。非典歟。既蒞而職辦。既去而民懷。非質文稱者歟。俄又以公之試度支者告之曰。不務簡而不煩者。得乎雅者也。不損下而致足。則得乎典者也。僚友吏胥服其公而稱其能。則得乎文質而不相悖者也。噫。試諸縣而既如彼歷于郎而又如此斯可謂以先公之得於

詩者施之者歟。父作子述。其崔氏之謂矣。談未卒。公又得茲縣。於其行也。索余語甚勤。余謹應之曰。公之理是邦。更可以他求者哉。試以公之試於縣者。足矣。試以公之試於郎者。足矣。今之爲政。其如斯而已乎。雖然。先君子之鳴於詩若是其宏大。則夫豈以一縣官一郎佐之政。而足述其萬一也哉。其或試之於通都大邑。試之於方伯閫帥。試之於三公之位。而而贊一國之政。然後方可謂唱和而酬酢矣。噫。崔子其亦勉乎哉。

贈吳槐山序 翻

發於中而著於外者。莫敏乎政。其中正則其政無不正。其中不正則其政不得正。然則吾於子之政。無間然矣。何者。以其所正乎心者。質諸所學之正。則其發者無不正而政自舉矣。今之所謂政者反是。所發者非其正。而以之程督刻酷。又從而刑暴之。幾何其民不散而邑不虛耶。今槐之地。有校焉。有社焉。有民人焉。茲亦足以爲政也。以其平素之蘊諸中而抱負者。發施而爲政。其不在於此舉耶。雖然。損下益上之政。亦非自我。而有不得已者存焉。則雖吾子之發於正。於是乎殆。而遂以其所得乎學者正之。則雖不爲政。而浩然賦歸。是亦爲政也。奚必爲政。然後可謂爲政也哉。

贈吳驪州序 翻

夫匠石之未試於大廈也。不以耒耜。碯杵之微而鄙其藝。隨所遇而盡其能。蒿¹師之未航於洋海也。不以舴艋。桴筏之小而薄其技。隨所御而盡其術。及夫建高宮。浮大艦。然後斧斤繩墨剗削之用。各極其妙。帆檣衣

1 蒿：篙

枷碇楫之備。各奏其功。於是乎知其匠石，篙師之爲匠石，篙師焉耳。今吾子試臺府。試郡邑。試方面州牧之任者。又奚異夫耒耜，碯杵，舩艫，桴筏之小也。異日。躋樞極。躡台鉉。大試其經綸之手。然後始稱其大才。大才方其治咫尺之木。游洲港之間也。烏能知夫匠石之工。篙師之功也哉。余之忝君隣素也。少嘗從我游。甚知君平生。莫我爲最。其文章才藝之稱。特其文豹之一班耳。豈敢以不類者推引。以爲誇諛也哉。今且爲慈親。急於便養。辭近密而出牧畿州。豈但未之色而舉之歟。語曰。蛟龍移窟。宅於其在處而安。奉板輿。携諸弟。仰孝俯友而樂在其中。則此非在處而安乎。不以耒耜，舩艫之賤且小而廢能者。其不在於今日歟。噫。知君之所固有。而勉匠石，篙師之責焉。抑不知時之或有早晚而天果欲平治否乎。余方目構廈濟川也。惜其行而有云焉耳。

送金子中赴燕京序 時讓

余竊悲生乎今而不生乎古。未觀夫唐虞三代文治之隆。生乎夷而不生乎夏。未觀夫禮樂文物威儀之盛。蓋今之於古已矣。無所企而及者。夷之於夏。則雖界植有限。伊道里不隔。男兒生世。豈無遍游之路乎。此吾素所蓄積。而努力取科第首。非特爲功名事業地耳。唯以銜命奉使爲榮而遂其志矣。茲者。友人金子中以其年之妙才之俊氣之倜儻。而擢諸彥紆聖命。特以副价。聘賀陽至。昂昂逐隊乎中朝之大庭。彼千官萬國之環佩于大庭者。得不見子中之年之妙才之俊氣之倜儻。而動目相驚耶。以子中之年之妙才之俊氣之倜儻。而歷遍山川之紆直。都邑之宏敞。城市閭閻之兼匝。宗廟朝廷禮樂文物威儀之洋洋乎颯颯乎。而得不暢然自得乎心。益廣其所倜儻者乎。昔季札觀周而學益博。子長遠遊而文益奇。今子中之所博而奇者。豈獨下於數子耶。噫。子中之去是邦也。直取燕而北矣。於其過舊燕也。爲弔昭王之墓曰。使千載可作而築其臺者。

則今天下四海豈少。如樂君乎云爾。則天下四海幸甚。別子中不日。而踵子中而赴燕者。是余同氣兄也。方有鵠原遠別之懷。茲不暇盡言。

送友人赴燕京序

宗廟朝廷禮樂之颯颯郁郁之盛。市廛闐闐貨穰之繁。都居壘堡煙臺斥侯之壯。山川原隰田野之紆直。長城大漠之逶迤閼廓。不勞探討。而在行鞭指顧之間。則雖使傭隸廝役當之。亦足以盪胸曠懷。出平素十倍。況吾子之聰明英妙專對之才出等而絕夷者哉。以吾子之聰明英妙專對之才出等而絕夷者。歷閼廓而涉紆直。閱其壯且繁。而收取其颯颯郁郁之盛者。則豈特其聰明英妙專對之才出等絕夷而止哉。季子之所以博雅。子長之所以奇壯。其不在於此舉。而抑屈專對而爲副者。特以職有秩耳。若其應對以詩書。則不當以職之甲乙而後其先明矣。於其使乎之稱。烏擇其真副也哉。雖然。此其不勉而中者。非吾所以勉子也。唯其慎眠食戒虜梗。寔今日親愛之望。而僕方抱鵠原之慟。不遑哦詩出岐。終不以默默者。重其索而不敢虛也。是爲序。

送謝恩使詩序 李弘胄

擁湛盧，巨闕之銳者。捨犀象之革而遇朽株。則無以售其利。誇驪裊騏驥之捷者。背聊浪之野而涉闐闐。則無以逞其才。今公抱王霸經綸之志。縮爪斂手。殆數十餘年。其所曆試于中外者。特朽株與闐闐。而今之銜命陳奏也。有應對周旋事機之難。兇胡之獫狁於遼又不時。則非特行者憂之。竝與其送之者之憂。在所不已。而某獨送之而不爲公憂。非唯某之送之而不爲公憂。公亦怡然。不以其行而爲憂者。非以應對周旋爲易。又不以兇胡獫狁爲不足憂也。蓋隨事機遇不虞。莫不有是義。則茲

陳奏之舉。亦一朽株闡闡之易易矣。豈足以遂其利盡其才者歟。若使遇其時。展王霸經綸之策。果如割犀象越聊浪。然後方可遂其利盡其才。而知湛盧。騏驥之爲利且才也。此公之所以不憂於行。而某亦不以公爲憂者歟。

贈別回答副使朴公序

專對奉使之難。莫甚於外國。而外國之險絕不測。亦莫甚於日本。自前代奉使日本者。殆不可勝數。迄于今。見稱于日本。著聲于對馬。在麗朝。唯圃隱先生。在我朝。唯參贊權公。而今副使朴公。非唯圃隱之裔。實乃參贊之後也。其介立刻厲。不撓於外暴者。素所蓄積。則一朝銜命專對。獨不如參贊。而進退中節。獨後於圃隱歟。能趾美前烈。而揚乃祖之風。踵其二而爲三者。其不在於今日歟。噫。兩朝三价。皆出一家。而班班先後。祖孫相望。則風聲之遠流。氣脈之相傳。豈唯水長而火久哉。噫。勉乎哉。踵二祖以爲三。竝三節於一家。其不在於今日歟。其不在於今日歟。

送回答副使姜公序 弘重

吾友姜君任甫。以回答副使。赴日本。其親舊皆危之。不惟親舊危之。姜君之色。亦不敷腴者。以日本在東洋渺茫之中也。余獨不以其行爲危。喜且慰曰。日本爲國。雖在東洋渺茫之中。候長風而建大颿。日踔千里。則不旬日而已登夫所屆矣。竣事西還。只在數月之間。而猶以爲危。則今吾人之所共遊而忘返者。獨非無窮之大海乎。其爲海也不甚汨也。涉之似無難也。劇風有時而作。則驚濤駭浪。已連山而泊天矣。雖以舟人漁子之善於水者。亦未免乎失色。矧行商過賈之足說哉。猶尙携拖理

楫。不知所泊。浮浮沉沉於百年之內。則其與子之安行利涉於東洋渺茫之中。不數月而旋返者。不亦懸遠乎哉。終已不離夫濤波洶涌之中。猶以東洋一帶海。往返於數月之間爲危者。惡知其安危夷險之分耶。此吾之不以爲危而喜且慰者。吾子其行矣。

溪友冊序

歲在辛丑之六月初二。會飲于白雲亭。赴德晦招也。酒將盡。吾執卮于子溫席。遂以語子溫曰。世益末交。道益不古。蜜口而笑刀。反眼而下石者皆是也。然非逐逐爭名利于宦海。則不至若是其甚。唯面輸背笑。滄滄訾訾而止耳。至若山林表薄之際。雲石溪潭之間。則固淨散閑曠。所與狎者。禽魚蟲獸而已。所與近者。草木花竹而已。故靈臺惘然。隨境日廣。體又隨廣而胖焉。機巧之迹。自然消去。古之狎鷗馴鹿者是耳。敬姜所謂處瘠土。善心生者。豈欺我哉。今我與子俱枕一溪而住。所相狎者。非禽魚蟲獸耶。所相近者。非草木花竹耶。彼名也利也爵祿之紛紛者。非枕槐可相接。則吾與子之靈臺。非隨境而廣者耶。若然則吾與子何爭焉。爭名耶。爭利耶。抑所爭者。非席與隈耶。如是而于于相往。頎頎相來。以至終吾生而倘佯。則斯交之道不期古而古矣。朱陳黃綺不足稱也。且疾病患難之相救。婚喪水火之相濟。固其不謀中一事。而亦不可不相勉勵。若以一月而再相會。杯罍以娛。或春秋大設一場。以之投壺觀射。如三代鄉飲酒之禮。或聚米給民而長其子。以拯活死亡無告。亦君子勞心之一義也。況道同則百世相感。志合則千里命駕。而吾子及諸賢。沿溪水五里十里而居。或騎牛策驢。或携杖步履。以相脩禊若蘭亭古事。仍名之以溪友。其於義。可乎否乎。子溫於是擲杯。握手而前。呿口歎曰。吾於吾子之言。無間然矣。左右齊應曰。唯唯。遂成禊冊。是爲序。

白玉峯家藏小屏金司圖山水圖序

金司圖之聖於畫。不啻若由，夷之聖於清。管，晏之聖於霸。孫，吳之聖於兵。秋與蒙之聖於奕射而已。惟彼延壽之於人物。虎頭之於山水。聶之於龍。幹之於馬。坡之於竹。成之於雨也。咸莫非工於一偏。而唯司圖之畫。兼而無不工。備而集大成。其筆力所及人物也。山水也。馬牛禽魚蠢動之類。草木花卉植物之族。盈溢於中國。遍滿於夷裔。家珍人寶於天下者不可勝數。其一點一畫。無不曲極其妙。而乃於白玉峯之小屏。尤費其精神。巧合於天機。其縑不滿一尺。而人煙山水舟楫之像。颯爽飛動。分寸殊致。而毫末千里。則司圖之平生用力。盡於是矣。其以玉峯爲儕友而致其誠者。則當世之與司圖交如玉峯者不少。豈獨極其精力。豈至於此乎。蓋其意以爲詩與書與畫。均是枝而異其致者也。司圖之聖。聖於畫而已。玉峯之聖。聖於詩與書。則三分其枝而有其二者。玉峯也。豈以吾之有一。而加諸彼之有二哉。必須盡其工。極其妙。然後方與彼之二者。合而爲三絕矣。於是焉致其誠而篤之者歟。若爾則玉峯之屏。有其畫而無詩與書。不令竝其枝而齊其名者。抑何意歟。蓋堯之讓天下於許由者。屈其己而著許由之高也。夫子之問禮於老子者。謙其聖而彰老子之德也。然則玉峯之不以詩與書於畫者。屈己道而著其高歟。謙己聖而彰其德歟。然則微司圖之畫之聖。則不知玉峯之詩與書之聖也。微玉峯之不詩與書之爲聖。則不知司圖之畫至於斯之聖也。雖然。知司圖之畫之聖與玉峯之詩與書之聖。而言其妙者。亦必與司圖玉峯之聖等。然後方可謂知言之聖。而不知言而言不止。則其不爲知言之聖。而終於妄言之歸。明矣。烏能知夫畫與詩與書之聖不聖如何歟。

沙溪精舍詩冊序

溪以沙爲名。而舍以溪爲號。溪非得沙而精者。舍非借溪而勝也。乃祖所構者舍也。所扁於舍者。名賢數詩而已。君乃以至誠索一時之名詩。以敵其舍名也。於是乎溪若增其清。舍若增其勝。信乎肯堂之工。不及述志之孝遠矣。既以其所敵者。名于東冠于南也如此。又必欲得吾說而益名。抑恐疇昔之名于東冠于南者。得吾說而磨滅矣。雖然。或有以至巧而磨滅。至拙以名世。則庸詎知得吾說而益名。以傳於不朽歟。

北窓, 古玉詩序。

世之論北窓者。率舉其奇蹤異跡曰。如是如是。豈神仙中人歟。論古玉者。率舉其高風遐致曰。如是如是。豈道家者流歟。由是言之。仙與道流。僅伯仲間耳。余應之曰。伯與仲俱仙也。非一仙而一流。則雖伯仲。而非伯仲也。論之者曰。何據而知之乎。曰。以其詩而知之耳。伯詩淡雅。若無蹈襲而調格自高。仲詩清和。若無礙滯而聲律自高。蓋俱入盛唐。同音而異致者也。何則。清故淡。和故雅。調格者。詩之體也。聲律者。詩之用也。體用俱高。則無間然矣。豈以調律之有異。而疑其仙與流之有差乎。余少時。得拜古玉於友生家。已老矣。雖游於酒人。翩翩好譚浪。托詩酒以自晦者。一見已薰其仙風矣。今其表孫綦知縣亨後。搜輯兩家詩若干篇。方鋟梓。欲壽其傳。其姓姪鄭斯文斗卿。吃吃索余語不已。余曰。伯、仲兩先生之詩傳於世者止於是。此特文豹之一班耳。以如是之風標。雖混於一世。俱非有意於述作者。豈以是規測其所工也。雖然。欲知兩先生之風標者。就斯詩而究之。則其亦庶乎有得矣。然則詩雖小。不其多矣乎。鄭斯文然之。於是乎云。

晚省齋序

子曾子。聖門之魯者也。而日所省至三而後得卒傳道樹業無窮。矧後於此。而非聖門之徒而魯於曾百倍者乎。吾宗姪倬。無師友之助。而魯且怠。殆四十餘年。懼無以振而有得矣。去年秋。構一齋。請額於余曰。某之築此。厥有志哉。余卽以晚省號之。踵而勉之曰。今倬之齒。少伯玉知非之年且五歲。則吾所謂晚者。庸知非太早。而今吾之以省而勉之者。又庸知非師友之助歟。噫。倬乎省乎哉。苟能省而又省。人一而已百之。人三而已累百之。日而月。月而年。年而至於老死。則畢竟得乎己者何如。而獨不能傳道樹業無窮歟。噫。倬乎省乎哉。曾何人也。予何人也。遂以省之一字。警省之。而終以自省焉。

畸窩序

畸額窩者。以吾子之道之窮。人不容而窩容之也。然則窩未嘗變乎常。而子之道不常。以今日之窮而畸者。變而達施。達施而人又國康。則窩之變其額必不常。於是焉不曰畸而曰顯。可也。曰達曰濟曰平治。亦可。烏其額之有常。而又必其曰顯曰濟曰平治而可也哉。雖然。畸者。奇也。非唯窩之枅桷之離奇。以其巖洞煙霞水石之奇。足以及之。則子之道雖變乎畸。而窩未嘗變其畸。及不曰顯不曰濟不曰平治。而終始守一畸。亦可。唯其額之變不變。在吾子自擇之耳。

星巖精舍序

有知臺之高者。有知人之高者。知臺之高者。非謂地勢之高也。知人之高者。非謂世代之高耳。世之稱是邑者。必皆曰龜臺龜臺。臺之聞於世

蓋久。余嘗聞而序之矣。自得茲郡。竊自以賞是臺爲幸。旣數日。往拜閣下於龜臺。臺之勝果然。而猶未稱夫閣下之高也。益信世之知臺而不知人也。後數日。又拜閣下於星巖。然後始知龜臺之外。又有加一層。而世之知龜臺。不知星巖者。亦如今之知臺而不知人也。人固難知。知臺。亦未易也如是夫。何則。穹林遽谷。人跡不及。而遺其勝槩者。非靈異也。近邑郭當村蹊。車輿步騎。朝過而夕視。自檀君迄于今。幾千萬年。未聞有一人之得。而閣下一過而便得之。天其或者潛藏默祕於幾千萬年。俟閣下之出而發之者歟。此所以迷璞於礫。失珠於沙也。聖人之於人。非有異也。得其位。行其道。然後方知其爲聖人。則近邑郭當村蹊。人日過而不知。視之爲尋常者。庸知其大異於常。而遇與不遇之有數歟。以巖名舍者。以其舍之峙于巖也。以星稱巖者。以其巖之有七星也。背山面水而檻半於池。池從石溝而溝源於石竇。旱之而不竭。水之而不積。其亦異哉。若其白沙之平鋪。翠巖之錯列。長橋高樹之幻景於遠邇。比如構精舍而丹牖枅栴之美。花卉松石之奇。無不具焉。則朝暮陰晴之候。四序炎涼之態。非所盡言。而抑不可以言語文字。形容其萬一。則茲足以比龜臺加一層。稱閣下之高。而如某者。亦可謂知臺。而不可謂不知人也夫。是爲記。

伴鷗亭序

鷗善閱人。其所閱人之閱鷗。如鷗之閱人。閱其外則人。而閱其心之無機。與鷗無別。然後鷗始狎焉。列氏之稱漢陰是耳。今吾子額其亭曰伴鷗。則子之無機之心。於是乎著矣。不以世之榮辱爲心。處江湖。游其亭。日與狎者。鷗而已。鷗之日與徒者子而已。則子非鷗之徒。而鷗非子之伴耶。方其相狎而相忘也。子之視鷗也。非鷗也。乃人也。鷗之視子也。非子也。乃鷗也。昔莊周之夢爲蝶也。覺而不知周之夢與蝶之夢。今

子之伴鷗也。抑不知鷗爲子耶。子爲鷗耶。鷗之伴子耶。子之伴鷗耶。古所謂入鷗不亂者。其子之謂歟。雖然。吾子無機之心。或有時而變。則鷗之日來者遂日去而不來。子雖欲伴鷗。而鷗不爲子伴矣。然則非唯鷗絕子而已。吾於是亦絕子之交矣。吾子其無悔。

肯構堂序

入其堂。見其額。足以知其所志矣。或以其所目。或以其所耳。或以其所寓於懷者。故其爲額也不一。今是堂之爲額也。非所目也。非所耳也。唯其所寓於懷者。繼先志而述先事也。蓋相方視地而創是堂者。公之先公也。坐是堂。望是景。爲溪山風月之王者。亦公之先公。而先公旣已沒矣。邑剝於亂。而堂夷於兵火矣。使是堂爲蓬蒿荆棘之墟者凡幾年。而公之慕先公也久而彌篤。又構是堂於堂之墟。其枅桷棟宇之高低。窓櫺庭砌之闊狹。猶夫前也。公之坐是堂也。左眄右矚。則山嵐峯翠煙霞雲霧之色。四時寒暄陰晴風月之候。皆先公之所常目而寓興者。非特人之見公於是堂者。如視先公焉耳。公之處是堂。觸是景。而慕先公愈久不衰者。爲如何哉。父作子述。而肯構肯堂者。公之謂矣。斯其所以額是堂。而使知公之構堂之意者觀之。則雖不見是額。而已知其名之爲肯構矣。有其實而名從者。其謂是歟。其謂是歟。

記

蜃樓記

龍興元年夏四月甲子。廣利王御于南海之法宮。陽侯，河伯，海若，馬

銜之國。參軍臣鼂，主簿臣鼃。曰鯨曰鯢曰鱣曰鮪，魴，鯉，鮓，鰻之屬。莫不奔走而來王。王既受群臣朝。顧謂左右曰。予之有海宇若是其大也。而所處卑隘。無可以望氛而出治者。疇若予采。而構是樓哉。於是四瀆咸薦曰。有蜃在下。厥惟工哉。王曰。俞。咨汝蜃。惟汝諧。蜃乃拜手稽首。唯唯而出。俄而。工告訖功。虹其梁也。暈其臺也。排虛者。彤柱也。點波者。粉礎也。飛空者。榮也。出雲者。霤也。如霞者。樽櫨也。如霧者。椳楔也。畫於壁者。丹青金碧之葳蕤也。列於庭者。珊瑚玉樹之青蔥也。珠簾以捲之者。西山之雨候透也。玉欄以凭之者。東峯之月華近也。飛纖垂髻者。長姬之要冶也。輦金檐珠者。大賈之售貨也。馬騎者。牛牽者。男而負者。女而戴者。行者息者。度橋者倚門者。歌舞者笑語者。喜者怒者。有若呶呶者。有若嘿嘿者。有若聚而散者。有若往而復者。如畫非畫。如真非真者。殆千萬狀。一日之內。不可類識。王乃望而訝之。登而異之曰。土階則過賁。瓊宮則過麗。而侈儉莫不自由。靈臺則不日。阿房則逾年。而遲速咸歸役民。孰若吾蜃不土不木。不動衆役民。而呼吸轉眄之間。倏成空中之樓。若是其輪奐也哉。蕭何之治未央。子建之起銅雀。未足爲今日道。則盍爲文以記吾之德與蜃之功哉。於是水部郎中臣琴高。謹拜跪以記。

山雨亭記

雨以名亭則古也。雨非山有。曷以山爲。夫雨之爲物也。陰陽之氣升降而潤之者也。或驟或暴。爲澍爲霖者。龍行之也。蓋友風母雲泛空而下。則山非有干於雨者明矣。然公之構茲亭也。非唯眺望風景而已。前臨大野。所常勉者農功。則農之所望者雨也。雨之所由者雲。而雲從山出。則茲雨之祈祈。非山而何。屈子所謂山峻高而多雨。非今之山雨耶。於是湖風滿樓。暮簾方捲。春畦夏畝。我稼如雲。而與客細酌。簷花夜落。

則亭之得名。烏可已哉。然則古之所喜者。爲州刺使而爲民喜也。名近而意露。今之名亭。不以喜而以山者。言遠而意包。惟其志喜則一也。如使坡老。登茲亭。覽茲景聽。茲雨於茲山。則不曰喜而曰山。如今日無疑矣。茲其所以名亭者歟。是爲記。

楓亭記

亭之勝以楓。而潤之爽以石也。其源發於山腹。勢遠而流淺。不土而石。石皆色蒼。或竄或缺。或湛滑。或參差。低昂紆曲者五六里。至于亭而益奇。若劍若齒。若刀削。若斧劓。龍嵒嵒峨。逐石狀而成瀑。瀑高半丈。瀉石觜而益激。琤琮灑灑。而停爲小潭。潭底皆石而無一沙。廣可六尺。長可十尺。深可半尺。據亭而唾。水清若空。從潭作岸者。左右皆巖。而有突高者。有低平者。竦者俯者。欹側而不頗者。可坐可踞。可枕可倚。而無一不可者。從潭而下落。爲瀑者有四。從潭東陟。有兩小池。俱不滿一畝。地高而水深。菡萏在焉。池之外。卽村也。從地復潭。短松疏竹。列而成陰。潭之滑。有石井。井有小矮松覆之。傍潭而散影者。小烏竹三數條。瘦而不脩。從潭而上。着潤面而立者。小楓一樹。不滿一尺而葉甚丹。又其上。有小楓亦如之。又有躑躅一叢在瀑下。從潭而西。乃其臺而臺之衍敞。可坐數十人。楓枝蚴蟉。張傘偃蓋。葉密不見天日。臺有春柏二樹。臘梅二樹。碧梧一樹。臺傍有三級石砌。砌在曲牆之外。牆之內。卽其堂也。當砌而秀者。冬春柏四五樹。木蓮二樹。梅一樹。枝青四季。石榴各一樹。牡丹又一樹。枸杞數叢。桃一樹。竹十餘樹。皆烏疏植而希挺。從砌而東。有菊一叢。菊後卽梧。梧後有梧。梧凡兩樹。皆碧色。梧傍有大楓兩樹。相樛蓊蔚。亞亭楓而青紅。楓下卽壑。而壑有長松高可百尺。此乃亭之槩也。實玉峯之所卜。而其子善鳴述志而肯堂。主其堂者。善鳴之壻李上舍復吉也。遊而記者。太守趙也。其年月日。癸丑季秋初

六夕也。是爲記。

雙松堂記

泉就窪爲池。池四旁及底。皆石而如鑿焉。松兩株蓋池。所托根者皆石。而石各人立焉。池之勝以石。而石之奇以松也。松之於此池。可謂異矣。公之構堂者。以斯池也。堂揭而難其額。強名之曰友蓮。以其池之蓮可相友也。額雖成。猶有未愜。忽一日。池之神夢公曰。子難子之堂之額耶。盍額之以雙松哉。因忽不見。省之則夢也。卽以神之所額者額之。請余爲記。余受其夢而解之曰。蓮雖可愛而有榮悴。況非自出而由人種之歟。斯之有此雙松。非人力所及。而又況以松之貞之至。得石之堅之至。以爲樹立者耶。以余究之。雙松之衛斯堂。非持公之志操。而他日。公之兩子學成而得所樹立。如斯松之立斯石。持節擁蓋。達不變操。如斯松之得斯石者。其不負神之齎矣。神之夢公而額之。其以此哉。其以此哉。是爲記。

用拙堂記

夫能焉之謂工。不能焉之謂拙。能者用而不能者屏。則拙固工之奴也。雖然。工者常勞。拙者常逸。勞之道。似小人。逸之道。似君子。小人之服役於君子。固也。庸詎知工爲拙之奴。而拙爲工之君也哉。何則。莫工且勞者。匠石陶冶。而服役於宰相。莫工且勞者。萬物之生生。而聽命於造化。然則心勞而身逸者。宰相也。用勞而體逸者。造化也。又庸知至拙之爲大工。至勞之謂大逸也哉。然則公之所謂拙者。不其大工。而旣已養之於先公。然後方且用之於我。公是知巖之有舍人有檢詳者。豈非以堂之拙。爲宰相之逸。而或天先定其號。以顯其跡歟。雖然。出而爲

宰相。不能退處於堂。則是徒用其拙。而不能處拙也。其所謂用。特用之於世。而不用之於江湖也。其魚鳥花卉風月之樂。亦不得以供拙也。其所謂拙而逸者。乃大工而勞於心也明矣。用拙名堂之義。抑未知工耶拙耶。然則夫孰知至拙之爲至工。至工之爲至拙也。夫如是則雖謂之用拙。亦可。雖謂之用工。亦可。吾於工拙乎。何辦焉。是爲記。

重修竹樹書院記 綾城靜庵先生書院

我東之偏且荒久。得箕子人始人。而箕子之沒二千有餘年矣。遺化幾盡索矣。斯文幾盡熄矣。天乃瞿然眷顧。遂生先生以振作之。先生生而殉道自任。方中廟勵治之日。以朝夕啓沃。堯舜我君民爲己責。而奸孽傍伺。構織罔極。駭機一發。禍網滔天。竟竄于茲土。不數月而賜死。嗚呼。先生之被禍。其先生之不幸歟。其一國一世之不幸歟。非先生之不幸。乃一國一世之不幸。非一國一世之不幸。乃我東千萬世無窮之不幸也。始天之生先生。如有意於我東。而竟天之禍先生。亦有意於我東。生之者何意。而禍之者何意歟。蒼蒼乎昧昧乎。而不可問而知者。非天歟。苟天之佑我東。展之以其才。享之以其年。則所漸者益深。所化者益遠矣。其爲治化雖不逮於唐虞。必不止於今日無疑。而非唯不克施。竟使不得年。非唯不得年。竟使不得其死。則環我東數千里。慕而悲者何限。而竟謫于茲土。竟沒于茲土。則茲土之悲且慕。又不啻一國之悲慕。既悲且慕。而築斯院以享之。則斯院之築。非他州郡築院之可方。非鄉先生歿而可祭者比。直與文宣之祀。亘萬世而同血矣。自仁廟克述先志。逮宣廟而痛滌其冤。斯院之創。已有年紀。而自火于丁酉之亂。廂廡齋廬。權創卑略。無以肅祀妥靈者十五餘年。任其蕪沒而不振。暨我侯尹公燧臨民之初。慨然以右文爲事。思克重敝而未有遂。余兄南平縣監趙公維韓。面尹侯曰。先生之院若是其陋側。非吾與君之差乎。君爲倅而我爲

隣。尙未克顯侈者。人謂公何。人謂我何哉。卽與通文道內。構工繕修。而南平實幹之。於是旁州列邑。無不向風委財。以董其役。而余之得靈邑也後。不及豫於執事之列。惟彼凡人下士。尙且悲慕先生。況吾兄弟。乃先生之姓孫。而向學悲慕之誠。又出尋常萬萬者乎。以主倅之勤。得南平幹而能助也。不日而功訖。蓋其背山面水而紆餘敞赫者。先生之盛德遺澤。瞻前而在後也。榮桷杆楣不侈不隘。丹雘剛刻合規依度者。先生之威容動靜。無不中禮也。尊彝壘勺。籩荊筥簋。各得其品者。先生之遺教循序也。濟濟多士。循除鞠躬。居常講習。祀卽虔惕者。先生之餘化感發也。茲足以薰先生之德而沐先生之澤歟。遵先生之教而襲先生之化歟。雖然。先生之靈。如水在地。無往而不屆。則其感而興起者。豈獨茲院之士而已。豈獨茲土之民而已乎。靈巖郡守趙某記。萬曆四十一年八月日。

伊山書院興廢記 退溪先生書院

伊山院長金止善。屬余作記曰。不記院之興廢之迹。顧無以揭今而詔後。盍爲籍以貢之哉。余謹應之曰。我東之爲名賢設院蓋久。自圃隱以後。以心學事功而設者不可盡數。若其首出於諸儒。大成於群賢。則二百年來唯先生一人而已。先生之院。宜甲於我東。而世之尊先生之道學。仰先生之光輝者。舉皆以陶山爲宗。却不知伊山之趣。勝陶山一倍。夫所謂勝者。非謂湖山泉石之趣勝也。陶山之設。在先生旣沒之後。其遺澤不遠。伊山之創。自先生始。而旣躬自訓迪。倡率。提撕。磨礱。浸灌。薰染作成者十有五年。而後終奉先生而饗之。其餘膏遺馥濡漬也蓋久。其與陶山竝視。不啻若伯仲之差而已。以余之魯鹵顛蒙。其何以蹟迹而顯實哉。遂辭謝不獲。謹敘其興廢終始而爲之言曰。郡舊無院。以先生之意。郡守安公瑞始構焉。自嶺以下。莫不風唱而雲涌。日以講廟

相長。先生記其事定其規。又名其堂。齋門諸額。皆自書以與之。其導率誘掖之誠。至矣盡矣。先生既沒。郡守許公忠吉與院長前參判金公功。始立祠宇而享之。自是諸生益自感發。相聚肄業。而由其相非其址。處非得地也。卑湫洿下。濕射水齧。椳橈杓圯。漫潰頽塌。歲修月葺。費鉅而功尠。迨不可以求妥也。於是搢紳父老。率邑子而相勉。遂以移築之意。書告于方伯。乃於甲寅之秋。移卜于東距十五里地。斯固陰陽之奧區。高燥之爽塏也。龍翔虎踞。形互勢盤。水之環繞也如帶。山之控列也如袖。前俯若當案。後背若負嶠。其根脈宗於鳳凰。支於白月。蓄精孕靈。開闢斯丘。天陶地甄而鬼祕之。于以陰齋我儒而不慳。俾鞏斯院而新之。足以見斯文之不喪而吾道之南矣。所以舉境齊力。不日而廟齋成也。遂卜日移安。而道內列邑之儒望風委集。儼冠服而擁後者數百餘人。暨邑中父老子弟。無論老少貴賤。咸萃畢會。有若前參判金公功。有若前府尹吳公濬。皆以大耄宿德。首班而植。其他朝列士林之林立者。又不知其幾何。余亦以忝廁於謁廟之列。親望穆如之遺風。嗚呼其盛哉。翌年春。明倫堂又成。堂成而工告訖功。蓋院之興廢而斯文之隆替係之。則彬彬作興之美。其不在於今日歟。然則舊院之起。在嘉靖戊午之秋。先生倡而太守安創之也。舊祠之建。在萬曆祭酉之冬。多士慕而太守許成之也。萬曆甲戌。特賜扁額。額以伊山者。以其里卽山伊故。因里名而別之也。丁丑秋。賜書。冬又賜書。己卯庚辰。連賜書。書凡十七帙也。萬曆乙卯春。始築新院。院長前牧使成安義獨當。構役畢。修其齋廟。以其年九月日。始移奉安。嘗與二三長老。議諸院中曰。院雖改而道猶舊。里雖殊而山有伊。仍舊名而新之。義無不可。齊應曰唯。遂以舊額仍之。會成公有故。以衆望。差前都事朴善長爲院長。將造明倫。役未畢而免。又以衆望。差前都事金。乃參判公之子。於余爲同年壯元。是畢造明倫。而勸余作記者也。父子俱爲院長。斯已難矣。或先建祠宇於舊院。或後畢講堂於新院。公家之於斯院。亦云勤矣。自戊午迄于今。五十有

餘年。志學慕道之士。不爲不多。而遷延姑息。未嘗光宅。幸賴數子之力。乃克有成焉。一興一廢。庸非數歟。若其齋寮之潔肅。堂甲之閑廓。固塵世間所稀有。難品題其一二。至如饗祀之儀。籩飴簋簠之品。則朝家之秩禮彰然。約條之詳。溫講洒掃之節。則先生之訓戒在焉。吾何敢妄諭揣稱。以煩後來者之聽乎。萬曆丙辰四月日。郡守趙某。謹記。

房氏書貼遺失記

南中多名州。名州多世家。世家多經籍。南原爲名州最。而房氏特爲世家之尤。故奇書異籍。流播於人者。多從房氏出。余之逐於倭而落南也。從房氏得一貼。貼非古本。又非刊而出者。乃倪天使謙自書詩三十餘篇。張天使寰自書文與詩五十餘篇。國朝盧蘇齋自書詩與簡百餘篇。白玉峯所書蘇齋詩又百餘篇。集三詩四筆總二百八十餘篇爲一卷。倪之詩務雄渾。長篇古詩。如長江大河。近體絕句。如洪鍾鉦鼓。筆務草聖。而瀏瀏如蛇蛇結蟠。張之文與詩。務精白清嫩。長詩短律。如逸鳳孤鸞。而筆勢婀娜。如珊瑚碧樹之交柯。廬²詩健倔。語奇而字重。筆畫如鐵鉤。白書典雅。動逼鍾、王。茲三詩四筆。實天下之至希。而集爲一貼於南州之一巷。藏而爲寶於一人之家者。何也。蓋房之先。有與倪、張兩价善之於僨接之間者。既書以贈之矣。又有沙溪公與盧、白相友也。果得其詩與筆而合焉。於此。益信房氏之先聞於華。名於東。而蹟房氏者。咸於是貼焉求之。余欲廣其聞益其名。笈是貼而歸羅州。丁酉之亂。載之舟而避焉。竟與賊遇。盡室俱陷。而獨以赤身走免。房氏之貼。於是乎淪滅矣。是何至寶之難得而易失也。余既悲盡室之淪。而益悲四貼之沒者。只爲房氏之架自此而無顏矣。俄又悔其悲而解之曰。倪、張之詩與

2 廬：盧

筆。既已耀於華矣。盧，白之詩與筆。又已著於我東矣。天其或者縱丹人而取去。使之遍傳於日本之東。炫燁分布於扶桑折木之間歟。不然則泛浮於驚波駭濤之中。掛罥於巖壑島嶼之側。而流入於龍王河伯之國。使之驚傳於幽冥恍惚之際歟。不然則颶風之所簸盪。雷電之所取將。或墜於蓬壺³三島之遠。或昇於閭闔九天之高。俾四人者之詩與筆。曠播於清都汗漫之外。而益彰房氏之爲之耶歟。然則向所謂淪滅者庸知其益昭。而其與欲傳於吾東之一隅如光，羅數州之間者。不亦懸遠乎哉。然則其失也非失。而乃大得也。何則。若使房氏之後。祕藏而不之發。終不欲使人知其爲至寶則已矣。如欲曠播遠布而壽其傳於無窮。則曷若失於此而得於彼。以傳於天地幽明高且深之不測。使造物者。知有重寶於房氏。而因趙某而得之耶。於是記其得失之終始。一以解吾惑。而重以慰房氏之憾焉。

月沙相國詩板後記

余之出淮也。月沙李相國抵書言曰。淮有拙詩。又有諸公和章。爲我和示而扁其壁。則當忝帖卷云。入淮翌日。卽取考相國詩與跋。則云云。又悉視所謂和章。則云云。於是詰其顛末于邑人則果然。吁其異哉。昔。唐御史王仁裕入興元斗山館。以片板題詩而去。後三年。入蜀大面山巖眞館。則斗山所題詩板在焉。王怪甚問遠邇。則二千餘里。以其斗山之洞。西通于青城大面山巖眞館之一井也。詩板之出於井。掛諸壁卒與王氏遇。可謂奇且怪矣。然其洞穴之夷險脩直。有難測知。隨其水力之所及而通焉。則雖遠而或可致矣。方天之水准也。大風雨而雷電之。變化晦冥。凡三日夜。漂山汨陵。澤其邑而魚其人。衝蓮松抉。飛愁驚法。水突

3 壺：壺

黃柄。蹴楊跋狼。而噴薄乎昭陽之口。盪斗渚劈月峽。騰蹕奮迅乎龍津廣陵之腰。軼三江而迫海門以臻夫棋島之草澤首尾上下摠一千二百餘里矣。噫。公之詩板。不屑沒於鼃鼃鱣鮪蛟龍之窟。不掛罥於巖磬島嶼木末石齒之間。汎汎淪淪於高江急湍之下。而終不奔放於歸虛折木無窮之海。必近相國之所駐節而落焉。媒太僕而歸相國。竟返之于淮之新館而掛焉。地之相距也雖略有遠近之差。三年之內。隱見得失之跡。視王板治同而尤奇。然則知茲詩之爲至寶。忽奪之而去。知至寶之爲終不可泯而還與之者。其誰歟。其果陽侯，龍伯，水怪之所爲歟。抑非陽侯，龍伯，水怪之所能擅。而天故使陽侯，龍伯，水怪而爲之歟。其未可知也。雖然。一奪一與而愈著相國之跡。一失一得而益彰淮州之名。則當日之水。非特寵相國也。乃所以寵淮邑也。非災也明矣。記之而不足。申以序而係之詩。是曷足以扁諸壁而系卷末也哉。

蜂衛記

蟲而飛者百族。而蜂之類寔繁焉。不可殫記。而惟業蜜者。狎人可養。余乃植簞于庭。日目其所爲。其始入也。有如君人者。有如臣僚者。有如士卒者。又有如守閭伺出入者。又有如出戶謹候望者。於是日出。則君發號臣施令。而董士卒作役焉。其作役也。出先者。入先而不敢後。出後者。入後而不敢先。一出一入。相繼不絕。凡其花蕊也。香臭也。濡液也。氤氲也。無不銜拾。而期合次至。若相符契。或有後時乖限而不用命者。則卽肆戶外而戮之。日方亭午。則群出百千。若衙若市。遂喧聒一場而罷。罷又次茅⁴而入。入而卽靜。靜又出役如初焉。日入則役停而不出。各營其窠。吹噓鼓翼。群動薨薨。以昏徹朝。朝又如前。日復一日。迄春

4 茅：第

徂夏。而無不如初。以致窠役幾畢。蜜功幾成。而忽一夕有一蜂。不知何自而來者。其大如栗而色赤黃。其聲如雷而嘴劍利。繞簾百匝而飛。嗅蜜香入門者三。而遂爲守閫者所擠不得入。此時。已有以其急告者。果有十餘徒。出門逆戰。鑒拒頡頏而死之。又有數十徒。力戰頡頏而死之。又有五六十徒逆戰。而大蜂北而遁。於是君臣也。父子也。士卒之衆也。莫不安堵如舊。而朝昏衙市不變焉。噫。恤衆御下。力業成功非仁歟。令行禁止。次茅⁵出入。非禮歟。朝昏衙市。不失其時。一往一來。各以其期。非信歟。作窠以爲室。化蜜以爲糧。以之御寒卒歲。非智歟。恪守封疆。敵至而死戰。不以賊而遺君父。非義歟。人之有是五者。尙能霸一世而王天下。以享其令名於千億。況蟲而飛天。麼而蠢蠢者乎。人之有良性秉彝者。尙不能修五者之一。而蜂之么麼蠢蠢者。乃能有其五耶。世之衣食於其君。而賊至不能死。乃反臣於賊而賣其君者。抑何人哉。可⁶以人而不如蜂乎。余目其事而異之。遂記之。

鬼崙核記

鬼崙之外。有山焉。其高等也。其廣齊也。其延袤⁷不異也。人之望之者如崑崙焉。以爲山也。近而視之。則非山也。乃核也。怪而問諸一人。曰。此乃吾師食實之餘。而實乃滄海之蟠桃八千歲而一熟者也。吾師嘗歲取其一而食之。旣食而遺其核一二三四。而積至此。茲乃爲山之槩。而吾師之所以後天不老者也。世之不能百歲。耄耄以爲期者。朝菌乎。醯鷄乎。其視此山之高。何如也。雖然。世固不足哀。核固不足榮也。何則。自其無窮無盡者而言之。則朝菌耳。醯鷄耳。亦已久矣。核固不足多明

5 茅：第

6 可：何

7 袤：袤

矣。所以記之者。非樂誕而希久於核者。聊欲斥其妄而飭世之求長年者。是爲記。

崑崙核記

廣成子遊于西極之野。望見一山焉。隆高崕峯。與崑崙齊其高。迤邐博敞。與崑崙比其大。無峯巒巖洞之峭。無松櫟林莽之茂。不土而積。不石而堅。若木翳其左。橙林聳其右。信乎其瑰且異矣。將欲登陟而望之。途未半而忽遇三人焉。就而問焉。則其一曰。吾乃友盤古而遠遊焉。猶未嘗屈于是矣。其一曰。吾乃視滄海之億變。而猶未嘗造乎是矣。又其一者乃曰。此乃吾師之所會之核而積而至于此者也。桃之名曰洪。又其名曰蟠。乃在滄海之陽。三千歲而一花之。又三千而子之。又三千而熟之。每一熟於萬年之內。而吾師歲食其一。以其核而擲之。此核之積而比其大於崑崙者也。言訖。就而視之。則果然。於是廣成子拜乎三人者之後曰。吾以久稱於世。乃今見此核之如崑崙。然後始知彭殤之不等。而朝菌大楓之相懸也。小年之不及大年。吾其與三老之謂乎。三人者忽不見。遂異而記之。

遊劍湖記

咸寧倅以忤上使下考。余之治兼咸也。承關文馳察。仍邀咸宰于劍湖。登舟而遊。慰且餞之。時淫潦既霽。湖水盛積。泓澄漫泮。浩若無涯渚。卽以輕漿⁸短棹。任其所如。舉酒相屬之際。忽聞荷香。溢越于席上。顧眄左右。則翠蓋林立。天葩峯茁。舟行其上。碾然有聲。而千竿萬葉。偃

8 漿：槳

而還直。磨紅戛碧。香泛爲風。夷猶之際。笛聲漸高。夕陽已收。山月正圓。恍若乘槎銀漢。遇太乙於蓮葉之上。殷勤離別之懷。到此而益惘矣。慌乎忽乎。其不可久留也。遂惘然將散。諸客願記其跡。余應之曰。他日塵埃中。想茲遊而懷此別。不啻若仙遊蓬島。夢升月宮。不分真僞于然疑間矣。於是雖欲再。遂不可易得。籍令得之。亦不可便會此人。則雖無茲記。其可忘茲遊耶。然不可以不忘而不記。以孤左右之請。故遂記之。記不忘於不忘耳。

天王峯祈再同行記

中五月而盡六月。舉郡境無一雨。穀果幾盡枯損。愁毒之氣感傷天和。余懼政之悖而有召。恒惴惴不寧。遂禱于月出之九井。翌日得小雨。越數日。又差員。往禱于務安之駐龍渡及月出天王峯之普濟。其得益少。未潤數里。以此稼愈枯而民愈怨。余益震惕憾恐。卽以月之晦日。將再禱于月出天王峯之普濟。期於必致。時文友松礪公適至也。憂吾之憂民之憂。而許以偕禱。其偕出城而南也。松礪以輿取路。余則馬。五里而輿之。登陟歷險。寸進尺退。僧皆汗蹶。未百步而替擔。至詰朝而稅九峯之新菴。未上嶺而迎拜側路者。化主僧一眞也。僅上嶺而哀縊儼拜者。老丈僧靈彥也。及寺門而被衲頂禮者。石南高僧智憲也。寺在天王之左普濟之下。三面皆山。而巖石林列。彌勒立和尚坐。佛趺而僧向者。逐石狀而成質。殆不可勝記。其北則面天無際。目盡其力。雲霞之往來。山與水之繡錯。杳若架空。浮若點虛。而特呈培塿者。錦城佛甲之邈迤也。龍腰屈繞。隱見曠野者。會津之一曲。竹浦之半面也。坐定。卽與執事諸生者禮。禮畢而虔默作文。執其文。齋沐就寫者。松礪公之代祝。事之謹也。夜四更。偕輿上上而止祀所。先事陳設者。黃戩也。終始執禮者。李希榮也。謁者文瓘。引余而入。遂鞠躬睢盱而進。崔應峴爲奉爐。而奉香左右

者。李沃也。讀祝於左者。松礪公之端拱也。臚呼拜興者。李暎之通謁也。祭畢。還憩九峯。於是老僧智憲。靈彥之徒。卽合掌告曰。昨日吾太守之始到也。天卽雨。夜未半而又雨。祭畢而又雨。雨雖少而三應焉。豈吾太守之誠之至而有以致之歟。余謹應之曰。若以誠之淺深。而致雨之多少者。則自到此得三雨。皆不鳴瓦。唯涓滴如霧露。豈余之誠之淺。而山靈之所以報之者。亦淺歟。雖然。松礪公憂太守憂民之憂。而屈己代祝。益虔不懈之誠若是其愷悌。則豈終默於松礪。而不答以霽霈之深歟。抑自今而待三日者。非其文之語意歟。僧於是齊口對曰。然。吾太守之言是矣。自今至于三日。果如其霽霈者。則雖謂之報太守之誠可也。雖謂之報松礪之誠。亦可也。民之樂是霽霈也。何擇於彼此哉。遂與松礪。笑而同歸。其年月日。癸丑七月初一日也。是爲記。

遊天磨，聖居，兩山記。權石洲評曰。勁悍沈澁深得古雅之法。

莫高且大。物莫與竝之謂天。莫神且化。與天比功之謂聖。天與聖。莫尊乎天下。而兩山者得爲號焉。兩山之與衆山別。不待辨⁹而明矣。夫遊茲山者。莫不由是路。覽茲山者。莫不究是景。而趣有多少。興有淺深。豈非所樂者在我而不在彼。在心而不在目乎。以其樂之如何。而驗其人之如何。則亦可謂知人也夫。始來也。宿于雲居。雲居。古寺也。法殿隆麗。東西有兩室。階下有橫室。又有別殿。俱甚煥炳可觀。由雲居西入僅五里。爰有朴淵。而淵有上下焉。蓋淵之勝。壯天下而魁四海。則非一事一言可褒記而顯稱。以彰其形勢也。下淵則蒼壁翠崖。劍剗刀割。霞褰而霧裂。牆聳而屏立。高可數百丈。廣可數百步。而瀑之垂。政從磨嘴。嘴之懸。政當崖中。飛射噴薄。雷吼電激。壯若天開而霞落。雲霽而龍垂。

9 辦：辨

遂注而爲淵。淵之廣。僅數十步。滿而不溢。停而不進。其深不可測。意者。是之謂無底。直達九泉之幽。旁及四海之遠歟。淵之外。白沙淨石。鋪列瀾漫。翠松碧樹。疏植蔭洞。俯仰未既而神爽骨瑩。若與神仙者。登清都而遊嬉焉。上淵則疏石瀉澗。澗若鏡柄。遂窰而爲淵。淵之廣袤¹⁰。逐石狀而圓方。蓋其圓如盤。而平若削成。中深如鉢。外輪如磨。又有石表。正立鉢中。而水循表若環。凝湛綠淨。鬼潏神蓄。其深雖可測。而魄駭膽掉。不可俯臨。時有脫葉飄泛。則鳥銜去而風擺出。未嘗少留焉。民遭水旱。齊飭虔祈。則無不響應其晴雨。豈所謂神龍者巢其中而爲窟歟。其盈科餘沫。着於磨嘴注而爲瀑。是其逞奇於下淵者也。其傍詭巖怪崖。錯峙而互蹲。脩松短楓。蓋翠而傘紅。於是洞壑之綺麗。峯巒之繡彩。咸凌亂倒影於其中。坐未轉眄而毛骨已習習。恍若羽化乘蹻。排寒門而望群帝也。昧乎栗乎。其不可留矣。卽捨淵。沿澗而上。則巖石之旁挺側竦。若怒若鬪者。殆不可數。而如龜如羊。如熊豹獅子者間之。從石之高低。而水有淺深焉。可坐可翫。可撫摩倚睨者。十步而得八九。左右從者。未嘗以前途相迫。則坐忘起。起忘步。步忘其前進於途矣。深探僅五里。有庵曰觀音。小而古。庵左有窟。甚奇峻。名曰觀音窟。窟之高廣。可容十餘人坐立。而上下三面。皆石也。窟北有二佛。跏趺面南。皆鐫石刻狀。而石之精白。如玉可珍。劖之巧妙。若神可怪。又有石羅漢八九。列于左右。而其壁多名賢手跡。從庵西僅數里。有石曰太宗臺。廣可坐百餘人。面平如場。而中有一竅。乃龍旗所豎之跡。前有大巖。特踞若虎。爽瀨琮琤被石而瀉。深爲潭而淺爲澗。從臺府臨。可斟流觴。其清絕淨洒。恰若丹丘積石之縹緲。而景致杳然。難以模寫其萬一焉。蓋高麗太宗好此石來遊。而石仍爲號焉。探玩未竟。有感慨興亡之懷。殆不可久居。卽下臺覓路。不數里有馬潭焉。潭之奇可異焉。有大石鋪

10 袤：袤

亘三四十步。從高漸下。危滑湛潤。若塗脂瀉膏。立不定武。而水由上經中而下。仍噴注爲瀑。瀑高可八九丈。落爲一潭。深不可窺。其爲雄特奇絕。與朴淵相伯仲。無朴淵則如朴淵矣。層巖危石羅列逞美於前後者。不可殫論。由潭而上僅數里。有曰妓潭。有石削成屏。開障擁水。灑灑循崖而下。潏爲深潭。厚可一二丈。嘗有美娥遊此石。忽墮溺而死。仍有是名云。仿像之際。要冶可念。由潭而上僅數里。有廣石平鋪。傾而不危。滑而不澹。可坐四五十人。有淺灘旁瀉。可飲可漱可濯澣。而旁有老查倒臥當蹊。鱗鬣奮張。蜿若古龍矯首起陸。從石面未百步。有庵曰大興。清爽可愛。出庵直上三四里。有庵曰寂滅。纍磚築墻而磚軸。縱橫爲畫。列成梵字眞言。奇古可玩。墻外有老檜。直上雲霄。高可數百尋而其大稱之。非他山凡木之可方焉。其墻與檜。蓋懶翁之所種築云。其庵則亂後始重構。特絕爽越。甲於諸庵。而佛殿則金碧炫煇。照爛龍鱗。移足躊躇。若蹋琉璃。佛後一室。靜比仙櫳。逍遙坐作之際。斗覺塵慮煙滅。有褒緇老禪。擁經而眠。此外無餘僧矣。庵有東臺。臺之曠絕岌豁尤最。登眺之快。爽於飛仙。其千峯萬壑之羅布於四方者。若雲若霞。若錦繡。若螺髻。人拱鳥戛。獸訛禽息。虎豹伏魚龍立者。爭奇闕巧於一瞋之間。怳惚恂恂。魂與神飄。浩不可指點。而挺起特出。最於群峯者。東有開聖。南有智藏。仁達。北有定光峯。三岐齊立。又有普善峯。峯下有庵。是謂普善庵。庵在半空。杳不可尋。由寂滅西升而下。有曰知足庵。茲庵之絕。難以形容。蓋其勢東背諸峯。西臨大海。升堂快瞰。眼無所礙。唯有日東投穴。金柱萬仞。雲光海色。變態無窮而已。憑瞻俯眈。迴若身升法天。道貫佛心焉。廣庭如砥。屢臨無地。而有文杏一樹高可百尋廣可百步圍可十包者。衛砌護崖而立。枝梢之間。冷颼常瀏瀏。不風而寒。可謂爽矣。佛宇金碧之玲瓏。別殿階除之嶙嶭。岌若神施鬼設而不可象。直與寂滅。相雌雄互甲乙。而清曠高絕則過之。峯之多少錯秀者。不可盡載。而東則曰知足。曰普賢。北則曰彌鞠。南則曰鐵馬。曰清冷。曰松岳。

曰法王。西則曰落月。當案而筆尖。只有一僧居焉。蓋天磨之勢。盡於茲矣。翌日。由庵東攀緣上上。歷險惡透深奧。艱難索路。陟降半日。林薄纖密。上不見天者十五里。僅達玄化寺。寺爲賊火所蕩而餘基蕪沒。有一老僧。重構一殿。未克訖功而方鳩工。擬跼前址者。僧可謂沒量矣。外有石龜負碑而伏。乃前朝學士周佇所撰文也。庭有石塔殘缺。乃化主壽堅所樹植也。由玄化東走五里。石嶺巉屹倚天。飛走之所隳墊。聞其險岌。使人白頭。而掙突攀援。蟻附蠖着。翻汗眩眼。十步九顛。踰時而始陟絕頂。由頂直下。以通于花藏寺。寺蓋西域僧指空所創。而歷兵火。猶獨巍然。可謂靈且壯矣。法殿敞赫宏譎。丹牖懿凜。肅若上界。儼若鬼神。惛悸不可久立。東有先王畫像所御容殿。殿東又有羅漢殿。西有僧堂。廣可百餘間。堂有指空法像。又有諸寮。疊置間列。懸鍾一樓。高爽特揭。登臨四望。眼盡其力。由樓而下。槐庭廣衍。騁睇益曠。周覽未畢。有僧跪進一函。卽開鑰視之。則有貝葉梵經。梅檀瑞香。皆產於西天。而指空所手而置者。信乎其奇且玄矣。由寺從古道。復還于玄化。止宿。翌日。由玄化五里許。冒險觸崢。蹣跚踣踣。愒塞眩狂。有甚於花藏石嶺。登陟未半。怖慄愁悶。進退狼狽者良久。勇敢懸上爪鉤石齒。膝行崖面。寸進尺度之際。歷望北聖居小菴。菴在千峯半頂。雲窓窈窕。霧閣靜深。彤柱粉礎。隱映巖竇。延頸一望。彷彿仙莊焉。辛勤盡日。僅上一巖。其名曰遮日。迴拆天罅。峯憑雲表。舉頭揮手。可捫星斗。六合八垓。無不洞臨。蓋聖居之勢盡於茲矣。緣巖西下僅五里。有傾崖鋪地百餘步。頑巖猛石。錯分通波。水聚崖口。淺不悍流。而無數落木。沈積塞斷。仍與諸僧手決而指疏。以通其湍。則水急瀉崖。倒若建瓴。而紅葉之紛紛者逐波趁沫。珠貫魚聯。次茅¹¹懸溜而下。仍相與笑玩。可謂無事中奇致也。沿緣直下僅數里。有一大巖。前方後銳。狀若萬斛之舟。陸沈于洞

門。儼若天墮地出。而鬼護神呵。以閱終古焉。方覺造物者之所施爲。愈出愈奇。藏至巧於無窮無盡也。歷舟巖數里。有老僧一人。率諸僧十餘輩。整服巾而立。俟伺而候。實皆所知面。而所與返者。實雲居其寺也。噫。始焉。未登乎山而宿于茲。終焉。既登乎山而宿于茲。茲可謂始終之門而本末之路矣。其未始登也。齋志嘿禱。澄慮肅虔。寤寐之間。髣髴與山靈。相接於窅冥者。茲寺也。其既登而降也。心與目營。意與神謀。灑灑與山靈地祇。浮遊於方內。冷冷與仙翁釋子。娛嬉於物表者。茲寺也。然則所尊而慕者。莫天與聖。而自余之遊覽茲山。靈臺洞澈。不隔聖人之胸而澹泊恬靜。嘿與天遊。則余之觸於目而得乎心者。非兩山之助歟。然則山之得是名。非獨自別於衆山。而亦有以勸勵企及乎人哉。人之由是路覽是山者。古今何限。而其胸襟之洒落清曠。與山趣同味。亦有如我者歟。嗚呼。天與聖。可法而學焉。則從茲山返茲山。探山之趣。而究山之名。則其亦不遠矣。從余遊者。阿姪僊。忒二人。朴生兄弟二人。牛峯少士崔某一人。而前導指揮者。牛峯衙吏李希珠其人也。終始肩余輿不怠者。雲居居法瓚其僧也。曰大成。曰持敬。曰惠一。曰信惠。曰海仁。曰法行。曰雙允。曰能印。曰智眞。曰信準。實從焉。是年月日。萬曆乙巳九月初七也。是爲記。

說四首

伯夷死名說

客有難余者曰。一主一賓。而名與實隨之。故尙主而黜賓者。聖人之教也。貴實而賤名者。達士之論也。彼所謂伯夷者。尙其主耶。貴其實耶。當紂之暴亂也。以八百不期之諸侯。順天命而誅獨夫。天地之所不容。

神人之所大快也。有氣有血噍噍之類。莫不延頸而宗周。彼伯夷者。乃獨何人。而以不食其粟爲義。登西山餓且死。而作其歌以悲之。是其死也。非所謂死於名者耶。黜其實而殉其名。若是其章章。而猶且冒義士之名焉。如伯夷者。可謂殉名黜實者非歟。余謹應之曰。客之難是也。客之說然矣。雖然。賓主者二位也。名實者一物也。豈以一物之同者。貴其二位之異哉。客曰。何謂其一物耶。曰。有其實者。名固從之。則名與實特一而二。二而一者也。何以明其然也。堯與舜之爲天下也。有巍巍蕩蕩。無爲以化之實。故於是有巍巍蕩蕩無爲以化之名焉。禹湯也。文武也。暨周公與孔子也。有儉勤寅畏元聖將聖之實。故於是有儉勤寅畏元聖將聖之名焉。然則謂堯舜死無爲之名。可乎。謂禹湯文武周公孔子以死儉勤寅畏元聖將聖之名。可乎。然則伯夷之死於義。而不死於名。從可知也。噫。伯夷之死如是其義也。而吾子強責之以死名。苟充子之說而責之不已。則彼堯舜禹湯文武周公孔子之聖。皆死於名而背其實耶。客所謂名。吾所謂實者。庸知其賓主。又庸知其真僞哉。客無以莊生之名。而亂我實可乎。客笑而謝。

大隱隱心說

名可隱而跡不可隱。跡可隱而心不可隱。大隱者。何以隱心歟。惟被巢。許。卞。武。隱其名而名益高。沮。溺。師。襄。隱其跡而跡益著。然則名固不可隱也。跡固不可隱也。所謂隱者。顯而已矣。隱心不顯。以爲大隱者。抑何人哉。如或隱智若愚。則以愚而顯。隱巧若拙。則以拙而顯。隱聖若狂。則以狂而顯。何則。百里奚之居虞也。以愚而名。大匠之縮手也。以拙而名。箕子之避世也。以狂而名。是皆欲隱其心而名益顯。人莫不知其隱心。是果隱心乎哉。是果隱心而爲大隱乎哉。必也不知其智而愚。不知其巧而拙。不知其聖而狂也。然後方可謂隱心之大隱也。若爾

則不智不愚不巧不拙不聖不狂。生不知爲何人。死不知爲何人者。方可謂隱心。天下古今如此者何限。而世不記。史不書。後不能聞而知。則何以知其隱與不隱哉。苟充其類而責之。則服田力穡。老死其鄉。而人不知者。庶乎近矣。愍之蚩蚩者。皆可謂隱心乎。故曰隱心者。顯心者也。子曰。吾無隱乎耳。又曰。危行言遜。又曰。其默足以容。若其無隱乎心而言益遜。遜又不可。則又從而默。斯可已矣。是豈隱其心者哉。夫龍之隱乎淵也。隱其迹而已。變化雷雨之心。則固未嘗隱也。君子隱見。非猶龍乎。然則隱心云者。非隱心也。乃欺心也。焉有君子而欺其心者乎。

舌織說

織之爲業。巧且勞。有機有杼焉。有絲麻紡績之具。然後紅女始乘而役焉。手揚而足抑之。以梭以襄。爲布爲帛。爲羅紈錦繡而匹之。功訖而翦割焉。以爲衣而衣之。其爲勞有若是。而子安之織。異乎是。不機不杼。不手揚足抑。晨夕之所掉。早夜之所鼓。唯其舌之三寸。而布也。帛也。羅紈也。錦繡也。自衣體而有餘。是何所勞至約而所資至廣歟。由此觀之。士之工於織。賢於紅女遠矣。雖然。子安之勞。專於舌。猶有其跡。而衣食而已。聖人之勞。專於心。經緯天地。而天下四海萬鍾之祿隨之。衣食之微。不足云爾。余故曰。手之工。不如舌之工。舌之工。不如心之工。

圈豚說

畜於家者有六。而豚亦與焉。豚之性。善用鼻。剷土求食。而最喜不潔。沙石之外。無不啖嚼。唯以弭腸爲務。其臍腹必彭亨滿溢。而後偃地頽睡。俄又遑遑如初。晝則喙園吻圃。夜則窺瓮翻盤。禁而不止。且其性少卻多進。鈍退銳前。必擇人之所不欲而爲之。其爲憎憤孰甚焉。又力而

勇。脚短而走疾。喙長而善突。其所觸也。穴籬破障。如貫札焉。家僮隣老。厭苦而莫能制。余乃命奴人數輩。穿室庭之西隅。仍縛柵爲圈。圈如斗樣。甚窄而牢。遂羅其族而納之。其始入也。呼孔如吹角。鬧甚不忍聞者。良久而豚之害卽日祛。於是家少隣里聚首相賀曰。豚倘旣入圈。吾屬可無患矣。卽綴其籬而焚其圃。噫。豚之知識機警。倘在犬羊之間。則人之苦之豈若是。而圈之牢固。豈至此乎。牛馬犬羊鷄。物之至蠢者也。而豚之冥頑不靈。反居五者之下。以致此禍。哀哉。昔。饕餮生而天下愁。混沌在而天下苦。以天下之愁苦。必去此二者。而後始安樂而遂其生。人之無厭者。尙不保如此。況獸乎。世之逐逐爭利。不知罟穽之在前者。盍視我圈中也哉。

辯一首

竹不如肉辨

或問于余曰。孟嘉之對桓溫有曰。竹不如肉。漸近之也。漸近也者。何謂也。余應之曰。夫五音六律。出於性情。而形容其聲。氣者也。何則。有斯人則有斯氣。有斯氣則有斯聲。有斯聲則有斯樂。樂與禮皆備於已。而有通有塞者。物慾之蔽不蔽耳。上古無不通者。聖人者出。然後慮後世之蔽也。故始作律呂焉。以爲樂器而傳之。蓋金石絲竹之類是也。曰。然則何謂遠。而何謂近歟。曰。金石與絲。聽於手指。而手指之動。聽於聲氣。聲氣之發。聽於性情。故其傳也益遠。竹則異於是。聽於聲氣而本於性情。故其發也益近。至於肉也。以其聲氣。聽於性情而已。故其應也益近。此所以絲不如竹。竹不如肉。遠與漸近之有別也。由是觀之。聞五絃之琴。而不盡解慍者。聽南風之歌。則無不解矣。彈之不已。加之詠嘆者。其以

此歟。其以此歟。或者拜手謝曰。颯颯乎。至矣盡矣。子之言。孟嘉不如。

對一首

玄夫對

歲庚子之春三月一日。趙子改其號曰玄夫。是夜有一丈夫夢趙子而告之曰。有其實而有其名。固其宜也。今我玄衣玄巾袴襦鞢鞣之色。無不尙玄。則自號玄夫無愧於實。故彼自外者有以玄夫呼。則余卽應之而不倦。於是呼者應者。莫不快足焉。何則。以其呼以其名。而名以其實故也。吾子則不然。衣白而爲山人。面白而爲書生。且年幾四十。無所成就。頭之未白者無多。全觸諱忌。昧冒訕謗癡之。已白者不少。雖名之曰白夫可也。今乃妄稱僭加。逼余爲號。使之混錯其虛實。此余之所以爲惑而不能無辨於左右者也。抑不知有其說乎。趙子揖而與之座。謹應之曰。客之言宜矣。客之謂是矣。然而客之知我者徒其一而失於其二。則敢不折其二而較其一。以塞夫客之責耶。今世之人。舉皆蒿目張喙。明白是非。而余則嚶嚶然異於俗。一彼此同好惡。唯以玄虛無爲。而以爲尙則其志。不幾玄乎。今世之人。舉皆翦拂搔洗。粉飾媚洗。而余則昧昧焉。處於野。塵垢滿面。而不知頽濯。泥土滿衣。而不知污澣。唯以玄靜無機。以爲質則其體不幾玄乎。且負圖超河之世。不可跂及。則不營營於利慾之境。而藏六運氣。以遠網罟之禍。不亦宜乎。與其入廟而死。孰若塗中之生乎。寧以支枕之役。可易葉上之巢哉。然則體旣玄。志又玄。又得玄夫之道。以爲道號而稱之。豈僭而妄乎。以此推之。吾非逼客。客實逼我者也。客所謂玄者。無乃尙白。而吾所謂白者。無乃尙玄乎。雖然。客與我旣已玄矣。則庸知其真僞。庸知其賓主。又庸知其彼我之分

乎。客無以堅白之說亂我玄可乎。吾將玄而又玄。默守吾太玄矣。客笑而謝曰。玄夫乎。玄夫乎。夫之玄楊子不如。遂覺而記其說。

論 二首

四岳薦鮌論

論曰。四岳。堯之冢宰也。爲堯之所冢宰。與堯治天下。非聖智則莫可。而其使治水也。止於薦鮌。四岳之不明歟。抑堯之知人之難歟。曰。否。其難云爾者。非以爲難而不能知人也。乃其難其慎之意也。豈以四岳之賢。而不知鮌之爲惡而薦之。豈以堯之聖。而不盡明其爲惡。終至於試可哉。當堯之朝有拔茅暈征之頌。豈乏其人材。如鮌之罷訟而終薦鮌用鮌而止哉。蓋堯之意。以爲天之水天下已九年。非一朝一夕之可治。蠶麻九野之功。必須神聖儉勤之德。而神聖儉勤者。唯禹而已。此所以試鮌之才。而責禹之功。以蓋其父愆。而彰懋烈於天下萬世。使舜得其傳。如己之受其傳也無疑矣。何則。彼鮌者。才有餘而誠意不足。績九載而弗集。終被殛于羽山。以神禹之孝之至德之大。誠無所不極。而唯以繼父志述父事。拯濟其萬方爲心者。何所導而不導。何所治而不治哉。此堯之知治導之功。在十有六年之後。非鮌之不成功。則無以激禹之成功故也。四岳之薦鮌而不已者。亦知堯之知鮌之不成功而禹之果能成功也。微堯則不知鮌之不成功而禹之果能成功也。微四岳則不知堯之知鮌之不成功。禹之果能成功。而必薦鮌而不已也。此堯之所以有四岳。而四岳之所以遇堯也。何以明其然也。記曰。上聖。知天地之終始。堯果非上聖而知天地之終始者。曾不知鮌之所以不成功。禹之所以能成功乎。故曰。四岳非薦鮌也。乃薦禹也。堯非用鮌也。乃用禹也。

無外論

至大者。無外之謂也。以天地爲至大可乎哉。曰惡。惡可也哉。夫天地有四方焉。有八極焉。有方有極者。惡乎大之至也。然則天地之外。亦有大於天地者乎。曰至大之大。以無上爲上。以無下爲下。以無涯爲四方。以無外爲八極者。是乃至大之基。而天地之鄉也。夫天地之處是鄉也。奚異夫一鳥卵之寄乎其間也。然則一卵之外。又有何物歟。曰卵外有卵。一而千萬。其卵之衆如人焉。又奚異人衆之處乎其間也。曰。然則卵之下有卵。卵之上有卵。立立矗矗。直如其卵外有卵之纍纍耶。曰。不然。人上無人。人下無人。則卵上無卵。卵下無卵之實。可繫也耳。是以無無氏之處於至大之鄉也。視衆卵之混淪開闔千百易而不已。又奚異夫造物者之觀化於其卵之內。而自以爲無窮無盡無涯無極之大也。然則一卵之中。有日月星辰焉。有山岳河海焉。有草木昆蟲禽獸夷狄萬物之林林焉。有王伯治亂興亡三教五常善惡是非焉。是奚異夫瓮之鷄磨之蟻。而反自以爲小大。規規焉喜怒之。相謾相轢而殘之。以至漸盡磨滅而後已。吁其可悲也哉。或乃矍然退曰。微夫子之言。何以知夫至大之世也。今而後。乃知天地之至小。而無外之至大也。

傳四首

宋生傳

宋生希甲。懷德人也。年既十五六。未有學。鄉里視凡兒。久益輕之。忽奮曰土生世。患無師。不患學不立。吾聞石洲權先生。學博而行峻。志潔而道高。不以其皦皦章明者。俯仰於溷濁。托詩酒優游湖海。以自晦匿

者。是可以爲吾師也。卽日。躡僑負笈。徒步入江華。踰其門而拜之。石洲一見輒奇之。遂授漢書。始甚扞格。若不能解者。唯其聰銳絕等也。朝進而暝益就。不數旬日。誦數十篇。無一字訛漏。其徒十餘輩。帖帖競後先。人各殊學。生常退坐默聽。竝記兼誦。通條貫節。習於其所自業者。日試之無不然。嘗構書齋。躬執役不以爲怠。斲堅運重。常兼數人之力。木工之所未及治者。就而伐之。剗剗之功。與素攻者無別。繕之鋟之。不數日而功訖。木工吐舌曰。力藝俱絕。不可及矣。其與諸生處也。日未出而讀書。詰朝則汲水撥火以自爨。與之共食。既食則臂擔帶鎌。斫山負薪而返。返而又讀。熱松明繼其晷。以之達夜。諸生之懶且慢者。無不激而恪勤。久之。石洲遭厲疫。幾不起。諸相與往來者絕不通。生常夜坐不寐。未鷄而往。止於舍外。俟家人出。謹詰其如何。晝又往治藥。夕又往問寢。夜分乃還。自書齋抵其舍。幾十里。一日之內。三往三還。如是者凡四十餘日。及其小間。則羅雀捕魚。日備其匙箸。而生果繼其病。幾死而甦。又嘗絕糧。切松葉和雪嚙之。其友聞之。裹飯往食之曰。何不以告。曰。不欲煩人耳。凡兩遭兄喪。皆步走以葬之。聞其疾則啼泣不食。聞其訃則設位號哭。哀動隣里。隣里老少涕出歎曰。宋生孝友出於天。無不愛敬。爲文以健倔。不同俗爲務。所著詩。往往逼古。氣力所在。石洲亦稱不及。既而讀周子太極圖說。張子西銘等書。慨然有求道之志。不復以瑰詞麗藻爲意。砥礪刻苦。益以成就爲期。一日如有不樂。其夕寢得夢。自寫形字於空圈幾數百圈。覺且夢。輒如是者迨數日。以此自卜其死。然不以死生撓其中。其後病稍已。辭歸其家。既歸而疾革。走書於其師石洲。蓋其言。不以己之疾痛爲念。愈以其師窮苦爲慮。竟以其疾終。非信道篤事之如一者而能之乎。嗚呼。士之齋志就湮沒者。古今何限。而其所樹立篤確。亦有如宋生者乎。假其年而充其業。則聖賢不難到。而天於宋生。既生之而又夭之。天其有意乎哉。天其無意乎哉。吁其可悲也夫。倘所謂將來果且可畏。則後之如宋生者。亦不少。吾又何

悲哉。雖然。籍令宋生假其年充其業。而世無知宋生之賢如今日。則雖使宋生猶生。不過爲一窮士而止耳。吾雖欲不悲。得乎。然則其生也。其死也。俱可悲而無一不悲者。吾安得不爲宋生悲。而抑吾之悲宋生。其獨悲宋生也歟。

大夫松傳

大夫諱松。少字木公。以其質之木強也。系出徂徠。或曰。其先亦柏翳之後。居山林以高尚見稱。至秦時。兄弟五人俱隱居于泰山之陽。始皇帝東巡而還。猝遇大風雨。依五公而止息。爲其所廕庥。得免沾濕之患。遂大喜。特以大夫爵之。仍以有號焉。大夫之於秦。可謂屈節者非耶。如使大夫有知。當秦之爲帝。直與魯連。蹈東海而死矣。卒不得辭祿逃世。如商山之四老。桃源之主人。如大夫者。可謂貞乎否耶。其後。漢果滅秦。使蕭何治未央。盡赤大夫之族而刀鉅焉。大夫之於秦。名小屈而蒙大僇。吁。其可悲也夫。

太史公曰。余登太山。其上尙有五大夫村。五公之於大夫。非有所干。而彼自外至。則公何屈於秦哉。雖與孤竹二子讓國稱貞者小間。不恥污官。其柳下惠之徒乎。雖然。子曰。歲寒然後知其後凋。其亦有所取哉。

湯婆傳

湯婆。銅山人也。以聖王之裔。世居臨汝之湯泉。其兄孔方有功。封白水。大用於世。唯婆也。口小腹腩。色醜質剛。器甚淺而性甚溫。於人無所不容。每隆冬盛寒。則吸沸熱體。以媚於人。知與不知。邀輒往從。雖帷薄床第之內。不以褻狎爲嫌。一見卽開心見誠。連被而臥。手拍其肩而不爲避。足加其腹而不爲怒。唯以婉順弗拂爲務。於其所招。不爲冷

熱熊。老少貴賤。無所取捨。而唯命之趨。磨肌戛骨而猶固其貞。暗不欺心。無愧無忤。婦道忌佞。而尤長於默。人或不謹其獨。而視若不見。閉口不洩。其體乍寒。則不爲小留。雖遇三黜。亦無愠色。以此無不愛近。其衛足之功。煖脚之勞。雖黃香之孝其親。莫能及焉。唯其貌不稱德而恬退自守也。少不嫁老無子。以煖求容。只卜其夜而廢其三時。寡居無徒。竟爲茶僮爨婢所轢蹙以漏瘡。終于家婆。可謂薄命也夫。

太史公曰。婆非以色事人者。未嘗干人而有容人之量。未嘗諂人而有悅人之才。和而不流。狎而不褻。進退唯其命。如其貞如其義也。世之粉飾狐媚。事一人而二心者。蓋以婆爲鑑也哉。

海上釣鼈客傳

客。不知何許人也。嘗聞古之漁者。釣得大鮪焉。以其釣。釣之。果得大鮪焉。大而無可食者。卽捨其釣而去之。聞古之任公者。釣得大魚焉。以其釣。釣之。果得大魚焉。大而無可食者。卽捨其釣而去之。聞古之太公者。釣得王者。以集鷹揚之功焉。遂執其釣而歎曰。如太公之釣者。可謂善矣。然風雲莫致。王者不常有。則吾寧捨是釣而大之。以日月爲鉤。以虹蜺爲竿。以天子之無義宰相爲餌。釣東海之巨鼈如龍伯焉。以快吾志足矣。遂以其釣。造東海。猝遇橫海之鯨。僅以身免焉。鼈竟不得釣。誤提鉤而死於水。悲夫。

太史公曰。如客者。可謂志大而才不充者歟。鼈雖遇。而其可釣乎。鼈固不可釣。則王者其可鉤乎。只足以懾宰相之心。而終無所樹立。客可謂大言無忌而無所成就者歟。

書 二首

答李澤風書

卽承華牘。滿紙辭意。瀏瀏汧汧。使人爽朗心目。今世豈有是哉。老夫平生。眼孔過高。意謂斯世少邃博。乃今得足下。天之眷斯文於我東。豈偶然哉。唯其珠璣滿篋。棄置於山藪寂寞之濱也。無乃山魃水魅。默訴于上蒼。瞰足下之無而急使回祿而取將耶。雖然。足下齒未暮。神血方壯。刪三百著五千。仙聖尙趁其末年。則其吐奇摘華。輝映四海之日。亦綽綽然有半百。自令以後須勿自珍其驪珠暗藏於深淵之一泓而廣照其通都大邑之眼。以樹千載之大聲。區區老生之望也。所憾者。溢褒鄙作。近於孟浪。竊爲足下不取也。今生之無半辭及於清稿者。以足下之溢褒。爲戒同歸於不確之論。故捨而嘿焉。足下其知之耶。數日談討。塵鄙豁祛。陶陶之樂。暫偷於夙夜之暇。以爲浮世之一幸。天又戲之。卽成弦矢而不欲使雙鳥啾啾。吁其可悵也耳。方坐廳文簿囊愴。非但壓公。酬酢之際。手目不遑。茲不得盡言。端午日。玄夫。頓。

[附元書]

令珍藁一卷。奉閱一晝夜。字核章詳。心目俱勞。竊見藻思動盪。撰法工密。引之杳然無涯。約之森然可象。豈惟當代作者有所退舍。其傳爲不朽之光。又斷然矣。植少不殖學。長又多難。未嘗端坐讀一卷書。其於詞令可知矣。顧有區區微尙。老而不衰。一班之窺。心竊自喜。頃來憂患聰明銷錮。自知不能少進於是也。盡肱少作得句語數千百數。着意用工。非今日怠廢散漫之比。而較諸昨所呈覽數篇。差免醜謬也。仍閉之篋中。自戊午至今日。非有所迫。則懶不能作。自不滿意。亦不復置冊。但求經文數百卷。輟耕之暇。聊爾遮眼。又作觚箒可容數斗。有所耳目心

思。輒書小紙投之。合之亦可得一二卷。庶幾村談雜劇。不至覆瓿也。不意回錄之災。舉爲灰土。使人勃然不能自釋。仍竊念秦政以前。柱下名山之藏。非不多也。其不隨火而免者。獨經傳諸子游者之說。而厥後兵燹之慘。代有之。然舉不若秦火之以法也。而考諸漢、晉、隋、唐藝文所錄名目。今之存者百不一二焉。則知其卓然傑然者。雖千百劫。可有也。洎然炯然者。雖一二世。可無也。由其誦之者廣。藏之者衆。則固不能家搜而人滅也。故植嘗謂有萬歲之文章。六經是已。有千歲之文章。諸子是已。有百歲之文章。鳴於一代小家者流是已。有十歲之文章。作爲科制。隨卽變體者是已。有一歲之文章。隨意拾句。寔劣無傳。如吾輩者是已。況如所謂數千百首一二卷文字者。又甚麼眇拙塞。不足當古人之一毛末。則其不能使人傳之一歲必矣。今以此身主藏而使所愛者護之。一燼之餘。更無餘本。卽身沒之後可卜已。雖使不爲今燼。不過爲前來數十年照影自娛之資。又奚足惜。抑造物者哀其勞而悶其愚。或使之蕩然無遺也歟。卽植雖慍。其自今悔是哉。但念疇昔之夜。辱令公一言之褒。其於評鷺。若有相契一二者。雖非其實。亦不可不謂之知己也。以令公之文章。其傳於後世。必在千百歲間無疑矣。如蒙予之一語。若珍藁所謂房氏書遺失記之類。則植數十年勤苦而未就者。不若令公一舉手之光芒也。是植所以勃然不釋者。將必愉然自快小人腹而君子慮矣。令公其無意哉。植道力不固。想妻少山中號咷之狀。曉寢不寐。呼燈作草。忙亂不及改寫。輒冒呈。伏惟令裁。不宣。己未端陽。李植再拜。附元書

擬嫦娥與織女書

側聞左右以紡績微過。重被皇譴。遽有生離異室之歎。夫婦至情。曷有極哉。第牽君足下尙且無恙。靈緣仙壽與天方畢。則一年一日。猶足萬古。豈以會少別多。憾皇恩之輕重。戚戚嗟嗟。有所怨尤於其間哉。此妾

所以長哀極悲而羨左右之無窮也。如妾尙何言哉。尙何言哉。妾于帝藥。坐犯危憲罪。合萬死。自分糜粉而鴻私曲全。尙延縷息。一殞之外。更何望哉。深居廣殿今幾星霜。而瞻前顧後。抱杵揮斧。丹桂益繁。朱顏益凋。孀魂寡魄。長逝無期。地老天荒。此生良苦。是獨鬱邑而誰與語。倘機杼之暇。相會有路。則庶拭淚迎幃。和血吐辭。而星宮月閣。呵禁孔嚴。相望落落。只增脈脈。憑蟾兔而寄言。望烏鵲之報喜。區區所懷。千萬不盡。惟下女之留意焉。

跋 一首

權石泉遊山錄跋

以公之財之富。得關東遊覽之富。斯已難矣。又其發於詞藻者若是其富麗。天於公。可謂篤其富矣。有一於此。亦足以言富。況兼其三而竝有者。況不以多財而侈其心。不以遠觀而大其眼。不以工文而恃其才歟。斯所以樹其業宏。遠其器識。以享其富益富也哉。世之得一財一藝一偏之見。而便自驕溢而取敗者。盍以公爲鑑也哉。

誌銘 四首

林君習靜墓誌銘

前君友非不多而皆面也。後君友亦不少而皆面也。友不外于其中者唯吾君。而君之滔滔已六載。唯我獨在。則微君爲爲悲。而誰爲悲哉。悲

乎。尙忍敘君事誌君墓。以蓋幽而揭明哉。君眉廣眼如星。豐頰長身。善射御。喫酒不量。醉輒談諠。悉座無不驩洽。忠孝友愛實天出。而義所在。勇蹈忘己。賁育不能遏。壬辰之亂。君以白面。迫於招起。佐倡義使金千鎰。雖以倡義之強。屈首信服。秉忠繩義。綱挈而目舉者。皆其力也。時王世子駐遂安。君自江華奉書入朝。留二日。三上章。固請南下以樹中興之基。卽拜司圖署別提。遂帶職還。一日。以微服徒步入京城。於亂賊中。跟舊舍搜得其廟主。背負以歸。方倡義之東也。君及尙州。疾篤舁歸其鄉。後聞臺城之陷。嘗飲泣恚曰。男兒與人起事。彼死而此生哉。以不得偕沒爲平生慟。逮兩湖盡磔。爲鄉兵所推。踵義提鈴。奮然志在剿膊。遂傳檄奉疏。疏上。特除工曹佐郎。倭橋之役。環冠之師不數見。賊出皆靡。君獨勒孤仰堅不爲動。天將吐舌曰。莫強者。進士軍也。竟爲官軍所轢。不得大集焉。兵罷。卽除茂朱縣監。居判年。如有不樂。棄去。明年。爲天將吳宗道所奏起。以接伴官至海州。聞兄恂以江界府使卒官。號哭欲赴。吳不許。哭晝夜凡六日。吳亦感而哭送。明年。以工曹佐郎。除稷山縣監。無何。以公事抵京。時朝議蹙牛溪先生甚。君慨然曰。牛溪儒所師。而斥於時如此。儒而不救其斥。豈儒哉。儒於是持君議抗疏。當路者怒駁君。君迹屈而志伸。既又得文化。以不能媚權貴被劾。病城南未醫。輿下南鄉。竟以其病卒。年四十八。訃傳。遠近知與不知。莫不驚恫曰。義士死矣。君性仁且毅。親屬向學者。必收誨之。苟飢寒。雖路人。必賑貸如不及。苟不禮。雖壯姪大孫。猶笞責不饒。哀衣大寇。儼坐終日。一室之內嚴若朝廷。家小莫敢仰視。所處無不攝憚。臨事必相戒曰。某在此。得無聞知。嘗居海莊。儲穀別峙。以周知舊婚喪之急。聞李統制舜臣在鳴梁食少。卽鑿儲數百石以資曰。有賊則有食而無食。無賊則無食而有食。聞者義之。天將吳宗道一見。許以死生曰。某義士。及還。托其遺兒。天將李義在順天。亦托其愛妾曰。知君誠信耳。倡義使之子象伸臨死。亦以書托其妻子。君終始保持不爲怠。嗚呼。君之所嘗

許與在一時何限。而韓之齒少君十一歲。才識不逮又萬萬。相見卽許以心。禮待不啻丈友。其舉義事。要我察機。無大小。無不講。忽一日辭去。君惜不得留。追隨數日。不忍別。相視輒拭淚。一軍爲之感泣曰。將軍之誠。不獨忠孝友愛。於交道亦然。每與我相遇則必相樂。相別則必相悲。方其悲樂而不知其所以悲樂者凡幾度。而一悲而更不樂。悲夫悲夫。君志宏器鉅而不大施。官止六秩。力學工文而又不第成進士。又不壽而無子。天於公。所偏篤者。孝悌忠義志與器。而所獨嗇者。祿與壽與子耳。所謂天者其終可恃。而不可謂不可恃乎否歟。吁其可悲也夫。君姓林氏。世居羅州之會津。高麗判司宰寺事諱庇。是君始祖。十三世而全羅兵虞侯贈兵曹參判諱枰。是君曾祖。慶州府尹贈禮曹參判諱鵬。是君祖也。是生嘉善大夫。平安道節度使諱晉。於君爲皇考。娶宣傳官尹覲女。生君。君兄弟五人皆聞士。其長曰正郎諱某。號楓江。以詩鳴。早卒。次曰進士諱某。亦工詩。又其次曰江界。武而文。第四。卽君。而諱某。字子定。號滄浪者。其季也。才益高。隱而早世。皆後君卒。進士與子定。亦吾友也。君諱某。字某。號習靜。妻林氏。司饗直長浩之女。自君卒。哀毀期死。翌年竟死。妾二人。其一。進士梁山龍之女。丁酉亂。逢賊死節。其一。某人之女。二女一子。長女曰勝無。君嘗膝而語我曰。良勝無者。非歟。其季幼。男曰某。尹卒而生。以正郎第四子垺爲後。垺亦善士。克家將有就者。銘曰。忠口信腹。義梁肉忠。耳信目義。聲色趣苟。義決河奔。駟廐非御。堤而圯舍。苟義由蹈。光避祿莫。昭讓不致。嗜而不施。名止干此。非義之匱。雅所遇耳。餓于山者。獨義士歟。

故佐郎愼君墓碣銘

丁巳春正月。承文博士愼天翊。自湖南越千里。訪我於榮川。伏哭請其亡第銘。余泣曰。吾老不死。尙忍銘君弟耶。又泣曰。吾幸不死。尙忍辭

君弟銘耶。遂撰曰。君諱某。字某。遠祖諱翼。仕高麗。官至太子太傅。歷累世多聞孫。高祖諱某。某官。曾祖諱某。某官。祖諱某。某官。皇考諱某。先卒。母夫人德水李氏。考諱某。某官。左議政容齋先生諱荇之孫也。君與其兄博士。同年月日而生。君乃後之故爲弟。自幼端秀若一。雖親屬。必熟視然後辨焉。早孤。以母夫人命。俱學於余。長益勵。詞藻日進。年二十二。赴謁聖科居魁。唱出輦前。儀采縹緲。望之若飛仙。觀聽者莫不聳嘆。以成均典籍歸榮母夫人曰。吾志不過如此。遂解職閑居。尋遺疾。遷次者數年。以醫藥事抵京。拜禮曹佐郎兼春秋館記事官。已而病革。竟死于旅寓。壽二十五。訃傳。知與不知無不嗟惜。娶興陽柳氏。生一子。曰聖夔。甫六歲。君寡言不戲。行止中度。性又至孝。母夫人亦嘗動容。以貧不能供甘旨爲疚。嘗曰。得一縣則足矣。其力疾就仕。無非爲親計。猶不能俯仰隨俗。方治行而疾大病。每計程南望。旣屬纊而有母夫人行。吁其可悲也夫。君之父母禱而得孕。旣生而夢果驗。遂名之以所夢。其死也。母夫人亦夢。後果然。其生與死。果有異哉。嘗聞道家。有屍解放光之說。倘所謂死者。亦有所不泯者歟。是未可知也。遂系之以銘。銘曰。彼不才不賢者。天且以謂不才不賢而不之收。使得盡其年歟。彼才而賢者。天且以爲才而賢而急收之。使不得盡其年歟。彼不才不賢而盡其年者。是果壽於人而夭於天者歟。彼才而賢而不得盡其年者。是果夭於人而壽於天者歟。嘻吾非天之人。乃人之人。庸足喜其壽於天。而不爲悲其夭於人也歟。

房公墓碣銘

公姓房氏。諱德驎。字季雲。業儒。登丙午司馬。竟不第。優游恬曠。老于家。戊戌春。從次子復齡于康翎縣。其冬十二月。以疾終。年七十三。考諱應清。通政大夫行古阜郡守。祖諱漢長。禦侮將軍行忠武衛副司直。

曾祖諱貴和。通訓大夫行戶曹佐郎。其先十餘代聯顯於麗朝。蓋唐太師玄齡之裔也。娶南原梁氏。參奉貴源之女也。先公卒。生男三人女二人。長曰得齡。生一子。曰瑚。登武科。次曰復齡。是嘗爲康翎者。曾以宣傳官。誤彼臺駁。宣祖大王取覽其所書宣傳官廳四字。嘉歎其筆法。批兵曹。卽除守門將。以此名聞朝廷。生三男。曰明建。曰明述。曰明達。次曰後齡。早死。生二男。曰明選。曰明适。女適學生崔敬止。次適參奉晉起禎。公身幾九尺而鬚過腹。傑魁長者。嘗淨好其牀第。列蒔以花卉。揭其亭曰瞻依。眺望所豁。景象咸萃。使節之抵南原者。必先問公名。次問公亭。往來相踵。杯罌日屬者。非直爲溪山風致酒食之樂也。唯以接公眉宇爲喜。唐將沈惟敬。自日本往還天朝。駐節于南原。自以雄俠通遊天下。眼空海宇。視無豪舉。一就公亭。而見公于亭。則鬚眉皓白。風儀偃蹇。知非塵白中人也。卽起敬輪囷。遂以道士衣冠履帶之具。禮而贈之。公嘗服而起處。人之望之。比若仙老。平生好射。射輒中鵠。至老不衰。丁酉之亂。流穴遷次。從食子邑而卒。翌年春。返葬于南原黑城里群秀洞外祖先塋之側。合祔于梁氏卯坐酉向之原。贈通政大夫。承政院左承旨兼經筵參贊官。以子復齡參於原從故也。後十六年。康翎訪我于靈巖曰。子非吾父之族姪而從游吾父之永年者乎。吾父之謝天將衣履之賜。非子之文歟。知吾父之風而文不溢者。唯吾子耳。盍爲銘以彰揭其幽冥哉。余辭謝不得。謹序次族世干左。續之以銘。銘曰。偉貌長身。好鬚之白。今其漠矣。墳草之積。有欲求之。盍稽于石。

奇聘君墓表陰記

公諱孝曾。字伯魯。早服先訓。長益勵。逮先時。成進士。以名家子。聲名甚籍。既孤。侍慈闈盡孝敬。飭弟妹以禮。唯其屢薦不第也。以蔭除迎恩殿參奉。造紙署別提等官。尋遷掌樂院直長。罷歸未久。遭壬辰之亂。時

七道陷爲賊巢。唯南涯獨免。公感憤募兵糧。用盛冬航海。得以時達行在。濟衛士及天兵之乏食者。上面獎忠勞。卽授軍器寺僉正兼行同福縣監。猝被誣詆。旋罷免。丙申。丁外憂。丁酉之亂。弟妹皆沒於賊。而奉先稿獨免者。以先機遠舉故也。俄以風痿不任右。服藥避地者幾十餘年。返築廬于先壟之下。備六載以疾終。享年六十七。曾祖諱禕。弘文館應教。祖諱進。慶基殿參奉。仲子大司諫贈光國功臣德陽君號高峯先生諱大升。娶咸平李氏。實生公。夫人金氏。性仁慤。事育無違德。先公卒。葬在公之右塋。考諱某。某官。祖諱某。某官。曾祖諱某。某官。高麗某官某之後也。生一子二女。男曰廷獻。遵蔭階。除玄風縣監。有一如。適土人。長女。卽余妻也。生二男三女。女皆幼。男曰休。進士。其季。在襁褓。次女適韓履謙。以文科。仍爲德山縣監。時無子。萬曆丁巳正月日。長女婿通訓大夫行榮川郡守趙某。謹記。

通文 一首

淮陽鄉校重修通文

弊治之殘而不邑。必不待條布而灼揣矣。楓岳千萬峯外。邑境俱墟。喘喘焉莫保朝夕者。乃不佞之所大悶。而又有大於此者。鄉校之將傾。因仍不修者積有年矣。覆壓之患迫在頃刻。吾夫予安放之嘆。不幸近之。以如許之物力。非不知無可奈何。苟一日在官。不盡一日之責。而聖廟崩塌之患。出於一日之內。則不佞之重被譴於朝家。重得罪於斯文。有不足恤。其爲聖門之羞辱。顧何如哉。鄴侯之銳意重建。子產之不敢毀校。良以此也。茲不量勢力之無形。構役有日。而供億之出。百無其路。庸敷告于友邦諸兄。蓋所急者。鹽米。其次則魚藿也。倘不吝庾釜之惠。

不濟功役之鉅。則非特同隣周急之義而已也。抑吾之所宗而爲聖者。非諸兄之所共宗而獨吾聖也哉。然則非所以救隣邦也。乃所以救吾聖於將廢之域矣。其爲急孰甚焉。見凡夫之蹈水火。尙不憚沾焦而救之。況聖廟之顛覆也哉。如是而莫肯救者。吾夫子陟降之靈。其不曰汝不能救耶歟。如是而肯救而有濟者。其又不曰魯無君子。斯焉取斯乎哉。其扶植吾道之根基。未必不由於諸兄今日之舉矣。此非淮州一邑之幸。環東土數千里濟濟儒林之一大幸。而莫非我聖上右文興學之化有以致之也。惟左右之恕察焉。

玄洲集

卷之十五

下

記

序

辨

書

墓碣銘

文補 ○記

涵齋記

吾駢君承涵蓄二字於末訓也。遂涵其先訓之義。日用之不足。乃能築齋於先壘之下。扁之以涵而終焉。其涵先訓之涵。涵蓄涵泳之意。盡於斯矣。斯可謂繼先志述先事也。趾美而幹蠱者又吾君。而又能涵先人涵訓之涵。而處其齋。既賁飾而花卉之。穿雙池而菡萏焉。巖松礪竹庭砌之植。洒然若增其爽塏。亦可謂考肯構而子肯堂者。父述祖事。子堂考構之意。藹然涵溢於一齋。則述先肯堂之孝。非吾君之父子耶。然則子孫兩世之孝。無非出於一箇涵字。而俾兩世克孝而無替者。非先生一言之訓有以諄諄詔後而警飭耶。嗚呼。先生之化在斯文者若是其班班。則豈特著於一齋而已乎。雖然。其或適其齋。得乎齋而擴之。則其於士之修己之方。用一涵字而無不足矣。豈唯傳子若孫而止也哉。是爲記。或作豈唯君之一家也哉云云。

文補 ○序

贈尹靜春赴燕京序

夫大智不智。大廉不廉。何則。以其見之高也。不以俗之規規於範圍之內者爲事。經揣越慮而言不能盡明。則非特歸於不智也。有以致不測之謗。以其心之廣也。不以世之竊竊於造次之間者爲念。放志率意而明不能盡察。則非特歸於不廉而已。有以致無窮之誚。何則。以公之智之大而生長乎相公之家者。非不明春秋之大義。而以其言之不能盡明也。終

不免不測之謗。以公之廉之大而服習乎相公之訓者。非不審防閑之大要。而視之不能盡察也。終不免無窮之誚。雖不以自外者撓吾中。亦無柰於俗不信。而茲者。揀自聖衷。特以公爲副於陳奏辨誣之行。天或會公之智且廉。欲直其冤行於此行。而永息其無窮不測之謗歟。何則。以其明於春秋者。陳大義而辨是誣。以其習於家庭者。察奸濫而遠是嫌。則非特中朝外夷服其高義。以至輿臺舌人。莫不畏服其廉謹矣。於是昔之嘖嘖相唱者相與吐舌歎曰。其智如此。故其謹如此也。遂相率而息其謗。咕咕然交口而歎美矣。其無以憧憧往來遼塵薊樹之間者。爲苦於中。而終始勉旃焉。嗚呼。使天下後世。知吾公之明大義。而不以愚智貪廉。而測公於黯黯之間者。其不在於此舉歟。其不在於此舉歟。

文補○辨

德有吉有凶辨

夫德之爲言。得也。得乎天理之正者。是謂德。既得其正。則其德無不吉。書曰。德。吉。否德。凶是耳。夫焉有德而不吉。否德而爲德者乎。竊怪韓愈之言曰。德有凶有吉。吁。自周公。孟子沒後。知德者鮮。則愈之徒豈知德者乎。曰否。愈之所謂有凶云者。非吾所謂德也。吾所謂德。堯舜禹湯文武周公孔孟之相傳者。其爲德也。無不得天理之正。是所謂有吉之德也。彼所謂德者。老莊楊墨佛氏之所爲也。不得乎天理之正而自以爲德。故其德也凶。是所謂有凶之德也。愈之以吉凶言者。豈不然乎。曰。不然。此愈之所以不明乎德之說也。彼老莊之虛無。楊墨佛氏之詭誕。空空也。俱不得天理之正。則其得也。不得也。其德也。非德也。非德之德。豈可謂其德。而強名之曰凶也。故曰不得者。不可謂德。有德者。

不可謂凶。以此推之。如愈者。非唯不識老莊，楊墨，佛氏之非德。而竝與堯舜禹湯文武周公孔孟之德而不知也。惜哉。雖然。經有凶德薄德之德。傳有涼德爽德之德。則愈之有是說。亦不外是矣。世之讀愈之書者。不以辭害義。則是可與入德者也。然則謂愈知德。亦可也。曾謂孟子後一人者。不知是德與非德歟。余故曰。愈非不知德者。乃知德而不能言者也。

文補○書

張良請四皓書

良白四公足下。齷齪所極。兵鬪踵聞。想冥飛遐集。杜機游德。了不知今世之爲何治。第夷狂剋剛。群沸就謐。寰宇拭目蹈舞有日。四公亦嘗有耳。豈不聞聲教垓圯。而尙蹈蹈忘返者耶。況四公之志。非欲遠世。所欲遠者暴。則今日之化。亦謂之不仁者非歟。方戢寧未久。聖陛下春秋倦勤。蓋以牀第衽席之私。寵昵稚少。乃衰暮之恒情。抑非有動本之漸。而所慮以太子之仁恭孝敬。無阿衡朝爽之輔。凡有顧問。動乏佑禔。顧秦餘蔑學。誰可導迪。以塞天下之望哉。若危兆將萌。前星韜曜。則天地宗社之靈。亦不可恃。而終不免亡秦之續耳。自古山林之士。非無意斯世。而世不相與故也。以四公之明。其已忘沙丘之事歟。倘僞詔不飛。公子蘇無受死之舉。則四公之迹。不必如是之遠。而閭左關東尙安堵晏晏。天下四海萬萬無今日矣。有今日之治。而不幸致疇昔之危。則以四公之明。寧疾視不救。如前日遠暴之舉。乃以爲獨善之謀歟。聖陛下自微時。稱道四公之風。每於帷幄講籌之際。未嘗不以高標爲慕。顧戎衣搶攘。不遑束帛而蒲輪矣。今事機如此。四公可幡然速起。以羽翼春宮。則聖

陛下雖有一毫微私。其不以宗社爲輕。而獨不爲平生四公地乎。茲者日長商顏。三秀曄然。圍棋放歌。其趣不孤而適事有難言。機不可失。母尚洗耳之嗇。重缺生靈之望。則脩鍊之方。良亦有所受矣。稍待國事粗定。當謝病辟穀。與四公同游赤松。是所願也。是所望也。惟四公之留意焉。良頓首再拜。

兩先生往復書跋

天於道慮其晦。遂生退溪以彰之。猶慮其不彰。又生高峯而彰之。兩先生難疑答問而道始大彰。則其一言一字無非道者。而湮沈岑寂於囊篋之間。迨四十年。世無得而稱焉。幸賴我奇聘君克孝而能述。經兵火沒家累。遷次流穴數十年間。殘書餘籍。了無存者。而兩先生往來簡牘數百語。特無毫漏而芒逸。則雖神明若有默護。而豈非繼志之誠有以致歟。及今日經營拮据。發斯書於此邑。亦豈非述事之誠有以成之也。然則與其不得勉齊先生之賢而傳之。曷若有幹蠱之能嗣而克明其先志也哉。余故曰。今日之發斯書。非吾家之幸。乃吾道之幸也。何則。吾道之壽。賴斯書而基之。則斯書之發於今日。抑豈非天之慮道之晦而人力有所不及歟。萬曆四十二年姑洗日。

墓碣銘

玄洲趙公墓碣銘

故承政院左承旨玄洲趙公卒後五十九年。其孫龜祥。乃以顯碣請世采。辭不敢。顧有義不敢終辭者。謹敘而銘之。敘曰。公諱纘韓。字善述。漢

陽府人也。鼻祖諱之壽。高麗僉議中書事。至孫諱良琪。十三。爲摠管。破哈丹兵。大被元世祖獎賜。自是襄烈公諱仁璧。良節公諱溫。當本朝興運。式晦式顯。各行其志。名德勳庸。一世無兩焉。曾祖諱邦彥。參判。祖諱玉。縣令。贈參判。考諱楊庭。贈判書。妣眞夫人韓氏。牙山縣監應星之女。公以隆慶六年正月某甲。生。幼有異質。儼然若成人。判書公家法素嚴。公旣服訓。讀書務記覽。才思橫逸瑰奇。殆不可涯涘。名譽益盛。間中司馬試。萬曆三十三年。魁庭試。宣廟奇其文。以御筆批點。特命直赴殿試。始隸成均館爲學諭。陞典籍。歷刑。戶二曹佐郎。拜司諫院正言。由兵曹佐郎。出爲靈巖郡守。未幾罷歸。復拜正言兼知製敎。出爲榮川郡守。比坐事罷拜三道討捕使。時劇盜蟠湖。嶺。朝廷憂之。俾公往治。公出入諸路。間發將吏。督察悉獲捕斬。盜患遂止。褒加通政階。入爲禮曹參議。轉同副承旨。時光海政亂。奸凶得志。金墉之禍方生未艾。公不樂在朝。無何。復求出爲尙州牧使。途中有詩曰。聞來世故心如醉。看到時危鬢已蓬。安得滄波無限月。解官歸作釣魚翁。及至鄭愚伏經世。李蒼石峻在境。相得驩然。嘗共游隣邑鳳笙亭。山水奇邃。酒酣鄭公謂曰。時事罔極。如有菟裘之計。捨此奚適耶。公決意歸休。諸公遂出力。經理精舍。公又爲文而證之。會仁祖反正。奸凶伏誅。諸公皆趨召。公亦秩滿歸。拜刑曹參議兼承文院提調。差朝京使。嬰黃疸症。不克行。旣而帥适叛書至。上南狩。公疾方力。乃得追赴行在。言路以此劾公。未幾。除左承旨。憲官復理其論。竝推銓部。適清陰金公尙憲佐銓。對辭頗峻。憲官引避。至稱公有前愆。蓋指昏朝銀臺事也。夫知人固未易。公旣以當時黜勉一出。爲不慊於志。請外思退甚勤。其平生畜積可見。今乃因緣層激。若務相勝。則殆亦不得公本實而然也。是必有能衷之者。復拜刑曹參議承文院提調。未幾。出爲淮陽府使。時詔使姜曰廣王夢尹至。僉使北渚金公塗。啓公有華國才。命召。沿途酬唱。多出公手。仲氏玄谷公緯韓。亦以襄陽守竝召。一時榮之。八拜銀臺。乃以病聾疏辭。復

歷禮曹參議，出爲善山府使。秩滿歸卒。患面疽不起。實崇禎四年九月某甲也。葬于交河孟谷卯坐之原。公天資絕人。氣岸魁偉。廓而能約。肅而能和。履家以禮。臨政以仁。恬於勢利。冰檠自厲。加有文武材略。出入中外。聲績甚茂。可以輔翼當世。顯功名於春秋。竟亦未究也。少事親至孝。值倭難。背負母夫人。轉避山谷間。不闕甘旨。見者皆服。每以仕不逮養。爲終身痛。對珍味。悲咽不忍食。有一娣窮居。奉之如親。至老不懈。燕居。必夙興櫛櫛。正襟端坐。望之凜然不可犯。教子弟嚴而有法。閨庭之間。內外斬斬。若朝廷焉。累典雄府。平恕威重。民懷吏畏。每多去後思。至其鋤奸剗煩。遇事風生。削平萑苻。常有餘裕。罷官之日。行囊垂罄。常丐貸於人。素履然也。喜讀先秦古文。以極群書。靡所不窺。其爲文章汪洋大肆。衆體俱備。鉅細隨意。尤長於騷賦駢儷。識者以爲能得楚漢六朝遺法。要其所就。固非可以一時小家論者晚好臨池深造鐘王蹊逕迥揮洒。人必藏而珍之。是故。所友善如石洲權公韓，東岳李公安訥，疏庵任公叔英。號稱藝苑鉅匠。而莫不斂衽推先。後進如李白軒景奭。吳天坡翻，慎素隱天翊輩。率從公愛業講畫以成名焉。識量宏遠。性雖嫉惡。然未嘗揚人過失。唯聞深河兩元帥生降。憂憤特甚。以詩見志。其曙於大義類此。在朝未嘗作權要迹。所至輒與儒士賢豪游。往往有物外高趣。最留意斯文。嘗刻高峯。退溪往復書尺。以及遺文賴而不墜。又躬祭金公澍，河公緯地。仍創來格廟。以祀金公。方陳俎豆。有靈虹起自舊墓。直抵廟門。觀者異之。公几再娶。前夫人柳氏。持平激之女。貞淑有婦道。丁酉之難。遇賊自剄死。葬于羅州草谷。後夫人奇氏。僉正孝曾之女。卽高峯先生大升孫也。莊嚴有法度。事公終始無違。庚子九月卒。年八十二。耐葬公墓左。生二男二女。長休。縣監。次備。校理。昆季以文行名。相繼早世。人多惜之。女適李尙弼。縣監。洪處大。知事。內外孫曾總若干人。銘曰。

世稱詞章。於道不尊。屈馬徐庾。夫豈輕論。惟彼政能。人輒競長。亦

有大者。張趙龍黃。公於二事。昭在耳目。縱饒軒輊。而莫能椽。最是居家。孝與禮須。矧所扶植。卓節宏儒。志存名教。行著秉彝。斂茲衆美。乃困鴻罹。高名奇藝。完者或難。庶久而明。非所敢權。鬱鬱交山。帶河襟海。我揭其迹。俾無後昧。

崇禎紀元後六十三年庚午六月。潘南朴世采。謹撰。文集一件。崇禎八十三年己丑三月。藏于赤裳山城。

跋

玄洲集跋[慎天翊]

我東雖稱小華。地實偏薄。前後詞匠大家云。皆未免局量淺狹。倘非風習所移歟。先生述作。獨超然橫越。直得楊馬真派。籠駕王楊盧駱。仍之李杜韓柳之體。异乎偉哉。天翊自稚少。得侍軒屏。不但於文辭爲然。廓而約。肅而和。履家以禮。牧民以仁。既賢且才。何施不宜。而適值昏朝。荏苒下列。翰墨之不得售。固其所矣。命也奈何。季子備以校理。出倅任實。幸哀刊若干首。以圖不朽。知余迷蒙。以其門人之故。委書請跋。辭謝不獲已。略陳如右。通政大夫弘文館副提學慎天翊。謹跋。

識

玄洲集識[趙龜祥]

先祖考遺稿。先君子莅任縣時入梓。藏其鈐板於客館矣。己酉年。客館回錄。鈐板竝爲

灰燼。不肖孫龜祥。惟恐久而失其傳也。更以鑄字。印出百餘件於茂朱府。今頒於祖考子孫及若干親舊間。仍識其始末焉。時崇禎後再庚寅也。

율근이

이관성(李灌成)

고려대 석사, 원광대 박사를 졸업하였다. 현재 한국호남학진흥원 연구원으로 있다. 역서로 《두시경전》과 《예원치언》이 있다.

호남선현문집 국역총서 ②

현주집 玄洲集 하下-2

인쇄 2019년 8월 23일

발행 2019년 8월 28일

발행처 (재)한국학호남진흥원(원장 이종범)

62383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152번길 53-27, 4층

전화 062-603-9600 팩스 062-941-6705

홈페이지 <http://hiks.or.kr>

저자 조찬한

역자 이관성

편집제작 도서출판 사람들

61487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전당로23번길 3-2

전화 062-227-7820 팩스 062-227-7823

비매품

ISBN 978-89-98495-31-2

본 도서는 문화체육관광부 2019년 호남한국학진흥 사업의 지원으로 발간되었으며, 이 책에 실린 글과 사진은 (재)한국학호남진흥원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전재할 수 없습니다.